

# ASIA'S UNKNOWN UPRISINGS

VOLUME 2

---

PEOPLE POWER IN THE PHILIPPINES, BURMA,  
TIBET, CHINA, TAIWAN, BANGLADESH, NEPAL,  
THAILAND, AND INDONESIA,  
1947–2009

GEORGE KATSIAFICAS

[번역]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들

제2권

필리핀, 버마, 티벳, 중국, 타이완, 방글라데시, 네팔, 태일랜드, 인도네시아의 민중권력  
1947-2009년

조지 카치아피카스

이 책을 봉기의 열사들에게 바친다.

이름없는 사람들

우리는  
이름없는 사람들이다.  
사진도  
그림도 없다.  
우리의 과거를 기록할  
우리의 선조들은  
우표를 수집하지도 않았다.  
거리의 어떤 벽에도  
우리의 이름은 없다  
공공의 게임에는  
우리에게 주는 상은 없다

우리는  
이름없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선조들도 마찬가지로였다.  
고통의 세월이 우리를  
과거와 연결시킨다.  
우리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우리의 세계는 광활하다.

우리는 이름없는 사람들이다.  
침묵은 우리의 가면이다.

바실 페르난도, 1970년

차례

표 목록  
도표, 그래프, 지도 목록  
약어

들어가며

제1장: 봉기의 세계  
아시아의 민중권력봉기  
1968년에서 19998년까지 민중봉기  
전지구적 민중력  
1968년에서 1998년까지: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몰락  
헌팅턴의 제3의 물결에 대한 재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데올로기와 과학  
봉기에 대한 평가  
다가오는 물결

제2장: 필리핀  
마르코스 체제  
베니노 아키노 암살  
사기선거  
군부내 반란  
민중권력의 등장  
최후의 전투  
제1차 민중권력의 국제적 여파  
아키노정부  
라모스에서 에스트라다까지  
제2차 민중권력: 에스트라다에서 아로요까지  
ESDA 3: 가난한 민중의 권력

제3장: 버마  
8-8-88  
평의회의 권령장악  
테르미도르: 철권통치  
1988년 이후의 긴 여정  
2007년 “샤프론” 혁명

제4장: 티벳  
1959년 봉기  
망명과 점령  
1980년대 후반  
지속적 저항

제5장: 중국  
티아난먼 사건에 대한 문화혁명의 기여  
경제개혁  
1989년 위기  
학생들의 선도  
공격받는 학생들  
단식 농성자들의 쿠데타  
티아난먼 광장본부의 총사령관  
계엄령에서 6월 4일 유혈사태까지  
봉기 이후  
탄압 속의 번영  
지속되는 저항과 국가통합

제6장: 타이완  
1947년 봉기와 학살  
“침묵의 세대”에서 카오슝 사건까지  
풀뿌리 저항과 계엄령의 종식  
민주화 공세  
야생화wild lily 학생운동  
민주화 이행을 향하여

제7장: 네팔  
네팔의 시민사회  
자나 안돌란의 준비  
정당과 민주운동  
파탄의 해방  
협상과 타협  
미완의 1차 자나 안돌란  
임시정부  
마오주의의 공세  
2002년 10월 4일 왕정 쿠데타  
2차 자나 안돌란 - 2006년 록탄트라 안돌란  
힘겨운 수확  
누가 권력을 장악했는가?

제8장: 방글라데시  
피로 얼룩진 방글라데시의 탄생  
학생들의 전면 진출  
방글라데시 학생권력  
민주주의의 발전  
여성운동  
의류노동자들의 계급투쟁

제9장: 태일란드  
1973년 학생반란  
봉기 이후의 고양  
1976년 학생 대학살  
타이식 신자유주의  
1992년 “검은 5월”  
5월 17일의 파국  
1992년 검은 5월의 결과  
“핸드폰 폭도”  
1997년 민중의 헌법  
1997년 IMF위기  
붉은 셔츠와 노란 셔츠

제10장: 인도네시아  
IMF 위기  
198년 학생봉기  
레포르마시 시대

제11장: 민중권력과 그 한계

전지구적 과제  
1968년에서 봉기 2.0까지  
아랍의 봄  
에로스 효과  
에로스 효과의 작동

제12장: 코뮌 - 자유의 현상학적 형태  
파리코뮌에서 광주 민중봉기까지  
두 봉기의 차이  
군부의 역할  
광부봉기에 파리코뮌의 역할  
표트르 크로포트킨과 민중봉기

제13장: 조직과 운동  
미학적 전위  
정치적 전위  
봉기 2.0 - 가상코뮌의 건설  
NGO의 역할  
NGO와 변화하는 미국개입의 성격

제14장: 변화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얼굴  
혁명의 확대된 기반: 중간층과 룬펜 프롤레타리아트  
성과 봉기  
여성적 원형과 민주화  
안티고네와 춘향

제15장: 비교적 시각에서 본 봉기들  
경제적 요소  
투쟁의 정점과 민주화의 심도  
심도의 측정  
군부의 역할과 체제 내부자  
시민사회  
자율과 집중화

제16장: 문제는 체제다  
최상의 것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세계체제의 구조적 과제  
첫 번째 구조적 과제: 전쟁과 군사주의  
두 번째 구조적 과제: 거품과 폭발  
세 번째 구조적 과제: 억만장자와 거지  
네 번째 구조적 과제: 이윤과 공해  
합리적 체제를 향하여  
지속되는 전지구적 봉기

## 인터뷰 및 출처

### 표

- 표 1: 민중권력 봉기로 축출된 독재자들
- 표 2: 아시의 민중권력 봉기, 1986년 ~ 1998년
- 표 3: 필리핀의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 표 4: 년도별 파업 및 파업노동자 통계 (필리핀)
- 표 5: 필리핀의 파업 1983~1987년
- 표 6: 민중권력 1과 2의 비교
- 표 7: 필리핀의 NGO와 노동조합 1984~1997년
- 표 8: 평균 파업 숫자 (필리핀)
- 표 9: 1인당 평균 식량소비
- 표 10: 신장 및 체중 평균미달 어린이의 비율 추정치
- 표 11: 티벳 사원 및 승려 숫자의 중국정부 추정치
- 표 12: 실질성장율과 물가인상율, 1985-1991년 중국
- 표 13: 현대와 봉건 중국 권력구조 비교
- 표 14: 시위 숫자, 1989년 5-6월
- 표 15: 실질성장율과 물가인상율, 1997-2006년 중국
- 표 16: 사회적 소요, 1993-2005년
- 표 17: 국내 총생산(GDP) 분배율, 타이완
- 표 18: 타이완의 노동쟁위, 1965~1986년
- 표 19: 타이완의 시민사회단체의 성장, 1980~2001년
- 표 20: 타이완의 NGO
- 표 21: 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 입학
- 표 22: 전국 선거결과 1991년 5월
- 표 23: 1,2차 자나 안들란 비교
- 표 24: 2008년 제헌의회 선거결과
- 표 25: 방글라데시 공식등록 NGO 숫자 1990~2006년
- 표 26: 타일랜드의 파업 1972~1980년
- 표 27: 해외직접투자 (백만 달러)
- 표 28: 농촌의 항의시위 1992년 5월 20일
- 표 29: 아체의 폭력사태 1999~2002년
- 표 30: 초국적 사회운동조직의 숫자 1973~2003년
- 표 31: 현대 아시아의 안티고네
- 표 32: 봉기전 물가상승률과 GDP 성장율
- 표 33: 봉기시의 1인당 GNP
- 표 34: 도시시위의 정점
- 표 35: 봉기 동안의 사망자수
- 표 36: 은행위기와 금융부문의 통제완화
- 표 37: 세계사회포럼 참가자

### 사진

필리핀 민중의 본능이 마르코스 축출을 감지하다.  
반란군 지도자 후안 폰세 엔릴레가 먼저 미국과 일본대사 면담을 요청하다.  
목주를 두른 수녀들이 마르코스의 군대에 맞섰다.  
공적 공간의 대대적 점거로 마르코스가 탱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TV방송국을 통제하기 위해, 반란군 군인들이 마르코스에 충성하는 정부군을 사살했다.  
EDSA 2의 3일째, 민중들이 거리에 홍수처럼 밀려나왔다.

8-8-88에 수백만명의 버마인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결국은 실패했지만, 군인들에게 시위대에 참여하고 설득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일부 시위대가 군인의 발에 입맞추었다.  
 승려들이 버마봉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어디든지 아웅산수키가 연설하는 곳에는 수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티베트의 뚝-뚝 승려들  
 수천명의 여성들이 달라이 라마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을 모았다.  
 참파 텐진의 영웅적 행위가 라사 거리에서 열광적 환호를 받았다.  
 승려들이 1988년 3월 5일에 시위를 주도했다.  
 베이징 시민들이 거리를 봉쇄한 상태에서 정부에서 파견한 군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베이징에 언론이 대대적으로 집결하자 활동가들이 명성을 얻으려고 경쟁했다.  
 불타는 군용차량은 베이징 가투의 강도를 보여준다.  
 류귀깅 병사의 훼손된 시신  
 1947년 타이완 원주민 수천명이 학살당했다.  
 1986년초 타이완의 계엄법 항의사태로 정부는 수십년간 지속된 비상사태를 해제하기로 약속했다.  
 수천명의 학생들이 장카이셴 기념관 광장을 점거했다.  
 해방구 파탄에서 사람들이 전략과 전술에 대해 자유롭게 연설했다.  
 키르티푸르 민중들이 통행금지를 무시하고 모여서 대책을 토론했다.  
 농기구로 무장한 여성들이 거리에 나섰다.  
 여성들이 보안대 경찰들에게 꽃을 주면서 부드럽게 대하라고 설득했다.  
 마드하브 쿠마르 네팔이 칼란키에서 민중들에게 연설했다.  
 2006년 6월 2일 카투만두에서 열린 마오주의자들의 승리 집회  
 학생 자하드의 시신이 다카 대학으로 옮겨지고 있다.  
 1990년 학생운동이 운동진영의 단결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에르샤드가 타도되자, 여성 TV스타들이 축하연을 열었다.  
 타마사트 대학의 집회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넘은 수준으로 커졌다.  
 국왕과 왕비의 초상화를 들고서 미소짓는 젊은이들이 “기쁨의 날” 행진을 이끌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사살당했다.  
 방콕에서 탱크부대는 군중을 해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군대의 공격이 계속되자, 소그룹들이 상징적으로 중요한 타겟에 방화했다.  
 1976년 경찰, 구인, 민간인 무리가 탐마삿 대학 학생들을 공격했다.  
 “오토바이 군대”가 거리를 휩쓸었다.  
 군인들이 군중 수천명의 옷을 벗겨 묶었다.  
 1996년 7월 28일, 수천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독재에 맞서 봉기했다.  
 수하르토가 협정서에 서명하는 장면을 IMF 미셸 캉드쉬 총재가 지켜보고 있다.  
 군인들이 학생들과 협력해서 의사당을 점거했다.  
 수하르토 타도 이후, 교사들이 대대적으로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 도표

- 도표 1: 오렌지혁명의 계보, 1968~2006년
- 도표 2: 타일랜드의 쿠데타 1932~2006년
- 도표 3: 타일랜드 전국학생단체
- 도표 4: 타일랜드 빈민회의의 구조

## 약어

AHRC Asia Human Rights Commission 아시아 인권위원회

AID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개발기구
BB	Black Bloc 블랙블록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금융기구
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전국민주재단
NGO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비정부기구
PGA	People's Global Action 전지구적 민중행동
POs	People's Organizations 민중단체
WB	World Bank 세계은행
WSF	World Social Forum 세계사회포럼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YMCA	Young Men's Christian Organization 기독교청년회
YWCA	Young Women's Christian Organization 기독교여성청년회

필리핀:

CPP	Communist Party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공산당
EDSA	Epifanio de los Santos Avenue 산토스 에피파노 대로
GABRIELA	General Assembly Binding Women for Reform, Integrity, Leadership and Action 개혁, 총체성, 지도력과 행동을 위한 여성총회
KOMPIL	Congress of the Filipino People, <i>Kongresong Mamamayang Pilipino</i> 필리핀 민중회의
LABAN	Philippine Democratic Party 필리핀 민주당
MNLF	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 모로 민족해방전선
NAMFREL	Citizens' Movement for Free Elections 자유선거 시민운동
NDF	National Democratic Front 민족민주전선
NPA	New People's Army 신인민군
RAM	Reform the Armed Forces Movement, <i>Rebolusyonaryong Alyansang Makabansa</i> 군부개혁운동
TUPAS	Trade Union Congress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노동조합회의
UNIDO	United National Democratic Organization 민족민주단체연합
WAND	Women's Action Network for Development 개발을 위한 여성행동 네트워크

버마:

CPB	Communist Party of Burma 버마 공산당
GUB	Government of the Union of Burma 버마연합정부
NCUB	National Council of the Union of Burma 버마연합 전국평의회
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전국민주동맹
RIT	Rangoon Institute of Technology 랑군공과대학
RU	Rangoon University 랑군대학교

티벳:

CCP	Communist Party of China 중국공산당
PLA	People's Liberation Army 인민해방군

중국:

ACFTU	All 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 중화노동총공회
ASU	Autonomous Student Union 자치학생회
BASU	Beijing Autonomous Student Union 베이징 학생연합
BAWF	Beijing Autonomous Workers' Federation 베이징 자치노동자연합



타이완:

DPP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민주진보당  
KMT Kuomintang 국민당  
TNU Taiwan National University 타이완 국립대학  
SC Settlement Committee 정착민위원회

네팔:

COCAP Collective Campaign for Peace 평화단체 캠페인  
CPN-M Communist Party of Nepal-Maoist 네팔 공산당-마오주의파  
CPN-ML Communist Party of Nepal-Marxist Leninist 네팔 공산당-맑스-레닌주의파  
CPN-UML Communist Party of Nepal-United Marxist Leninist 네팔공산당-통합 맑스-레닌  
주의파  
FDO Feminist Dalit Organization 여성주의 달릿조직  
INSEC Informal Sector Service Center 비공식부문 서비스 센터  
MRD Movement for the Restoration of Democracy 민주회복운동  
NC Nepali Congress Party 네팔의회당  
NUTA Nepal University Teachers' Association 네팔 대학교원협회  
RNA Royal Nepalese Army 왕립네팔군  
PLA People's Liberation Army 인민해방군  
SPA Seven Party Alliance 7대정당연합  
ULF United Left Front 좌익연합전선  
UPF United People's Front 인민연합전선  
UNPM United National People's Movement 통합네팔민중운동

방글라데시:

AL Awami League 아와미 동맹  
APSU All Party Students' Unity 전당파 학생단결  
BNP Bangladesh Nationalist Party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JSD Socialist National Organization 사회주의 전국조직  
RAB Rapid Action Battalion 기동투쟁단

타일랜드:

AOP Assembly of the Poor 빈민회의  
CFD Confederation for Democracy 민주총연맹  
CPD Campaign for Popular Democracy 민중민주주의 캠페인  
CPB Crown Property Bureau 왕실재산청  
CPT Communist Party of Thailand 타일랜드 공산당  
FCT Farmers Confederation of Thailand 타일랜드 농민총연맹  
FIST Federation of Independent Students of Thailand 타일랜드 독립학생연맹  
FLUT Federation of Labor Unions of Thailand 타일랜드 노동조합연맹  
GLBT Gay, Lesbian, Bisexual, and Transgender Movement 남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운동  
ISOC Internal Security Operation Command 국내안보 작전사령부  
NARC National Administrative Reform Council 국가행정개혁협의회  
NSCT National Student Center of Thailand 타일랜드 전국학생센터  
PAD People's Alliance for Democracy 민주주의 민중동맹  
PDP Power of Virtue Party (Palang Dharma Party) 미덕의힘 당  
PPP People Power Party 민중권력당  
SFT Student Federation of Thailand 타일랜드 학생연맹  
UDD United Front for Democracy Against Dictatorship 반독재 민주주의 연합전선



들어가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2000년 5월 광주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제안을 받게 된 데서 비롯되었다. 그날 저녁 동티모르의 카를로스 벨로 주교가 맞은 편에 앉아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내 눈을 깊이 들여다 보았다. 뛰어난 지성에 바탕한 겸손함으로 벨로 주교는 나에게 아주 정중하게 말했다. “교수님,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의 사회운동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 아시아에 대해 책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이 단순한 제안 때문에 내 인생의 다음 10년은 예상치 못한 전환을 맞게 되었다.

2001년과 2008년 나는 광주에서 지냈는데, 나의 이전 저작들의 번역으로 다른 외국인들이 거의 경험하지 못한 문이 열렸다.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수십명의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자기 경험의 뉘앙스를 진지하게 설명했으며, 내가 미지의 영역에 발을 딛도록 안내해 주었다. 한국을 기지로 삼아, 나는 동아시아 지역을 폭넓게 여행했으며, 자주 광주에서 처음 만났던 활동가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한국의 주요한 인물들을 소개시켜 줬다. 그들은 미국(우리는 민중들로부터 단지 주변적 지지만을 받고 있다)보다 훨씬 더 발전한 투쟁에 대한 시야를 열어줌으로써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을 뿐 아니라, 수십년에 걸친 민중들의 희생과 역경에 대한 기억 때문에 10여년에 걸쳐 이 책을 완성할 수 있었다.

남한의 운동은 동아시아 전지역에서 민중투쟁의 형성에서 광주의 역할로 인해 아시아 민중권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내가 1권에서 지적한 것처럼, 광주의 민중봉기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군부독재의 궤적으로부터 남한이 벗어나도록 촉발했다. 19일에 걸친 1987년 6월항쟁과 더불어, 광주는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존재이유이다. 한국의 풍부한 20세기 봉기의 역사가 이 책에서 분석한 다른 아홉 나라의 사례에 적지 않은 의의를 갖고 있지만, 2권을 이해하기 위해 1권을 꼭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독자들은 2권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다룬 많은 봉기들이 독재자들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어떤 봉기도 참가자들의 최대 열망을 실현하지는 못했다. 많은 경우에 글로벌 기업들이 봉기 주체들의 등을 타고 넘어와 과거에 닫혀있던 시장을 열고 과거에 자국 자본가들에게 고용된 민중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 내 견해로는 이것이 사회변혁의 수단으로 풀뿌리운동의 의의를 과소평가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미국혁명에서 프랑스혁명과 러시아혁명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거의 봉기도 그 주체들이 가장 원하는 꿈을 성공적으로 쟁취하지는 못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과거의 혁명들이 “체제를 분쇄하기보다 완성”했지만, 민중봉기들은 수백만 민중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켰고, 개인과 집단의 자유를 증가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감사해야 하며, 특히 참여주체들이 지불한 엄청난 희생을 고려하면 더욱 감사해야 한다.

전지구적 1968년운동에 대한 이전의 연구에서, 필자는 상호연동된 투쟁과 열망이 국제적으로 동시에 출현했음을 밝혔고, 이 현상을 에로스 효과라고 이름붙였다. 아주 놀랍게도, 1986년에서 1998년까지 아시아의 민주화 운동에서 에로스 효과가 증대한 차원이었음을 발견했다. 이 책의 사례연구를 이용하여, 나는 에로스 효과에 대한 경험적 이해를 확장했고, 에로스 효과에 대한 나의 분석을 심화할 수 있었다.

나의 희망은 미래에 학자들과 활동가들이 이 작업에 기초하여 그 단점을 수정하고 외견상 상이한 운동들에서 새로운 연관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두 권의 책이 아무 사소하더라도 미래의 전지구적 봉기의 의식적 동기화에 기여하고, 미래의 봉기가 군사화된 민족국가와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족쇄를 파괴하도록 힘을 보태는 데 도움이 된다면 대단히 기쁠 것이다.

이 책은 이름을 밝히길 원치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빛을 지고 있다. 수많은 다른 사

람들, 네팔의 전대통령 람 바란 야다브, 전국무총리 마드하브 쿠마르 네팔, 필리핀 상원의원 그레고리오 호나산 등 저명한 정치지도자들은 때로 아주 까다로운 나의 질문에 시간을 들여 답해주었다. 인터뷰 응답자의 목록은 부록에 포함되어 있다. 나는 한국 학술진흥재단과 비스 트라인 연구장학재단의 재정지원과 웨스트워스 공대의 안식년 휴가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특히 웨스트워스 공대 도서관의 직원인 댄 오코넬과 피아 로마노는 끊임없는 도움의 원천이 되었다. 풀브라이트 고급연구장학금 덕분에 2007-2008년 한국에서 지내면서 연구할 수 있었다. 수년간 광주의 전남대학교 사회학과와 5.18연구소는 나를 방문교수로 초빙하여 상당히 중요한 지적 공간을 제공해주었다.

이 책을 완성하는 데 많은 동료들이 지적 지원을 제공했고, 자주 비판적 개입도 해주었다. 특히 빅터 윌리스, 제임스 페트라스, 바실 페르난도에게 감사하고 싶다. 이들의 주의 깊은 독해와 정중한 제안은 자주 내가 생각지 못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했다. 에디 위엔, 잭 힐, 고빈룽, 티오드로스 키로스, 로렌 골드너, 데이비드 마르티네스는 귀중한 격려와 충고를 해주었다. 조디 고메즈는 편집상의 도움을 주었다. 내가 방문한 많은 나라에서 활동가들과 학자들의 도움을 받는 행운을 누렸다: 필리핀의 피트 라혼과 메리 라셀리스, 버마의 산아웅, 아우키아우소와 투라, 중국에 대해서 김진호와 김재관, 타이완의 마이클 샤오와 프랑크 첸, 방글라데시의 사만타와 존 크리스티안센, 프라브 아키와 아타우르 라만, 네팔의 수레시 포카렐, 람 찬드라 포카렐, 비말 샤르마, 바와나 바타, 룩 라자 바탈, 타일랜드의 소르 라타나와 지라난 한탐룽위트 등. 한국의 동료 박해광, 김찬호, 나일성, 나간채는 이 연구를 완성할 나의 역량을 갖추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 특별히 나의 딸 카산드라에게 감사한다. 그녀는 마지막 몇 달간 내가 이 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카산드라와 달랄은 엄청난 지지와 활기찬 대화를 제공했다. 내 아내 신은정은 노력의 모델로서 그녀의 반려는 내 자신의 노력에 자양분이 되었다.

메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서  
2001년 9월 21일

[번역]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들 2권 1장

## 제1장: 봉기의 세계

“동유럽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소수를 예외로 하면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은 이미 당연히 도달했다.”

- 새뮤얼 헌팅턴, 1984년

우리, 늙은 이들은 다가오는 혁명의 결정적 전투를 결코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 V.I. 레닌, 1917년 1월

봉기는 끔찍한, 아름다운 사건이다. 봉기는 아주 예상치 못하게 발생해서 봉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것만큼 참가하는 자들도 놀라게 한다. 우리가 깨닫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혁명적 봉기에 의해 만들어져 왔다. 미국혁명에서 러시아혁명까지, 광주 봉기에서 아랍의 봄까지, 봉기는 놀라울 정도로 규칙성을 가지고 발생한다.

1980년대까지 동아시아의 독재정권들은 수십 년 간 집권하고 있었고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반란의 물결이 곧 그 지역을 바꾸었다. 이들 봉기는 아시아인들이 민주주의보다 권위주의 정부에 더 만족해한다는 흔한 편견을 날려버렸다. 이 봉기들은 더 많은 자유와 시민참여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다. 이는 또한 국제화된 자본에게도 기회였다. 이 책의 목표 중 하나는 이런 변화가 지닌 모순적 성격과 이 변화를 가져온 세력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들』은 질서의 세력들과의 대치의 순간에 민중들의 상호작용 형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나는 수십 만 민중들의 행동이 자유의 구체적 역사를 묘사하는 수단으로서 스스로 말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주 반복되는 “민중이 역사를 만든다”는 문장은 민중봉기에 대한 집중 없이 이해할 수 없다. 1권에서 나는 사회운동의 프리즘을 통해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연속적 세 왕조가 거의 500년 간 지속한 독특성을 가진 나라인 한국에서, 장기 20세기는 비견할 바 없이 풍부한 봉기와 격변을 낳았다. 1894년 일본 식민주의에 맞선 농민운동에서 미국산 “미친소” 쇠고기에 반대한 2008년 촛불시위까지, 봉기는 강도 높게 지속되었다. 과거 민중운동의 투쟁에서 교훈을 얻었고, 민중들은 지난 성과와 실패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통해 전술과 투쟁대상을 개발해왔다.

2권은 범위에 있어 국제적이며, 9개 나라의 봉기를 다루지만, 민중봉기 주체들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이전의 사례에 근거하여 확장하고 서로의 어휘, 투쟁이 열망을 빌려올 수 있는 역량에서 상호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거의 하루밤 사이에 “민중권력”은 동시적으로 활동가들에게 종교와 민족, 경제적 경계를 건너 공통적인 전지구적 정체성이 되었다. 특정한 봉기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이 책은 필리핀(1986년), 버마(1988년), 티벳(1989년), 중국(1989년), 타이완(1990년), 네팔(1990년), 방글라데시(1990년), 태일란드(1992년), 인도네시아(1998년) 등 아시아지역 봉기의 발전과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소비에트 체제에 대한 동유럽의 1989년 혁명은 잘 알려져 있지만, 유럽중심주의적(그리고 반공주의적) 편견은 자주 아시아지역 혁명의 중요성을 축소시켜며, 대개 보이지 않도록 한다. 아시아 봉기들은 그 성과에서 주목할 만하고 그 성격은 (고르바초프의 러시아 제국 포기 시도로 운동이 촉발됐던) 동유럽의 동시대적 격변보다 더 의심미장하게 기층적임에도 대개 알려져 있지 않으며, 심지어 봉기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마저 그렇다. 1980년에서 1998년까지 동아시아 봉기의 흐름은 거대한 정치적 충격을 불러일으켰고, 8개국의 견고한 체제를 전복했다. 필리핀의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망명해야 했고, 남한의 전두환은 치욕을 당한 후 탄핵당하기 전에 대통령 직선제를 허용해야 했으며, 타이완의 40년 계엄체제는 전복되었다. 버마의 시민동원은 두 명의 독재자를 타도했지만 그 후계자들이 수천 명을 상대로 저지른 학살과 마주해야 했다. 네팔의 왕정은 입헌군주정으로 바뀌었고 방글라데시의 군부통치자 무하메드 에르샤드는 하야해야 했으며, 결국 감옥에 갇혔다. 태국의 육군대장 수친

다 크라파운은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고, 인도네시아의 장기독재자 수하르토는 30년 간의 집권 후에 축출당했다.

표 1: 민중권력 봉기로 축출된 독재자들

독재자	나라	축출연도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필리핀	1986
전두환	남한	1987
네윈, 세인 르윈	바마	1988
에르샤드	방글라데시	1990
수친다	타일랜드	1992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1998

한 세기가 넘는 연구가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근대 사회과학은 정치적 격변을 예측하는 데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민주화 이론가들은 지속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의 중요한 지표가 될 일련의 주요 변수를 확인했다. 반세기 전에 세이모어 마틴 립셋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상호연관에 대한 가설을 세웠는데, 일단 사회적 부의 문턱에 도달하면 민주화될 가능성이 가난한 사회보다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이후 다양한 이론가들은 립셋의 “근대화 이론”을 도구로 삼아 부와 민주적 정치체제의 생존율과 상호 연관시키는 특정한 양적 예측을 이론화했다.<sup>1)</sup> 도시화가 민주화의 전제조건이라는 관측에 근거하여 새뮤얼 헌팅턴은 “강제징집형 도시화”를 추천했는데, 이 악명 높은 정책은 베트남에서 농민을 도시로 강제이주시키는 수단인 무차별 포격 지대와 농촌집중 폭격이란 결과를 초래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2차 세계대전 동안 모든 곳에서 사용된 것보다 더 많은 폭탄을 베트남에 퍼부었지만, 베트남 민족주의가 승리했다.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윤리 간의 상호연관에 대한 막스 베버의 개념도 유교와 민주화 간의 역관계를 주장하는 분석을 통해 아시아에 적용되었다. 비록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이 이런 이론가들에게 휴식을 주었지만, 유교적인 공동체 가치는 여전히 “민주주의에 부적합한 전통문화의 핵심”으로 간주되고 있다.<sup>2)</sup> 헌팅턴에게 유교적 민주주의란 모순어법, 즉 “용어상의 모순”이었다.<sup>3)</sup> 헌팅턴의 뒤를 따라 구미권 이론가들은 미국식 “시민사회”의 결핍을 민주주의 부재의 이유로 이해했다.

위에서 나온 민주정치에 대한 설명변수에 봉기의 정확한 성격이 추가되어야 한다. 시위대의 상호관계(극단적 위기의 순간에 힘을 모아 조직할 능력, 수직적 또는 수평적 형태의 권위, 자신의 대열 내에서 집단의 규범과 가치를 위반하는 자들에 대한 행동)는 다가올 정치적 관계의 중요한 예측요소이다. 유사하게, 봉기 주체들의 상대세력과의 상호작용(포로에 대한 대우, 동원과 대결의 전술, 배신자와 적 전투원에 대한 재판 형태)은 운동이 성공하는 경우 작동할 민주적 규범의 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정점에 이른 투쟁의 강도를 비교하면 이후 민주화의 심도를 측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위기 국면에 규합된 특정 사회계층을 주의 깊게 눈여겨보면, 이는 조용한 시기에 100인 전화 여론조사보다 정치여론을 이해하는 더 나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일상화된 정치적 경로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개인들은 자주 다른 생각 속에서 다른 사고의 흐름을 갖는다. 대중매체의 엄청난 힘에도 불구하고, 통제되지 않는 직관과 통찰력은 비록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라도 계속 작동한다.

사회운동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이 책에서 시민봉기를 명백히 검토할 재구성한 하나의 이유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나는 이 작업에서 미래 세대의 자유 투쟁에 유용한 교훈과 통찰력을 찾아내기를 희망한다. 내 견해로는, 인류의 막대한 사회적

1) Two prominent examples are Adam Przeworski and Fernando Limongi, “Modernization: Theory and Facts,” *World Politics* 49:2(January 1997), pp.155~183; Fareed Zakaria, *The Future of Freedom Illiberal Democracy at Home and Abroad*, New York: W.W. Norton and Co., 2003.  
 2) Liu Jianfei, “Chinese Democracy and Sino-U.S. Relations,”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The Central Party School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eptember 2007, p.8.  
 3) Samuel Huntington,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p.307.

부를 수백 명 억만장자들이 통제하고 이윤동기를 통해 부의 분배가 이뤄지는 상황과 근본적으로 단절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구는 무모하게 계속되는 산업화와 끝없는 전쟁으로 황폐화될 것이다. 기업자본주의의 체계적 변혁이 없다면, 수억 명의 민중들은 빈곤과 궁핍, 질병 때문에 지상연옥에서 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지속적 평화, 환경해방, 번영의 공유에 필요한 사회적 재조직화가 이제껏 이어져온 경제-정치적 구조의 지속적 진화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오히려, 전지구적인 혁명적 변화가 군사화된 국민국가, 권력에 굶주린 정치인, 부를 움켜쥔 억만장자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대량으로 필요한 처방전이다.

예술처럼, 혁명도 독특하게 인간적 활동의 중요한 차원이자, 자체 문법과 논리를 갖춘 류(類)구성적 행위의 한 형태이다. 인간이 습관과 일상의 동물이란 점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또한 엄청난 변화의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익숙해지고, 현재의 조건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환상을 갖거나 이를 두려워한다. 오늘날 민족국가는 모든 곳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하지만, 봉기들은 심지어 가장 명백하게 구축된 사회관계마저 하룻밤 새 변혁할 수 있다.

민족주의적 역사구성의 한 가지 문제점은 다양한 장소의 인간존재가 실제로 자국의 “동포”보다 서로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각기 다른 장소를 사는] 보통사람들의 열망과 꿈, 의식적-무의식적 욕구와 필요가 자국 엘리트들보다 서로 더 비슷할 수도 있다는 점을 사전에 거부한다는 점이다. 한 나라의 역사를 다른 나라의 역사에 덧붙이는 것도 사실이 아니거나 중요하지도 않은 주장에 이를 수 있는데, 초국가적 유사성, 공통성, 병행적 풀뿌리 발전을 모호하게 한다. 아시아 지역 최초의 민족주의 혁명이 1896년 에스파냐에 대항한 봉기와 함께 필리핀에서 일어났는지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sup>4)</sup> 조선의 갑오농민전쟁, 또는 동학운동은 그보다 2년 더 일찍 일어났다. 중요한 것은 두 투쟁 모두가 외국의 정복으로부터 자유를 위해 투쟁했다는 점이다. 동학,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 베트남의 카오 다이하 등이 쟁취한 거대한 국제적 종합은 바로 관련 연구에 대한 민족주의적 제약 탓에 많은 학자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전지구적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인간들은 급속하게 하나의 류로서 자기의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바로 지구화가 지닌 최상의 차원들 중 하나이다. 세계사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으며, 그것은 최근의 과거를 적절하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만약 A라는 나라의 시민들이 B라는 나라의 민중들을 보고서 지배자를 타도하려는 동기를 얻는다면, 한 나라의 역사만으로 해방운동을 제대로 평가하지는 못할 것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해방투쟁의 동시적 등장이다. 국경을 넘어 개념화할 경우 봉기의 보다 정확한 표현이 가능하며, 보다 밝은 미래의 전망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런 노력은 20세기 후반 일어난 도시 봉기에 관해 내가 쓴 모든 책들에서 핵심을 이룬다.

사회운동의 전지구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석가들의 무능력은 부분적으로 일국적 맥락에서도 봉기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관한 역사서술]의 경우, 최고의 영어권 역사가들은 봉기를 둘러싼 기본적 사실을 자주 무시했고(또 때로는 잘못 기술했고), 봉기의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위대한 남성”과 “위대한 여성”을 강조했다. 태국의 경우 솜차이 파타라타나누트가 2006년에 썼듯이, “사회운동 형태의 타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주요한 저작은 지금도 거의 없다.”<sup>5)</sup>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나는 이 책에서 논의된 많은 봉기들에 관해 독일어 또는 영어로 된 포괄적 역사서를 발견할 수 없었고, 따라서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역사를 기술했다.

(흔히 경제 용어로 이해되는 현상이지만) 세계체제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동아시아는 오늘날 펼쳐지는 세계정치 속에서도 주도력을 발휘할 위치에 있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엄청난 원주민의 생명손실(한국전쟁에서 3백만 명, 그리고 인도차이나에서는 최소한 2백만 명이 이상이 살해당했다)은 불의 도가니였고, 수천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켰으며, 자신의 사회를 변혁하려는 유례없는 사회운동을 낳았다. 3년간의 [한국]전쟁이 초래한 황폐화로 양반 기반의 귀족정은 쇠퇴했고, 영토는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시민들은 끈질기게 재건에 나

4) Mark R. Thompson, *Democratic Revolutions: Asia and Eastern Europe*, London: Routledge, 2004, p.131.

5) Somchai Phatharathananunth, *Civil Society and Democratization: Social Movements in Northeast Thailand*, Copenhagen: NIAS Press, 2006, ix.

서야 했다.

파괴와 재건을 겪어낸 한국인들의 혼과 에너지로 인해 한국인들은 아시아 민주봉기의 물결에서 중심에 섰으며, 이후 한국인들의 문화적 물결(한류)은 20세기 말 대륙을 휩쓸었다. 1960년, 한국의 학생들은 미국의 앞잡이 독재자 이승만에 맞서 투쟁을 선도했다. 경찰이 서울 거리에서 186명의 젊은이들을 살해한 이후 이승만은 망명길에 올랐고 민주주의는 승리했다. 1973년 태국 학생들은 군부 독재자에 맞서 수십만 명의 민중을 규합했으며 이 와중에 73명이 총에 맞아 사망한 뒤, 비록 단명한 것으로나마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1980년 광주 시민들은 남한 군대의 잔학 행위에 맞서 용감하게 봉기했다. 군대를 광주 밖으로 몰아낸 다음, 그들은 시민총회를 통해 자치를 실현했다. (카터 미국 대통령의 지원으로) 군대에 진압당해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은 1987년 군사정부 타도 투쟁을 계속했고, 10년 뒤에는 독재자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하기 위해 투쟁했다.

### 아시아 민주권력 봉기

비록 패배하더라도 민주봉기는 민중을 변혁시키고, 이후 예상치 못한 형태로 다시 등장한다. 1986년에서 1992년에 이르는 짧은 6년 동안 갑자기 여섯 번 민주권력 봉기가 등장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민주권력”(People Power)이란 개념은 1986년 2월 수십 만 필리핀인들의 투쟁에서 태어났고, 그때 시민들은 18일 간의 봉기를 통해 마르코스 독재를 타도했다. 선거부정과 군부의 핵심분파가 일으킨 반란으로 촉발된 봉기에서 민중들은 끈질기게 거리로 나서 정부군 탱크와 군인들을 저지했다. 대규모 피해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용감하게 공적 공간에 밀물처럼 진출한 민중들은 반란군에 비판적 지지를 보냈다. 오늘날 신화화되었지만, 민중들의 비폭력저항이 무장군인들이 수행한 결정적 역할을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총과 헬리콥터는 마르코스의 축출에 결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또 폴뿌리 반란이 카톨릭교회의 중요성을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민중들에게] 마닐라 거리로 나서라고 호소했기 때문이다.<sup>6)</sup> 봉기가 시작된 이후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오랜 친구인 마르코스를 계속 지지했지만, 일단 군부의 다수가 반정부 진영 측에 가담하자 미국은 마르코스가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곧 마르코스는 마지못해 망명길에 올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권력” 개념은 세계 모든 곳의 장기 독재자들을 위협할 만큼 충분히 잘 알려지게 되었다.

마르코스 타도는 남한의 1987년 6월 봉기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됐다. 6월 항쟁은 19일 연속 불법시위의 마라톤으로 그 가운데 3일 동안에는 각각 1백만 명 이상이 규합되었다. 수십만 명의 한국인들은 명백히 필리핀 동료들에게서 영감과 교훈을 얻었다. 한국의 전설적인 학생운동과 더불어, 기독교 단체들도 대통령 직선제와 정치개혁을 쟁취하는 데 지도적 역할을 했다. 시민사회는 야당과 대연합을 형성해 “아래로부터 ‘민주권력’에 권위주의 체제가 궁극적으로 굴복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민주봉기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sup>7)</sup>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자, 많은 이웃 나라들에서도 민주운동이 생겨났다. 한국의 군부가 야당의 요구에 굴복한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1987년 타이완에서도 38년 계엄통치의 종식을 쟁취했다.<sup>8)</sup> 일화에 의하면 타이페이 거리에서 사람들은 한국의 민주화운동에서 불린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이어진 3년간의 투쟁은 1990년 3월 학생들의 장카이색 광장 점거에서 정점에 오르는데, 학생들은 총통과 의회(입법원)의 민주적 선거를 주장했고 결국 쟁취했다.

버마에서 중앙통제 완화에 대한 민주적 열망은 1988년 3월 질서의 세력과의 유혈충돌로 이어졌다.<sup>9)</sup> 1980년 광주에서 그랬듯이, 랑군의 학생들은 민중을 거리로 이끌었고, 군대는 최고

6) See Monina Allarey Mercado, ed., *People Power: An Eyewitness History*, (Manila: The James B. Reuter, S.J. Foundation, 1986), 226, 258, 308.

7) Sunhyuk Kim, “Civic Mobilization for Democratic Reform,” in *Institutional Reform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Korea*, eds. Larry Diamond and Doh Chull Shin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99), 281. For details on the June Uprising, see Volume 1, Chapter 9.

8) As explained to me by Seung Hee Jeon in Cambridge, Massachusetts in 2006.

9) 군사정부는 국명을 미얀마로 바꾸고, 수도명을 양곤으로 바꿨지만, 민주화 운동세력은 옛 이름을 그대로 쓸 것



위 권력을 틀어쥐고 무자비한 장군들의 명령으로 피의 학살을 저질렀다. 끔찍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저항은 지속되었고, 네윈 대통령이 26년 간의 집권 끝에 하야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했다. 네윈이 수많은 민간인 도륙에 책임이 있는 경찰총수를 후임으로 임명하자, 다시 학생들은 5일 간의 시위를 주도하면서 또 다른 사임을 끌어냈다. 이어진 권력공백 속에서 노동자와 작가, 승려, 소수종족, 학생들의 민중평의회가 다당제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적 운동의 지도부로서 등장했다. 더 많은 자유를 위한 민중의 분명한 열망에 아랑곳하지 않고, 군부는 훨씬 더 많은 시위대를 학살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질서가 회복되기까지 최소한 3천 명이 살해당했다. 1990년 새로 선출된 100명 남짓한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수천 명을 체포한 버마 군사정부는 아웅산 수키의 전국민주동맹(NLD)이 거둔 엄청난 선거승리를 무시했고, 이후 20년의 대부분 동안 그녀를 가택연금 상태에 두었다. 군사정부는 국가명을 미안마로 개정했고, 최대도시를 양곤으로 고쳤지만, 민주화운동은 옛 이름을 유지할 것을 고집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옛 이름을 따르기로 했다.

1989년 3월, 중국의 침략에 맞선 봉기가 실패한 지 30년 만에 티베트인들이 다시 일어섰다. 중국 공안이 한족 식민주의에 대항한 소규모 시위대를 공격하자, 시위대는 반격에 나섰고 중국상권에 분노를 돌렸다. 당 지도부는 군대를 보냈고, 3월 8일 라사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달 후 벌어질 베이징 사태의 전조였다. 1989년 5월 동유럽 공산주의가 최대의 시련에 직면하기 몇 달 전 천안문 광장에서 학생운동가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광범한 요구를 제기했다. 수십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곧 운동에 동참했고, 운동은 거의 모든 도시로 확산되어 모든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었다. 마닐라에서 마르코스의 군대를 저지하기 위해 규합된 필리핀인들의 전술을 따라, 베이징의 시민들은 며칠 동안 인민해방군을 저지했고, 정부가 선포한 계엄령 집행을 방해했다. 군대와 공산당 내부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결국 천안문 광장 주위에서 수백 명이 살해당한 이후에야 질서는 회복되었다. 이후 수년 간 활동가들은 수배당하고 체포당했다.

중국의 반란은 당 외부에 기원을 둔 것이지만, 당의 최고위층에도 중요한 동맹자를 가지고 있었다. 이웃한 베트남 공산주의의 전당 내에서도, 독재에 대한 반란의 시대정신(Zeitgeist)이 작동하던 무렵인 1989년 정치국원 탄도 장군은 공개적으로 다당제 민주주의를 요구했는데, 이는 유례 없는 일이었다. 아시아의 반란에 고무되어 유럽인들도 소련의 지지를 받는 독재 체제를 타도하기 위한 보다 결정적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거기에서도 집권 공산당 내 반대파들이 활동가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변화의 홍수가 동유럽에 들이쳤고,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에서 새 정부가 세워졌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급속하게 재통일되었다. 발트해 연안국들은 소비에트연방에서 분리·독립했고, 소비에트연방 또한 자체의 무게에 짓눌려 곧 10여 개 이상의 새 공화국들로 해체되었다. 1990년 방글라데시와 네팔의 민중들이 지배자들을 타도하기 위해 대거 규합됐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다투던 야당들을 압박하여 군부독재자 무하메드 에르샤드에 맞서 단결하도록 한 다음에야 운동은 독재자의 사임을 강제할 수 있었다. 네팔에서도 1990년 4월에 시작된 53일 간의 불법시위로 국왕은 야당 지도자들에게서 나온 입헌군주제라는 너그러운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했다(2006년에는 새 국왕이 통제권을 장악하자 19일 간 민중봉기가 발생했고, 군주제는 폐지됐다). 나라마다 영향을 받으면서, 태국에서도 1992년 민주화 세력을 강화시킨 유혈봉기를 경험했다. 태국에서의 투쟁은 쿠데타 지도자 수친다 크라파운 장군의 총리직 취임에 반대한 한 야당 정치인이 단식투쟁에 들어가면서 시작되었다. 1992년 3월 18일, 군대가 가두시위를 진압하려고 총탄을 사용하면서 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군대의 잔학 행위로 수친다는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sup>10)</sup> 여러 해에 걸친 헌법개정 풀뿌리운동으로 [민중들은] 아시아에서 최상의 헌법을 쟁취했고, 1997년 새 헌법이 발효되었다.

1998년 인도네시아에서는 학생들이 “민중권력 혁명”을 호소했다. 캠퍼스에서 며칠 간 벌어진 항의 이후에, 수만 명의 학생들이 국회의사당으로 집결했고, 수하르토 대통령의 30년 집권을 끝장냈다. 시위대는 채팅과 웹페이지, 이메일 등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조직하고 투쟁했다. 신뢰할 수 없는 인도네시아의 친정부 언론을 고려하여 학생들은 운동을 알리기 위해 웹을 채택했으며, 군대와 경찰의 위치와 규모에 관한 첩보보고를 서로에게 보내기 위해

을 고집했고, 나는 그들의 용법을 따르고자 한다.

10) Human rights activists maintain that hundreds were killed or disappeared

암호화된 메시지를 이용했다. 학생단체들이 심하게 정부에게 감시당하고 있던 상황이라, 주요 학생조직 중 하나인 포럼 코타(Forum Kota)는 매주 지도부와 사무국을 순번제로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sup>11)</sup>

이 책에서 검토한 다양한 운동들은 표2에 정리되어 있다.

표2 아시아의 민중권력봉기 1986~1998년

나라	연도	운동유형	단기적 결과	장기적 결과
필리핀	1986	카톨릭교회의 지원을 받는 군사폭동과 민중권력	엘리트주도 민주주의	2001년 피플파워 II가 에스트라다 대통령 타도, 2008년까지도 죽음의 부대활동
한국	1987	민중봉기, 19일 간의 불법시위	대통령직선제, 자유의 확대, 파업의 물결	군사독재의 종식, 자유와 번영, 한류
타이완	1987~1990	재야(탕웨이), 학생시위	40년 계엄령 폐지, 시위의 물결, 선거	비자유 민주주의, 번영의 증대
버마	1988	학생주도 민중봉기, 평의회	2명의 독재자 타도, 운동에 대한 폭력진압, 수천명 사망	군부독재 지속
티벳	1989	승려주도 시위가 폭동으로 전화	계엄령, 심한 탄압	군부독재 지속
중국	1989	학생시위와 민중구성권력으로 이어짐	탄압, 반역의 지속	일당지배 지속, 그러나 경제번영
네팔	1990	53일 민중봉기와 총파업	인헌군주제, 파업, 개혁	2006년 2차 봉기로 군주제 타도
방글라데시	1990	학생주도 민중봉기	에르샤도 타도, 새 선거, 파업	독재지속, 비자유 민주주의
타일랜드	1992	시민연합 시위 주도, 군부의 공격 이후 강력한 투쟁	폭력탄압 이후 새 헌법(1997년)	2006년 군부 쿠데타 이후 투쟁 지속, 붉은셔츠와 노란셔츠의 양극화
인도네시아	1998	학생주도 봉기, 국회의사당 점거	수하르토 축출, 신자유주의적 개혁	비자유 민주주의

이 봉기들에 대해 수많은 책이 나왔지만, 이들의 동시적 출현과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더 탐구가 돼야 한다. 이들 반란의 상호관계가 역사적으로 아직 연구되지 않은 차원인 만큼이나, 이들 봉기는 1968년 전지구적인 신좌파[의 등장]로부터 시작된 훨씬 더 커다란 대륙간 봉기의 물결 속에서 위치시켜야 한다.

1960년대가 먼 과거에 속한다는 믿음은 20세기 말의 봉기가 1960년대와 맺는 연속성을 무시한다. 신좌파적인 봉기는 1968년 혁명적 열망과 투쟁의 급속한 확산이란 특징을 가지면서도 중대한 장기적 영향을 끼쳤다. 봉기가 창출했던 가치의 변화는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가 붕괴하기 이전에 이미 시간 문제였음을 의미한다. 붕괴 여부가 아니라, 모든 곳에서 언제 독재가 청산될 지만이 문제였다. 1960년대의 신좌파가 발전시킨 직접민주주의와 집단행동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봉기의 열망과 구조를 결정하며, 그것이 바로 신좌파가 세계사적 운동인 이유이다.<sup>12)</sup>

### 1968년에서 1998년까지의 시민봉기들

11) Jørgen Johansen, "Waves of Nonviolence and the New Revolutionary Movements," unpublished paper, 37; revised and published as, "Waves of Nonviolence and the New Revolutionary Movements" in *Seeds of New Hope: Pan-African Peace Studi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2volumes), eds. Judith Atiri and Matt Meyer (African World Press, 2008).

12) For more on the world-historical character of the movements of 1968, see chapter 1 of my book, *The Imagination of the New Left: A Global Analysis of 1968* (Boston: South End Press, 1987). Hereafter *Imagination*.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봉기 같은 사회운동이 1968년에 등장했다. 프랑스에서 세네갈, 중국에서 미국, 폴란드에서 멕시코까지, 다른 수십 개 나라에서처럼 전투적 학생들이 선두에 나섰고 때로는 더 광범한 사회적 폭발을 촉발했다. 프랑스에서의 학생반란 이후 1968년 5월 최소한 9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총파업은 공장과 사무실에서 돌아가는 틀에 박힌 일상의 종식을 요구했다. 공산당이 주도한 노동자조합이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타결안에 대해 협상했을 때, 수천 명의 노동자들은 노조 지도자들에게 병과 도시락을 던지며 야유를 퍼부었고 그들을 무대에서 끌어내렸다. 전국적으로 노동자들은 공산당이 제안한 타결안을 거부했다. 그들은 새로운 종류의 삶을 원했다. 숨막히는 조립라인과 지루한 사무실을 참아내는 댓가로 임금인상을 원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원했던 것이다. 그들은 체제 전체를 거부했고, 자본의 지배 종식과 자치를 요구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가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기에 이 둘 다를 거부하면서, 1960년대 운동은 공산주의 내지 선배격(또는 일부의 주장처럼 대적해야 할 상대)인 “구좌파”와 구별해 “신좌파”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프라하의 봄을 통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이뤄진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실험이 50만 러시아 침략군에 의해 종식되자, 프라하 민중들은 도로표지판과 건물표지판을 없앴다. 소련군이 우체국을 찾는 데 1주일이 걸리기도 했다. 미국 평화운동의 한 장을 빌려, 젊은 시위대는 탱크의 포신에 꽃을 꽂았다. 폴란드와 유고슬라비아에서는 학생운동이 전지구적 시위의 물결을 따라 등장했다.

1968년의 국제적 반란은 20세기 최대의 무장봉기 중 하나인 베트남 테트 공세로 촉발됐다. 1968년 1월 31일 밤, 베트남 남부의 거의 모든 도시와 모든 미군기지는 기습공격을 받았다. 50만 명 이상의 미군과 막강한 첩보기구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직된 봉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단 하룻밤에 7만 명의 남베트남 게릴라들이 공격을 감행했다. 베트남 제2의 도시인 후에는 해방되었고, 3주일 간 유지되었으며, 사이공의 미국 대사관 부지도 점령당했다.<sup>13)</sup> 미국 대통령선거와 시점을 맞춰 계획된 테트 공세로 린든 존슨 대통령은 재선에 나서지 않기로 했고,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세네갈, 멕시코, 심지어 미국 중심부에서조차 격변이 일어났다. 몇 주 후인 4월 4일 마틴 루터 킹 2세가 암살당하고, 150개 이상의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1812년 전쟁 당시 영국군이 워싱턴 DC를 점령했을 때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 모든 운동들은 상호증폭의 과정 속에 수렴했다.<sup>14)</sup>

1968년 자생적 봉기의 연쇄반응과 공적 공간의 대규모 점거는, 서로에 대해 연대로 투쟁한 수백 만 보통 사람들이 보여준 갑작스러운 역사로의 돌입을 상징한다. 민중들은 직관적으로 세계의 향방을 전쟁에서 평화로, 인종주의에서 연대로, 애국주의에서 인간주의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1968년의 전지구적 상상력에 관한 책에서 나는 혁명적 열망과 행동의 급속한 확산을 설명하기 위해 에로스 효과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sup>15)</sup>

에로스 효과의 순간에 보편적 이해는 사회의 지배적 가치(민족적 배외주의, 위계서열제, 지배)가 부정되는 것과 동시에 일반화된다. 마르쿠제가 아주 분명하게 정식화한 것처럼 인간은 자유에 대한 본능적 필요를 가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본능적 필요야말로 에로스 효과가 나타나는 순간에 집단적 현상으로 승화한다.<sup>16)</sup> 에로스 효과의 차원에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포함된다. 공적 공간을 점거하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갑작스런 동시적 등장,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서로에 대한 직관적 동일화, 새로운 가치에 대한 공통된 믿음, 그리고 경쟁적 사업관행·범죄행동·탐욕 같은 정상화/규범화된 일상의 중지. 이 책에서 우리는 그런 수많은 순간과 조우할 것이다. 어떤 정당의 지침이 아니

13) 베트남의 선도적 역할은 2차 세계대전 동안 일어난 봉기에 힘입었다. 1945년 일본의 지배 아래 수백만명의 베트남인들이 굶어죽자, 전국적인 봉기가 일어나 전국의 쌀저장고와 식량공급소를 점수했다. 코민테른에서 활동하면서 1920년대와 1930년대 유럽과 중국의 무장 도시봉기를 연구했던 호치민의 마스터 플랜이 동시적인 전개는 테트공세의 핵심적 구성요소였다. See A. Neuberg, *Armed Insurrection* (London: New Left Books, 1970). The authors were actually Mikhail Tukhachevsky, Ho Chi Minh, Osip Piatnitsky, and Erich Wollenberg.

14) See Chapter 2 of *Imagination*.

15) See *Imagination and The Subversion of Politics: Europe an Autonomous Social Movements and the Decolonization of Everyday Life* (Oakland: AK Press, 2006) for discussion of what I call the “eros effect.”

16) For Marcuse’s formulation of instinct and revolution, see *Essay on Liberation* (Boston: Beacon Press, 1969).

라 민중의 직관과 자기조직화는 그런 투쟁을 등장케 하는 열쇠이다. 1968년 수백 만 민중의 행동으로 현실화된 에로스 효과는 엄청난 미래의 잠재력을 가진 무기이다. 1980년 광주봉기와 관련하여 이 현상은 “절대적 공동체”라는 이름을 얻었다.<sup>17)</sup> 2011년 아랍의 봄에서도 초국경적 투쟁의 분출이 광범하게 목격되었다.

1968년 그 정점에 올랐다고 생각되긴 하지만, 전지구적 운동은 그 이후에도 강화되었다. 1969년 이탈리아의 뜨거운 가을(Hot Autumn)에서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공장의 권위에 도전했고, 자주적 형태의 현장 체제를 제도화했다. 1970년 미국의 운동은 블랙팬더당이 제창한 “혁명적 민중”의 제헌의회에서 최정점에 이르렀고, “미국식 1968”의 백미는 1970년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 간 벌어진 주목할 만한 쫓겨났다. 이 시기 운동은 광범한 주체들 사이에서 동시적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켄트주립대와 잭슨주립대에서 벌어진 학살 이후 4백 만 학생과 50만 교직원들의 정치적 파업, 전국여성조직(NOW)의 여성 총파업(과 페미니즘의 근대적 상징을 디자인한 일), 베트남전 전역군인의 대규모 평화운동 합류, 최초의 게이 프라이드 주간, 8월 29일 로스앤젤레스 치카노 모라토리움. 사회 전체가 제 목소리를 내면서, 푸에르토리코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다양한 주체들은 새로운 미국 헌법을 작성하자는 블랙팬더당의 호소에 응하여 필라델피아에 모여들었다.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한 과정 속에서 미래의 헌법초안이 만들어졌다. 이 합의에는 상비군의 민중자위군으로 대체와 전세계 부의 균등한 재분배가 포함되어 있다.<sup>18)</sup>

1970년에는 폴란드 노동자들의 운동도 부활했다. “우리는 1968년에 대해 사과한다!” 그 당시 노동자들은 학생들을 지지하여 집결하지 못했다. 노동자들이 그다니스크 거리에 나서자 경찰과의 전투가 고조되면서 최소한 45명이 사망했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으며 19동의 건물이 불에 탔는데, 이 중에는 폴란드 통합노동자당의 중앙당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운동은 그디니아와 스체친으로 퍼져나갔다. 봉기는 에드바르트 기에레크 당수가 사임했을 때에야 겨우 진정되었다.<sup>19)</sup> 가두투쟁은 진정되었지만, 노동자조합 운동은 천천히 연대노조(Solidarność)로 집결되었고, 이 조직은 1989년 폴란드 정부를 전복할 때까지 지속되었다.<sup>20)</sup>

1972년 말 미국 행정부가 북베트남의 제방을 폭격하고 하이퐁항을 어뢰로 공격하자, 캠퍼스에서 벌어진 항의 집회에 다시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동참했다. 1973년 10월에는 태국 학생들이 투쟁에 나섰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신좌파 사상을 가지고 돌아온 자들이 투쟁을 주도했다. 방콕 거리에서 수십 명이 사살당하자, 학생들은 타놈 군부독재를 타도하고 태국 역사상 가장 개방적인 시기를 창출했다. 한 달 후에는 그리스 학생들이 미국에서 앓힌 파파도풀로스 독재에 반대하여 아테네공과대학을 점거했다. 그들은 태국 동료들의 용기를 칭찬하는 슬로건을 외쳤다.

1973년 그리스 학생운동의 거대한 “OXI”(NO!) 포스터는 헤르베르트 마르쿠제가 신좌파의 위대한 거부라고 규정했던 것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그린 것이다. 11월 17일 탱크와 바주카포, 자동화기로 무장한 군인들은 34명을 사살하고 공과대학을 점수했다. 학살 8일 후 파파도풀로스는 자기 휘하에 있던 부대의 반란으로 축출되었지만, 군정의 시대는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고 1년을 못 가 군사정부는 붕괴했다.

1974년에서 1991년까지, 전지구적 반란으로 변화의 수문이 열린 후 약 40개 나라가 민주화되었다. 1974년 4월 25일 포르투갈 독재의 타도로 시작해서, “카네이션 혁명”은 재빨리 스페인 군사정부(junta)의 사망으로 이어졌다(1977년). 1977년에는 페루에서 파업과 민중봉기로 정부가 전복되었다. 수십 개 나라에서 민중들은 국제금융기금(IMF)의 구조조정 요구에 맞서 투쟁했다. 1978년에서 1979년까지 볼리비아에서 IMF에 반대한 광범한 파업이 일어났다. 니카

17) Choi Jungwoon, *The Gwangju Uprising: The Pivotal Democratic Movement that Changed the History of Modern Korea* (Paramus: Homa and Sekey Books, 2006), 85, 131.

18) These documents and analysis are contained in *Liberation, Imagination and the Black Panther Party*, eds. Kathleen Cleaver and George Katsiaficas (New York: Routledge, 1997).

19) For a brief overview of events in Poland as well as New Left insurgencies in Yugoslavia and Czechoslovakia, see *Imagination*, 58-70.

20) See “Poland,” *Imagination* 66-70. For continuity with even earlier development of the Polish movement, see Jane Leftwich Curry on “Poland’s permanent revolution” in Jane Curry and L. Fajfer, *Poland’s Permanent Revolution: People vs. Elites 1956 to the Present* (Washington D.C.: American University Press, 1996).

라과와 이란의 민중운동은 미국이 들어앉힌 독재자들을 타도했다. 역사의 시대정신이 갑자기 모든 곳에서 나타났다. 그것은 비록 민중봉기와 가두운동의 형태는 아니라도 권력의 배후에서 이루어졌다. 모두가 물결을 따라잡기 위해 달렸다. 세네갈(1978년), 가나(1979년), 나이지리아(1979년), 온두라스(1982년), 터키(1983년)가 그랬다. 1982년 아르헨티나에서는 수 년 만에 처음으로 군부독재에 맞선 총파업으로 민중들이 규합됐다. 우르과이에서 1983년 5월 시작된 월례 집회는 정치범 석방과 군부독재 종식을 요구하는 40만 명의 초대형 시위(겨우 인구 3백만의 나라에서)에 이르러 정점에 달했다. 1984년 수백만 명의 브라질인들은 대통령 직선제 투쟁을 벌였다.

민중봉기가 차례대로 발전하면서, 수십 년 간 권좌에 앉았던 아이티의 독재자 뒤발리에도 1986년 2월 초 도주해야 했다. 필리핀에서 민중들은 뒤발리에 축출에서 희망을 보고 같은 달 후반 마르코스에 맞선 대규모 투쟁에 나섰다. 아래 사진을 보면, 한 무리가 집에서 만든 구호판을 들고서 모래주머니 바리케이드 위에 앉아 있는데 구호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마르코스, 뒤발리에가 당신을 기다린다!!!” 그런 전지구적 연관은 자주 무시되거나 일회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민중들의 직관적 연결은 기존권력에 도전할 때 강력한 자원이 된다.



145

#### 필리핀 민중의 직관

사진 Joe Galvez, Jr. 출처: Monina Allarey Mercado 편집, <민중권력 - 눈으로 목격한 역사> (Manila:TheJamesB.Reuter,S.J.Foundation,1986)p.145.

#### 전지구적 민중권력

1986년 이후 민중권력이 아시아를 휩쓸면서, 전세계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동유럽에서 라틴 아메리카까지, 다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콜롬비아, 브라질, 칠레에서 민간정부가 군사 정부를 대체했고, 아이보리 코스트, 자이레, 가봉, 알제리에서 다당제 민주주의가 등장했다. 1987년 12월 이스라엘 점령하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첫 번째 인티파다(봉기)를 시작했다. 심지어 파키스탄에서도 1988년 8월 18일 비행기 사고로 지아-울-하크가 사망한 이후 민주적 선거가 치러졌다. 1989년 1월 베닌의 맑스-레닌주의 정부는 전국을 마비시킨 총파업에 직면했고, 단독 자유선거를 실시해야만 했다. 1989년 2월말, 베네수엘라인들이 IMF가 강제한 긴축조치에 맞서 엄청난 민중반란으로 일어섰다. 대규모 규합이 멈출 때까지 276명 이상이 살해당했고(일부에서는 수천 명이 학살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10년 베네수엘라서는 정치적

우선순위가 재조정되면서 우고 차베스가 권력을 잡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운동은 계속 계기를 추적하여, 전세계의 수백만 명이 아파르트헤이트 반대 캠페인에 동참했고 1990년 2월 11일, 37년 간의 수감 끝에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왔다.

이런 봉기의 물결은 중앙집중적 정당 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통일한 조직이 이끄는 무장봉기의 특징을 갖지 않는다. 평화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이 운동들은 풀뿌리에서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무장하지는 않았고, 훈련된 간부(예를 들어 프롤레타리아 백인단 또는 홍위대)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지도된 것이 아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정의된 노동자계급 부문의 산물도 아니다. 중앙집중적 정당이 지도하는 정치적 봉기와 대조적으로, 이 봉기들은 전지구적 시민사회에 의해 창출된 사회적 봉기이다. 1968년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한 민중적 지혜의 다양한 자주적 표현이다. 운동의 대중성과 축제적 성격은 자주 권력자들을 당황하게 했다. 남한에서 6월 항쟁이 벌어지는 동안에는 심지어 군부 충성과조차 극도의 혼란에 빠져 최고위 장성들도 군사개입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광주항쟁을 도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sup>21)</sup>

지구 전체를 휩쓴 진정한 투쟁의 해일 속에서, 민중들은 직관적으로 자신의 권력에 대해 각성하게 되었고 도시를 장악했다. 필리핀, 루마니아, 동독에서 군중들은 대통령궁을 점수했다. 필리핀의 1986년 “민중권력” 봉기는 (남한의 1980년 광주항쟁이 필리핀의 저항에 영감을 주었듯이) 분명하게 남한 민중을 고무했고, “민중권력”은 버마, 타이완, 중국의 투쟁에서 채택된 명칭이 되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의 타도는 네팔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차우세스쿠가 1987년 카투만두를 방문했었기 때문이다.<sup>22)</sup> 1998년 인도네시아 인들은 필리핀에서 “민중권력”이란 이름을 가져왔고, 자카르타의 개혁운동은 곧 이후에 그 이름 (*reformasi*)을 말레시아 운동에 물려주었다. 승리한 경우만이 아니라 패배한 경우에도 민중들은 직관적으로 서로를 동일화한다. 1989년 6월 4일 베이징 거리에서 중국의 시위대가 무자비하게 탄압당하자, 동독 활동가들은 자신들도 곧 “중국식 해법”에 직면할까 봐 걱정했다. 1968년에 시위대 간의 연결은 대부분 즉각적이고 비성찰적이었지만, 1989년 시민들은 자기 의식적으로 서로 연계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로, 민중들은 점점 더 세계의 사건들을 해석하고 지구상의 먼곳에서 벌어진 사건들에서 며칠 만에 적절한 교훈을 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 1968년 수백 만 민중들의 투쟁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나는 전지구적 신좌파의 다섯 가지 주요한 원칙을 도출했다.

1. 경제적 착취만이 아닌 인종적, 정치적, 가부장제적 지배에 대한 반대
2. 물질적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될 자유로서의 자유의 개념
3. 민주주의와 개인 권리의 제약이 아니라 확장
4. “프롤레타리아화”한 중간층을 포함하여 혁명의 기대 확대
5. 직접행동의 강조<sup>23)</sup>

이런 원칙들은 수백 만 민중들의 행동 속에 존재하며, 자주관리와 국제연대를 위한 역량을 체화한다.

20세기 말의 봉기들은 신좌파 운동의 이런 특징과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프랑스 혁명과 1871년 파리코뮌에서 러시아혁명과 중국혁명에 이르기까지 고전적 좌파운동이 교회에 대해 보인 적대감과 달리, 신좌파 운동은 교회 내에서 등장하였고, 교회를 지지기반으로 이용했다. (흑인 시민권투쟁이든 동독의 신교회 피난처이든) 1960년대 운동에는 마틴 루터 킹 2세와 같은 수천 명의 성직자들과 메델린의 해방신학 선언 이후 변화한 카톨릭 교회가 참여했다. 1980년 광주봉기 동안 YMCA와 YWCA는 주요 조직센터였고, 1986년 마닐라의

21) 조정광은 몇 년 후 전두환 장군의 사저에서 우호적 대담자로서 인터뷰했다. 그는 남한 군부의 다른 최고 엘리트들과도 만났다고, 다수가 폭력사용에 반대했다고 보고했다. See Jung-kwan Cho, “The Kwangju Uprising as a Vehicle of Democratization” in *Contentious Kwangju: The May 18 Uprising in Korea’s Past and Present*, eds. Gi-Wook Shin and Kyung Moon Hwang, (Lanham, Maryland: Rowman and Littlefield, 2003), 76-7.

22) Thompson, *Democratic Revolutions*, 3.

23) *Imagination*, 23-27.

추기경 하이에 신은 필리핀 민중권력의 승리에 엄청난 역할을 했으며, 한국의 신교회와 김수환 추기경이 다음해 6월 항쟁에서 그랬다.

신좌파의 주요한 특징은 혁명주체의 확대이다. 이 요소는 광주의 무장저항 투사들에 룬펜 프롤레타리아트의 중요한 참여, 1987년 서울의 “넥타이 부대”와 같은 새로운 노동자계급(사무직 노동자들)의 동원, 1990년 네팔의 의대교수, 변호사, 기자들의 단호한 투쟁. 그리고 1992년 타일랜드의 “이동전화 부대”(mobile phone mob) 등에서 두드러진다.<sup>24)</sup> 보다 최근의 운동들은 팩스, 휴대전화, 인터넷, 소셜 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완전히 숙달하여 사용하는 한편, 신좌파의 장난, 유머, 익살, 자주적 예술표현을 투쟁전술로 재사용하였다.

신좌파적 형태의 참여민주주의는 1955년 알라바마 주 몽고메리의 버스차별 반대투쟁에서 운동의 정체성을 이루는 데 중심적이었다. 수십 개 나라의 학생운동, 코펜하겐의 크리스티아나 코뮌, 샌프란시스코의 디거스, 암스테르담의 프로보스, 버클리의 민중공원뿐만 아니라 블랙팬더당의 제헌민중회의에서도 참여민주주의가 핵심이었다. 1960년대의 참여민주주의 전통을 지속한 독일의 아우토노미아 운동(아우토노멘)도 주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총회 합의제를 이용했고, 여러 세대의 활동가들을 거치며 참여민주주의 전통을 유지했다. 농민과 생태주의자들과 연대하여 아우토노멘은 독일의 핵발전산업이 폭탄등급 우라늄을 생산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전투적 행동을 통해 발전함에 따라, 아우토노멘은 시민 러디즘(Luddism, 기계파괴운동)에서 기업체제 전체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변화했다.

아시아의 봉기들은 남한의 1980년 광주항쟁, 1990년 타이완 장개석 광장의 야베이헤(野百合) 학생운동, 1990년 해방구가 된 카트만두 파탄에서 유사한 형태의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포함했다. 동일한 전통에서, 1999년 시애틀의 WTO 반대시위는 참여민주주의의 엄격한 원칙에 기초한 직접행동 네트워크에 의해 대부분 준비되었다. 시애틀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한 기업주도 세계화반대 운동에서는 숙의제 의사결정 형태가 많은 그룹들 사이에서 등장했고, 인디미디어와 같은 프로젝트로 가능해진 의사소통의 탈중심화로 참여윤리가 활성화되었다. 심지어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무장봉기도 신좌파의 많은 특징을 공유한다. 전통적인 노동자계급 구성이 아니라, 사파티스타는 참여민주주의와 일상생활의 문제를 운동의 중심에 가져온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대항제도들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려 노력했다. “새로운 인간” 창출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이 모든 상황의 전개는 특별히 중요하며 전지구적으로 서로 연결된 운동을 파악하고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시아의 활동가들은 신좌파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또 신좌파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타일랜드의 1973년 봉기는 상당 부분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1960년대 사상과 투쟁을 경험했던 학생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필리핀 운동 역시 1960년대 에너지의 산물이었다. 군개혁운동(RAM, Reform the Armed Forces Movement, 1986년 군부폭동의 중심조직) 회원들은 역사적 과제를 준비하는 시기에 1952년 파룩 국왕을 타도했던 이집트 장교들을 연구했고, 많은 나라의 사회운동 역사, “특히 간디의 활동과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 민중의 경험”을 검토했으며, 마닐라로 통하는 도로를 봉쇄하여 마르코스 친위부대가 마르코스를 구하러 오는 것을 막을 꽃부대(flower brigade)를 조직하기 위해 시민 활동가들과 접촉했다.<sup>25)</sup> 그들은 1968년 미국의 청년운동이 베트남전 반대 시위를 진압하려는 군대를 무장해제 하기 위해 사용했던 사례를 꽃부대의 모델로 삼았다.<sup>26)</sup> 2009년 나는 1986년 군부폭동의 핵심 지도자인 필리핀 상원 의원 그레고리오 호사산을 면접했다. 그는 RAM을 1970년 필리핀 운동인 “1/4분기 습격의 아이들”로 묘사했다.<sup>27)</sup>

1986년 마르코스에 맞선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코리 아키노는 라반(LABAN, *Lakas ng Bayan*), 즉 민중권력의 깃발 아래 나섰고, 이는 블랙팬더당의 주요 슬로건인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와 놀랍도록 비슷한 것이었다. 오늘날 이와 똑같은 구호가 많은 상황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에는 경찰차에도 페인트로 이 구호가 쓰여 있다. 이 슬로건의 정확한 기원은 사회운동에 결집된 민중적 창의성의 흐름에 있지만, 슬로건의 공통적 사용은 이들 운동의 상호유사성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sup>28)</sup> 한 분석가는 1989년 동독의 민주혁명에 참여

24) See Volume 1, Chapter 9.

25) Almonte quoted in Angela Stuart Santiago, *1986: Chronicle of a Revolution* (Manila: Raintree Publishing, 1996), 49.

26) Jose T. Almonte, *My Part in the People Power Revolution* (Manila: 2006), 14.

27) See Chapter 2 below.

한 사람들이 “민중권력”에 익숙했지만 그 말의 기원이 필리핀에 있다고 생각하진 못했다고 보고했다. 비슷하게 네팔의 활동가들도 필리핀의 사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슬로건을 사용했다.<sup>29)</sup>

동유럽 봉기의 경험적 역사를 추적하면, 아시아의 봉기가 그 이전에 일어났고 영감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시아의 봉기들은 유럽의 1989년 혁명 참가들에 의해 중요한 사례, 심지어 “전지구적 운동에 중심적인” 사례로 이해되었다. 동유럽 민주화투쟁의 한 참여자는 중국운동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보도가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sup>30)</sup> “동유럽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중국인들이 없었다면 우린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라고 나에게 말했죠.”<sup>31)</sup> 천안문 광장의 중국인 시위대 진압에 관한 TV 보도 역시 명백히 동유럽의 소비에트 지도자들이 평화롭게 황혼으로 사라지도록 설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유일한 예외는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였다). 중국의 운동은 필리핀과 한국의 선례를 따랐고, 이 두 사례는 미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 지역이라 중국에서 많이 보도되었다. 1995년 체코의 대통령 하벨이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그는 필리핀의 피플파워가 체코의 운동에 보여준 영감에 대해 언급했다.<sup>32)</sup>

1960년대의 전지구적 봉기에서 시작하여 사람들은 더 이상 단일한 전위당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는 점을 인식했다. 러시아혁명의 역사와 동유럽에서 드러난 자유의 결핍은 전위당 전략의 한계에 대한 상식적 증거가 되었다. 미국과 소련의 거대 국가의 유사성이 그랬던 것처럼, 공통된 인식은 심지어 비틀즈의 노래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자본/공산주의 괴수에 대한 각성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미국처럼) 인종적-경제적 평등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소련처럼) 자유 없는 평등은 평등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시민들은 전쟁이 쓸모없게 되어야 하고, 핵무기는 폐기되어야 하고 경찰탄압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생성에 대한 신좌파의 강조는 바로 보통사람들의 지혜와 지성에서 성장했다.

1968년의 전지구적 운동은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구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심오하게 변화시켰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변화된 것은 민중들이 자신과 자신의 권력에 대한 인식이었다. 유럽-미국의 신좌파와 달리, 아시아의 활동가들은 투쟁을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대항문화를 발명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아시아의 운동은 전통음악과 미술, 철학, 연극을 부활시켰고, 낡은 정치적 관계와 포스트식민주의적 자본축적 구조에 맞서 투쟁하면서 그들의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했다.

#### 1968년에서 1989년까지: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몰락

1968년 이후에 풀뿌리 운동들은 지속적으로 민주주의, 자율과 연대의 증가라는 문법에 따라 구조를 갖추었다. 지금 보편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 열망은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완고한 체제와 완전히 대립한다. 이 통일적인 열망과 함께 사회운동들은 전지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 동시적 행동은 더욱더 일반화되었다. 이런 전망에서 보면, 20세기 후반의 민주화운동은 1968년 정점의 지연된 결과였다. 1960년대에 마련된 미래에 대한 선물이었다. 아무도 몰락을 예견하지 못했음에도, 헝가리, 폴란드,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의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는 모두 1989년 변혁되었다. 소련도 홀로 남아 있을 수는 없었고 곧 해체되었다. 동아시아 독재와 동유럽 소비에트 체제를 휩쓴 봉기의 흐름을 되돌아보면서, 이매뉴얼 월러스틴과 테렌스 홉킨스, 지오바니 아리기는 1989년 운동을

28) Poder Popular is also the name of Cuban institutions of government established in the 1975 Constitution. Earlier, a slogan was widely chanted in Chile: “Crear, crear; Poder Popular!” In 2007, I was astonished to see “Todo el Poder al Pueblo!” on the sides of police cars in Caracas, Venezuela.

29) Thompson, *Democratic Revolutions*, 131.

30) Edward Friedman, ed., *The Politics of Democratization: Generalizing East Asian Experiences* (Boulder: Westview Press, 1994), 24.

31) Christopher Neck, *Actual* (April 1990); *World Journal* (April 6, 1990): 33. Quoted in Friedman, *Politics*, 54.

32) V.G. Kulkarnia and R. Tasker, “Promises to Keep,” *Far Eastern Economic Review* (February 29, 1996): 22.



“1968년의 지속”이라고 불렀다.<sup>33)</sup>

1968년과 1989년 봄기들 간의 수많은 역사적 연관성과 강력한 유사성 중에서, 1968년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유고슬라비아의 구좌파 공산주의 정부에 반대한 신좌파 봄기들은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1989년 새로운 정부가 처음 구성되었을 때, 의원들은 1968년 프라하의 봄 지도자 알렉산더 두브체크를 의회의 첫 번째 연사로 선정했다. 소련에서 수많은 저명한 당내 지식인들 중, 특히 『평화와 사회주의의 문제』 저널 중심의 지식인 그룹은 체코의 운동에 크게 영향받았다. 소련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 자신도 공산당 내에서 지도자로 부상한 일이 프라하의 봄에 빚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1968년의 체코슬로바키아는 나를 비판적 사고로 이끈 주요한 충격파였다. 나는 우리나라에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그 충격은 외부 세계에서 왔다.”<sup>34)</sup>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출신인 고르바초프의 대학 시절 친구는, 미래에 체코의 반정부 활동가이자 1968년 개혁강령의 작성자 중 하나인 즈데네크 므리나르(Zdeněk Mlynář)였다. 프라하의 봄이 분쇄된 후에, 고르바초프는 소련 대표단의 일원으로 양국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그는 노동자들이 왜 소련 대표와 만나기를 거부했는지 지적했는데, 그에게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이었다. 19년 뒤, 체코슬로바키아의 1968년과 자신의 프로그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라는 질문을 받자 그는 간단히 답했다. “19년.”<sup>35)</sup>

프라하의 봄으로 인해 변화하고 영감을 받은 것은 고르바초프만이 아니었고, 체코 활동가들도 사회변혁의 과정에 복무했고 최대한 수행했다. 우리는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프라하의 봄이란 꿈을 살려 놓고 헝가리와 소련,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등 수많은 나라에 그 꿈이 퍼지도록 도움을 준 주요 활동가들의 직접적 계보를 추적할 수 있다.<sup>36)</sup>

표1: 오렌지[혁명의] 계보, 1968~2006

33) Giovanni Arrighi, Terence K. Hopkins and Immanuel Wallerstein, “1989: The Continuation of 1968,” *After the Fall: 1989 and the Future of Freedom*, ed. George Katsiaficas, New York: Routledge, 2001, p.35.

34) Mikhail Gorbachev and Zdeněk Mlynář, *Conversations With Gorbachev: On Perestroika, the Prague Spring, and the Crossroads of Soci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47 as quoted in Fredo Arias-King, “Orange People: A Brief History of Transnational Liberation Networks in East Central Europe,” *Demokratizatsia* 15, no.1 (January 2007): 38.

35) Mark Almond, *Uprising! Political Upheavals that have Shaped the World* (New York: Barnes and Noble Books, 2002), 98.

36) Arias-King, “Orange People,”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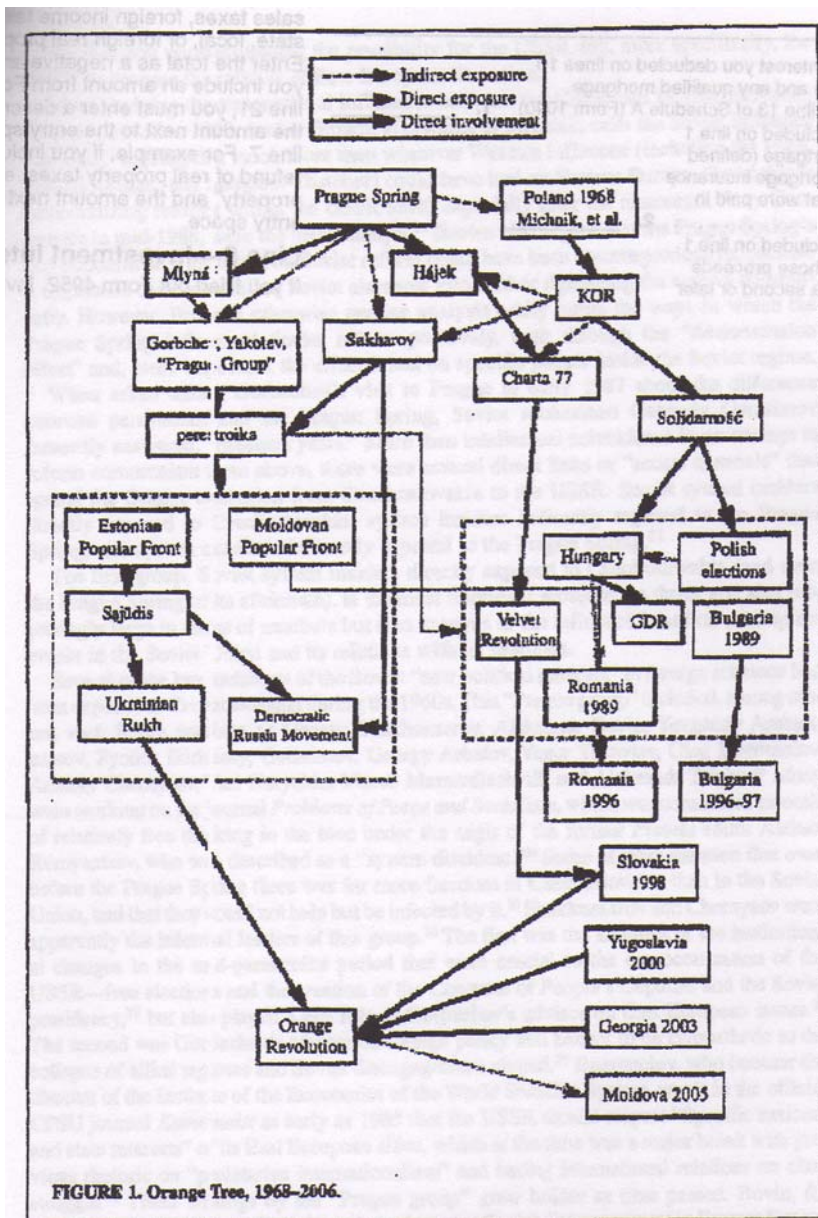


FIGURE 1. Orange Tree, 1968-2006.

Source: Fredo Arias-King, "Orange People: A Brief History of Transnational Liberation Networks in East Central Europe," *Demokratizatsia*, Vol.15, No.1, January 2007, p.35.

프라하의 봄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맺고 있는 연계는 1989년 운동이 1968년 운동에 지고 있는 빛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1968년은 서유럽 평화운동에도 추가로 파장을 끼쳤는데, 신좌파로부터 발생한 이 평화운동은 얼어붙은 냉전기의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즉, 서유럽 사회를 정치 엘리트들이 부적절하게 몰아넣은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게 한 셈이었다. 유럽의 거리에서 미국의 퍼싱II 미사일(과 소련의 SS-20)에 항의하는 평화운동이 펼쳐지지 않았다면, 고르바초프와 소련 지도부는 결코 (새로운 독일 침공에 대한 보험지대로서 역할했던) 동유럽 완충국가에 대한 통제력을 완화할 준비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핵전쟁의 가능성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들이 당시 철의 장막 양쪽에서 분출한 이후에는, 완충 국가들이나 단거리 미사일도 소련이 필요로 했던 확증을 소련 지도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었다. 1981년 가을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여 유럽의 거리에서 나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고르바초프에게 러시아에 대한

서구의 군사개입이 불가능하다고 확신시키는 데 보탬이 됐다. 이렇게 규합된 움직임들은 역사적으로 세계의 정치엘리트들이 만들어 교착 상태에 이른 군사대결을 해체하는 데 기여했다.

물론 러시아의 지배에 대항한 폴뿌리 운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80년대까지 그들은 고르바초프와 소련 지도자들을 성가시게 하는 세력으로 성장했지만, 아시아 봉기가 피플 파워를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은 이후에 동유럽의 운동은 자극과 영감을 받았다. 1987년 8월 23일, 남한의 독재자 전두환이 대통령 직선제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지 채 두 달이 안 되어, 리투아니아의 자유 동맹은 (모스크바의 위성국가인 발트해 공화국들의 운명을 봉인한) 1939년 몰로토프-리벤트로프 협정의 기념일에 항의하는 데 수백 명의 사람을 불러모았다. 이로써 최초의 공개적 반대행사가 열린 것이다. 1988년 6월 10일, 수천 명의 리투아니아인들은 금지된 민족주의 노래를 공개적으로 불렀고, 나중에 “노래하는 혁명”이라고 이름 붙인 운동을 촉발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1988년 6월 24일, 지식인들은 소련의 지배에 반대하는 독립투쟁을 공개적으로 이끌고자 사주디스(sajudis, 리투아니아어로 ‘공동운동’이란 뜻)를 조직했다. 사주디스는 예술인, 학자, 언론인, 음악가, 철학자, 작가들로 구성되었고, 이 지식인들은 몇 달 안에 지지자들이 수만 명으로 늘어나자 다른 사람들만큼 놀랐다.<sup>37)</sup> 1988년 8월 23일,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민족독립을 위한 시위에 나섰다. 녹색운동과 결합한 이 운동은 수만 명의 시민들을 모아 발트해 해안선을 따라 인간띠를 형성하여, 이그날리나 핵발전소와 그로 인한 파국적 오염 가능성에 항의했다. 활동가들은 민요와 축제를 부활시켰고, 전통문화를 이용하여 대규모 저항을 활성화했다. 1988년 9월 11일, 이웃나라 에스토니아에서 열린 “에스토니아 노래”라는 행사는 약 30만 명의 사람을 규합했는데, 이는 에스토니아 인구의 1/4이 넘는 숫자였다.

1988년 12월 7일,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UN 총회 연설에서 “무력과 무력사용 위협은 더 이상 대외정책의 도구가 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곧 이어 수만 명의 소련군대가 동유럽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일단 고르바초프가 독일의 또 다른 침략에 대한 방어선을 유지하기 위한 소련의 무력사용을 비난하자, 변화의 물결이 동유럽을 덮쳤다. 특히 눈에 띄는 시위장소 중 하나는 라이프치히였는데, 1989년 초 그곳에서 민중들은 “우리는 철수를 원한다!”(*Wir wollen raus!*)는 구호를 외쳤다. 그 해가 다 가기 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1989년 6월, 2천 명이나 사망했던 1956년 헝가리 봉기에서 처형당한 영웅 임레 너지가 재매장되었다. 이는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향해 나아가려는 정권의 소망을 드러낸 상징적 행위였다.<sup>38)</sup>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 50주년이 되던 해인 1989년 8월 23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 약 2백만 명은 손을 맞잡고 탈린에서 빌니우스까지 6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인간띠를 만들어 러시아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했다. 1989년 9월 11일 헝가리가 서방 쪽 국경을 개방하자, 동독인들이 밀물처럼 몰려들었고, 동독 지도자들은 점차 성장하는 라이프치히의 월요 행진을 탄압하지 않았다. 10월 16일에는 10만 명이 행진했고, 그 다음 주에는 30만 명이 행진했으며, 마침내 11월 4일 월요일에는 베를린에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50만 명이 모였다. 11월 9일 장벽이 무너졌다.

역사는 이 순간에 숨 가쁘게 변화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하루만에 불가리아의 독재자 투도르 키브코프가 권좌에서 물러나야 했다. 한 달 하고 하루가 지나, 벨벳 혁명이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권력을 장악했다. 동독의 사망은 저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 왜냐하면 동독 비밀경찰은 오랫동안 체코 정권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벨벳 혁명은 6주 간의 자연발생적 항의시위로 성사되었다. 11월 17일 프라하 경찰에게 한 학생이 살해된 일을 추모한 다음, 15,000명의 사람들이 스트라호프 인근 대학에 집결했다.<sup>39)</sup> 사람들이 언덕에서 도시 중심부로 내려오자, 붉은 베레모를 쓴 군인들은 평화적 촛불 집회를 해산시켰다.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지지한 배우들은 극장을 대중집회 장소로 제공했

37) Grazina Miniotaite, *Nonviolent Resistance in Lithuania: A Story of Peaceful Liberation* (Boston: The Albert Einstein Institution, 2002), 26.

38) Johansen, “Waves of Nonviolence,” 24.

39) 여러 해 동안 이 소문은 사실로 알려졌지만, 최근에 야당을 건설하기 위해 고의로 퍼뜨린 소문으로 밝혀졌다. “Velvet Revolution’s Roots Still Obscure 20 Years Later,” *New York Times*, November 17, 2009.

다. 하벨을 지도자로 하는 시민포럼(Civil Forum)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요구했다. 사흘 후, 10만 명 이상의 군중이 벤셀슬라스 광장(Wenceslas Square)을 메웠다. 열쇠를 흔들며 1968년 프라하의 봄에서 영웅이 된 두브체크의 정권 복귀를 요구하면서, 군중들은 공산당이 정부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집결했고, 이번에는 확성기까지 들고 나왔다. 11월 27일 학생들의 동맹휴학은 2시간 전국파업으로 발전했는데, 공산당 국가수반 구스타브 하섹(Gustav Husak)이 퇴진하도록 설득했고, 다음달 연방의회는 만장일치로 하벨을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포했다.

12월 10일, 체코 후사크 대통령이 사임한 같은 날, 울란바토르에서 시위가 폭발한 다음 학생을 중심으로 몽고민주동맹이 결성됐다.<sup>40)</sup> 대규모 광장에서, 록밴드 혼흐(Khonkhs, 종)가 야외 공연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관료주의적 탄압”에 항의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열린 두 번째 집회에는 2천 명의 사람을 모였고 학생들은 언론의 자유, 다당제, 인권을 요구하는 깃발을 들고 돌아왔다. 1월 21일, 온도계가 영하 31도로까지 내려간 그날 군중들은 오랫동안 금지된 민족영웅 징기스칸을 찬양하는 전통 민요를 불렀고, 매주 시위를 하기로 결의했다. 3월 7일 (천안문의 중국 학생들에게 영감을 받아) 단식투쟁을 시작한 울란바토르의 전통복장 활동가들은 수만 명의 지지자들을 모았고, 수도에서 총파업을 시작했다. 항의시위가 마구 터져나오자, 정부는 재빨리 다당제를 허용했다. 4월 중순 석탄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포스트개혁 투쟁이 터져 나왔고, 트럭 운전사들은 보다 많은 경제적 권리를 요구했다.

동유럽 엘리트들의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한 독재자 니콜라이 차우세스쿠는 물러설 의도가 전혀 없었다. 체코 후사크 대통령이 사임한 지 일주일 후, 루마니아의 티미소아라 시는 군대의 발포로 거의 1백여 명이 사살당하면서 격동에 돌입했다. 학살에 맞서 벌어진 티미소아라의 총파업 동안, 군인들은 시민들과 대화를 시작했다. 일주일 안에 군대는 도시에서 철수했고, 혁명위원회가 사실상 정부가 되었다.<sup>41)</sup> 군대가 갑자기 편을 바꾼 후인 12월 22일, 군대의 탱크가 부카레스트의 시민들을 이끌고 차우세스쿠의 본부를 공격하여 그를 생포했다. 크리스마스날, 차우세스쿠와 그의 부인은 처형됐고 새로운 공산당 정부가 재빨리 그들을 대체했다.

변화의 과정이 지속됨에 따라, 1990년 3월 11일 리투아니아는 독립을 선포했다. 같은 날 에스토니아에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안의회가 수도에 소집되었고, 독립선포를 향해 움직였다. 소련에서 떠나려는 리투아니아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소련 군대는 리투아니아 기반시설 대부분에 대한 통제를 유지했다. 1991년 1월 13일 소련군은 대대적 탄압을 가한 결과 이 날은 민중들의 마음에 “피의 일요일”로 각인되었다. 빌니우스의 텔레비전 송전탑에 대한 소련군의 통제를 확보하기 위해 탱크와 장갑총탄이 사용되어 (KGB 요원을 포함하여) 최소한 14명이 사망했고, 702명이 부상당했다.<sup>42)</sup> 민중들은 대규모 반란을 일으켜 소련군이 혼동을 일으키도록 (1968년 프라하에서 그랬던 것처럼) 거리표지판을 부러뜨렸고, 의사당과 텔레비전 송전탑을 방어하는 저항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주일이 채 되지 않아, 이웃 라트비아에서도 6명의 시위대가 사살되자 50만 명이 수도 리가의 중심부에 집결했다. 그들은 의사당과 방송국을 방어하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세웠고, 트럭과 트랙터로 바리케이드를 강화하고, 철조망과 화염물질로 방어벽을로 구축했으며, 순찰대를 조직했다. 시민들은 식사와 딸감, 의약품을 제공했고 소련의 포위에 대비했다.<sup>43)</sup> 풀뿌리 활동이 분주한 가운데 상황이 정리되자, 어떤 러시아의 침공도 실현되지 못했다.

몇 달이 안 되어, 동유럽의 소비에트 체제는 타도되었다.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정부는 개혁 지향적 조치를 취했고 제도적 타협과정을 통해 야당을 권력구조 내부로 통합시켰다. 체코슬로바키아와 동독에서, 바람에 굽히길 거부했던 정권들은 민중봉기로 권력에서 쫓겨나갔다.

40) Peter Ackerman and Jack DuVall, *A Force More Powerful: A Century of Non-Violent Conflict* (Palgrave: New York, 2000), 439.

41) Ibid., 436.

42) Miniotaite, *Nonviolent Resistance*, 49; Johansen, “Waves of Nonviolence,” 29; Richard Deats, “The Global Spread of Active Nonviolence,”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http://www.forusa.org/nonviolence/0900\\_73deats.html](http://www.forusa.org/nonviolence/0900_73deats.html); “Singing Revolution,” [http://en.wikipedia.org/wiki/Singing\\_Revolution](http://en.wikipedia.org/wiki/Singing_Revolution)

43) Olgerts Eglitis, *Nonviolent Action in the Liberation of Latvia* (Boston: The Albert Einstein Institution, 1993), 32-33.

알바니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서, 최고위 공산당 지도자들이 제거된 후에 기반을 다진 공산당 간부들은 수도와 정치권력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했다.

제국이 붕괴하자 소련의 강경파 지도자들은 권력을 되찾으려고 시도했다. 고르바초프의 야심찬 개혁 프로그램에 격노한 당의 보수파가 1991년 8월 19일 쿠데타를 시도했다. 공산당과 KGB, 군대의 보수파들이 동시적 행동에 규합되었다. 고르바초프와 그의 가족은 가택연금에 처해졌지만, 공산당 강경파의 반격에 대한 민중적 저항은 광범했다. 모스크바에서는 민중들이 러시아의회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로 몰려나왔다. 여성과 학생들은 군인들에게 합류하라고 호소했다. 종교인들은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고, 평화주의자들은 비폭력 투쟁방법에 관한 글을 나눠줬으며, 국가에 의해 폐간된 뉴스와 방송들은 대안 매체를 세웠다. 레닌 그라드의 궁전광장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결했다. 시장은 군부에 쿠데타를 지지하지 말라고 호소했고, 러시아정교회의 수장은 쿠데타 지도자들의 지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파문하겠다고 위협했다.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은 우호적인 탱크 위에서 저항을 극적으로 호소했고, 심지어 일부 KGB 인사들도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했다. 결국 쿠데타는 붕괴했고, 소비에트 연방 해체의 길을 열었다. 차례로 15개 공화국들이 독립을 선포했다. 12월 초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과 다른 공화국 지도자들은 소련을 해체했다. 이는 이후에 고르바초프가 “위험천만 쿠데타”라고 묘사했던 조치였다. 8월 쿠데타로 약화된 고르바초프로서는 70년간의 공산당 지배 이후 벌어진 소비에트연방의 붕괴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런 가속적 변화의 시기에 미국의 전 NATO 대사인 할런 클리블랜드는 “전세계적으로 일반 대중이 이제 정치적·사회적 변화의 추동력이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대중을 따라가려고 애 쓰고 있다. 세계사에서 강대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중요한 결과에 대해 그토록 무의미한 것처럼 보인 시기를 떠올리기는 어렵다. 세계의 군사열강과 경제대국의 대통령·국무총리 등 저명한 명사들은 놀라움을 숨기지 못한 채 저녁 뉴스를 지켜봤다.”<sup>44)</sup> 풀뿌리 운동의 권력을 인정한 동유럽의 최고 지도자들 역시 중대한 역할을 했다. 라이프치히, 부다페스트, 프라하 등 동유럽의 많은 도시들에서, 군중들은 “고르비! 고르비!”를 외쳤다. 그들은 자신을 해방시킬 지도자, 정부의 최고위 수준에서 진보를 시행할 새로운 포르트르 대제를 원했다. 개혁과정을 관리하려는 엘리트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돌파가 이뤄지자 결과는 그 누구에게도 기대한 것과 달랐다. 서독은 한입에 동독을 삼켰고, 악몽과도 같은 엄청난 예산초과 문제와 네오나치가 주도한 학살의 등장 같은 문화적 일탈을 낳았다. 소련의 사망은 소비에트 개혁가들의 기대나 소망을 초월했다. 기업적 자본주의가 구소련에 급속하게 침투하는 상황을 아무도 저지할 수 없었고, 러시아는 하버드대학교 출신 경제학자들의 신자유주의적 공세로 황폐화되었다. 장기적 운동과 강렬한 봉기, 풀뿌리 봉기, 활동가 그룹들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민주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열쇠와도 같다. 하지만 공산주의 세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적 촉매는 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민주화는 지속적이지도 깊이 있지도 않았고, 새로운 엘리트들은 통제력을 장악한 다음 전지구적 자본과 제휴했다.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미국의 승리주의자들은 냉전에서 승리를 거뒀음을 선포했고 미국이 주도하게 될 세계지배의 또 다른 세기를 준비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오도된 견해에 의하면, 우리는 “역사의 종말”에 도달한 셈이었다. 비록 나중에는 철회됐지만, 많은 사람들은 전 세계가 미국식 대의민주주의를 가능한 최상의 정부형태로 환영하고 있다고 믿었다. 폴 월포워츠와 딕 체니는 미군을 이라크에 파병하면서, 그들이 바그다드 거리에서 꽃다발 세례 속에서 환영받으리라 기대했다. 미군 사상자의 지속적 증가, 2008년 시작된 경제위기, 중국의 상승세 등과 함께 지구적 지배라는 미국의 환상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재빨리 사라졌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천황에 대해 갖춘 예우와 중국에 대한 침묵은 앞으로 더욱 심각하게 펼쳐질 미국 몰락의 표면적 지표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심에 있다고 주장하는 20세기 후반의 이데올로기적 해석은, 새뮤얼 헌팅턴이 주장한 제3의 물결 개념에서 여전히 작동중이다.

### 헌팅턴의 제3의 물결 다시 보기

새뮤얼 헌팅턴 외에 그 어떤 이론가도 자신의 아이디어가 국가 정책에 광범하게 적용되는

44) Harlan Cleveland, “The Age of People Power,” *The Futurist* (January-February 1992): 15.

경우란 거의 없다. 펜타곤의 내부자들과 전지구적 강단학계 네트워크에서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평생을 냉전의 전사로 산 헌팅턴은 심지어 미국의 지지를 받는 억압적 제3세계 독재국가에서도 군대를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칭찬했다. 소련의 몰락 이후 “미친 개”(헌팅턴의 제자들은 그를 이렇게 부른다)는 “문명의 충돌”을 경고했으며, 이슬람 세계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전지구적 군사개입의 토대를 쌓았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아래서 미국은 베트남에서 미군이 움직이는 것이면 무엇이든 죽일 수 있는 “무제한 발포지대”에 대한 대대적 폭격을 통해 “강제징집형 도시화”를 시행했다. 닉슨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매 1분마다 미국은 베트남에 1톤 이상의 폭약을 퍼부었는데 이는 모두 320만 톤으로, 아이젠하워와 케네디, 존슨 정권기의 폭격량을 합한 것보다도 많은 양이다.<sup>45)</sup> 칼 보그스가 설명한 것처럼, “이 전쟁 말기에 미국은 15,000개 촌락 가운데 9,000개를 파괴했고, 2,500만 에이커의 농지, 1,200만 에이커의 산림, 150만 마리의 농업용 가축을 파괴했다. 도시와 마을은 폭격, 방화당하고 불도저에 밀렸다. 주민들은 자주 한데 몰려 학살당했다. 거의 1백만 명의 고아와 181,000명의 불구자, 1백 만명의 미망인이 생겼다. 남부에만 1,900만 갤런 이상의 독성 제초제가 퍼부어졌는데, 이는 화학전 사상 최대 규모의 사용량이다.”<sup>46)</sup>

58,000명 이상의 미국인 희생과 2백 만명의 도살에도 불구하고, 남부 베트남을 “민주화”하려는 헌팅턴의 시도는 베트남 자유투사들의 영웅적 저항과 전지구적 평화운동으로 분쇄되었다. 베트남에서 미국이 패배한 데 충격을 받은 헌팅턴은 삼자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에 대한 보고서에서 “민주주의의 불안”(democratic distemper)을 1960년 시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미국에서 더 적은 민주주의가 요청된다고 결론내렸다.<sup>47)</sup>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유의 건강함을, 새뮤얼 헌팅턴이나 헨리 키신저 같은 하버드 출신의 황달 걸린 미덕의 표본들이 가하는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유의 능력을 우려했다.<sup>48)</sup>

1984년 헌팅턴은 “동유럽에서 민주적 발전의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 ……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전세계에서 민주적 발전은 당연히 한계에 도달했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sup>49)</sup> 잘못된 평가를 한 게 헌팅턴 혼자만은 아니었다.

(소비에트 체제 붕괴의 물결이 일기 직전인) 1989년에 출판된 민주화에 관한 책에서 (주로 민주화 이론의 지도적 석학들인) 후안 린츠, 세이어 마틴 립셋, 래리 다이어먼드는 “공산주의 국가는 민주주의로의 이행 전망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단 한 나라도 포함시키지 않았다.<sup>50)</sup> 이런 예측의 실패는 정보의 부족 때문일 수 없다. 미국 언론은 지속적으로 공산주의의 내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폭넓게 다뤄왔던 반면, 미국의 영향권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중국의 천안문광장 시위 때 미국의 언론이 보여준 광기에 견주어 1980년 광주봉기에 작은 지면이 할애된 점은, 왜 중국보다 9년이나 먼저 일어났음에도 광주항쟁이 “한국의 천안문”이라고 불리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아시아와 동유럽에서 독재정권이 차례로 몰락하자, 헌팅턴은 재빨리 비관주의를 버리고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이란 개념을 설파했다. 과거에 상정했던 이데올로기적 전제 때문에 그는 1960년대 운동이 도입한 가치에 대한 진지한 재평가를 무시했다. 시민권 운동과 신좌파[의 부상] 이후에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은 몰락할 날짜만 세는 신세였고,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필리핀 등 수많은 나라에서 미국(과 헌팅턴)의 지지를 받는 다른 독재정권도 마찬가지였다. 공산주의적인 “철의 장막” 뒤에서는 자본주의적인 “자유세계”든 간에, 1968년의 전지구적 물결이 세계를 변화시킨 이후 폭압적 정부는 지속될 수 없었다. 반민

45) George Katsiaticas, ed. *Vietnam Documents: American and Vietnamese Views of the War* (Armonk, NY: M.E. Sharpe, 1992), 143.

46) Carl Boggs, *The Crimes of Empire* (London: Pluto Press, 2010), 55.

47) Michael Crozier, Samuel Huntington, and Joji Watanabe, *The Crisis of Democracy: Report on the Governability of Democracies to the Trilateral Commissi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5), 106, 113-115.

48) For an overview of Harvard’s involvement in eugenics as well as other dimensions of its foreign policy, see the film, *Veritas: Harvard’s Hidden History*(2011).

49) Samuel P. Huntington, “Will More Countries Become Democratic?” *Political Science Quarterly* 99, no. 2 (Summer 1984): 217-218.

50) Friedman, *Politics*, 33.

중적 정권은 연이어 몰락했고, 헌팅턴은 민주화운동을 신좌파적 기원에서 분리하고 “민주주의의 물결”에서 미국이 가진 역할을 과장하는 도구로서 “제3의 물결”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다.

###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정치적 문제 중에서 민주주의의 의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의 없다. 보편적 가치를 갖는 민주주의는 여전히 정의하기 힘든 개념이다. 최소한으로 선거로 정의하면, 이름에 걸맞는 민주주의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에 대한 참여와 정의의 존재를 수반한다. 그런 고려에도 불구하고 헌팅턴은 “자유롭고, 공정한 공개적 선거가 민주주의의 본질, 분리분가분한 본질(*sine qua non*)”이라고 주장했다.<sup>51)</sup> 그렇게 주장하면서 헌팅턴은 보편적 진실성을 서구식 대의정부, “형식적 민주주의”에 돌리지만, 이 민주주의하에서 경제엘리트의 구성원들은 정치권력의 자리를 놓고 선거로 경쟁하며 소수의 민중만이 투표하는 수고를 할 뿐이다.

보통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미국의 선거에서, 펜타곤과 초국적 기업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후보는 TV 토론에 포함될 수 없다. 주요한 기금조성은 말할 것도 없다. 그 결과, 막대한 다수의 미국 선거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간의 선택보다 못한 수준에서 이뤄진다. 투표는 설사 이뤄져도 전쟁에서 물러날 가능성과 같이 시민들에 유의미한 선택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집권하던 공화당이 집권하던, 기업에 의한 공적 재정과 막대한 펜타곤예산의 약탈은 전쟁기계의 끝없는 탐욕을 먹여살린다. 몇 년마다 치르는 선거는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발언권이 있다고 느끼게 해줄지는 몰라도, 진정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데는 별로 하는 게 없다.

비록 우리가 헌팅턴의 시각을 일시적으로 수용한다 해도, 주요한 문제는 생긴다. 단순히 선거를 민주주의로 보는 그의 개념은 측정의 편의성을 보완한다. 왜냐하면 선거의 부재 또는 존재가 그가 선거민주주의가 존재한다고 규정한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측정되기 때문이다. 즉, 성인 남성의 50%가 투표권이 있어야 하고, “책임 있는 행정부”는 선출된 의회의 지지를 받거나 직접선거로 선택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기준이 바로 그것이다.<sup>52)</sup> 오늘날 사상가들은 헌팅턴에게 왜 50%의 남자만으로 충분하며, 왜 그는 여성을 배제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대략 60%를 상회하면, 남성만의 선거는 약 30%의 시민만이 투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후보자는 16% 시민을 “다수”로 해 선출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적이라고 간주하기 힘든 숫자이다. 비록 투표권이 모든 사람에게 확대된다고 해도 투표하는 60%라는 다수는 여전히 유권자의 30%밖에 되지 않는다.

헌팅턴의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주의적 정의와 대조적으로, 상이한 이해가 1960년대 이래 민중운동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정식화되었다. 평범한 시민들이 의사결정에 대한 직접참여를 통해 실질적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중의 개입은 전쟁의 종식과 군부의 대량살상 무기 해체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귀중한 자원을 한줌의 억만장자들이 통제하기보다 민중적으로 할당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면 머독이 전지구적 미디어를 통제하는 대신, 우리가 시민기자가 되어 전세계에 뉴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기구들이 기업의 탐욕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기초하여 사회의 목표와 작동수단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는 “사람들 사이의 합리적 토론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독립적인 ‘공적 영역’의 창출, 그리고 권력과 부의 탈집중화에 기초하여 측정”될 수 있다.<sup>53)</sup> 이름에 걸맞는 민주주의는 모든 개인에게 정치적 문제에 대해 심의하는 데 참여하여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할지 결정할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이런 유형의 속의민주주의는 민중봉기의 실천 속에서 예시될 수 있지만, 현 대의정부 체제에서는 우리에게 제공될 가능성의 영역 밖에 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대의민주주의는 기업적 시장경제에 이상적으로 적합하다. 후보자들이

51) Huntington, *Third Wave*, p.9.

52) *Ibid.*, p.16.

53) Peter Hering in *The Role of Civil Society and Democratization in Nepal*, ed. Ananda P. Srestha (Kathmandu: Nepal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1998), i.

광고를 통해 생산물처럼 경쟁할 수 있으며, 실질적 이슈보다는 개인에 대한 투표는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에서 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선택이다. 의회민주주의는 경제엘리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기업 및 소비자 시장을 넓히며 전지구적 자본주의 경제의 협력을 이루는 데, 그리고 은행들에 안전하고 믿을만한 금융적 하부구조를 제공하는 데 적합한 도구이지, 민주주의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아니다. 헌팅턴의 “민주화” 개념이 더욱 많이 받아들여질수록, 자유에 대한 위협은 더욱 실질적이게 된다. 그는 “민주주의”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 또는 기업 이익을 방해하지 않을 때만 좋은 것이라고 간주했다. 아옌데의 칠레,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또는 미국인들이 전쟁에 항의할 때, 그는 민주주의가 제한되어야 하며, 심지어 필요하다면 민주주의가 타도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헌팅턴의 “제3의 물결” 개념은 시장을 열고 미국계 초국적기업의 침투를 심화하도록 고안된 도구였다.

헌팅턴을 따라, 일군의 정치학자들이 민주주의의 본질은 선거라고 선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아프가니스탄의 카르잘, 즉 수천 명 미국인들의 목숨, 수십만 원주민들의 생명, 미국 납세자들에게서 징수된 수천억 달러를 낭비해야만 유지되는 새끼 독재자들의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위한 토대를 준비했다. 이 모두가 그들이 “민주주의”에 필요하다고 묘사하는 언론캠페인과 정교한 이데올로기적 현혹을 통해 정당화된다. 헌팅턴의 이론이 전세계에 강제하는 유형의 “민주화”의 내용에는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로 자의적 감금·고문이 벌어지는 강제수용소가 있는] 아부 그라이브와 CIA의 범인인도 프로그램, 막대한 다수의 민간인이 살해되는 끝없는 전쟁, 환경파괴, 세계체제의 주변부에서 수백만 명에게 죽음의 저주를 퍼붓는 무역자유화 등을 포함하며, 이 정책들은 실질적인 민중들의 어떤 토론이나 현실적 대안들 간의 선택 없이 실행된다.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정당화를 위해, 헌팅턴은 역사를 아주 장황하게 다시 쓰는 데까지 나아갔다. 『제3의 물결』에서 그는 민주주의가 세 번의 커다란 물결 속에서 창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물결: 1828년에서 1926년까지

두 번째 물결: 1943년에서 1962년까지(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

세 번째 물결: 1974년에서 1991년 그 책의 출간까지

플뿌리 권력에 대한 그의 편견과 일치하게, “첫 번째 물결”에 대한 시기구분은 민주주의를 미국혁명이나 프랑스혁명 같은 근대적 대의민주주의를 창출한 사회운동로부터 분리하는데, 이는 “세 번째 물결”에 관해 1960년대 봉기라는 뿌리로부터 민주주의를 분리시킨 것과 같다. 그는 1960년대 사회운동으로 시작된 봉기들을 배제하는 한편, 1974년 이전의 경제발전은 배제하지 않는다. “상당 정도로 1974년부터 시작된 민주화의 물결은 그에 앞서 20년 간 이뤄진 경제성장의 산물이었다.”<sup>54)</sup> 헌팅턴의 세 물결은 자본주의적 엘리트들의 승리에 조응하며, 그 자체로 진정한 민주주의보다는 시장경제의 확대와 더 연관되어 있다. 헌팅턴은 자신이 인정한 정치적 발전만을 무시하지 않았고, 그가 활동의 기여를 인정할 때 그것은 엘리트들의 행동이었다. 그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세 번째 물결은 압도적으로 카톨릭의 물결이었다”고 확신했다.<sup>55)</sup> 그는 카톨릭 물결의 기원을 교황 요한 23세로부터 비롯된 1960년대 카톨릭교회의 변화에 두지만, 그것을 교회의 토대에서 “기독교 좌파”의 기원이 된 1960년대 운동과 연결시키지 않았다. 1960년대 운동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는 기독교 좌파와 해방신학 옹호자들 수만 명이 단순히 교황의 신민이 아니라 교회의 변화를 가져온 능동적 창조자이자 전지구적 플뿌리운동의 자주적 참여자들임을 이해하지 못했다.<sup>56)</sup>

헌팅턴은 세 번째 물결을 미국의 제국적 권력과 민주적 위신에 대한 헌사라는 틀에 짜맞추었다. “.....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은 미국의 모범에서 영감을 받고 모방한 것이었다. 랑군에서 민주주의의 지지자들은 미국기를 흔들었고,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연방주의자』(*The Federalist*)를 재인쇄했으며, 프라하에서는 ‘우리 승리하리라’를 불렀다. 바르샤바에서는 링컨을 읽고 제퍼슨을 인용했다. 베이징에서는 민주주의의 여신상을 세웠다.”<sup>57)</sup> 여기서

54) Huntington, *Third Wave*, 61.

55) *Ibid.*, 76.

56) See *Imagination*, 71-73.



헌팅턴은 사건들을 잘못 구성하는 결정적 오류를 범했다. 그는 천안문 광장의 민주주의 여신상이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의 모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의 미술과 학생들은 분명히 자유의 여신상을 모방하는 게 너무 “친미적인” 발상이라며 거부했고, 그 대신에 러시아 공산주의자 베라 무히나의 기념비적 조각인 “노동자와 집단농장 여성”을 모델로 삼았다. 이 조각은 1937년에 열린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소련 전시관 지붕에 두 손에 횃불을 든 모습으로 전시된 바 있다.<sup>58)</sup>

비슷하게, 그리스 독재 타도 운동에 목숨을 바친 아테네공과대학 학생들은 심오하게 반미적이었다. 그리스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과 이스라엘은 1967년 민주주의를 전복하고 그 대신에 파파도풀로스 군사평의회를 강요했다.<sup>59)</sup> 이 시기에 펼쳐진 전지구적 봉기의 실제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는 아테네공과대학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의 투쟁은 남지중해의 독재정권들을 타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사건이었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1968년의 전지구적 학생운동은 그리스 학생들을 자극했다.<sup>60)</sup> 1973년 아테네의 학생들은 베트남 전쟁에 반대했고 또 몇 달 전에 군부 통치자들을 전복했던 태국 학생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했다. 심지어 그 경우에조차 헌팅턴은 포르투갈의 장교들을 모잠비크, 앙골라, 기니-비사우에서 봉기한 아프리카 게릴라들과 연결시키지 않았다. 이들은 1974년 성공적으로 살라자르가 전복되기에 앞서 포르투갈의 식민지 장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 핵심적 풀뿌리 운동이었다.

확실히, 미국의 민주주의적 광채는 1980년대에 여전했다. 광주봉기 당시 가장 전투적인 투사들은 자신을 미국의 인기 TV 프로그램의 이름을 따라 자신을 “SWAT”(기동대)라고 명명했고, 많은 시민들이 미국항공모함 코랄시의 한국 영해 진입이 자신들을 구하러 온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사실 정반대였다. 미국이 봉기를 분쇄하도록 한국 군부독재를 교사한 이후, 남한에서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반미주의가 등장했다. 세계사상 가장 자유로운 사회이자 동시에 가장 호전적인 미국의 변증법적 성격은 마침내 1980년대 동안 다양한 열광적 지지를 가능하게 했다. 헌팅턴에게 미국은 “힘과 성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sup>61)</sup>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보통 시민들이 번영 속에 살면서 다른 어느 곳에서도 없는 자유를 누리는 자유로운 사회의 이미지였다.

헌팅턴의 이종교배적 정치발전 모델은 민주주의를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두 번째 물결”처럼 외부로부터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해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연합국의 점령은 서독,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일본, 한국에서 민주적 제도의 개시를 촉진했다”는 것이다.<sup>62)</sup> 한국전쟁 시작 이전에만 10만에 이르는 남한 사람들이 살해됐다는 사실을 제외하더라도, 의문은 남는다. 과연 한국은 민주주의였는가? 우리가 한국에 (헌팅턴 자신의 정의에 따라) 어떤 “자유롭고 공정한 공개” 선거가 있었는지 묻는다면, 그 누구도 가리킬 만한 것이 전혀 없다. 외부로부터 강제된 보다는 최근의 민주주의를 찬양하면서, 헌팅턴은 미국의 그라나다와 파나마 침공을 민주주의의 시작으로 환영했다.<sup>63)</sup> 물론, “인민의 지배” 외에 달리 뜻하는 게 없다면 외부로부터 강제된 어떤 정부체제도 민주주의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1972년 크리스마스에 하노이를 폭격한 헨리 키신저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확대한 버락 오바마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세상에서 주류 학계의 연구에 결함이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지만,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데올로기와 과학

57) Huntington, *Third Wave*, 286.

58) Han Minzhu, ed., *Cries for Democracy: Writings and Speeches from the 1989 Chinese Democracy Move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343-4.

59) Stephen Rousseas, *The Death of a Democracy: Greece and the American Conscience* (New York: Grove Press, 1967).

60) Eraklis Anastasiadis, “The Athens Polytechnic Uprising: The Uprising that Brought Down a Dictatorship,” Wentworth Institute of Technology, Summer 2007.

61) Huntington, *Third Wave*, 287.

62) *Ibid.*, 18.

63) *Ibid.*, 40, 164.

1980년대 미국 국립학술원은 헌팅턴의 저작이 “이데올로기”이지 “과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의 가입을 두 번이나 거부했다. 헌팅턴의 학술원 가입 반대 캠페인에서 예일대학교 수학과 서지 랭은 헌팅턴의 저서인 『정치질서와 사회변화』(*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1968)를 지적했다. 그 책에서 헌팅턴은 아파르트헤이트하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만족스러운 사회”라고 불렀다. 헌팅턴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은 전혀 독특한 게 아니다. 미국의 주류 정치 학계 대부분이 통상적으로 가치편향적 연구를 “과학”으로 받아들인다. 헌팅턴의 케임브리지 대학교 동기이자 MIT 교수인 아이티얼 드 솔라 풀(Ithiel de Sola Poole)은 사무실 캐비닛 파 일에 있는 고문당한 베트남 피의자들의 심문기록을 적의 동기 분석용 “데이터”로 보관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전체 고문기구의 일부가 되었다. 베트남 전쟁범죄에 대한 공모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날 풀의 이름은 미국정치학협회의 연례 수상자 명단에 올라 있다. 풀처럼, 헌팅턴도 자신을 단지 학자로 보지 않고, 자신의 책에 “발전의 동력”인 군부에 대한 칭송과 권고를 끼워넣었다. 헌팅턴과 같은 “공평무사”하고 “가치중립적”인 정치학자들에게, 엘리트들의 동학은 주요 변수이다. 그들은 엘리트가 항상 지배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유일한 질문은 “어떤 엘리트인가?”이며, “민주적 이행은 옛 엘리트의 유지를 위해 관리 가능한가?”이다. 헌팅턴의 행정적 사회연구는 이행 체제의 성격을 범주별로 분류하여, 옛 엘리트의 전면적 대체와 달리 주요 지도자들이 새로운 권력지형에서 자신을 유지하는 전환(transplacement)과 옛 엘리트가 새로운 엘리트로 변신하는 변형(transformation)으로 분류한다. 엘리트 지배의 전면적 폐지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창출은 가능성의 영역 밖에 남아 있다. 자칭 “야심찬 민주적 마키아벨리”인 헌팅턴은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급진적 반대세력을 고립시킬 것인가에 관한 “요책”을 제공했다.<sup>64)</sup>

엘리트 행동을 강조함으로써, 헌팅턴은 20세기 말 민주화 파고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폄하했다. 그는 “시위, 항의와 파업은 1980년대 완수됐거나 진행중인 겨우 6개의 이행 체제[필리핀, 남한,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에서만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sup>65)</sup> 마지못해서였다고 해도 그는 “비록 증거는 별로 없지만, 필리핀과 한국의 상황이 1988년 미얀마와 1986년 가을과 1989년 봄 중국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를 고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타이완에서 벌어진 자유화에 약간의 영향을 끼쳤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인정했다.<sup>66)</sup>

헌팅턴처럼, 기에르모 오도넬과 필립 슈미터도 반정부 운동에 의해 직접 전복되기보다 엘리트들이 권력을 지지자들의 일부 분파에게 이월하거나 개혁 성향의 야당과 이행에 대해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sup>67)</sup> 그것이 바로 엘리트들이 비폭력을 수용하고 폭넓게 선전하는 한 가지 이유이다. 다시 말해, 비폭력은 옛 지배자와 새 지배자 간의 협상을 가능하게 하고 새 체제 내에서 낡은 체제의 평화적 적응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개혁주의 정당들이 그렇게 유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스티븐 해거드와 로버트 카우프먼은 “..... 몇 가지 우리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개혁은 때때로 개혁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과 정치적 영향력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좌파’ 정당들이 시행할 때 한층 더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깨달았다.<sup>68)</sup>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민중운동은 보다 많은 민주주의로 이어질 수 없으며 “통제불가능”한 세력으로 증명될 수도 있고, 전적으로 기존체제의 혁명적 전복 또는 탄압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sup>69)</sup>

이해 범위의 차이가 얼마든 간에, 주류 사회학자와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은 “합리적” 개인 행위자가 사회의 핵심에 있다는 개념에 동의한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그들은 “합리적 선택” 또는 구획된 자기이해의 개인적 증진이 사회적 선의 극대화

64) Ibid., xv.

65) Ibid., 146.

66) Ibid., 103-4.

67) See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68) Stephen Haggard and Robert Kaufman, *The Political Economy of Democratic Transi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377.

69) Guillermo O'Donnell and Philippe Schmitter, eds.,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ism: Comparative Perspectiv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것이라고 믿는다. 먼저, 개별화된 도구적 합리성은 합리적 행위의 한 형태일 뿐이고, 곧잘 비합리적 형태일 때도 많다. 집단적인 도구적 합리성과 가치 합리성도 다른 형태이며, 사회운동을 자극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한다. E.P. 톰슨이나 조지 루데를 중요한 예외로 두면, 사회과학자들은 전통적으로 군중을 개인보다 덜 합리적이라고 간주했다. 극단적 해석에서 군중들은 “전염”의 한 형태, 권위주의적 지배와 집단폭도와 같은 비지성적 행위를 체현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전통적 지혜에 따르면, 군중은 개인들이 개별적 합리성을 멈추고 “원초적인” 본능적 열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한다.

이런 견해와 대조적으로 사회운동으로 단결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다른 동학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달리 말해, 최상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 함께 행동하는 보통사람들은 민족국가와 거대기업을 지배하는 엘리트들보다 더 커다란 합리성과 지성을 체현한다. 집단지성이란 개념을 견지하기 위해 급진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다. 최근 테크놀로지의 목격자들은 간단하지만 의미심장한 통찰력을 기록했다.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은 “군중들의 지혜”와 “똑똑한 폭도”(smart mobs)를 용이하게 했다는 것이다.<sup>70)</sup>

한국의 경우, 엘리트 주도의 이행을 선호하는 정치학자들의 편견 때문에 카네기위원회는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 대한 봉기 운동의 기여를 무시했다. 그 대신 그들은 (나중에 광주민중에 대한 범죄로 감옥에 갇혔던) 노태우에게 [민주화 이행의] 영예를 돌렸다.<sup>71)</sup> 후안 린츠와 A. 스테판은 동독 연구를 통해 민중 동원이 정치지형을 변혁했다는 실질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체제붕괴”가 일어났다는 결론에 이르렀다.<sup>72)</sup>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에서 과거 독재체제의 일부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 때(남한, 동독,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그 주된 이유는 봉기 운동의 합리성과 심지어 순진함에 있었지, 영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었다. 민중의 아량은 심지어 많은 물러난 독재자들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유지하도록 했고, 뒤발리에, 마르코스, 전두환, 에르샤드, 수하르토 같은 이들 모두가 그랬다.

## 봉기에 대한 평가

봉기는 시대의 최상의 것이자 최악의 것이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만, 거대한 후퇴도 가능하다. 민중들은 새로운 평생의 친구를 사귀고, 다른 이들은 사랑하는 이가 살해당하고 피가 거리에 흐르는 것을 공포 속에 지켜보기도 한다. 이런 희생은 가치가 있는가?

대부분의 정치학자나 헌팅턴에게 봉기의 충격은 주로 엘리트 권력의 변화로 이해된다. 이는 확실히 분석적 접근이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결과가 있다. 한 가지는 민중의 복지와 행복의 광범한 지표, 하위집단이 쟁취한 새로운 권리, 확대된 자유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번거로운 부담과 독재가 어느 정도로 증식되었는가? 두 번째 평가적 차원은 200년 이전에 예시되었는데, 임마누엘 칸트가 이성이 도덕·문화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결정요소인지에 관한 지표를 추구했다. 만약 우리가 민중의 삶에서 자유를 측정하는 틀에 대한 칸트의 통찰력을 추정하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민중들은 사회적-정치적 문제의 협의적 주체가 될 수 있었는가? 보통 시민들이 쟁취한 자유가 어느 정도로 자유로운 공적 대화, 정책수립에 보통시민의 참여 증가, 권위의 변화된 패턴, 시민조직의 활성화로 귀결되었는가? 미래의 자유운동을 위해 어떤 종류의 자원이 생산되었는가?

정치적 통제센터를 유지해야 하는 헌팅턴과 주류 정치학자들은 그런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다.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승자가 대문자로 역사를 기록한다. 그러나 여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속박되지 않은 이해가 가능하다. 모든 혁명적 변혁은 미래 봉기를 위한 기반을 준비한다. 권력을 장악하지 못해 명백한 실패임에도, 1848년, 1905년과 1968년 등 과거 물결의 사회운동은 가치를 심오하게 변화시켰고, 새로운 정치적 시대를 인도했다.<sup>73)</sup> 1848년 이후, 노동자들은 더 많은 고용권을 쟁취했고, 시민들의 투표권은 확대되

70) See the recent books by non-academic and non-movement observers James Silewecki, *The Wisdom of Crowds* (New York: Random House, 2005) and Howard Rheingold *Smart Mobs: The Next Social Revolution* (Cambridge, MA: Perseus Publishers, 2003).

71) See Volume 1 of this book.

72) Juan J. Linz and Alfred Stepan, *Democratic Transitions and Consolidation: Eastern Europe, Southern Europe and Latin Americ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316-328.

었다. 1905년 이후로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은 더욱 정당화되었다. 1968년 이후에 여성의 권리, 하층집단의 정의, 환경은 중심적 관심사가 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이후의 아시아 봉기는 권력장악 없이도 자유를 확대했다. 강력한 봉기운동으로 생산된 가치의 재구성(transvaluation)은 엘리트 구성의 일시적 변동이나 새로운 투표제도의 시행보다 더 지속적이고 더 커다란 의의를 가질 수도 있다. 봉기의 성공 이후, 41년 간 지속된 타이완의 계엄령 체제는 마침내 종식되었고, 태국인, 네팔인, 필리핀인, 한국인들은 모두 새로운 보다 진보적인 헌법을 획득했다. 남한에서는 1987년 이후 노동자들이 매년 연간 두 자리수 임금인상을 쟁취했고, 태국, 네팔, 남한, 중국의 노동자들은 더 많은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를 쟁취했다.

하지만 봉기는 민중의 삶의 기준 퇴행, 시민 탈동원화, 국가적 문제에서 정치참여의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태국, 남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성공적인 독재타도 이후, 세계은행과 IMF, WTO의 지원을 받는 엘리트 기업들이 민중운동에 의해 제공된 공간을 이용하여 미국과 일본의 상품과 투자자들에 대한 장벽을 무너뜨렸다. 버마에서 극심한 빈곤이 지배하고, 장군들을 부유하게 하는 무자비한 약탈국가와 함께 막대한 다수는 주변화된 삶의 상태로 고통을 겪고 있다. 구소련에서는 굶주림이 증가하고 기대수명은 하락했다. 1989년에는 겨우 2%의 러시아인들이 빈곤선 이하로 생활했다. “민주주의”가 도래한 지 10년 만에, 모든 어린이의 절반이 빈곤 속에 살고, 23% 이상이 궁핍화되어 하루 2달러 이하로 살아갔다.<sup>74)</sup> 완전히 40%의 러시아인들이 하루 4달러로 연명하며, 결핵과 유아사망율은 사상 최고치로 올랐다. 20년 새 평균기대수명은 5년이나 줄어 60세가 되었다.

이 책에서 다룬 9개 사례연구의 한 가지 공통된 결과는 나라마다 봉기 이후에 후광 격동(afterglow surge)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봉기는 시민사회를 역동화했고, 노동자의 파업과 농민운동, 소수민족과 하층민 사이에서의 동요, 독립신문, 협동조합과 정치활동의 우후죽순식 등장에서 분명한 결과였다. 분명히 봉기는 투쟁주기의 확대를 불러왔다. 봉기한 대치는 고객을 시민으로 변화시켰고, 엘리트로 하여금 목표를 재평가하고 정책을 조정하도록 했고, 풀뿌리 조직들에게 힘을 부여했다. 개인과 집단들이 비합법적 체제변화적 행동에 참여한 다음, 그들은 확립된 절차를 재구성하고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한 새로운 형태의 참여를 할 방법을 발견했다. 세계 최대의 천연자원은 인간의 상상과 의지이며, 이것은 20세기 말의 격동에 의해 고무되고 역능으로서 표출된 힘이다.

그와 동시에, NGO의 활성화와 같은 봉기의 후광 효과는 새로운 층의 직업적 활동가들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그들은 민주주의 증진에 관심을 갖는, 그러나 전지구적 엘리트들의 권력과 부에 도전하지 않는 신청자를 찾는 미국 기관들의 풍부한 모집기반을 제공했다. 전문화된 활동가 운동을 지배하게 되면서, 봉기는 동시에 붕괴되고, 심지어 좋은 의도를 가진 활동가들도 과거에 반대했던 바로 그 체제에 봉사하는 기구들에 포섭되었다. 1980년대, 피플파워 반란들이 정치동학을 변화시키자, 미국의 전지구적 전략은 억압적 군사개입과 CIA 비밀작전에 대한 전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증진”이라는 공적 구성요소, 대상국가(미국의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비우호적 또는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체제의 나라들)의 등장하는 시민사회에 침투해 관련 움직임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게 되었다. 수천만 달러가 과거 CIA에 의해 관리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우호적” 노동조합과 정당, 여성주의동맹, 활동가 클러스터, 미국의 전통적 이익을 지지하는 미디어의 창출 등에 지출됐다.<sup>75)</sup> 전국민주재단(NED), 미국노총(AFL-CIO), 민주당과 공화당의 국제위원회, 미국상공회의소 등과 더불어, 미국 관료들이 선택한 NGO들은 등장한 시민사회를 전지구적 엘리트들과의 초국경적 동맹으로 연결하기 위해 시민사회 내에서 우호적인 목소리를 만들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았다.<sup>76)</sup> 이런 노력은, 마르코스 치하의 필리핀이나 보다 최근에는 무바라크 타도 이전의 이집트처럼, 원래 미국한테서 지원받는 독재에 맞서는 투쟁을 통해 발전한 토착 급진조직들을 침해할 필요가 곧잘 있었다. 이 두 경우에 목표는 아래로부터 등장한 민중적 요구들을 억압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거리의 급진적 동력이 그 자체의 논리에 따라 발전하도록 내

73) *Imagination*, 13-18.

74) Joseph E. Stiglitz,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Norton, 2002), 153.

75) One of the first analyses of this phenomenon is in William I. Robinson, *Promoting Polyarchy: Globalization, U.S. Intervention, and Hegemon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76) *Ibid.*, 95.

버려두면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미국의 전략적 군사이익과 기업지배 양자에 위협에 될 것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 토착 시민사회 그룹들에 대한 미국의 침투는 운동의 급진적 잠재력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이뤄지는 예방조치인 경우가 보통이다. 아랍의 봄 시기에 제임스 페트라스가 진술한 것처럼,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독재자를 고수하는 것이 지닌 위험은 봉기를 급진화시킨다는 데 있다. 달리 말하면 봉기에 수반한 변화는 정권과 국가기구 양자를 쓸어버리고, 정치적 봉기를 사회혁명으로 전환시킨다.”<sup>77)</sup> (대중적 기반을 가진 정권이 유고슬라비아의 밀로세비치처럼 미국에 비우호적임에도 군사개입으로 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NGO들이 이끄는 전략적 비폭력 반정부 세력[의 개입]이 대안적 전술로 활용되었다.<sup>78)</sup> 전지구적 경제가 발전하면서, 권위주의적 독재는 경제적 확장에 질곡이 되거나 일국적 봉기를 진압할 수 없었다. 자본주의 팽창의 새로운 국면을 용이하게 하는 더 나은 새로운 하위 엘리트들을 위한 여지를 만들기 위해 과거에 우호적인 정권들이 차례로 희생되었다. “족벌주의”를 타도한다는 구실을 앞세워, 일국적 축적논리에 따라 활동했던 토착 자본가들은 과거에 폐쇄되었던 노동시장과 소비자들에 침투하고 싶어 하는 초국적 은행·기업으로 대체되었다.

20세기 말의 봉기들은 차례로 보통사람들의 집단적 지혜가,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든 스스로 자임했던 간에 견고한 참호를 갖춘 엘리트들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명했다. 높은 급여를 받는 트레이너 없이, 활동가들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적응하여, 기업 엘리트들보다 이를 더 신속하게 활용하였다. 거리로 나서 폭력과 체포에 직면하면서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미래를 위협에 빠뜨리는 평범한 시민들의 대오는 자유의 비전을 확대시킨다. 이 책에서 나는 바로 이런 비전을 이어지는 장들에서 묘사하고, 수천 명의 민중이 참여한 투쟁에서 표출된 목적을 드러내고자 한다. 나의 목적은 민중들의 가장 깊은 열망, 즉 그들이 참여한 사건들이 단명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조차 가슴 속에 남아 있는 열망을 탐구하는 것이다. 수십만 명의 보통사람, 연인원으로 셈한다면 수백만 명에 이를 이같은 투쟁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보통사람들이 평화, 더 많은 민주적 권리, 평등, 소박한 형태의 진보를 원한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반면 엘리트들은 부자에 대한 감세, 민족/국민주권의 확대, 기업이윤의 보호에 대해 더 노심초사한다.

인민/민중의 힘으로 세워진 변혁된 현실에서, 규합된 다수는 변화를 실현할 새로 찾은 역량을 갖고 있다. 민중운동은 과거 권력의 정점에 있는 엘리트들을 전복한 보통사람들의 운동에 영감을 받아, 계속해서 인간자유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봉기한 수십만 민중들의 투쟁을 재구성함으로써, 나는 그저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투쟁으로부터 철학적 역사가 세워지기를 희망한다. 수전 벅-모스가 표현했듯이, 필요한 것은 “역사의 철학이 아니라, 역사로부터 철학을 건설하는 일, 아니면 (결국 같은 것이지만) 역사적 자료를 철학으로서 다시 세우는 일”이다.<sup>79)</sup>

## 지속되는 물결

20세기 후반 봉기의 물결은,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전지구적 봉기로서 지속되는 엘리트 지배에 대한 지속적 투쟁과 분리할 수 없다. 어제 형식적 민주주의를 쟁취한 전지구적 운동은 오늘 세계적 빈곤의 종식을 요구한다. 인류의 집합적 부가 소수 억만장자와 수백 개 기업에 집중된 데 도전한다는 점에서, 전지구적 정의 운동은 지속적인 민주화의 물결이다.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전세계의 수백만 민중들은 전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투쟁의 대상으로 선택했다. 1999년 시애틀 전후 이후 세계 미디어가 가장 공개적으로 보여온 엘리트 권력에 대한 민중의 대결은 전지구적 경제체제의 목표와 규칙에 대한 민주적 협의를 추구한다. 전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시위대가 IMF, G8, WTO 각료회의, 세계은행의 정상회담에 도전했다. 새로운 전지구적 다원적, 탈중심적 경제에 대한 비전을, 포르

77) James Petras, *The Arab Revolt and the Imperialist Counterattack* (Atlanta: Clear Day Books, 2011), 16.

78) 공산주의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필요했던 엄청난 희생에 비하면, 공산주의를 타도하는 데에는 비교적 희생이 적었고, 이는 공산주의의 평화적 진화 역량에 대한 찬사이다.

79) Susan Buck-Morss, *The Dialectics of Seeing: Walter Benjamin and the Arcades Project* (Cambridge: MIT Press, 1989), 77, 55.

투 알레그레의 세계사회포럼 참여자들, 그리고 WTO/세계은행/IMF 축에서 추진중인 자주적인 지역동맹은 제기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상연옥에서 살도록 하는 오늘날의 혐오스런 낭비와 전쟁의 저주를 인류는 얼마나 더 용납할 것인가?

명백한 후퇴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의 에너지는 국경을 넘어 풀뿌리에서 공명하며, 역사상 전보다 더 빠른 속도와 더 많은 힘으로 서로를 자극하고 있다. 그룹들은 형성되었다가 해체되고 군중들은 모였다가 흩어진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 체현됐던 것들을 바탕으로 세워진 사고와 행동의 집단적 역량을 흔적으로서 남긴다. 민중들이 봉기를 통해 변화됨에 따라, 그들은 과거에 수용됐던 지배형태를 용납하기를 거부한다. 민중의 지혜는 운동의 등장이 반복될 때마다 성장한다. 한층 더 새로운 열망은 행동을 자극한다. 결코 끝나지 않을 자유를 위한 투쟁 속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목표를 향해 조금씩 전진하지만, 결코 역사의 종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번역]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들 2권 2장

제2장: 필리핀

연표

1970년 1월 30일	“검은 일요일” 경찰의 시위대 공격으로 6명 사망
1972년 9월 21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계엄령 선포
1983년 8월 21일	베니노 아키노 암살
1984년 11월	미국 국가안보협의회 비밀메모: 마르코스는 물러나야 한다
1986년 2월 7일	마르코스와 코라손 아키노 간의 대선
1986년 2월 9일	마르코스 측의 선거결과 조작에 항의하여 30명의 투표감시단 퇴장
1986년 2월 16일	1백만명 이상이 마르코스에 반대하여 리잘 파크에서 집회
1986년 2월 19일	미국상원 필리핀 선거의 “광범한 부정”을 비난하는 결의안 표결
1986년 2월 22일	4일간 피플파워 혁명(EDSA 1)이 군부반란으로 시작됨
1986년 2월 22일	하이메 신 추기경, 국민들에게 군부내 반란군 보호를 호소함
1986년 2월 23일	EDSA의 군중이 오전 50만명에서 저녁 1백만으로 증가함
1986년 2월 24일	마르코스 총성과 공격개시, 그러나 공군이 반란군에 합류함
1986년 2월 24일	마르코스가 비상사태 선포하자, 교전후 반란군 TV 방송국 접수함
1986년 2월 24일	반란군 헬리콥터가 말라카냥 대통령궁 공격
1986년 2월 25일	별도의 취임식에서 마르코스과 아키노 대통령 취임선서
1986년 2월 25일	반란군이 마지막 TV방송국 접수, 마르코스의 취임식 방송취소
1986년 2월 26일	마르코스 하와이로 망명
1986년 7월 22일	첫 번째 반아키노 쿠데타 시도
1986년 9월 26일	농민들의 전국적인 토지점거 캠페인 시작
1986년 11월 20일	노동지도자 롤란도 오랄리아 피살됨, 장례식에 수만명 행진
1986년 12월 10일	좌파 민족민주전선(NDF)과 휴전
1987년 1월 22일	멘디올라 학살: 토지를 요구하며 행진하던 농민 21명 마닐라에서 사살됨
1987년 8월 26일	2백만명의 노동자들과 지지자들이 아키노의 정책에 반대하여 행진
1987년 8월 28일	다섯 번째 유혈쿠데타 시도 (호나산 쿠데타)
1991년 9월 16일	필리핀 상원, 미군기지 임대연장계획 거부
2000년 12월 7일	조셉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탄핵재판 상원에서 시작
2001년 1월 16일	상원이 에스트라다를 면소하자 피플파워 II 시작됨
2001년 1월 18일	EDSA의 군중이 50만명 이상으로 늘어남
2001년 1월 19일	공군 지휘부가 야당편으로 넘어감
2001년 1월 20일	에스트라다 대통령, EDSA 2에 의해 퇴진함
2001년 4월 25일	에스트라다 여전히 대통령임을 주장하다, 횡령혐의로 체포됨
2001년 4월 25일	에스트라다를 지지하는 피플파워 3 (가난한 민중의 권력)
2001년 4월 26일	EDSA의 군중이 1백만명을 넘김
2001년 5월 1일	EDSA 3: 에스트라다를 지지하며 말라카냥 궁으로 행진, 경찰 3명 살해

“권력과 저항의 변증법은 역사의 위대한 원동력 중의 하나이다. 권력은 갈등을 낳고 적대적 세력 간의 갈등은 더욱 새로운 해결책을 낳는다”

- 베니노 아키노

“이 대처로부터, 거리의 보통 필리핀인, 톤도(Tondo) 사람들과 얼굴없는 사람들이 중간계급에

합류했고, 양자는 결코 과거에 행사한 적이 없는 일종의 자연발생적인 집단적 의지와 그들이 결코 키우지 못한 공통의 유대를 발견했다. 이 경험은 그들을 감전시켰다. 눈물이 얼굴에 흘러내렸다.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피플파워’가 탄생했다.”

- 스틸링 시그레이브

“역사는 반복된다. 처음에는 비극으로, 그 다음엔 희극으로.” 자주 반복되는 이 지겨운 공식은 절대적 진리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역사의 간지는 역사의 발전법칙, 심지어 “철”의 법칙을 일반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부정하려는 방법을 찾아낸다.

필리핀에서 세 번의 피플파워 봉기 경험은 다른 패턴을 드러낸다. 1986년 2월 수십만명의 필리핀인들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 망명할 때까지 마닐라의 거리를 용감하게, 불법적으로 점거했다. 결코 비극적이지 않은 이 승리는 최초의 비폭력적 “피플파워” 봉기로 신화화 되었다. 15년 후에, 수많은 동일한 참여자들이 2001년 1월 20일 같은 장소인 마닐라의 중심 간선도로인 에피파노 데 로스 산토스 로(Epifano de los Santos Avenue: EDSA)에 다시 모였다. 지속된 시위로 조셉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쫓겨났고,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부통령이 EDSA의 성지에서 새로운 최고 행정권자로서 선서했다. 아로요의 대통령 취임은 파국적인 결말로 끝났다. 석달 후에, 에스트라다의 지지자들이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그의 권리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EDSA에 재집결했다. 1백만명 이상이 거리로 홍수처럼 밀어닥쳐, 피플파워 3(또는 “빈민 피플파워”)은 수만명의 에스트라다 지지자들, 빈민촌 지지자들, 마닐라의 노동계급 주민들이 말라카냥 대통령궁으로 행진하는 시점에 정점에 올랐다. 중산층 시위대와 직면해서 자제했던 경찰이 이번에는 발포하여 3명을 죽이고 1백명 이상을 부상시켰다.

피플파워의 국제적 “에로스 효과”는 엄청났지만, 1986년 봉기의 성공과 그것이 가져온 변화의 한계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화주의자들은 피플파워를 신화화했고, 거리에 나선 1백만명 이상 민중들의 비폭력시위의 전능을 신성화하지만, 1986년 봉기의 실제적 전개는 전혀 달랐다. 카톨릭 교회와 미국의 지지를 받았던 최고 군부 지도자들은 무장폭동을 일으켜, 마르코스를 타도했고, 화력은 승리에 결정적 요소였다. 두 번이 결정적 순간에, 무장 반란군은 사격을 하면서 마닐라의 주요 TV 방송국들에 진입했고, 반란군 헬리콥터는 대통령궁과 친정부 공군기지를 공격했다. 전체적으로 1986년 권력이전 시에 최소한 10여명이 살해당했다.<sup>1)</sup> CIA는 마르코스 부대의 이동에 관한 실시간 첩보를 군부 지도자들에게 제공했다.<sup>2)</sup>

피플파워를 정확히 설명하려면, 우리는 군부폭동에서 시작해야 하며, 마르코스를 필리핀에서 축출함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을 틀림없이 기록해야 한다. 필리핀 군부 내에서 반란군들이 봉기를 촉발한 사실은 흔히 무시되곤 했지만, 카톨릭 추기경 하이메 신과 군사력 사용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몰려나온 수십만명의 보통 필리핀인들이 없었다면 반란군이 성공했을지는 의심스럽다.

1986년 봉기는 마르코스를 국외로 추방하고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한 한 가문의 딸인 코라손 아키노가 그를 대체했다. 피플파워 1이 아무 영감을 주었다고 해도, 그것이 성취한 “혁명”은 친미 엘리트 파벌 간의 권력 이전을 넘어서지 못했다. 봉기의 하향적 성격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기본적인 경제사회적 체제는 변함없고, 오히려 보통사람들은 새 정권이 덜 억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강화되었다. 비록 새 헌법이 NGO들에게 힘을 주고 미군기지 폐쇄를 강제한 국민투표로 이어졌지만, 필리핀 사회는 여전히 마르코스 독재 아래서 겪었던 똑같은 많은 문제들에 쥘어있다. 외견상 난치성 빈곤이 모든 시민의 거의 절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와 발육부진 상태이다. 발전은 좌절되고, 필리핀 노동력의 1/4이 국내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

1) Mercado, *People Power*, 226, 258, 308.

2) Interview with Senator Gregorio Honasan, Manila, June 2, 2009.



스페인의 3백년 스페인 식민주의는 토착 필리핀 문화의 정수를 훼손하여, 소설가 시오닐(F. Sionil)의 말대로 “근대적 나라이지만, 아직 민족은 아닌” 상태로 만들었다.<sup>3)</sup> 3천개의 섬에 사는 필리핀인들은 80개의 언어를 말한다. 19세기말 스페인 제국의 몰락과 함께, 미국이 필리핀에 대해 권리를 주장했다. 미국인들의 “명백한 운명”에 복종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독립운동이 분쇄되기 전까지 미국은 약 20만명의 원주민을 학살했다. 비록 마크 트웨인을 비롯한 선각자들이 미국의 제국적 야망을 제어하고자 반제국주의 동맹(Anti-Imperialist League)을 결성했지만, 미국이 “작은 갈색 형제들”을 “해방”시키는 수년 동안 학살은 계속되었다. 미국의 역사에서 대부분 잊혀졌지만, 필리핀과 미국 관계에서 지속적 긴장은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죄 밖에 없는 섬나라 사람들에 대한 잔혹한 정복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sup>4)</sup>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에게해 정복당하고 굴욕당한 많은 필리핀인들은 미국편에서 격렬한 게릴라 전쟁을 수행했다. 반면 점령자에 동화하는 데 익숙한 필리핀 엘리트들은 일반적으로 히로히토의 종들에게 협력했다. 전쟁 후, 미국의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서는 주된 친일 협력자 중의 하나인 마누엘 루사스를 면책하고 필리핀 공화국의 선출직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했다.<sup>5)</sup> 지주들은 대산업가로 변신했고, 반면 농촌의 토지에 남아있길 원하는 지주들은 토지개혁을 위해 투쟁한 후크 게릴라를 소탕하는 데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

2차 세계대전 말, 필리핀인은 동남 아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나라였다. 시오닐 호세가 회상하듯이, “[동남아]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교에 왔다, 여행할 때 모든 곳의 후진성에 놀랐다. 자카르타와 칼라룸푸르는 시골마을이었다. 방콕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하트 아룬이었다. 서울과 타이페이에는 마차와 자전거가 다니고 일본인들이 남긴 낮은 벽돌건물이 있는 조용한 도시였다... 마닐라에는 지금 고층빌딩들이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쇠락했는지 보여주는 빈민가들이 도처에 있다.”<sup>6)</sup> 필리핀은 “지역 내에서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우리 대학들에는 아시아 전역에서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우리는 최고의 교수와 가장 현대적인 상점과 병원들이 있었다.”<sup>7)</sup> 1980년대에 이르면, 필리핀은 지역에서 무기력한 나라 중의 하나가 되었고, 지역의 대부분 나라들이 “기적같은” 진보를 하면서 이 섬 공화국은 계속 아래로 추락한다. 1940년 필리핀은 동남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높은 문자해독율을 가졌고, 이는 의심할 바 없이 그전 수십년간 정부의 교육지출이 풍부했던 결과이다.(전체 예산의 약 50 퍼센트) 오늘날, 인구의 절반이 겨우 초등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43 퍼센트만이 고등학교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sup>8)</sup>

## 마르코스 체제

필리핀의 몰락에 대한 많은 비난이 마르코스 체제에 가해져 왔다. 비천한 출신이었던 지방 정치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1965년 국가 최고의 지위에 올랐고, 이후 그는 모든 권력을 강탈했고, 1986년까지 줄잡아 50억 내지 2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다.<sup>9)</sup>

3) Interview with F. Sionil Jose, Manila, June 1, 2009.

4) Leon Wolff, *Little Brown Brother*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6). 200,000명이란 숫자는 미군이 살해한 필리핀인의 수치를 상당히 줄여 말한 것이다. 존 터먼(John Tirman)은 이 숫자를 최소치로 추정했고, 400,000명까지 추산한다. See *The Deaths of Oth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18.

5) See John J. Carroll, *Forgiving or Forgetting: Churches and the Transition to Democracy in the Philippines* (Manila: Institute on the Church and Social Issues, 1999), 10; Benedict Anderson, “Cacique Democracy in the Philippines,” *New Left Review* 169(May-June 1988): 13, 14, 19.

6) F. Sionil Jose, “Literature as History,” speech at Stanford University, May 5, 2005. Copy given to me by the author.

7) F. Sionil Jose, “Why Are We a ‘Nation of Servants?’” *Philippine Star*, April 5, 2009.

8) Lorna Kalaw-Tirol, ed., *1996: Looking Back, Looking Forward* (Manila: Foundation for Worldwide People Power, 1995), 166; Joseph Yu, “Elections and Poverty,” *Education for Development* 6no.2 (March-April 2007): 23. 정부의 교육예산이 감소하면서, 중등교사의 숫자는 1996년 145,000명에서 2004년 120,000명으로 줄었다. Edna E.A. Coet. al., *Philippine Democracy Assessment: Economic and Social Rights*, 122.

20년 이상 마르코스는 미국의 기업 및 정치 지도자들의 축복 속에 통치했다. 외국기업의 소유지분을 위협하는 대법원 결정을 뒤집어서 미국 상공회의소의 찬사를 받았던 마르코스는 미국의 지지를 막대한 부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지역사람들은 마르코스 체제를 정의할 때 “법과 질서”보다는 “총, 강패, 황금”에 대해 말한다.

1972년 5월 1일, 미국인 멘토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마르코스는 경제정책을 수입대체(국가수지 균형을 위한 국내시장용 생산)에서 수출지향적,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몇 달 뒤인 1972년 9월 21일 국방장관 후안 폰세 엔릴레에 대한 조작된 “암살시도”를 이용하여, 마르코스는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를 통해 대통령 임기제한을 피했다. 다른 계엄조항으로 파업을 금지하고 언론을 집중적으로 통제했고, 수천명을 체포했다. 심지어 예수회 수도원도 예외는 아니었고, 1974년 8월 군대는 헬기로 기습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신 추기경을 심기를 건드렸고, 나중에 마르코스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 행동이었다.

수십년간 마르코스 일가와 그들에 가까운 협력자들은 국고를 약탈하여, 필리핀인들이 파산하게 하는 한편 시민들은 곤경에 처하게 했다. 박정희, 이란 국왕, 장카이썩 등과 같은 독재자들과 나란히, 마르코스는 넉넉한 선거자금 기부로 미국 대통령들의 환심을 샀다.<sup>10)</sup> 그는 미국이 베트남에서 이용하도록 육군 건설여단을 빌려주기도 했다. 아낌없는 후원의 대가로, 마르코스도 상당한 보상을 받았고, 단 하나의 계약만으로 웨스팅하우스 사로부터 8천만 달러를 모았는데, 이는 미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조정된 자금으로 건설한 핵발전소 사업이었다.<sup>11)</sup> 테트 공세 당시 한 저명한 미국 기자의 눈으로 볼 때, “마르코스는 상승세였고, 새로 취임한 터라 젊고, 역동적이었다. 필리핀인들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올바른 말을 했고, 계획과 공약으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sup>12)</sup>

필리핀 4,500만 인구의 3/4이 빈곤에 시달리고, 마닐라 거리의 아이들이 아무데나 몰려다니는 것에 관심이 없는 마르코스는 전 미인대회 우승자와 결혼하여 화려하게 살았다. 마르코스 부부는 자신을 아담과 이브로 묘사하는 기념벽화를 말라카냥 궁에 그리게 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따서 고속도로의 명칭을 정했고, 사치스런 파티를 벌였다. 그들이 결국 쫓겨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그들을 용서하고, 가난한 필리핀에서 그들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부를 계속 갖도록 허용하는 필리핀 민중의 관대한 아량이다. 수년간 마르코스의 시체는 레닌, 마오, 김일성과 호치민 등과 같은 공산주의의 아이콘처럼 방부처리 하여 대중에 공개되었다. 민중들이 불손하게 축출하여 해외망명을 보냈던 자에 대한 공개적 존경의 표시였다.

대통령으로서 마르코스는 반대를 거의 허용하지 않았고, 평화적 경우조차 그랬다. 1968년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학생시위가 정부를 흔들었다. 필리핀에서 이 소요는 1/4분기 공습(First Quarter Storm)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970년 1월 30일, 말라카냥 궁으로 이어지는 멘디올라 다리에서 시위도중 경찰의 공격을 피하려고 달리다가 6명이 참혹하게 살해당했다.<sup>13)</sup> 당시 상원의원이던 베니뇨 아키노가 “검은 일요일”이라고 이름붙인 이 사건은 정권의 야만

9) 마르코스의 축출 직후, 호세 알몬테(Jose Almonte)는 이 돈을 환수할 공식적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는 1986년 후반 “즉시 인출가능한” 금액 38억 달러를 기록했고, 추가로 40억 달러를 확인했다. 그는 스위스 은행들과 접촉하여 정부가 10억에서 20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고 믿게 됐다. (Almonte, *My Part*, 2006, 20). 도널드 커크(Donald Kirk)는 마르코스의 재산을 85억 달러로 추정했고, 1983년 이후 정부재정에서 약 48억 달러가 “실종”됐다고 보고했다. Donald Kirk, *Philippines in Crisis: U.S. Power versus Local Revolt* (Manila: Anvil Publishing, 2005), xiii, 179. Ackerman and Duvall, *A Force More Powerful*, 373. 일부에서 겨우 4억 달러 정도의 지분만이 회수됐다고 믿지만, 1998년 <뉴욕타임스>는 마르코스의 재산이 50억에서 100억 달러 사이라고 추정했고, 약 10억 달러의 숨겨진 돈이 환수됐다고 보도했다. (Seth Mydans, “Suharto and Co.,” *New York Times*, May 25, 1998, A6).

10) See Benedict Anderson, “Cacique Democracy,” 21-2.

11) Raymond Bonner, *Waltzing With a Dictator* (New York: Times, 1987), 307-9; Anderson, “Cacique Democracy,” 23.

12) Kirk, *Philippines in Crisis*, vi.

13) See Benigno Aquino, Jr., *A Garrison State in the Making* (Manila: Benigno S. Aquino, Jr. Foundation, 1985), 243.

성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중의 하나였다. 고문과 실종에서 장기투옥에 이르기까지, 반정부 세력은 지하로 들어가는 것 외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필리핀의 지도적 가문의 상속인이자 선동적 연설가, <마닐라 타임스>의 십대 한국전 종군 사진기자였던 아키노 상원의원은 곧 마르코스의 최고 숙적이 되었다. 대통령에 출마하는 대신에, 아키노는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건강이 악화되자, 그는 감옥에서 석방되어 미국으로 건너갔고, 거기서 한국의 반정부인사 김대중과 하버드대학 국제문제센터의 동료가 되었다.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정권이 대학생들을 더욱 탄압하면 할수록, 학생들은 더욱 급진화되었다. 전세계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소련과 제휴한 주류 공산당에서 이탈하여 마오주의 정당, 예를 들어 필리핀 공산당(CPP)을 결성했다. 중국에서 마오주의의 승리에 영감을 받아, CPP의 신인민군(NPA)은 급속히 성장하여 유일한 반정부세력이 되었다. 그들의 반란이 권력장악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하나의 성과는 군부내 개혁운동을 촉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모잠비크, 앙골라, 기니-비사우의 아프리카 봉기계열라들이 포르투갈 식민 군대에 영향을 주어 1974년 살라자르 독재의 타도에 성공했던 것과 유사한 성과이다.

NPA와 싸우던 장교들은 미국이 군대에 보내는 수백만 달러의 재정적 지원을 정부가 빼먹는 데 불만을 가졌고, 마르코스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가장 훌륭한 자격을 갖춘 장교보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장교들을 임명하는 경향을 좋아하지 않았다. 마르코스가 지휘관들에게 농촌 마을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라고 명령했지만, 일반 사병들은 식량과 군복 배급에서 기만당하고 있었다. 때로 새로 등장한 모로 민족해방전선(MNLF: 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이 더 무장을 잘하고 있었다.<sup>14)</sup> 일군의 장교들이 정부가 그들에게 반계릴라 전쟁을 수행하는 데 믿을만한 항공수송, 의료지원, 적절한 군수물자를 제공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 점점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레고리오 “그링고” 호나산은 필자에게 육군의 농촌지역 진압작전 이후에 지역 지도자들에게 도로와 의료시설이 곧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몇 년후 같은 지역에 다시 배치되었을 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다.”<sup>15)</sup> 이 문제에 대해 뭔가 하기 위해서, 호나산은 동료 장교들로 군개혁운동(RAM, Rebolusyonaryong Alyansang Makabansa)을 조직했고, 이 그룹은 1986년 피플파워 반란을 주도하게 된다.

1980년대 여전히 베트남전 패배에도 불구하고 미국정책의 아주 강력한 동력이었던 전지구적 반공전쟁은 마르코스 권위주의 정권의 손에 돌아나고 있었다. 1983년 필리핀군이 적절한 의료지원과 군화 없이 싸우는 동안, 미국 첩보부는 NPA와 필리핀군이 “전략적 동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sup>16)</sup> 1972년 수백명의 규모로 시작한 NPA는 1985년에 이르러 미국상원에 의하면 30,000명의 전투원을 보유할 정도로 성장했다.<sup>17)</sup> NPA는 73개 지방 가운데 68곳에 존재했고, 최소한 50만명 이상 민중의 지지의 바다 속에서 전국 마을의 20퍼센트에 대한 일정한 통제력을 행사했다.<sup>18)</sup> 펜타곤 고위 지휘부의 추산으로, 아키노와 같이 미국이 선호하는 엘리트들이 보다 민주적 의회체제를 통제한다면, 공산주의의 승리를 막는 수단으로서 마르코스보다 훨씬 더 유리했다. 궁극적으로, 워싱턴의 눈으로 볼 때 마르코스 최대의 실수는 점차 전통적 엘리트들로부터 스스로 유리되는 것이었다.

사치스런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 마르코스는 국제적 금융기구들이 그에게 수월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많은 돈을 빌렸다. 1980년대초, 필리핀의 부채위기는 경제의 지유낙하에 크게 기여했다. 1983년 10월 필리핀은 부채 상환을 중단했고, 국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

14) Almonte, *My Part*, 7-8.

15) Interview with Senator Gregorio Honasan, Manila, June 2009.

16) Manuel L. Quezon III, “The Long View: Left and Right Sides of People Power,” *Philippine Daily Inquirer*, January 5, 2009.

17) Daniel Schirmer and Stephen Shalom, eds., *The Philippines Reader* (Boston: South End Press, 1987), 315-6. 이 추산은 다소 높을 수도 있다. 다른 소식통은 주력 전투원을 24,000명으로 추정하며, 그 가운데 절반정도가 무장한 상태였다.

18) Lawyers Committee for Human Rights, *Vigilantes in the Philippines: A Threat to Democratic Rule* (New York: 1988), 3.

고, 미국정부를 불편하게 했다. 해외투자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국립은행은 화폐공급을 증가시켰다. 계엄령 발효 후 처음 7년간, 경제는 연평균 6퍼센트 성장했지만, 성장률은 1982년 3퍼센트로 떨어졌고 1년뒤 2.6퍼센트로 떨어졌다. 1980년까지 실질임금은 서서히 올랐지만, 그 이후 심각한 연간소득 감소가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느껴지기 시작했다. 1984년 필리핀이 1945년 이래 최악의 불경기에서 풀려나면서, 경제생산은 6퍼센트나 떨어졌다.<sup>19)</sup> 물가상승률이 1983년 47 퍼센트, 1984년 23.5 퍼센트 등 심각한 부담이 됨과 동시에, 물품부족과 사재기가 등장했다.<sup>20)</sup> 1986년까지 불경기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그해 총생산은 거의 8퍼센트 하락했고, 국제 투자자들은 타이랜드와 인도네시아로 이동했다. 측근과 가족에 대한 정권의 특혜는 필리핀 기업인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아래 표에 나타난 것처럼, 투자자들은 1980년부터 자본이탈을 시작했고, 이는 마르코스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음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표3: 필리핀의 외국인 직접투자 (백만 달러)

	1980	1985	1990	1995	1997
인도네시아	180	310	1,092	4,346	4,677
타이랜드	189	164	2,562	2,068	3,626
필리핀	-106	12	550	1,459	1,249

출처: UNCTAD, 장대업, "Neoliberal Restructuring of Capital Relations in East and South-East Asia," in *Neoliberalism: A Critical Reader*, eds. Alfredo Saad-Filho and Deborah Johnston (London: Pluto Press, 2005), 254.에서 재인용.

### 베니노 아키노 암살

동아시아는 지정학적 구성체로서, 서구의 지역지배 이전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20세기말에 이 지역은 아주 강력해져서, 심지어 야당 지도자들도 미국에서 미래의 국가수반을 위한 대기실을 발견했다. 1980년대초 광범한 민주적 계층의 인기있는 친미 지도자들인 김대중과 베니노 아키노는 망명지 매사추세츠주 뉴튼에서 함께 앉아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들은 자국 사법부의 사형선고에서 도피했다. 서로 친해져서 독재를 어떻게 잘 극복할 것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면서, 최소한 한번 이상 아키노의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면서 정세에 대해 토론했다.<sup>21)</sup> 두 사람의 운명은 고국의 정치변화에 묶여 있었다. 그 날 아침 요리했던 아키노의 부인 코라손이 몇 년 안에 국가의 수반으로 되리라고는 아무도 추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필리핀이 경제적 혼란에 빠지자, 베니노 아키노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 미국의 안전한 망명지로부터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1983년 8월 21일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그는 살해당했다. 암살 몇시간 안에 마르코스에 반대하는 시위가 터져나왔다. 슬픔의 표현으로, 1백만명 이상(어떤 사람들은 두배라고 한다)이 퍼붓는 비에 아랑곳 않고 장례식 행렬에 참여했다. 사상 처음으로, 사무직 노동자, 기업체 간부들, 가정주부, 교사들이 보통 학생, 노동조합, 좌파들에 한정되었던 시위에 가담했다. 마르코스에 대한 반대의 전면이 마카티 경제클럽이 섰고, 이는 필리핀의 경제 엘리트들이 아키노의 살해를 마르코스의 총체적 악정에서 마지막 불행으로 간주했다는 데 거의 의문이 없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해진 시간에 저명한 기업인들은 일을 멈추라고 명령했고, 이 때 마카티의 고층빌딩에서 노란색 색종이가 비처럼 뿌려졌고, 이 의례는 마닐라의 다른 지역과 민다나오의 다바오같은 남

19) Haggard and Kaufman, *Political Economy*, 48.

20) Joseph Y. Lim, "The Philippines and East Asian Economic Turmoil," in *Tigers in Trouble: Financial Governance, Liberalisation and Crises in East Asia*, ed. K.S. Jomo (London: Zed Books, 1998), 199-200.

21) Conversation with Ed Baker, Cambridge, Massachusetts, 2007. 필자가 아키노에 헌정한 탈락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매사추세츠 시절 방명록이 K로 시작하는 쪽이 펼쳐져 있었다. 테드 케네디와 스탠리 카노의 항목 아래 김대중의 전화번호 2개가 적혀있었다.

부지방까지 퍼져나갔다.

베네노 아키노의 암살 이후, 워싱턴은 점차 냉담해졌다. 마르코스가 필리핀에 최악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많은 첩보가 필요하지 않았다. 1984년 6월 미국 대사관의 비밀연구는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 증가에 대해 마르코스를 비난했고, 11월에는 NSC(국가안보협의회) 비밀지침은 필리핀의 “이행”을 요구했고, “‘족벌’ 독점자본주의를 해체하여 경제가 자유시장의 힘에 반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sup>22)</sup> 대사관 직원을 척후병으로 이용하여, 워싱턴은 조용히 마르코스의 지배를 침해하기 시작했다.<sup>23)</sup> 1985년에 미합참의장 윌리엄 크로 제독은 마르코스의 무능력을 지적하면서, 군대가 게릴라와 더 잘 싸우기 위해서 마르코스가 은퇴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비록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마르코스의 친구였어도, 그의 보좌관들은 펜타곤이 말하자 귀를 기울였다.

198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두 야당이 후보를 냈다. 필리핀 민주당(LABAN 또는 파플파워)과 통합 민족민주기구(UNIDO). 부정선거에 대한 광범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183석 가운데 56석을 얻었다. 마르코스는 경찰에 야당의 거리시위를 허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1984년 9월 경찰이 수천명의 반정부 시위대를 해산하려고 총과 곤봉을 사용해서 최소한 34명의 시위대가 부상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다음달 10배나 많은 시위대가 거리로 나섰고, 신 추기경의 지도 아래 평화적으로 집회를 가질 수 있었다.<sup>24)</sup> 반정부 시위, 집회와 나란히, 아래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파업이 확산되었다.

표4: 연도별 파업 및 노동자 숫자 (필리핀)

연도	파업 숫자	참여 노동자 숫자
1972	69	33,396
1973	0	0
1974	0	0
1975	5	1,760
1976	86	70,929
1977	33	30,183
1978	53	33,731
1979	48	16,728
1980	62	20,902
1981	260	98,585
1982	158	53,824
1983	155	33,638
1984	282	65,306
1985	371	111,265
1986	581	168,779
1987	436	89,600

Sources: Bureau of National Labor Relations; Bach M. Macaraya, *Workers' Participation in the Philippine People Power Revolution* (Manila: Friedrich Ebert Stiftung, 1988), 1, 27; ILO, Year Book of Labor Statistics; Haggard and Kaufman, *Political Economy* 62.

비록 노동운동이 내부적으로 친마르코스파와 좌파 경향으로 분열되어 있었지만, 파업은

22) Schirmer and Shalom, *Philippines Rader*, 322-3.

23) Lee Jae-eui, "Operation Fascinating Vacation," in *The Kwangju Uprising: Eyewitness Press Accounts of Korea's Tiananmen*, eds., Henry Scott-Stokes and Lee Jae-eui (Armonk: M.E. Sharpe, 2000), 40.

24) Huntington, *ThirdWave*, 199.

1984년과 1985년 급상승해, 1983년 50만일 수준이었던 파업손실 일수가 2년후 거의 다섯배로 증가했다.

기층으로부터 민중들이 나서서 필리핀 민중회의(*Kongresong Mamamayang Filipino: KOMPIL*)를 조직했다. 마르코스 독재 종식에 헌신적인 NGO, 이슈중심 시위그룹, 노동 및 종교기반 조직, 좌파그룹, 저명한 개인들의 광범한 연대체였다. 연극단이 수십개씩 결성되어 전국의 섬을 들면서 마르코스의 부패, 미국에 대한 굴종, 위험한 핵발전 기술의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렸다.<sup>25)</sup> 보통 필리핀인들은 필리핀이 끔찍한 하락국면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르코스는 가족을 위해 대규모 파티를 열었고, 지속적 지배를 위해 미국의 지지에 의존했다.

교회, 학계와 중산층 내부의 반마르코스 세력은 재빨리 노동자들과 빈민들을 끌어들었다. 노란 색종이 시위를 계기로, 조합원들에게 마카티의 주간 집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필리핀 노동조합회의(TUPAS)와 더불어 계급간 동맹이 발전했다. 이런 정기적 시위는 1986년 폭발에 중요한 준비였다. TUPAS는 광범한 전선체인 필리핀 노동자연합(United Filipino Workers)의 결성을 도왔고, 이 연대체는 정권에 맞선 총파업 수행을 목표로 했다. 1980년대 초, 파탄 수출가공지역의 파업은 TUPAS지도자들에게 다른 반정부세력과의 통일된 행동을 통해서만 마르코스를 타도할 수 있음을 확신하도록 했다.<sup>26)</sup>

반정부세력이 토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초기의 반제국주의와 광범한 운동의 비전은 아키노가 마르코스를 대체할 사람이라는 새로운 합의에 포섭되었다. 루돌프 데이비드는 이런 변화를 묘사했다: “2월 사건이 전개되기 시작하자, 민주화와 사회정의는 이미 EDSA 의제에서 희미한 각주가 되었다. 반제국주의는 군사화 반대 캠페인과 함께 거의 하루밤 사이에 사라졌다. 그것을 대신한 것은 꽃과 목주의 헤게모니적 상징이었다.”<sup>27)</sup>

#### 조기 선거 snap election

국무장관 조지 솔츠와 같은 미국의 고위관료들은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초조해 했다. 그들은 정부의 정책을 개선하고 야당과 화해하라고 마르코스에게 사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마르코스의 건강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었고, 권력승계 대기중인 것처럼 보였던 사람인 파비안 베르 장군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키노의 살해에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마르코스는 지속적 통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정당화하라는 압력을 받았고, 마르코스는 자신의 인기를 증명하고 미국 보호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미국 텔레비전에서 특별 “조기 선거”를 제안했다. (나중에 원래 CIA 국장 윌리엄 케이시가 선거를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sup>28)</sup>) 그 당시에 의견상 자의적인 이 결정이 마르코스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추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카톨릭 교회는 마르코스 퇴진운동에서 후발주자가 아니었다. 조기선거가 다가오자, 신 추기경은 코라손 아키노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고했다. 코리는 남편이 무덤에서 그녀에게 말을 걸어서 대통령에 출마하라고 영감을 주었다고 추기경에게 말했다. 신 추기경은 그녀에게 “마르코스에게 맞서는 것은 결코 농담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라고 충고했다. 코리는 핑크 시스터스 수도원에 피정하여, 거기서 결심을 했다. 그녀의 말로, “좋아, 이제 출마할 거야. 결심했어. 출마하기로. 신의 뜻이야.” 추기경이 대답했다. “좋습니다. 무릎을 꿇으시오. 당신은 대통령이 될 것이요. 당신은 잔다르크요.”<sup>29)</sup> 코리는 선거 캠페인 색으로 노란색

25) 한 추정에 의하면 1987년까지 이런 연극단의 숫자는 400개에 이르렀다. Eugène Van Erven, *The Playful Revolution: Theater and Liberation in Asia* (Bloomington: Indianan University Press, 1992), 92.

26) Bach M. Macaraya, *Workers' Participation in the Philippine People Power Revolution* (Manila: Friedrich Ebert Stiftung, 1988), 42-3.

27) Randolph David, “A Movement Dies, A Regime is Born,” *Kasarinlan* 3(1988),3.

28) Santiago, 1986, 12.

29) Mercado, *People Power*, 48.

을 채택했고(반마르코스 시위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색종이와 같은 색), 아주 자주 노란색을 입어서 “카나리아”라는 별명을 얻었다.

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원했다. 수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전국 자유선거 시민운동(National Citizens' Movement for Free Elections: NAMFREL)의 선거 참관인으로 공식 등록했다. 1953년 CIA가 설립한 NAMFREL은 NGO 그룹들에서 20만명 이상의 무당파 자원봉사자 조직으로서 공식적으로 1983년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면서 재조직화 되었다.<sup>30)</sup> 약 7천명의 조합원을 가진 필리핀 노조회의(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보수적 소규모 연맹)은 미국의 전국민주재단(NED)의 재정지원을 받아 NAMFREL의 선거감시에 참여했다.<sup>31)</sup> 이 그룹의 핵심은 “NAMFREL 해병대”인데, 600명의 수녀로 이루어진 신 추기경의 엘리트 “타격대”로서 지시가 내려지는 순간 현장에 파견될 수 있었다. NAMFREL 메트로 마닐라 대표인 빈센테 파테르노는 회상했다: “25개 타격대 300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는 600명의 수녀, NAMFREL 해병대를 배치했다... 우리는 기동타격대를 가지고 있었고, 아마도 3만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었다. 우리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sup>32)</sup>

항상 그랬던 것처럼, 마르코스는 선거를 조작하려고 했다. 1986년 2월 9일밤, 공식개표소에서 부정 투표 계산 때문에 30명의 컴퓨터 기술자들이 퇴장했다.(한 RAM 지도자의 부인의 지휘를 따라) 드라마처럼 바로 그 순간에, 아무도, 심지어 매일매일 상황의 세부 사항까지 관심을 기울이던 고위 미국인들까지도 다음 주가 그렇게 격동적이라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 마르코스에 대한 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표를 다루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성직자들의 공정선거 요구는 무시당했다. 국민의 관심이 선거결과에 집중된 미묘한 순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2월 11일 부정의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선언했다. 반정부세력에 충격을 준 레이건의 발언은 부정행위가 “양측에” 있었다고 암시했다.

많은 사람들이 레이건의 발언을 마르코스와의 친분 탓으로 돌리지만, 워싱턴의 주된 관심은 클라크와 수빅만의 미군기지였다. 레이건은 기자회견에서 “이 기지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한다”고 실토했다. 레이건의 언론담당 비서인 래리 스피스는 아키노가 패배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부를 구성하는 데 아키노가 마르코스를 도와야 한다고 충고했다.<sup>33)</sup> 투표함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마르코스에 투표하도록 유권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보고, 위협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반마르코스 지도자들의 살해소식을 접한 필리핀인들에게, 레이건이 틀렸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명백했다. 미국 대통령의 성명서를 이틀 후에, 카톨릭 주교회의는 공개적으로 이 선거가 “유례없는 부정행위”로 얼룩졌다고 선언하고, 민중들에게 “정의의 위한 비폭력투쟁”에 동참하라고 호소했다. 다음날, “부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정부는 “도덕적 기반이 없다”는 선언이 나왔다.

아키노는 지지자들에게 2월 15일 리잘 파크의 루네타에 집결하라고 호소했다. 그녀의 세력이 집결하자, 아키노는 그들을 “우리 인생에서 최대의 군중”이라고 불렀다. 1백만에서 2백만에 이르는 군중이었다.<sup>34)</sup> 아키노는 마르코스와 친한 것으로 알려진 은행과 기업을 보이콧하고, 시설사용료 지불을 연기하고, 마르코스의 취임 다음날 1일 총파업을 할 것 등 광범한 계획을 발표했다. 민중의 지지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수녀와 종교계 인사들이 타겟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 줄을 섰고, 4대 노총들도 1986년 2월 26일 수요일 총파업을 승인함으로써 아키노 계획을 지지했다. (그들은 그 시점에 마르코스가 이미 망명하게 될 것임을 거의 알지 못했다.) 심지어 네슬레사도 정부TV 채널4에 대한 광고를 중단했고, 뿐만 아니라 아키노의 보이콧 명단에 있는 신문들의 하나에도 광고를 중단했다. 2월 19일 미국

30) Huntington, *Third Wave*, 82.

31) Robinson, *Promoting Polyarchy*, 130.

32) Mercado, *People Power*, 71.

33) Stanley Karnow, *In Our Image: America's Empire in the Philippines* (New York: Random House, 1989), 414.

34) “The Philippine Revolution and the Involvement of the Church,” (Manila: Social Research Center of University of Santo Tomas, 1986), 12; Macaraya, *Workers' Participation*, 49.

상원은 필리핀의 선거가 “광범한 부정”이 있었다고 선언하는 결의안을 85 대 9로 가결했다. 다음 날 하원에서 증언하면서, 레이건 정부관리 폴 윌포워츠는 마르코스가 대통령직에 있는 한 미국의 원조는 중단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물오른 순간에, 필요한 모든 것은 국내의 세력이 행동하는 것이었다. 교회 지도자들과 야당 정치인들은 마르코스를 퇴진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아키노와 마르코스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반란과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다. 둘다 부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NDF는 선거에 불참했고, 내부분쟁에 집중했다. 1985년 민다나오 전역에서, NPA는 군대의 비밀침자가 침투했다는 보고를 받고 야만적 내부숙청을 단행했다. 6개월 동안 약 950명의 간부들이 처형당했고, 가장 빠르게 성장했던 지역 지부는 크게 위축되었고, CPP는 “새로운 크메르 루즈”라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당을 떠났고, 당원은 9천명에서 3천명으로 줄었다.<sup>35)</sup> 당지도부가 조기선거 불참을 결정하자, 당원들과 전선조직들은 당내 보안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충실하게 명령을 따랐다.<sup>36)</sup> 공산당이 대중의 분위기를 얼마나 오해했는지는 투표율이 90퍼센트 이상이었다는 사실에서 드러났다.

### 군대 내부의 폭동

1988년 2월 22일 토요일 자정 직후에, 작은 그룹이 국방장관 후안 폰세의 저택에 뛰어들어, 마르코스를 타도하려는 과감한 계획에 마지막 핫불을 들었다. 23일 새벽 2시, 그레고리오 호나산 대령은 말라카냥 궁을 기습공격하여 대통령 일가를 체포할 계획이었다. 필리핀 군사학교의 옛 동료들인 에두아르도 카푸난 및 베토르 바타 대령도 동시에 작전을 전개하였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조국을 위한 결의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은 RAM 비밀 네트워크의 반란군 장교들(줄여 잡여도 군대의 15,000명 장교 중에서 5,000명을 포함할 것으로 추정됨)이 그들에게 가담할 것이라고 믿었다. 호나산과 동료들은 노력에 대한 어떤 개인적 보상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그 대신 그들은 과도정부에 코리 아키노, 신 추기경, 후안 폰세 엔릴레, 육군참모총장 피델 라모스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맥주를 마시는 토론그룹이란 소박한 출발에서, RAM은 운영위원회가 국립경찰 본부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sup>37)</sup> 호세 알몬테 대령은 신 추기경과 접촉하여 RAM의 계획에 대해 알렸다. 교회의 지지를 요청하자, 신 추기경은 “대령, 당신은 당신의 의무를 다하시오,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할 것이요.”라고 대답했다.

작은 그룹의 음모자들이 2월 22일 엔릴레의 집에서 모였을 때, 회원중 한명이 밀고자가 되어, 바로 그 순간에 대통령궁 내에서 베르 장군에게 비밀을 누설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거의 알지 못했다. 베르는 신속하게 수천명의 정예 부대로 대통령 보안대를 강화시켰고, 2월 22일 새벽 2시 19명의 해병과 RAM의 주요 구성원을 모두 체포했다.<sup>38)</sup> 한밤중에, 호나산과 카푸난이 비밀리에 공격하기로 계획한 주요 지점을 답사하면서, 그들은 완전무장한 해병대대가 매복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베르의 부대를 파악한 다음, 호나산은 엔릴레의 집으로 달려가, 그에게 그들 모두가 곧 체포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런 다음, 거기에서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35) Patricio N. Abinales, “When A Revolution Devours Its Children,” in *The Revolution Falters: The Left in Philippine Politics After 1986*, ed. Patricio N. Abinales (Ithaca: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 1996), 156-7.

36) 파트리시오 아비날레스(Patricio Abinales)는 NPA/ CPP가 1986년 16,018명의 무장한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See *ibid.*, 169. 물론 피플파워 봉기는 CPP 내부에서 유례없는 위기를 촉발했다. 특히 선거보이코트는 필리핀 민중들 사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운동이 폭발한 시기에 당을 주변화시키는 결정적 오류였기 때문이다. 봉기로 마르코스가 축출된 이후에, 당 내에서 공공연하게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됐고, 그에 따른 의견차이로 여러 차례 당의 분열이 일어났다. 이 모든 분열로 당은 더욱 신뢰를 잃었다. See Kathleen Weekley, “From Vanguard to Rearguard,” in *The Revolution Falters: The Left in Philippine Politics After 1986*, ed. Patricio N. Abinales (Ithaca: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 1996), 30, 53.

37) Interview with Senator Gregorio Honasan, Manila, June 2, 2009.

38) Patricio Mamot, *Profile of Filipino Heroism* (Quezon City: New Day Publishers, 1986), 52.



대체계획에 합의한 호나산은 그들의 부대에 오후 3시 EDSA의 아귀나도 기지에 재접결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전화를 받은 피델 라모스는 거기에서 합류하기로 동의했다. 엔릴레가 헬리콥터로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미국대사 스티븐 보스워스와 일본대사 키오시 소미야에게 전화를 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지지 호소는 마닐라의 신 추기경에서 보내는 것이었다. 카톨릭 라디오 베리타에서 연설하면서, 신 추기경은 마닐라 민중들에게 놀라지 말고 집에 머물라고 권고했다.<sup>39)</sup> 반란군이 숫자를 점검하자, 320명의 무장한 장교와 사병, 12개 팀으로 조직된 약 300명의 민간인이 전부였다.<sup>40)</sup> 장교들은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RAM의 전화 연락이 확대되면서, 제15 타격대대 지휘관인 공군대령 안토니오 소텔로가 지지서약을 보내왔다. 그는 비행대대 지휘관을 모든 다음, 그들을 무장시키고 5대의 공격용 헬리콥터에 연료를 채웠다.

[그림 3]

반란군 지도자 후안 폰세 엔릴레는 미국과 일본대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

Photo by Franz Lopez in *People Power: An Eyewitness History*, 114.

언론이 기자회견에 맞춰 기지로 밀려들자, 엔릴레와 라모스는 공개적으로 반란을 선언하고, 대중들에게 참여를 요청했다. 그들은 식량이 없다고 밝혔다. 민중의 지원은 즉각적이었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식량을 가져와서, RAM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생쌀을 가져오지 말라고 부탁했다. 첫 번째 식사 일부는 은쟁반으로 제공되기도 했다.<sup>41)</sup> 콜게이트-팔모 라이브 사는 치약과 칫솔, 비누를 박스째 보냈다.<sup>42)</sup> 담배가 갑자기 “무더기로” 쌓였다.

저녁 9시경, 신 추기경이 다시 라디오 베리타스에 출연해 사람들에게 “우리 좋은 친구 두 명”을 지지하라고 요청했다.<sup>43)</sup> 그때부터 라디오 베리타스는 반란군과 밀접하게 협력했고, 반란군 상호간 연락까지 도왔다. “군대 역사상 처음으로,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시민들이 운영하는 민간 방송매체가 야전의 군부대에 군사명령 또는 지침을 송출했다.”<sup>44)</sup> 예수회 사제 제임스 류터가 전체 작전의 핵심 연결고리였다. 그는 라디오 베리타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크레임 기지의 라모스와 직접 접촉했고, 전화로 미국 대사관과 접촉했다.<sup>45)</sup> 국방부의 뒷방에서, CIA 요원들은 엔릴레와 라모스에게 “베르가 한 모든 것”에 대해 알려주었고, “말라카냥에서 나가는 모든 통신을 전달해줬다. 엔릴레는 이 CIA 뒷방 연결을 통해 보스워스 대사와 빈번한 접촉을 유지했다.”<sup>46)</sup> 나중에 라모스는 “미대사관 무관 톰 헬리 대령과 끊임없이 접촉했고, 대령은 미국대사가 나의 파트너로 임명한 인물이었다.”고 인정했다.<sup>47)</sup> 미국의 제7함대가 필리핀 해역에 대기하자, 반란군의 사기는 더욱 고무되었다.

이 결정적 순간에, 아키노는 수백마일 떨어진 세부에 있었다. 엔릴레(마르코스의 국방장관)를 신뢰하기를 꺼렸던 그녀는 다바오에서 그들만의 과도정부 선포를 고려하고 있었다.<sup>48)</sup> 다음 날, 그녀는 신 추기경의 전화를 받았고, “제3의 세력”(RAM)이라 문제라고 말했다. “아니오”라고 추기경이 대답했다. “그들은 당신이 대통령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일으켰다고 확신하오. 거기에 가서 그들에게 감사하시오. 이 일이 없었다면, 당신은 매일 시위를

39) Santiago, *1986*, 38.

40) *Ibid.*, 25, 32.

41) *Ibid.*, 54.

42) *Ibid.*, 53.

43) *Ibid.*, 38.

44) Fidel Ramos quoted in *ibid.*, 52.

45) *Ibid.*, 53. 여기에 또 다른 최초도 있었다. 제임스 캐롤(James Carroll)은 이것이 “희가 사전에 혁명을 승인한 최초의 사례”라고 필자에게 말했다. (interview with the author, Manila, June 4, 2009).

46) Sterling Seagrave, *The Marcos Dynasty* (New York: Harper and Row, 1988), 414 as quoted in Santiago, *1968*, 55.

47) *Ibid.*, 172.

48) *Ibid.*, 41.

하면서도 대통령이 되지 못할 지도 모르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대통령이 될 것이오. 당신의 신의 손을 볼 수 있소. 이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오.”<sup>49)</sup>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손이 신의 손인지 CIA의 손인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군대의 반란이 운동의 성공에 관건인 한에서 추기경의 발언은 핵심을 찌르고 있었다. 기적이거나 CIA의 반란이 아니라, 폴뿌리 봉기(RAM도 그것의 한 표현)가 마르코스를 필리핀에서 축출하는 역사적 원동력이었다.

2일차인 2월 23일 일요일 자정 직후, 라모스는 17대의 탱크와 2대의 헬리콥터로 크레임 기지내 전력을 강화했다. 밤 동안, 캠프 밖 지지자들의 숫자가 20,000명에서 2,000명으로 줄었다. 새벽 4시에, 공격이 임박한 것은 보였지만,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다. 대부분 아직 발각되지 않은 RAM 회원들이 명령 수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도시가 깨어나자,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숫자로 ESDA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8시경 군중은 약 50,000명으로 불어났다. 몇시간 뒤, 마침내 베르가 지휘하는 정부군이 공격을 개시하자, 그들의 탱크 7대 모두가 ESDA와 오르티가스 사거에서 군중들에 의해 저지되었다. 이 시점에 라모스와 엔릴레는 다수의 헌병 지휘관과 40개 지방부대 지휘관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일요일 이른 아침, 무장한 정부군이 라디오 베리타스를 파괴했지만, 몇시간 안에 라디오 베리타스는 곧 망가진 임시 송신기를 사용하여 방송을 계속했다. 송신기가 꺼져갈 무렵, 신 추기경은 제임스 루터에게 연락해서 다른 송신기를 찾아보라고 부탁했다. 곧 라디오 반디도라는 새로운 방송국이 방송을 재개했고, 이는 거리의 사람들의 사기와 행동통일에 아주 중요했다. 수백명의 수녀들이 도착했고, 새 방송국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몰려가 정부군의 건물집 입을 막았다.

점심 시간경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반란군 주위를 둘러쌌고, 일부는 ESDA에 1백만명 이상의 군중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사람들은 자체 방어용으로 나무과 가로등을 잘라냈다. 메르세데스와 자가용과 나란히, 시내 버스들이 바리케이드로 세워졌다. 모래주머니가 신속하게 쌓였고, 수십개의 성상들로 장식되었다.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운 대규모 해병부대가 크레임 기지를 공격하려고 시도하자, 목주를 든 수녀들이 그들에 맞섰다. 탱크가 움직이려고 해도, 사람들은 꿈쩍하지 않았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란군 기지 주위의 도로와 거리를 메워서, 마르코스에 충성하는 군부대는 전진할 수 없었다.

[그림 4]

목주를 든 수녀들이 그들에 맞섰다.

Photo by Pete Reyesin *People Power: An Eyewitness History*, 178.

이제 더욱 자신감을 갖게된 반란군 지휘관들은 그들의 세력을 합치기로 결정했다. 엔릴레와 호나산은 아귀날도 기지에서 부대를 이끌고, ESDA를 넘어 크레임 기지의 라모스에 합류했다. 일단 거기에서 엔릴레는 미국 대사에게 그의 이동에 대해 알렸고, 그런 다음 베르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두 사람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만약 베르의 탱크가 더 전진하면, 유혈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마르코스는 모든 반란군에게 완전 사면을 제안했지만, RAM 지도부는 신속하게 제안에 대한 고려조차 거부했다. 동시에, 반란군 사병들은 그들을 둘러싼 수천명의 지지자들에게 무기를 나눠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 피플파워의 등장

밤낮으로 거리에 머물던 마닐라 민중들은 필리핀 역사의 경로를 바꿨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로 변화시켰다. 마르코스에 대한 투쟁은 새로운 즐거운 방식으로 그들을 한데 묶었다. 국민의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3세기의 스페인 식민화와 1세기의 미국지배는 카톨릭과 깊은 문화적 영향을 가져왔지만, 필리핀인들의 토착 정체성은 파괴되었고, 필리핀인의 정체

49) Ibid., 60.

성 형성은 진행중인 상태였다. 외국문화의 영향력이 아주 깊이 침투해서 심지어 MNLF 게릴라조차 자신을 지칭할 때 “모로”라는 스페인어 명칭을 사용했고, NPA 게릴라 투사들도 베이스 캠프에서 여가시간에 원래 미국의 게임인 농구를 한다.

F. 시오닐 호세가 필자에게 말했듯이, 필리핀은 “동아시아의 주요한 문화적 흐름(유교, 힌두교, 불교) 밖에서 아직 민족이 되지 못한 국가이며, 필리핀인들에겐 앙코르와트나 보로부두르가 없다.”고 말했다. 타일랜드 활동가 솔라크 시바락사와의 대화에서, 호세는 똑같은 감정을 다른 식으로 표현했다: “우리는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대륙의 많은 부분에 대해 커다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당신 고대문명의 유물은 당신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존재하고, 당신네 역사는 과거로부터의 연속이기 때문이다.”<sup>50)</sup>

피플파워는 필리핀인들에게 새로운 통일성과 목적의식을 부여했다. EDSA 혁명 웹사이트가 기억하듯이, “그것은 민중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 늙은이와 젊은이, 빈태와 촌놈에 관한 것이었고,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팔을 엮고서 고속도로의 긴 대열에 함께 서있을 때, 그들은 단지 필리핀인이었다. 그들 모두 하나였다.”<sup>51)</sup> 그 자체로 운동은 미국의 정복 이래로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통일된 필리핀 정체성을 형성했다. 한 작가가 표현한 것처럼, “이 대치로부터, 거리의 보통 필리핀인, 톤도 사람들과 얼굴없는 사람들이 중간계급에 합류했고, 양자는 결코 과거에 행사한 적이 없는 일종의 자연발생적인 집단적 의지와 그들이 결코 키우지 못한 공통의 유대를 발견했다. 이 경험은 그들을 감전시켰다. 눈물이 얼굴에 흘러내렸다.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피플파워’가 탄생했다.”<sup>52)</sup> 필자가 에로스 효과라는 부르는 것이 여기 수십만 필리핀인들의 감정과 행동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 [그림 5]

광장의 대규모 점거는 마르코스가 탱크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

Photo by Joey D. Vera in *People Power: An Eyewitness History*, 155.

민중들의 명목적 가치는 하루밤 사이에 변화했다. 한 어머니는 회상했다. “나는 군대와 경찰을 미워했지만, 일요일 나는 그들을 위해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어요. 라디오로 그들이 식량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지요. 나는 단지 군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군중들을 뚫고 지나가야 했지요. 집회 때 그들을 항상 저주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멀리 걸어가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게 놀라웠죠.”<sup>53)</sup> 엔릴레에게 변화는 명백했다: “사람들이 내 평생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 ‘우리는 우리 군인들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걸 들었지요. 군대에서 보내 시절 내내, 그런 말을 결코 들어본 적 없지요.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충성의 대상은 민중이지요.”<sup>54)</sup> 코리 아키노는 회상했다: “모든 것이 아주 자연발생적이었죠. 감독도 없었죠. 진정으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길 원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한데 뭉쳐서 하나가 되어 마침내 서로를 인식한 건 바로 민중들 자신이죠... 마침내 필리핀 민중들은 필리핀인들의 좋은 모든 것을 인식하게 되었죠. 음식을 나누어먹고, 함께 기도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친절과 지지, 자신을 완전히 버리기...”<sup>55)</sup> 르네 크루즈에게, “정말로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죠. 군인들은 명령을 받아도 발포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과 부인이 EDSA에 나가서 실제로 즐기고 있었고, 4일 내내 날씨는 아주 시원하고 좋았죠.... 소매치기, 강도나 추악한 사건에 대한 보도는 전혀 없었죠.”<sup>56)</sup> NGO 지도자 코라손 줄리아노-솔리만은 필자에게 말했다. “모든 사람이 보통사람들이 영

50) M. Bernad, ed., *Conversations with F. Sionil Jose* (Quezon City: Vera Reyes, 1991), 215 as quoted in Joseph Scalise, “Articulating Revolution: Rizalin F. Sionil Jose’s *Rosales Saga*.” (Essay in author’s possession.)

51) The EDSA Revolution website, <http://library.thinkquest.org/15816/therevolution.article5.html>

52) Seagrave, *The Marcos Dynasty*, 415 as quoted in Santiago, *1968*, 79.

53) Yolanda Lacuesta, quoted in *ibid.*, 65.

54) *Ibid.*, 169.

55) *Ibid.*, 194.

56) *Ibid.*, 135, 141.

웅적 행동을 하고, 투표소를 지키고, 투표함을 인간 사슬로 막는 것을 목격했죠. 모든 순간 순간은 서로의 용기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모두 하나의 커다란 가족이 된 것처럼 느껴졌죠."<sup>57)</sup>

노동자들의 참여도 아주 광범해서 어떤 목적자들은 봉기가 “마르코스 체제의 악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혁명”이라고 간주했다.<sup>58)</sup> 택시 기사들은 요금을 받지 않고, 사람들을 가득 채워 공짜로 기지로 태워다 줬다. 많은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여했지만, 그들은 개인으로, 즉 노동 조합의 구조 외부에서 참여했다.<sup>59)</sup> TUCOP는 내부의 의견불일치로 야당을 직접 지지하지는 않았다. 자유노동자연맹은 지속적으로 “정치로부터의 자유”라는 원칙을 견지했고, 좌파 KMU(Kilusang Mayo Uno)는 선거 보이코트에 충실한 채, 공식적으로 봉기를 승인하는 것을 거부했다.

비록 주로 마닐라에 집중되었지만, 투쟁은 다른 지방에서도 일어났다. 세부 시에서, 사람들은 군사폭동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필리핀 헌병대 기지 앞에 집결해서 기지가 친마르코스 세력의 공격을 받는 것을 막는 데 성공했다. 일로이도 시에서, 거리의 모닥불과 춤으로 아키노를 축하했다. 마라위에서, 기도집회는 마르코스를 지지한 정치인들을 성토했다.<sup>60)</sup>

민중들의 용감한 비타협성은 모든 군부대가 손에 무기를 쥐 채 반란군 편으로 넘어오도록 설득했다. 2월 22일 200명의 군인들로 시작된 사건은 48시간 내에 20만명의 군대라는 다수로 전환했다. 마르코스는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주요 군사지휘관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자 공포에 떨었다. 23일 오후 7시 교황은 교황 사절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호소하는 편지를 마르코스에게 전달했다. 그 이후 곧, 처음으로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마르코스 정부의 “신뢰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적으로 미국은 마르코스에게 망명지를 제의했지만, 그는 계속 대통령으로 머물겠다고 주장하면서 제의를 거부했다. 그날 늦은 저녁, 라모스와 엔릴레는 별도로 코리 아키노의 여동생 집에 갔고, 아키노는 대중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지 않으려고 자가용 비행기로 거기에 도착해 있었다. 아키노는 여전히 엔릴레와 함께 일하는 데 주저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남편의 오랜 투옥기간 동안 그의 체포자였던 사람과 거래해야만 했기 때문이다.<sup>61)</sup>

EDSA에 어둠이 내리자, 한 예수회 사제가 친마르코스 탱크 지휘관을 설득하여 밤 동안 부대를 철수하게 했다. 탱크들이 물러나자, 사람들이 소리쳤다. “잘 자라! 내일 보자!” 지휘관 모르게, 일부 부대는 조용히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를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머무르시오”라는 말을 들렸다.<sup>62)</sup> 밤새도록 EDSA의 사람들은 교회종이 반복적으로 울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는 마르코스의 군대가 공격할 것이라는 신호였다. 군대의 이동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떼지어 뛰어나가 거리를 봉쇄했다. 기도와 노래로 사기는 높게 유지됐다. 크레임 기지의 정문 앞에서 수녀들이 노래하는 동안 군인들은 시민들에게 화염병의 적절한 사용법에 대해 브리핑 했다.<sup>63)</sup> 친정부 트럭들이 군중에 접근하여 마르코스를 지지하는 군대에 식량을 제공하려고 통과하겠다고 우겼다. 라모스가 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통과하게 하시오. 배고픈 군인들은 위험합니다.” 식량은 통과했다.<sup>64)</sup> 새벽 2시에 라모스는 군중들에게 휴이 헬리콥터 한 대가 반란군 편으로 넘어왔다고 발표했고, 인기가수 프레디 아길라르가 “바얀 코”(마르코스가 금지시킨 인기가요인 “나의 조국”)를 불렀다. 워싱턴의 레이건 대통령과

57) Interview with Dinky Corazon Juliano-Soliman, Manila, June 2, 2009.

58) Bonifacio Tupaz, president of the Trade Unions of the Philippines and Allied Services was interviewed on July 9, 1987. See Macaraya, *Workers' Participation*, 12-3.

59) *Ibid.*, 36.

60) Benedict Kerkvliet and Resil Mojares, *From Marcos to Aquino: Local Perspective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2), 4.

61) Santiago, *1968*, 87.

62) Interview with James Carroll, Manila, June 4, 2009.

63) Santiago, *1968*, 95.

64) Interview with James Carroll, Manila, June 4, 2009.

상의한 다음, 국무장관 조지 솔츠는 마닐라 시간 새벽 4시에 미국대사 보스워스에게 전화를 걸어“시간이 다 됐다”고 마르코스에게 통보하라고 말했다.<sup>65)</sup> 마르코스는 폭력을 통제하는 한 미국으로의 출발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보증을 받았다. 하지만 마르코스는 여전히 떠나길 거부했다.

## 최후의 전투

2월 24일 새벽, 캠프 내부의 반란군은 생명을 희생해야 할 전면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껴안고 마지막 작별인사를 했다. 라디오에서 필리핀 군사학교 교가가 흘러나오자, 모두 기립했고, 많은 사병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몇분 후, 라디오를 통해 베르 장군에게 “그들을 쏘어버리라”는 마르코스의 명령을 들을 수 있었다. 연발 최루가스 뒤로, 곤봉을 든 진압경찰이 길에서 사람들을 해산시켰다. 동시에, 수백명의 친정부 부대가 아귀날도 기지의 각 방면을 공격했고, 크레임 기지와 마주한 벽을 뚫었다.

나라의 운명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기적이 전투의 결과를 결정했다. 강력한 돌풍이 최루가스를 발사한 친정부 부대쪽으로 불었다. 공격한 군인을 포함하여 모두가 안도했다. “신의 손”을 목격한 그들은 갑자기 봉기자들의 편으로 넘어가서, 모여든 군중들과 껴안고 환호했다. 거의 동시에, 5대의 헬리콥터 공격기가 폭동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격했지만, 모든 조종사와 승무원들(안토니아 소텔로 대령의 지휘 하에 있던)이 반란군 편으로 넘어가 헬기를 크레임 기지에 착륙했다. 16인의 비행사들이 라모스의 작전실로 날렵하게 들어가자, 그들은 격렬한 환호를 받았다. 수녀들이 그들에게 꽃을 주었다. EDSA를 따라 환호가 터져나왔다. 해군 방어부대의 지휘관인 구굴파이 자르디니아노 준장은 50명의 장교들의 환호 속에 그가 “싸울만한 가치가 있는 대의”를 위해 반란군 편으로 넘어갔다고 선언했다.<sup>66)</sup> 곧 이어 파시그 강에서 순양함이 위치를 움직여 대포를 말라카냥으로 조준했다. 두 대의 전투기가 크레임 기지 내부의 반란군을 공격하라고 파견되었다. 공중을 선회한 다음, 전투기는 흩어져서 클라크 공군기지에 착륙했고, 거기에서 반란의 나머지 기간 동안 지상에 머물렀다.

EDSA 전투의 조류가 봉기자들에게로 이동하는 동일한 그 순간, 코리 아키노는 엔릴레가 더 이상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그녀의 보좌관들은 엔릴레가 독자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변호사들을 불러들여” 즉각적인 취임선서를 준비했다.<sup>67)</sup> 마르코스가 필리핀을 떠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군중은 일부에서 수백만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늘어났다.<sup>68)</sup> 몇 마일 떨어진 말라카냥 내부에서, 마르코스는 채널 4에 그가 필리핀을 떠나지 않았다고 방송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오전 9시 15분, 마르코스는 부인 이멜다와 손자들에 둘러싸여 채널 4에 출연했다. 그는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사임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중간에, 베르 장군이 크레임 기지를 공격하도록 허가를 구했다. 마르코스는 그에게 “공격하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장군을 제지했고, 그에게 오직 소화기만을 사용할 권한을 주었다.

크레임 기지 내부에서, 엔릴레는 채널 4를 접수하라고 부대를 파견했다. 그는 또한 로켓으로 무장한 헬리콥터 부대에 말라카냥 궁 자체가 아니라 주변지역을 타격하라고 명령했다. 몇분 지나지 않아 두 대의 트럭에 나눠 탄 반란군이 채널 4를 포위했다. 송전탑 위의 저격수가

65) Santiago, 1968, 99.

66) Ibid., 108.

67) Ibid., 112.

68) *Sunday Inquirer Magazine*, June 1, 1986; *Bulletin Today*, February 25, 1986 as cited in Santiago, 1968, 130. EDSA에 모인 사람의 숫자를 계산하는 아주 흥미로운 방법의 하나로써, 면적과 군중의 밀도를 기준으로 이용하여, 루네타, 리왕상 보니파시오, 우가르테 필드는 그 숫자를 1,986,376명에서 2,494,028명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자동차, 기념비, 나무, 건물, 기둥 등의 면적을 포함한 것이었다. 따라서 봉기를 지지하여 거리에 1백만명 이상이 모였다고 말하는 것은 안전한 것 같다. See Renato Constantino, *Malaya*, April 30, 1986 reprinted in Santiago, 1968, 131-2.

건물을 방어하면서 총격이 울렸다. 반란군도 응사했고, 저격수를 사살했다. 오전 9시 56분, 채널 4에서 마르코스의 이미지는 사라졌다. 마르코스의 41분간 방송은 그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30분후 반란군 헬리콥터가 정부군 헬리콥터를 파괴하기 위해 말라카냥 궁과 빌라모르 공군 기지를 공격했다.<sup>69)</sup> 6기의 로켓이 대통령궁을 향해 발사되었고, 두명의 방위병이 부상당했다. 격노한 베르 장군은 공군에 크레임 기지를 폭력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보여주었다: “충성! 현재 말라카냥 궁 폭격 대기중!” 공군의 반란군 가담은 아주 만장일치여서, “헬리콥터들은 2월 24일 월요일 말라카냥 궁 대지에 대한 경고사격, 빌라모르 공군기지에 있는 3대의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 파괴, 정부가 통제하는 TV 방송국 채널 4를 장악한 반란군에 대한 공중엄호 제공 등으로 하루 종일 바빴다.”<sup>70)</sup> 해방된 채널4 내부에서, 5개의 임시 위원회가 신속하게 구성되어 라디오, TV, 제작, 승인, 뉴스 등을 포함하여 제작을 재개했다. 로비 외부에서, 마르코스의 초상화를 끌어내려 불태우자 사람들이 환호했다. 오전 11시 45분 라디오 베리타스가 방송을 재개했고, 오후 1시 25분 채널 4가 다시 방송을 했으며, 이번에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은 이 채널에서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약속했다. 카메라 기사와 기술자들은 돌아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 자발적으로 일했다.

오후 늦게 베르는 해병대대와 육군부대를 크레임 기지에 대한 “자살공격”으로 파견했다. 베르의 공작을 알아차린 미국 대사관은 즉각 워싱턴에 알렸고, 레이건 대통령을 깨웠다. 처음으로 그는 오랜 친구의 사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데 동의했다.<sup>71)</sup> 그날 밤, 마르코스 가족은 미친듯이 엄청난 부를 상자들에 싣다. 금괴, 채권, 신권 화폐, 보석, 예술작품, 문화유물 등이 모두 보트로 미국대사관 인근의 정박지에 보내졌다. 오전 2시 45분 마닐라에서 마르코스는 네바다주 상원의원 폴 랙솔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술츠 장관 및 주요 의회 지도자들과 모임을 갖던 중이었다. 마르코스는 레이건이 정말로 그에게 떠나라고 요청했는지 알고 싶어했다. 다른 전화선으로 이멜다는 낸시 레이건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약 새벽 5시, 대답이 도착했다. 랙솔트는 마르코스에게 “시간이 되었다”고 조언했다. 낸시는 이멜다에게 만약 폭력을 피한다면 그들이 미국에 살도록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sup>72)</sup>

마르코스는 워싱턴의 마지막 지침을 고수했지만, 모든 대치가 평화적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자정이 조금 지나, 채널 4를 재탈환하려는 탱크를 막는 시민들에게 정부군이 철조망 사이로 총격해 여러 사람이 부상당했다. 다음날 2월 25일 산발적 총격전이 마닐라의 여러 곳에서 벌어졌다. 보도에 의하면 오전 7시경 정부군 저격수가 퀘손 시티(EDSA와 말라카냥의 수십만명에서 멀리 떨어진)의 채널9 송전탑 근처에서 사격해서 최소한 4명이 부상당했다.<sup>73)</sup> 그날 아침 나중에, 아키노와 마르코스는 각자 필리핀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서했다. 공중파를 통제하려는 전투에서, 약 60명의 봉기부대는 채널 9 송전탑(마르코스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던 방송채널)의 통제를 둘러싸고 약 30명의 정부군과 교전했다. 고지를 선점하려고 3명의 마르코스 정부군이 송전탑에 기어오르자, 무장 헬리콥터가 재빨리 그들을 사살했다.<sup>74)</sup> 공격으로 송전기가 마비되었고, 채널 2,9,13을 폐쇄시켰고, 사실상 마르코스의 취임식은 보도되지 않았다. 마지막 방송매체를 빼앗기자 마르코스의 지위는 별볼일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항복하기를 거부했다. 오후 3시 36분경 토마스 모라토와 티모그 사거리에서, 정부군 트럭과 지프가 총격을 가하면서 군중을 뚫고 나가다가 여러 사람을 부상시킨 다음 바리케이드에 막혔다.<sup>75)</sup>

69) Mercado, *People Power*, 308.

70) Ackerman and Duvall, *Force More Powerful*, 390.

71) Santiago, *1968*, 137.

72) *Ibid.*, 151.

73) Mercado, *People Power*, 232.

74) Mercado, *People Power*, 258.

75) Santiago, *1968*, 170.

[사진 6]

텔레비전 방송국들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반란군이 마르코스에 충성하는 정부군을 사살했다. Photo by in *People Power: An Eyewitness History*, 259.

그날 아침, 호화스런 클럽 필리피노에서 열린 코리 아키노의 취임식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는 않았다. 취임식에 참석한 부유층은 승리를 확신하지 못했지만, 1776년 독립선언의 서명자들처럼, 승리에 기꺼이 목숨과 재산을 걸려고 했다. <마닐라 타임스>의 설명에 의하면, “상석에는 필리핀 사회의 하층 사람들이 아무도 대표로 나오지 않아 실망스럽다. 내부의 사람들 대부분은 여전히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주요한 지위에 있는 오랜 정치 가문의 구성원들이다. 인정을 원하는 새로운 사회세력은 클럽 필리피노 파워 엘리트 내에서 보이지 않는다.”<sup>76)</sup> 아키노는 재빨리 엔릴레를 국방장관으로, 라모스를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마치 마르코스가 했던 것처럼) 집행명령 1호에 서명했다.

멘디울라 주위의 거리에서 친정부 군대와 시민들은 수천명의 시민들과 전투를 벌였다. 최소한 4명의 외국인 사제를 포함한 30명의 사제와 신학생 대오가 친정부 해병대와 시위대 사이에 섰다. 십여명이 심각하게 부상당해 누워있었지만, 사제들의 신속한 행동이 더 이상의 부상을 막았다.<sup>77)</sup> 수천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대통령궁을 포위했다. 마침내, 모든 부대에게 말라카냥 궁을 떠나라는 명령이 내려왔지만, 근처의 거리에 남아있었다.

오후 9시경, 5대의 미국 헬리콥터가 마르코스를 데려가려고 도착했다. 여기에,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엔릴레가 선을 넘어 자신의 30년간 보스에 작별인사를 했다. 마르코스가 떠날 때, 그들의 만남은 오래 포옹으로 끝났다고 목격자들이 보고했다.<sup>78)</sup> 또 다른 설명에 의하면 마르코스는 헬기에 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강제로 떠났다고 한다.<sup>79)</sup> 헬리콥터들이 마르코스 일가를 태우고 떠나자, 민중들의 환호가 EDSA를 가로 질러 메아리쳤고, 이 대열에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대오도 포함되었는데, 그들은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마르코스는 갔다! 마침내 말라카냥 궁을 구경하게 될 것이다.”<sup>80)</sup> 해병 근위대가 사라지자, 수백명의 사람들이 건물로 몰려가 문서를 파괴하고 약탈했다. 그러나 나중을 위해 이멜다가 버리고 간 3천 켈레의 디자이너 구두의 컬렉션을 남겨뒀다.

하지만 대결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일단 마르코스가 클라크 공군기지에 도착하자, 그는 보스워스 대사에게 외국으로 망명을 가기 전에 고향 지방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물었다. 보스워스는 아키노에게 전화했지만, 그녀는 마르코스가 즉각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마르코스는 보좌관들을 불러 역쿠데타로 마닐라를 되찾기 위해 “일로카노 군”(Ilocano Army)을 조직하라고 명령했다. 미국은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미국 관리들과의 격한 말다툼 끝에, 마르코스는 마지막으로 한번 고향에 가겠다고 우겼다. 마침내 그는 비행기에 올랐다. 마르코스를 국외로 이송하라고 명령을 받은 미국인 조종사들은 고향으로 가라는 마르코스의 요구를 듣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은 말다툼을 벌이지 못하도록 진정제를 맞아야 했다.<sup>81)</sup>

피플파워 1의 국제적 여파

마르코스를 대체하여 등장한 체제의 수많은 한계와 사회혁명으로 발전하지 못한 운동의 실

76) Amando Doronila in *Manila Times*, February 26, 1986, cited in Santiago, 1968, 161.  
77) Mercado, *People Power*, 241.  
78) Santiago, 1968, 180.  
79) Arturo Aruiza, *Ferdin and E. Marcos: Malacañang to Makiki* (Quezon City: ACA, 1991), 159-160. Col. Aruiza was Marcos' aide for over two decades.  
80) Santiago, 1968, 182.  
81) Santiago, 1968, 197

패에도 불구하고, 1986년 피플파워 봉기는 분명히 위대한 승리였다. 상대적인 무사태로 견고한 독재를 제거할 가능성을 입증함으로써, 아무리 강력하게 보이더라도 정부를 타도할 보통 사람들의 능력에 대한 꿈을 키웠다. 피플파워의 전지구적 반항은 즉각적으로 울려 퍼졌고, 수십만 시민들에 의한 공적 공간의 비합법적 점거가 민중운동의 무기고에 새로운 전술이 되면서, 봉기의 물결을 발생시켰다. 공적 공간의 점수는 전세계적으로 계속 재현되는 지속적 전술이며, 가장 최근에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서 나타났다. 현대사회에서 수도의 집약적 집중은 시스템의 핵심에 도시의 그물망을 필연화시켰다. 어떤 정당이나 중앙위원회가 명령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그런 핵심적 공간을 점수하는 법을 배웠고, 민중의 열망이 발산되고 운동의 성장으로 유지되는 탈군사화된 형태의 항의시위를 창출했다.

필리핀의 피플파워 혁명은 남한의 1987년 6월항쟁을 촉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19일간의 마라톤 시위에서 기독교 그룹들이 지도적 역할을 했다.<sup>82)</sup> 타이완에서, 마르코스의 타도는 “중산층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때가 되었다고 깨닫도록 했다.”<sup>83)</sup> 1998년,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자신을 “피플파워 운동”이라고 불렀고, 장기 독재자 수하르토를 타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10장 이하를 보라). 아랍의 봄 동안, 많은 봉기자들이 그들의 운동을 “피플파워”라고 불렀다. 1986년 봉기는 그 자체로 1968년의 세계사적 운동으로부터 촉발된 전지구적 동학의 창조물이었고, 1968년 이후 플뿌리로부터 운동들 사이의 국제적 연결이 나오면서 국경을 넘는 운동의 중요성이 증가했고, 이는 아시아만의 현상은 아니었다. 마르코스에 저항한 필리핀의 반란은 아이티 독재자 장-클로드 뒤발리에가 쫓겨난 뒤 몇 달 안되어 일어났고, 봉기 동안 마닐라의 거리에서 찍은 한 사진에서 한 시위자는 “마르코스, 뒤발리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1986년 10년뒤, 마닐라의 <선데이 타임스>가 보도했다: “세계가 지켜봤다. 전세계에서 수백명의 통신원들이 선거를 취재하기 위해 파견됐다. 그들이 얻은 것은 혁명의 링사이드 좌석이었다. 전세계의 목격자들은 아직 자신들의 마르코스과 이멜다를 제거하지 못한 일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나라들에 똑같은 시스템이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무혈혁명을 연구하고 있었다.”<sup>84)</sup>

코리 아키노는 2009년 사망했다. 그녀를 칭송하면서 라모스는 회상했다: “그녀에게 혁명은 마닐라에서 서울, 요하네스버그, 프라하, 바르샤바와 모스크바까지 헤아릴 수 없는 수백만을 해방시킨 ‘벨벳 혁명’의 물결 중에서 처음이었다. 아키노 대통령의 ‘피플파워’ 혁명은 진시로 우리 나라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런 순간이었고, 자유와 존엄을 위한 인류의 오랜 투쟁의 서사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뚜렷한 기여였다.”<sup>85)</sup> 1995년 마닐라 방순시, 체코 대통령 바클라브 하벨은 “여러분의 평화적 피플파워 혁명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혁명에 대한 영감이었다.”고 지적했다.

## 아키노 정부

권력이 필리핀 엘리트의 한 친미분파에서 다른 분파로 이전된 정치혁명에 한정되었기에, 마르코스의 타도는 이름뿐인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권력에 오른 지 몇주 되지 않아, 아키노 대통령은 정치범들을 석방시켰고, 여기에는 보니파시오 요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CPP의 창건자 호세 마리아 시손도 포함됐다. 최상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 사람들, 토지

82) Lee Jae-eui, “The Seventeen Years of Struggle to Bring the Truth of the Gwangju Massacre to Light,” in *Gwangju in the Eyes of the World*, 143.

83) V.G. Kulkarni and Rodney Tasker, “Promises to Keep,” *FarEasternEconomicReview*, February 29, 1996, 22-3.

84) Joaquin R. Rocas in *Sunday Times Magazine*, reprinted in Santiago, 1986, 173. 이런 통찰력은 필자의 인터뷰에서 얻은 것이다. 장기구금에서 석방된 다음 망명 중이었던 필리핀 활동가 에디시오 델라 토레(Edicio dela Torre)에게 남아프리카 ANC 지도자들은 민주화 이행을 추구하기 위해 필리핀의 사태를 해석해달라고 요청했다. Interview with dela Torre in Manila, June 5, 2009.

85) Fidel Ramos, “Vale Cory Aquino: a lifetime of service and a precious legacy,” *Taipei Times*, August 12, 2009.



개혁에 반대하는 부유한 지주들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아키노 정부는 토지개혁에 대한 태만한 접근 때문에 심지어 그녀의 지지기반인 세계은행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아키노는 마르코스가 남긴 최소한 260억 달러의 빚에 대해 세계은행과 협상해야 했고, 그 금액은 1988년 국가예산의 39%에 해당했다.<sup>86)</sup> 그녀는 빈민에게 토지를 나눠주겠다는 약속을 부분적으로 지켰고, 6백만 헥타르를 포괄하는 재분배 프로그램을 입법화 했지만, 아시엔다 루이시타의 자기 지분을 포함하여 필리핀의 최고 부자 지주들이 통제하는 2백만 헥타르 이상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녀가 취임한 지 몇주후, 미국 국무부 관리가 보고했다: “우리의 목표는 중도 민주세력을 장악하고... 고무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중도에 의한 통제를 공고히 하고 NPA에 대한 취약해진 기반을 빼앗아 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아주 좋다.”<sup>87)</sup> 미국의 재정지원은 아키노 행정부에게 경제적 성공을 보장했다.

인권침해는 마르코스 때보다 아키노 행정부에서 더 심각한 문제였다. 엠네스티 인터네셔널은 아키노 하에서 전체적인 숫자가 실제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sup>88)</sup> 취임 첫 7개월 동안, 최소한 239건의 고문이 보고되었다. 같은 시기에, 정부군은 일상적으로 반봉기 작전을 수행하면서 필리핀의 오지 마을을 파괴했다. 수십건의 농촌지역 대량소개 명령이 내려졌다.<sup>89)</sup> 1986년 11월 13일, 노동계 지도자 톨란도 올랄리아가 무참하게 암살당했다. 5월1일운동(*Kilusang Mayo Uno*) 노조연맹의 지도자인 올랄리아는 80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었다. 그 당시, 필리핀 인구의 3/4이나 빈곤 속에 살고 있었고, 많은 노동자들이 시간당 60센트 정도 벌었다.(세계적 기업들이 대개 규제받지 않는 수출가공지역의 여성 착취공장 노동자들은 그 절반을 받고 있었다.) 올랄리아는 민중의 당(*Partidong Bayan*)의 총서기이기도 했는데, 이 당은 수많은 지역조직들의 광범한 연대체였다. 아주 많은 풀뿌리 세력들의 교차점에서, 올랄리아는 정부와 좌파 NDF 간의 평화를 역설했다. 그의 암살은 봉기에 대한 전쟁을 가속화하길 원하는 사람들, 특히 국방장관 후안 폰세 엔릴레 측근들의 작품이란 소문이 퍼졌지만, 그런 주장은 결코 증명되지 않았다. 1986년 11월 20일 그의 장례식에 수만명이 참석했다.

민주화 이후 몇 주간, 노동자들이 과거의 파업숫자를 훨씬 능가하는 파업투쟁에 참가했고, 이는 남한에서 우리가 목격한 동학이었다(1권을 보라). 마르코스 집권 후반 파업이 서서히 증가했지만, 독재자 망명 이후 공정한 대우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1986년 581건의 파업이 보도되었는데, 이는 371건을 기록한 1985년을 예외로 하면, 1972년 이래 어떤 해보다 파업숫자의 두배 이상이었다. 파업으로 인한 총 손실일수는 1983년 50만 시간을 약간 상회했던 수준에서 1986년 아래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섯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표5: 필리핀의 파업, 1983-87년

연도	숫자	참여 노동자	총 손실일수
1983	155	33,600	581,300
1984	282	65,300	1,907,800
1985	371	111,300	2,457,700
1986	581	169,500	3,637,900
1987	436	89,600	1,907,700

Source: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Stephen Haggard and Robert Kaufman, *The Political Economy of Democratic Transi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62.

86) Walden Bello, *The Anti-Development State: The Political Economy of Permanent Crisis in the Philippines* (Manila: Anvil Publishers, 2009), 13. 마르코스가 남긴 부채에 대한 다른 추정치는 560억 달러에 이르기도 하는데, 대부분 차관으로 IMF와 세계은행에서 독재정권으로 흘러 들어갔다. 2005년까지 필리핀의 부채는 약 700억 달러로 치솟았다.

87) Robinson, *Promoting Polyarchy*, 139.

88) Kathleen Weekley, “From Vanguard to Rearguard,” 54. Also see the data in Kalaw-Tirol, 1996, 79.

89) Van Erven, *Playful Revolution*, 56-7.

애석하게도, 페르난드 마르코의 축출 이후 민중의 단결과 낙관은 겨우 몇 달만 지속됐다. 1987년 1월 22일, 아키노 정부에 토지 선거공약을 지키라고 경건하게 요구했던 땅없는 사람들의 평화적 시위에 경찰이 맨디올라 다리에서 발포해서 최소한 21명이 사살당했고, 거의 100명이 부상당했다. 1970년 그녀의 남편이 마르코스의 “검은 금요일”이라고 불렀던 것보다 세배 이상 숫자의 사람들이 살해된 맨디올라 학살로 아키노 정부는 많은 지지를 상실했고, 코리는 확실히 탈 것 같았던 노벨 평화상을 놓쳤다.<sup>90)</sup> 다음 달인 2월 11일 필리핀 군사학교 졸업생들에게 “전쟁의 칼 뽑을” 때가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아키노는 공산주의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1987년 2월경, 1986년 12월 10일 NPA 봉기에 대해 선포된 정전이 종료됐다. 레나토 하블란, 올란도 카스틸로, 파블로 바엔 산토스 등의 예술가들은 아키노가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자신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자”라고 부르는 이들은 아키노의 보수적 정책에 대한 반대에 불꽃을 지폈다. 1987년 8월 26일, 거의 2백만명의 노동자들과 지지자들이 아키노의 정책에 항의하여 행진했고, 이를 뒤 아키노에 대한 다섯 번째 유혈 쿠데타가 시도되었다.(호나산 쿠데타)

아키노는 재빨리 입장을 바꾸었다. 그녀는 자경단이 무기를 소지하도록 허용했고, 심지어 그들의 중의 하나인 NAKASAKA를 “피플파워”의 표현으로 칭찬했다. 1987년 말 이전에, 그녀는 악명높은 반공주의 폭력 자경단인 알사 마사(Alsa Masa)를 공개적으로 승인했다.<sup>91)</sup> 아키노는 민중의 당과 같은 과거의 지하그룹들을 합법화시켰지만, 이 당은 공개한 이후로 당원들이 살해당했다. 증거에 따르면 베트남의 피닉스 작전에서 알사마사 같은 필리핀의 반공주의 암살까지 CIA의 암살단 개입이 지속되었다. 특히 미국 합동군사고문단의 제임스 로워 대령과 존 싱글로브 장군은 봉기군에 대한 정부의 “전면전”에 참여한 것으로 믿어진다.<sup>92)</sup> 시손처럼 과거에 수감되었던 정치적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달리, 시손은 네덜란드에 망명처를 구할 수 있었다.)

군대와 카톨릭 교회가 봉기를 지도하여 엘리트 통치자를 바꾸는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사실로 인해 사회변혁 과정에서 민중운동은 중심적 역할을 상실했다. 민주화 운동 세력이 군부독재 엘리트의 다수를 제거하고 커다란 중산층에 번영을 확산시킨 남한과 달리, 필리핀에서 대부분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빈곤과 지배의 거미줄에 묶인 채로 남았다. 체제변화의 가능성을 상실했다는 사실은 민주화운동의 성격 때문인데, 일반 시민보다는 교회 성직자와 군대가 지도부였다.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은 결코 환상이 아니었다. 한 목격자가 설명한 것처럼, “필리핀인들이 계속 나아가 보다 공정한 부의 분배, 군대의 폐지, 또는 민중의 요구에 더 민감한 정부의 탈집중화를 위해 투쟁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들이 어떤 더 놀라운 일을 쟁취했는지 누가 알겠는가.”<sup>93)</sup> 아키노는 권력을 공고화한 이후, RAM의 권력을 빼앗았다. 일부 장교들은 배신당했다고 느꼈고, 다른 장교들은 아키노보다 조국을 위해 훨씬 더 일을 잘 할 수 있으며, 다수 민중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엘리트들의 지지와 명백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키노는 취임 1년반 동안 6차례의 쿠데타 시도에 직면했다.

비록 아키노가 마르코스를 제거하기 위해 마지못해 대통령에 출마하기로 동의한 정치적 초보자로 자신을 묘사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녀는 필리핀 최대 부자 가문의 후계자 중의 하나였고, 개인적으로 가족의 거대한 농장기업의 수지를 맞추는 데 도움을 주었다. 취임 첫 18개월 동안 법령에 의한 통치를 하면서(대부분 마르코스와 똑같은 방식으로), 아키노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무역자유화, 환율 유연성, 민영화, 세계개혁 같은 시장기반 개혁을 포함하여)

90) Interview with F. Sionil Jose, Manila, June 1, 2009.

91) David, “A Movement Dies,” 5; Lawyers Committee for Human Rights, *Vigilantes*, 139-143.

92) Roland Simbulan, “The CIA’s Hidden History in the Philippines,” Lecture at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August 18, 2000.

93) “People Power in the Philippines,” <http://fragmentsweb.org/TXT2/philiptx.html>.

은 필리핀의 병든 경제에 단기적 성장을 회복시켰다.

새 헌법이 작성되어 1987년 선거가 치러졌지만, 어떤 친마르코스 조직세력도 선거에 나서는데 개의치 않았다. 새 헌법은 비상권한을 행사할 대통령의 능력을 제한했고, 또한 보건을 기본권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보건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승리였다.<sup>94)</sup> 중요하게, 새 헌법은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NGO와 PO(민중조직)의 역할을 신성시 하여, 정부가 NGO를 장려하고, “PO의 역할을 존중”하며,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 참여”를 용이하게 하도록 했다. 아키노가 성취하는 데 기여한 지속적 변혁 중의 하나는 여성들 사이에서 NGO를 고무하고 장려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은 남성의 39%만을 버는 것으로 추정되었다.<sup>95)</sup> 1980년대 두 개의 상이한 네트워크, 즉 10대 그룹(G-10: *Lakas ng Kababaihan*)과 발전을 위한 여성행동네트워크(WAND)가 등장했다. 1990년대 중반, 이 두 그룹은 약 200개 조직을 포괄했다. 1989년 필리핀-미국여성 연대조직이 결성되었고, 이미 5년차인 가브리엘라(GABRIELA: General Assembly Binding Women for Reform, Integrity, Leadership and Action)는 함께 일하는 100개 이상의 협력조직을 갖고 있었고, 전국적 여성조직인 KABAPA는 약 3만명을 회원을 갖고 있었다.<sup>96)</sup> 1993년 최초의 공개적 레스비언 행진이 열렸다.<sup>97)</sup>

아키노는 필리핀 역사에서 영웅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대통령으로서 아키노의 기록은 부족함이 많다. 도덕주의적 호소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치는 부패와 폭력으로 얼룩졌다. 아무도 놀라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정도로, 옛 엘리트들이 확고하게 통제력을 유지했다. 1987년 5월 11일 상하원 선거에서, 전통적으로 지역구를 통제하던 가문들이 200개 의석 가운데 169석을 얻었다. 일부 지역관리들은 해고당했지만, 새 헌법의 농업 개혁과 원주민 공약은 꿈으로 남았다. 6번의 쿠데타 시도와 함께, 아키노는 두 번의 탄핵 시도에 직면했다.

1987년 8월, 유혈 쿠데타 중의 하나가 마침내 끝날 때까지 3일간 지속되었다. 상당한 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것이 없고 오직 소수만이 차를 소유하는 사회에서 아키노의 지지자들은 자동차 행렬로 도착했다.<sup>98)</sup> 비록 1991년 탈집중화법이 통과되었지만, 권력은 마닐라에 집중되어 있었다. 일단 입법부가 선출되고 새 헌법이 승인되자, 1987-1991년 GDP가 거의 5 퍼센트 증가했다. 아시아의 호랑이들과 겨룰 정도는 아니었지만, 1981-85년의 1퍼센트 이하와 1986년 거의 8퍼센트 하락과 비교하면 확실히 활발한 성장이었다.

1989년 정권의 지속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채택으로 야기된 경제문제가 나타나자, 아키노는 국내석유 가격을 인상했고, 이 조치로 즉각 광범한 항의시위와 군사쿠데타가 일어났고, 미국

94) Maria Ela L. Atienza, “Health Devolution and Central-Local Relations in the Philippines: The Tripartite Partnership of th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Local Government Unit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9, no. 1 (April 2009): 241; Interview with Mary Racelis, Manila, May 29, 2009.

95) GABRIELA, *The Situation of Women under the Estrada Administration*, 1999 as cited in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Human Rights Report, 2000: A Prelude to Estrada’s Curtain Call* (Quezon City: 2001), 73. 1995년 필리핀의 여성 노동력 참여는 겨우 49퍼센트였던 반면, 남성은 82퍼센트였다. Miriam Coronel Ferrer,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the Philippines,” in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New Millennium*,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20th Anniversary of the Kwangju Uprising Program (Gwangju: May 18 Institute, 2000), 141.

96) Carolyn I. Sobritchea, “Engendering Democracy and Nation-Building,” in *Democratization Movements and Women*,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Third 5.18 Memorial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Democratization and Human Rights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ay 18 Institute, 2002), 94. 동시에 미국은 기존의 여성주의 단체들과 경쟁할 네트워크로서 KABATID에 재정을 지원했고, 이는 미군기지를 유지하고 공산당과 좌파세력의 활동금지를 지속하는 등 미국의 이해를 옹호하는 역할을 했다. See Robinson, *Promoting Polyarchy*, 132-133.

97) Amrita Basu, “The Many Faces of Asian Feminism,” *Asian Women* 5 (Fall 1997), 11.

98) Vincent Boudreau, “Of Motorcades and Masses: Mobilization and Innovation in Philippine Protest,” in *The Revolution Falters: The Left in Philippine Politics After 1986*, ed. Patricio N. Abinales (Ithaca: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 1996), 60.

이 공군력을 사용하여 신자유주의적 아키노 정권을 유지할 것임을 밝힌 후에야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다.<sup>99)</sup> 아키노에 맞선 6번의 쿠데타 가운데, 1989년 12월 RAM과 청년장교단(Youngs Officers)이 시도한 쿠데타는 거의 성공할 뻔했다. 국방장관 피델 라모스가 미국대사 니콜라스 플랫에게 반란군의 공격을 막을 공중지원을 요청한 다음에야 쿠데타는 패배했다.<sup>100)</sup> 일단 미국 공군기가 날자, 쿠데타는 붕괴했다. 그 지도자들 중의 하나인 에드가르도 아베니나의 말로, “우리는 정부를 접수할 참이었다. 그때 미국의 전폭기들이 나타났다. 우리는 단지 미국 공군의 막강한 화력에 맞서 이길 것으로 기대할 수 없었다.”<sup>101)</sup> 감사 표시로, 아키노는 미군 기지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심지어 루네타에서 동원을 호소했다. 사람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1991년 9월 15일 상원은 미국기지 임대를 연장하려는 계획을 거부했다.

위에서 묘사한 필리핀 피플파워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위한 추진력은 지속되었고, 특히 미군기지에 반대한 동원은 성공했다. 미국이 기지유지 비용으로 제공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클라크 공군기지와 거대한 수빅만 시설은 국민투표로 폐쇄되었다. 반미주의가 상원의 임대갱신 반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또다른 요소는 미국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의 감소였다. 1986년 EDSA 봉기와 1991년 기지폐쇄 결정 사이에, 미국의 원조는 총액 7억 5019만 달러였고, 같은 기간에 일본도 필리핀에 41.9억 달러를 보냈다.<sup>102)</sup> 1996년까지 일본의 원조 총액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이었으며, 미국의 원조는 그 수치의 5% 이하인 5천만 달러였다. 일본의 조선 식민화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상호 합의한 1905년 태프트-카츠라 비밀조약에 기술된 역할의 명백한 역전이였다.<sup>103)</sup> 마르코스가 타도된 후, 일본기업들은 아시아 개발은행(ADB)을 이용하여 항만, 도로, 발전소 및 기타 거대프로젝트를 건설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 지역주민의 필요가 아니라 외국기업의 이익이 거대한 투자자의 성격과 위치를 결정했다.

IMF와 세계은행은 아키노 정부를 상당히 지원했고, 아키노는 필리핀 외채의 “특별” 재조정을 협상할 수 있었다. 1991년까지 아키노가 수입 자유화, 금융시장 제한제거, 공기업 민영화를 포함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제한 이후 정권은 원금을 실질적으로 상환하기 시작할 수 있었다.<sup>104)</sup> 1992년 외환유통에 대한 장애가 제거되었다. 곧 엄청난 무역적자가 생겼지만, 그 효과는 지불액을 상당히 줄인 부채조정 계획으로 상쇄되었다. 해외의 필리핀 노동자들이 고향에 보낸 돈이 필리핀의 경제성장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 통화가치가 절하되고 GDP의 일부인 수출이 증가하자, 반아키노 연합이 결성되었지만, 의원들은 IMF와 보조를 맞추고 있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오랜 반대자였던 상원의장은 아키노의 동맹자로 대체되었다.

#### 라모스에서 에스트라다로

1986년 봉기의 핵심 지도자인 피델 라모스가 1992년 대통령직에 올랐다. 한국전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바 있는 웨스트 포인트 졸업생인 라모스는 과거에 유례없는 정도로 외국인 투자에 필리핀을 개방했다. 라모스의 신자유주의 정책 아래서,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지만, 급속하지는 않았다. GDP 성장률은 코리 아키노 하의 3.8퍼센트에 비해 연간 평균 3.2퍼센트였다.<sup>105)</sup> 특히 이주 노동자들이 필리핀에 송금한 금액이 급증하여, 아키노의 집권시 246.5억 달러에서 라모스 정부의 처음 3년간 409억 달러로 증가했다.<sup>106)</sup> 아주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99) Haggard and Kaufman, *Political Economy*, 225.

100) Eva-Lotta E. Hedman, “Beyond Boycott: The Philippine Left and Electoral Politics After 1986,” in *The Revolution Falters: The Left in Philippine Politics After 1986*, ed. Patricio N. Abinales (Ithaca: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 1996), 90.

101) Kalaw-Tirol, *1996*, 57.

102) Kirk, *Philippines in Crisis*, 174.

103) See Volume 1, Chapter 2.

104) Haggard and Kaufman, *Political Economy*, 219.

105) Kalaw-Tirol, *1996*, 110-111.

“연예인”으로 위장하여 일본의 사창가에서 일자리를 찾았고, 미국무부는 마침내 일본을 인신매매 감시국가 명단에 올렸다.<sup>107)</sup> 비록 정부통계는 빈곤감소를 가리키지만, 대도시에서 구걸하는 집없는 어린이들이 넘쳐나고, 다리 아래 또는 카트에서 사는 가족들도 늘어났다. 1993년 한 추정에 의하면 마닐라 인구의 30 퍼센트가 무단 점유자로 살고 있다.<sup>108)</sup>

라모스는 약 150명의 퇴역 장교들을 정부와 국유기업에 임명했고, 미군을 다시 필리핀으로 복귀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다. 임기 말에, 라모스는 대통령으로 재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했다. 1997년 NGO와 시민사회가 5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마닐라의 거리에 몰려나와 투쟁을 벌인 이후에야 피델 라모스는 권좌에 남아있으려는 계획을 포기했다.<sup>109)</sup>

1998년 신 추기경, 코리 아키노, 필리핀 엘리트들의 공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후보로 출마한 부통령 조셉 에스트라다가 11명의 후보가 난립한 대선에서 40 퍼센트의 득표를 얻었다.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임명하여 라모스의 자유시장 정책을 계속함과 동시에 부채지주들이 소유한 토지를 그곳에서 일하는 농민들에게 이전하려고 노력했다. 라모스처럼, 에스트라다도 마르코스 아래서 출세가도를 달렸고, 선거운동 자금 대부분도 과거의 마르코스 지지자들에게 나왔다. 일단 권력에 오르자, 그는 이멜다 마르코스의 재산에 대한 정부 청구권을 그녀에게 유리하게 해결했고, 외국인들이 토지를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제안을 했다. 1999년 8월 신 추기경과 아키노, 시민사회 지도자들의 호소로 거리에 나선 수천명의 시위대는 에스트라다를 퇴진시켰다.<sup>110)</sup>

라모스와는 달리, 에스트라다의 뿌리와 지지기반은 필리핀의 빈민들에 있었고, 그들의 압도적 지지는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2000년초 <아시아 위크>에 “나의 유일한 꿈은 빈민을 돕는 것이다.... 나는 대중의 대의를 옹호한 대통령으로 알려지고 싶다”고 말했다. 비록 에스트라다는 중상류층에서 자랐지만,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액션영화 스타가 되었고, 이 역할로 그는 민족주의적 주제를 다루었고 빈민을 옹호했다. 교외 도시의 전 시장으로서 그는 1992년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에스트라다의 기록이 전혀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공직에 취임했을 때, 나라의 절반 이상이 빈곤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가 말라카냥 궁에 들어가면서, 빈민들은 친구를 대통령으로 두고 있다고 느꼈다. 보다 중요하게, 2000년 1월부터 11월까지, 단지 8건의 법외 살해가 보도되었을 뿐인데, 역시 같은 숫자의 실종만 있었고, 실종자 중에서 2명은 나중에 산 채로 발견되었다.<sup>111)</sup> 더욱이, 1999년에서 2000년까지 필리핀에서 보고된 강간 숫자는 903건에서 650건으로 상당히 감소했다.<sup>112)</sup>

그러나 경제는 혼란에 빠졌다. GDP 성장률은 약 4 퍼센트 증가했지만, 필리핀은 여전히 IMF 위기에서 회복하지 못했었다. 2000년 말, 동남아시아의 나머지 나라들이 성장세로 되돌아갔을 때, 필리핀은 정체상태였다. 실업은 여전히 두자리 숫자였고, 폐소의 가치는 계속 낮았고, 투자는 거의 없거나 빈약했다.<sup>113)</sup> 세 행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특히 금융시장 제한의 제거로 전지구적 동학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했다. 국제기구들의 신자유주의적 지침에 순응한 수십년 후에 경제는 황폐화되었다. WTO 의무를 존중한 3년 내에 4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

106) Ibid., 138.

107) Kirk, *Philippinesin Crisis*, 226.

108) Kalaw-Tirol, *1996*, 150.

109) Muthiah Alagappa, ed., *Civil Society and Political Change in Asia: Expanding and Contracting Democratic Spac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4.

110) Mary Racelis, “New Visions and Strong Actions: Civil Society in the Philippines,” in *Funding Virtue: Civil Society Aid and Democratic Promotion*, eds. Marina Ottaway and Thomas Carothers (Washington: Carnegie Endowment, 2000), 179.

111) See PAHRA, *Human Rights Report*, 39-42.

112) Ibid., 74.

113) Carl H. Lande, “The Return of ‘People Power’ in the Philippines,” *Journal of Democracy* 12, no. 2 (April 1991): 92.

고, 1996년에서 1998년까지 농업에서만 71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sup>114)</sup> 필리핀의 수입의존도가 증가하면서, 기본식량의 소비는 감소했다.<sup>115)</sup> 1995년 WTO 가입 이후 첫 10년만에, 쌀 수입량은 1백만 입방톤에 이르렀고, 이는 587 퍼센트 폭등이었다.<sup>116)</sup> 마르코스 축출 후 10년간 필리핀의 경제성장은 겨우 연간 2.9 퍼센트였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은 연간 7.8 퍼센트, 인도네시아는 6.3 퍼센트 성장했다.<sup>117)</sup> 1997년의 IMF 위기를 맞아, 필리핀은 더 전지구적으로 통합된 다른 나라들보다 위기를 잘 견뎠지만, 동남아 다른 나라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재앙을 겪었다. 주식거래는 1998년 1월 전년 대비 가치의 50 퍼센트 이하로 추락했다. 환율은 1997년 7월 달러당 26.3 페소에서 1998년 35페소로 떨어졌다.<sup>118)</sup> 짓다만 건물들이 마닐라의 스카이라인을 배회하기 시작했고, 재산가치는 폭락했다.

## 피플파워 2: 에스트라다에서 아로요로

음울한 경제상태로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동안, 에스트라다의 생활 스타일 때문에 교회, 도시 중산층, 군대 등 마르코스를 타도했던 주요 세력들은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각자 사치스런 저택에 사는 한 무리의 “부인들”에게서 낳은 많은 아이들과 공개적으로 즐겼던 에스트라다의 호사스런 업적은 그가 결코 카톨릭 고위층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임을 의미했고, 그래서 그는 근본주의적 신교와 비바티칸계 엘 샤다이(El Shaddai)에 구애를 했다. 그는 “밤 12시 내각”을 과시했는데, 이는 카드를 치는 가까운 친구들의 집단으로 그들과 수백만 달러를 건 도박을 하면서 나라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가 도덕주의적 카톨릭 다수를 격노시킨 만큼, 에스트라다의 성적 정복과 부의 공개적 과시는 가난한 지지자들을 대리만족 시켰다.

에스트라다는 담합계약으로 자신과 측근들의 부를 쌓았다. 비록 그가 안와르 아브라힘 말레 이지아 총리가 구속되자 그를 옹호하고 아웅산수키의 남편을 지지하는 등 아시아에서 인권을 증진시켰지만, 그는 필리핀 언론에 대해서는 전혀 관대하지 않았다. <마닐라 타임즈>가 측근에게 혜택을 주려고 할인된 가격으로 공유지를 매각한 사건에 에스트라다가 개입했다고 주장하자, 그는 신문 소유주에게 신문을 매각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후에 그는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어러>의 비판을 침묵시키려고 애썼지만, 신문은 물러서길 거부했다. 가장 가까운 협력자들 중의 하나가 밀려난 다음, 불법도박 수익을 폭로했고, 언론은 기꺼이 혐의를 부각시켰다. 일단 대통령의 부패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모두 600개나 되는 수많은 가짜 회사들이 드러났고, 대통령의 특권으로 축적했다고 하는 에스트라다의 재산은 대중적 토론의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2000년 10월초, 신 추기경과 코리 아키노 등 EDSA 1의 핵심 주자들이 1986년 봉기를 기념하기 위해 교회가 세운 EDSA 신전에 사람들을 결집시키기 시작했다. 2천명 이상의 활동가들이 마르코스를 타도한 연대체를 모델로 한 연합체인 KOMPIL 2를 출범시켰다.<sup>119)</sup> 이에 대응해 에스트라다 지지자들은 훨씬 더 많은 군중을 모았고, 11월 11일에는 1백만명에 이르렀다.<sup>120)</sup> 그룹에도 불구하고, 11월 중순 하원은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표결했고, 2000년 12월 7일 상원의 탄핵심판(미국의 헌법소송과 거의 유사한 과정)은 시작됐다. 필리핀 사상 최초의

114) Alice Raymundo,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Struggle for Food Sovereignty in the Philippines, in Anuradha M. Chenoy, *Putting People at the Center: Human Security Issues in Asia* (New Delhi: ARENA, 2006), 132.

115) See IBON Database and Research Center, *WTO: Supreme Instrument for Neoliberal Globalization* (Manila: IBON Books, 2005).

116) IBON Foundation, “RP is Asia’s Top Rice Importer,” *Education for Development* 6 no. 2 (March-April 2007): 10.

117) Amando Doronila, ed., *Between Fires: Fifteen Perspectives on the Estrada Crisis* (Pasig City: Anvil Publishing, 2001), 101.

118) Jomo, *Tigersin Trouble*, 213.

119) Jennifer C. Franco, “The Philippines: Fractious Civil Society and Competing Visions of Democracy,” in *Civil Society and Political Change in Asia: Expanding and Contracting Democratic Space*, ed. Muthiah Alagapp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123; Doronila, *Between Fires*, 239.

120) Doronila, *Between Fires*, 15, 240.

대통령 재판은 전국적 센세이션이 되었다. 온 나라가 매일 텔레비전에 붙어서 재판이 시작 되는 오후 2시부터 6시간 이후에 끝날 때까지 지켜봤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90 퍼센트의 사람들이 24일간 지속된 재판 내내 밀접하게 또는 때때로 재판을 추적했다. 전문가 들은 에스트라다가 가명을 이용하여 수백만 달러가 들어있는 은행계좌를 개설했다고 증언했다. 에스트라다와 친구들이 인위적으로 주시가격을 끌어올려 이익을 보고, 정부은행과 연기금을 이용하여 불법도박 자금을 세탁했음이 밝혀졌다.

멀리 남부의 민다나오(그가 군대의 반란군 전사에 대한 전투를 가속시켜, 거의 1백만명을 쫓아냈던)에서 북부도시 바구이오에 이르기까지 에스트라다에 반대한 대규모 집회들이 조직되었고, 특히 바구이오에서는 상당한 남녀 동성애자 대오가 대통령 반대투쟁에 참여했다.<sup>121)</sup> 심지어 필리핀 대학의 남학생 클럽 학생들은 검정색 스키 마스크 외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캠퍼스 주위에서 조깅함으로써 축제에 동참했다.

2001년 1월 16일 오후 10시 에스트라다 재판이 결정적 순간에 이르자, 상원은 11 대 10의 근소한 차이로 주요 증거를 포함한 봉투를 열지 않기로 가결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통령을 무죄로 방면했다. 몇 시간 안에,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어도 수천명의 시위대가 EDSA 성전에 집결했다. KOMPIL은 대규모 동원의 가능성을 논의했고, 검은 옷, 검은 리본, 검은 완장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EDSA에 모이지는 않기로 했다.<sup>122)</sup> 1986년 수십만 민중의 경험은 자연발생적 폭발을 용이하게 했다. 일단 사람들이 집결하기 시작하자, 문자 메시지가 아주 빨리 퍼져서 희로에 과부하가 걸렸다. 봉기 동안 하루에 7천만 건의 문자 메시지가 전달되었다고 추정되며, 너무 많은 문자 때문에 글로브 무선회사는 메시지를 전달할 특별장비를 투입했다.<sup>123)</sup> KOMPIL에 관여한 NGO 지도자들은 부통령 글로리아 마카파갈-아로요의 집으로 갔고, 그녀는 그들 모두가 EDSA로 가야한다고 고집했다. 그들은 시위를 조정하기 위해 신속하게 3개조를 편성했고, 컴퓨터, 프린터, 작전센터에 연결할 전선을 가져왔다.

자정이 되자, 아키노와 추기경이 도착했고, 약 2만명이 추가로 합류했다.<sup>124)</sup> 한밤중에 군중은 상당히 줄었지만, 젊은 로커들의 숫자는 늘어났다. 다음날 오후까지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나서 돌아왔다. 다음날 저녁, 신 추기경은 약 10만명의 집회에서 “악이 선에 정복될 때까지 여기 머무십시오. 부패가 청렴에 의해 정복될 때까지 여기에 머무십시오.”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경청하면서 거리에 머물렀다. 신 추기경이 적극적 역할을 한 반면, 1백명의 주교 가운데 겨우 30명만이 항의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sup>125)</sup> 폐소화가 달려에 대해 기록적 하한선으로 떨어지자, 거래자들은 에스트라다의 사임을 요구하기 위해서 마닐라 주식시장에서 퇴장했다.

세 번째 날인 1월 19일, 시위대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군중은 최소한 50만으로 늘어났고, 어떤 사람은 1백만 군중이라고 추산했다.<sup>126)</sup> 이후에 여론조사는 마닐라에 모인 참여자의 65 퍼센트, 아마도 훨씬 그 이상이 계급구조의 상위 10 퍼센트 출신이라고 확인했다.<sup>127)</sup> 타협을 추구하던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이제 악명높은 봉투를 공개적으로 개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바로 그 동일한 순간에, 육군 참모총장인 안젤로 레이에스 장군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건지 결정하기 위해 최고위 장교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었다. 군대내 반정부 분파들 간의 내전 가능성을 발견하고 놀란 장군은 1월 19일 아침 그 가능성을 미연에

121) Sheila S. Coronel, *EDSA 2: A Nation in Revolt* (Pasig City: Anvil, 2001), 17; Lande, “The Return,” 94, 이 자료는 1월 18일 군중의 수를 50만명과 100만명 사이로 추정하는 소식통을 인용한다. For Mindanao displacements, see PAHRA, *Human Rights Report*, 27.

122) Interview with Dinky Corazon Juliano-Soliman, Manila, June 4, 2009.

123) Coronel, *EDSA 2*, 127; Interview with Dinky Corazon Juliano-Soliman, Manila, June 4, 2009.

124) Doronila, *Between Fires*, 171.

125) John J. Carroll, “Civil Society, the Churches, and the Ouster of Erap,” in Doronila, *Between Fires*, 246.

126) PAHRA, *Human Rights Report*, 9.

127) Doronila, *Between Fires*, 8.

방지하기로 결정했다. 레이에는 글로리아 마카파갈-아로요를 부른 다음,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야당의 편으로 넘어가기로 한 결정을 알렸다. 그는 에스트라다에게 조국을 위해 사임할 것을 간청했다. 그런 다음 전군 지위부가 환호 속에 EDSA로 갔고,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승리를 맞보았다. 환호와 찬양은 곧 대규모 거리 파티로 바뀌었고, 이 파티는 최루가스과 총탄이 아니라 색종이와 폭죽으로 벌이는 축제였다.

[사진7]

EDSA 2 사흘째, 사람들이 홍수처럼 거리로 밀려나왔다. Source: *EDSA 2: A Nation in Revolt* (Manila: Asia Pix/Anvil, 2001), 147.

1월 20일 아침, 수많은 가두전투의 베테랑인 좌파세력들이 군중을 EDSA에서 말라카냥 궁으로 이끌었고, 거기에는 대통령 경호대, 경찰관, 분노한 에스트라다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군중들이 행진하고 있을 때, 대법원 판사 다비데가 거의 텅빈 EDSA 성전에 조용히 도착했고, 거기에서 아로요에게 필리핀의 새로운 대통령 선서를 시켰고, 틀림없이 말라카냥에서 벌어질 것 같았던 유혈대치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퇴임을 위한 합헌적 절차는 비껴나갔다. 에스트라다 역시 유혈사태를 피하길 원했고, 다가오는 대치를 진정시키기 위해 대통령궁을 떠났다. 1986년과 같은 극적 드라마 없이, 글로리아 아로요는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다. 이행은 아주 부드러워서, 월요일인 1월 22일 금융시장이 열리자 폐소화는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고,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필리핀에 쏟아 붓자 폭등세로 돌아섰다.<sup>128)</sup>

1986년 봉기의 지속적 영향의 경험적 증거인 피플파워 2는 필리핀 정치에서 군부의 명성을 공고화했다.<sup>129)</sup> 호세 아부에바에게, “피플파워 2는 탄핵제도가 실패한 이후에 거대한 직접 민주주의의 연습이었고, 상원의원-판사들과 하나의 제도로서 상원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기대한 청렴과 공정,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지 못했었다.” 그런 견해는 봉기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를 언급함으로써 에스트라다의 비합헌적 축출을 정당화한다. 사실, 군부 엘리트의 아로요 측으로 이탈은 그녀에게 성과를 가져왔다. 일부 외국인론이 믿는 것처럼 “폭도의 지배”도 아니고, “직접 민주주의”도 아니었던 EDSA 2는 영향력있는 사회계층의 동원이 가져온 군사 쿠데타였다. 그 자체로 어떻게 NGO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타도할 올바른 세력지형을 구축할 수 있는지 입증했다.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1980년 광주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즉 지역사회, 작업장과 대학같은 개별적인 제도적 환경에서 직접 권력을 발전시키는 “직접 민주주의”는 에스트라다의 타도와 거의 아무런 상관도 없다.

피플파워 2는 1986년 봉기의 유산 위에서 건설되었지만, 아래의 표에서 정리한 대로 피플파워 1과 아주 다르다.

표6: 피플파워 1과 2의 비교

피플파워 1: 1986년	피플파워 2: 2001년
마르코스 사임, 아키노 취임	에스트라다 사임, 아로요 취임
새 헌법	새 헌법 없음
NGO의 제한적 역할	NGO의 주요한 역할
지방정부 관리들 해고됨	지방정부 관리들 거의 해고되지 않음
계급간 동맹	전문직과 중상류층
오랜 운동의 마지막 4일	부패한 대통령을 몰아내는 3일

128) Lande, “The Return,” 96.

129) Teresa S. Encarnacion Tadem, “Philippine Social Movements and the Continuing Struggle to Confront the Challenges of the Martial Law Period,”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9, no. 1 (April 2009): 281.



12명 사망	사망자 없음
군대 폭동이 봉기를 촉발함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EDSA에 모임

피플파워 2는 부패한 대통령을 몰아내는 데 3일 걸렸지만, 그것은 “수년간 조직화의 열매”였다.<sup>130)</sup> 1986년 이후 민중들의 경험축적은 에스트라다를 대통령직에서 몰아내려고 열심히 일했던 활동가들도 포함된다. 딩키 줄리아노-솔리만이 조직한 NGO 활동가들은 민주화 대책 위원회(Task Force Transition)란 이름을 붙였다. 아얄라 재단과 메트로뱅크 재단의 자금지원을 받은 25~30인의 핵심 그룹이 2000년 11월 모임을 시작했다.<sup>131)</sup> NGO 활동가들 외에도, 기업인, 시민사회 인사들, 에스트라다 퇴임 이후 행정부의 첫 100일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개발하려고 일한 기타 지도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소그룹들이 경제정책, 사회발전, 정치 및 안보(일부 군인사를 포함하여)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관심사의 하나는 피플파워 1 이후에 지주들이 얼마나 빨리 공고화 되었는지였다. 한 시점에, 누군가가 임시혁명정부의 구상을 제안했지만, 그룹의 합의는 입헌적 절차를 따르는 것, 즉 아로요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다.

봉기에서 NGO의 뚜렷한 역할은 피플파워 2의 중요한 새로운 차원이다. 1990년대 초반 14년간 해외 생활에서 돌아온 사회학자 메리 라셀리스는 피플파워 1 이후의 심각한 변화를 목격했다. “모든 계급의 필리핀인들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필리핀의 발전을 위해 투쟁하고, 방어하고, 발언권을 가질 권리를 키우고 있었다.” 라셀리스의 견해로, 수천개의 NGO와 PO들은 “내가 아는 다른 어떤 나라의 유례없이 활기찬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해준다.<sup>132)</sup> 이어지는 장에서 논의하듯이, NGO는 동원의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들의 효과가 전적으로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피플파워 1은 UN이 NGO를 시민행동의 포럼으로 정당화한 이후에 곧 발생했고, 아키노가 선택한 48인 위원들이 작성한 아키노의 1986년 헌법은 구체적으로 NGO와 PO를 민주정치 과정의 일부로 언급했다. 라셀리스의 견해로는 심지어 “원조 NGO들”을 19세기 스페인의 식민조직과 카톨릭 조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sup>133)</sup> 추가적으로 풀뿌리 조직화의 유산은 도시 산업선교(UIM: 한국, 인디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케냐, 남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교회기반 조직그룹)와 같은 1960년대 솔 알린스키 스타일의 지역사회 그룹들도 포함한다.<sup>134)</sup> 이 초기 형태의 풀뿌리 활동은 이후 발전의 토대로 보일 수도 있지만, 피플파워 1 이후에 NGO의 숫자와 영향력은 급증했다. 지속적 성장은 아래 표에서 요약한대로 주목할 만하다.

표7: 필리핀 NGO와 노조, 1984-1997년

연도	# NGOs	# 노동조합
1984	23,800	1,680
1985	26,100	1,868
1986	27,100	2,217
1987	28,700	2,694
1988	31,300	3,242
1989	34,000	3,793
1990	41,100	4,293
1991	44,400	4,843

130) Interview with Dinky Corazon Juliano-Soliman, Manila, June 2, 2009.

131) Ibid.

132) Mary Racelis, “From the Fringes to the Mainstream,” *Intersect* 8, no. 4 (April-May1994): 7-8 as cited in Kalaw-Tirol, 1996, 30

133) Ibid., 2000.

134) Interview with Edicio de la Torre, Manila, June 5, 2009.

1992	53,000	5,258
1993	57,200	5,836
1994	61,200	6,725
1995	70,200	7,283
1996	n/a	7,610
1997	n/a	8,576

Source: Aurel Croissant, *Vonder Transition zur Defekten Demokratie* (Wiesbaden: Westdeutscher Verlag, 2002), 125, 160-161.

라셀리스는 35,000개의 협동조합과 더불어 2000년 현재 95,000개의 NGO들이 있다고 추정했다.<sup>135)</sup>

### EDSA 3: 빈민의 피플파워

에스트라다가 말라카냥 궁에서 퇴거한지 11일 후, 그는 자신이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응해, 거의 즉각적으로 강탈의 범죄혐의가 그에게 씌워졌고, 수천명의 지지자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의 집에 모여들었다. 4월 25일, 경찰이 에스트라다를 체포하기 위해 도착했다. 44시간의 대치 후에, 에스트라다는 평화적으로 구금되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자 지지자들은 EDSA로 행진하여 5일간 농성을 벌였는데, 이는 EDSA 3 또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플파워”로 알려지게 되었다. 성전에 참가한 사람들의 숫자는 피플파워 2에 모였던 숫자를 능가했다.<sup>136)</sup> 에스트라다의 퇴임을 강제했던 중상류층 구성원과 달리, 피플파워 3에는 대부분 마닐라 무단점유 판자촌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5월 1일 새벽 2시, 최소한 5만명이 결의대오를 형성했고, 아로요가 입주한 대통령궁 방향으로 출발했다. 대규모 경찰력이 불대포, 최루가스, 실탄으로 그들을 저지했다. 대격전이 벌어졌고, 마침내 전투가 끝나자 3명의 시민이 죽었고, 1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아로요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대내 3인의 장교를 포함하여 야당 인사의 체포를 명령했다. 비록 가난한 피플파워가 피플파워 2보다 더 많은 사람을 동원했지만, 반란은 교회 고위층, 기업계, 노동조합, 정당, NGO,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군대에서 주요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후 몇 년간, 아로요 정권은 수십억 달러의 국고를 약탈했고, 수백명의 인권 활동가들을 살해했고, 미군의 필리핀 주둔에 대한 민중의 명령을 뒤집었다. 아로요가 치부하는 사이에, 4,500만 달러(40억 페소)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에스트라다는 불법도박 운영 및 주식조작 등 두 건의 횡령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위증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에게 은행계좌의 약 1,000만 달러(약 7억 페소 정도)와 부동산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는데, 후임자가 훔친 것에 비하면 푼돈이었다. 아로요의 부패는 너무 끔찍해서, 에스트라다의 타도와 아로요의 대통령 취임을 도왔던 활동가들도 민주주의의 회복에 참여했다기보다, 한 탐욕스런 가문의 부와 권력에 관한 계획을 부추기는 꼴이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아로요가 훔친 가족 재산은 에스트라다의 수백만 달러가 아니라 수십억 달러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녀를 권력에 앉힌 교회와 시민그룹의 암묵적 승인 아래, 아로요 행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거의 모든 정부규제를 없애고, 필리핀을 더 심화된 타락과 자본사감, 부채에 노출시켰다.

아로요 대통령 아래서, 미군이 민다나오와 다른 섬에서 무슬림 봉기의 진압에 관여한 것과 동시에 암살단들이 다시 한번 등장했다. 아로요 행정부가 취임한 이후, 10명 이상의 판사와

135) Racelis, “From the Fringes,” 160-161, 181. 라셀리가 지적한 것처럼, 1980년에서 1980년까지 미국의 원조는 필리핀 NGO와 필리핀 소재 미국의 민간 자원단체들에게 5,450만 달러를 기부했다. 1991년 해외 기부자들은 NGO들에게 1억 200만달러를 줬다. 따라서 이 단체들이 실제로 비정부 단체들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136) Coronel, *EDSA2*, 226.

15명의 변호사가 살해되었고, 언론인 50명도 살해당했다.<sup>137)</sup> 게다가, 2001년 이후 주교, 목사, 신부를 포함하여 최소한 23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살해되었다. 살인 외에도, 수천명의 더 많은 사람들이 고문, 공격, 불법체포, 불법구금 및 추방을 경험했다.<sup>138)</sup> 2001년과 2007년 7월 사이에, 사회 활동가들에 대한 최소한 886건의 사법의 살인과 179건의 강제 실종이 보고됐다. 재판이나 유죄판결은 말할 것도 없이 거의 아무도 법원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2008년 처음 8개월간 AHRC는 필리핀 남부에서 자경단에 의한 42건의 살인을 보고했다.<sup>139)</sup> UN 특별 보도관 필립 알스톤은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군부, 특히 군대의 지원을 받는 사병(private militia)이 책임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2006년 10월 3일이글레시아 필리피나 인디펜덴테의 알베르토 라멘토 주교가 자신의 교구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강도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주교가 빈민들을 위해 일하다가 최소한 세 번 이상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살해 한 달 전에 주교는 정부가 일련 살인을 중단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로요 대통령이 퇴진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었다.<sup>140)</sup>

아로요 행정부의 탄압기록은 암살단이 밤에 순찰을 돌자 파업할 의지를 잃어버린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다. 아로요가 필리핀을 지배하면서, 2002년에 겨우 36건의 파업만 있었는데, 이는 21년간 최저수준이었다.

표8: 평균 파업 횟수, 1886-2003년 (필리핀)

연도	대통령	평균 파업숫자
1986-1991	Aquino	308
1992-1997	Ramos	104
1998-2000	Estrada	70
2001-2003	Arroyo	39

Source: , accessed June 10, 2009.

아로요가 에스트라다의 잔여 임기를 마치자, 그녀는 필사적으로 권력에 집착했고, 2004년 이미 개표를 한 이후에 최소한 1백만표 차이로 이기고 싶다고 한 선거관리에게 말했다. 아무 놀라지 않게, 그녀는 원하는 숫자를 얻었다. 그러나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어떠한, 민주주의는 변덕스런 모험이었다.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은 2003년 군사반란에서 살아남았지만, 2010년 이후에도 연임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을 관철시킬 수는 없었다.

2001년과 2005년 사이에 필리핀 1000대 기업은 순수입이 325% 증가한 반면, 10명의 농민 중 7명은 무토지 상태였고, 값싼 수입품 때문에 생산물 가격은 하락했다.<sup>141)</sup> 한중의 억만장자들이 경제의 꼭대기에 앉아있고,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피라미드처럼, 2006년 IBON 전국 여론조사에서 70 퍼센트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했다.<sup>142)</sup> 보통 필리핀인들의 삶은 아주 비참해서, 1인당 식량소비는 아래의 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감소하고 있었다.

표9: 1인당 평균 식사소비량

식품군	1978	1982	1987	1993
곡물	367	356	345	340

137) Asia Human Rights Commission, *The State of Human Rights in Eleven Asian Nations—2006* (Hong Kong, 2006), 222.

138) IBON Foundation, *A New Wave of State Terror in the Philippines* (Manila: IBON Books, 2005), 59.

139)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rbitrary Deprivation of Life in the Philippines," (Hong Kong, September 2008), 3.

140)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Rotten to the Core: Unaddressed Killings, Disappearances and Torture in the Philippines," *Article 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6, no. 1 (February 2007), 43.

141) Antonio Tujan, Jr., "Political Killings Stem from Opposition to Arroyo's Economic Policies," *Education for Development* 6, no. 2 (March-April 2007): 7.

142) Ibid., 74.

생선, 육류, 닭고기	133	154	157	147
야채	145	130	111	106
과일	104	102	107	77
기타	104	102	107	77

Source: 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Alice Raymundo,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Struggle for Food Sovereignty in the Philippines, in *Putting People at the Center: Human Security Issues in Asia*, ed. Anuradha M. Chenoy, (New Delhi: ARENA, 2006), 138.

과거 10년간 외국인 투자는 동남아 지역에 다시 쏟아져 들어왔지만, 필리핀은 엄청난 투자를 타일랜드에게 계속 빼앗기고 있었고, 전자(필리핀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에서는 중국과의 심한 경쟁에 직면한다. 정부의 부채는 은행이 기업에게 빌려주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돈을 거의 남겨놓지 않았고, 필리핀을 정체 또는 악화된 경제적 딜레마에 밀어넣었다. GNP는 증가했지만, 2003년에서 2006년까지 가구소득은 연간 3,200 달러로 약간 감소했다.<sup>143)</sup> 2000-2001년 1인당 식량공급은 전년보다 감소했다.<sup>144)</sup>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것은 어린이들로, 데이터는 아래의 표10에서 보고된 것처럼 어린이들이 점점 저체중과 저신장 상태로 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표10: 저체중 및 저신장 어린이 추정치

	1989-90	1992	1993	1996	1998	2001	# (백만)
0-5세 저체중	34.5	34.0	29.9	30.8	32.0	30.6	3.670
0-5세 저신장	39.9	36.8	34.3	34.5	34.0	31.4	3.766
6-10세 저체중	34.2	32.5	30.5	28.3	30.2	32.9	3.065
6-10세 저신장	44.8	42.8	42.2	39.1	40.8	41.1	3.828

Source: Food and Nutrition Research Institute; Raymundo, "Trade Liberalization," 139.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뉴라운드 저지연합(Stop the New Round Coalition)을 중심으로 결집했고, 2003년 칸쿤 WTO 협상을 저지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했다. 농민, 어민, 농촌여성 조직 총연맹이 28개 지방연맹들로 결성되었고, 이 그룹은 수밀라오 농민들의 토지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지원했다. 비아 캄페시나 및 칸쿤의 반 TO 시위와 연계된 이 그룹은 한국의 농민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2008년 마닐라로의 1700 킬로미터 행진을 시작했다.<sup>145)</sup> 제도야당과 나란히, 공산주의자들은 100개 이상의 게릴라 전선에 6,000 내지 10,000명의 무장대오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1980년대 말 25,000명 수준에서 하락한 것이다.<sup>146)</sup> 해방구에서 그들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지대를 인하였으며, 여성들을 해방시켰고, 풀뿌리 권력을 위한 토대를 창출했다. NPA의 권력기반이 약화된 반면,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과 모로 민족 해방전선은 1995년초 대공 방어망까지 갖추고 10,000명 내지 160,000명의 잘 훈련된 부대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sup>147)</sup>

2008년 2월, 이슬람 그룹들(또는 공산주의 NPA, 목적에 부합하면 누구든지)이 아로요 대통령을 암살할 음모를 꾸민다고 주장하면서, 군부는 필리핀 전군에 완전경계령을 내렸는데, 이는 광범한 연대체가 대통령의 부패를 비판하고 그녀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예정된 하루 전 날이었다.<sup>148)</sup> NGO들과 다른 시민사회 그룹들은 대통령의 남편 호세 미구엘 아로요와 다른

143) Tadem, "Philippine Social Movements," 286.

144) Edna E.A. Co et. al., *Philippine Democracy Assessment: Economic and Social Rights* (Pasig City: Anvil Publishing, 2007), 19.

145) Interview with Raul Socrates Banzuela, Manila, May 30, 2009.

146) Kirk, *Philippines in Crisis*, 151; Information Bureau, CPP, *Images of the New People's Army* (2004), xi.

147) Kalaw-Tirol, 1996, 140; PAHRA, *Human Rights Report* estimated the strength of MILF at 8,000 to 40,000; the group claimed 120,000 armed and unarmed fighters and many more supporters (20).

측근이 정부와 한 중국기업 간의 3억 2900만 달러 브로드밴드 프로젝트에 대한 뇌물로 1억 3천만 달러를 받을 것이라는 의혹을 확인하는 상원의 증언에 대응하여 시위를 계획했다. 계약은 이후 취소되었지만, 아로요 가문의 부는 계속 급증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탄압이 필요했다. 심지어의 탄압 조사관마저 집에서 나오다가 암살당했다.<sup>149)</sup> 2009년 6월, 야당은 아로요와 그녀의 동맹자들이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개헌하려는 제안을 성공적으로 패배시켰는데, 이는 아로요가 총리로서 필리핀의 지도자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명백한 시도였다. 많은 사람들은 종신 대통령제를 추진하기 위해 마르코스가 강제한 1972년의 계엄법을 떠올렸다.

2007년 세계은행의 수치에 의하면, 노동력의 1/4인 약 800만의 필리핀인이 외국에서 일한다. 필리핀의 제1 수출품인 그들은 연간 170억 달러를 집으로 송금하는데, 이는 국내총생산의 13 퍼센트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아로요와 엘리트들이 치부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외국으로 눈을 돌려 더욱 가난해지는 조국을 떠나는 것 외에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 총액은 1996년 최소한 75.6억 달러에 이르는데, 직접 들고 들어오는 돈은 계산하지 않은 액수이다.<sup>150)</sup>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임금체불에서 강간과 살해까지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학대건수가 연평균 35,000건에 이르렀다.

부패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두 번의 봉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민중들은 사회체제를 제대로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 1986년 봉기는 국제적으로 사랑받았지만, 경험적 역사는 봉기가 친미 엘리트 한 분파에서 다른 분파로의 권력 이전을 성취했음을 보여준다. 군의 무장부대와 보수적 카톨릭 위계제(미국과 CIA의 지원을 받는)의 중심적 역할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마르코스를 타도한 것이 신의 손인지 CIA의 손인지, 민중의 힘인지 군대의 총인지에 대한 토론할 여지를 남긴다. 물론, 봉기는 이 모든 요소의 결합이었다. 좌파의 선거 보이코트는 친미 세력이 역사적 기회를 장악하여 봉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의 성공한 봉기인 피플파워 1과 2는 수십만명의 거대한 민중투쟁을 군대의 지지와 결합시켰다. 1986년 군내부의 반란자들은 주도권을 쥐었지만, 그들만으로 마르코스 세력의 전면적 반격을 막아내기에 충분한 힘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거리에서 민중들이 제공한 보호는 봉기의 성공에 핵심적이었다.

피플파워 2 동안, 대중동원은 수천명의 자연발생적 주도력에서 나왔고, 그들 대부분은 피플파워 1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어디에 모이고 무엇을 가져갈지 알고 있었다. 수많은 피플파워 1의 베테랑들이 아이들과 함께 도착했다. 그 당시에 NGO 활동가들은 1986년보다 더 잘 조직되어 있었고, 에스트라다의 축출에 아주 결정적이었던 전군 지휘관의 이탈은 최종적 행동이었지, 초기국면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 피플파워 2는 어떻게 사전계획과 치밀한 준비를 통해 활동가 지도력이 주도력을 장악할 수 있는지 입증했다. 새 행정부의 처음 100일간의 의제를 준비한 NGO 지도자들은 미래의 봉기에 참여할 민중들에게 위대한 모델을 제공한다. 대통령이 된 그들 그룹의 한명인 아로요의 배신에 실망했지만, 그 배신조차 귀중한 교훈을 준다: 특히 즉각적인 소환의 의무가 없는 개별 지도자들에 대한 의존의 약점.

가난한 피플파워의 실패는 아로요 대통령에 충성하는 군대와 경찰 때문이었고, 총과 곤봉을 통해 강요한 충성이었다. 군대의 대통령 방어가 없었다면, 아마도 아로요는 대통령직에서 쫓겨났을 것이다.

민중봉기가 군부내의 지지가 없다면 패배할 것처럼 보이지만, 연이은 쿠데타의 실패는 민중운동 없는 군부의 무력함을 보여준다. 명성에 걸맞게, 필리핀 군대는 버마와 타일랜드 군대와는 달리, 자신의 견해를 민중에게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압도적 무력을 시민들에게 사용하

148) Carlos H. Conde, "Philippines on Alert After Plot," *New York Times*, February 15, 2008.

149) Keith Bradsher, "The Philippines Struggles to Cope With Deficits and Insurgents," *New York Times*, October 26, 2003.

150) Kirk, *Philippines in Crisis*, 182..

는 것을 자제했다.

마르코스의 “측근들”에서 초국적 자본으로의 전환은 칼라일 그룹같은 국제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았다. 피플파워 1의 영웅이자 나중에 필리핀의 대통령이 된 피델 라모스는 2004년까지 칼라일 그룹의 아시아 이사회의 일원이었다. (칼라일은 빈라덴 가문 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 부시 부자를 포함했다.) 여기에 피플파워 봉기가 국제자본의 이해에 봉사하는 생생한 실례가 있다. 필리핀의 경제사회적 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2010년 아키노의 아들(베니노 S. 아키노 3세)가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마르코스의 미망인, 아들, 딸이 모두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는 한줌의 가문들이 계속 필리핀 정치를 지배한다는 증거이다.

피플파워는 비록 필리핀 사회의 근본적 경제구조를 변혁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전세계 운동에 영감을 주었다. 이것은 당연히 가장 지속적인 기여이다.

[번역]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들 2권 3장

제3장: 버마

연표

1988년 3월 12일	다방사건, 랑군공대 학생들이 공격받음
1988년 3월 15일	랑군으로 행진도중 학생 수십명 살해당함
1988년 3월 18일	랑군 시내 주요 시위대가 정부청사에 방화
1988년 3월 21일	랑군에서 격렬한 교전으로 경찰과 시위대 수십명 사망
1988년 7월 23일	네윈 총리 사임, 세인 르윈("도살자")을 후계자로 지명
1988년 8월 3일	평화시위 도중, 사람들이 "피플파워"라는 말 사용
1988년 8월 8일	오전 8:08 항만노동자 파업, 전국에서 행진
1988년 8월 8일	오후 11:30, 군대 발포로 수백명 사망
1988년 8월 19일	세인 르윈 사임
1988년 8월 19일	마웅마웅 정부구성, 파업평의회가 대부분의 도시 통제
1988년 8월 26일	아웅산 수키 50만명 앞에서 최초의 공개연설
1988년 9월 8일	랑군과 만달라이에서 1백만명 이상 행진
1988년 9월 18일	소마웅이 권력 장악하고 수백명 살해, 평의회 탄압
1988년 9월 19일	학살 계속됨
1988년 9월 24일	전국민주동맹(NLD) 결성
1988년 10월 3일	총파업 종료
1989년 7월 20일	아웅산수키 가택연금, 이후 21년간 계속
1990년 5월 27일	NLD 58퍼센트 이상의 득표로 492석 가운데 392석 차지함
1990년 5월 28일	군부 선거결과 무시, 당선자 체포, 철권통치
1990년 12월 19일	탈출한 의원들 중심으로 망명정부 구성
1991년 10월 14일	아웅산수키 노벨평화상 수상
2007년 8월 15일	정부, 연료가격 100퍼센트 이상 인상
2007년 8월 19일	"88세대" 수백명 시위 동원, 대규모 체포사태
2007년 9월 5일	수백명 승려 행진, "샤프론 혁명" 발발
2007년 9월 18일	수천명 승려들의 매일 시위 시작
2007년 9월 26일	랑군에서 군대 승려 공격, 많은 사람들이 살해됨
2007년 9월 27일	사원 습격, 수천명이 체포됨
2008년 5월 2일	나르지스 사이클론이 버마 강타, 138,000명 이상 사망
2010년 11월 7일	군부가 만든 헌법 아래서 새 선거, NLD 선거 보이콧
2010년 12월 13일	아웅산수키 구금상태에서 석방됨

"부패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공포이다."

- 아웅산 수키

"어떤 고위 육군장교라도 육군 보병부대를 수도로 데려가 봉기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 즉각 전국적 영웅이 되었을 것이고, 테이블은 뒤집혔을 것이다."

- 버틸 린트너

필리핀과 한국에서 불어온 변화의 바람은 10년간 군부독재의 멍에 아래서 고생하던 버마 사람들의 사기를 드높였다. 1988년 3월, 학생들이 랑군의 거리로 나서자 민중운동이 버섯처럼

씩었다. 몇 달 안에, 시위는 전국으로 퍼졌고, 심지어 무참한 탄압도 시위를 제압할 수 없었다. 7월 23일 네윈 총리는 26년간 지켰던 권좌에서 내려와야 했다. 88-8-8에 시작되어 5일간 학생들이 주도했던 새로운 시위로 수백명이 거리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이후 네윈의 후임자도 사퇴해야 했다. 노동자, 작가, 승려, 학생들을 대표하는 평의회와 “총파업위원회”가 여러 주 동안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사실상 권력을 행사했다. 풀뿌리 평의회들은 다당제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적 운동을 조정했다.<sup>1)</sup> 9월 18일 새 군부정권이 압도적 화력을 사용하여 권력을 장악했고, 버마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더 사살당했고, 그 해에 살해당한 숫자는 최소한 3,000명에 이른다(어떤 사람들은 10,000명이 살해당했다고 추정한다.) 선거로 뽑힌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수천명을 더 체포한 버마 군사정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철권을 휘둘렀다.

학생들은 버마에서 오랫동안 민중운동의 선두에 있었고, 버마는 시위대에 대한 정부폭력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20년 영국의 식민지배에 맞서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했을 때, 최소한 한명의 학생이 영국 기마경찰이 휘두른 곤봉과 막대기에 쓰러졌다. 랑군대학의 500명 학생 중에서 거의 모두가 새로운 교육법에 반대하는 동맹휴학에 들어갔고, 휴학의 물결은 고등학교들과 전국의 다른 지방으로 퍼져나갔다. 도시민들은 음식과 돈으로 학생들을 지지했고, 동맹휴학은 요구의 일부를 쟁취했다. 비록 운동은 진압당했지만, 버마어를 사용하는 학교가 세워졌고 이후의 투쟁의 중심이 됐다.

1936년 학생들은 다시 동맹휴학에 들어갔고, 2년 뒤인 버마력으로 1300년 민족주의 봉기가 일어났다. 농민과 노동자들이 거리의 학생들에 합류하자, 식민당국은 1939년 2월 15일 17명을 사살했다. 유혈탄압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전략적인 조직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했다. 활동가들은 새로 등장한 버마공산당(CPB)에 가입했고, 수십년간 농촌에 기반을 둔 무장투쟁을 벌였다. 1936년 학생운동가였던 아웅산은 버마를 지배하려는 일본과 영국의 시도에 맞서 조국을 이끌었고, 1948년 독립을 쟁취했다. 경쟁하던 한 “동지”가 1947년 아웅산을 암살했고, 버마의 쓰러진 지도자는 뛰어난 민족적 영웅이 됐다.<sup>2)</sup>

독립 이후, 많은 소수 인종집단이 새로운 정부에 맞선 CPB의 지속적인 무장투쟁에 가담했는데, 새 정부가 1949년 중국 공산당의 승리 이후 중국-버마 국경선을 따라 자리잡은 장카이색에 충성하는 국민당(KMT) 군대와 거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53년 11월 닉슨 부통령이 랑군을 방문하자, 적대적인 군중들이 그를 맞이했고, 이 사태는 워싱턴의 정책입안자들에게 버마내 중국 반혁명세력에 대한 지원을 끝내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다고 경고하는 셈이었다. 1961년 1월 26일, 20,000만명 이상의 중국군이 국민당의 기습을 끝장내기 위해 마침내 국경을 넘었다. 버마 군부대가 나중에 버려진 국민당 기지에서 미군의 무기와 보급품 더미를 발견하자, 미국 대사관 밖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국민당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이상 동안 미국의 정책은 중국을 미군기지로 포위하는 방향을 유지했고, 그 이유는 버마 정권이 베이징의 공산주의 당국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1974년에서 1979년까지 캄보디아를 황폐화시킨 악명높은 크메르 루즈 정권과 비슷하게, 버마의 군사통치자들은 이 나라에 비참과 빈곤을 가져왔고, 자국민에 대해 최대한 잔인한 무기를 사용했다. 소수민족인 산족과 카친족의 반란은 정권의 집중화된 권력에 반대하는 자치의 원천으로 남았다. (버마 인구의 1/3이 소수민족이며, 정권은 오랫동안 그들을 통제하려고 싸웠다.) 소수민족 지도자들과 버마 정치인들이 새로운 연방구조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때, 네윈 장군의 통제 아래 혁명평의회가 1962년 3월 1일 새벽 권력을 장악했다. 네윈이 “버마식 사회주의”의 길로 나라를 이끌면서, 수많은 저명한 정치 지도자들이 체포되거나 실종됐다. 군대가 버마를 확고하게 통제하면서, 사무엘 헌팅턴의 잘못된 개념인 “발전의 원동력”이 되자, 버마는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의 하나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

1) Interviews with Aung So and Aung Moe Zaw, Maesot, Thailand, November 4 and 5, 2008.  
 2) 아웅산은 현대 버마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그에 대한 민중의 존경은 아주 엄청나서, 1988년 그의 딸인 아웅산수키가 아픈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망명에서 귀국하자, 그녀는 곧 버마 민주화의 지도자가 됐다.



다.

독재의 등장으로, 버마는 단지 봉기할 핏계만 필요했다. 네윈이 권력을 장악한지 몇주만에, 랑군대학의 최종 시험지가 부적절하게 정부관리들의 자녀들에게 유출됐다. 학생들은 즉각 투쟁에 나섰고, 정문을 봉쇄하여 경찰이 대학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 랑군대학을 “자유의 요새”로 선포했다. 캠퍼스 안에서, 집회의 합의는 민주주의의 회복이었다. 학장은 도움을 청하러 다가오던 학생들을 내쳤고, 곧 캠퍼스를 떠났다. 1962년 7월 7일 바로 그날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자동화기로 사살당했다.<sup>3)</sup> 다음 날, 운동의 중심이자 영국에 대한 학생투쟁의 오랜 상징인 학생회관 건물이 다이너마이트로 완전히 파괴됐다.

군부정권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계속되었지만 강력한 탄압에 버틸 수는 없었다. 1970년 무장봉기가 네윈을 타도하기 위해 세력을 규합했고, 처음에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투쟁은 곧 소멸했다. 1974년 5월과 6월, 비공인 파업이 유전에서 랑군으로 퍼졌지만, 정권은 수십명의 파업노동자들을 살해했다. 1974년 11월, 랑군대학 학생들이 버마인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우탄트의 공개장례식을 거행했다. 학생들은 그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된 학생회관 자리에 묻었지만, 군대가 도착해서 잔인하게 수십명을 살해하고 우탄트의 시신을 탈취했다. 학생들이 항의를 계속하자, 군대는 다시 발포하여 수백명의 사상자를 냈다.

26년간 군부가 확고한 통제를 하는 가운데 버마의 약탈국가는 버마를 궁핍화시켰고, 네윈은 엄청난 개인적 부를 축적했다. 1987년 유엔은 버마를 가장 덜 발달된 나라로 지정했다. 경제적 압박, 특히 막대한 외채와 텅빈 외환보유고는 네윈이 25, 35, 75 카트 지폐를 없애자 더욱 악화되었는데, 이로써 유통중인 화폐 절반 이상이 가치가 사라졌고,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켰다. 네윈의 동기는 부분적으로 숫자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는데, 그는 9를 행운의 숫자로 믿었다. 버마의 양대 도시인 랑군과 만달라이에서 즉각적으로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모든 곳에서 학생 활동가들은 영웅으로 환대받았다. 정부는 대학을 폐쇄하고 일련의 체포를 감행했다. 이 일촉즉발의 분위기에서, 어떤 사건이라도 대규모 대치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우연이 항상 그러는 것처럼, 불꽃은 찻집에서 타올랐다. 아무도 그 당시에 예상치 못했지만, 1988년 봄, 찻집의 폭풍은 전국적 총파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88-8-8

1988년 3월 12일, 랑군공과대학(RIT) 학생들은 캠퍼스 근처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다른 손님과 함께 온 인기가수 사이트생의 새 노래 테이프를 트는 것에 반대하면서 그들과 싸움이 일어났다. 취한 폭력배 몇 명이 한 학생을 공격하여 심하게 구타했다. 경찰은 공격한 사람들을 체포했지만, 그가 지역 인민평의회의 저명한 인사의 아들임을 알고서 그들을 석방했다. 이 엘리트 특혜사건에 분노한 수십명의 학생들이 인민평의회 사무실에 항의했고, 전투경찰(Lon Thein)이 출동했다. 한 학생이 총에 맞아 죽었다.<sup>4)</sup>

자연발생적으로 소집된 캠퍼스의 모임은 자정까지 계속되었고, 평화적 성격의 집회임에도, 전투경찰은 3월 15일 랑군공대 캠퍼스에 침입하여 학생 수백명을 체포했다. 다음 날, 근처에 있는 랑군대학의 학생들이 공과대 학생들과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교내 집회를 가졌다. 대오가 늘어나자, 일부에서 공과대로 가자고 제안했다. 주먹을 공중으로 내뺐으며 민주주의와 일당독재 종식 구호를 외치던 수천명의 사람들이 곧 공과대로 출발했다. 고등학생과 시민들이 행진이 참여했고, 인야 호수 근처에서 철조망과 수백명의 무장 전투경찰이 그들을 저지했다. 군중들은 국가와 심지어 군가까지 불렀지만, 곧 전투경찰은 공격을 시작했고, 평

3) 2008년 11월 5일 타이랜드 마에솿에서 행한 인터뷰에서, 카렌민족연맹 부의장이자 고참 활동가인 데이비드 타레카보(David Tharekabaw)는 학생 104명이 살해당했다고 기억했다.

4) Bertil Lintner's *Outrage: Burma's Struggle for Democracy* (London and Bangkok: White Lotus, 1990). 버틸 린트너의 책은 이 사건들에 대한 생생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미얀마에 대한 린트너의 저작은 독보적이며, 필자는 그의 책에 상당히 의지했다.

화적 시위대에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폭력을 가했다. 학살이 멈추자, 수십명이 치명적 부상을 당한 채 누워있었고, 일부에서는 사상자 숫자를 200명 이상으로 추정했다.

이런 살육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 빈민촌 주민들과 학생들은 체제에 맞서 일어섰고,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었다. 다음날, 경찰은 랑군대학 캠퍼스에 난입해서 1천명 이상을 체포했다. 이 무더운 날, 학생들은 태양아래 주차된 경찰호송차에 뺨뺨하게 채워져서 수십명이 질식사했다. 그런 비인간적 탄압은 저항을 키웠고, 이 경우에 젊은 지성인 새 세대 활동가들이 1970년대 선배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선배들의 조언으로 새로운 학생회가 설립됐다. 학생회의 홍보부는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고, 사회복지부는 돈을 모아 집회에 먹을 것과 물을 제공했다. 침투한 프락치를 잡기 위해 보안부라는 불리는 첩보부가 구성되기도 했다. 기숙사에 감옥이 만들어졌고, 밀고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세명의 학생이 즉결처형 당했다.<sup>5)</sup> 이런 때이른 행동은 불길한 징조였다.

운동이 다음 단계에 대해 논쟁할 때, 아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었다. 갑자기 3월 18일 약 300명의 학생들이 랑군 중심부의 술레탑 주위에 집결했다. 한 시간 안에 대오는 1만명 이상의 군중으로 늘어났다. 빈민촌 주민들,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군부에 대항하기 위해 합류했다. 도시 전역에서 사람들은 소방차를 막았고, 심지어 소방차에 불을 지르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선별적으로 정부의 파괴대상을 골라냈다. 조심스럽게 선택한 랑군 시내의 건물들이 불에 탔다. 한 서독인 관광객의 말로, “사람들은 매우 선택적이었다. 그들은 신호등을 부수고, 정부차량을 불태우고 다른 국가시설을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어떤 사유재산의 파괴나 광범위한 약탈을 보지 못했다.” 사람들이 용감하게 돌과 화염병으로 군대의 총에 맞서면서, 수십명의 시위대가 살해당했다. 전국적으로 캠퍼스는 폐쇄됐다. 군대가 살해한 사람들의 시신을 태우면서 랑군의 화장터는 검은 연기를 뿜어내지만, 첫 세대의 운동 지도자들이 태어났고, 그들은 조직은 살인적 폭력의 도가니 속에서 단련됐다. 만약 군대가 만행의 기억을 지워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안타깝게도 착각한 것이었다.

체포된 학생들로 가득한 호송차가 인세인 교도소 밖에 몇시간 쯤 대기하다가, 체포된 42명이 질식해서 숨졌다. 5월 30일 캠퍼스가 다시 열리자, 체포당했던 학생들이 나서 그들이 당한 고문과 집단강간을 폭로했다. 그런 폭로는 전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군대는 새로운 시위계획을 저지했지만, 6월 14일 복면을 한 학생들이 랑군대학 휴게소 근처에 급히 모인 그룹 앞에 나서서 다음날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6월 15일 도서관 근처의 가설무대 주위에 조심스럽게 모인 과감한 소수의 마스크 학생들이 아직 감옥에 갇힌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겨우 몇 사람만 모였지만, 시위대의 숫자는 급속하게 늘어났다. 수천명의 비판적 대중이 형성되자, 그룹은 캠퍼스에서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된 학생회관의 텅빈 부지로 행진했고, 근처에 있는 1938년 반영운동 학생열사의 추모비 앞에 멈추었다.

다음 며칠간, 승려와 섬유 노동자들이 학내 집회에 참여했고, 고등학생들도 대규모로 운동에 결합했다. 랑군의 모든 대학들이 동참했고, 폐구와 모울메인 등 외곽지역의 학생들도 합류했다. 기습시위대가 갑자기 나타나서, 정권을 비난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전단지를 뿌렸고, 모일 때만큼 재빨리 사라졌다. 학생들이 21일 다시 랑군 시내로 행진하려 하자, 군대가 공격했고, 두명의 13세 어린이를 치었다. 그때 이웃에서 온 사람들이 반격했다. 처음으로 군인들에게 석궁으로 징글리(jinglees: 자전거 바퀴살을 날카롭게 갈라 독화살로 만든 무기)를 쏘았다. 시위대는 도시 전역으로 흩어졌고, 군중들이 거기에 합류했다. 노점상, 노동자, 심지어 강패들도 도시의 많은 지역에서 군대와 유혈 전투를 벌였다. 학생들의 싸움공작 깃발을 들고있던 한 여학생이 경찰서로 끌려가자, 사람들이 습격해서 그녀를 구했다. 최소한 열명의 전투경찰이 사망했고, 아마도 10배는 많은 민간인이 죽었을 것이다. 23일 약 70명의 사람들이 폐구에서 살해당한 이후에야 질서가 회복됐다.

5) Ibid., 9.

비록 야간 통행금지가 시행되었지만, 활동가들은 이를 무시하고, 1920년과 1930년 파업의 본부였던 슈에 다곤탑에 파업지휘부 창설을 발표했다. 군대에 의해 해산당한 후, 그들은 비밀 조직으로 재결집했다. 독재의 통행금지가 야외시장에 피해를 주었고, 필수식품의 가격은 두 세배로 올랐다. 정부는 버마의 문제를 무슬림 소수민족의 문제로 돌리려고 시작했고, 종파적 폭력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어, 심지어 네윈의 고향까지 이르렀다.

민중봉기가 질서의 세력을 압도할까봐 두려워한 정부는 양보를 했다. 구속된 학생들이 석방되고, 책임있는 경찰간부들이 사임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네윈이 사임하고 버마가 다당제 민주주의 도입할 것이라는 네윈의 갑작스런 선언이었다. 변화에 대한 희망이 치솟았지만, 곧 네윈의 후계자가 세인 르윈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자 불신과 분노가 터져나왔다. 르윈은 전 투경찰의 총책임자이자 1962년과 1988년 학생시위를 유혈진압한 군대의 지휘관이었다. 조용히 낙관적이었던 사람들은 네윈을 마르코스와 비교했고, 그도 망명하고 다당제 민주주의가 수립되길 희망했다. 네윈은 수십억 달러의 개인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마르코스와 비교됐다.

자신이 겪었던 만행과 정권의 명백한 굴복은 시민들로 하여금 체제 전체를 타도하기로 전보다 더 단호하게 결의하게 했다. 네윈은 사임했는지 몰라도, 무대 뒤에서 자신이 선택한 후계자를 조종했다. 압도적인 풀뿌리 지지로, 운동은 1988년 8월 8일, 반영투쟁을 상징했던 1300 운동의 50주년 기념일에 대규모 시위를 준비했다. 시위가 발표된 첫 번째 장소는 대중 월간지 <체리>였는데, 만화가인 자유의 여신상이 네 개의 8자 모양의 사슬을 깨뜨리는 모습을 그렸다. BBC는 그날의 기사로 뽑았고, 시위 소식을 전국으로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sup>6)</sup> 8월 1일, 지하의 전버마 학생연맹이 소규모 그룹의 학생들을 보내 8888 총파업을 호소하는 전단을 배포했다. 그 팀은 갑자기 버스 정류장과 찻집에 나타나서, 전단지 돌리고 시내로 사라졌다. “파업”은 특정 사업장의 중지 또는 심지어 산업의 정지 훨씬 이상의 것을 의미했고, 오히려 그것은 한 지역에서 경제 및 일상활동의 전면적 폐쇄였다. 네팔이나 인디아의 반드(bandh: 전국적 총파업)처럼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도록 하는 투쟁이었다. 8월 2일, 승려들이 슈에 다곤탑 밖에서 학생들과 합류하여, 정권에 맞선 전국적 투쟁을 호소했다. 다음날, 사기가 충성한 랑군의 시위 이후에, 군대는 랑군에 계엄령을 선포하였지만, 대중들은 대개 무시했다.

사기가 높은 가운데 평화적으로 계속되던 시위 중에, 사람들은 자신을 묘사하기 위해 “피플 파워”라는 용어를 빌려왔다. 마웅마웅의 말로, “군중은 랑군에서 대규모였고, 더욱 커지고 더욱 과감해져서, 군사정부, 통행금지, 해산명령을 무시했다. 해당지역을 경계하던 부대측이 자제하자, 군중들은 고무되어 군인들에게 시위에 합류하여 ‘피플파워’를 수립하자고 요청했는데, 이 대중적 용어는 걸끄러운 비유로 차용한 것이다. 젊은 여성들은 군인들에게 꽃을 주었고, 행운을 빌어주면서 그들을 달랬다. 자주 거대하게 밀려오는 인파가 군대를 삼켜버릴 기세로 위협했다.”<sup>7)</sup>

1988년 8월 8일, 오전 8시08분, 랑군의 항만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이는 나라 전체를 정지시키고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민주적 선거를 가져올 총파업의 신호였다. 안타깝게도, 전국적 운동은 야만적 군대와 부딪혔고, 군부는 수천명의 민중을 죽이고 다가올 수십년간 철권통치를 하게 된다. 1948년 4월 3일 제주봉기처럼, 봉기는 사전에 조직되었지만, 버마의 봉기는 남조선 노동당과 같은 강력한 조직이 없었다. 전날 밤 모임의 참여자 중의 한사람의 말로, “실제로 시위를 지도할 중앙조직이 없었다. 우리는 몇가지 기본원칙에만 합의했었고, 주요한 원칙은 모든 행진이 시청으로 집결한다는 것이었다.”<sup>8)</sup> 랑군 전역에서 행진대가 도심으로 밀려들었다. 다양한 나라의 모든 집단, 인도인, 중국인, 티벳인, 타이인, 수십개 이상의 소수민족들이 다채로운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것처럼 보였고, 젊은이와 노인, 노동자, 심지어

6) See the discussion in *ibid.*, 90–2.

7) Maung Maung, *The 1988 Uprising in Burma* (New Haven: Yale Southeast Asia Studies, 1999), 93.

8) Lintner, *Outrage*, 95.

어 공무원들까지 참여했다. 축제같은 분위기에서, 버마는 자신을 드러냈다. 공중에서 주먹을 치켜올리고, 이민국, 세관, 철도경찰이 행진했고, 해군과 공군도 행진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총파업의 신호로 밥사발을 거꾸로 들고 나온 승려들의 규율잡힌 대열이었다. 모든 곳에서 전버마 학생연맹의 싸움공작 깃발이 펄럭였다. 민중들의 축제분위기는 거리에서 그들과 대치한 군대의 병사들(학생들의 공격에서 보호했던)에게 “큰 형들”이라고 부른 데서 반영됐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봉기에 참여하라고 호소했다. 전국의 거의 모든 도시들이 기억에서 가장 대규모의 시위를 경험했다.

[사진 9]

88-8-8에 수백만명의 버마인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Photo by Tom Lubin in *Burma's Revolution of the Spirit* (Aperture Foundation, 1994), 37.

5시 30분 랑군에서, 랑군 군사령관이 군중들에게 접근해서, 해산하지 않으면 군대가 발포하겠다고 말했다.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 그대신 군중들은 더욱 많아졌고, 사람들은 군인들에게 발포하지 말라고 훈계했고, “이번 시위는 평화시위다”라고 외쳤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군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한다. 여러분은 우리 형제다. 우리가 원하는 전부는 자유다. 여러분은 민중의 군대다. 우리 편으로 오라.”<sup>9)</sup> 어떤 사람들은 군인들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들이 운동의 편에 서도록 설득하길 희망했다.

[사진 9]

비록 실패했지만, 군인들에게 시위에 참여하라고 설득하려는 시도에서 사람들이 군인들의 발에 입을 맞췄다. Photo by Ryo Takeda.

몇시간 동안, 교착상태가 계속되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겼다고 믿었다. 그러나 자정 직전에 거리에서 사람들이 국가를 부르고 있을 때, 군대가 총격을 시작했다. 최소한 3시간 동안 군대는 계속 총격을 가했다. 장갑차가 자동화기로 군중들을 밀어붙였고, 군인들로 가득 찬 탱크가 갑자기 멈춘 다음 거리에 있던 아무에게나 총을 쏘았다. 군인들은 응급실에 쳐들어 가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 아무나 죽였다. 나라 전체에서 360명이 그날 살해당했다.<sup>10)</sup> 수천 명이 체포됐다.

국가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은 집에 머물기를 거부했다. 승려들이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행진을 이끌었지만, 군대가 발포하여 30명 이상을 죽였다. 교외의 노동자 주거지역인 북 오칼라파에서 군대는 시장, 찻집, 가정집에 무차별 총격을 가했지만, 사람들은 징글리, 칼, 공봉, 돌과 화염병 등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반격했다. 그들은 기관총이 장착된 차량을 뒤집어 불태웠다. 승려들도 공격에 가담하여 “황색군”라는 이름을 얻었다. 한 승려가 소요 중에 명상자세로 서있자, 저격수가 그의 머리에 총을 쏘았다. 일부 시위대는 용감하게 소방차를 지역 전투경찰본부로 돌진해서 본부를 불태웠다. 다음 날, 다른 경찰서가 불탔고, 네명의 경찰관이 체포되어 거리에서 처형당했다. 한 젊은이가 녹슨 검으로 그들의 목을 베었다. 경찰이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바리케이드가 모든 곳에 세워졌다. 한 마을에서, 군대는 지역 당사 내부에 바리케이드로 막고 숨었다. 그들은 공중지원을 요청했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막았다. 마침내, 밤이 되어서야, 그들은 철수할 수 있었다.

화요일인 8월 9일 오후에, 랑군 종합병원은 부상자를 치료할 물품이 떨어졌다. 일군의 간호사들이 밖에서 군대에 총격을 중지하라고 애원하는 피켓과 국기를 들고서 행진했다. 믿을 수 없게, 간호사들도 군의 사살명령의 희생자가 됐다. (뉴스위크)는 10일 북 오칼라파에서 “묘지의 목격자가 산 채로 화장터(Kyandaw)로 끌려온 총상 희생자들의 비명을 들었고, 그들

9) Alan Clements and Leslie Kean, *Burma's Revolution of the Spirit* (New York: Aperture Foundation, 1994), 36.

10) *Voices from the Jungle* (Tokyo: Center for Christian Response to Asian Issues, 1989), 1. Hereafter *Voices*.

은 시신과 함께 화장됐다”라고 보도했다. 비록 정확한 숫자는 결코 알려지지 않겠지만, 군대가 일상적으로 자동화기를 어떤 공중집회라도 조준했기 때문에 수천명이 사망했다.

8월 12일, 3일간의 유혈 학살과 민중의 완강한 항복거부 끝에, 세인 르윈이 사임을 발표했다.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거리로 뛰쳐나왔다. 행복하게 춤추면서, 그들은 냄비와 팬을 두들겼고, 울고 웃으면서 “민주주의의 축제”에서 승리를 축하했다. 이전에 자생적이었던 운동은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변호사들은 총격이 위헌이라고 규정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과거 정부의 지도자들과 새로 귀환한 아웅산수키는 “인민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8월 19일, 집권당은 옥스퍼드 졸업생인 마웅마웅을 버마의 다음 지도자로 임명했지만, 1당국가 종식에 대한 민중의 열망은 너무나 강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한 똑같은 정부가 인정한 새 통치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만명이 다시 거리로 돌아와, 1당국가의 종식을 요구했다. 비록 군대가 많은 도시에서 총격을 자제했지만, 모울메인에서 수십명이 죽었다. 이에 맞서, 시민들은 군대에게 발포명령을 내린 집권당 간부 두명의 집을 공격했다. 관료들은 도망쳤지만, 군중들은 그들의 집에서 상당량의 소비재를 들고 나와, 거리에서 그 물건들을 팔아 도시의 새로운 사실상의 정부인 파업평의회에 기금을 마련했다.

### 권력에 오른 평의회

버마 전역에서, 정부관리들은 직위를 포기했고, 파업평의회가 들어섰다. 복장 도착자에서 장의사와 맹인들까지 모든 그룹의 시민들이 파업위원회를 조직한 것처럼 보였다.<sup>11)</sup> 승리의 행진이 신속하게 조직되고, 신문이 발행되고, 다른 도시나 지역과 접촉하기 위해 대표단이 파견됐다. 전국의 314개 도시 중에서 200개 이상에서 파업센터가 등장했다. 최근이야 싸우기 시작한 지역에서 무슬림과 불교도는 서로 단결했다. “공동체간 알력과 오랜 불만은 잊혀졌고, 아마도 사상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모든 전국적, 정치적 그룹들이 공동의 대의를 위해 한데 뭉쳤다... 불교의 노란 깃발이 이슬람의 초승달이 그려진 녹색 깃발과 나란히 나부꼈다.”<sup>12)</sup> 목사들은 “예수는 민주주의를 사랑한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행진했다. 마웅마웅에 따르면, “은행과 통신부, 철도, 석유 덤프가 반정부세력의 통제 아래 있었다.”<sup>13)</sup> 1988년 8월 24일, 일단 랑군에서 계엄령이 해제되자, 군대가 철수했고, 승려들과 거리의 깡패들이 시민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과제를 넘겨받았다. 만달라이에서, 승려와 변호사 위원회가 매일 집회를 조직했다.

전국파업평의회를 결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활동가들은 운동을 지도할 소수의 저명인사를 선택했다. 전국적 인물들의 모임이 소집되었는데, 아웅산수키, 틴오 장군, 전총리 우누와 아웅기가 참석했다. 그들은 짧게 만났지만, 이 지도자들 사이의 단결은 힘든 것으로 판명됐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웅산수키는 야당을 단일세력으로 묶으려고 열정적으로 노력했다. 8월 26일 오후, 그녀는 최소한 50만명이 모인 집회에서 최초의 대중연설을 했다. 아픈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버마를 방문한 그녀는 학살로 정치참여를 확신할 때까지는 정치적으로 주변적 위치에 있었다. 다른 저명한 야당인사들이 그녀에게 합류하자, 집권당은 당원기반을 상실했다. 수천명의 관료들이 사임했다. 정부에서 이탈은 아주 대대적이어서 심지어 정부언론에서 일했던 기자들도 파업에 들어갔고, 그들이 “더 이상 방송 선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모두가 파업에 들어가자,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 지역 주민위원회가 경찰의 명목상 업무를 접수했다. 시민들이 거리를 순찰했고, 범죄자가 재판정에 서면 자주 승려들이 판사가 됐다. 많은 곳에서 승려들은 쓰레기 수거를 감독했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했으며, 교통을 지도했

11) Vincent Boudreau, “State Repression and Democracy Protest in Three Southeast Asian Countries,” in *Social Movements: Identity, Culture and th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35.

12) Lintner, *Outrage*, 114.

13) Maung Maung, *1988 Uprising*, 226.

다. 한동안, 불교의 조화가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의 기술”이 된 것처럼 보였다.<sup>14)</sup> 자발적 공동체 정신이 많은 극빈지역에서 시적으로 나타났다. 록그룹들이 시위를 세데라데로 불렀다. 공장과 사무실의 노동자들은 독립노조를 결성했다. 철도 노동자들은 “일당체제의 독재자들”에게 더 이상 특별열차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전투가 특히 심했던 북 오칼라파에서, 사람들은 정확히 8피트 8.8인치의 높이로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콘크리트 위로비를 세웠다. 랑군 종합병원 근처의 지역에서, 수백명의 사람들이 부상자들에게 담요와 베개를 기부했고, 암시장 의료상들은 무료로 물품을 넘겨주었다.

[사진 10]

승려들은 버마봉기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Photo by Alain Evrard in *Burma's Revolution of the Spirit*, 41.

피플파워의 에로스 효과에도 불구하고, 모든 투쟁이 wmf거운 것은 아니었다. 일부의 경우에 범죄율 증가로 시민들은 마을 주변에 대나무 벽을 세워야 했고, 승려들로 이루어진 경비대가 조직됐다.<sup>15)</sup> 경찰 첩자들이 병원 상수도에 독약을 넣으려다가 현장에서 잡히자, 두명은 자백을 하고 풀려났지만, 자백을 거부한 세명은 공개적으로 참수당했다. 베르틸 린트너는 “축제같은 필리핀식 ‘피플파워 봉기’로 시작된 것이 혐오스럽게 변하기 시작했고, 1986년 ‘베 이비독’ 뒤발리에의 몰락 이후에 아이티에서 벌어진 톤톤 마쿠트 사냥과 흡사한 일이 많아졌다.”고 말했다.<sup>16)</sup> 남 오칼라파에서는 20명이나 되는 군대 첩자들이 창고를 약탈하던 중 그들을 막는 승려와 학생을 인질로 잡았다가 나중에 참수당했다. 다른 경우에, 남 오칼라파에서 시위대에 징글리를 쏘라고 군대가 보냈다고 자백한 한 소년은 풀려났다. 비록 진실위원회의 청문회가 열린 공간은 거의 없었지만, 군중의 심판은 군중 속에 있는 수천명에게 총격으로 죽음을 퍼뜨린 군대보다 확실히 더 심했고 더 선별적이었다.

8월 25일 은행 노동자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외국무역은행에서 엄청난 금액을 갑자기 인출했다. 그 당시 모든 군인들이 6개월치 급여를 선불로 받고 있었다. 다음 날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던 악명높은 인세인 교도소에서 총격이 시작됐다. 죄수들이 연옥에서 탈출하려 하자, 수백명, 아마도 수천명이 사살당했다. 신기하게도, 다른 수천명의 범법자들은 전국적으로 감옥에서 “도망”칠 수 있었다. 죄수들이 약탈과 강간을 일삼자, 공포가 일었다. 시위대가 애용하는 물병에 독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비밀경찰은 창고를 약탈하기 시작했고, 시민평의회 위원들을 당국에 넘기면 보상금을 제공했다. 그런 소동 와중에, 정부의 첩자로 의심받는 자들이 거리에서 처형당하는 것이 놀라운 일일까?

랑군의 총파업 위원회는 정부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든가 아니면 무기한 파업에 직면하라고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9월 6일, 2차대전시 독립운동을 지도했던 국민적 영웅인 “30인 동지들” 중 살아있던 9명이 군대에 봉기를 지지하라고 촉구했다. 많은 군인과 경찰관들이 시위에 합류했다. 9월 9일, 150명의 공군병사들이 파업 들어갔고, 다른 두 부대도 파업에 동참했다. 경찰제복의 대오도 행진악대에 맞춰 시위에 참석했다. 버틸 린트너의 의견으로, “어떤 고위 준장교가 육군 보병부대를 수도로 데려왔다가 봉기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면, 즉시 국민적 영웅이 되었을 것이고, 판이 완전히 뒤집혔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어떤 그런 영웅도, 버마의 피델 라모스나 그레고리오 호나산도 나서지 않았다. 소문이 어지럽게 나돌았고, 심지어 미국 항공모함이 “랑군을 해방시키는” 임무로 버마해역에 배치됐다는 소문도 있었다.<sup>17)</sup> 사람들은 미국이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고, 미국 대사관은 종종 시위대의 집결장소가 됐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민주주의를 지원하러 도착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던

14) William A. Callahan, *Cultural Governance and Resistance in Pacific Asia* (Abingdon: Routledge, 2006), 94.

15) 2006년 4월 9일 버틸 린트너가 필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확인됐다. 린트너는 또한 이런 상황은 9월 18일 이후 많은 설명이 주장한 것처럼 이 “법과 질서”가 붕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리킨다고 봤다.

16) Lintner, *Outrage*, 121-122.

17) Lintner, *Outrage*, 127; Maung Maung, *1988 Uprising*, 226.

1980년 광주처럼, 그런 환상은 정치적 편의성의 현실세계라기 보다 민중들의 꿈이었음이 드러났다. 어떤 미국 군함도 1988년 버마의 봉기자들을 돕기 위해 오지 않았고, 미국의 항공모함이 광주항쟁 시에 한국에 파견됐다고 해도, 그것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전두환 독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던 것이다.

9월 8일 랑군과 만달라이에서 1백만명 이상이 행진했고, 3일 뒤, 의회는 일당지배를 끝내는 표결을 했다. 그러나 관리정부를 세우는 대신에, 마웅마웅은 먼저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을 주장했다. 9월 10일, 비록 집권당 전당대회가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를 갖기로 승인했지만, 그들은 먼저 퇴진하기를 거부했으며, 이는 선거가 자신들의 통제 아래 열려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들의 행동은 비록 대중적 신뢰도가 사상 최저임에도 그들이 여전히 결정을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시위대는 집권당이 정부에 대한 통제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의시위의 규모는 커져서 9월 16일 연속 세 번째로 50만명에 이르렀다. 17일 상업거리에서 평화적 학생행진에 발표포다. 분노한 학생과 승려, 노동자들이 칼과 새총, 징글리로 무장하고서, 공격한 병사들이 도주한 무역부 건물을 포위하고 그들중 24명을 체포했다.(그들의 무기와 총탄을 포함하여).<sup>18)</sup> 그날 밤 상황이 악화되자, 군부대는 미국 대사관 앞에 있던 단식 농성자들에게 총격을 가했다.

#### 테르미도르: 철권의 도래

1988년 9월 18일 비록 일부는 의심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버마가 민주적 발전의 길목에 있다고 믿었다. 몇 주간 시위가 피해를 주면서, 학생들은 “시위 피로감”으로 고통받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다시 랑군의 거리로 나섰다. 선거실시의 약속으로 시위대가 집권당의 즉각적 퇴진을 요구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자유화 과정이 더 이상 전진하는 것을 허용하고 싶지 않던 군부가 개입했다. 오후 4시경, 소마웅 장군이 마웅마웅 지배의 종식을 선언했다. 권력을 장악한 그는 야간통금을 시행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고, 공개집회를 금지했다. 8월처럼 민중의 대응은 신속했다. 동네들은 자동적으로 자위용 바리케이드를 세웠고, 특히 남북 오칼라파와 텡간구윤에서 그랬다. 부당한 군대폭력의 고분고분한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석궁, 새총, 화염병, 칼과 징글리로 무장했지만, 군대의 크레인, 불도저와 기관총이 훨씬 더 우세했다. 바리케이드는 조직적으로 제거되었고, 어떤 저항도 말할당했다. 그날 학살당한 사람의 추정치는 수백명에서 추천명에 이른다. 신기하게도, 수백명의 학생들이 랑군대학에서 포위되었을 때, 한 승려가 그들을 뒷문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다음 날인 9월 19일 시청 근처에서 시위가 재개되자, 치밀하게 배치된 기관총이 발포했고, 대오를 갖춘 부대가 갑자기 나타나서 군중들에게 총탄세례를 퍼부었다. 거의 모든 파업센터가 공격을 받았고, 여학생들이 총에 맞아 죽었고, 장례식도 공격받았다. 남 오칼라파에서는 어린 소년 두명이 부모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 사람들이 반격을 했지만, 군대의 압도적 힘은 어떤 자비도 없이 사용됐다. 한 작은 시위대가 랑군의 마이크로파 안테나를 파괴하여 일시적으로 주요 통신선을 중단시킬 수 있었지만, 군대는 복종을 거부하고 쿠데타를 방어하기 위해 500명 내지 1000명을 살해했다. 마웅마웅이 썼듯이, “정부는 ‘기능정지’ 상태였고 그 상태로 있길 원해서, 폭도를 해산시키는 더러운 일을 타트마도(Tatmadaw: 군대)에게 맡겼다... 폭도들은 미쳐 날뛰면서 가정과 공장을 약탈하기 시작했고, 치명적 무기로 무장한 상태로 죽이고 목을 딸 준비를 했다.”<sup>19)</sup>

9월과 10월 내내, 가정과 수도원들이 공격당했다. 경찰은 사진을 가지고 활동가들을 색출했

18) *Voices*, 5.

19) Maung Maung, *1988 Uprising*, 267.

고, 운 좋은 사람은 체포되었지만, 운 나쁜 사람은 즉결처형 당했다. 어떤 사람은 반대의 경우라고 말하겠지만. 수백명의 공무원들이 구금되고, 수천명이 해고당했다. 10월 3일 신군부정권이 민중들에게 일터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던 최후통첩을 보내자, 파업은 종료됐다. 자주적 미디어는 폐쇄되었고, 북 오칼라파의 기념비는 난자당했고, 대도시 주민들은 싸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집에 페인트칠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식 언론이 폐쇄된 파업센터의 목록을 방송했을 때 비로소 활동가들은 투쟁의 물결이 얼마나 멀리 퍼졌었는지 깨달았다. 전국의 작은 도시와 마을까지 자주적으로 조직하여 전국적 봉기에 참여했지만, 풀뿌리 동력을 재구성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타이 국경으로 긴 여정을 시작했고, 거기에서 최소한 8,000명의 학생들이 전버마 학생민주전선을 조직하여 버마해방을 위한 무장투쟁을 시작했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할 수 있도록 외국이 그들을 무장시켜주길 기다렸던 학생들은 정글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미국에서 온 비폭력전술 강사들이 갑자기 무장 또는 비무장 야당 그룹들 사이에서 활동했다.<sup>20)</sup> 버마 학생운동가들과 거의 같은 시기에 타이 국경에 도착한 진 샤프는 “무장을 해제하여 버마운동이 덜 강력하도록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sup>21)</sup>

비록 소수민족 무장그룹들이 그들을 환대하고 훈련시켜 주었지만, 버마의 무장투쟁은 결코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 학생들은 수십년간 도시투쟁으로 경험과 통찰력을 축적했고, 과거 세대에 대해 진 빛을 재빨리 인정했다. “8888 봉기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고 한 활동가는 필자에게 말했다. “1962년, 1967년, 1969년, 1973년, 1975년, 1976년의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이뤄졌고, 이 모든 작은 봉기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sup>22)</sup> 동시에 도시 활동가들은 정글생활에 적응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9월 24일 전국민주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결성되었고, 이 그룹은 선거에서 계속 압도적 다수를 얻었다. 비록 지휘권을 회복했지만, 군부는 1988년 의회의 결정으로 다당제 선거 실시를 강요받았고, 1990년 선거를 했다. 선거운동 시간중, 아웅산수키가 연설하는 곳이면 어디나 대규모 군중들이 나타났고, 그는 전국을 쉬지 않고 누비고 다녔다.

[사진 11]

아웅산수키가 연설하는 곳이면 어디나 엄청난 군중들이 모였다. Photo by Dominic Faulder in *Burma's Revolution of the Spirit*, 55.

1989년 7월, 군대는 1988년 봉기 이래로 아웅산수키의 집에서 야영했던 수백명의 사람들(주로 학생들)을 체포했다. NLD는 1990년 5월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고, 국회 485석 가운데 392석과 80퍼센트 이상의 표를 얻었지만, 정부는 국민의 표를 존중하지 않았다. 군부는 아웅산수키를 가택연금 시켰고, 1백명 이상의 의원 당선자를 체포하고, 어떤 대중시위도 심하게 탄압했다.

1988년 이후의 머나먼 길

1988년에 겪은 비극적 패배는 버마의 공적 생활에 상처를 남겼다. 수십 년간, 평화적 집회조차 심하게 탄압받았다. 랑군의 중심가 근처의 마을에서 주민들이 쫓겨났고, 50만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수천 명이 체포되면서, 군사법정은 민간 법정을 대체했고, 즉결처형은 정치범에 대한 흔한 선고가 됐다. 이메일을 보내고 외국인들 집에 초대하고 모뎀을 소유하는 것이 범죄가 됐다.<sup>23)</sup> 제복을 입은 사람을 촬영하는 것이 20

20) See Gamanii, “Putting Out Fires—The Burmese Way,” unpublished pamphlet, Mae Sot Thailand, 2008.

21) Interview with Aung Kyaw So, Maesot, Thailand, November 2008.

22) Interview with Aung Moe Zaw, Maesot, Thailand, November 5, 2008.

23) *New York Times*, November 14, 2000, 11.



년 징역까지 처벌받게 됐다. 민주화운동의 힘을 빼기 위해, 경찰은 헤로인을 허용하고 배포에 협력하기도 했다. 아웅산수키의 가장 유명한 에세이와 같은 이름을 가진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이름의 헤로인과 에이즈 전염병이 버마 청소년을 피해하게 했다.<sup>24)</sup>

수천명의 학생들과 10여개 이상의 무장 소수민족이 농촌에서 무장투쟁을 벌이는 동안, NLD는 도시에서 비밀 그룹을 조직했다. 1989년 4월 17일, 버마공산당 군대의 핵심인 와족 투사들이 폭동을 일으켜 중국국경 근처에서 본부를 접수했다. 곧 이어 인민군(People's Army) 내부의 다른 인종블록이 조직을 떠났고, 독자적으로 정전협상을 추진했다. 아버지가 식민정부에 맞서 하나로 투쟁하기 위해 여러 그룹들을 단결시켰던 반면, 아웅산수키는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렸고, 비폭력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 단결의 구심 역할을 포기했다.

무장저항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독재정권은 다음 몇 년간 무장그룹들과 차례로 협상을 벌였다. 국지적 정전의 대가로, 일부 민족그룹의 지도자들은 금, 마약, 목재, 보석 등의 밀수를 허락받았고, 일반 병사들은 급여와 배급, “국경부대”의 계급을 가진 “특수경찰”의 칭호를 받았다. 여전히 다른 그룹들은 제한적 자치를 위해 버티고 있다. 결국 소수민족들과 최소한 17건의 정전이 이루어진 반면, 두 개의 무장그룹은 바로 항복했다. 모두 NLD와 같은 불법조직과의 접촉은 금지됐다.

1990년 8월 8일, 1988년 봉기 2주년에 수천 명의 승려들이 피켓을 들고서 만달라이를 행진했다.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음식과 돈을 주었지만, 어떤 사람이 싸움공작 깃발(NLD가 선거 캠페인에서 채택한)을 높이 들자 군대가 군중을 해산하기 위해 발포했다. 국영 언론매체는 이후에 군대가 소화기를 사용한 사실을 부인하고 대신에 승려와 학생들의 공격에 대해 보도했다. 8월말 승려들이 다시 투쟁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민감한 젊은이들의 영혼을 위협롭게 하는 군인들로부터 헌금을 받지 않겠다(또는 군인을 위해 예불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비폭력적이지만 불교의 반란은 젊은 병사들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위협했고, 그들은 130개 이상의 사원을 공격하여 수백 명의 승려를 체포하는 등 악의적으로 대응했다.

1990년 12월 19일, 외국으로 도망갈 수 있었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망명정부인 버마연방국가연합정부를 구성했다. 모든 소수민족과 NLD를 대표하여, 그들은 연방체제 내에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했다. 아웅산수키는 199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지만, 지난 23년간 15년 이상을 가택연금에 처해져 있었다. 군사정부는 보통사람들을 대우할 때 자제하지 않았다. 2,000명 이상의 정치범들이 고뇌와 잔혹의 삶을 견디고 있다.

버마의 무장투쟁은 결코 외부세력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국제적 지원의 결여는 1991년 아웅산수키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말할 것도 없이 비폭력 그룹들에게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 캐나다 정부들이 주는 대대적 원조와 대조를 이룬다.

필요한 무기 없이, 정글의 봉기그룹들은 전진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의 투쟁과 격리된 한편, NLD가 군부와 협력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교착상태는 지속됐다. 비록 1995년에서 1997년까지 아웅산수키가 가택연금에서 잠시 풀려났지만, 운동은 민중의 대대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대부분 잠잠해졌다. 1996년 5월, NLD는 당대회 소집을 시도했지만, 군부는 수백 명을 체포했고, 이 중에는 1990년 합법적으로 선출된 238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 해, 아웅산수키의 집밖에서 하는 주간 모임에서 그녀의 연설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20년형을 받는다고 선포됐다.

다시 한 번 잠시 가택연금에서 풀려났지만, 아웅산수키는 자유롭게 여행하도록 허가받지 못했다. 2003년 5월 30일, 집에서 나갈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지 채 한 달도 못되어, 북부의 데파인 마을 가까이에서 정부 지지자 무리들이 그녀의 호송대를 공격했다.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암살시도에서, 수십 명이 학살당했고, 그녀의 지지자들 중에서 282명

24) Clements and Kean, *Burma's Revolution*, 89.

이를 수도 있다. NLD의 창립자이자 부총재인 틴오와 더불어, 수키는 NLD에 대한 전면적 탄압의 일부로 구금형을 선고받은 많은 사람들 중의 한명이었다. 그녀는 2010년까지 구금상태에 있었다.

군부는 국호를 미얀마로 바꾸었지만, 민주화운동은 현정부가 완전히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버마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모든 시민들이 노동으로 나라에 기여해야 하므로, 군부는 거대한 불교사원을 건설하는 버마의 오랜 역사를 지속하고 있다. 군부는 어떤 인구 집중지에서 아주 먼 나이피다우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느라 엄청난 금액을 썼다. 2005년 수도를 옮기면서, 버마식 숫자점으로 경축식의 시기를 정했다. 11월 11일 오전 11시, 11명의 정부 장관과 11개 대대가 1,100대의 트럭으로 랑군을 떠났다.

20년간 NLD는 사무실에서 출판, 복사, 국제전화, 모임개최가 허락되지 않았고, 언론과 결사의 자유가 없었다. 미국 공영TV의 2006년 보도에 따르면, 최소한 128명의 활동가들이 구금 상태에서 사망했고, 1,100명 이상이 아직 갇혀 있다. 아이들 세명 중 한명은 영양실조이고, 열명 중 한명이 5세 이하에 죽는다. 비록 군부가 새 헌법을 승인하고 2010년 선거를 개최하지만, NLD는 참여를 거부했다.

#### 군부통치의 경제학

2988년 봉기 직후, 전지구적 석유기업들은 버마에서 채굴권 1건당 5백만 달러 이상을 지불했다. 채굴권자에는 미국의 아모코사와 유노칼사, 더치셀, 오스트레일리아의 BHP, 한국의 유공, 일본의 디데미츠, 페트로 캐나다, 영국의 크로프트와 커클랜드 등이 있다. 1990년 텍사코와 프랑스의 토탈 오일사가 타일랜드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3억 달러 계약에 서명했다. 삼림파괴는 아주 극심해서 1990년 동안 매년 엘살바도르 크기의 면적이 제거됐다. 중국에 수입되는 모든 석유의 3/4 이상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며, 좁은 해로 주변의 지역 통제에 엄청난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서, 석유공급에 관한 중국의 불안증가로 중국은 버마, 캄보디아, 타일랜드의 정권들과 우호적 관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배가했다.

석유, 목재, 어로, 채굴권 판매를 이용하여 군부는 군대의 규모를 확대했고(두배 이상 늘려 400,000명 이상), 무기를 개선했다. 군사예산이 정부지출의 60 퍼센트에 이르다고 추정된다.<sup>25)</sup> 중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타일랜드의 무기거래상과 목재수입상들은 기꺼이 사업 파트너가 되고자 했다. 중국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구매한 다음, 독재정권은 초토화 작전과 무자비한 기습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소수민족 그룹을 소탕했고, 소수민족 사람들은 버마 군부의 자의적 지배에 종속됐다. 소수민족 사람들의 살해는 흔한 일이고, 특히 산족 여성들에 대한 강간은 광범하다. 2002년 보고서는 625건의 여성 및 소녀강간을 다루며, 어떤 경우에 어린 8세 소녀도 강간당했다. 그 뒤 3년 동안, 188명의 산족 여성이 더 강간당했고, 절반 이상의 범죄는 군장교들이 저질렀다. 약 65 퍼센트는 집단 강간이었다.<sup>26)</sup> 2004년 카렌족 여성들이 군인들에게 126건의 강간을 당했다고 보고했다.<sup>27)</sup>

서방 언론은 자주 버마 군부의 주요 지지자로 중국을 지목하지만, 타일랜드 국왕도 엄청난 역할을 한다. 2004년 타일랜드는 버마 수출의 거의 40%를 차지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겨우 6 퍼센트인데 비해). 타일랜드는 또한 버마 난민들이 제공하는 저임금 노동력에서 이익을 본다. 1994년 타일랜드 이민국은 버마 이주노동자들이 334,123명 이상이라고 추산했다.<sup>28)</sup> 노동 전문가들은 국경을 넘은 사람들의 숫자를 150만명으로 추산했다. 최소한 150,000명 이상

25) *Burma: Anatomy of Terror*, a film by John Pilger.

26) Shan Women's Action Network, [www.shanwomen.org](http://www.shanwomen.org).

27) Alternative ASEAN Network on Burma, *Burma Briefing: Issues and Concerns* (Bangkok: 2004), 85.

28) Walden Bello, Shea Cunningham, and Li Kheng Poh, *A Siamese Tragedy: Development and Disintegration in Modern Thailand* (Oakland, CA: Food First Books, 1998), 88.

이 태일랜드의 9개 난민촌에서 고생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캠프 밖에서 자주 여권도 없이 구속, 추방, 타락에 노출된 채로 돌아다닌다. 2008년 4월 9일, 약 54명의 버마인 불법 이주자들이 여행지 푸켓 섬으로 그들을 밀입국시키던 컨테이너 트럭 뒤에서 질식했다.

경제적 기능마비 국가인 버마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의 하나로 남아있다. 국내에서 수십만 명의 철거민들은 빈궁한 생활을 한다. 최고 군사 지도자들은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는 반면, 90 퍼센트의 버마인들은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간다. 매일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는 아이들이 270에서 400명에 이른다고 추산된다.<sup>29)</sup>

2007년 경제학자들은 5인 평균가족이 사치품을 빼고 식량, 의약품과 교통비를 포함하여 한 달 살기 위해 80,000 카트(약 110달러) 이상을 필요로 한다고 추정한다. 교사, 대학교수, 정부 관료 등 전문직 노동자들의 평균 월소득은 10,000카트(13달러) 이하다. 인권 그룹들은 버마에서 아직도 강제노동이 이용된다고 말한다. 남한의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 국가경제의 확대를 지향하는 군부독재의 정책)와 달리, 버마는 “약탈국가”(군부독재가 수백만 민중에게 국가프로젝트에 무상노동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이다. 인권 그룹들은 3,000개 마을이 파괴되었고, 1백만명이 소수민족의 선대 농지에 대한 조직적 수탈 프로그램으로 난민이 됐다고 추정한다.

#### 2007년 “샤프론 혁명”

2007년 샤프론 혁명은 8월 중순 정부가 엄격한 독점을 유지하는 연료 및 기타 상품 가격을 상당히 인상시키는 결정으로 촉발됐다. 겨우 몇 년 전에 감옥에서 풀려난 “88세대”(1988년 봉기의 생존자들)가 NLD에 대한 대안적 지도부로 결집하여 랑군에서 시위를 조직했다. 곧 유사한 평화행진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다. 사병세력들이 행진에 폭력을 휘둘렀고, 정부가 확인한 13명의 “지도자들”, 대부분 감옥에서 최근야 풀려난 사람들이 체포됐다. 8월 21일까지 약 100명이 경찰에 구금되어 있었다. 일단 시위가 시작되자, 활동가들은 국외로 운동소식을 퍼뜨리기 위해 창의적으로 SMS 문자 메시지, 이데일, 블로그, 페이스북, 위키피디아, 비디오가 장착된 휴대폰을 활용했다. 몇 시간 안에 BBC 같은 외국 라디오가 소식을 다시 버마로 방송한다. 8월 22일, 경찰의 주요한 성과로, 88세대의 주요 지도자 7명의 위치가 파악되어 체포됐다. 지속적 탄압에 대한 국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검거했다.

시위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약 한 달 후 승려들이 수만 명씩 동원했고, 군중들이 새로운 물결의 투쟁에 동참했다. 9월 5일, 노란색(샤프론) 법복을 입은 승려들 수백 명이 만달라이 북부 파코쿠의 거리로 나섰다. 더 이상 평화행진조차 용인하지 않으려는 경찰은 군중을 해산시키려고 경고사격을 가했다. 300,000명에 이를 만큼, 군인들만큼 많은 숫자의 승려가 있는 사회에서, 승려부대는 주요한 도전이었다.<sup>30)</sup> 시위 초기에, 승려들은 시민들이 합류하는 것을 막느라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정권과 그 지지자에 맞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길 원했고, 그들 자신 외에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기를 원했다.<sup>31)</sup>

9월 18일, 매일매일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몽콕에서 승려들이 모여서 탁발을 뒤집어 거리에서 파업할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협의했다. 아직 랑군의 중심인 황금색 원형지붕의 슈웨다곤 탑이 수도원이 습격당한 다음날인 27일까지 계속된 일일 시위의 집결지가 됐다.<sup>32)</sup> 24세인 아순 코비다가 14인의 동료 승려들에 의해 시위를 이끌 지도자로 뽑

29) Teddy Buri,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emocratic Change in Burma,” in *Gwangju International Peace Forum*, May 16, 2009, 31.

30) Andrew Marshall, “Blood, Robes, and Tears: A Rangoon Diary,” *Time*, October 22, 2007, 24.

31) Awzar Thi, “Burma’s Saffron Revolution,” *Human Rights Solidarity* 17, no. 5 (Hong Kong: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September 2007): 3.

32) Pankaj Mishra, “The Revolt of the Monks,” *New York Review*, February 14, 2008, 36.

했다. 슬로보단 밀로세비치에 맞선 유고슬라비아 민중봉기 비디오에 영감을 받은 그룹은 전 단지를 작성하여 수천 부를 다른 수도원에 배포했다. 9월 19일, 약 2,000명의 승려 시위대가 술레탑에 연좌하자, 코비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와서 지도력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나선 15명이 승려대표단을 구성하였고, 26일까지 시위를 조정하는 데 기여했다.

시위는 규모가 커져서, 9월 23일 랑곤의 20,000만명 시위에서 절정에 올랐다. 다음날 아침 두명의 유명한 연예인이 승려들에게 자선품을 제공했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동참하여 민주주의 구호를 외치고 아웅산수키의 자유를 요구했다. 버마 변호사협회는 88세대와 승려들에 합류하여, 버마의 정치적 교착상태의 평화적 해결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24일 저녁, 국영 TV는 시위대의 심한 행동에 대해 경고했고, 확산기 트럭이 랑군을 돌면서 체포와 최악의 사태에 대해 경고방송을 했다. 그럼에도, 다음 날 거리의 분위기는 적어도 외국인 기자의 눈에 “축제 분위기”로 보였다.<sup>33)</sup> 주민들이 발코니에서 자신감에 찬 행진자들을 환호하자, 승려들은 탁발을 뒤집었고, 학생들은 금지된 싸움공작 깃발을 휘날렸으며, 불교 여승들은 독재에 반대하는 구호를 선창했다. 그날 밤 6일간 야간 통행금지가 선포됐다.

다음날, 사람들은 즐거운 축하행사에 돈을 냈고, 집에 머물기를 거부했다. 시위자들이 모이자, 경찰은 연기탄과 최루가스의 엄호 속에 시위대를 공격했다. 경찰이 곤봉으로 공격하자, 군인들이 사격을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럼에도, 일부 시위대는 밀고나와 시내로 행진했다. 그들이 술레탑에 이르자, 군인을 가득 채운 트럭들이 그들 뒤를 따라왔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군대를 조롱했고, 그들을 띄어놓기 위해 돈을 던졌다. 승려들은 군인들에게 다음 생에서 지은 죄 때문에 고통 받을 것이라고 훈계했다. 일부 군인들은 울었지만, 대다수는 명령을 수행했고 또다시 공격했다. 밤이 되자 거리는 비었고, 군대는 수도원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1988년 지도적 역할을 했던 응웨카르얀 수도원에서 피가 마루 위로 흘렀고, 구멍무늬 벽을 따라 피 웅덩이가 생겼다.

9월 26일 이른 아침 시간에 중무장한 전투경찰과 군인들이 슈웨다곤 탑에서 시위를 시작하려는 시위대를 포위했다. 곧 경찰이 공격했고, 방어적인 승려와 시민들을 무참히 구타했다. 최소한 한명의 승려가 맞아서 피흘리며 죽었다. 군인들은 군중들에게 총을 샷고, 차량을 사람들로 몰아 많은 사람을 죽였다.<sup>34)</sup> 시위가 깨진 다음, 수천 명이 승려들이 “민중”의 친정부 사병그룹의 도움으로 버마 전역에서 검거당했다.

목요일인 9월 27일, 군대는 시위를 취재하던 일본인 사진기자 나가이 겐지를 죽였다. 군부의 지지를 받는 전투경찰은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하고서 거리를 정리했다. 총격소리가 울렸고, 점차 스타카토 조로 잦아들었다. 다음 날, 정권이 겨우 10명 사망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한 유엔 관리는 40명이 사망하고 3,000명이 체포된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 중 1/3이 승려들이었다. 심지어 이 추정치도 많은 목격자들에게 낮은 수치로 여겨졌다. 10월 4일, 미국의 버마 캠페인은 9월 26일 이후 약 200명의 시위대가 살해됐다고 보고했고, 이 수치에는 9월 29일 한 고등학교에 대한 유혈공격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도에 의하면 군대는 아이웨이 묘지의 화장터에서 많은 시신들(아마도 아직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여)을 화장했다.

체포된 숫자는 수천 명에 이르렀다. 군부는 2,100명을 검거했다고 주장했다. <슈피켈>은 체포된 승려 800명이 랑군 공과대에 수용됐다고 보도했다.<sup>35)</sup> 코비다는 타이랜드로 도피했지만, 15명의 다른 승려 중에서 8명이 일제검속 이후 실종됐다. 잔인한 탄압 때문에 시민들은 밤 뉴스가 방송되는 동안 항의의 한 형태로 전등과 텔레비전 스위치를 끄기 시작했다.

33) Marshall, “Blood, Robes, and Tears,” 27.

34) Pankaj Mishra, “The Revolt of the Monks,” *New York Review*, February 14, 2008, 36.

35) Jürgen Kremb, “Die Stadt der leeren Klöster,” *De Spiegel* 41 (2007), 157.

2007년 6월 27일, 인권 그룹들은 국회의원 16명을 포함하여 1,192명이 정치범이라고 밝혔다. 샤프론 혁명 1년 후, 정치범의 숫자는 2,123명이 됐다. 군부는 9,000명 이상의 일반 범죄자를 석방했지만, 정치범들은 참을 수 없는 상태에서 고생하고 있다. 2008년 7월 19일 키파웅틴트는 만달라이 감옥에서 10년을 보낸 다음 죽었는데, 구금중 사망한 정치범의 숫자는 137명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버마 활동가들은 투쟁을 지속하면서 세대를 넘어 협력하고 있다. 보다 최근에, 제라르토(힙합 예술인)와 2007년 전버마 학생연맹 위원장인 카오코코는 풀뿌리 저항의 전면에 등장했다. 2008년 시인 소와이는 발렌타인 데이 8행시 “2월 14일”로 체포됐다. 각 행의 첫 단어는 “권력에 미친 늙은 탄수웨 장군”으로 시작한다.

샤프론 혁명에 대한 CIA 개입은 약간의 중요성을 갖는 요소일 수 있다. 윌리엄 엘달은 미국 첩보부가 1986년 필리핀 반란에서 배웠고, 색깔 T셔츠, 음악인, 비우호적 정부를 노리는 공적 공간의 대규모 비폭력 점거전술 등을 포함한 사전에 준비한 탈안정화 계획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버마의 ‘샤프론 혁명’은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이나 그루지아의 ‘장미혁명’,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를 둘러싼 전략적 국가에 선동한 다양한 컬러혁명처럼, 워싱턴이 치밀하게 운영하는 정권교체의 연습이었고, 노란색 불교신자 ‘벌떼’ 폭도들의 ‘치고 빠지기’ 시위, 인터넷 블로그, 시위그룹 간 이동 SMS 연결, 흩어졌다 다시 모이는 잘 조직된 시위세포 등에 세부 사항까지 지시했다. CNN은 9월 방송도중 버마의 시위 뒤에 NED[미국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전국민주재단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활동을 언급하는 실수를 저질렀다.”<sup>36)</sup>

버마의 군부에 의해 야기된 빈곤 위에, 2008년 5월 허리케인 나르기스가 덮쳐 약 138,000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다. 그해 말에, 군부 지도자들은 다시 2010년 총선거를 약속했지만, 아웅산수키의 후보출마 허용을 거부했다. 비록 버마연합 전국평의회(NCUB)가 여러 해 동안 광범한 스펙트럼의 민주적 야당(NLD, 버마민주동맹, 전국민주동맹-해방구, 소수인종-민족협의회 및 의원연맹)으로 구성된 상층연대체로 활동했지만, 아웅산수키는 운동의 최고 권위로 남아있다.<sup>37)</sup>

운동이 전술 및 소수민족 문제로 분열되어,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 동맹세력에서 고립되어 투쟁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 1947년 이래 지속적으로 무장투쟁을 수행해온 카렌족에겐, 버마 배외주의(chauvinism)가 여전히 문제인 반면, 아웅산수키에게 비폭력은 절대선이다. 전술문제는 자세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왜 넬슨 만델라가 더 이상 로빈섬에서 고생하지 않고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된 반면, 아웅산수키는 성인 생활의 대부분을 가택연금 아래서 보냈는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한 분석가가 언급한 대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봉기는 참여자의 일부가 폭력으로 선회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대체로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했다.”<sup>38)</sup>

1988년 참담한 패배를 당했음에도, 버마의 피플파워 운동은 다른 나라, 특히 이웃 티벳에 영감을 주었다. 텐진가초 달라이 라마는 절묘하게 지적했다:

“인류의 내재적 열망은 자유, 진리, 민주주의이다. 최근에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난 비폭력적 ‘피플파워’ 운동은 논란의 여지없이 인간이 폭정의 상태를 용인하거나 그 상태에서 적절하게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에서, 버마 민중들 역시 마음으로 말하고 있으며, 그들의 자유에 대한 타고난 열망을 확인시켜 준다.”

36) F. William Engdahl, “Chokepoint! The Geopolitical Stakes of the Saffron Revolution,” October 15, 2007, [http://www.engdahl.oilgeopolitics.net/Geopolitics\\_\\_\\_Eurasia/Myanmar/myanmar.html](http://www.engdahl.oilgeopolitics.net/Geopolitics___Eurasia/Myanmar/myanmar.html).

37) Interview with Sann Aung, Bangkok, Thailand, November 4 and 5, 2008.

38) Justin Wintle, *Perfect Hostage: A Life of Aung San Suu Ski* (London: Hutchinson, 2007).

[번역]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들 2권 4장

제4장: 티벳

연표

1959년 3월 10일	라사에서 봉기가 시작됨, 20,000명 이상이 달라이 라마를 보호함
1959년 3월 10일	대중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티벳 독립선언, 투쟁단위 조직화
1959년 3월 11일	수천 명이 독립을 환호하자 라사는 검은 깃발의 바다에 빠짐
1959년 3월 12일	여성 5,000명 행진, 술에서 대규모 집회(포탈라 아래)
1959년 3월 17일	달라이 라마 인도로 탈출, 카샤그 공식적으로 독립 선포
1959년 3월 19일	중국군 포격으로 엄청난 사상자 발생, 대규모 전투의 날
1959년 3월 19일	베이징, 21세 판첸 라마를 새로운 티벳 지도자로 선언
1959년 3월 28일	중국 총리 주언라이가 티벳정부 해산을 명령함
1987년 9월 27일	경찰, 시위 혐의로 승려 21명과 기타 3명 체포
1987년 10월 1일	약 40인의 승려가 항의의 원을 돌며 시위, 경찰의 대량 체포
1987년 10월 1일	수천명이 정치범 석방을 요구함, 경찰서에 방화
1987년 10월 1일	최소한 6명이 살해됨, 500명 이상의 티벳인 체포됨
1987년 10월 6일	더 많은 시위, 체포, 티벳인 살해
1988년 3월 5일	승려들이 정치범 자유를 요구한 다음 12명 이상 살해됨
1988년 3월 5일	바리케이드로 바르코르 구역 방어, 새총 및 돌 사용
1988년 12월 10일	최소한 18명이 사망하고 70명 부상
1989년 1월 28일	판첸 라마 심장마비로 사망
1989년 3월 5일	승려와 여승들이 시위를 이끔
1989년 3월 6일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함
1989년 3월 7일	라사에서 대규모 전투
1989년 3월 8일	티벳에 387일간 계엄령 선포, 250명 가량 살해됨
1989년 5월 2일	베이징에 계엄령 선포
1989년 6월 4일	수백명 시위대가 베이징에서 살해됨
2008년 3월 10일	봉기가 시작되어 6월까지 지속됨, 125건의 시위에서 220명의 티벳인이 살해됨, 1,300명 부상, 거의 7,000명이 구속되거나 수감됨

“철로 만든 새가 날고 말이 바퀴 위에 올라가면, 티벳인들이 전세계로 흩어질 것이다.”

- 8세기 티벳의 예언

“타인을 노예로 삼는 민족은 자신의 족쇄를 채운다.”

- 칼 맑스

수세기 동안 티벳인들은 히말라야 산맥을 바람막이로 하는 외진 고원에 독특한 문화를 아로 새겼다. 티벳민족의 등장은 BC 127년으로 거슬러 가는데, 그때 냐-트리첸포가 40세대에 걸친 왕정의 시조가 되었다.<sup>1)</sup> 거의 1천년 후에 중국과 티벳의 전쟁이 8세기 트르디축텐(36대 왕) 통치기간에 일어났고, 티벳은 중국의 여러 지방을 점령했다. 티벳의 승리를 기념하는 돌기둥이 20세기말까지 포탈라궁 앞에 남아 서있었다.

티벳이 네팔 및 인디아와 급접함에도, 불교는 상대적으로 늦게 전파되었고, 도입되었을 때

1) Dalai Lama, *My Land and My People* (New Delhi: Srishti Publishers, 1997), 69.

독특한 산악신앙이 인도대륙의 보다 표준적 종교로 융합되었다. 전사의 민족에게서, 부다의 아힘사, 즉 비폭력은 다른 곳만큼 강력하게 뿌리를 내렸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 놓았다. 세계의 수많은 군대의 힘보다 더, 티벳의 부드러운 종교와 심원한 신앙(직관, 신탁을 통한 점복, 전생과 무아지경)은 마침내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을 통치한 몽골 정복자들을 진압했다. 몽골인들은 티벳의 라마교를 종교로 채택했고, 위안왕조(1271-1368년)와 만주족의 칭왕조(1644-1911년) 동안 티벳 불교는 중국의 공식종교였다.

20세기에 들어오는 시점에, 아마도 모든 티벳인의 10퍼센트는 승려 또는 여승였다. 사회체제는 봉건적이었지만, 수도원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능력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의미에서 평등주의적이었고, 승려들은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다. 불교의 수평적 효과는 심오하게 해방적이며, 티벳 사람들은 물질주의적 다수의 눈에는 빈곤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적 측면에서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했다.

나라의 종교적 중심지로서, 티벳은 자치와 평화를 즐겼다. 그러나 1896년 칭왕조 세력이 공격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격퇴시켰지만, 1903년 중국장군 “도살자” 펑과 그의 군대가 도륙하면서 티벳의 심장부로 밀고 들어왔다. 1911년의 민주혁명이 중국의 만주족 통치자들을 타도하자, 티벳은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일시적인 유예를 즐겼다. 라산에서 중국 사절은 축출되었고, 달라이 라마는 피신했던 인디아에서 돌아왔다. 달라이 라마는 “1912년부터 1950년 중국의 침략까지, 중국이나 어떤 다른 국가도 티벳에 어떤 권력도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sup>2)</sup> 20세기 전반기에 베이징의 국민당(KMT) 새 행정부에 종속적으로 남아있던 동티벳 지방들은 한족 중국인을 쫓아내려고 애썼다.

1931년 동부 티벳(Kham) 나룽 북부 다르가이 수도원 승려들은 지역의 교사 소남왕두와 동맹하여, 도시를 해방시킨 반란을 이끌었다.<sup>3)</sup> 약 1년 뒤에 중국은 반격해서 도시를 재장악했고, 지속적 침공은 티벳의 주요한 문제가 되었다. 토착 티벳인들은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를 구별하지 않았고, 그래서 심어 대장정의 홍군 부대조차 함 지대를 통과할 때 매복공격을 받았다.<sup>4)</sup>

중국의 봉건주의로부터 티벳 “해방” 10년 전인 1939년, 전국에 약 6,000개의 수도원이 있었고, 4명의 소년 중 1명은 승려였다. 공산당의 공식정책은 “몽골, 티벳, 신장은 민주적 자치주로서 자치를 행사한다”고 명시했다. 1922년 2차 당대회 때부터, 중국공산당(CPP)은 “중국의 영토를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통합...”하기로 약속했다. 1949년 장카에세과 KMT에 대한 승리 직후, CPP의 주요한 우선적 과제 중의 하나는 영토를 공고화하고,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3백만 티벳인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반세기 이상 중국의 점령정책 동안, 반란, 투옥, 기아 때문에 죽은 티벳인들의 추정 숫자는 겨우 약 5백만 인구 가운데 1백만명을 훨씬 넘는다.<sup>5)</sup> 수십만의 다른 이들은 외국 피난지를 구해야만 했다. 한족 중국인의 인구이동은 아주 성공적인 것처럼 보여서, 오늘날 티벳의 인구 절반 이상이 중국계 정착민이고 그들은 중국 국가의 보조금, 보호와 장려를 받고 있다.

2) Ibid., 76.

3) Jamyang Norbu, *Warriors of Tibet: The Story of Aten and the Khampas' Fight for the Freedom of Their Country* (London: Wisdom Publications, 1986), 22-3.

4) Ibid., 52-3.

5) Mary Craig, *Tears of Blood: A Cry for Tibet* (London: Harper Collins, 1992), 15. 중국의 공격으로 사망한 티벳인의 숫자를 210만명으로 추정하는 자료에 대해서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The Question of Tibet and the Rule of Law* (Geneva, H. Studer, 1960), 132-3을 보라. 티벳 망명정부가 집계한 정보에 의하면, 1949년과 1979년 사이에 120만명 이상의 티벳인들이 죽었다. 티벳의 전통작물인 보리를 밀로 대체하는 중국측 정책의 결과 1956년 동티벳에서 최소한 500,000명이 사망했다. 중국의 대체정책은 실패했고, 티벳에서 처음으로 기근이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 See Mikel Dunham, *Buddha's Warriors: The Story of the CIA-Backed Tibetan freedom Fighters, the Chinese Invasion, and the Ultimate Fall of Tibet* (New York: Penguin, 2004), 5. 중국정부의 인구와 사망자 수치는 상당히 낮다.

티벳은 중국 면적의 1/4이며, 중국의 광물자원(금, 아연, 납, 구리와 붕사)의 약 40퍼센트, 상당한 우라늄 매장량, 그리고 주요 미사일 기지가 있다. 수백만 에이커의 처녀림 외에도, 석유도 보유하고 있다.

동일한 반세기 동안, 미국의 세계전략은 중국을 포위하여 고립시키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희생되었다. 티벳도 세계 열강 간의 역동적 분쟁을 피할 수 없었다. 1950년 4월 중국 18군의 선발대 30,000명 부대가 티벳을 관통하여 진군해왔고, 달라이 라마는 국제연합에 호소했다. 그러나 유엔은 겨우 최근해야 한국의 침략세력을 인정했을 뿐이며, 행동을 거부했다. 달라이 라마는 이를 티벳에 대한 “통탄할 타격”으로 간주했다. 중국 측 자료에 의하면, 공산당 정부군인 인민해방군(PLA)은 1950년 10월 동티벳에서 5,700명 이상의 티벳 투사들을 죽였다.<sup>6)</sup> 중국과 티벳은 1951년 17개조 합의에 도달했는데, 이후에 달라이 라마는 이 협정이 칼날을 들이대고 강제된 것이며 거기에 찍힌 국새는 베이징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천명의 중국군대가 라사에 도착했고, 식량을 요구했으며, 수세기 동안 유지된 주민들과 보리 간의 미묘한 균형을 파괴했다. 라사에서 물자부족으로 야기된 물가폭등은 식량가격의 10배 인상을 의미했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다. 마오는 1952년 티벳의 토지가 마침내 재분배 될 것이며, “티벳 인민 자신들에 의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sup>7)</sup>

비록 UN은 티벳을 지원하기를 거부했지만, 미국은 기꺼이 개입했다. 1950년대 중반, CIA는 수십명의 반중국 티벳 투사들을 무기와 통신훈련을 위해 태평양의 사이판섬으로 보내, 그들이 다시 티벳으로 침투하도록 도왔다.<sup>8)</sup> 다른 사람들은 중국의 지배를 타도하도록 준비하기 위해 미국의 콜로라도주와 코넬대학으로 보내졌다. 그 다음 10년간 압도에서 전투가 지속되자, 약 1만명의 티벳 독립투사들은 투쟁 중에 죽었다. 신화사에 의하면, 시추안에서도 티벳(함파) 소수민족의 반란이 “비인간적 노예 소유주와 봉건영주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했다.

1955년 농민들이 농업 집단화에 저항하면서 함 지방에서 분쟁이 발생했고, 급속하게 전쟁으로 상승했다. 1956년 5월과 6월 시추안에서, 당의 정책에 대한 주요한 반란이 지역의 다수 티벳 주민 사이에서 일어났고, PLA가 투입되어 강제적으로 질서를 회복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명의 중국군이 KMT의 지원을 받는 골록 투사들에게 코가 잘렸다고 한다.<sup>9)</sup> 공산당 동조자인 아나 루이스 스트롱은 동티벳의 반란군이 약 1만명의 무장부대로 발전했다고 보고했다. 1956년 7월 18일,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동티벳을 통해 라사로 가는 모든 길을 게릴라들이 폐쇄했고, 북동부를 통하는 하나의 길만이 열려있다고 보도했다. 다시 1957년 티벳인들은 당개혁에 저항했다. 내부보고서는 군중들이 “정부건물을 포위하고, 정부 상점과 창고를 불태웠고, 통신을 방해하고, 대중들을 강탈했고, 간부들의 죽였고, PLA를 공격했고, ... 따라서 당과 정부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무쟁투쟁을 수행해야만 했다.”고 보고했다.<sup>10)</sup> 중국 측에서 보면 “미신, 악마와 신에 대한 투쟁”이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6) *A Survey of Tibet Autonomous Region* (Tibet People's Publishing House, 1984).

7) 더욱이, 1957년 2월 27일 “모순에 관하여”라는 유명한 연설에서 마오는 “2차 5개년 계획(1958~62년) 기간에 티벳에서 민주개혁으로 전진하기 않기로 결정됐으며, 우리는 이후 상황에 비추어 3차 5개년계획의 시기에 민주개혁을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See Raja Hutheesing, ed., *Tibet Fights for Freedom: A White Book* (Bombay: Orient Longmans, 1960), 20. 달라이 라마는 “마오가 티벳을 공산주의 국가로 전환시키기 위해 결코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으며, “나는 아직도 그런 억압이 마오쩌둥의 승인과 지리를 받았다고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주언라이에 대해서는 아주 다르게 생각했다. *My Land*, 118.

8) William Blum, *Killing Hope* (Monroe, Maine: Common Courage Press, 1995), 26; D unham, *Buddha's Warriors*, 200-208, 365.

9) Jane Ardley, *The Tibetan Independence Movement: Political Religious and Ghandian Perspectives* (London: Routledge, 2002), 28-9.

10) “Work Report of the People's Council of the Tibetan Autonomous Chou of Kanze,” *Kanze Pao* (Kangting) as quoted in Hutheesing, *Tibet Fights*, 23-4.



PLA는 티벳 원주민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폭격을 포함하여 압도적 무력을 사용했다. 1958년 10월 함파 투사들은 그들의 캠프에 폭격과 기총소사를 가하고, 수많은 가족을 죽인 중국 항공기를 격추시켰다.<sup>11)</sup> PLA 부대가 지역에 투입되자, 그들은 가족들을 매복공격했고, 잔류세력이 재집결할 때, 원래의 15,000명 중에서 약 4,000명만 살아남았다.<sup>12)</sup> 1950년대 동안, 가볍게 무장한 1만명의 투사들의 티벳군 총전력 가운데 1천여명이 죽은 반면, 중국 측에서 사상자는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1956년 9월 29일, 로이터 통신은 2년간 50,000명의 중국인이 15,000명의 티벳인과 같이 죽었다고 보도했다.<sup>13)</sup>

CIA의 정교보란 작전이 그런 보도를 의심하게 하지만, 티벳 동부의 저항이 가장 강력했고, 그 결과 동부 주민들이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고 말하는 것이 공정하다. 공산당 지배 아래서, 비밀결사인 미망(Mimang), 즉 인민의 당이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미망은 민중들이 한족과 우호적으로 지내지 말고, 아이들을 중국 학교에 보내지 말도록 선동했다.<sup>14)</sup> 드레퐁(승려 7,700명), 세라(승려 5,500명), 간덴(승려 3,300명) 등 대규모 수도원 출신 승려투사들의 특수부대인 수많은 돕둡(Dob-dob)이 미망의 당원들이었다. 한 인디아의 보도에 의하면 지하 인민의 당 주력은 26,000명의 승려였고, “그들 각각은 기도 깃발 그 어딘가에 장총을 싸가지고 다녔다.”<sup>15)</sup>

[사진 12]

티벳의 돕둡 승려들. Photo by Joseph F. Rock. Collection of National Geographic Society.

비록 달라이 라마는 무장저항을 지지하진 않았지만, 티벳인들은 압도적으로 달라이 라마에 충성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보디사트바 자비의 재현이라고 믿는다. 1956년초 라사에서 새 행정부를 세울 티벳-중국 합동입헌위원회가 선포되자, 이에 맞서 자연발생적으로 사람들이 나섰다. 달라이 라마가 상황을 묘사한 것처럼, “중국인에 대한 보통사람들의 분노는 티벳에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창출했다: 자연발생적으로 민중에 의해 선출된 정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정부관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공식적 지위가 전혀 없었고, 모두 각계각층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들을 정치 지도자라고 할 때, 어떤 서구적 의미에서 정치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sup>16)</sup> 위원회를 비난하는 전단지들이 준비되어 라사 전역에 붙여지자, 달라이 라마와 그의 내각은 중국의 요구에 동의하였고, 세명의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 그중 한명은 감옥에서 죽었다.

1959년 봉기

티벳의 새해(Lasar)는 3주간의 축제와 기도로 이뤄지며 기도대축제(Monlam)로 이어진다. 1959년 초, 라사 외곽에 야영하는 수천명의 난민과 약 17,000명의 승려가 몽람을 위해 도착하자, 라사의 인구는 두배로 늘어 약 100,000명이 되었다. 도시 외곽에서 중국 침략자에 대한 전쟁이 터졌다. 중국인 이탈자의 도움으로, 추지 강드룩이 이끄는 돕둡 승려전사들과 봉기자들이 체탕의 중무장 기지(부탄 국경 근처 라사에서 50마일도 채 안 되는) 아래서 터널을 파던 600명의 PLA 병사들을 죽였다. 고춧가루 연기로 PLA 군대를 몰아낸 티벳 전사들은 많은 중국인을 죽였는데, 항복하려는 그들을 총으로 사살했다.<sup>17)</sup>

1959년 3월 9일, 이제 29세가 되어 최근에야 종교시험을 마친 달라이 라마는 중국 사령관

11) Dunham, *Buddha's Warriors*, 257.

12) Ibid., 256-259.

13) Hutheesing, *Tibet Fights*, 31.

14) Tashi Khedrup, *Adventures of a Tibetan Fighting Monk* (Bangkok: Orchid Press, 1998), 86.

15) Hutheesing, *Tibet Fights*, 28.

16) Dalai Lama, *My Land*, 134.

17) Khedrup, *Adventures*, 102; Craig *Tears of Blood*, 97; Dunham, *Buddha's Warriors*, 263.

탄관산의 초대에 대해 고려했다. 그에게 특별히 보낸 쪽지에는 다음날 저녁 중국기지에서 열리는 연극에 무장경호원이나 다른 각료들 없이 혼자 오라는 것이었다. 과거 2년간, 수많은 고위 라마승이 비슷하게 중국당국의 초청을 받아 방문했다가 실종됐으며, “초청”에 대한 소문의 퍼지자, 사람들은 즉각 달라이 라마의 목숨에 대해 두려워하게 되었다.<sup>18)</sup> 달라이 라마가 보디가드 없이 중국기지로 갈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티벳식 천장[天葬]의 시체처리 전문가인 라가바스(ragyabas)들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달라이 라마를 보호하자고 했다. 세라 수도원의 원로들은 외부의 승려들, 특히 돕둑에게 라사로 오라는 전갈을 보냈다. 낡은 장총의 먼지를 떨어냈지만, 숫자는 별로 안 되고 탄약도 부족했다. 한 보도는 암도와 골록의 자원자들이 5,000정의 장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sup>19)</sup> 하지만 운동에 참여한 한 돕둑 승려는 세라에 약 400정의 장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sup>20)</sup>

3월 10일, 달라이 라마의 목숨에 대한 예견된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2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벽을 쌓자는 호소에 응하여, 여름궁전 노르블링카를 둘러쌌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자유위원회 대변인들이 티벳 독립선언을 낭독했고, 1951년 5월 23일 베이징에서 배신자 은가보Ngabo가 서명한 17개조 합의안(이에 따라 중국은 티벳의 외교 및 군사문제에 대한 통제권은 획득했지만, 달라이 라마의 지위는 인정했다) 사본을 불태웠다. 수십개의 공개집회와 정부관리들도 곧 비슷한 성명을 승인했다.<sup>21)</sup> 6시에 달라이 라마의 경호대, 정부인사, 대중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다시 17개조 합의의 종식과 티벳 독립을 선언했다. 전투부대들이 직종과 수도원별로 조직되었다.<sup>22)</sup>

이 긴박한 순간에, 중국특사인 티벳인 칸중소남가초가 두 대의 차로 노르블링카에 도착했다. 그가 달라이 라마를 데리러 왔다고 생각한 군중들은 가초를 돌려 쳐 죽였다. 민중들의 분노는 너무나 강렬해서 라가바도 협력자의 시신에 손대기를 거부했다. 시체를 다시 라사 중심부의 거리로 다시 끌고 갈 때 벨트를 사용해야 했다. 베이징 라디오는 나중에 친중계 티벳군 부사령관도 이 사건으로 부상당했다고 주장했다. 티벳 임시정부인 카속(Kashog)을 구성한 6명의 장관인 칼룬(Kaloon) 중 두 명이 친중국계였다. 이 둘도 부상당했다.<sup>23)</sup>

달라이 라마가 그 날 중국 사령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궁이 포위되어서 그가 떠나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했다. 달라이 라마는 “반동적 악의 세력이 나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나를 위협하게 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나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며칠 내로 상황이 안정되면 틀림없이 당신을 만나겠다”고 주장했다.<sup>24)</sup> 몇 년 뒤, 달라이 라마는 회상했다. "군중들은 이미 60 내지 70인 지도자들로 일종의 위원회를 선출해서, 만약 중국이 내가 가야 한다고 고집하면 궁에 바리케이드를 쌓아 나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리고 내각은 군중들이 너무 놀라고 결연해서 내가 나가는 것이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중국인은 떠나야 한다’; ‘티벳은 티벳인들에게 맡겨라.’"

명백히 무장한 일부를 포함하여 많은 수의 지도자들이 여성이었다.<sup>25)</sup> 3월 11일 라사는 독립을 환호하고 달라이 라마를 지지하는 검은 깃발의 바다에 빠졌다. 수천명이 여성들이 시위했고, 도시의 주민들을 결집시켰다. 그들은 대표단을 파견하여, 그 당시 30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던 함파투사들에게 전쟁을 라사에 가져오지 말라고 요청했다. 티벳 군인들은 중국식 제복을 벗어버리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1차대전 때 썼던 무기를 집어들었다. 자유위원회는

18) Hutheesing, *Tibet Fights*, 3 7; Dalai Lama, *My Land*, 168.

19) Hutheesing, *Tibet Fights*, 39.

20) Khedrup, *Adventures*, 89.

21) Hutheesing, *Tibet Fights*, 38; Dunham, *Buddha's Warriors*, 274.

22) Craig, *TearsofBlood*, 106.

23) Hutheesing, *Tibet Fights*, 17.

24) *Ibid.*, 79.

25) Dunham, *Buddha's Warriors*, 272.

달라이 라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여름궁전 내부에 경호대를 배치했다. 그들은 라사에 남아있는 티벳군에게 무기고를 열라고 설득했고, 무기는 기쁨 속에 신속하게 분배되었다. 그들은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축포리산을 요새화했다. 라사의 보통시민들은 중국인을 격퇴하기 위해 삽과 농기구, 곡괭이, 칼, 도끼, 몽둥이로 무장했다. 그들은 수백 마리의 염소를 풀어 악마를 쫓아내게 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산책했고, 기도하고 잡담을 했다.

바리케이드를 철거하라는 중국의 최후통첩에 받고, 달라이 라마는 자유위원회의 70인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그들이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3월 12일 5,000명의 여성이 인디아 총영사관으로 행진하여 그에게 중국외무부와 의 계획된 회담의 증인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거부했다. 라사의 거의 전주민이 솔(은혜로운 포탈라궁 아래)의 모임에 참석했다.

[사진 13]

수천명의 여성들이 달라이 라마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을 결집시켰다. Photo by Associated Newspapers Ltd. in *Tibet Fights for Freedom*, 53.

대중의 정서는 독립의 공식문서를 준비하라는 호소를 압도적으로 승인했다. 라사에서 3월 17일까지 지속적으로 집회가 소집되었다.<sup>26)</sup> 함파 투사들이 겨우 25마일 떨어져 있고, 중국 항공기가 근처에 착륙했다고 알려지자, 아무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바르코르 뒷골목에서, 8세기전 중국에 대한 티벳왕 게사르의 승리를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부심과 행복 속에 사람들은 지역특산 차인 창을 마셨다.

노르블링카 내부에서는 달라이 라마가 안전을 위해 티벳을 떠나야 한다는 결정에 도달했다. 그는 대중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과 협의했고, 동의했다.<sup>27)</sup> 3월 17일 위장한 달라이 라마는 들키지 않고 노르블링카를 빠져나와 도망칠 수 있었다. 같은 날 카속은 17개조 합의를 거부하고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포했다.

중국은 티벳군의 힘을 주의깊게 평가했다. 레라, 드레퐁, 간덴 수도원으로부터 도시를 분리한 다음, 도시를 방어할 준비가 된 티벳인 연대로부터 고립시켰고 노르블링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포위했다. 3월 19일 아침 5시간 동안 중화포와 장갑차를 사용하여, PLA는 많은 사상자를 내지 않으면서 티벳인들에게 엄청난 사상을 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군이 궁으로 전진하려 시도하자, 달라이 라마의 경호원과 도시에 침투한 수백명 저항투사들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혔다. 가장 격렬한 전투가 포탈라와 노르블링카 사이의 2마일 거리에서 벌어졌다. 반격을 개시한 함파 투사들과 라사 시민들은 극장, 라디오 방송국, 정류장의 요새화된 중국인 진지를 공격했지만, 심각한 피해를 입고 밀려났다.<sup>28)</sup> 같은 날 베이징 라디오는 21세의 판첸 라마가 티벳의 새로운 지도자라고 선언했다. (그달 말인 3월 28일 중국총리는 티벳정부의 해산을 명령했다.)

3월 20일, 중국 포병이 노르블링카에 발포한 다음날, 화력을 포탈라궁, 축포리 언덕의 의과대학과 다른 수도원들에 돌렸다. 야만적 전투의 3일간, 중국군은 여름궁전으로 진격을 두 번 시도했지만, 티벳인들은 탱크에 맞서 화염병으로 바리케이드 뒤에서 중국군을 격퇴시켰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가 바리케이드의 일부로 쌓였다. 21일, 함파 기병대가 중국 측을 공격했지만, 중국 장갑차들에 밀려났다. 70명이 함바인들은 중국군을 극장으로 소개하도록 강제했다.<sup>29)</sup> 라사의 무슬림 구역에서 중국군의 진압시도에도 불구하고 티벳의 수류탄이 계속 터졌다.

26) Hutheesing, *Tibet Fights*, 42.

27) Dalai Lama, *My Land*, 196.

28) Michel Peissel, *Secret War in Tibet* (Boston: Little, Brown, 1972), 143.

29) *Ibid.*, 144.

궁극적으로, 영웅적 투쟁은 25,000명 이상의 중국군이 누리는 기술적 우위에 대해 버틸 수 없었다. 22일 새벽 방어자들은 시체더미를 뒤로 하고 노르불링카를 포기했다. 중국군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달라이 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백구의 시체를 일일이 검사했다. 족캉(라사의 중심 사찰)도 폭격당했다. 그날 오후, 불길이 사찰의 돔 내부를 태울 때 탱크들이 입구로 밀고 들어왔다. 함바 기병대가 다시 공격했고, 한동안 탱크를 저지하면서 탱크 한 대에 불을 붙였지만, 20세기 무기에 상대가 되지 않았다. 곧 중구경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17개조 합의에 서명한 배신자인 은가보의 목소리가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항복하라고 요구했다.

3월 23일까지, 5,000명의 티베인이 사망하고 4,000명이 포로로 잡히자, 중국은 전도시를 통제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보고에 따르면 라사에서 살해당한 숫자는 10,000명에서 15,000명까지 추정되며, 도시 인구의 1/4(약 10,000명)은 감옥에 갇혔다.<sup>30)</sup> 중국측 자료는 8,000정의 소화기, 81정의 기관총, 27개 수류탄과 6정의 산포를 압수했다고 주장했다.<sup>31)</sup>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모든 시체를 화장 또는 매장하는 데 최소한 이틀이 걸렸다.<sup>32)</sup>

라사 외부에서는 간체 전투가 보고되었다. 한 급보는 3월 22일 도시가 저항세력의 손에 있다고 주장했다. 함파 병사와 기대병가 전국의 1/4을 통제하고 있다고 했는데, 반역자들을 색출하여 살해했다.<sup>33)</sup> 3월 24일까지, <힌두스탄 타임스>는 반란이 티벳 전역으로 퍼졌고, 수많은 소식통이 무기와 장비가 미국이 공급한 장카이색의 공군에 의해 티벳으로 공중수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웃 창샤이(칭하이) 지방의 무슬림 사이에서, 수십명의 “반혁명분자들”이 3월에 처형되거나 구금되었다고 했고, 이어 4월에 무장반란이 일어났다.<sup>34)</sup>

4월 4일까지 폭동은 신장에서도 보고되었다. 외곽(남서부) 티벳에서 함파 반란군을 수만명의 승려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기자들은 “전국적 봉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지만, 같은 입으로 중국 육군과 공군의 압도적 힘을 인정했다. 1960년의 PLA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1959년 3월과 1960년 10월 사이에 약 87,000명의 티베인이 중부 티벳에서만 살해당했다.<sup>35)</sup>

## 망명과 점령

1960년 9월 인디아 다람살라의 망명지에서 달라이 라마는 망명정부를 수립했다. 인민의원 의회 선거가 열렸고, 1963년 2/3 표결로 달라이 라마의 제거를 허용하는 논쟁적 조합항 포 함된 새로운 티벳헌법이 승인되었다.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그 조합에 반대했지만, 달라이 라마가 직접 주장하자 설득되어 통과시켰다.

1950년 5월 1일, 미국 U-2 첩보기가 소련 상공에서 격추되었고, 티벳 투사들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 공중지원은 중단됐다. 그해 나중에, 강력한 추적에 밀린 함파 저항군은 손쉬운 공급을 위해 무스탕(네팔의 티벳인 구역)으로 이동했다.<sup>36)</sup> 1962년 10월, 중국과 인디아 간의 전쟁이 국경지역에서 일어났다. 초강대국의 경쟁 주변에서 티베인들이 고통을 당했다. 기근이

30) Dunham, *Buddha's Warriors*, 326.

31) New China News Agency, March 25, 1959 as quoted in Hutheesing, *Tibet Fights*, 51.

32) 2000년 3월 9일 통과된 미상원 결의안 60호는 1959년 3월 10일 봉기의 결과로 살해당하고, 체포되거나 노동 수용소로 추방된 티베인을 87,000명으로 추정하는 중국측 통계를 인용했다. 국제법률가위원회는 라사에서만 살해된 티베인의 숫자를 Hutheesing, *Tibet Fights*, 222에 보고된 대로, 약 20,000명으로 추산했다.

33) 저항세력에 애석하게도, 이 동일한 전사들도 라사에서 싸우다가 도망치는 승려의 말을 몰수했고, 그들을 수감했다. 추지 강드룩이 이끈 함파투사 부대의 일부는 밀가루, 버터, 말을 가난 농민들에게서 빼앗았고, 다른 일부는 그들의 가족에게서 티벳 소녀들을 납치했다. See Khedrup, *Adventures*, 98; Dunham, *Buddha's Warriors*, 241.

34) Hutheesing, *Tibet Fights*, 29, 45, 106.

35) *Xizang Xingshihe Renwu Jiaoyude Jiben Jiaocai*, 1960 as quoted in <http://www.tibet.com/WhitePaper/white5.html>.

36) Dunham, *Buddha's Warriors*, 353.

1963년까지 지속되자, 이 지역은 봉기의 진압과 대약진운동의 여파라는 이중고에 휘말렸다. 중소분쟁으로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곡물수출을 중단하자, 티베트의 곡물수확이 러시아의 곡물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에 따른 식량부족의 결과, 티베트인들은 고양이, 개와 살기 위해 발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먹어야 했다. 비참하게 중국관리들은 티베트인들이 전통작물인 보리 대신 밀을 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확이 이루어지 않아서, 줄여 잡아도, 50만명의 티베트인들이 굶주렸고, 동시에 그들의 종교중심지는 급감했다.<sup>37)</sup>

1959년 봉기 이전의 6,000개 수도원 중에서, 1년 뒤에는 겨우 370여개만 남았다.<sup>38)</sup> 세라 수도원에 살고있던 2,000명의 승려 중에서 겨우 50명만 남았다. 마오는 20년 이래 철군을 약속했지만, 중국군은 티베트에서 계속 주둔했다. 문화혁명 동안, 남아있던 대부분의 수도원들도 파괴되었고, 겨우 15개 정도가 손상되지 않고 남았다.<sup>39)</sup> “미신적” 승려들은 법복을 벗고 결혼하도록 강요받았다. 1966년 8월 25일 홍위병들이 즉항사를 접수하고 유물을 훼손하고 귀중한 원고를 태웠고, 사찰을 자신들의 용도로 “숙소 제5호”로 바꾸었다.<sup>40)</sup> 티베트불교의 중심지 파괴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중국측 통계도 마찬가지로 충격적이다:

표 11: 티베트의 수도원과 승려에 대한 중국정부 추정치

연도	수도원	승려
Before 1959	2,700	114,000
1959-1966	550	67,000
1966-1983	8	970
1987	970 “종교센터”	1,500

Source: Tibet Autonomous Region report dated July 17, 1987

(prepared prior to German Chancellor Helmut Kohl’s visit). See *Tibetan Review*, September 1990, 7.

티베트투쟁에 대한 JFK의 지원은 처음에 열광적이었지만, 인디아 대사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가 티베트인들이 야만적이고 “심히 비위생적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반대하자 그의 지원은 시들해졌다.<sup>41)</sup> 케네디는 얼버무렸지만, 닉슨과 키신저는 중국의 요구에 굴복했다. 1969년 마오와 키신저 간의 비밀회담이 열렸고, 관계 정상화로 이어졌다. 마오는 중국이 미국과 외교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무엇보다 미국의 티베트원조(와 타이완과의 외교관계)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42)</sup> 자신들이 훈련시키고 무장시켰던 티베트군의 해산을 돕기 위해, CIA는 수백만 달러를 들여 티베트인들이 민간인 생활로 돌아가게 했으며, 여기에는 네팔 로하라의 안나푸르나 호텔의 구매도 포함된다.<sup>43)</sup> 1974년 무스탕의 왕두장군 부대의 티베트투사들은 무장해제를 거부했다. 달라이 라마가 개입하여 그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간청했다. 불복종할 수 없지만, 항복하기 싫었던 많은 투사들이 자살했다.<sup>44)</sup>

무장저항이 끝나자, 1978년 중국인 티베트 망명정부 대표들에게 귀환하도록 초청했다. 다람살라의 첫 대표단이 도착하자,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동안 겪은 불행에 관한 울음과 통곡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1979년 덩샤오핑은 공개적인 문화축제와 덜 제한적인 환경을 허용했고, 공개적인 종교의식의 부활이 이루어졌다.

37) Dunham, *Buddha’s Warriors*, 5.

38) From India, the Dalai Lama claimed in June 1959 that over 1,000 monasteries had been destroyed before 1958. See Ardley, *Tibetan Independence Movement*, 30; Dunham, *Buddha’s Warriors*, 325.

39) Dunham, *Buddha’s Warriors*, 372.

40) Craig, *Tears of Blood*, 167-8.

41) John Kenneth Galbraith, *A Life in Our Times* (Boston: Houghton Mifflin, 1981), 395 as quoted in Dunham, *Buddha’s Warriors*, 356.

42) Dunham, *Buddha’s Warriors*, 382.

43) *Ibid.*, 383.

44) Dunham, *Buddha’s Warriors*, 389.

## 1980년대 후반

한족 식민주의는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티베인들이 자연스럽게 반대하여 일어났다. 빈약하게 조직된 티베인들의 시위는 압도적 힘에 의해 진압당했다. 1987년 9월과 10월, 라사와 다른 도시에서 일련의 불만이 팽창했고, 동시에 달라이 라마가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베이징에 5개조 평화계획을 제안했다. 중국 TV는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짧게 보여주었지만, 그것도 그를 비난하는 수단이었다. 지도자의 제안에 대한 소식이 퍼지자, 드레퓌 수도원의 승려 21명이 9월 27일 아침 바르코르 찻집에서 모였다.<sup>45)</sup> (3일 전에 15,00명 이상의 티베인들은 노동부대와 마을위원회의 강요로 라사 스포츠 경기장에서 군중재판을 목격해야 했는데, 중국 관리들이 11명에 대해 판결을 내렸고, 두 명에겐 사형을 선고했다.) 29일 오전 9시경 승려들이 손으로 그린 티베국기를 꺼내 족항사 주위를 원으로 행진하면서 “티베트는 독립국이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그들이 세 번의 원을 그리자 수십명이 가담했다. 족항사 앞의 거대한 광장에서 모든 승려와 다른 3명이 체포되었다. (이후 중국측은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sup>46)</sup>

10월 1일, 약 40명의 승려(대부분 세라 수도원 출신)이 비슷한 원형 항의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찰이 도착하여 많은 승려를 구타했다. 60명 이상이 근처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곧 수천명의 군중이 모여 시위자의 석방을 요구했다. 그들은 경찰이 건물에서 물러나도록 강제한 다음, 불을 붙였다 참파텐진이란 한 승려가 용감하게 안으로 들어가 갇혀있던 승려들이 나오도록 도왔지만, 최소한 세 명이 도망치려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 중국당국이 인용한 목격자는 6명이 죽었다고 주장했다.<sup>47)</sup> 독립적 소식통은 12명이 사망하고 약 400명이 체포되었다고 한다.<sup>48)</sup> 불타는 건물의 지붕에서 경찰이 사격해서 대부분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바르호르의 전투는 사람들이 진정하기를 거부하면서 밤새 계속되었다. 참파텐진은 영웅적 행동으로 군중들에게 목마 태워졌고, 이후 그는 사라져 티베트에서 탈출했다.

### [사진 14]

참파텐진의 영웅적 행동은 라사 거리에서 열광적 환호를 받았다. Photo by John Ackerly in *Tibet Since 1950: Silence, Prison or Exile*, 72-3.

다음 날 밤, 군인들이 세라 수도원을 포위하는 동안, 경찰은 내부에서 난동을 피우면서 시위 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아무나 체포했다. 3일 후인 10월 6일, 약 50명의 승려가 티베트 지역행정부 사무소 앞에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면서 9월 27일 최초의 원형 시위를 벌였던 드레퓌 수도원 출신 승려 21명의 석방을 요구했다.

티베인들에게 원형시위는 편리한 시위방식 이상의 것이었다. 어느 날이든, 수천명의 보통사람들이 사찰과 성지를 둘러싸고 기도바퀴를 돌리면서 염불을 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호라(Khorra)는 좋은 카르마를 쌓는 수단이며, 미래에 더 나은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다. 바로 시위대가 종교적 표현의 일반적 수단을 이용했기 때문에, 아무리 평화적이더라도, 경찰은 “유신론”에 대한 투쟁의 일부로 원형시위를 탄압할 필요를 느꼈다. 비록 10월 6일 승려들이 단지 평화적으로 걸었어도, 전투경찰이 출동해서 심하게 구타하고 체포했던 것이고, 그들이 저항하지 않았거나, 돌을 던지거나 심지어 깃발을 들지 않았어도 그랬다.<sup>49)</sup> 다음 몇주간, 500명 이상의 티베인들이 체포당했고, 대부분이 한밤중에서 도시가 잠든 사이에 집에서

45) Ronald D. Schwartz, *Circle of Protest: Political Ritual in the Tibetan Uprising*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22.

46) Qiogya, “What Really Happened in Lhasa,” in *Tibetans on Tibet* (Beijing: China Reconstructs Press, 1988), 188.

47) Ibid., 189.

48) Melissa Harris and Sidney Jones, eds., *Tibet Since 1950: Silence, Prison or Exile* (New York: Aperture, Human Rights Watch), 146.

49) Schwartz, *Circle of Protest*, 26.

끌려갔다. 10월말, 수십명의 사람이 바르호르에서 체포되었고, 군대가 그 지역을 점령했다.

비록 구타당하고 진압당해도 티벳인들은 조용히 있기를 거부했다. 다음 봄 그들은 다시 일어섰다. 1988년 3월 5일, 10일간의 문람 축제가 미르불을 들고 족항을 도는 것으로 끝나고 있을 때, 간덴 수도원의 승려들이 중국 관리들이 앉아있던 무대로 달려나갔다. 그들은 몇 달 전 체포되어 혐의없이 구금되어 있던 친독립 고승 율로다와체링의 자유를 요구했다.

[사진 15]

1988년 3월 5일 승려들이 시위를 주도했다. Photo from *Circle of Protest*, 112-113.

승려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 공산당 관리가 시위대에게 입 다물라고 소리치며 돌을 던졌다. 돌이 다시 날아가고 총성이 울렸고, 한 합파인이 쓰러져 죽었다. 약 200명의 승려들이 시신을 들고 족항 주위를 시계방향으로 돌았다. 종교를 자원을 이용하여, 시위대는 시신을 메고 족항을 돌았다. 세 번째 바퀴째, 2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참했고, 군중들은 중국 전투경찰을 쫓아냈다. 대규모 폭력이 그들에게 곧 가해질 것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승려들은 족항사의 무거운 문 안으로 피했다. 최루탄을 난사하면서, 쇠파이프와 못박힌 곤봉을 든 경찰이 공격했다. 일단 절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많은 사람을 죽였고, 수십명이 부상당했다.<sup>50)</sup>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지만, 늘어진 육체가 족항사 지붕에서 바르호르 광장으로 던져졌다.

거리전투가 밤까지 이어졌고, 바르호르의 시위지역에 바리케이드가 세워졌다. 승려들은 쉽게 식별되는 것을 피하려고 옷을 갈아입었다. 라사 전역의 전투에서 새총과 돌이 사용되었다. 한 승려에 의하면, “티벳인들은 말한다, ‘이제 우리는 모든 중국인들을 몰아내야 한다.’ 그런데 두가지 의견이 있었다. 하나는 중국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중국인과 싸워서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의견은 그들이 중국인인 한 우리는 그들과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다.”<sup>51)</sup> 밤늦게, 최소한 하나의 중국식당과 약국이 불탔는데, 명백히 처음으로 시위대가 중국인 사업을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중국인 경찰 한명이 죽었고, 28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민간인 희생은 더욱 심했다. 한 목격자는 16명이 죽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날, 한 거리 벽보는 족항 내부의 한 불전에서 12명의 승려가 죽었다고 주장했다. 이후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군이 20명의 승려를 구타해서 죽였고 200명을 끌어냈다고 하며, 그들은 수천명이 티벳인들이 고생하는 중국감옥의 철창 안으로 사라졌고, 수천 명이 더 사라졌다.<sup>52)</sup>

감옥에서는 구타, 전기충격, “진실” 혈청 주입, 얼음물 목욕, 로프 매달기 등 수많은 가학적 고문이 자행됐다. 1988년 7월, 구차 교도소에는 여성 죄수들에게 개를 풀었다고 보도되었다.<sup>53)</sup> 어떤 여성들의 몸 안에 전기막대를 밀어 넣었다고 한다.<sup>54)</sup> 1990년 2월 아시아워치는 티벳을 “중국 공안세력의 고문기술 실험실”이라고 불렀다.<sup>55)</sup> 많은 죄수들이 재판조차 받아 못했지만, 다른 죄수들은 빈약한 증거로 허술한 재판을 받았다.

1988년 여름, 죄수 학대와 경찰폭력이 만연한 동안, 두레퓔 승려들(모두 1987년 9월 27일 시위의 베테랑)이 목판을 사용하여 11쪽짜리 선언 “티벳의 고귀한 민주헌법의 의미”를 인쇄했다. 티벳을 “도왔다”는 중국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 문서는 독립 티벳의 윤곽을 그렸다. 승

50) Testimony in *ibid.*, 80-83.

51) *Ibid.*, 83.

52) 1959년 체포되어 중국 감옥에서 16년을 보낸 승려인 롭상 보르부는 자기 주변에서 수천명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다. 일부는 일상적 조건의 야만성에서 탈출하기 위해 심지어 “자기 목을 긋기도” 했다.

53) John Ackerly and Blake Kerr, “Torture and Imprisonment in Tibet,” in *The Anguish of Tibet*, eds. Petra Kelly, Gert Bastian, and Pat Aiello (Berkeley: Parallax Press, 1991), 122-123.

54) Schwartz, *Circle of Protest*, 9 8.

55) Quoted in Craig, *Tears of Blood*, 18.

러들은 “티벳의 광범한 대중의 협력과 동의에 기초하여 ... 또는 권력이 민중에 의해 제한되는 대표자들에 의한 정치사회적 조직화”를 요구했다.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다: “오류로 가득찬 낡은 사회의 관행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미래의 티벳은 우리의 과거 상태와 닮지 않을 것이며, 농노제의 회복이나 이른바 연이은 봉건적 주인 또는 수도원 보유지의 이른바 ‘낡은 체제’의 지배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공포, 위선 또는 은폐의 필요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상이한 개인적 견해”를 가진 민중의 자유를 옹호했다.<sup>56)</sup> 선언문을 썼다는 이유로 이후에 한 승려가 19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승려들은 공산당이 소집한 공개집회에서 비난받았고, “자신의 행동으로 불교의 종교적 교리와 계율을 철저히 배신한 종교계의 쓰레기”라고 지적받았다.<sup>57)</sup>

1988년 9월 27일 중국경찰에 의한 새로운 사찰침해에 대응해 시위가 발생했다. 다음달 라사에서 16세 청소년이 총에 맞아 죽었다. 1988년 그 이후에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를 방문하던 달라이 라마가 중국의 티벳 외교정책 통제를 제안했다. 1989년 그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1988년 12월 10일, 인권의 날 40주년 기념일에, 시위대와 수백명의 경찰이 라사에 왔다. 주로 승려와 여승들은 소그룹으로 몰려 만나서 행동을 준비했다. 그날 중국당국은 티벳 어린이들이 시위에 참여할까 두려워 아이들을 학교에서 보내주기를 거부했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티벳인들은 일이 끝나도 집에 가지 못했다. 아주 많은 중국군인들이 족향 근처에 주둔해서, 승려들은 시위를 시작한 장소를 라모체 사로 바꿨다. 30~40명의 승려와 여승으로 된 작은 그룹이 갈포라는 이름의 승려가 든 깃발을 따라 족향사로 향해 걸어갔다.<sup>58)</sup> 그룹이 둘로 나뉘지자, 다른 깃발이 등장했다. 경찰은 경고 없이 약 200명으로 늘어난 첫 번째 그룹에 달려갔고, 경찰서장이 발포하여 깃발을 든 승려를 죽였다. 최루가스를 사용한 다음, 경찰은 자동화기로 지역 전체에 대해 총격을 가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부상시켰다. 부상자 중에는 네덜란드 관광객도 있었는데 그녀는 18명이 죽고 70 내지 80명이 부상당했고 믿었다.<sup>59)</sup> 다른 사상자 추정치는 더 낮았지만, 모두 경찰이 경고 없이 발포했다는 데는 일치했다. 한 미국 관광객에 의하면, “시위대는 완전히 비폭력적으로 구호를 외쳤을 뿐, 어떤 종류의 무기도 소지하지 않았고 돌도 던지지 않았다.”<sup>60)</sup> 1주일 후인 12월 18일, 60명 이상의 티벳 학생들이 베이징의 티아난먼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1989년 1월 28일, 판첸 라마가 공개적으로 베이징의 정책을 비판하고 티벳에 더 많은 자치를 요구한 지 1주일 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가 살해당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라사에 “독립봉기조직”이 서명한 전단지들이 등장했다. 이 그룹은 왜 티벳인들에게 판첸라마의 시신을 볼 수 없게 하는지 물었고, 공개적 검시를 요청하는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선언했다.<sup>61)</sup> 라사에서 대규모 시위를 막기 위해 당국은 국가 장례식을 수천마일 떨어진 베이징에서 거행했다. 비록 종교 지도자들이 전통적으로 후계자를 결정하지만, 중국총리 리펑은 정부가 그의 후임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산발적 시위대와 독립봉기조직이 서명한 포스터는 민중들에게 족향참사의 1주년이 되는 3월의 설날(Losa) 축하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2월말 1,700명의 행진을 포함한 승려와 여승들의 조직적 시위가 수백명의 경찰에 의해 진압당했다. 여승들이 운동의 지도자로 등장했다.<sup>62)</sup>

56) Schwartz, *Circle of Protest*, 126-7.

57) Quoted in *ibid.*, 125.

58) See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Repression in Tibet, 1987-1992.”

59) Christa Meindersma, “Eyewitness Report: Tibet, December 10, 1988,” in *Anguish of Tibet*, 245-247.

60) Schwartz, *Circle of Protest*, 140.

61) 비록 중국정부는 달라이 라마에 대하여 판첸 라마를 이용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는 1964년 달라이 라마를 비난하기를 거부했고, 그 이후 13년 동안 사라졌다. 1987년 3월 28일 판첸 라마는 베이징의 전국인민대회 소위원회에 강력한 호소를 전하면서, 암도에서 일어난 PLA의 민간인 살해를 “참사”로 언급했다. See <http://www.tibet.com/WhitePaper/white5.html>.

62) 1992년 2월 21일 티벳정보네트워크(Tibetan Information Network)에 의하면, 1987년 9월부터 1989년 9월까지 여승들이 25회의 시위에 참가했고,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독자적으로 책임졌다.



3월 1일, 8명의 여승이 행진했고, 다음날 37명이 함께 걸었고, 3월 14일 몇 명의 승려와 수십명의 사람이 약 13명의 여승들에게 합류했다. 일요일인 3월 5d일, 작은 그룹이 즉항의 원형시위를 시작했고, 시위는 수천명의 행진으로 커졌다. 30년만의 최대시위였다.

폭동이 일어나면 다른 많은 사건들에서 그랬던 것처럼, 경찰폭력이 반응을 촉발했다.<sup>63)</sup> 정오 경 즉항사 근처 바르호르 시장에서, 중국경찰이 근처 옥상에서 병을 던지자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경고없이 경찰이 발포하여 최소한 2명을 죽였다. 오후 3시경, 사람들이 다시 모여 행진했다. 최루가스에 맞서 돌을 던지면서 그들은 다시 경찰에게 총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경찰이 자동화기를 사용했다.<sup>64)</sup> 죽은 사람 중의 하나는 티벳국기를 가진 “유죄” 혐의였고, 사실당할 만한 “범죄”였다. 총격으로 수십명이 부상당했다. 군인들이 티벳 식당을 부순 후에, 사람들은 중국 상점을 공격하여 태우고, 상품을 거리에서 태웠다. 가구는 바리케이드로 세웠고, 이제 라사 시민들에게 익숙한 방어수단이었다. 다음날 다시 시작된 시위는 경찰발포로 더 많은 사상과 부상자를 남겼다. 시위대는 옥상의 경찰저격수가 사격을 지속했음에도 정부관청을 공격했다. 중국군 부대는 티벳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내 중심부에서 철수했다.

새로운 물결의 시위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사찰의 습격, 250명 학살이었고, 마지막으로 1989년 3월 8일 387일간 계엄령을 내리는 것이었다.<sup>65)</sup> 중국당국은 모든 외국인들에게 티벳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2천명의 중무장 부대가 라사의 티벳인 지구를 점령했고, 1천명의 사람이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었다.<sup>66)</sup> 악명높은 드랍치 교도소는 새로운 수감자로 넘쳐났다. (정부는 라사에서 16명의 시민과 경찰관 1명이 죽었다고 보고했지만, 목격자들은 3월 5,6,7일에 60명 이상, 200명까지 죽었다고 주장했다. 중국측 소식통에 의하면, 도시의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경찰과 군이 1989년 여름까지 18개월 동안 600명을 살해했다.<sup>67)</sup>

차이가 무엇이든, 중국 지도자 자오지양과 리펑(곧 숙적이 된)은 티벳을 직접 방문했다. 1989년 2월, 판첸라마의 죽음 이후 티벳에서 긴장이 고조되자, 자오는 라사에 단호한 전문을 보내 “가혹한 예방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겨우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자오지양은 티안난면 광장의 학생시위대에 대한 동조 때문에 물러났고, 정부타도를 위협하는 학생주도 봉기에 대한 대응으로 베이징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정부의 티벳탄압 시 중국시민들의 침묵은 민주화운동의 운명을 봉인했다. 1989년에서 1990년까지 가혹한 계엄령의 1년 이후에, 티벳의 공산당 서기 후진타오는 군대의 “불멸의 행동”을 칭찬했다.<sup>68)</sup> 티벳에 계엄령 강제 이후, 후진타오는 2002년 중국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 지속되는 저항

너무나 많은 활동가들이 혹독한 상태 아래서 감옥에 갇혀 있어서, 티벳 감옥 안에서 저항이 확산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92년 드랍치에서 약 23명의 여성이 그해 3월 5일인 티벳 설날에 전통복장을 입었다. 죄수복을 입으라는 명령은 받았지만, 거부했다. 구타당하고 차이고 전기봉으로 찢려도 여성들은 계속 저항했다. 그들은 독립가를 노래한 것을 비밀리에 녹음하여 밖으로 내보냈다. 많은 여성이 테이프에 노래했다고 다시 한번 구타당하고 독방에 갇혔고, 형량은 5년에서 9년으로 연장되었다.<sup>69)</sup>

63) 다시 한번 한 유럽인 관광객은 이후에 이 사건들에 대해 증언했다. See Susanne Maier, “Impressions of Lhasa, March 1989,” in *Anguish of Tibet*, 248-251.

64) Schwartz, *Circle of Protest*, 157.

65) Pico Iyer, “Tibet’s Nobel Man,” *Time* (Hong Kong) 173, no. 25-6 (June 29-July 6, 2009) ,68. 그는 1989년 3월 시위 이후에 라사에서 250명이 죽었다고 집계했다.

66) Amnesty International, “One Year After Martial Law: Update on Human Rights in Tibet,” in *Anguish of Tibet*, 252.

67) *Tibet: The Lost Nation* (film, 1989).

68) Speech of April 30, 1990 as reported in *Tibet Review*, September 1990,4.

69) Steven Marshall, “Prisons in Tibet,” in *Tibet Since 1950*, 147.

1993년, 1996년, 1997년, 1998년 단식농성으로 저항은 계속되었다. 1998년, 죄수들은 5월 1일 국제노동자의 날을 지키기 위해 드랍치 내부에서 모였지만, 일부는 계속 독립구호를 외쳤다. 그들에게 총격, 구타, 전기봉이 가해졌다. 3일 후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고, 치명적 폭력이 다시 한번 사용되었다. 사망자는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며, 여승 6명, 승려 4명, 기타 1명이다. 원래 사건 한달 더 지난 6월 7일 여승 6명이 자살했다.<sup>70)</sup>

티베트인들은 산발적인 시위로 중국의 통제에 계속 저항했다. 1996년 5월, 70명의 간헐 승려들이 체포되었고, 시위도중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sup>71)</sup> 1997년 쉬가체의 많은 승려들은 허가 없이 들어온 공산당 간부들에 협력하기를 거부했다고 수도원을 떠나야 했다. 1999년 3월, 독립구호를 외쳤다고 바르호르에서 3명의 승려가 체포되었다. 2007년 8월, 리탕(치추안의 수많은 티베트주민이 사는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말축제에서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에게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로 돌아오길 원하는지 묻고 난 다음 수십 명이 체포되었다. 사람들이 질문했던 남자의 구급에 항의하기 시작하자, 경찰은 사람들을 해산시키려고 공중에 발포한 것으로 보도됐다. 약 200명이 체포됐다. 2007년 10월, 달라이 라마가 미국 의회에서 훈장을 받자, 수천 명의 경찰이 드레퓌 수도원에서 이를 축하하기 원하는 승려들과 대치했다.<sup>72)</sup> 티베트 전역에서 축하행사가 경찰의 관심을 끌었지만, 그럼에도 많이 사람들이 참석했다.

한족 인구의 대규모 티베트 이주로, 약 750만 한족이 6백만 티베트인보다 많았다. 토지에 대한 특별한 권리주장은 미국의 원주민의 주장과 급속히 비슷하게 되고 있다. 항공편과 중국동부의 직접적 철도연결로, 티베트에서 관광은 경제의 발전하는 부분이 되었다. 중국계 상인들은 국영상점에서 사찰 귀중품을 판매한다. 고대의 성지는 열려있지만, 승려의 숫자는 국가에 의해 제한되며, 현대적 상황 때문에 종교의 호소력이 없다. 1994년 7월 베이징의 제3차 전국티베트포럼은 수도원과 수녀원에 대한 한층 가혹한 감독, 조금이라도 민족주의적 동조로 의심되는 티베트인의 숙청, 티베트 청소년 교육에 대한 통제강화, 한족의 인구이전 증가, 달라이 라마에 대한 공격캠페인 등을 결정했다.<sup>73)</sup> 1995년 달라이 라마와 공산당 정부는 따로 다음 판첸라마로 선택했고, 달라이 라마가 선택한 소년은 실종됐다.

오늘날 티베트에서 두 개의 담론이 헤게모니 경쟁을 벌인다. 티베트인들에게 3월 10일은 티베트 민족봉기의 날, 1959년 라사봉기의 기념일인 반면, 베이징은 1959년 달라이 라마의 신권통치와 “노예제”의 폐지를 상징하는 “농노해방일”로 3월 28일을 경축한다. 2008년 중국보안대는 수도원들을 조사하여 승려와 여승들에게 달라이 라마를 비난하는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거부하는 경우 수도원에서 추방되었고 때로 체포되기도 했다. 티베트의 자유에 대한 대항담론은 중국 내에서 검열당하지만, 티베트인들의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고수하며, 정열적으로 표현하지만, 효과적 조직을 결여하고 있다.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준비과정에서 그리스로부터 올림픽 송화봉송에 전세계적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는 중국의 티베트정책이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얼마나 훼손하지는 극적으로 보여줬다. 1959년 봉기 기념일에 라사에 모인 수백명의 승려들은 판첸라마를 포함한 구속된 동료들의 석방과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귀환을 요구했다. 경찰은 승려들을 구타했고, 승려들이 드레퓌 수도원으로 돌아가자 경찰은 다시 그들을 포위했다. 다음날 세라와 간헐의 600명 이상의 승려와 촛상의 여승들의 시위도 저지당했다.<sup>74)</sup> 다음날, 승려들이 다시 공격받자, 시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그들을 도우러 왔다. 그날의 전투에서 최소한 1천개의 중국인 소유 상

70) Ibid., 144-149.

71) Ardley, *Tibetan Independence Movement*, 24.

72) “Tackling Tibet,” *Time*, January 9, 2008.

73) International committees of Lawyers for Tibet, *A Generation in Peril: The Lives of Tibetan Children Under Chinese Rule* (Berkeley, 2001), 11-12.

74) Warren W. Smith, Jr., *Tibet's Last Stand? The Tibetan Uprising of 2008 and China's Response*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2010), 2.

접들과 수십대의 차량이 공격받았고, 한족들이 공개적으로 곤욕을 치렀다. 중국 언론에 의하면 라사에서 최소한 19명이 죽었고 325명이 부상당했는데, 대부분이 한족이었다. 시위는 시추안, 가누, 칭하이 지방으로 급속하게 퍼졌다. 모두, 소요사건은 약 177곳에서 일어났고, 2008년 봉기가 1959년 이래 가장 최대규모이고 가장 광범한 것이었음을 의미한다.<sup>75)</sup> 3월 10일과 22일 사이에, 125건 이상의 폭동이 기록되었다. 중국당국은 민간인 18명과 경찰관 1명이 죽었고, 시민 382명과 경찰 241명이 부상당했고, 가옥 120채와 차량 84대에 대한 방화, 1,367개 소규모사업체에 대한 약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sup>76)</sup> 티벳측의 통계수치는 훨씬 더 많다: 달라이 라마는 80명 이상이 첫 주에 사망했다고 추산했고, 티벳 망명정부는 2008년 6월 중국군에 의해 220명의 티벳인이 죽고 거의 1,300명이 부상당했다고 주장했다.<sup>77)</sup> 중국측이 주장한 4,434명 이상의 티벳인과 티벳측 소식통이 주장한 7,000명이 검속상당했다. 시아헤에서, 220명의 승려들이 체포되어 구타당했고, 시민들은 중국인소유 상점을 공격하여 대응했다. 경찰은 티벳인 여러명을 죽였다.<sup>78)</sup>

달라이 라마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아주 분명히 밝힌다. 그는 아주 많은 경우에 그가 “바로 처음”부터 무기사용에 반대했다고 솔직하게 진술했다. 아주 수많은 티벳인들에게 신이자 국왕인 그의 지위를 고려하면, 그의 반대만으로 어떤 저항군 또는 폭력을 수반한 봉기의 파멸을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 버마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한 개인의 지도력은 아무리 성스럽더라도 운동의 효용성과 효율성에 제약을 가한다.

다르살람의 티벳 망명정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되었고, 소수의 승려만을 포함한다. 달라이 라마는 공개적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옹호하며, 심지어 그의 후계자가 교황처럼 선출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그는 또한 중국정부가 별로 존경을 보여주지도 않았던 종교적 권위를 찬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죽기 전에 새로운 달라이 라마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록 그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연하고, 중국의 군사외교정책의 통제 상태에서 티벳의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고 해도, 그는 중국지도자들의 눈에는 여전히 추방자일 뿐이다.

티벳인들이 중국과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어서 비자본주의적 티벳인들의 현대성의 궤도로의 통합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층을 제공한다. 역사는 신비롭고 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20세기 후반 가장 중요한 중국 민중운동이 1989년 티벳봉기를 뒤이었다. 결국,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몽골인을 약화시킨 티벳인들의 역사는 대량살상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세계, 모든 형태의 생명이 존중되는 세계를 창출하는 데 그들의 역할을 미리 예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75) Free Tibet's website has an excellent BBC documentary available at <http://www.freetibet.org/newsmedia/uprising-tibet-video-chronology>.

76) Edward Wong, “China Has Sentenced 55 over Tibet Riots in March,”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ovember 6, 2008, 6.

77) Taiwan Foundation for Democracy, *China Human Rights Report 2008* (Taipei, 2009), 11.

78) Nicholas Kristof, “The Terrified Monks,” *New York Times*, May 15, 2008, A29; Smith, *Tibet's Last Stand*, 3.

[번역]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들 2권 5장

제5장: 중국

연표

4월 15일	당지도자 후야오방 사망, 1시간 내로 노동자들이 티아난먼 광장 집결
4월 18일	약 2,000명의 학생들이 티아난먼 광장에서 농성, 노동자들은 조직결성에 관한 토론을 시작
4월 19일	베이징 대학에서 학생자치회 결성, 티아난먼 광장에 학생 10,000명 상주
4월 20일	125명의 학생들이 경찰이 해산시킬 때까지 이를 동안 종난하이의 고급주택가에서 농성
4월 20일	베이징 보통대학 자치회 조직됨, 전도시적 학생조직화 호소
4월 21일	전날밤 경찰의 종난하이 농성 폭력진압에 대한 대응으로 수업거부 시작
4월 21일	60,000명 학생들이 축구장에 모여, 그날밤 후야오방 장례식에 참석하러 티아난먼으로 행진
4월 22일	하야오방의 장례식에 100,000명 이상 참석, "우리는 대화를 원한다"고 외침, 시안에서 대규모 시위
4월 22일	장례식 후, 학생들이 청원서를 들고 무릎을 꿇음, 아무도 나와서 받지 않음
4월 24일	자치회 학생연합이 베이징에서 결성됨
4월 26일	인민일보 사설, 반국가적 소요와 혼란 비난
4월 27일	경찰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10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티아난먼 광장으로 행진
4월 27일	48시간 행진, 500,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축제분위기에서 경찰에 반항함
4월 29일	공식적으로 인정된 학생그룹이 정부와 만남
5월 4일	1919년 학생운동 70주년 집회에 1백만 이상의 사람들 참여
5월 8일	일부 학생들 수업복귀, 나머지는 보이콧 선호
5월 10일	5,000대 이상의 자전거 시위, 언론인들의 언론자유 요구 지지
5월 11일	학생자치회 지도부를 제끼고, 경축운동 지도자들이 행동 계획
5월 13일	단식농성 시작, 곧 2,000여명 동참
5월 14일	TV 대담이 생방송이 아니라 사전녹화로 진행되자, 일부 단식농성자들이 촬영 방해
5월 15일	고르바초프 방문, 그러나 티아난먼 행사는 공항행사로 대체
5월 16일	300,000명이 단식농성자들에 동조하여 행진, 티아난먼 광장 점거
5월 16일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자오지양이 시위를 "애국적"이라고 부름, 단식농성 계속
5월 17-18일	3,000명 이상 단식 농성, 일부 실신, 이틀간 1백만명 이상이 지지 시위, 언론도 단식농성에 동조적 보조, 노동자들이 광장에 집결, 언론인 "더이상 거짓말 마라" 요구, 고르바초프의 방문으로 외신 기자들이 모이자 "우리 승리하리라" 노래함, 가수 수이지안 시위 참여
5월 18일	리펑 인민대회당 모임에서 단식농성자들에게 가혹하게 강의, 외부에서 중등학교 자치회연맹 결성
5월 19일	이른 아침 자오지양 눈물 흘리며 티아난먼 방문 및 타협 호소
5월 20일	계엄령 선포, 군대 동원, 베이징 노동자자치조합 계엄령 반대 총파업 호소 수십만 베이징 시민들 평화적으로 48시간 동안 군대 저지, 군대에 식량과 물, 꽃을 제공, 80개 이상의 도시와 600개 대학과 기술대에서 시위에 2,800,000명 참여, "날으는 호랑이"(시민 오토바이부대)가 군대의 이동 보고, 자오지양 당총서기 사퇴, 리펑 총리 승리, 군대 철수
5월 21일	베이징 TV방송 중지, 군대 증원병력 도착, 민중들의 봉쇄 지속
5월 23일	모든 자치그룹 조직 결성, 노동자, 학생, 지식인, 시민들이 매일 정오에 집

5월 27일 회, 5월 30일(계엄령 10일차)에 떠나기로 만장일치 결정  
홍콩경마장 자선 콘서트, 수백만 달러 건립, 중앙예술원 학생들 “민주주의의 여신상” 세움

5월 28일 새벽 4시, 다른 활동가들이 차이링과 펑총데(“사령관들”) 납치시도

5월 30일 10,000명의 학생만이 광장 점령

6월 2일 광장이 다시 채워짐

6월 3일 군대가 다시 티아난먼 광장을 비우려고 시도, 군중들 버스 저지

6월 4일 새벽 2시, 군부대가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 많은 군인들 사망, 밤이 되자 사람들이 장안로 모든 교차로에 집결, 군대가 실탄을 사용한다는 불신, 새벽 4시 45분 광장이 포위되고, 표결진행, 학생들이 광장을 떠남

6월 5-6일 베이징에서 총격 계속됨, 사상자 증가

6월 8일 정부 대변인 300명 사망, 7,000명 부상 주장

“중국이 잠자게 두라. 중국이 깨어나면 전세계가 뒤흔들릴 것이다.”  
- 나폴레옹

“인공위성은 이미 천국에 도달했지만, 민주주의는 아직 지옥에 잡혀 있다!”  
- 중국학술원 연구원들의 항의 플래카드

“무정부상태다, 그러나 조직된 무정부 상태다.”  
- 댄 래더, CBS 뉴스, 1989년 5월

1989년 중국의 학생 활동가들은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적 봉기를 촉발했고, 이 봉기는 베이징의 티아난먼 광장 주변의 노동자계급 교외의 대학살 이후 겨우 끝났다.<sup>1)</sup> 봉기를 개혁성향의 정치지도자들과 연결하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란은 중국공산당(CCP) 대외외부에 기원을 뒀다. 광범하게 학생운동으로 묘사되지만, 노동자들도 중요하게 참여했고, 특히 5월 20일 이후에는 거의 모든 베이징 주민이 참여했다. 티아난먼 광장의 시위대 기지를 청소하려고 군부대를 수송하는 끝없는 트럭대열을 성공적으로 저지했다. 1980년 광주에서 본 것처럼,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했지만, 일단 위협이 증가하자, 그들은 종종 집과 캠퍼스로 피신했던 반면, 노동자계급 활동가들은 운동의 전면에 나서 국가의 폭발한 분노에 정면으로 맞섰다.

공산당 엘리트들의 성전 안에서, 군부독재에 대한 반란의 전지구적 연쇄반응이 지속되는 동안, 개혁에 대한 중대한 지지가 당내에서 등장했다. 시위학생들에 동조한 이유로, 후야오방은 1987년 당총서기에서 물러나야 했고, 2년뒤 자오지양이 비슷하게 권력에서 밀려났다. 1989년 운동을 이전의 반정부 사건들과 구별되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결성된 자주적 조직들에 행기한 피플파워였다. 몇몇 지도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어떤 “총사령관”이나 중앙위원회도 전체 운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대학 캠퍼스와 현장에서 독립적 조직들이 풀뿌리에서 결성되어 투쟁으로 단결했다. 운동 내에는 다양한 다중적 경향이 동시에 공존했다. 학생지도자 우어카이시가 서구의 소비주의와 나이키 운동화에 대한 열망을 언급했던 반면, 베이징 자주노동자연맹(BAWF)은 수십개의 다른 그런 조직들과 더불어 사회주의의 틀 내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옹호했다. 중국운동과 체코슬로바키아 및 동유럽에서 동시에 일어난 운동 간의 중요한 차이는 중국의 반정부세력 사이에서 시장기반 자본주의에 대한 요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1978년 이래 덩샤오핑은 위로부터 일련의 총체적 개혁을 주도했고,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아주 주의깊게 양성된 국가통제 경제 내에서 시장 레닌주의 체제의 출현을 격려했다. 1978년 12월, 중앙위원회가 집단농장의 해체를

1) 비록 정부는 숫자를 줄여 발표했지만, 약 700명이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

명령하고 가족농장이 시장에 일부 상품을 판매할 권한을 부여하자, 마오주의 혁명의 가장 위대한 성과물 중의 하나가 사라졌고, 지역에 기반한 당관리들이 재빨리 부를 축적했다. 1980년이 되면 중국시민들은 새로운 시장지향 개혁이 가져온 높은 물가와 생활수준의 하락을 걱정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영광스런 일”이라고 덩샤오핑은 주장했지만, 많은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불안정해졌고, 경영진과 당 엘리트들은 분부시게 부유해졌다.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사회 중의 하나가 너무나 계층화되어서, 당은 결국 불평등을 측정하는 데이터의 발표를 중단했다.

1989년 반란은 베이징에 한정되지 않았다. 봉기가 유혈사태로 끝날 때까지, 에로스 효과가 중국을 휩쓸면서 80개 이상의 도시가 수백만 민중이 참여하는 이런저런 종류의 동원을 경험했다. 몇 년 뒤, 사람들은 1989년에 투쟁했던 사람들을 가리켜 “1억명의 영웅들”이라고 불렀다. 비록 이는 놀라운 숫자이지만, 중국인구의 약 10퍼센트만을 포함하는 수치다. 2006년 마지막 시위 날에 3,000만명 네팔인구 중에서 4백만명(약 12퍼센트)이 동원됐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양자의 숫자를 광주시민 750,000명 중에서 5월 2일 동원된 300,000명(약 42퍼센트)과 비교하면 이 투쟁들의 상대적 강도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다. 중국의 정치적 변화의 잠재력이 1989년 압도적 힘에 의해 좌절당하고 이후 몇십년에 걸쳐 경제개혁으로 무더졌지만, 중국의 미래를 위한 궤적은 1989년 사건의 고조시 등장한 투쟁과 열망에서 드러난 것처럼, 중국에서 변화하는 자유의 성격에 대해 중요한 단편을 얼핏 보여준다.

서구언론의 티아난먼 광장 점거 취재와 이후 중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도는 비록 양적으로 활발해도 의심스럽다. 많은 서구의 목격자들이 중국의 사건을 유교문화와 아시아의 정치경제적 발전의 맥락보다 1989년 소련의 지배를 타동한 동유럽의 동시적 봉기들의 틀에 짜맞추었다. 공산주의를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한국과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형성함에 있어 아주 파괴적이었던 반공주의적 서구 이데올로기의 강제는 1989년 중국의 역사를 왜곡한다.

수십년간 미국은 2차대전시 동맹이었던 중국 공산주의에 대해 전쟁을 수행했다. 일본 패전 이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50,000명의 미국 해병대에게 일본군과 협력하면서 공산당에 맞서 장카이썸의 편에서 싸우라고 명령했다. 미군은 즉각 의심의 눈초리로 장교들을 바라보면서 임무에 관한 설명을 요구했다. 1945년 크리스마스경, 한 미군 중사는 “그들은 나에게 왜 그들이 여기 있는지 묻지만, 일본군과 똑같은 철도를 지키는 부하에게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하러 여기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고했다.<sup>2)</sup> 1946년 당시 100,000만명 이상의 육해군이 중국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후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 동안, 미국은 장카이썸과 궈민탕(KMT)을 원조한 반면, 서구언론은 마오쩌둥과 공산당을 악마화했다. 중국이 1949년 치욕스런 패배를 당하자, 미군은 다음에 이웃 조선의 내전에 대대적으로 개입했다. 공산주의에 대한 전쟁이 격화되자, 매카시즘은 미국을 양극화시켰고, 미국 비행기들은 조선과 국경을 맞댄 중국측을 반복적으로 공격했다. 마침내 CPP가 군대에게 미국에 반격할 권한을 부여했다. 미국 지상군은 아주 전투력이 형편없어서 공중전의 우세와 생화학전이 없었다면 미군은 아마도 패배했을 것이다. 1952년 1월부터 3월까지 상당량의 증거에 의하면 미국의 대중국 세군전이 조선에서 “넘어갔”으며, 포로로 잡힌 38명의 미공군 장교들의 증언과 스웨덴, 이탈리아, 브라질, 소련, 프랑스, 영국 과학자들이 공동작성한 600쪽 보고서도 증거에 포함된다.<sup>3)</sup> 유혈사태가 멈추자, 중국측 사상자는 마오쩌둥의 장남을 포함해 수십만명에 이르렀고, 수백만명의 조선인들도 죽었다. 한국전과 베트남전이 중국의 국경에서 벌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1960년대 내내 미군은 타이완의 중국령 쑤모이섬과 맞추섬 포격을 지원했다. 필자가 어렸을 때 타이완에 살았는데, 밤에 타이페이 외곽의 우리 집 근처에 있던 외진 방공 주위로 어둠

2) Blum, *Killing Hope*, 22.

3) *Ibid.*, 26.

속을 걸으면 하늘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부친은 미국의 장거리 포격이라고 설명했다. 1959년 5학년때, 친구중의 하나가 학교도 돌아오지 못했던 일을 기억한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는 둘다 장카이썬 군대에 포지션을 제공하는 미군장교들이었다. 아버지는 친구 아버지가 월단위 섬근무 교대로 갔다가 죽었다고 말했다.

“고대” 역사는 현대에도 되풀이된다. 1999년 베오그라드의 중국대사관은 고의적인 폭격을 당했고 미국이 주도한 나토의 세르비아 공습시 미군 전폭기의 폭격을 받았다. 최소한 세명의 중국인이 죽었고, 건물은 불탔다. 오늘날 미국의 세계전략이 미군기지로 중국을 계속 포위하는 것임은 비밀이 아니다. 이런 동학은 미국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는다. 동시에, 새뮤얼 헌팅턴은 마지막 책 중의 하나에서 미래 미중전쟁의 가능성을 침착하게 논의했다.

#### 문화혁명의 1989년 운동에 대한 기여

아주 흔하게 돌이켜 볼 때 가능할 것같지 않는 불길한 사건들에서 사회운동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주언라이의 죽음 3개월 후인 1976년 4월 티아난먼 광장에서 사람들이 흰 조화를 바치는 걸로 보기에 중요치 않은 장면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주언라이의 삶에 대한 최초의 자연발생적 추모 며칠 안에, 수천명이 꽃을 바치고, 시를 남겼고, 강경파 “4인방” 지도자들이 중요성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인물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도착했다. 주언라이 추모는 그의 제자 덩샤오핑 같은 보수파의 지속적 주변화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유일하게 허용된 공적 수단이었다.

4월 4일 일요일에 2백만명으로 추산되는 인파가 광장을 방문했다.<sup>4)</sup> 다음 날, 경찰은 모든 꽃을 치웠고 추모장을 청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아왔다. 해산명령을 받고도, 군중들은 경찰이 곤봉을 들고 이동하자 반격했고, 일어난 난투 속에 경찰호송차를 전복시켰다. 곧 노동자 민병대가 도착해서 추모자 집회를 해산시켰지만, 피해는 이미 가해졌다: 4월 5일 사건은 “반혁명적”이라고 규정됐다. 무대 뒤에서 시위를 고무했던 데 책임있었던 덩샤오핑은 모든 책임있는 지위에서 해고당했고, 마오쩌둥은 두 번째로 덩샤오핑을 “참회하지 않는 자본주의적 경로의 주창자”라고 비난했다. (첫번째는 1066년 문화혁명의 정점에, 덩샤오핑은 수년간 농촌으로 추방당했다. 곧 이어 급진적 베이징대 학생들이 그의 장남을 구급했다. 덩샤오핑의 아들은 도망치려다가 4층 기숙사 창문에서 뛰어내려 하반신 마비의 치명상을 입었고, 이 비극 때문에 덩샤오핑은 학생운동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sup>5)</sup>)

서구의 분석가들은 동유럽과 중국 활동가들이 공산당 지배 이전에 민주주의를 경험했을 것이고, 중국에는 시민사회가 없으며, 아니 1989년 격변 속에서 태어났다고 오랫동안 가정해왔다.<sup>6)</sup> 그러면서 그들은 유럽과 미국의 특수한 모델이 시민사회를 정의하는 것으로 여겼고, 다문화적 현실을 무시한다.<sup>7)</sup> 중국농민들이 주도한 봉기의 세기들은 “왕조적 주기”를 구성했다. (이 체제들은 권좌에 올라, 거기에 남아있기 위해 군사예산을 증가시키고, 군대에 지불하려 세금을 올렸지만, 그 이후 민중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왕조를 타도했고, 이로써 주기의 반복으로 이어졌다.) 보다 최근의 시민활동에는 1796년과 1801년 사이의 백화단의 난, 밍왕조 후기의 수많은 공적 마인드의 문인네트워크, 1860년대의 타이핑 반란, New Text 유교, 일

4) Roderick MacFarquhar, *The Politics of China: The Eras of Mao and De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303.

5) Jan Wong, *Red China Blues* (New York: Anchor Books, 1997), 44.

6) See Mark Selden, “Limits of the Democratic Movement,” in *Chinese Democracy and the Crisis of 1989*, eds. Roger Des Forges, Luo Ning, and Wu Yen-bo (Albany: SUNY Press, 1993), 112.

7) Jack Goody, “Civil Society in an Extra-European Perspective,” in *Civil Society: History and Possibilities*, eds., Sudipta Kaviraj and Sunil Khilnan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에서 좋은 반증을 발견할 수 있다. Goody는 중세 중국에서 길드의 중요성과 다른 구체적인 시민사회의 예를 지적하는 것 외에도, “동방 통치자들의 탐욕과 폭정은 자주 과장된 반면, 서구 통치자들의 그것은 축소됐다”(155)고 주장한다.

본에 패한 이후의 개혁운동, 5월4일 봉기 등이 포함된다. 이런 풍부한 전통과 나란히, 시민적 문제에 대한 민중의 직접참여의 사례는 1949년 이후에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1957년 참담한 대약진운동에서 10년 뒤의 문화혁명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정치변화를 위한 운동에 대한 대중적 참여를 통해 수백만 중국인민들은 과거의 역사를 투쟁의 원천으로 삼아서 귀중한 경험을 축적했다.<sup>8)</sup> 인적 피해는 엄청났지만,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수백만 민중들은 중국의 정치발전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미국 반공주의(부시정권에서 네오콘을 풍부하게 제공한 트로츠키주의 경향을 포함하여)의 마니교적 세계에서 문화혁명은 순전히 혐오대상이었다. 중국과 미국 모두의 주류 역사학자들은 문화혁명을 확실한 어조로 비난하지만, 문화혁명은 “중국사회의 성격에 대해 점차 깨달아가는 중국 청년들의 역사”로 볼 수도 있다.<sup>9)</sup> 민중들이 권력을 자신의 손으로 차지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문화혁명은 저항의 문화를 건설했고, 풀뿌리로부터 자신있게 말하도록 격려하는 원천이 됐다는 확실한 증거도 있다.<sup>10)</sup> 문화혁명의 중대한 문서인 마오쩌둥의 유명한 “16개조”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약속했다. 마오쩌둥은 관료제를 대체할 선거를 옹호했고, 1871년 파리코뮌(모든 선출된 대표는 즉각적인 민중소환에 응해야 했다)처럼 맑스주의의 민주적 경향을 토대로 그의 생각을 정립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문화혁명은 국가관료주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동원이며, 그 시기 민중의 경험은 1989년 뜨거웠던 순간에 끌어낼 자원이 됐다.

문화혁명의 정점인 1968년 마오쩌둥의 홍위병 해산 이래, 중국의 학생운동은 서서히 재건됐다. 객관적 요소(학생들의 숫자, 캠퍼스 집중, 정부의 한자녀 정책)와 주체적 요소(일상적 경험의 질, 과거 투쟁의 유산, 새로운 형태의 자유에 대한 열망) 양자에서, 학생들은 1989년 거대한 대중적 환호 속에서 그들이 획득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위치에 있었다. 비슷한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국가의 주인이라고 칭송되는 중국의 노동자계급은 중국의 철저한 장기적 변혁을 수행할 조건에 놓여있었다.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문화혁명은 거리시위의 윤리와 예절에서 수천명의 민중을 훈련시켰다. 1989년 한 결정적 순간에, 총격이 시작되기 바로 하루 전에, 대치상태에 있던 군인과 시위대는 노래경연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문화혁명 때 흔히 사용된 기술이었다.<sup>11)</sup> 또 다른 이월된 경험은 노동자들이 해외 가족여행에서 리무진과 사업에 이르기까지 고위관료들의 특권을 상세하게 폭로한 것이었는데, 이는 문화혁명 동안의 반엘리트주의 반부패 캠페인에서 직접 물려받은 것이다. 그들의 한 전단이 표현한 것처럼, “관료적 고양이들은 살찌고, 인민들은 굶주린다.”<sup>12)</sup>

문화혁명의 경험은 황제가 천명(권력을 부당한 방식으로 휘두르면 취소할 수 있다)으로 통치하며, 인민은 불만의 시정을 위해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관리들은 지혜롭게 대응할 상응

8) Frederic Wakeman, “Boundaries of the Public Sphere in Ming and Qing China,” *Daedalus* 127, no. 3 (1998). Wakeman은 이 사건들의 잔재가 남아 문화혁명에서도 지속됐다고 주장한다.

9) Stanley Rosen, “Guangzhou’s Democracy Movement in Cultural Revolution Perspective,” *The China Quarterly* 101 (March 1985): 28.

10) 명백히 중국에도 문화혁명에 대한 반감은 심각하다. 문화혁명이 끝난 지 10년후에도, 황샤오광은 우한성에서 85명과 인터뷰를 하면서 문화혁명이 다시 일어나면 참여하겠냐고 질문했다. 모든 응답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했지만, 부패한 관료에 반대하는 운동에 대해 똑같은 질문을 하자 모두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Shaoguang Wang, “From a Pillar of the Community to a Force for Change: Chinese Workers in the Movement,” in *Chinese Democracy and the Crisis of 1989*, eds. Roger De sForges, Luo Ning, and Wu Yen-bo (Albany: SUNY Press, 1993), 177.

11) Geremie Barmé, “Beijing Days, Beijing Nights,” in *The Pro-Democracy Protests in China: Reports from the Provinces*, ed. Jonathan Unger (Armonk: M.E. Sharpe, 1991), 39.

12) Quoted in Andrew G. Walder and Gong Xiaoxia, “Workers in the Tiananmen Protests: The Politics of the Beijing Workers’ Autonomous Federation,” *The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29 (January 1993): 2, 19. Also available at <http://www.tsquare.tv/links/Walder.html>.



하는 책임이 있으며, 모두가 부당한 명령에 맞서 반란할 권리가 있다는 수세기된 관념을 풍부하게 했다.

## 경제개혁

1976년 9월 9일 마오쩌퉁이 사망한 그 달에, 당보수파는 신속한 조치로 “4인방”과 그들에 결탁한 수백명을 권력에서 제거했다. 1978년 11월까지, 덩샤오핑은 고위직으로 복권됐고, 1976년 4월 5일 사건은 “혁명적 사건”으로 재분류됐다.<sup>13)</sup> 당이 1976년 사건의 정당성을 인정 한 이후, 즉각 분위기가 바뀌었다. 베이징에 대자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연발생적 풀뿌리 주도력의 이런 분출이 서구 미디어에 알려진 것처럼 “민주주의의 벽 운동”은 처음에 최고 당지도자들의 격려를 받았지만, 다른 도시들로 확산되자,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공격대상이 될까봐 걱정했고, 특히 경제개혁이 12월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더욱 그러했다.

4인방의 숙청으로, 수십만명의 하방된 홍위병들이 농촌에서의 “잃어버린 10년” 이후에 도시로 돌아왔고, 문화혁명 동안 감금된 수천명의 죄수들이 풀려났다. 감옥에서 석방된 사람들 중에는 집단적으로 리이제(리이제)라고 알려진 세명의 광저우 출신 민주화 활동가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오랫동안 개인적 권리의 법적 보장을 옹호했었다. 1968년 해산한 문화혁명 시기의 급진적 분파들은 1970년대 중반 재구성되어 덩샤오핑과 새로운 당엘리트들에 의한 자본주의 회복에 반대하여 조직하기 시작했다. 문화혁명의 유산인 이 지속적 저항문화는 1978년 운동 뒤의 핵심세력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며, 후베이외의 복두철성 연구단과 양쯔강 논평, 베이징의 3월3일 분파(관료가 아니라 근로인민이 “사회의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후난의 임시혁명 대동맹위원회 등이 그들이다.<sup>14)</sup>

이 격동적 시기에, 홍위병 출신 젊은 전기기사인 웨이징생이 덩샤오핑(당시 당지도자)을 공격하는 포스터에 그의 이름으로 서명했고, 민주주의(“제5 현대화”)를 요구했다. 웨이징생은 중국 최초의 독립잡지 <모색>(Exploration)의 설립을 도왔다. 곧 다른 사람들이 <베이징의 봄>, <계몽>, <오늘> 등에 반정부 시와 논문을 발표했다.<sup>15)</sup> 그해 겨울, 농촌 사람들이 불만의 격류 속에 수도로 몰려왔다. 오합지졸 농민들은 강력한 지방 공산당 간부들의 강간, 절도, 심지어 살인에 항의하기 위해 정부청사 밖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다. 한 강간 피해자는 최대의 행진을 조직했다. 청년 실업자들은 당엘리트 다수가 사는 배타적 주택지구인 중난하이[中南海] 진입을 전투적으로 시도했다. 3월 25일 웨이장생은 덩샤오핑을 “파쇼 독재자”라고 불렀다. 과거에 두 번이나 숙청당한 바 있던 덩샤오핑은 추방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며칠 안에, 30명의 활동가들이 체포됐고, 민주주의의 벽은 폐쇄됐다.

1979년 초, 4월 5일 사건의 공식 기념일이 다가오자, 왕시제(원래의 리이제 3인 중의 한명)는 격렬한 연설을 마치면서, 100명 이상의 지식인과 간부들에게 “펜을 잡고 진정한 민주적 권리를 대중들에게 가져올 투쟁에 펜을 사용하라”고 호소했다.<sup>16)</sup> 아무도 말만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왕시제는 “4인방”의 헌법적 보호(자유언론, 의견의 충분한 개진, 공개논쟁, 대자보)를 폐지하려는 덩샤오핑의 계획에 반대하는 캠페인의 조직화를 도왔다. 왕시제는 공개적으로 반정부 지도자들에게 다른 반정부 인사들의 구금에 항의하라고 촉구했고, 0980년 6월 베이징에서 지하활동가 비밀회의에 참석하여 중국 공산주의동맹(“새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당”으로 작동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sup>17)</sup> 1980년 중반, 21개 자율적 잡지들의 전국협회가 관료 엘리트들에게 반격할 대중적 민주주의운동을 호소했다. 비록 민주주의의 벽은 폐쇄

13) 가문의 명예가 중요한 사회에서, “의로운 것”과 “의롭지 못한 것”의 구별은 특히 중요하다. 미국에서 그런 시민적 지속성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부시 가문이 2차대전시 나치와 협력했다는 사실을 아는 미국인은 거의 없다. 이는 명예를 중요한다면 정치적 재앙에 해당하는 가문의 유산이다.

14) Rosen, “Guangzhou’s Democracy,” 2.

15) Wong, *Red China Blues*, 188-9.

16) Rosen, “Guangzhou’s Democracy,” 14.

17) *Ibid.*, 25.

됐지만, 저항의 흐름은 지속됐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그룹은 곧 덩샤오핑과 최고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1981년 탄압이 들어오자, 20명 이상의 활동가들이 검속당했다. 왕시제는 이후에 1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지도적 민주주의 옹호자들도 인민에 봉사한 대가로 비슷한 보상을 받았다. 관리들은 만약 다른 도시의 시위대가 서로 연결되면 그들이 당의 지도적 역할을 대체할까봐 두려워했다. 1981년 1월 당지도자 후야오방은 반정부세력을 공격했다: “이 불법잡지와 불법조직들은 ... 무대 뒤에 후원자를 갖고 있다... 당내에 ... 일부 젊은이들이 아주 똑똑해서 그들이 나라를 접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sup>18)</sup>

정부가 아무리 작은 잡지출판사를 탄압하고 과감한 활동가들을 고립시킨다고 해도, 민주적 정서는 계속 옹호됐다. 3년 안에,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요구는 당의 작가회의에서도 들렸고, 일부 작가들은 “창작은 자유를 필요로 한다”고 믿었다.<sup>19)</sup> 과학기술 인텔리겐차들은 “토론의 자유가 진리 추구의 전제조건”이란 관념을 밝혔다. 1985년 5월 정부는 허페이이 과학기술대학(UST)에 교육개혁 실험에서 일정한 자치를 부여했다. 그 이후 곧, 새로운 물결의 시위가 캠퍼스에 나타나, 학부가 학과장을 선택하고 학생들이 총장 자문단에 참석하는 등 개혁의 선두에 섰다. 1986년 7월, 푸잔 사회과학 학술원 원장인 리홍린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보장할 구체적 규정을 요구했다. 그해 가을 상하이의 한 잡지는 자유의 두가지 개념에 대한 해설을 발표했다: “만약 사회주의 사회가 개인에게 더 많고 더 큰 자유를 제공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 우월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 ... 민주주의와 자유는 아주 쉽게 마치 프롤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나 자유를 원치 않고 독재와 규율만을 원하는 것처럼, 부르주아지와 연관된 경멸적 단어가 될 수 있다.”<sup>20)</sup>

1986년 12월 5일, 허페이이 UST에서 학생들이 전인대의 폐쇄적 지명과정에 항의했다. 2주 안에, 허페이이 시위는 10여개 이상의 도시로 확산되어 거의 100,000명의 학생들이 상하이로 몰려왔다.<sup>21)</sup> 5일간의 공개적 소요 이후에 15개 대학의 학생대표들은 시 지도부와 그들의 요구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sup>22)</sup> 베이징대학의 벽보에는 이렇게 써있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한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우리는 과학기술대학의 학생운동을 지지한다.” 중국 전역에서 일어난 불만의 목록 중에는 다음 같은 것이 있다:

1. 광조우 종산대학에서 성해방에 관한 토론 금지
2. 베이징 대학의 11시 이후 소등정책
3. 단지 강력한 당관료와의 연계 때문에 자리를 유지하는 무능한 도서관 사서
4. 학생식당의 빈약한 음식서비스

상하이 시장 장쩌민과의 6시간 협의 동안 학생대표들은 네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주의, 학생운동의 중국기여 인정, 참여자에 대한 보복 금지, 학생들 자신의 신문을 발행할 자유. 3년 뒤, 이 문제들은 티아난먼 광장을 점거한 학생들에게 핵심이슈였다.

비록 1986년 시위가 약간의 개혁, 특히 전인대 후보 선출과정을 공개한 선거변화 등을 가져왔지만, 정부는 다시 탄압했다. 작가협회 회장은 당원자격을 상실했다. UST 총장과 부총장은 다른 직책으로 전보당했고, 당에서 축출당했다. 1980년 봉기에 반대한 당 총서기 후야오방은

18) *Freedom at Issue* 63 (November-December 1981), 24 as quoted in *Ibid.*,31.

19) David A. Kelly, “The Chinese Student Movement of December 1986 and Its Intellectual Antecedents,” *The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17(January 1987): 132.

20) Quoted in *ibid.*, 139.

21) Teresa Wright, *The Perils of Protest: State Repression and Student Activism in China and Taiwa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1), 24.

22) Julia Kwong, “The 1986 Student Demonstrations in China: A Democratic Movement?” *Asian Survey* 28, no. 9 (September 1988)- 970-972.

새로운 시위와 연관되어 1987년초 다른 두 명의 “당의 빛나는 지도적 인물”과 함께 퇴진해야 했다.<sup>23)</sup> 후야오방의 해임은 사실 그가 10년 전 학생들에게 반대했음에도 학생들과 민주 활동가들에게 영웅이 됐다.

더 많은 권리에 대한 풀뿌리 요구가 제기됨과 동시에, 정부는 경제의 중앙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1979년에서 1988년까지 정부계획의 생산통제로 철강은 77퍼센트에서 47퍼센트로, 목재가 85퍼센트에서 26퍼센트, 석탄이 59퍼센트에서 43.5퍼센트로 감소했다.<sup>24)</sup> 사적 산업이 장려되면서, 국영기업의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직면했다. 1988년 여름과 봄에 걸쳐, 셴양의 700개 공장들에서 400,000명이 정리하고 당했다. 고학력 엘리트는 중국이 점차 잘못 운영되고 타락한 것으로 보았다. 같은 시기에 파업이 범죄율처럼 증가했다.<sup>25)</sup> 6월초, 동료학생 한명이 살해되자 약 2천명의 베이징대 학생들이 티아난먼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정부가 지역의 범죄자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주기를 원했다.

확실히, 1979년과 1984년 사이에 인민들의 생활수준은 향상됐다. 1978년 경제개혁 개시부터 1987년까지, 38배 이상의 시민들이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131배가 냉장고가 인민들의 손에 들어갔고, 겨우 1,000대에서 570만대의 세탁기가 사용됐다.<sup>26)</sup> 도시 노동자들의 총소비는 두 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1988년까지 곤혹스런 징후가 나타났다. 부는 고루 분배되기보다 새 호텔 건설에 사용됐고, 자본투자계획은 물가를 상승시켰다. 과거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인플레이션이 1985년 이전 3퍼센트 이하에서 1988년 18퍼센트로 증가했고, 일부에서는 실질 물가상승률이 1989년초 27퍼센트에 달했다.<sup>27)</sup> 실질임금이 정체하자, 생활비는 상승했고, 많은 사람들은 모든 거래에서 자기 몫을 떼어가는 관리들 때문이라고 믿었다. 1988년 세 도시 가구 중 하나가 구매력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했다.<sup>28)</sup> 1989년 첫 네달 동안 석탄가격이 100퍼센트 오르는 동안 식량가격도 상당히 올랐고, 채소값은 48.7퍼센트 상승했다.<sup>29)</sup> 수십년간 안정된 낮은 물가와 실업부재에 익숙하던 인민들은 새로운 불안정을 고통스럽게 경험했다.

표 12: 실질성장율과 물가상승률, 1985-1991년

연도	실질성장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1983	10.9%	2.0%
1984	15.2%	2.7%
1985	13.5%	9.3%
1986	8.8%	6.5%
1987	11.6%	7.3%
1988	11.3%	18.8%
1989	4.1%	18.0%
1990	3.8%	3.1%
1991	9.2%	3.4%

Source: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02 as cited in China Institute for Reform and Development,

23) Kelly, “Chinese Student Movement,” 127.

24) David Bachman, “Planning and Politics Since the Massacre,” in *The Aftermath of the 1989 Tiananmen Crisis in Mainland China*, ed., Bih-jaw Lin (Boulder: Westview Press, 1992), 301, 305, 308.

25) Richard Baum, “The Road to Tiananmen: Chinese Politics in the 1980s,” in *The Politics of China: The Eras of Mao and Deng*, ed. Roderick Mac Farquh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420-1.

26) Andrew G. Walder, “Political Sociology of the Beijing Upheaval,” *Problems of Communism* (September-October 1989), 33-34.

27) 물가상승률은 1951년에서 1978년까지 1퍼센트 이하, 1979년에서 1984년까지 3퍼센트 이하, 1985년에서 1987년까지 6.08.8 퍼센트였고, 1988년 공식 물가상승률은 18.5퍼센트로 치솟았다. See Calla Wiemer, “Price Reform Stalled: An Inherent Obstacle, A Missed Opportunity,” *Journal of Asian Economics* 1, no. 2 (1990): 371.

28) Wang, “Pillar of Community,” 184.

29) Bachman, “Planning and Politics,” 303; Baum, “Road to Tiananmen,” 420-421.

ed., *Thirty Years of China's Reforms: Through Chinese and International Scholars' Eyes*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2008), 81.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가는 테일러주의적 생산기술을 실행했고, 도급제 임금을 도입했다. 물질적 인센티브가 그들이 추구하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제공하지 못하자, 그들은 경영진의 권한을 확대했다. 새로운 1987년 법률은 노동자들이 불만을 시정할 어떤 동시적 메카니즘을 제공하지 않은 채 경영진에게 노동자들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새로운 법규는 또한 1988년 8월 300,000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허용했다. “불완전 취업자”로 분류된 약 1,500만 내지 2,000만명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될까봐 걱정했다. 갑자기, 수십년간 상승하던 기대가 불안정과 무능력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무너졌고, 사회학자들이 전보적 사회운동을 낳는 것으로 확인한 바로 그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동시에 엘리트와 근로인민들 간의 격차는 확대됐다. 엘리트들은 더 좋은 시절이 없을 정도로 잘 나갔다. 당간부들은 국가가 정한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상품의 재판매로 엄청난 이윤을 챙겼다. 그들은 외국에서 사치품을 사들일 수 있었고, 가족을 해외여행 보내주고, 고층빌딩에서 살 수 있었다. 당원들은 범죄혐의로 기소되어도 특별고려를 받았다.<sup>30)</sup> 덩샤오핑과 자오지양 의 자식들도 부패관행에 연루된 것으로 생각됐다. 게다가 모든 젊은이들이 고등교육의 부족한 자리를 얻으려고 경쟁해야 한 반면, 최고 당간부의 자제들은 특별입학허가를 받았다.

공식적 평등 이데올로기와 노동자들의 종속 간이 모순은 참을 수 없게 됐다. 산업과 소유의 국유화는 특히 덩샤오핑의 개혁 시작 이후 경제적 평등을 침해했다. 가장 선진적 계급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오랜 정부선전의 꾸준한 섭취로 자란 중국의 노동자들은 일상생활의 현실이 부유한 지도자들과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들의 번지르르한 정장과 리무진은 마오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는 인민들에 대한 지배의 너무나도 눈에 띄는 상징이었다. 중국의 경제는 지나간 시대, 농민과 프롤레타리아트 권력의 마오주의 시대의 사회적 관계 내에 긴박되어 있었다. 노동자들이 운명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하면서, 파업은 점차 선택의 무기가 됐고, 공식적으로 1988년 첫 10개월 동안 700건 이상이 집계됐다. 그리고 파업이 반드시 평화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해 1월과 7월 사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가한 276건의 구타사건으로 297명 이상의 경영자들이 부상당했다. 셴양(랴오닝)에서 3명의 도시경영자가 부하들에게 살해당했다.<sup>31)</sup>

램프에 다시 넣을 수 없는 우화속의 거인 지니처럼, 중국의 시위문화는 계속 성장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소비주의가 아방가르드 예술을 또 하나의 상품으로 전환시켜 그들의 전복적 호소력을 길들였던 반면, 중국의 예술가들은 반체제 반란을 계속 고조시켰다.<sup>32)</sup> 1980년대 중반까지 “정신적 오염”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시작되자 많은 이들이 중국을 포기했지만, 대체로 온 흐름의 합류는 신조류(New Tide) 운동으로 응집됐다. 1986년 시아멘과 베이징 대학에서 “다다” 퍼포먼스가 열렸다. 새로운 문화적 개방에는 TV 시리즈 <River Elegy>도 포함되는데, 이 드라마는 중국에서 전통문화를 제거하고 현대화-서구화하려는 감독의 열망을 강조했다. 한 저명한 잡지는 1988년 5월 “아방가르드 예술”에 관한 새 시리즈를 소개했고, 1989년초 “중국/아방가르드” 전시회의 개막식이 열렸다. 이 “최초의 현대예술 전시회”는 전화박스 장착 부품으로 권총이 발사되자 일찌감치 막을 내렸다. 관료들은 예술가들을 2년간 현대예술 금지로 처벌했지만, 운동은 그 누가 가능하다고 꿈꾸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등장했다.

1989년 위기

30) Han, *Cries for Democracy*.

31) Wang, “Pillar of Community,” 186.

32) Ralph Crozier, “The Avant-garde and the Democracy Movement: Reflections on Late Communism in the USSR and China,” *Europe-Asia Studies* 51, no. 3 (1999): 483-513.

1989년 4월 15일, 후야오방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1976년 4월 5일 운동 때에 그랬던 것처럼, 한 시간 안에 인민들은 티안먼 광장의 혁명영웅기념탑 근처에 집결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그룹들이 한데 어울려 열띤 토론을 벌이자, 많은 사람들이 미친한 수입마저 집어삼키는 인플레이션을 성토했다. 새벽 4시, 첫 번째 조직대오가 행진해왔다: 섬유성의 직원 20명이 기념비 제단에 꽃을 바쳤다.<sup>33)</sup> 12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첫 번째 학생 그룹이 도착했고(4월 16일 저녁 늦게), 그 때 약 300명의 베이징 대학생들이 점점 커지는 후야오방의 제단에 8개 화환을 바쳤다. 따라서 후야오방에 대한 자발적 추모를 시작해서 48일 이후 6월 4일 유혈사태에 도달한 사건들의 나선형 상승을 촉발했던 것은 노동자들이었다.

그 누구보다 더 학생들이 중국 전역에서 도시봉기들을 촉발한 정부와의 대치를 이끌었지만, 1989년 운동을 학생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봉기의 민주성을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중국 인들은 이 사태를 묘사할 때 “1억명의 영웅들”에 대해 말하지만, 1988년 정부는 겨우 200만 명의 학생만을 계산했다(비농업 노동력의 70퍼센트인 1억 500만 노동자들과 나란히).<sup>34)</sup> 학생들이 먼저 4월 17일 결정적 행동을 취했고,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관료들의 부패를 비판하는 청원서를 중난하이로 가져왔다. 다음 이틀 밤낮 동안, 아무도 학생들을 만나 청원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서 학생들은 거기에 앉아 농성을 벌였다.

1989년 4월 19일 베이징 대학(베이징 다쉐 또는 줄여서 베이다)에서 수백명의 학생들이 자주적 학생회를 결성할 기획위원회 구성의 승인을 외쳤다. 다른 캠퍼스들도 곧 자치회를 결성했고, 각 대학의 활동가들은 5-7인의 상임위원회를 선출하여 다른 상임위원회들을 전국규모의 조정그룹으로 연결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알지도 못한 채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정부기구에 비슷하게 자치 학생회를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다가오는 대화재의 씨앗을 뿌렸다. 베이다의 일부 학생들이 새 학생회를 조직하고 있던 같은 밤에, 수백명의 다른 학생들은 몇마일 떨어진 중난하이에서 농성을 했다. 도시 전역에서 그룹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티안먼 광장에 모여들었고, 세계경제포럼 및 <뉴욕저버> 잡지와 연결된 지식인들은 후야오방의 재평가를 논의하고 정치적 자유화에 반대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전환시키려고 학술포럼을 조직했다.<sup>35)</sup> 다음날 아침 베이징 보통대학(베이징 쉬판다쉐 또는 베이슈다)에서 3명의 활동가 친구들이 자치회를 결성하기로 결의했다. 선거 없이 3명은 단지 자신을 간부로 임명했고, 위카이시의 기숙사를 사무실로 삼았다.<sup>36)</sup> 그날(4월 20일) 저녁 늦게, 경찰은 곤봉으로 2일간의 중난하이 농성을 잔인하게 끝냈고, 이 최초의 유혈사태로 베이다 학생들이 수업거부를 주도했고 이는 수주 동안 지속됐고 다른 캠퍼스로 확산됐다.

티안먼의 노동자들은 학생들이 중난하이에서 구타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 노동자들은 학생들이 관료들에 대한 좌절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았고, 학생과의 대화로 재빨리 노동자들도 자주적 조직을 결성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학생들의 평화적 농성이 유혈사태로 끝난 소식을 듣고, 티안먼에 모인 20여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노동자가 일어서서 폭력을 비난하는 격한 연설로 그룹을 선동했다. 이를 전에, 이 그룹은 독자적 조직결성에 관한 생각을 나눴고, 경찰의 행동 이후 그들은 조직결성에 더욱 다가갔다. 비공식 그룹이 지도자들의 재산, 그들 가족의 부패, 경제정책에 대한 근시안적 영향을 폭로하는 두 개의 유인물을 출판했다. 덩샤오핑의 아들 중 하나가 홍콩의 경마장에서 얼마를 걸었는가? 자오지양은 골프여 행비를 자기 주머니에서 냈을까? 어떻게 그는 고급 양복을 사입을 수 있을까? 당엘리트들은 얼마나 많은 별장을 개인적 용도로 유지했는가? 그런 질문들과 함께 그들은 덩샤오핑의 경제개혁이 야기한 문제들, 특히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를 제시했다. 이런 온건한 행동으로, 베이징 자주노동자연맹(BAWF: Beijing Autonomous Workers' Federation)이 탄생했다 자율적 형태의 학생과 노동자 조직들은 결코 작지 않은 중요성을 갖는다. 이 자치에

33) Walder and Xiaoxia, “Workers,” 2.

34) Quoted in des Forges et. al., *Chinese Democracy*, 180. Thompson, *Democratic Revolutions*, 145.

35) Orville Schell and David Shambaugh, eds., *The China Reader: The Reform Era* (New York: Vintage, 1999), 82.

36) Wright, *Perils of Protest*, 35-6.

대한 민중의 열망이라는 현대적 자유의 중심적 특징은 봉기의 모든 곳에서 명백했다.

이어진 대격변의 여러주 동안, BAWF는 시위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했다. 4월 20일, 70-80명의 조직이었고 아무도 활동의 경험이 없었다. 그룹이 첫 번째 유인물을 내자,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나 동참했고, 그들 중의 하나인 한동팡이 가장 특출한 대변인이 됐다. 조직을 유지할 수단으로서, 그들은 티안먼 광장의 북서쪽 구석에서 매일 회의를 갖기로 결의했다. 봉기의 마지막 국면, 즉 계엄령이 선포되고 학생들이 흩어질 때까지, 노동자연맹은 지속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했다.

#### 학생들의 주도권 장악

후야오방의 장례식이 4월 22일로 정해지자, 정부 지도자들은 티안먼 광장을 정리하기를 원했고, 그것이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장례식 전에 광장을 폐쇄할 계획이었지만, 자율적으로 조직된 학생들이 그들보다 똑똑했다. 4월 21일 밤에, 약 60,000명의 학생들이 쉬다 축구장에 모여 티안먼으로 행진했다. 행진도중, 쉬다의 행진대에 베이다와 법정대의 대오가 합류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그룹은 칭화대학이었다.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도 없이 일단 도착하자 학생들은 앉아서 쉬었다. 곧 수만명의 축구장 집회 대오는 인터내셔널가를 부르고 “자유 만세!”와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행진했다.<sup>37)</sup>

새벽에 각 학교 대표자들의 모임이 소집됐고, 19개 대학이 참여해 모두가 놀랐다. 모임은 다음 항목의 포함한 청원서를 승인했다: 후야방의 재평가, 중난하이 구타 책임자 처벌, 자주적 신문 발행 허가, 국가 교육정책 및 학비 논의, “반정신오염 캠페인” 재고, 새로운 학생운동에 대한 언론의 정확한 보도.

당지도자들이 인민대회당의 후야방 장례식을 마치고 떠날 때, 오직 소수만이 모여있던 학생들이 쳐다봤다. 관료들과 만나려고 수만명의 학생들이 광장 주위를 행진하면서, “우리는 대화를 원한다”고 구호를 외쳤지만, 그들은 무시당했다. 베이다 학생 3인조가 대회당 계단에 무릎을 꿇고, 약 40분 동안 머리 위로 7개항 청원서를 내밀었다.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자, 학생들은 좌절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sup>38)</sup>

그 자체로 7개항은 혁명적 요구가 아니었고, 정말로 정부에 대한 탄원이었고 체제의 권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책을 결정할 당의 유일한 재량권에 자주적으로 도전함으로써 학생들은 위험한 선을 넘었다. 더욱이, 불만의 시정을 위해 당국에 청원하는 중국의 오랜 전통을 존중함으로써, 학생들은 중국 시민사회에 중심적인 가치의 범위 내에서 행동했다. 그들을 무시한 관리들의 행동은 정부의 적절한 조치에 대한 인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미 엘리트 주거지대의 학생농성에 분노한 정부지도자들은 감히 그들을 비난하는 건방진 젊은이들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다. 같은 날, 시안의 시위는 폭력사태로 변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일부 보도는 경찰에 대한 공격 와중에 11명이 죽었고 수백명이 부상당했다고 주장했다.<sup>39)</sup>

BC 542년, 중국이 유교를 채택하기 이전에도 학생시위는 발생했다.<sup>40)</sup> 이후 수세기에 걸쳐, 중국 학생들은 민족이 행동하도록 자극하고, 부패한 당국에 저항하고, 인자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통치자를 지지하는 데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 중국 시민사회와 정부관료에 중심적이었던 학자들은 오랫동안 높은 명성을 유지했고, 보통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대중의 존경에 화답했다. 유명한 송왕조 학자 판종야는 여전히 통찰력 때문에 기억된다: “학자는

37) Wong, *Red China Blues*, 227-228.

38) Wright, *Perils of Protest*, 38.

39) For details on events in Xian, see Joseph W. Esherick, “Xi’an Spring,” in *Pro-Democracy Protests*, 83-91, and Han, *Cries for Democracy*, 100-101.

40) Karen Eggleston, “‘You are Dead, the Square is Dead’: The 1989 Chinese Pro-Democracy Movement,” *Transactions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64(1989): 39.

세상이 걱정하기 전에 세상에 대해 걱정하며, 학자는 인류가 행복을 얻은 후에야 행복하다.”

좋은 측면에서 보면, 학생들은 이런 정신의 관용과 고고한 공정성의 전통에서 행동했다. 그들은 관료들의 부패 종식과 대학졸업생의 기회 확대를 원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자격을 갖는 지위로부터 배제됐다고 느꼈다. 4월 중순에 붙여진 한 대자보는 이렇게 쓰고 있다: “최상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당원자격을 거부당하지만, 찌꺼기들은 무더기로 입당이 허용된다. 당은 한줌의 ‘가짜들’이 조종하고 있다.”<sup>41)</sup> 다른 대자보는 당원들이 공식교육을 못받았다고 성토했다: “이 ‘전위’의 4,700만 당원 가운데 75 퍼센트가 겨우 초등학교 교육을 받았을 뿐이다.”<sup>42)</sup>

후야오방의 장례식 이틀 후, 7개항 청원서를 작성하러 나섰던 활동가 다수를 포함한 약 35명의 학생들이 베이징 대학 및 전문대 자치학생회(ASU)를 결성했다. 15개 대학(이후 곧 41개)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윤번제 대표들로 구성된 ASU는 상향식 대의제도를 반영했다. ASU는 정부가 승인한 학생회보다 훨씬 더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류 조직들이 겁내거나 틀렸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취했다. 첫 번째 모임에서 그들은 상임위원회 의장에 위카이시의 6표 대 9표로 조우용준을 상임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ASU는 곧 “운동 전체의 의제와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의사결정 기관”이 됐다.<sup>43)</sup> 슬로건, 시간과 장소 같은 세부사항까지 시위를 조직하는 것 외에도, 학생 활동가들에게 ASU는 정부에 대한 대표단이었다.<sup>44)</sup> 공식적으로 ASU가 베이징에서 건설된 같은 날 밤에, 시안과 창사에서 대규모 시위가 폭동으로 변했고, 상점 유리문이 깨지고 약탈이 일어났다.

수년간 독자적 조직을 건설하려는 과거의 시도가 발각되어 토대를 건설하기 전에 깨졌다. 1989년의 에로스 효과로 열린 새로 해방된 정치적 공간 안에서, 많은 그룹들이 동시적으로 동원됐고, ASU는 주요한 정치적 주자로 등장할 수 있었다. 다음 6주 동안, 조직으로서 존재할 권리에 대한 정부승인 획득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 4월 25일밤 조직의 두 번째 모임때, 중앙인민 라디오는 자치회를 “불법조직”이라고 공격하고 “합법조직의 권리에 대한 어떤 침해도 저지”하겠다고 약속하는 사실을 발표했다. 다음날 <런민일보>에 발표된 이 사실은 학생들에게 아픈 곳이 됐다.

4월 25일 덩샤오핑은 방송에 나서 중국 인민들에게 “전국적 투쟁을 준비하고 소동을 분쇄하기로 결의할” 것을 호소했다. 다음 날, 그는 리펑 총리에게 경고했다: “이것은 보통 학생운동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헝가리, 소련의 자유화 분자들에게 영향과 자극을 받은 다음 소동을 일으키려고 일어섰다. 폴란드인들이 더 많은 것을 양보할수록 소동은 더 커질 것이다.”<sup>45)</sup> 덩샤오핑이 완전히 틀리진 않았다. 학생들은 폴란드 노동자운동을 기념하여 새로운 조직에 “연대”라는 이름을 붙일 것에 대한 토론했었다.<sup>46)</sup> 더욱이, 필리핀에서 마르코스의 축출과 남한에서 전두환의 굴복은 인민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계엄령 병영국가에서 초기 민주주의로 넘어간 타이완의 변혁(다음 장을 보라) 역시 인민들에게 중국도 정치제도를 개방할 때가 됐다고 믿을 이유를 제공했다. 한 목격자가 티아난먼 광장의 한 장면을 묘사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남한 반정부 세력이 사용한 하얀 머리띠를 모방했고,

41) Han, *Cries for Democracy* 37.

42) *Ibid.*, 43.

43) Corinna-Barbara Francis, “The Progress of Protest in China: The Spring of 1989,” *Asian Survey* 29, no. 9 (September 1989), 904.

44) *Ibid.*, 903. ASU는 공식적으로 4월 26일 설립됐다. 이 단체의 “최고강령”은 중난하이 지구 농성단의 7대 요구였다(언론과 집회의 자유, 교육예산 확대, 부패처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후야오방에 대한 공정한 재평가 등).

45) Lawrence Sullivan, “The Chinese Democracy Movement of 1989,” *Orbis* (1989) ,565-6 as quoted in Eggleston, “You’re Dead,” 54-5.

46) Tang Tsou, “The Tiananmen Tragedy: The State-Society Relationship, Choices, and Mechanisms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The Roundtable Talks and the Breakdown of Communism*, eds. Jon Elst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221.

필리핀에서 피플파워를 위해 투쟁한 반마르코스 활동가들이 좋아했던 V자 신호를 사용했다.<sup>47)</sup> 중국 인민들은 봉기의 무기고에서 새로운 전술을 흡수했다: 민중을 결집시키는 수단으로서 공적 공간의 대규모 점거. 이 전술이 1968년의 전지구적 운동의 에로스 효과로 처음 나타났지만, 필리핀인들은 1986년 마르코스를 타도하기 위해 사용했고, 1987년 남한의 6월항쟁은 독재가 민주적 개혁을 허용하도록 강제했다.

그러나 중국의 운동을 단순히 다른 나라의 여파 또는 “눈사태”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중국 운동과 1989년의 십여개 이상의 운동의 동시성은 에로스 효과의 발생, 자유에 대한 필요의 직관적이고 자연발생적 각성을 가리킨다. 중국의 시위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폴란드의 연대노조가 집권하기 전에, 체코의 “벨벳혁명” 이전에 일어났으며, 이 모든 운동은 상호증폭의 과정에서 발생했다.<sup>48)</sup>

중국의 벽보와 플래카드들은 마틴 루터 킹 2세, 간디, 에이브럼 링컨에게서 영감을 받았고, 그들은 켄트 주립대와 고르바초프를 언급했다.<sup>49)</sup> 마틴 루터 킹의 연설에 영감을 받았던 한 난징대 여학생은 “나는 꿈이 있어요”라는 시를 지었고, 이 시는 대자보가 됐다. 미국 시민권 운동에 관한 수상작 비디오 <Eyes on the Prize>는 그녀의 대학에서 볼 수 있었다.<sup>50)</sup> 어떤 사람은 필리핀에서 온 책 <피플 파워>를 복사하여 잘 보이는 벽에 붙였다. 1968년의 전세계적 지속이란 맥락 속에서, 시위가 헝가리, 동독 등 많은 나라로 확산되면서, 중국의 <런민일보>의 4월 26일자 사설은 “반국가적 소동과 혼란”을 비난했고, 학생과 노동자 모두를 불미스러운 용어로 낙인찍었다. 대학과 전문대 방송시설까지 접수한 “한중의 탈법분자들의 음모”로 몰았다.<sup>51)</sup> 이 시기의 수많은 다른 반란들에서처럼--광주와 타이랜드에 대한 언론취재가 떠오르는데--시위대는 그들의 운동에 대한 언론의 악의적이고 다소 부정확한 보도에 심각하게 우려했고 철회를 요구했다. 차이점은 중국에서 그들은 궁극적으로 보복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고위 지도자의 공개적 칭찬을 받았다는 점이지만, 너무 늦어서(5월 16일) 시위의 궤적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 공격받는 학생들

학생들은 캠퍼스에 조밀하게 집중되어 있고 공부할 시간과 공간이 있어서,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었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의 공격을 받아 학생들은 국가의 철권이 공격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알았다. 다음 모임에서 ASU는 어떤 투쟁경로를 취할지 열띤 논쟁했다. 상임위원회가 결정할 수 없어서, 그들은 표결을 위해 총회를 소집했다. 참석한 40개 학교의 거의 모두가 4월 27일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기로 동의했다. 수업보이코트는 이미 진행 중이어서, 학생들은 하루 밤 사이에 인민의 충성을 놓고 당과 경쟁하는 강력한 세력이 됐다. 북조선을 방문 중이었기에, 리핑과 덩샤오핑의 강경입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운동을 서둘러 다뤘다. 그들은 ASU 지도자 조우용진에게 강한 압박을 가했고, 조우용진은 견디지 못했다. 4월 26일 밤, 그는 일방적으로 시위를 취소했지만, 한사람이 변화시키기엔 너무 늦었다. 다음 날, 10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티아난먼 광장에 집결했다. 경찰봉쇄를 우회하여 대오별로 행진하자, 학생들은 수십만 베이징 주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보기에 끝없는 행진이 지나가자, 5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보도에서 지켜봤다. 정부의 시위금지는 무의미했고, 15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경찰을 거부하고, 티아난먼 광장으로 행진했으며, 거기에서 “축제같은 분위기” 속에 약 14시간 정도 머물렀다. 종이상자는 투쟁기금으로 가득 찼고, 많은 노동자들이 서로 섞

47) Walder, “Political Sociology,” 32; Selden, “Limits,” 127.

48) 1989년 말 폴란드에서 연대노조가 주도한 연립정부가 구성됐고,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했고, 3일 후에 체코의 벨벳혁명이 일어났다. Also see Rudolf Wagner, “Political Institutions, Discourse and Imagination in China at Tiananmen,” in James Manor, ed., *Rethinking Third World Politics* (New York: Longman, 1991).

49) Walder, “Political Sociology,” 32.

50) Han, *Cries for Democracy*, 318-320.

51) Tsou, “Tiananmen Tragedy,” 216.



였다. 나중에 한 학생 지도자는 이 날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들 중의 하나”라고 불렀다.<sup>52)</sup>

4월 27일 즐거운 시민불복종을 목격한 정부 지도자들은 마침내 단지 시위대를 무시하거나 압박하는 것보다 더 창의적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다. 4월 29일, 그들은 주로 정부가 승인한 학생조직 회원들로 광범하게 광고한 집회를 열었고, 이로써 두가지 목표를 달성했다. 대화는 당이 대중들에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하려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고, 이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버마의 네윈, 한국의 전두환, 네팔 국왕, 타일랜드의 수친가 등 독재자들과 비교하면 주목할 만하고 말해야 한다. 그들은 모두 젊은이들에 말로 대응하기보다 총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sup>53)</sup> 당 고위층 내부의 중요한 세력, 특히 자오지양이 귀를 기울여 들었고, 그는 학생들과 개혁과정에서 협력하고자 했다. “대화”는 또 ASU를 분열시켰다. 대화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없었기에, ASU는 개인들에게 모임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자율적 재량을 부여했다.

27일의 성공적 동원 이후에, 학생들은 재조직화했다. 조우용준은 일방적 “취소” 때문에 사퇴해야 했고, 위카이시가 새 의장이 됐지만, 권한은 더욱 제한됐다. 이를 뒤, 위카이시는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고, 펑공데로 대체됐다. 4월 27일 발생한 엄청난 에너지를 올라탄 ASU는 5월 4일 다시 시위를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새로 결성된 조직에 대한 압력을 고려하면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 1919년 반일시위의 70주년인 5월 4일 정부의 공식집회는 50,000명의 학생과 250,000명 이상이 참여한 학생집회에 비해 규모가 초라했다. 학생들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다시 한번, 자율적 행진자들은 경찰 저지선을 뚫었는데, 이번에는 1919년 운동의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했다. 해임된 두명의 ASU 전 지도자들이 마치 아직도 지도자인 것처럼 개인 성명을 발표했다: 조우용진은 수업거부의 종료를 선언했고, 위카이시는 언론 이외에 듣는 사람이 거의 없는 긴 선언서를 낭독했다. 중요하게 이 개인들은 운동 전체를 대표하여 발언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말은 언론에 의해 ASU를 대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 개인주의는 학생운동의 조직들이 자칭 지도자들에 의해 망가진 마지막 사례는 아닐 것이다.

두 번의 성공적인 대규모 시위에 이은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캠퍼스 활동가들은 어떻게 나아갈지 확신하지 못했다. 5월 5일 베이दा와 쉬다를 제외한 거의 모든 대학의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다. 많은 캠퍼스에서, 내부 권력투쟁 때문이든, 수업보이콧에 대한 입장변화 때문이든 ASU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기 시작했다. 5월 5일 캠퍼스 대표자들이 모였을 때, 난관보다는 절망이 모임의 성격을 규정했다. 최소한 한명의 상임위원이 사퇴했고, 많은 다른 위원들도 불참했다. 이제, 학생들의 주요한 요구는 정부와의 대화였고, 이는 그 내부에 자율적 조직에 대한 암묵적 인정을 포함한 것이었다. 이 목적으로 그들은 대화대표단을 파견했고, 정부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확보하길 희망했다.

ASU가 정체를 하는 동안, 학생들은 수백명씩 계속 벽보를 붙였고, 다른 그룹들은 동원을 했다. 5월 10일, 5,000명 이상의 자전거 부대가 기자들의 언론자유 요구를 지지했다. 미국의 1960년대 운동과 달리, 활동가 학생들은 더 나이든 활동가들의 핵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충고를 제공하고 그들이 변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사회의 성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훨씬 더 중요하게, 젊은 후배활동가들은 자주 선배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수년간 투쟁에서 축적된 경험과 공부로 축적된 분석으로, 아이디어의 백화가 만발했다. 어떤 것은 향기로웠고, 다른 것은 단명하기도 했다. 인민대학의 한 젊은 교사가 1989년의 권력구조를 중국의 봉건적 과거와 비교함으로써 중국정부의 역사에서 지속성을 자세히 설명하는 대자보를 전시

52) Wright, *Perils of Protest*, 48.

53) 맑스주의 정권이 개혁에 대해 개방하는 경향에 대한 폭넓고 예지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Herbert Marcuse, *Soviet Marxism* (Boston Beacon Press, 1958)을 보라. 혁명의 산물로서 자기이해를 고려하면, 공산주의 정권들은 서구나 남반구의 정권들에 비해 정권에 맞선 항의운동을 다룸에 있어 특히 온건했다. 소련에서 사회변혁을 추구하고 역사적 과정의 일부로서 변혁한다는 정권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체제가 효과적으로 전복됐다.

했다. 아래의 도표를 보라.

표 13: 현재의 권력구조와 봉건중국의 권력구조 비교

	봉건체제	현재의 체제
권력구조 통제	한명의 황제	한명의 개인
이데올로기	유일: 유교	유일: 공산주의
권력원천에 관한 학설	천명	계급투쟁
권력기반	군대	군대
관료체제	임명직	임명직
조직원리	통치자가 신민을 인도함 아버지가 아들을 인도함 남편이 부인을 인도함	조직[당]이 개인을 지도함 높은 수준이 낮은 수준을 지도함 중앙위원회가 전당을 지도함
정치적 전술	고도로 정교함	고도로 정교함
인간본성에 대한 가정	내재적 가치설	완벽한 프롤레타리아트론
개인의 지위	없음	지극히 낮음

Source: Han Minzhu, p. 155.

위의 벽보에서 명백한 정치적 비판은 예리하지만, 경제적 상태의 악화와 함께 점증하는 대중적 불만을 대표하지 못한다.

#### 단식농성자들의 쿠데타

5월 11일 위카이시와 왕단을 포함한 유명 활동가들이 한 식당에서 작은 모임을 갖고 운동의 교착상태에 대해 논의했다. 동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던 그들은 자율적 학생회의 동의없이 학생들에게 단식농성에 참여하라고 호소하기로 결의했다. 아무도 어떤 조직의 대변인이 아니었고, 그들은 곧 운동 내부에서 많은 희생으로 쟁취한 자치회라는 학생투쟁의 열매가 길 옆으로 치워지고 자신들의 주장대로 “죽을 때까지 단식”할 지도자들의 대언론 호소로 대체 되는 동학을 낳는 데 기여했다.

5월 13일, 단식농성이 시작되기 직전, 수십명의 학생들은 맥주와 소시지를 마지막 점심으로 먹었다. 티아난먼 광장에서 동조적 언론 앞에 모인 그들에게 곧 수백명 이상이 합류했다. 30년간 중소 적대의 종식을 상징할 러시아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중국 방문 이틀 전의 일이었다. 농성자들은 그들의 요구를 쟁취할 주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이제 두 가지 요구를 추가했다: 시위를 금지하는 4월 26일 포고령의 철회와 학생과 정부 간의 TV 토론. 오후 5시경 차이링이란 이름의 호리호리한 심리학과 대학생이 군중들을 이끌고 맹세했다: “나는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해, 조국의 번영을 위해 기꺼이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의 목표를 실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sup>54)</sup> 근처에서는 왕단이 확성기를 사용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인민영웅탑 주변에 있던 800명 단식농성자들을 대표하여 결정을 내릴 어떤 조직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유명 활동가가 된 지도자들은 자기 이름이 큰 글씨로 새겨진 셔츠를 입고 개인경호원들에 둘러싸여 광장 주변을 돌아다녔고, 군중들을 뚫고 지나가면서 사인을 해주었다.

#### [사진 17]

베이징에 취재진이 대규모로 상자하자 활동가들은 명성을 얻으려고 경쟁했다.

54) Wong, *Red China Blues*, 231.

공산당 지도자들은 단식농성의 진정성을 확신했던 그들이 시민들 사이에 누리는 광범한 공감과 동정적 언론 때문이었던, 학생들의 관심사를 들을 방법을 계속 찾았다. CPP 통일전선 부장인 최고지도자 안밍푸는 5월 14일 주저앉아서 학생들을 만났다. 그는 “가을 추수 이후의 정산”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즉 운동이 소멸해도 정부가 학생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대화 도중에, 환자복을 입고 일부는 몸에 정맥 링거를 꼽은 단식농성자들이 홀에 난입하여 대화를 방해했다. 그들은 생방송이 텔레비전용 사전녹화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다. 대화를 중단시킨 그들은 부모들에게 보내는 “유언”을 낭독해줄 것을 요구했다. 방의 곳곳에서 울음과 흐느낌이 들리는 가운데, 그들은 유언을 낭독하러 나아갔다.<sup>55)</sup> 이 가시적 행위는 단식 시작 하루만에 벌어졌다!

단식농성은 운동에서 전환점을 상징했고, 정당한 분노에서 거만한 자기과시로 이동이었다. 대중들 사이에서 단식농성은 커다란 공감을 끌어냈지만, 학생들의 자주적 조직을 약화시키고 관심의 중심을 자신들에게 돌림으로써, 소수의 언론스타들이 나타나 전체 운동을 자신의 유명세로 이끌었고, 결국 운동의 사망을 유도했다. 그날(5월 14일) 늦게,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12인은 단식농성자들에게 러시아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다음날 방문(1959년 이래 러시아 당지도자로서는 첫 방문)이 취소되지 않도록 티아난먼 광장을 떠나라고 호소했다. 이 지식인들은 또한 정권에게 자주적 학생조직을 인정하고, 시위대를 사회에 대한 애국적, 민주적 기여로 간주하고, 사태가 해결된 후에 그들에게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움직이기를 거부했다. 고르바초프는 공항에서 중국 고위자들의 영접을 받았고, 결코 티아난먼 광장을 방문하지 못했다.

단식농성자들은 최근의 운동으로 창출한 조직들을 우회함으로써 위험한 선례를 남겼고, 궁극적으로 운동이 그 가능성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 자치회들은 단식농성에 동의하지 않았고, 일부 소식통은 실패하길 희망했다.<sup>56)</sup> ASU가 자신들의 의제에 부합하지 않자, 보다 유명한 학생들은 단순히 조직을 우회했다. 그 순간부터 머지 않아, “참모총장”과 함께 “티아난먼 본부”가 등장했는데, 그들은 전체 운동을 좋든 싫든 “그대보다 고결한” 급진주의의 길을 거쳐 곧바로 6월 4일의 유혈대치로 이끌었다. 확산전략은 자오지양과 다른 온건파든, 운동 동료든, 타협을 거부하는 것이었고, 그리하여 거만함으로 운동을 비참한 실패에 이르게 했다. 단식농성은 민중의 동조를 얻고, “젊든 늙든, 부자든 가난하든, 고등교육을 받았든 반무식이든 베이징 시민들의 유례없는 동조의 분출”을 끌어내는 데 위대한 전술이었지만,<sup>57)</sup> 이 전술은 운동을 민주적 조직들과 분리시켰기 때문에 엄청난 전략적 오류였다.

여러 주 동안, 노동자들은 조용히 조직했고, 대규모 공장과 사무실에 말을 퍼뜨렸다.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티아난먼 광장을 점거한 이후에야 노동자연맹(BAWF)은 자신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기에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꼈다. 5월 2일 연맹에는 2,000명의 등록회원이 있었다. 5월 13일까지 거대한 시위가 거의 매일 일어나자, 분명하게 보이는 BAWF 대오가 수많은 국영공장들 사이로 눈에 띄게 행진했고, 대공장들도 자체적으로 자주적 노동자연맹을 결성했다.<sup>58)</sup> 당지도자들은 노동자들이 시위대에 합류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5월 초, 베이징의 최고 당사무국은 모든 공장장들에게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침을 발효했다. 5월 10일, 당정치국은 6천명의 광부 가족 중 1/3이 운동에 참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sup>59)</sup> 3일 후, 리펑 총리와 자오지양은 노동지도자들과 특별모임을 가졌지만, 결과는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었다. 5월 14일, 티아난먼에 노동자들 중의 한명이 집회에서 외쳤다고 소문이 돌았던 말이 적힌 배너가 등장했다 “당은 외채를 갚기 위해 메르세데스 벤츠를 매각해야 한다!”<sup>60)</sup> 5월 15일 베이징 관리들은 “노

55) sou, “Tiananmen Tragedy,” 224.

56) Wright, *Perils of Protest*, 60.

57) Tsou, “Tiananmen Tragedy,” 223-4.

58) See Teresa Wright, “Disincentives for Democratic Change in China,” *Asia Pacific Issues* 82 (February 2007): 4.

59) Zhang Liang, *The Tiananmen Papers* (New York: Public Affairs, 2001), 133.

동자들을 안정화"시킬 방법을 다루는 특별회의에 달려갔다.<sup>61)</sup>

비록 당국에 의해 불법조직으로 간주됐어도, BAWF는 숫자와 체계적 비판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5월 17일, 계엄령이 접근하자, 그들은 선언했다: "인민은 더 이상 지배자들의 거짓 마을 믿지 않을 것이다... 오직 두 개의 계급만이 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다른 공개성명에서 그들은 전투구호를 외쳤다: "아, 중국인들이여! 사랑스럽지만 비참하고 비극적인 민족이여! 우리는 수천년 동안 기만당해 왔고, 오늘도 여전히 기만당하고 있다. 아니다! 그대신에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원래의 위대함을 회복해야 한다! 노동형제들이여, 우리 세대가 이 굴욕을 21세기로 가져갈 운명이라면, 20세기의 전투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sup>62)</sup> 5월 17일과 18일 노동자들은 도시로 밀려나와 시위대에 합류했고, 그 상징적 중심에는 수백명의 단식농성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국영기업에서 집단경영기업과 사적소유기업까지, 수도철강과 양산석유화학 같은 대공장에서 작은 작업장까지, 노동자들의 트럭, 자가용, 버스 대열로 노래하고 북치고, 공을 두드리며 엄청나게 큰 붉은 깃발과 마오쩌둥 초상화를 들고 도착했다. 5월 18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오늘 시위는 정부의 최악의 악몽 중의 하나가 실현된 것, 즉 학생시위로 시작된 것에 조직 노동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학생들과 달리, BAWF는 보다 민주적 형태의 사회주의를 원했다. 그들의 요구는 가격안정화, 자유롭게 직업을 바꿀 권리, 여성차별적 고용관행의 중지를 포함했다. 한 BAWF 활동가는 이후에 선언했다: "공장에서 감독은 누가 뭐라든 독재자이다. 공장을 통해 국가를 보면, 둘 다 똑같다: 일인 지배.... 공장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한 노동자가 직업을 바꾸길 원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지 결정할 규칙의 체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 규칙들은 모든 사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다 높은 형태의 사회주의에 대한 비전이 핵심이며, 소비주의를 대한 욕망은 아니다. 비록 많은 학생들이 엘리트 서클로부터의 배제를 비판하고 서구 상품이 팔리는 국영상점의 무제한 출입을 요구했지만, 노동자들은 엘리트를 전적으로 폐지하려고 했고, 모든 사람의 삶을 개선시킬 비전을 발전시켰다. "새 호텔들이 올라가서 도시의 얼굴이 바뀌었지만, 인민은 괜찮은 주거공간을 여전히 결여하고 있다"고 그들은 썼다. "최상층에는 연회를 위한 광란이 있다"고 그들은 불평했다. 노동자들이 조직되면서, 그들은 자주적 조직이 노동자가 아니라 당이 통제하는 공식적 중국노동총공회(ACFTU)보다 노동자들을 더 잘 대표한다는 믿음을 만들어냈다. 비록 많은 총공회 조합원들(일부 간부를 포함하여)이 티안난먼의 BAWF 집결지에 모여들었지만, 총공회는 BAWF를 승인하기를 거부했다. BAWF의 과감함과 독립성이 총공회의 순종성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1989년 봄기 동안 학생들은 멘토이자 옹호자로 자오지양을 발견했고, 자오지양처럼 많은 사람들이 충성스런 야당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은 자오지양의 고급 서양양복과 그에 걸맞는 정책을 지겨워했고, 자주 "자오지양 타도!"라고 외쳤다.<sup>63)</sup> 운동이 발전하고 노동자들의 존재감이 커지자, 그들은 보통시민들에게 관료들을 감독하라고 요청했고, 공산당 엘리트들이 누리는 특권에 도전했다.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경영진의 자의적 권한을 축소하고 작업장 관계를 규정하는 구체적 합의를 작성하고 국가정책을 정식화하는 데 기여할 자주적 노동조합을 고무하려고 노력했다. 공산주의혁명을 거부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은 맑스와 마오쩌둥에 기초하여 혁명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으려고 노력했다. 노동자들의 벽보 중의 하나에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맑스의 <자본>에 기초하여 주의깊게 노동자 착취율을 계산했다. 우리는 '인민의 종들'이 인민의 피와 땀으로 생산한 모든 잉여가치를 삼키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역사의 최종 정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sup>64)</sup>

60) Barmé, "Beijing Days," 37.

61) Wang, "Pillar of Community," 178.

62) "Letter to Workers of the Entire Nation," quoted in Walder and Xiaoxia, "Workers," 8. 여기에서 "원래의 위대함으로 복귀하라"는 구호에 주목하라. 이는 여전히 중화왕조의 정체성, 즉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정체성의 핵심부분이다.

63) Wang, "Pillar of Community," 179.

운동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함에 따라, 운동의 규모에 대한 예비적 평가에 의하면 중국의 434개 대도시 중에서 107개에서 학생시위가 보고됐고, 2/3에는 자주적 노동자 그룹들이 참여했다.<sup>65)</sup> 몇 년후, 보다 완성된 편집본은 341개 도시의 시위를 계산했다.<sup>66)</sup> 시안에서 1천명의 단식농성자들이 신도시 광장에서 농성했다.<sup>67)</sup> 지지를 얻기 위해 대표단이 이웃 공장들로 순회했다. 5월 18일과 19일 2,000명이 되는 학생들이 기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갔다. 충칭에서, 82명이 학생들이 5월 18일 시청 앞에서, 베이징의 전술과 관리와의 대화요구를 모방하여 단식을 시작했다.<sup>68)</sup> 난징에서는 수만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시위했고, 일부는 단식농성에 동참했다.<sup>69)</sup> 상하이에서는 학생들이 베이징에서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여신상”이 세워졌다.

모든 사람이 시위의 “자력”에 끌려오는 것처럼 보였다. 심지어 경찰관, 외무부 공무원, 은행가, <런민일보> 기자들까지 참여했다.<sup>70)</sup> 한 추정치에 의하면 고르바초프의 3일 방중기간 동안 매일 베이징의 10퍼센트, 약 100만명의 시위대가 거리에 있었다.<sup>71)</sup> 베이징은 사람들로 너무나 혼잡해서 고르바초프는 인민대회당, 자금성, 심지어 경극장까지도 방문할 수 없었다. 이 “도시 우드스탁”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이 있었고, 중국 전역에서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베이징으로 밀려들었다. 베이징 군사령부는 1천장의 이불을 보내주었고, 국영 제약회사들은 광장의 의료천막을 기부했다. 25명 이상의 단식농성자들은 중앙예술학교 출신이었다. 일부 기성 예술가들은 기금을 모으려고 작품을 팔았다.<sup>72)</sup>

심지어 공산주의 청년동맹도 20상자의 음료수를 보냈다. 베이징을 모델로 전국 30개 이상의 다른 도시에서 단식농성단이 만들어졌다.<sup>73)</sup> 베이징의 축제같은 시위 “카니발”은 계속 평화적이었지만, 하향세로 돌아섰다. 5월 19일 새벽 2시 티아난먼을 가로질러 걸었던 제레미 바르메는 “광장에는 냄새가 풍겼고, 모든 곳에 오물, 썩어가는 음식, 플라스틱과 유리용기, 모든 유형의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었고, 학생들은 기념탑 주위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아이들과 광장에 온 부모들은 아이들이 아무데서나 오줌을 싸게 했고, 이렇게 며칠이 지나자, 광장의 대부분에서 악취가 풍겼다.”<sup>74)</sup>

어떤 사람들에게 단식농성은 이상한 향기를 내뿜었다. 많은 단식농성자들이 몰래 식사하는 모습을 외국인 기자들이 목격했는데, 그들은 농성자들에게 동조적이었음에도 이후에 이 사실을 보도했다. 한 학생은 달콤한 요구르트를 먹고 있다고 인정했는데, “간식은 괜찮다. 진짜 음식은 아니니까”라고 주장했다.<sup>75)</sup> 더욱이, 많은 학생들이 릴레이 단식농성을 한 것처럼

64) Dated May 17, as quoted in Walder and Xiaoxia, “Workers,” 8.

65) Pik Wan Wong, “The Pro-Chinese Democracy Movement in Hong Kong,” in *The Dynamics of Social Movement in Hong Kong*, eds., Stephen Wing Kai Chiu and Tai Lok Lui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00), 58.

66) Zhang, *Tiananmen Papers*, viii.

67) Esherrick, “Xi’an Spring,” 92.

68) Anita Chan and Jonathan Unger, “Voices from the Protest Movement,” in *Pro-Democracy Protests*, 114.

69) Eggleston, “You’re Dead,” 52.

70) Wong, *Red China Blues*, 229.

71) *Ibid.*, 232-4.

72) Crozier, “Avant-garde,” 504.

73) Wong, *Red China Blues*, 232. 마치 베이징의 모든 사람들이 항의하여 거리에 나선 것처럼 보였다. 이슬람을 모독하는 성육에 관한 책에 항의하여 5월 12일 3,000명의 이슬람 교도가 행진했다. 4월 말에는 20,000명 이상의 이슬람 교도들이 간수의 수도인 란조우에서 시위를 벌였고, 5월 중순에는 100,000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칭하이 수도 시닝에서 시위했고 비슷한 시위가 우르무치, 우룬치, 내몽골, 우한, 위난에서 벌어졌다. (See Dru C. Gladney, “The Social Life of Labels: State Definition, Religion and Ethnicity in China,” AAA Paper, 1990.) 이들은 정부가 그 책을 금지하기를 원했다. 이 순간 에로스 효과는 비록 다수의 의도에 반하더라도 이슬람 교도들을 활성화시켰다.

74) Barmé, “Beijing Days,” 54.

75) Wong, *Red China Blues*, 235.

보이는데, 한번 하루 단식을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했다. 어떤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중국인들은 물론 먹으면서 7일을 단식하면 죽는다고 믿었다. 사실 덕 그레고리는 그만큼보다 몇배나 더 단식을 했던 많은 사람 중의 한명일 뿐이다.<sup>76)</sup> 김영삼은 남한의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민주화 운동가로서, 전두환 독재에 맞선 광주시민들의 지속적 투쟁에 대한 지지를 표하기 위해 1983년 5월 18일부터 물만 마시면서 23일간 단식했다.

모든 사람의 민족의 위대성을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했던 중국에서 학생들의 존엄한 역할은 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강단에서 살았음을 의미했고, 그 강단은 학생들이 정부에 요구했던 위치이다. 한자녀 민족의 알짜인 베다이 학생들은 단식농성을 주도하면서 자신들이 민족의 미래 지도자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지지한 대중들도 그랬다. 단식 첫날, 중국의 미래 엘리트 41명 가량이 쓰러졌다. 그런 연출은 유쾌하지 않지만, 커다란 기만을 위장했다. 티베인 들의 원형 시위는 단식자들의 “제단” 주위에서 재창조됐다. 티베트의 뿌리에 대한 이해 없이 바르메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공간이 원형이어서, 즉시 일종의 원형대오가 만들어졌다. 목격자와 대표단 군중들은 돌레를 피해서 다녔다. 사람들은 웅크리고 있는 젊은 단식농성자들을 지나치면서 눈물을 흘렸고, 버스 좌석에서 자주 손을 올리거나 V자 사인을 보냈다.”<sup>77)</sup>

#### “티아난먼 광장 본부의 총사령관”

5월 15일 차이링은 “피로”를 이유로 정부관리와의 모임에서 떠났지만, 다음날 아침 8시, 그녀는 자신을 의장으로 하는 단식농성 사령부의 결성을 발표했다. 새로운 지위로 그녀는 홍콩의 기부금으로 만든 티아난먼 광장의 방송센터를 통제했다. 그녀의 남편이자 동료 활동가인 펑공계는 개인적으로 ASU 대표들이 센터를 이용하도록 허용하기를 거부했다. 그리하여 차이링과 그녀의 남편은 사실상 자칭 “티아난먼 광장 방어본부 총사령관”에 오르는 쿠데타를 연출했다. 그녀의 생각으로, 티아난먼 광장의 점거는 새로운 조직, 즉 “광장방어본부”(HDS)를 필요로 했고, 본부는 곧 재정, 대외협력, 정보, 서기국과 자원관리 위원회를 구성했고, 물과 식량 분배, 의료지원, 피켓팅과 보안을 담당할 행동대를 구성했다.

원래의 단식농성 기획자였던 위카이시와 왕단은 차이링이 그런 고귀한 지위의 유일한 소유자로 등극한 데에 가장 화가 났다. 특히 그들이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날, 지도부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상임위원회가 차이링을 의장으로 다시 선출하자, 그들이 착수한 첫 번째 임무는 보안경계를 세우는 일이었다. 활동가들은 핵심지휘부에 대한 비상경계선을 설치했는데, 이번에는 믿을만한 학생들이 투명 낚시줄을 잡도록 했고, 심지어 가장 열렬한 시민 지지자들조차 더욱 고립되어 거만한 지도부에 다가갈 수 없었다.

이런 주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SU 대표들은 칭화대 학생들과 나란히 두 번째 방송센터(그들 자신의 보안대와 함께) “학생운동의 목소리”를 세웠다. 새 방송국의 앰프는 훨씬 더 강력해서 HDS와 경쟁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둘의 관계는 안 좋았다. 학생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100,000달러 이상의 기부금이 모였지만, 차이링이 대부분을 통제했다. 이미 베이징 ASU와 독자적으로 행동하게 된 베이징의 ASU도 그랬다.

5월 16일, 자오지양은 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연설하면서 타협을 추구하고 공개적으로 학생시위가 “긍정적”이고 “애국적”이라고 했다. 그는 학생들이 단순히 떠나기만 하면 어떤 기소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의 관대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식농성 4일째, 참석자 3,000명 가운데 약 200명이 기절했다.<sup>78)</sup> 시위는 계속됐고, 300,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동조하여 행진했다. 5월 17일과 18일 모두 1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시위에 참석했다. 정맥주사로 급식 받았음에도 단식농성자들은 극적으로 기절했다. 당

76) Tsou, “Tiananmen Tragedy,” 223.

77) Barmé, “Beijing Days,” 52.

78) Zhang, *Tiananmen Papers*, 173.

지도부의 제한을 받지 않자, 언론은 기자들이 공개적으로 “더 이상 거짓말 말라”고 주장했다고 동조적으로 보도했다. 늘어나는 숫자의 노동자들이 광장에 집결했다. 사람들은 모여든 1천여명의 외국 기자들을 위해 “우리 승리하리라”를 불렀다. 외국 기자들은 고르바초프의 방중을 위해 베이징에 왔지만, 티안안먼 광장에서 “그들의 삶 이야기”를 취재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단식농성으로 혼미해서인지 아니면 진짜 동기를 말하고자 그랬는지, 바로 이 시점에 지도자인 위카이시가 가장 유명해진 말을 했다: “우리는 나이키 운동, 여자친구를 술집에 데려갈 수 있는 많은 자유시간, 누군가와 어떤 주제를 토론할 자유, 사회로부터의 존경을 원한다.”<sup>79)</sup>

의문의 여지없이 대부분의 단식농성자들이 진지했지만, 위카이는 명백히 그러지 않았다. 나중에 TV 보도는 그가 베이징호텔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폭로했고, AP 기자 존 폼프렛은 단식농성 동안 그와 함께 식사했다고 주장한다. 영국 <인디펜던트>의 앤드류 히긴스는 그가 자동차 뒷자리에서 국수를 삼키는 것을 보았고, 위카이는 한 친구에게 “자기는 지도자이고 심장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을 유지하기 위해 먹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sup>80)</sup> 진지했던 아니든, 학생들이 나중에 농성을 중단한 결정에 비추어 베이타 선언을 읽으면 그들의 의도는 아니라도, 책임감에 회의적이다: “우리는 죽고 싶지 않다. 우리는 살고 싶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유망한 나이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죽고 싶지 않다. 우리는 공부하고 싶다.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우리 모국은 아주 빈곤하다. 마치 우리가 모국이 죽도록 버리는 것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한명 또는 소수의 사람들의 죽음이 다수가 더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모국이 번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는 삶에 집착한 권리가 없다. 우리가 배고픔으로 고통받는다고, 아빠와 엄마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이모와 삼촌, 슬퍼하지 마세요.”<sup>81)</sup> 다른 맹세는 피로 쓰였어도, 이 서약은 피로 쓰인 것이 아니다.

이미 엘리트로서 성인이 되면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징대 학생들은 티안안먼의 대열에서 자기 대학의 학생이 아니면 누구나 배제했다. 특히 노동자들이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오려고 하자마자 쫓아냈다. 베이징에서 학생들은 보통시민들이 그들의 “순수한” 시위에 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행진했다. 일단 그들이 티안안먼을 점령하자, 보안의 동심원이 핵심지도부가 노동자들이나 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았다. 건설노동조합과 BAWF는 모두 토론을 위해 대표단을 보내려고 했지만, 학생 질서유지대가 그들을 내쫓았다. 한 노동자 활동가에 의하면, 학생들은 “마을에서 온 건설 노동자들이 죄수 노동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무시했다.<sup>82)</sup> 비학생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 학생들은 운동화를 신거나 검은 띠를 매거나 옷에 흰색 꽃과 학교 배지를 달라고 서로 몰래 말했다.<sup>83)</sup> 그들은 어떤 전투적 저항과도 거리를 두었고, 그 대신에 비폭력과 합법성을 강조했다. 일부 목격자들은 노동자들의 분리가 그들 자신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사실 노동자들은 학생 지도자들에게 접근하려고 노력했고 지속적으로 최소한 5월말까지는 퇴짜를 맞았다.<sup>84)</sup> 엘리트 담론에 맞추어진 학생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투쟁했고, 운동 내에서 그것을 재생산했다.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비밀, 배제, 분파주의, 권력투쟁과 특권 등 엘리트들의 똑같은 부패한 관행 가운데 많은 것이 학생운동 내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고, 학생운동 지도자들은 텐트 안에 외국 기부자들이 보낸 매트리스와 현금봉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학생 지도자들은 “총사령관” 같은 터무니없는 칭호를 가졌지만, 노동자들은 서열제에 반대했고 학생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가장 선진적 계급”이라

79) Captured in the film *The Gate of Heavenly Peace*.

80) Wong, *Red China Blues*, 235.

81) Han, *Cries for Democracy*, 201.

82) Walder and Xiaoxia, “Workers,” 24.

83) Francis, “Progress of Protest,” 913.

84) See Selden, “Limits,” 122.

고 간주했지만, 학생들이 보여준 건방진 태도는 거의 없었고, 그들은 학생서클에서 몇배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령관들”보다는 집단지도력으로 일했다.

대부분의 중국 노동자들은 학생들의 처음 7대 요구를 지지했다. 철도 노동자들은 수천명의 학생들이 운동에 합류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를 공짜로 태워줬다고 한다. 단식 농성 동안, 200,000만의 학생들이 현장을 보기 위해 수도로 밀려 왔었다.<sup>85)</sup> 베이징의 주민들은 이 에로스 효과의 에피소드 동안 아주 잘 단결해서 학생들은 잘 곳과 먹을 것을 쉽게 찾았다. 심지어 베이징의 도둑들도 학생들의 단식농성을 지지하여 2일간 파업에 합의했다는 소문도 돌았다.<sup>86)</sup> 모든 유형의 범죄율이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유례없이 급감했다.<sup>87)</sup> 채소 노점상은 더 값을 매길 기회가 있음에도 가격을 인하했다. 왜냐면 “그런 때에는 모두가 양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sup>88)</sup> 한 목격자가 썼던 것처럼, “베이징 시민들의 자기조직화, 즉 들어오는 물품을 조직하고 도시 밖에서 온 수천명의 학생들과 사람들의 숙박을 제공하고, 쓰레기를 제거하고, 출판물을 인쇄하고 배포하는 위원회들의 수립은 중국의 생활수준 향상이 인민을 탈정치화 시켰다는 서구의 유행하는 신화를 날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곳의 우리 주인들이 영원히 당황하도록, 지구상의 최대 도시중의 하나인 베이징 주민들이 정부, 국가 및 그 어떤 기관의 간섭 없이 상황을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sup>89)</sup>

학생들은 시위를 시작했고 그들의 용기로 다른 사람들이 일어설 영감을 주었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개혁성향이였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덩샤오핑의 시장자유화를 지지했고, 민영화가 진행되는 것을 보기를 위한 반면, 노동자들은 과도한 시장화에 반대했고, 직업과 과거 계획경제로부터 얻은 성과를 잃을까봐 두려워했다. 거리의 인민들은 관료주의의 타도를 호소했는지 몰라도, 어떤 주요한 학생조직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정부와의 대화와 정부의 인정을 원했고, 바로 그것이 학생 “반란”이란 명칭이 적합한 이유이다. 반란자는 권력으로부터 배제됐다고 느끼며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반면, 혁명가들은 권력구조 자체를 파괴하길 원한다. 학생들은 덩샤오핑이 지도하는 개혁과정의 일부가 되길 원했지만, 노동자들은 마오쩌둥의 거대한 사진을 들고 행진했고, 덩샤오핑을 세번째로 축출하길 원했다. 기껏해야 학생들은 개혁을 원했고, 노동자들은 혁명을 원했다.

농민들은 결코 중요한 숫자로 운동의 일부가 되지 못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도시기반의 운동이 압도적 다수의 중국시민들의 충성을 획득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약진운동 동안, 농민들은 집단화 시도에 저항했었고, 그 결과 수백만명이 사망한 식량부족과 기근 피해를 입었다. 1989년 농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의 물적 토대는 마오주의 정책 시절에 농촌이 받았던 혜택에서 찾을 수 있다. 덩샤오핑의 개혁이 궁극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도농격차를 다시 불러왔지만, 1989년 경제자유화는 아직 농촌에 심각한 영향을 주진 않았고, 농민들은 노동자들처럼 덩샤오핑에 맞서 일어서지 않았다.

5월 17일 자오지양이 타협노력이 실패했다고 믿은 덩샤오핑은 계엄법을 승인했다. 비록 리핑은 더 이상 체제 취약성을 노출하면 나라를 학생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학생들과의 만남을 5월 18일로 정했다.<sup>90)</sup> 그날 아침에야 학생들은 정부관리들이 오전 11시에 그들을 만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급히 많은 유명인사 지도자들을 포함한 대표단을 모았다. TV로 생중계된 인민대회당의 모임은 정부 최고관리인 리핑이 학생지도자들과 얼굴을 맞대고 만났기 때문에 학생자치조직에 대한 사실상의 인정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만남은 비참한

85) Eggleston, “You’re Dead,” 45.

86) Shen Tong, *Almost a Revolution* (Boston: Houghton Mifflin, 1990), 270.

87) “Crime in Beijing This Month Experiences Sharp Drop,” *Hua Qiao Ribao*, May23, 1989, 6 as quoted in Francis, “Progress of Protest,” 914. 베이징의 공안당국은 5월 1~21일 범죄, 화재, 교통사고율이 전년보다 33 퍼센트 낮았다고 보고했다. (Zhang, *Tiananmen Papers*, 289).

88) *Reminin Erbao*, May 24, 1989, as quoted in Eggleston, “You’re Dead,” 46.

89) Burt Green, “The Meaning of Tiananmen,” *Anarchy: A Journal of Desire Armed* (Fall/Winter 2004/5): 44.

90) *Huaqiao Ribao*, June 14, 1989, 4 as reported in Tsou, “Tiananmen Tragedy,” 228.



실패였다. 리펑은 단식농성자들에게 엄격한 강의를 했고 당이 “한가하게 가만히 서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록 학생들은 그동안 추구한 전국적 TV방송을 얻어냈지만, 위카이시(그 순간에 그는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대표하지 않았다)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리펑이 늦었다고 책망했고 최대한의 경멸로 리펑을 대했다: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들을 시간이 별로 없다. 수천명의 단식농성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핵심으로 들어가자. 당신을 대화에 초대하는 것은 우리지, 당신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늦었다.”<sup>91)</sup> 몇 초 후 카메라에 분명히 보이도록, 위카이시가 산소주머니를 쥐자 명백하게 기절한 사람을 구하러 의료진이 달려왔다. (명백히 위카이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략적 기절” 요령이 있었고, 여러 차례 그 재능을 이용했다.<sup>92)</sup>)

5월 19일 새벽 5시, 당총서기 자오지양은 학생들을 방문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학생들에게 티안난면에서 철수할 것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바로 그 순간에 타협이 이뤄졌다. 그의 방문 이후, 그가 대중의 눈에서 사라지기 전에 사인 사냥꾼들이 몰려들었다. 그는 2009년 사후 자서전이 출판될 때까지 사건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분명히 당내 분열이 일어났지만, 그 당시 아무도 정확한 이유는 몰랐다. 되돌아 보면 자오지양은 사임을 강요당했고, 리펑의 강경노선이 우세했다. 1년 이내에 장쩌민(상하이 시장으로서 1986년의 시위를 기술적으로 진정시키고 이후에 <World Economic Herald> 신문을 숙청했다)이 정치국 상임위원회와 중앙서기국 총서기로서 자오지양을 대체했다. 그는 1990년 3월까지 전국인민대회 중앙군사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의장이었다.<sup>93)</sup> 티베트의 1989년 운동 탄압을 이끈 사람인 후진타오는 2002년 총서기가 됐다.

#### 계엄법에서 6월 4일 유혈사태로

5월 19일 오후 베이징에서 고르바초프와 동행한 외국언론이 사라지자, 대규모 정부탄압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차이링은 사령부 버스에서 본부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보안으로 위카이시가 참석하지 못했지만, 본부는 단식농성을 끝내기로 표결했고, 수백명의 단식농성자들이 문제를 토론하는 것을 기다리는 수고를 하지 않은 채 이 메시지를 방송했다. 단식농성 중이던 학생들이 마침내 발표를 듣고 문제의 재고를 요구했다. 8개 학교 대표들이 모였는데, 차이링의 보안대가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한시간 이상 걸렸다. 마침내 모임이 시작되자, 약 80퍼센트가 농성을 계속하기로 표결했다. 그 시점에 대표자들의 표결은 별 차이가 없었다. 차이링의 본부는 이미 농성종료를 선언했다. 대표자들의 민주적 모임은 학생들이 계속할 것을 주장했다. BASU는 단결을 호소한 반면, 학생 지도자들은 분파들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었다. 베이징 외부의 캠퍼스들에서 온 학생들은 티안난면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된 데에 아주 좌절해서, 5월에 마침내 역사박물관 앞에서 모임을 소집하여 그들 자신의 조직 베이징 외부 자치학생회 연맹(Outside-Beijing Autonomous Student Federation)을 결성했다.

계엄령이 임박하자, 학생들은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지만, BAWF는 다음 날 시작할 1일 총파업을 호소했다. 5월 19일 오전 9시 30분 처음 등장해 광범하게 배포된 전단에서 BAWF는 노동자들에게 “모든 작업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주요 교통망과 지하철 출구를 봉쇄하고, 중화중앙TV와 중국 중앙방송국의 정상적 작동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sup>94)</sup> 놀랍게도, 그들은 중국총공회에 5월 20일 총파업에 참여하도록 설득할 수 있었다. 공회는 약 25,000달러에 이르는 100,000위안을 시위대에 기부했다.<sup>95)</sup>

91) Wong, *Red China Blues*, 234.

92) Joseph F. Kahn, “Better Fed than Red,” *Esquire*, September 1990, 186-197.

93) Chu-Yuan Cheng, *Behind the Tiananmen Massacr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Ferment in China* (Boulder, Westview Press, 1990), 41-2, 98.

94) Han, *Cries for Democracy*, 273.

95) Wang, “Pillar of Community,” 179. 왕은 한 중국 학자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는 총공회 지도부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사람들과 친했다. 그는 전국총공회를 하나의 단체로 언급한다. 6월 4일 이후, 지도부의 일원인 주호제(Zhu Houzhe)는 사태에 관여한 사유로 사퇴해야 했다.

5월 19일 저녁, TV에 단독 출연한 리펑은 수도의 “혼란”을 규탄하면서 “단호하고 결정적인 조치”를 약속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자오지양이 그를 막지 못하자, 리펑은 계엄령 명령에 서명했고, 수만명의 군대를 시내로 보냈다.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과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별개였다. 당 지도자들은 군대를 베이징에 보낼 것을 명령했지만, 군대는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평화적으로 군대를 저지하는 동원된 시민들에게 발포하는 것을 거부했다. 군대는 중앙TV와 라디오, 신화통신사, <런민일보> 등 주요 언론사를 접수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민들에게 계엄령에 저항하라는 대중매체의 선동을 중단시키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군인들에 관한 보도를 진압했다. 군인과 시민들이 대화하는 사진은 주요 언론매체에서 더 이상 출판되지 않게 됐다. 그러나 군인들이 티안먼 광장에 접근하려 할 때, 그들은 수천명이 시민들이 시내버스와 건설 크레인, 덤프트럭과 건설장비 등 모든 것을 사용하여 광장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세웠다는 것을 발견했다. BAWF의 호소에 응하여, 베이징의 인민들이 젊은이들을 구하려 달려왔다. 잔왕이 장면을 묘사한 것처럼: “할머니들이 탱크 앞에 누었다. 어린 학생들은 수송대 주위에 떼지어 몰려와 진로를 막았다. 긴박한 첫날 밤 이후 군인들은 철수하기 시작했고, 군중들은 환호하며 박수쳤다. 일부 구경꾼들은 V자 사인을 보냈고, 일부 병사들로 그랬다. 한 지휘관은 ‘우리는 인민의 병사들이다. 우리는 결코 인민을 진압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sup>96)</sup> 그 이후의 보도는 38군단을 지휘하는 장군이 수도로 이동하라는 명령에 복종을 거부했고, 덩샤오핑은 허페이 지방에서 27군단을 소환해야 했다고 한다.<sup>97)</sup> 청두, 신양, 지난의 군대가 베이징에 도착했다.

5월 20일 민중적 형태의 이중권력이 등장하여 정부의 권위와 경쟁했다. 자주적으로 조직된 시위자 그룹들이 공장과 정부작업장, 경찰서, 호텔, 법원, CCP 기관, 청년단체, 정부부서(최소한 8개 중앙정부기관을 포함하여), 공식언론사와 대학학과들에서 결성됐다.<sup>98)</sup> “날으는 호랑이” 오토바이 부대들이 군대의 이동에 대해 보고했다. 중국의 생존한 두 명의 육군원수들이 공개적으로 학생들의 “애국심”을 칭찬했다. 전 국방장관과 대장정의 베테랑을 포함한 7명의 다른 장군들은 100명 이상의 고급장교들이 서명한 성명서를 회람하여 인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고 군대에 호소했다.<sup>99)</sup> 전인대 상임위원회는 계엄령을 철회할 임시회의에 대한 청원을 회람했다.<sup>100)</sup> BAWF는 단식농성자 및 ASU와 함께 파리코윈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우리 노동계급은 이 학생들에게 감사하며 중국민족이 그들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티안먼 광장은 전투장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몸으로 학생들, 단식자들, 농성 시위대를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생명의 피로 또 다른 코뮌나르드의 벽을 세울 것이다.”<sup>101)</sup>

48시간 동안 수십만명의 베이징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군대를 저지했다. 인민들은 군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음료수 상자를 건네주었고, 그들에게 노래를 불러주었고, 아이스바와 꽃을 주면서 인민의 편에 서라고 설득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한 깃발은 정부가 사퇴할 것과 전인대 임시회의를 소집할 것을 촉구했다. 80개 이상의 도시에서 600개 이상 대학과 전문대에서 2,80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였다. 상하이에서 5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학생들을 지지하여 행진했고, 시안에서는 약 300,000명의 사람들이 동원됐다.

## [사진 16]

96) Wong, *Red China Blues*, 238.

97) Cheng, *Tiananmen Massacre*, 204.

98) Baum, “Road to Tiananmen,” 452; Walder, “Political Sociology,” 39.

99) Democratic Socialist Party of Australia, *The Class Natur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ewtown: Resistance Books, 2004), 21-2.

100) 5월 23일자 <*Asian Wall Street Journal*>은 전인대 상임위원 24인이 계엄령 종식을 위한 비상회의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101) Gene Sharp, *Waging Nonviolent Struggle: 20th Century Practice and 21st Century Potential* (Boston: Porter Sargent Publishers, 2005), 262.

베이징 인민들은 거리를 봉쇄하면서 정부가 보낸 군인들을 먹였다.

승리가 시민들에게 영감과 새로운 자신감을 주자, 수십만명의 베이징 시민들은 21일과 22일 바리케이드에서 남아있었고, 티아난먼 광장에 진입하려는 군대의 다음번 시도를 저지했다. 베이징이 버티자, 중국 전역에서 인민들이 동원됐는데, 5월 21일 홍콩에서 행진한 400,000명도 여기에 포함된다. 아래의 표는 시위의 전국적 규모를 보여준다.

표 14: 시위자 숫자, 1989년 5-6월

날짜	시위 도시 숫자
5월 18일	17
5월 19일	116
5월 20일	132
5월 21-2일	131
5월 28일	36
6월 1일	57
6월 4일	63
June 5-10일	181

Source: Zhang, *Tiananmen Papers*, 214, 227, 243, 274, 316, 345,392, and 398.

인민들이 군대가 도시 중심부에 들어오는 것을 계속 막아내자, BAWF는 5월 21일 무기한 총파업을 호소하는 공개서한을 배포했고, 노동자들이 “가장 선진적 계급”으로서 저항의 “중추”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성장하는 지도력은 아주 인기가 높아서 5월 20일과 6월 3일 사이 2주일 동안 약 20,000명의 베이징 노동자들이 연맹의 조합원으로 가입했다.<sup>102)</sup> 신규 조합원이 많아지자, 연맹은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조직, 보급, 정보를 위한 독자적 단위를 설치했다(매일 뉴스방송과 엄청난 인기를 누린 저녁 자유언론 포럼도 포함하여). 그들은 또한 공장, 캠퍼스, 풀뿌리 그룹과 연결하는 사무실을 세웠다. 5월말 그들은 인쇄소, 광장의 방송국, 피켓부대, 경찰습격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된 4개의 “결사대”, 총회, 상임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명시한 규약을 갖추었다.

5월 20일부터 그들은 자주적인 일일 시위를 조직했고 계엄법에 항의하는 여러 그룹들과 연계하여 협력했다. 그들은 모든 작업장에서 당국이 힘으로 개입할 핑계를 만들지 못하도록 독자적 자기조직을 유지하라고 호소했다. 베이징에서 수도철강사 노동자들과 건설노동자들이 베이징 시민결사대와 날으는 호랑이 오토바이부대(약 300명)를 결성했다. 중국 북동부에는 만추리아 호랑이 결사대와 산악결사대가 비슷하게 자주적 노선에 따라 조직됐다. 작가들 사이에서 베이징 지식인연합이 설립됐고, 한 서양인 목격자는 이 조직을 “1940년대 이래 최초로 시민사회의 자주적 징표”라고 불렀다.<sup>103)</sup>

102) Walder and Xiaoxia, “Workers,” 9. Three years before Walder and Xiaoxia’s study, Selden placed their membership at only 3,000 (“Limits,” 122).

103) Frederic Wakeman, “Items,”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43, no. 3 (September 1989), 60, as cited in Karen Eggleston, “Kwangju 1980 and Beijing 1989,” *Asian Perspective* 15, no. 2 (Fall-Winter1991), 38. 물론 시민사회에 대한 이런 논의는 과도하게 유럽중심주의적 기초를 가지며, 어떤 특정한 종류의 유럽 시민사회가 유일하게 중요한 모델로 투사된다. 따라서 중국의 금융협회(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도 중요한), 오래 유지된 상소제도나 수백개의 독립적인 서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See Tsou, “Tiananmen Tragedy,” 220 and 234, for mention of “emergence of a civil society almost from scratch.” 다른 학자들은 공산주의가 1978년 경제개혁의 재개 시까지 시민사회의 전통적 발전에서 “균열”, 즉 시민사회의 탄압 또는 실종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See discussion in William A. Callahan, “Comparing the Discourse of Popular Politics in Korea and China: From Civil Society to Social Movements,” *Korea Journal* (Spring 1988),: 281-2. Foucault considers China the “exotic East” [*History of Sexuality*, vol. 1 (New York Vintage, 1980), xv]; Afterward to Hubert Dreyfus and Paul Rabinow,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New York: Harvester Press, 1982), 213.

5월 23일 BAWF는 노동자, 지식인, 시민, 여러 학생단체를 포괄하는 모든 자주적 그룹들의 새로운 총연맹 결성에 도움을 주었다. 학생운동이 물러나자, 노동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상하이, 우한, 광둥, 시안, 난징, 항조우, 셴양, 쿤밍, 란조우, 귀양, 창사, 시닝 등 중국 전역에서 자주적 연맹을 결성했다.<sup>104)</sup> 이 시기에 수많은 새 조직들이 결성됐지만, 5월 23일에 결성된 조직만큼 잠재적으로 더 중요한 조직은 없었다. 왜냐면 모든 반정부 경향을 포괄적으로 통일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 조직은 베이징 전서클 전회원 합동협의회라고 불렸고, 노동자, 지식인, 학생 대표 40인으로 구성됐다. 5월 20일 시작된 일련의 회의에 BASU 활동가, 베이징외부 자주학생회 연맹, 왕단 등 개별 활동가들, 1976년과 1978년 운동의 고참 지식인 활동가 뿐만 아니라 지식인연맹의 대표자들까지 참여했다. 이 그룹의 규모는 급속하게 커졌다. 5월 22일 홍콩학생연맹의 대표들까지 참석했지만, 차이링은 참석을 거부했다. 모든 자치적 그룹의 대표자들을 한데 모아서, 잠재적 코핀이 창출됐다. 5월 23일 이 그룹은 매일 정오에 모임을 갖기로 결의했다.<sup>105)</sup> 그룹은 모두가 합동협의회의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학생들은 그들을 지도자라기보다 고문으로 생각했다.<sup>106)</sup> 그들은 중심적 정보센터이자 의사결정 기구를 창출하려고 시도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중적 중심의 권력이전과 유사한 “지휘” 구조에 대해 말했다. 독자적으로 행동하던 차이링은 각 캠퍼스의 대표자들을 모아 “학생의회”를 세워 그녀 자신이 의장이 됐다.

운동 지도자들이 걸로 보기에 끝없는 회의에 치이는 동안, 세 명의 시민이 마오쩌퉁의 고향인 후난에서 도착했다. 기회를 갖게 되자마자 그들은 세 봉지의 잉크를 마오 주석의 거대한 초상화에 뿌렸다. 결사대가 즉각 삼인조(교사, 공장노동자, 중소도시 신문 편집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그들은 나중에 노동자는 16년형, 교사는 종신형에 이르는 선고를 받았다. 2006년까지 그들은 10년에서 16년까지 복역한 다음 모두 석방됐다.) 여기에 바로 운동의 믿을 수 없는 공동체성을 배신한 사례가 있다. 어제 “심지어 도둑들조차 공동선을 위해 파업했지만,” 오늘 학생 보안대는 막 새로 도착한 활동가들을 경찰에 넘겼다. “배신”과 “사보타지”가 등장해서 동료 활동가를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됐다. 일부 학생들은 기차역으로 가서 새로 도착한 학생들을 자칭 사령관들의 명령 아래 병사로 모집했다. 화성기 방송국에서 하루에 세네 번의 “쿠데타”가 일어났고, 다른 활동가들에 의해 최소한 한 차례 차이링과 펑퉁 데 납치가 시도됐으며, 한 학생과 그의 측근들은 대여섯 번이나 권력을 잡으려고 했다. 차이링은 경쟁자들을 언급하면서 선언했다: “내가 총사령관이다. 나는 타협에 저항해야 하고, 이 반역자들에게 저항해야 한다.” 그녀는 정부전복을 호소했다. 1992년 타이랜드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참룡이란 한 개인이 보다 민주적인 조직대표자들의 위원회로부터 운동의 지도력을 빼앗아갈 수 있었다. 차이링처럼 참룡은 단식농성을 이용해 자신을 중심에 부각시켰다. 이 데마고그 정치인들은 민주적 경향을 우회하고 주변화했고, 개인의 카리스마로 언론의 관심을 끌고 스타덤으로 권력을 쥐었다.

여전히 베이징 시민들은 거리를 봉쇄했다. 거리를 정리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할 수 없게 되자, 정부는 망설였다. 한동안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5월 25일 외무부 장관은 자오지양이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라고 주장했다. 티안먼 광장에서 약 100,000명의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리핑 퇴진!”을 외치기 시작했다. 같은 날, ASU는 재조직화의 오랜 과정을 완료했다. ASU의 대규모 학생기반은 상당히 위축됐고, 재정비된 그룹은 단식농성자들과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언론스타들의 그늘에서 일했다. 리핑은 공개적으로 “군대가 성공적으로 계엄령을 집행할 것”이라고 예견했다.<sup>107)</sup>

5월 26일 BAWF는 해외의 모든 중국인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우리 민족은 우리 노동자들과 다른 모든 정신-육체 노동자들의 투쟁과 노동으로 창조됐다. 우리는 이 민족의 정당한 주인

104) Wang, “Pillar of Community,” 179.

105) Wright, *Perils of Protest*, 83.

106) *Ibid.*, 84.

107) Cheng, *Tiananmen Massacre*, 205.

이다. 우리의 목소리는 국가적 사안에 반영되어야 하며, 진정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는 민족과 노동계급의 타락한 한줌의 인간쓰레기들이 우리의 이름을 더럽히고 학생들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살해하고 인권을 짓밟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들의 또다른 공개성명은 중국인민들에게 “이 20세기의 바스티유, 스탈린주의 마지막 보루를 습격하라!”고 촉구했다.<sup>108)</sup> 즉각적으로 국제적 네트워크들이 동원됐다. 홍콩의 조직가들은 5월 27일 경마장 자선 콘서트를 열었고 수백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바로 그날 밤 텐트와 물품이 현금 주머니와 함께 베이징에 도착했다. 거의 즉각적으로 누가 자금을 관리할 것인가를 두고 학생 지도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마침내 나누어 쓰기로 합의했지만, 차이링은 공공연하게 자신이 최대의 몫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이링은 마침내 합동협회의의 일일회의에 참가했다. 5월 27일 11시부터 5시까지 특별히 긴 토론 끝에 계엄령 10일차인 5월 30일 티안먼을 떠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다. 대표단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떠나기로 한 결정을 발표했다. 그들은 나중에 차이링의 대학 대표자 200~300명의 총회가 야간회의에서 80퍼센트 이상의 표결로 광장에 머물기로 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다. 합동협회의의 결정이 아무리 고통스럽게 이루어졌더라도, 그 결정은 차이링의 “학생의회”에 의해 번복됐다. 다시 한번, 운동 지도자들은 자기모순적 성명을 발표했다. 위카이시와 왕단이 떠나려는 사람들의 의도를 발표한 반면, 차이링은 자신이 마음을 바꾸었고 단식농성자들은 머물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했겠지만, 아무도 자신의 그룹이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있는 동지들을 버리자고 제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많은 개인들은 자신의 발로 표결을 하고 떠났다. 5월 29일 30,000명의 학생들이 열차편으로 베이징을 떠난 반면, 겨우 180명이 들어왔다. 5월말 많은 캠퍼스가 평상시로 되돌아갔다.<sup>109)</sup>

티안먼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자, 학생들은 새로운 대원을 모집하려고 지원팀을 보냈다. 그들 중 한명이 다싱현에 갔다가 지역경찰의 공격을 받아 감옥에 갇혔다. 구속자를 석방시킬 수 없게 되자 학생들은 5월 28일 BAWF에 도움을 청했고, 최소한 6대의 트럭으로 구성된 노동자 부대와 오토바이 부대가 다싱에 파견됐다. 그들은 지역 경찰과 대치했지만, 학생들을 석방시킬 수 없어서 티안먼으로 돌아갔다. 이를 뒤, 베이징 경찰은 다싱 습격사건에 대응하여 센잉한을 포함한 3명의 BAWF 지도자들과 날으는 오토바이 대원 11명을 체포했다. 우울한 소식을 듣고 한동광과 약 30명의 노동자들은 공안부로 달려가 구속자 석방을 요구했다. 요구를 거부한 당국은 BAWF가 불법조직이라고 주장하면서 학생 이외에는 그 누구와도 협상하기를 거부했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관리들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날 BAWF가 외신 기자회견, 공안부 농성, 티안먼 시위를 조직한 다음, 경찰은 갑자기 구속자 전원을 석방했다.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대우를 4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학생들이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비교해보면, 두 집단 간의 엄청난 격차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sup>110)</sup>

당국은 학생과 노동자들을 다르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운동 내에도 그들을 분리하는 선이 보이지 않는 잉크로 그려져 있던 것이 분명하다. 같은 날 노동자들이 다싱에 도움을 주도록 부탁받았을 때, BAWF는 파업을 호소할 의사를 표했지만, 학생들은 그들에게 “이것은 우리의 운동이며, 당신들은 우리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동에 필요한 합의 없이, 일부 노동자들은 “결국 5월 28일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학생들에 대한 동조를 옹호하지 않았다.... 우리는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지만, 학생들은 우리를 끼워주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 노동자들이 상스럽고 멍청하고 무모하고 협상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sup>111)</sup> 사실 많은 개별 캠퍼스 활동가들은 공장 노동자들에게 다가왔다. 쉬다는 5개 팀을 수도철강에 파견하여 자주적 노동자조직을 선동했고, ASU는 BAWF에 약간의 기금을 주었

108) Dated May 26, as quoted in Walder and Xiaoxia, “Workers,” 12-3.

109) Zhang, *Tiananmen Papers*, 319-322.

110) Wright, *Perils of Protest*, 94.

111) Walder and Xiaoxia, “Workers,” 24.

다.<sup>112)</sup> 다른 한편, 학생 지도자들은 일반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스포트라이트를 서로 나누길 꺼렸다. 다싱투쟁 이후, BAWF가 소원해지고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자, 마침내 학생 지도자들은 노동자들이 광장의 주요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금지조항(처음에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순수하게” 유지하려고 제정한 금지조항)을 완화했다.<sup>113)</sup>

학생과 노동자 조직을 비교한 많은 목격자들은 학생들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학생들에 비해, 노동자들은 대개 자기 공장 내에서 효과적인 자주적 조직을 건설할 수 없었다. 새로 결성된 지역연맹들은 기껏해야 작은 규모에 빠대 수준이며 소수의 노동자들만 참여했다.”<sup>114)</sup> 학생들은 공짜 열차편(철도 노동자들의 예의)으로 용이하게 된 기동성을 누렸고, 운동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된 동정적 언론취재의 축복도 받았다. 베이징 학생들은 하얼빈, 상하이, 난징, 우한, 시안, 장사 등의 대학과 전문대에서 목격됐다. 학생들은 또한 정권의 억압기구들 보다 더 빨리 팩스와 같은 신기술에 적응했다.<sup>115)</sup> 1978년에서 1987년까지 도시 전화선은 두배 이상 늘어났고, 대학 주변의 식자층에 한정된 사기도 광범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금이 쏟아지자 ASU 회원들은 베이징의 중앙예술원 학생들과 접촉하여 그들에게 5월 30일로 예정된 시위에 쓸 조각상 제작을 위탁했다. 약 15명의 미술전공 재학생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그들은 며칠전 상하이에 등장했던 것처럼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커다란 조각상에 대한 ASU의 제안을 수정할 것을 고집했다. 그런 모방품은 너무 “친미적”으로 보였다. 기존작품의 단순한 모방품이 예술가의 창의성 개념에 공감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추가적 반론이 제기되어서, 그들은 훨씬 더 어려운 작품, 두손이 햇불을 높이든 조각상을 제안했다. 학생들 중의 하나가 우연히 러시아의 여성미술가 베라 무히나(Vera Mukhina)의 작품에 기초하여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 그녀의 기념비적 조각인 “노동자와 집단농장 여성”은 1937년 파리 세계박람회의 소련관 꼭대기를 장식했었다.<sup>116)</sup>

ASU가 사람들을 다시 티아난먼으로 끌어들이 수단으로 조각상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차이링은 필리 커닝햄 기자와의 비밀 인터뷰 일정을 잡았고, 인터뷰에서 그녀는 “우리가 실제로 희망하는 것은 유혈사태이다. 광장이 피로 씻길 때야 비로소 인민들은 눈을 뜰 것이다.”라고 말했다. 차이링은 “사람들이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해도 신경쓰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인민들에게 “리핑의 불법정부를 타도”하라고 호소했다.<sup>117)</sup> 5월 28일 세계은행은 추가대출에 대한 중국과의 협상을 중단했다.<sup>118)</sup> 5월 29일 새벽, 10,000명 이하의 학생들이 광장에 남아 있었다. 아무도 중국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일부는 혼돈을 두려워했고, 다른 사람들은 권위주의를 두려워했다.

5월 30일 30피트 높이의 민주주의 여신상 도착은 광장에 새로운 관심거리를 가져와서, 약 300,000명의 관람객이 다음 48시간 동안 이 설치물을 감상했다. 관인(Guanyin) 즉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생각되든 두 개의 종합이라고 생각되든, 이 조각은 우울한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왔다. 금요일인 6월 2일 광장이 막 버려질 것 같았던 그 순간에, 룩스타 호우데지안을 포함한 4인의 새로운 단식농성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 티아난먼이 다시 가득 찼다. 새로운 단식농성자들은 학생조직들의 “내부 혼동”에 아주 비판

112) Wright, *Perils of Protest* 93.

113) Walder and Xiaoxia, “Workers,” 15.

114) Selden, “Limits,” 122.

115) 봉기가 진압된 다음, 매사추세츠 주 윌트햄의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팩스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학생들은 여러 도시에서 브랜다이스로 보고서를 팩스로 보낸 다음,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팩스기를 다른 장소로 옮겼다. 새로운 장소에서 연락을 받으면, 브랜다이스의 중국 학생들은 편집한 보고서를 다시 중국으로 보냈다.

116) Han, *Cries for Democracy*, 343-4.

117) 이 인터뷰는 영화 <Gate of Heavenly Peace>에서 볼 수 있다. 마침내 군대의 공격이 시자되자 차이링은 결국 자발적으로 광장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See further clarification in Tsou, “Tiananmen Tragedy,” 239.

118) Cheng, *Tiananmen Papers*, 205.

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의 이론은 민주주의를 호소하지만, 구체적 문제를 다룰 때 그들은 민주적이지 않다.”<sup>119)</sup> 끝이 가까웠고, 심지어 새로운 유명인사로 에너지를 주입하는 것은 별로 오래가지 못했다.

6월 2일 밤새 군대가 베이징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새벽이 되기 전부터 인민들은 군대를 저지하고 트럭들을 전복시켰다. 수백명의 군인들이 포위당했고, 일부는 사람들에게 구타당하고 잡히기도 했다. 6월 3일 정오가 좀 지난 후, 군대는 중난하이 남서부 모퉁이 근처에서 탄약 트럭을 탈취한 시위자들에게 최루가스를 사용했지만, 군중들은 해산하기를 거부했다. 군대는 다시 한번 인민대회당 쪽에서 티안먼 광장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했다. 일부는 대회당 아래 터널에서 나왔고, 시위대가 “공산당이 없다면 새로운 세계는 없을 것이라네”라는 당가로 노래자랑을 하는 데 참여했다. 그날 밤, 인민해방군(PLA)은 인민들에게 발포하지 않으려고 돌아갔지만, 군사적 전면총공격이 준비되고 있었다.

오후 5시경, BAWF는 무기(강철체인, 곤봉, 식칼, 죽창)를 분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람들을 조직하여 시단의 건설현장에서 벽을 무너뜨려서 자기방어로 사용할 철제기둥과 벽돌을 가져왔다.<sup>120)</sup> 그날 저녁 티안먼 서쪽의 노동계급 지구인 부시디에서 거대한 군중이 전진을 시도하던 경무장 군대를 저지했다. 돌이 날아와 군용헬멧이 일부 부서지자, 그들 뒤에 있던 38군의 중무장 군인들이 AK-47로 발포했다. 이어진 혼란스런 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여기에는 27군의 장갑부대에 깔려서 죽은 38군 군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저항은 대규모였고 전투적이었다. 6월 3일 밤 7개의 군대가 별도로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도됐다. 군부대들이 전투를 벌이면서 도시 중심부로 밀고 들어오자, 사람들은 장안로 교차로에 모였다. 군대가 실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 가운데, 바리케이드, 돌, 화염병과 무장한 군대 사이의 육박전이 장안로 전역에서 벌어졌다. 새벽 1시 30분경, 군대가 연발사격을 하면서 전투는 격화됐다. 앰블런스가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달려갔고, 삼문자전거 기사들도 많은 부상자들을 실어 날랐다. 헌혈자에 대한 요청이 오자마자 시민들은 병원에 몰려가 헌혈했다.

군대가 티안먼 광장에 이르자, 최소한 한 보도에 의하면 최초의 공격은 BAWF가 중앙모임 장소로 사용하던 서북 전망대를 목표로 했다.<sup>121)</sup> 약 5천명의 학생들이 대부분 미친듯이 울면서 또는 노래하면서 인민영웅탑 둘레에 웅크린 채 남아있었다. 학생들이 탈취한 무기와 칼을 군대와 싸우는 데 쓰지 않고 부수자 노동자들은 더욱 분노했다. 차이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3시경에 이미 떠났다.<sup>122)</sup> 새벽 4시 45분경, 학생들은 표결하여 떠나기로 결정했다. 20분뒤 그들은 남쪽 측면을 따라 평화적으로 퇴장했다.

6월 4일 새벽, 티안먼은 군대의 수중에 들어갔다. 도시가 깨어나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오전 7시경, 베이징 시장에 의하면, “폭도들이 류부코에 정차해 있던 군용차량을 습격하여 기관총과 실탄을 탈취했다. 장궈먼에서 동단까지, 그리고 티안파오 지역에서 계엄군이 고립되어 포위당한 채로 구타당했다. 장궈먼 입체교차로에서 일부 군인들이 옷을 빼앗겼고, 다른 군인들은 심하게 구타당했다.”<sup>123)</sup> 시장은 계속해서 후팡야오 근처에서 군인들이 아주 심하게 구타당했고 일부는 실명했다고 주장했다. “폭도들”은 CCP 중앙위원회 선전부, 인민대회당, 라디오-영화-TV부, 중난하이의 두 정문 등을 공격했고, “지주노조연맹”은 인민들에게 “무기를 들고 정부를 타도하라”고 선동했다. 시장의 보고는 5개 지역에서 군인과 경

119) Quoted in Schell and Shambaugh, *China Reader*, 203.

120) Zhang, *Tiananmen Papers*, 367.

121) Green, “Meaning of Tiananmen,” 44.

122) Baum, “Road to Tiananmen,” 459.

123) 공격 한달 후 베이징 시장 첸시통은 장문의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는 필자가 이 장에서 언급한 저항 사례의 목록을 정리했다. Chen Xitong, “Report on the Checking the Turmoil and Quelling the Counter-revolutionary Rebellion,” in *The China Reader: The Reform Era*, eds. Orville Schell and David Shambaugh (New York: Vintage, 1999), 79-95.

찰에 대한 “야수적” 공격을 자세히 다룬다. 그는 후고시에서 경기관총이 탈취당했다고 주장한다. 군중은 경찰 앰블런스를 제지한 다음 안에 있던 8명의 부상 군인을 구타했고 그 중 한명이 사망했다. 전투의 격렬성으로 1,280대의 경찰차, 군용차량(60대의 병력수송 장갑차를 포함) 및 버스의 방화 및 피해가 발생했다. 삼징 교차로에서 봉기대가 군중들이 세운 장갑차에서 23정의 기관총을 탈취했다.<sup>124)</sup>

[사진 18]

불타는 군용차량은 베이징에서 전투의 격렬함을 보여준다.

군인 시신에 대한 훼손에 대해 많이 보고됐다. 시단 교차로 동부에서 한 군인 살해된 후 시신이 불타고, 푸청먼에서 한 군인의 시체가 살해된 곳에 공중에 매달렸고, 총네먼에서 한 군인이 산 채로 불태워져 시체가 고가도로에 매달렸는데,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이를 “하늘의 불로 번개를 맞은 것”으로 묘사했다. 서장안로의 캐피탈 영화관 근처에서, 류귀갱이란 소대장이 네명을 총으로 죽이자, 군중들이 그를 패죽인 다음, 불태우고 시체에서 내장을 꺼내고 불타는 버스에 매달았다.

[사진 19]

군인 류귀갱의 훼손된 시신

많은 도시에서 사람들은 군대의 도시점수에 맞서 싸웠다. 언론의 보도통제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에서 보도들이 흘러나왔다. 학살을 묘사하는 홍콩의 팩스가 신양과 상하이 등 여러 도시에 붙여졌다.<sup>125)</sup> 청두에서는 격렬한 저항이 분쇄됐다. 항저우에서는 6월 4일 오후 2시 군중들이 기차역을 공격해서 교통을 마비시켰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열차운행을 막기 위해 나무, 돌, 강철을 철로에 두면서 전투는 6월 7일까지 계속됐다. 주요 교차로의 농성은 교통을 봉쇄했고, 미술과 학생대오는 지방정부 청사에서 국기를 내렸다.<sup>126)</sup> 영웅적 행동은 풍부했고, 가장 유명한 것은 베이징의 익명의 “탱크맨”(tank man)이다. 그는 6월 5일 탱크대열을 내려다 보면서 저지했다. 난징에서 1만명의 사람들이 베이징 학살을 추모하기 위해 행진했다. 상하이에서, 열차가 철로를 점거한 시위대를 쳐서 6명을 죽이고 다수를 부상케 하자, 열차에 불을 질러 열차운행을 여러 시간동안 마비시켰다.

전체적으로 비록 알려지지 않은 숫자의 경우에 군인들이 명령복종을 거부했음에도, 군대는 정부의 통제 아래 확고하게 남아있었다.<sup>127)</sup> 38군 사령관인 수킹산 장군은 나중에 계엄령 수행 실패 혐의로 군사법정에 회부됐고, 6월 4일 베이징의 부사령관은 직위해제 당했다. 6월 6일과 7일, 군부대가 서로 교전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정부군은 모든 반대세력을 압도하여 분쇄했다.<sup>128)</sup> 100명 이상의 PLA 장교들이 나중에 “심각한 방식으로 규율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고, 1,400명의 사병이 최후의 순간에 무기를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sup>129)</sup>

봉기의 여파

탄압에 관한 최초의 정부보고는 총 300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했고 7,000명이 부상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세월이 흐른 뒤 죽은 사람의 추정치는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sup>130)</sup> 정

124) Zhang, *Tiananmen Papers*, 384.

125) Unger, *Pro-Democracy Protests*, 77, 222.

126) Keith Forster, “The Popular Protest in Hangzhou,” in *Pro-Democracy Protests*, 180.

127) Tsou, “Tiananmen Tragedy,” 220.

128) Cheng, *Tiananmen Massacre*, 206.

129) Baum, “Road to Tiananmen,” 469.

130) 사망자 수자는 200~300명(정부 수치)에서, 〈뉴욕타임스〉의 400~800명, 1000명(미국 국가안보청), 2,600명(중국 적십자)까지 이른다. 마크 블레처는 “최상의 추정치”를 약 1,000명으로 본다. Marc Blecher, *China Against the Tides: Restructuring Through Revolution, Radicalism and Reform* (London: Pinter, 1997). 108.



부를 대표해서 베이징 시장 첸시통은 수십명의 군인과 경찰이 죽었고 6,000명이 부상당했다고 추산했다. 민간인들 중에 그는 대학생 36명을 포함해 200명이 죽었고, 3,000명이 부상당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sup>131)</sup> 폭력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 중의 한명인 덩질린 교수는 사망자의 가까운 친척들을 찾아내는 데 여러 해를 보냈다. 1995년 증순, 그녀의 목록에는 130명 이상의 이름이 올라있다. 2006년 6월말, 덩질린과 사망자 유가족회는 살해당한 186명의 이름을 밝혔다. 비록 정부가 사망자에 대해 보상하지 않았지만, 덩질린은 해외에서 온 재정지원을 유가족들에게 전해줬다.

수백명의 알려진 활동가들은 탄압이 차례로 진행되면서 대도시에서 체포됐다. 6월 11일까지 1천명 이상이 구금됐다. 이를 후, 학생지도자들의 수배명단이 발표됐지만, 학생 활동가들이 겪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억압적 권력의 예봉은 노동자들에게 향했다. 6월 15일 상하이에서 기계에 피해를 입혔다고 유죄판결을 받은 3명의 노동자들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고, 21일 기차에 불을 지른 세 명이 처형당했다.<sup>132)</sup> 7월 5일까지 체포된 숫자는 2,500명에 이르렀다. 청두에서 두 명의 “폭동자”가 사형선고를 받았다. 구금된 사람들의 숫자는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홍콩에서 한 비디오 증언에서 차이링은 티아난먼 광장에서 학생들이 텐트에서 자고 있을 때 탱크가 학생들을 깔아 죽인 다음 가솔린에 적셔 불에 태웠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허구였다.<sup>133)</sup> 지속적인 서구언론의 보도와 대조적으로, 비디오 및 목격자 증언에 대한 자세한 검토 결과 티아난먼 광장에서 어떤 학생도 죽지 않았다.<sup>134)</sup> 대부분의 학살은 베이징 외곽의 노동계급 교외지역에서 발생했다. 많은 사람들이 리핑을 비난한 반면, 사후 회고록에서 자오지양은 덩샤오핑이 지도부의 표결을 하지도 않은 채 시위대 탄압을 명령했다고 주장했다.<sup>135)</sup>

1989년 가을 모든 베이징대학 학생들이 대학 입학 전에 1년간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법이 제정됐고, 신입생은 2,000명에서 800명으로 삭감됐다. 전국적으로 1990년 말 이전에 인문과학과 사회과학대 신입생 인원이 약 30,000명이나 줄었다.

시위 분위기의 대중적 표현 중에서 소수의 살아남은 수단 중의 하나가 현대미술인데, 1989년 이후 현대미술의 고양은 지속됐다. 덩샤오핑의 시장지향적 개혁의 성공과 함께 상업화는 미술계를 길들였다. 1992년 홍콩에서 시장의 기회가 오자 제3의 물결이 등장했다.<sup>136)</sup> 역설적으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이미지와 슬로건을 활용한 화가들이 진지한 국가예술을 전복할 수 있었다.<sup>137)</sup> 문화혁명 이미지와 서구의 소비자 스크립트를 혼합한 왕광이는 코카콜라로 “정치적 팝”(political pop)을 창조했고, 이는 1989년 봉기의 성과에 대한 불편한 헌사였다.

## 탄압과 중국의 변영

20년 이상의 회고적 공간과 함께 우리는 오늘날 1989년 중국이 얼마나 혁명적 상황에 가까웠는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아무도 시민에 대한 국가폭력 사용에 갈채를 보내지 않지만, 정부는 압도적 무력사용에 대해 아직도 변명해야 한다. 탄압은 최초의 방어선이었지만, 20년간 봉기가 제기한 도전에 대한 정부의 두 가지 대응의 주된 핵심은 유례없는 변영과 경제성

131) Schell and Shambaugh, *China Reader*, 92-3.

132) Cheng, *Tiananmen Massacre*, 207.

133) Jan Wong, *Red China Blues*, 257.

134) “The Tiananmen Square Confrontation Rewriting History for a new Generation,” <http://www.alternativeinsight.com/Tiananmen.html>, accessed October 1, 2009.

135) *Prisoner of the State: The Secret Journal of Premier Zhou Ziyang*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09).

136) Crozier, “Avant-garde,” 498.

137) See Zhang Hongtu’s *Last Banquet* in Crozier, 492. Not only did the piece parody Mao by inserting him into Leonardo’s Last Supper, but when it was exhibited in Washington DC, a conservative Congressman objected to its “sacrilegious” character.

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1989년 이래 국영기업 노동자와 대학생들이 더 많이 CCP 당원이 됐다는 증거는 많다.<sup>138)</sup> 탄아난면 이후 10년간 그 이전 10년 전에 비해 10배나 많은 대학생들이 당에 가입했고, 2001년 전체 학생의 1/3이 입당 신청을 했고, 그보다 약간 적은 28퍼센트의 대학원생들이 이미 당원이었다. 2007년 전체 학생의 8퍼센트 이상이었는데, 1989년 1퍼센트 이하와 비교된다.

다당제 민주주의와 시민적 자유의 확대는 아직 지평에 오르지 않았지만, 중국체제는 중요한 개혁과정을 겪어왔다. 학계 내에서 인기없는 의견의 발표와 논쟁을 위한 공간이 더 많이 열렸다.<sup>139)</sup> 탄압은 확실히 계속됐다. 2008년 이제 하버드 졸업생이 된 왕단은 재교육수용소에 300,000명의 정치범이 있다고 추산했다.<sup>140)</sup> 2백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감옥에서 고생하는 현실과 비교해보면, 미국 시민들의 눈에 비친 중국의 빈약한 인권실태는 대중매체의 힘을 강력히 보여준다.

체제를 완화하기 위한 수많은 개혁이 이뤄졌다. 2002년 16차 전당대회까지, 중앙위원 절반 이상이 은퇴했고, 중요한 이행이 이뤄졌다. 부패를 줄이려는 시도로 이제 관리들은 윤번제로 순회하며, 연령에 따른 의무적 은퇴가 정부당국에서 시행됐고, 기업가들이 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가됐고(그 결과 중국의 가장 부유한 시민들의 1/3이 CCP 당원들이다), 전문가들과 지식인들은 권력의 지위로 통합되어 최고위 관리들에게 전문적 충고를 제공하게 됐다. 부패를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9년 부패는 증가했다.<sup>141)</sup> 소비재와 여행권은 보다 광범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정치적 간섭과 일상생활에 대한 자의적 침해의 범위는 감소했다. 1980년대, 작업단 지도자들의 공식적 휴가를 얻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했고, 여행의 특권은 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했으며, 심지어 극장표도 중앙에서 배당했었다.

1989년 이래 모든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중국의 놀랍도록 꾸준한 경제성장율이다. 1980년에서 1996년까지 9.6퍼센트였고, 심지어 1997년 IMF위기 동안에도 9.3퍼센트를 유지했다.<sup>142)</sup>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중국의 두 자리수 팽창은 중국을 계속 전진하도록 추동했다. 이제 세계 제2의 경제열강으로 2035년에 미국과 같은 수준의 생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5: 실질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1997-2006년

년도	실질성장율	소비자 물가인상율
1997	9.3%	2.8%
1998	7.8%	-0.8%
1999	7.6%	-1.4%
2000	8.4%	0.4%
2001	8.3%	0.7%
2002	9.1%	-0.8 %
2003	10.0%	1.2%
2004	10.1%	3.9%
2005	10.4%	1.8%

138) Wright, "Disincentives," 4.

139) Interview with Professor Wu Jieh-min, Shanghai, August 15, 2009.

140) Wang Dan, "An Olympic Amnesty," *Washington Post*, June 3, 2008.

141) Han Dongfang interviewed by Feng Congde, "June 4<sup>th</sup>'s Long-term Legacy," *China Rights Forum 2* (2006): 75.

142) Yanqi Tong measured the 1997 growth rate at 7 percent. See "The Prospects of Democracy in China: Theory and Reality," in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New Millennium*,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20th Anniversary of the Kwangju Uprising Program (Gwangju: May 18 Institute, 2000), 125.

2006	11.1%	1.5%
------	-------	------

Source: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07 as cited in *Thirty Years of China's Reforms*, 91.

중국은 이제 아시아 경제기적의 흐름 가운데 또다른 “기적”으로 여겨진다. 2001년 WTO 가입과 더불어 생활수준의 눈부신 향상은 적지 않게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지향적 생산 때문이다. 2002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6,547억달러나 증가했다.<sup>143)</sup> 1987년 170억달러 이하에서 2010년 7월 2조5천억 달러에 접근했다.<sup>144)</sup> 너무나 많은 돈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와서 상하이의 부동산 투자는 1990년 연간 1억달러에서 1996년 75억달러로 증가했고, 이는 6년간 7,500퍼센트 증가이며, 2002년에는 110억 달러로 늘어났다.<sup>145)</sup> 2007년 12월에서 2008년 4월까지 중국의 70대 도시에서 주택가격이 매월 10퍼센트 이상 상승했다가, 2008년 8월 5.3퍼센트로 약간 감소했다.<sup>146)</sup>

이런 경이로운 성장과정에서 7명의 억만장자와 300,000만명 이상의 백만장자가 생겨났고 대부분 당원이거나 정부관리였고, 또는 그들과 가까운 줄을 잡고 있다. 2005년까지 불평등이 아주 급속하게 증가해서 정부는 지니계수(불평등 척도) 발표를 중지했지만, 모든 선진국과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보다 더 높다고 정부는 인정했다.<sup>147)</sup> 개혁 이전 지니계수는 도시에 0.20이었고 농촌지역은 좀더 높은 0.21-0.24였다. 2002년 전국수치는 0.454에 이르러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sup>148)</sup> 2002년 인구의 상위 20퍼센트는 국부의 59.3퍼센트를 보유한 반면, 하위 20퍼센트는 겨우 2.8퍼센트를 보유했다.<sup>149)</sup> 아직은 중요한 중산층이 형성되지 않았다. 하위 50퍼센트의 경제계층은 겨우 14.4퍼센트의 부를 보유했고, 하위 70퍼센트는 29퍼센트 이하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이란 중국의 명성은 수천만 산업예비군의 등위에 세워진 것이며, 이들은 노동자들이 “중국가격”으로 지불한 노동집약적 작업을 수행하는 초국적 기업들의 투자에 수십억 달러를 가져온 1억명 이상의 유동인구다.<sup>150)</sup> 노동조건은 여전히 다른 저개발국가의 수준이며, 중국 노동자들은 2003년 현장에서 14,675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sup>151)</sup> 이와 대조적으로 2008년 첫 9개월간 1,456명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이 미숙련 산업노동자들은 박봉을 받는다. 심지어 인디아도 1998년 중국인보다 50퍼센트나 더 노동자들에 임금을 지불했고, 미국은 47.8배, 남한은 12.9배나 더 많이 지불했다.<sup>152)</sup> 대도시의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은 상당한 성과의 소득을 기록했지만, 미숙련 노동자들은 경제가 성장해도 고통을 겪었다. 중국의 기적 뒤에 있는 모든 비밀 중에서, 반숙련 농촌이민자들의 방대한 풀에 대한 착취가 그 목록 제일 위에 있다. 다른 것에는 신장과 티베트의 막대한 광물 및 석유에 매장량과 그 민족들의 노동에 대한 제국적 착취, 국제투기꾼들의 권력을 제한하는 와환거래에 대한 국가개입, 모든 것을 생산으로 지향하는 제조업우선 이데올로기 등이 포함된다.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중국은 동아시아의 “개발국가들”, 즉 광주항쟁 이후 남한에서 미국의 해체한 바로 그 종류의 국가에 또 다른 모범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1985년에서 2007년까지 중국의 인구학적 변화의 독특한 특징은 청년인구의 감소로, 1985년 노동자 100명당 어린이

143) China Institute for Reform and Development, eds., *Thirty Years of China's Reforms: Through Chinese and International Scholars' Eyes*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2008), 23.

144)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www.chinability.com/Reserves.htm>

145) Richard Walker and Daniel Buck, “The Chinese Road: Cities in the Transition to Capitalism,” *New Left Review* 46 (July-August 2007): 48.

146)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as reported in *China Human Rights Report 2008*, 112.

147) Taiwan Foundation for Democracy, *China Human Rights Report 2008* (Taipei, 2009), 41.

148) China Institute for Reform and Development, *Thirty Years of China's Reforms*, 157-160.

149) *Ibid.*, 167.

150) Walden Bello, “Asia: The Coming Fury,” *ForeignPolicyinFocus*, February 10, 2009.

151) *Asian Labour News*, May 8, 2004.

152) You Yongding, “The Experience of FDI Recipients: The Case Of China,” in *Multinationals and Economic Growth in East Asia*, eds. S. Urata, C. Yue, and F. Kimura (London: Routledge, 2006) ,436.

(15세 이하) 45명의 비율이 2005년 15명의 비율로 내려갔다.<sup>153)</sup> 그 결과 금융자원의 해방은 저축증가와 자본유출을 제공한다. 2009년 적은 숫자의 구직자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학 졸업자의 절반만이 5월에 고용계약에 서명할 수 있었고, 이는 최소한 300만명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구직중인 것을 의미한다.

### 계속되는 저항과 국가통합

경제성장과 나란히 NGO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아니 국가로부터 받는 자금과 국과의 연계 때문에 GONGNO(정부가 조직한 NGO)라고 불러야 한다.<sup>154)</sup> 1994년 당은 사적 시민그룹들에 법적 지위를 부여했고, 환경단체는 처음에 조직된 단체들의 한 핵심요소였다.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역단체에 환경문제를 보고하라고 요청한 반면, 지역당국들은 높은 경제성장을 성취하도록 장려받는데, 이는 환경보호에 대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이다.<sup>155)</sup> 1992년에서 2007년까지 300,000개 이상의 NGO들이 등록했다. 비공식적으로 200만 개나 되는 단체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sup>156)</sup>

중국인민들의 직접행동과 불의한 권위에 대한 저항의 문화는 여전히 정치지형의 중요한 특징이다. 아래의 표는 증가하는 소요의 범위를 보여준다.

표 16: 사회적 소요사건 1993-2005년

연도	시위 숫자
1993	8,700
1994	10,000
1995	11,500
1996	12,500
1997	15,000
1998	24,500
1999	32,500
2000	40,000
2002	50,400
2003	58,000
2004	74,000
2005	87,000
2006	90,000
2008	100,000

Source: China Ministry of Public Security as reported in Andrew Mertha, *China's Water Warriors: Citizen Action and Policy Chang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1),153. *Outlook Weekly* (Xinhua statenewsagency, January 2009) as quoted in "Chinese Question Police Absence in Ethnic Riots,"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09/07/18/world/asia/18xinjiang.html?\\_r=1&ref=global-home](http://www.nytimes.com/2009/07/18/world/asia/18xinjiang.html?_r=1&ref=global-home); Yang Jianli, "Anti-Government Protests Every Day," <http://roomfordebate.blogs.nytimes.com/2009/06/02/chinas-new-rebels/?hp>.

시위 숫자에 대한 다른 추정치는 훨씬 더 높다.<sup>157)</sup> 토지는 골프코스든 화력발전소든 개발을

153) "China is Rich Abroad Due to Worker Bulge," *China Post*, August 3, 2009.

154) See Mary E. Gallagher, "The Limits of Civil Society in a Late Leninist State," in *Civil Society and Political Change in Asia: Expanding and Contracting Democratic Space*, ed. Mutiah Alagapp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443.

155) Joseph Kahn, "In China, a Lake's Champion Imperils Himself," *New York Times*, October 13, 2007.

156) Howard French, "Citizens' Groups Take Root Across China," *New York Times*, February 15, 2007.

위해 일상적으로 수용되며, 아주 확연한 문제여서 정부도 막대한 다수의 기층분쟁이 토지구획과 관련있다고 인정한다.<sup>158)</sup> 2006년 동조우(산웨이 외곽의 해안도시)에서 경찰이 발포하여 30명이나 죽었는데, 1989년 이래 최대의 유혈대치였다. 이 사건은 동저우 토지가 수용된 두 번째 경우였고, 첫 번째는 석탄발전소 건설, 두 번째는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것이었다.<sup>159)</sup>

중국의 금융자본에 대한 중앙계획 및 통제는 서구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호황과 파열의 주기로부터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가? 이것은 당연히 현대중국의 생존을 결정한 결정적 문제이다. 1989년부터 경제변영이 많은 목소리를 잠재웠지만, 주요한 경기하강은 변화를 위한 또 다른 운동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다. 서류의 일부는 중국에 붕괴에 가까이 왔다고 현혹하는데, 이는 그들이 북한에 대해 비슷하게 투사하는 운명이다. 2002년 아마존 영국판 편집자는 “인민공화국이 붕괴 전까지 5년, 아마도 10년 남았다”고 예언했다.<sup>160)</sup> 2008년 거의 붕괴한 건 다른 아닌 서구 자본주의였다.

중국의 티벳 및 위구르 소수민족 역시 불안의 원천이다. 비록 두 경우 다수의 한족 사이에서 압도적 감정은 이들의 영토에 대한 정부의 주장을 지지하지만, 티벳에 대한 1989년 탄압은 중국의 탄압을 향한 행진을 개시했고, 민주주의를 향한 길에서 여러 걸음 후퇴시켰지만, 강경노선은 티벳 주지사 후진타오와 상하이 시장 장쩌민을 1990년대초 전국적 최고의 지위로 올라가게 했다. (장쩌민은 1989년 6월 CCP 총서기가 됐고, 후진타오는 2002년 그를 대신했다.)

홍콩, 타이완과 본토 간의 정치적 관계의 상이한 동학은 진보적 변화에 대한 미래의 자극제로 입증될 것이다. 타이완과 홍콩의 활동가들은 본토의 1989년 운동에서 작은 역할을 했다. 국립 타이완대학의 전 교수인 첸쿠잉과 입법원 후보 황순신과 창춘난은 모두 중국이 고향이지만, 티아난먼 광장 사태 이후 떠났다. 베이징의 전인대 홍콩 대표와 함께 황순신은 학생들에 대한 군대의 사용에 반대하는 유일한 다른 대표였다.

1989년 탄압은 중국내 봉기의 결과였지만, 이웃 타이완, 방글라데시, 네팔에서 지역 민주화 운동이 전개된 드라마의 다음 막은 민중들의 저항으로 촉발됐다.

---

157)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센터에 의하면, 1998년에서 2000년까지 대규모가 시위가 거의 3배로 늘어 170,000건에 이르렀다. Cited in Green, “Meaning of Tiananmen,” 47. 마틴 하트-랜스버그와 폴 퍼켓은 2000년 노동쟁의를 327,152건으로 보고했다. Martin Hart-Landsberg and Paul Burkett, *China and Socialism: Market Reforms and Class Struggle*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2005), 82.

158) Taiwan Foundation for Democracy, *ChinaHumanRightsReport2008*, 57.

159) Howard French, “China Covers Up Violent Suppression of Village Protest,” *New York Times*, June 27, 2006.

160) Gordon C. Chang, *The Coming Collapse of China* (London: Arrow Books, 2002), backcover.

[번역]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들 2권 6장

제6장: 타이완

연표

1895년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타이완에 대한 통제권 획득
1945년	연합국 타이완에 대한 통제권 중국에 이항
1947년 2월 27일	경찰이 타이페이에서 노점상 공격하여 시민 1명 죽임
1947년 2월 28일	228사건: “광장의 비극” - 최소한 2명 사망
1947년 3월 1일	타이완 전역에서 집회가 열림, 격렬한 전투로 최소한 123명 사망
1947년 3월 1일	수습위원회 구성됨
1947년 3월 2일	타이난 시민 남부동맹협회 구성, 자체 무장
1947년 3월 2일	타이페이 수습위원회가 1주일간 정부로 활동함
1947년 3월 3일	봉기가 가오슝으로 확산
1947년 3월 4일	많은 지역에서 무장충돌
1947년 3월 5일	청년자치동맹 결성, 수습위원회 32대 요구 제출
1947년 3월 6일	팽장군 부대가 카오슝에서 학살 자행
1947년 3월 8일	수천명의 퀴민당 군대 도착, 타이완인 학살
1947년 3월 9일	계엄령, 퀴민당(KMT) 20,000명 이상의 타이완인 학살
1947년 3월 20일	KMT 중국내전에서 패배하고 타이완으로 소개하면서 계엄령 선포
1949년 ~ 1987년	“백색테러”: 수천명이 살해되고 수만명이 체포됨
1979년 12월 10일	카오슝 사건: 시위대 경찰과 싸워 경찰 183명 부상
1981년 12월	타이완 국립대 학생들 학생회 직선 추진
1986년 5월 19일	야당 12시간 집회 개시, 1,500명 전투경찰 저지하지 못함
1986년 9월 28일	비록 비합법이지만, 야당 활동가들 민주진보당(DPP) 건설
1987년 7월 15일	38년 2개월 만에 계엄령 해제(세계 최장기록)
1988년 5월 20일	농민들 미국 농산물 수입에 항의하여 전투적 시위
1989년 4월	잡지편집자 덩 체포 거부후 분신
1990년 3월 14일	학생시위대 KMT 중앙당사 경찰저지선 돌파
1990년 3월 16일	학생들 장카이썸 기념관 점거 시작
1990년 3월 20일	점거대오 5,000명 이상으로 증가, 다른 세력도 참여
1990년 3월 21일	새총통 이덩휘 학생들과 만나 개혁 약속
1990년 4월 22일	헌법개정, 선거일정 잡힘
1991년 12월 21일	1947년 이래 최초의 입법원 완전선거
2000년 3월 18일	첸슈이벤 최초로 비KMT 총통으로 당선됨
2008년 11월 12일	첸슈이벤 부패혐의로 체포됨
2009년 9월 11일	첸슈이벤 증신형 선고받음

“매 3년마다 봉기, 매 5년마다 반란.”

- 타이완에 관한 청왕조 속담

1947년, 섬은 낮은 메아리로 낮이 탄생을 맞이했지.

돌이켜 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그건 봄 폭풍의 천둥이 아니었어.

봄 농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섬의 묘지에서 잡초들이 웃자랐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때 이른 죽음의 수확이 1947년에 왔단다.”

- 첸광민

20세기의 국제적 동학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만큼 타이완에도 영향을 주었지만, 타이완섬은 보다 강력한 이웃나라들에 압도되고 종속되어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었다. 1895년 중국의 일본에 대한 군사적 굴욕으로 일본이 중국의 청왕조로부터 타이완(포모사라고도 불림)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했다. 청일전쟁은 주로 일본의 조선정복의 결과를 낳은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타이완의 주변화를 가리킨다. 그 당시, 전쟁 배상금으로 일본이 중국에서 받아낸 돈, 5억1천만 엔(일본정부 연간수입의 6배이상)은 타이완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식량, 목재, “위안부” 등 풍부한 물자는 말할 것도 없이 전략적 위치에 있던 타이완의 해군기지들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일본의 남아시아 정복에 중요한 토대가 됐다.

2차 세계대전 말, 승리한 연합국은 타이완에 대한 통제권을 당시 장카이썬의 국민당(Kuomintang: KMT)이 통치하던 중국에 넘겨줬다. 일본의 항복 이후 민중봉기가 토착민의 통제를 수립하려 했지만, 장카이썬은 수천 명 타이완인의 학살을 명령했고, 섬에 대한 통제력을 장악했으며, 이후에 세계 최장의 계엄령을 유지했다. 1949년 장카이썬과 KMT는 본토에서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배했다. 미국의 지원으로, 그들은 타이완으로 도피했고, 거기서 중화공화국을 이론했다.

국민당 지배의 유혈 강제에 대한 타이완인들의 저항은 단지 KMT의 수천명 민간인 학살 때문에 자주 역사가들의 설명에서 언급되지만,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섬주민의 자기조직화 역량을 보여주기도 했다. 맥아더, 마오쩌둥, 장카이썬과 처칠 같은 “위인들”의 결정이 세계의 사건을 이해하는 일반적 수단이지만, 자신의 필요를 접합할 수 있는 보통사람들의 능력은 어떤 개인의 지성보다 더 우월한 집단지성을 보여줬다. 조선의 제주도만이 아니라 타이완에서도, 자치를 위한 민중의 호소는 미국의 후원을 받는 독재정권이 자행하는 학살로 응답받았다. 조선의 신희여행지인 제주도와 중국의 “아름다운 섬” 타이완에서 미국의 군함과 무기가 대규모 죽음의 무기가 됐다. 만약 미국인들이 병참학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거부했었다면, 최소한 목숨을 잃었던 수만명의 사람들에게 역사는 아주 다르게 전개됐을 것이다.<sup>1)</sup> 미국의 지원은 학살에 필수적이었다. 그 당시 미해군 무관 조지 커가 기록한 것처럼, “모든 포모사인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KMT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명백했다. 그들은 미국 수송선으로 타고 섬에 도착했고, 미국의 무기와 지원금으로 섬에 머물 수 있었다.”<sup>2)</sup>

더욱 많은 숫자로 도착하기 시작한 누더기 차림의 본토 군인들은 지역의 관습에 대해 무지했고 섬사람들의 번영을 시기했던 것처럼 보였던 반면, 50년간의 일본 지배로 많은 타이완인들이 중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KMT 정부는 군대를 위해 새로운 생산물, 즉 쌀과 설탕, 기계, 석탄 등을 요구했지만, 많은 물건들이 엄청나게 오른 가격으로 타이완의 암시장에서 팔리는 것으로 끝났다. 부패한 본토 관리들이 부를 축적함과 동시에 타이완의 물자부족은 심해졌다. 1946년 콜레라로 수천명의 사람들이 죽었지만 의약품은 대개 없었다. 1947년 1월 KMT 첸이 총독은 국가가 독점을 선포한 식량과 다른 상품의 불법 판매를 탄압하기 위해 세무경찰을 설립했다. 물자부족이 심해지자, 지역시장에서 심지어 쌀도 구할 수 없게 됐다. 쌀을 구할 수 있어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때때로 매일 매일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다. 타이완은 해마다 두 번(또는 세 번) 쌀수확을 했지만, 광범한 기근이 갑자기 임박한 것처럼 보였고, 기아로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다. 동시에, KMT 정치 엘리트들이 이용할 사치스런 향락시설이 유례없는 숫자로 세워졌다.

## 1947년 봉기와 학살

1) See Volume 1, Chapter 4 for discussion of events on Jeju.

2) George H. Kerr, *Formosa Betrayed* (Upland, CA: Taiwan Publishing Co., 2005; originally published in 1966), 76.

조선과 타이완에서 평화로운 섬사람들의 잔혹한 도살을 촉발한 사건들은 서로 하루 차이로 시작했다. 단순히 “228”이라 불리는 20,000명 이상의 타이완인 학살은 1947년 2월 28일 시작했다. 바로 다음날 약 1천 킬로미터 북쪽에서, 1919년 조선 독립운동의 기념일을 경축하는 50,000명 이상의 평화적 제주 군중들에 대한 최초의 총격이 발사됐다. 미군이 제주 경찰에 발포명령을 내린 후, 여섯 명이 사살되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고, 1년 뒤 섬 전체의 봉기를 촉발한 일련의 나선반응을 만들어냈다. 미군정과 한국공화국이 제주에 대한 군사작전을 끝냈을 때 제주의 1150,000명 주민들 중에서 최소한 30,000명이 사망했고, 수만 명이 부상당하거나 피난민이 됐다.

타이완에 대한 긴장은 처음에 천천히 증가했지만, 2월 27일 저녁 타이페이(台北)의 타이핑로(太平路: 현재 옌핑북로)의 사건이 “돌발적 화재처럼 분출하는” 분노로 이어졌다.<sup>3)</sup> 전매청의 정부 세무경찰은 40세 과부인 노점상인 린창마이에게서 밀수한 담배 5박스를 몰수하려 했다. 린창마이는 항의했고 그녀가 가진 적은 돈을 갖게 돌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녀의 운명을 경멸한 한 요원이 권총자루로 그녀를 가격해 머리에 깊은 상처를 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에게 비명을 지르자, 다른 요원이 권총을 발사했다. 목숨을 두려워 한 요원들은 도망쳤다. 군중들은 그들이 버린 차를 불태운 다음, 시 경찰에 살인을 신고했다. 곧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경찰서에 모여서 세무요원들의 신속한 처벌을 요구했다. 다른 주민들은 <타이완 신생활일보> 사무실로 가서, 신문이 사건을 보도할 것을 요구했다. 시내 전역으로 북을 치면서 흩어진 시위대는 밤새 거리를 지켰고, 투쟁할 때가 왔다는 말을 퍼뜨렸다.

다음 날 아침,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총파업을 선언했고, 수백 명이 룡산사에 모였다. 거리의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타이완의 6백만 민중에게 KMT의 부패에 맞서 쫓겨할 것을 호소했다. 군중은 약 2천명으로 늘어났다.<sup>4)</sup> 그들은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통해 그 전날 요원들을 파견한 전매청 지부사무소로 이동했다. 경찰은 공중에 발포하고서도 그들을 저지할 수 없었다. 군중들이 사무소를 공격하면서, 사람들은 안에서 발견한 모든 술병과 담배를 파괴했다. 일부는 가구와 사무용품을 거리로 가져나와 태웠다. 아직 분을 풀지 못한 그들은 두 명의 전매청 경찰이 거리에서 노점상을 괴롭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때려 죽였다.

오후 1시경, 수백 명의 행진단은 징과 북을 치면서 도시를 관통해서 돌아가는 경로로 행진했다. 길을 따라 가면서 수천 명이 더 합류해서, 행진대는 도시 중심가 대부분을 점거했다. 작은 그룹이 타이완 라디오 방송국을 접수하여 국가독점의 종식 요구를 방송했다. 행진자들이 타이완지방 행정청(지금의 행정원)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자, 경찰은 경고 없이 건물 지붕 위에서 기관총으로 발포했다. 무차별적으로 조준한 총탄이 군중을 휩쓸었고, “광장의 비극” 또는 228 사건에서 최소한 두 명이 사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다.<sup>5)</sup> 그 사격으로 군중들은 흩어졌지만, 그들은 만나는 본토 중국인을 아무나 공격하기 시작했다. 기차역에서는 도착하던 KMT 군인들이 구타당하고, 본토인을 대접하는 것으로 알려진 호텔과 그들이 소유한 사업체도 공격 대상이 됐으며, 그들의 가구와 레코드가 거리에서 불태워졌다. 수천명 섬사람들의 격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약탈은 없었다.<sup>6)</sup>

“타이완이 스스로 통치하게 하라!” 사람들이 외쳤다. 점거한 방송국의 전파로 한 열정적 타이완인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들은 우리의 쌀을 외국으로 보낸다. 그래서 인민은 충분한 곡물이 없고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생존을 위해 왜 들고 앉겠는가.”<sup>7)</sup> 인근 킬롱과 판차오에서, 사람들은 방송을 듣고 거리로 나섰고, 본

3) Lai Tse-han, Ramon Myers and Wei Wou, *A Tragic Beginning: The Taiwan Uprising of February 28 1947*(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99.

4) Hung Chien-Chao, *A History of Taiwan* (Rimini: il Cerchio Iniziative editoriali, 2000), 250.

5) Hung maintains at least four people were killed as does Kerr, *Formosa Betrayed*, 256. Others tell of dozens dead.

6) Ibid., 257.

7) Lai et. al., *Tragic Beginning*, 107.



토인들을 구타하고 그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경찰숙소를 불태웠다. 킬롱에서 하역노동자들이 경찰서와 본토인들을 공격하여 수일간의 소요를 이끌었다. 타오위안에서 7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서 시민들에게 본토인들을 공격하라고 촉구했다. 타이위안과 타이핑에서, 대치는 밤까지 이어졌다.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다, 무장순찰대는 타이페이 거리에서 마음대로 발포했다. 비록 지역 정치지도자들의 대표단이 첸이 총독에게 명령을 철회할 것 요구하러 갔지만, 그는 그들을 만나기를 거부했다.

토요일인 3월 1일 아침, 타이페이 전역에서 집회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소집됐다. 타이완주 인민정치협의회 대변인인 후앙차오친이 총독과 만나 그날 계엄령을 끝내라고 설득했다. 정치지도자들(전국과 지방, 시 관리들을 포함하여)은 종산관에서 만나 사태를 가능한 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습위원회(*ch'u-li-wei-yuan-hui*)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사태를 진정하기 위해 그들은 모든 구속자의 석방과 피해자 보상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들은 농민, 노동자, 학생 단체들의 대표자들에게 새 수습위원회(SC: 處理委員會)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며, 또한 타이완 주둔군 사령부(인민에 대한 폭력에 많은 부분 책임이 있는) 폐지와 언론검열 중지를 요구했다.

총독은 수습위원회 구성을 승인했고, 정부측 대표로 참석할 5명의 공무원 명단을 발표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침착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날 오후 첸이 총독과 수습위원들은 수백명의 시민들과 만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라디오 연설에서 첸이는 계엄령을 해제하고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지어 비상회의를 한 타이완 KMT 간부들에게도, “광장의 비극” 이후 굶주리는 타이완인들 사이에서 폭발을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분노와 정당한 반란의 들불이 관리들이 제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다. 정치인들이 모여서 앉아있는 동안, 군중들은 인민들에게 “총에 맞서 총을 사용하라!”고 촉구하는 대자보를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그들은 철도경찰서를 공격했고, 123명이나 죽었고, 양측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다.<sup>8)</sup> KMT 군인들은 덤덤탄을 사용하여 끔찍한 부상을 입혔다.<sup>9)</sup> 입에서 입으로, 타이페이의 기괴한 사건들에 대한 소식이 섬 전체로 퍼졌다. 타오위안에서 약 30명의 타이페이 출신 투사들이 사람들을 조직하여 청도경찰을 무장해제한 다음 그들의 무기를 수도로 들어오는 모든 열차를 통제하는 데 사용했다. 경찰서에서 도망가지 못했던 공무원들은 잡혀서 타오위안 최대의 사찰에 갇혀있었다. 스스로 조직화한 무장 시민들은 지구 정부사무소를 공격했고, 다른 사람들은 근처의 공군 창고를 공격했다. 전투는 밤새도록 계속됐다.

일요일 아침 일찍 타이페이의 수습위가 종산관에 소집되어 광범한 자치개념을 승인했다. 최소한 한 열정적 연설가는 본토로부터 예상되는 침입에 대비할 100,000명의 자위대를 구성할 것을 호소했다. 그들은 협상, 구호와 보호, 정보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정치인들은 그날 모임을 가진 유인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여러 대학에서 온 학생들의 무리는 강당에 모였다. 모임이 시작될 무렵, 수천 명이 모였다. 학생들은 화해를 옹호하는 대신, 자치와 무장혁명을 호소했다. 섬 전역에서 인민들은 정치경제적 개혁의 필요성으로 활력을 얻었고 스스로 통치하기 위해 조직했다.<sup>10)</sup>

운동의 성격에 경악한 첸이 총독과 수습위원들은 그날 오후 수백명의 시민들과 만나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로 약속했다. 두 번째 라디오 연설에서, 첸이는 계엄령을 해제하고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보상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총독이 타이페이에서 행동하는 동안, 외곽 도시의 인민들은 문제를 자기자신의 손으로 가져갔다. 타이충에서, 쉬에쉬에훙이 도시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그녀는 권력을 장악하고 민주적 자치를 공고화할 당의 결성을 촉구했

8) Hung, *History of Taiwan*, 251.

9) Kerr, *Formosa Betrayed*, 260.

10) Richard C. Kagan, *Chen Shui-bian: Building a Community and a Nation* (Taipei: Asia-Pacific Academic Exchange Foundation, 2000), 26.

다.<sup>11)</sup> 봉기자들은 도시 관리들을 포로로 잡았고 그녀는 그들이 서열 순서대로 줄을 서서, 군중들에게 무릎 꿇고 그들의 파행적 통치에 대해 사과하게 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군중들에게 그들을 구타하도록 재가했다. 치야이와 타오위안에서 봉기는 아주 과격하게 발전했다. 타오위안 활동가들은 준군사부대 본부를 구성했고 지방군을 패퇴시키기 위해 조직했다.

3월 2일 60명의 타이페이 시민들이 타이난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시민들이 남부동맹협회를 설립하여 타이완 경찰이 버린 무기로 무장했음을 발견했다. 다음날 밤, 라디오 방송국과 정부청사를 통제 아래 두고서, 대규모 집회는 자치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정했고, 지역 지도자를 선출할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선추에서 인민들은 군대의 이동을 막기 위해 철로 일부를 뜯어냈다. KMT가 군인들을 트럭으로 이동시키려고 시도하자, 바리케이드를 세워 10대의 트럭이 철도피해를 우회하지 못하게 저지했다.<sup>12)</sup> 월요일인 3월 3일 타이페이는 차분한 분위기로 돌아와 상점들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쌀가격이 치솟았다. 우려한 학생들이 철펜이 총독 알현을 위해 타이페티 수습위원회에 접근했다. 비록 그가 학생들을 만나지 않았지만, KMT 간부들은 무장순찰을 중지하고, 군대가 자의적으로 발포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동의했지만, 증오의 대상인 주둔군 사령부를 폐지하길 거부했다. 자주적 학생 및 청년조직들에게 공공질서를 유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데 합의에 도달했다. 교통을 회복하고 군비축미를 대중에게 방출하기로 약속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수습위는 타이완인 경찰로 핵을 구성한 "왕립봉사대"(Loyal Service Corps)를 수립했다. 곧 전타이완 노동총동맹이 결성되어 수습위와 협력하기로 표결했다.<sup>13)</sup> 다음주, 수습위원회는 일반업무, 대외협력, 조사, 조직화, 공공질서, 주조, 재정, 정부, 식량 등을 조정할 부서를 갖추고 타이완의 "실질적 정부를 구성했다."<sup>14)</sup>

KMT 부대를 본토에서 파견할 예정이라고 알리는 비밀정보를 받았던 철펜은 정부관리들에게 수습위 회의를 보이콧하라고 명령했다. 오전 10시, 수습위는 다시 모여 구속자의 즉각적 석방을 추진했다. KMT의 공작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슈테휘에게 타이완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인민들이 참여할 질서유지 담당 자위대인 의용대(Righteous Service Corps)를 조직하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또한 질서유지 임시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그룹은 정부기관에 대한 인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행사를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타이충에서 쉬에쉬에홍의 수습위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택했다: 그들은 모든 가맹조직들을 단결시켜 KMT를 공격했다. 쉬에쉬에홍은 군대의 지휘권을 장악했고, 30명의 장교, 300명의 사병 및 알려지지 않은 숫자의 관리들과 함께 타이충 공안위원회 본부를 장악했다. 시민들은 그 다음에 소화기 창고를 공격했다. 몇 시간 동안의 전투 후에 활동가들은 타이충시와 주변 교외, 도시의 라시오 방송국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얻었다. 그날 밤, 쉬에쉬에홍은 세가지 행동원칙을 발효했다:

1. 본토인들을 죽이거나 부상시키지 말 것.
2. 공공재산을 태우거나 파괴하지 말 것.
3. 모든 무기를 인민의 손에 두도록 할 것.

다음 날, 500명의 대표들, 대부분은 자임한 대표들이 타이충 시립 대강당에 소집됐다. 민중 조직들을 대표하는 그들은 지구해결위원회(District Resolution Committee)를 설립했고, 쉬에쉬에홍이 아니라 추앙추이셴을 의장으로 선출했으며, 일반업무, 공안, 정보, 조정 부서를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쉬에쉬에홍의 공산당 당직은 말할 것도 없이 그녀의 과격한 전술에 반대했다. 새로운 지구수준 수습위 내에서, 그들은 어떤 외부세력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급진파를 진압할 수 있었다.

11) Lai, *Tragic Beginning*, 125.

12) Kerr, *Formosa Betrayed*, 266.

13) *Ibid.*, 273.

14) *Ibid.*, 264, 274-5.

3월 3일, 봉기는 훨씬 더 멀리 남쪽으로 퍼져 카오승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시민들은 먼저 시청을 접수했고 그 다음에 소우산 군기지를 제외한 도시 전체를 접수했다. 펑밍치 장군은 포대에 도시를 포격하라고 명령했지만, 새로 구성된 수습위는 인근 요새에 발포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세 명의 대표를 협상하러 파견했다. 펑밍치 장군은 재빨리 사절을 처형하라고 명령했고, 도시를 재탈환하려고 반격을 개시했다. 양측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투는 3월 7일까지 계속됐고, 마침내 정부군이 승리했다. 동북부 도시인 일란에서 학생들과 청년들은 3월 3일 무장대를 결성하여 공군 창고, 군사기지, 무기고를 공격했다.<sup>15)</sup> 북서부 신추에서 군중들은 시청, 전매청 지부, 법원, 정보부, 본토인 숙소들에 방화했다.

화요일인 3월 4일 타이페이 수습위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한 반면, 학생들은 “공공질서를 유지할 대규모 여단으로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수습위가 지역 깡패들과 주둔군 사령부를 포함한 데 분개한 약 40명의 학생 대표자들이 위기의 원인에 관한 견해를 나누기 위해 첸이 총독과 직접 만났다. 첸이는 일부 부하들이 그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학생들의 주장에 동의했지만, 행정업무에 대한 민간인의 책임은 결코 그의 지침을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섬의 많은 지역에서 무장분쟁이 계속 고조되고 있었다. 원주민 그룹들이 KMT와 싸우기 위해 산에서 내려왔다. 풀리에서 수십명의 학생들이 격렬하게 싸워 700명 이상의 KMT 군대를 격퇴했다.<sup>16)</sup> 타이충 학생들도 학생부대를 구성했다. 타이완인들은 야전에 4,000명의 전사들을 투입할 수 있는 전투부대인 27대 군단을 조직했는데, 그들 대부분은 일본군에서 복무했었다.<sup>17)</sup> 공산주의 지도자인 쉬에쉬에훙은 지휘관이라고 해서 비난(또는 신뢰)받았는데, 비록 나중에 그녀가 지휘관이었다고 밝힌 사람의 증언으로 그녀가 아니라 그가 부대의 실질적 지휘관이었다고 밝혀졌지만. 그는 비난을 공산당원들에게 돌림으로써 목숨을 구하려 KMT 당국에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그 당시 미국 첩보통은 “6백만명을 넘는 인구의 포모사에서 자칭 공산주의자는 겨우 50명 이하”였다고 추정했다.<sup>18)</sup>) 타오위안에서 질서가 회복된 반면, 화리엔의 시민들은 혁명적 요구를 제기했다. 동시에 타이페이의 확성기 트럭은 성조기(미국국기)를 요란하게 틀어대면서 시민들에게 저항을 촉구했다.<sup>19)</sup>

명백히 타이페이 학생들은 보통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첸이 총독을 여전히 믿지 못했다. 수요일인 3월 5일 아침 타이완자치 청년동맹이 종산관에서 건설됐기 때문이다. 다른 조치들 가운데, 새 단체는 선거, 자치, 새 산업창출, 경제안정화를 제안했다. 거의 모든 마을마다 자주적 수습위, 새로운 학생동맹, KMT 간부들 모두가 권위를 주장하면서, 타이완은 세가지 다른 형태의 정부권력을 갖게 됐고 각각은 타이완의 더욱 혼란스런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했다. 많은 곳에서 KMT 정부세력은 화리엔처럼 평화적으로 지위를 포기했다. 지역 인민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토착 타이완인들이 경찰서장을 대신했다. 3월 5일 저녁까지 타이완인들이 섬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었다. 수도에서 초등학교들이 다시 문을 열었고, 상점들도 잘 돌아갔다.

타이페이의 수습위는 정치개혁, 주둔군 사령부 해체, 타이완 군인의 타이완 배치 등을 포함한 32개 최소 요구에 대해 총독과 합의를 추구했다. 첸이 총독은 요구를 거부했다. 사건들의 와중에 모든 종류의 소문이 검증되기도 전에 빨리 돌았다: 타이완이 자치를 얻었다는 등, 본토군대가 KMT 지배를 회복하고 오고 있다는 등, 공산당 세력이 KMT를 패배시켜 섬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등. 아무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었다. 오직 총독 가까이 에 있던 한 무리의 KMT 간들만이 대규모 군부대가 곧 도착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15) Lai et. al., *Tragic Beginning*, 123.

16) *The Road to Freedom: Taiwan's Postwar Human Rights Movement* (Taipei: Taiwan Foundation for Democracy, 2002), 43

17) Lai et. al., *Tragic Beginning*, 138.

18) Kerr, *Formosa Betrayed*, 233.

19) *Ibid.*, 277.

타이완인들에게 불행하게, 타이완이 봉기는 본토에서 KMT-공산당 대화의 붕괴와 일치했다. 내전이 시작되자, 장카이썬은 3월 5일 제21사단을 보내 타이완에 본떼를 보여주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그는 타이완의 첩보대장에게서 600명의 원주민 KMT군 대대를 포위하여 공격했다는 전보를 받았다. 수요일밤, 세척의 KMT 구축함이 킬롱항에 도착했고, 본토에서 장카이썬은 제21사단의 타이완 배치를 준비했다.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모이고 봉기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본토 상관들에게 상냥하게 알리는 동안, 카오슝과 킬롱에서 새로운 폭력에 관한 보고가 왔다. 3월 6일 펑멘치 장군이 군대가 카오슝에서 학살잔치를 계속했고, 학살은 며칠 동안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됐다. 그래서 펑멘치 장군은 “카오슝의 도살자”란 별명을 얻었다.

KMT는 타이완의 나머지를 공격할 의도를 숨겼다. 3월 8일 한 KMT 장군은 타이페이의 수습위에 섬주민에 대한 어떤 군사적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지만, 밤새 몰래 새벽까지 10,000명 이상의 국민당 군대가 대거 킬롱항에 도착했다. 또 다른 3,000명이 동시에 카오슝의 해안에 상륙했다. 심지어 착륙하기도 전에, 해안선에 기총소사를 퍼부었다고 보도됐다. 킬롱에 상륙하자 그들은 “남자와 소년들을 총칼로 유린하고 여성을 강간하고 집과 가게를 약탈했다. 일부 포모사인들은 잡혀서 산채로 삼베자루에 들어가 설탕창고에 쌓여 있다가 항구의 바다 속으로 던져졌다. 다른 사람들은 부두에서 던지기 전에 줄이나 체인에 묶여 있었다.”<sup>20)</sup> 자루가 없으면, 철사로 사람들의 손바닥을 뚫어 묶었고 집단적으로 항구에 던졌다. 한 외국인은 수많은 거세와 다른 잔학행위들을 보고했다.<sup>21)</sup> 군대는 도시로 밀고 들어갔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죽을까봐 두려워 집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 도시를 재빨리 점령했다. 수백 명의 활동가들이 킬롱 주둔군 사령부 본부를 공격했지만, 많은 사상자를 내고 퇴각했다. 폭발물을 채운 20대의 차량이 KMT 증원군이 상륙할 부두를 파괴하기 전에 군대에 의해 잡혔다. 이 결정적 순간에, 타이페이 수습위는 입장을 완화시켰다. 수습위는 학생과 노동자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호소했고, 시민들에게 “법과 질서 유지”를 도우라고 요청했다. 그 날 밤, 보다 타이페이의 보다 전투적인 시민들이 주둔군 사령부 사무실, 은행, 정부청사, 경찰서를 공격했지만, 중무장한 부대들이 그들을 격퇴했다.

다음날 추가로 KMT 2개 사단이 섬에 도착했다. 3월 9일 오전 6시, 다시 계엄령이 선포됐고, 이번에 KMT는 인민들에게 명령에 복종하도록 강제할 충분한 세력을 갖추고 있었다. 많은 곳에서 무차별 살상이 시작됐다. KMT 지휘관 코유나펜은 라디오로 모든 공개집회가 금지되며 수습위도 해체됐다고 발표했다.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가 부과됐다. 본토에서 장카이썬은 봉기를 일본인과 공산당의 탓으로 비난했다. 그는 타이페이 수습위의 32개 요구가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더 많은 타이완인 경찰에 대한 요구를 일축한 그는 거의 모두에 대해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모든 학생 공안순찰 대원들은 무기를 반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3월 11일 밤, 타이페이 공항 근처에서 50명의 학생들이 살해된 것으로 보도됐고, 베이토우에서도 30명이 살해됐다.<sup>22)</sup> 3월 11일 타이난은 진압되고 지도자들은 처형당했다. 그날 밤 타이페이에서 군인들은 중학생들에 대한 조직적 수색을 수행했다. 타이중 근처에서 쉬에 쉬에홍과 대략 500명의 투사들이 11일까지 저항했다. 다른 보도는 타이중의 저항이 17일까지 계속됐다고 하는데, 같은 날 KMT 국방장관이 장카이썬의 아들 장칭취와 함께 도착했다. 3월 13일까지 타이페이에서 최소한 700명의 학생이 체포됐고 킬롱에서는 200명 이상이 체포됐다. 13일, 군대가 일란을 접수했다. 타이완 중부의 산악에서 전투는 21일까지 계속됐다.

3월 13일경 수습위 의장이었던 왕티엔텅이 처형당했다. 3월 15일 첸이 총독은 교체됐고, 테러는 가속화됐다. 2,000명의 반도와 공산주의자들이 흩어져서 계속 싸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KMT 사령관들은 전면전을 개시했다. 차이 시에서, 교외에서 죽은 학생들의 시신을 트럭에 실어 시내로 와서 사람들이 보도록 분수대에 던졌다. 카오슝에서 “밤낮으로 사격이 계속

20) Peng Ming-min, *A Taste of Freedom: Memoirs of a Formosan Independence Leade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2), 69-70.

21) Kerr, *Formosa Betrayed*, 301.

22) Hung, *History of Taiwan*, 253.

됐다. 거리와 뒷골목에 죽인 시체들이 있었다. 많은 시체들은 이미 썩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피가 아직도 흘러나왔다. 아무도 밖으로 나가 시신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시체들은 카오슝산까지 흩어져 있었고, 피는 근처 히추 호수로 흘러갔다.<sup>23)</sup> 카오슝강과 단쉐이강도 시체로 가득 찼다고 보도됐다.

[사진 20]

수천 명의 토착 타이완인들이 1947년 학살당했다.

KMT의 살인파티가 진정될 때까지 수천 명이 학살당했다. 아무도 정확히 몇 명이 죽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비록 줄여 잡은 숫자도 20,000 내지 30,000명이지만, 다른 통계는 100,000명 이상의 타이완인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일부에서는 실종자가 100,000명을 넘기 때문에 훨씬 더 많다고 주장했다.)<sup>24)</sup> 토착 엘리트들이 특히 타겟이 됐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한다. 의사, 변호사, 기업인, 교수, 언론인, 시민 지도자들 같은 전문가들을 무자비하게 추적하여 살해했다. 봉기 이후에, KMT 첩보부는 1,000명 이상의 “반역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거 표시를 했다.<sup>25)</sup> 수년간 암살대는 처벌받지 않고 활보했고, 오히려 열정과 효율성 때문에 KMT 고위층에게 상을 받았다. 증오의 대상인 전매청은 재구성됐고, 성냥공장 같은 일부 국영기업은 광산과 공업처럼 민영화됐다.

장카이셴과 KMT은 타이완에 밀고 들어왔지만, 너무나 부패하고 잔인해서 본토의 전쟁을 이길 수 없었다. KMT의 약탈행위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대략 파악한 미국의 웨더마이어 장군은 1948년 장카이셴 총통과 그의 측근들이 6억 내지 15억 달러 사이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sup>26)</sup> 1949년 공산당 원수들이 KMT를 참패시키자, 약 200만명의 KMT 피난민들이 타이완으로 몰려왔고, 한 무더기의 금과 국고의 현금을 가지고 왔다. 1949년 5월 20일 계엄령이 다시 한번 선포됐고, 처음 5년간 5,000명에서 8,000명이 사람들이 처형당했다.<sup>27)</sup> 정부의 잔인한 탄압인 “백색 테러”로 공산당의 승리 이후 희생자의 숫자(즉, 1949년에서 1987년까지)는 29,407명이 죽거나 투옥되거나 다른 식으로 탄압받았고 추정된다.<sup>28)</sup> 약 36,000명의 공무원들이 직장을 잃으면서 타이완의 행정조직이 숙청됐고, 타이완 공산주의자들을 추적하여 본토에서 당한 손실을 보상하려는 KMT 간부들이 타이완 경찰을 대체했다. 쉬에쉬에훙은 교묘하게 도망쳤다. 1947년 말, 그녀는 홍콩에서 타이완 민주자치동맹을 결성하는 데 기여했고, 나중에 PRC 정부의 명예직을 차지했다. 첸이 총독은 공산당과 협력한 혐의로 1950년 6월 18일 총살대에 올랐다.

장카이셴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장칭궈의 죽음 이후에야 공개적으로 228에 대해 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1992년 2월, “2.28 사건 보고서”가 출판됐고, 1997년(비극적 학살 50년 이후) 희생자 위령비가 건설됐다. 흔히 단지 학살(확실히 3월 6일 카오슝과 3월 8일 킬링에서 시작됐다)로서 묘사되지만, 봉기는 타이완 자치를 옹호한 무장민병대의 지지를 받는 자치평의

23) As quoted in Lai et. al., *Tragic Beginning*, 157.

24) *The Road to Freedom*, 16-18. 수십년 뒤 본토 공산당의 한 소식통은 50,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Lai et. al., *Tragic Beginning*, 158). 1992년 〈뉴욕타임스〉는 6백만명 인구 중에서 25,000 내지 30,0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리처드 케이건은 16,000 내지 40,000명으로 추정하는 반면, 커는 현실적 추정치는 20,000명이라고 주장했다. (Kagan, *Chen Shui-bian*, 26; Kerr, *Formosa Betrayed*, 310).

25) Chen Tsui-Lien, “Responsibility on the Part of Taiwanese Military and Political Authorities,” in *Research Report on Responsibility for the 228 Massacre: A Brief Introduction* (Taipei: Memorial Foundation of 228, 2007), 30.

26) Kerr, *Formosa Betrayed*, 357.

27) Chen Chun-Hung, “Human Rights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Taiwan,” in *Colonialism, Authoritarianism,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South East Asia* (Conference book for 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1980 Gwangju Uprising) May 15-17, 2001.

28) Te-Lan Chu, “The White Terror in Taiwan: The Tsui Hsiao-ping Case,” and Lai Jeh-hang, “The State and the People: The History of Authoritarian Rule and Democratization in Taiwan, 1895-2000.” Both articles are in *The Role of Jeju Island for World Peace in the 21st Century*,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2nd Conference on the Jeju April 3rd Uprising (Cheju National University, 2002), 62-3; 99.

회를 낳았다.

“침묵의 세대”에서 카오슝 사건으로

1987년 7월 15일 끝난 38년 동안 타이완은 세계 최장의 계엄령 통치를 겪었다. 장카이셰 총통은 피노체트가 칠레를 통치한 것보다 두 배나 오래, 그리고 에스파냐 독재자 프랑코의 재임기간보다 더 오래 통치했다. 수많은 KMT 형법은 나치 독일에서 나온 것이며, 21세기에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sup>29)</sup> 심지어 오늘날에도, 1947년 수천명 학살로 강제된 수십 년간 권위주의적 KMT 지배의 유산은 타이완인들의 삶에 오점으로 남아있다.

세계의 대부분이 1960년대 청년반란에 휩쓸렸을 때, 타이완의 트라우마와 백색테러는 사람들을 완전히 침묵시켜서 1960년대의 청년들은 흔히 “침묵의 세대”라고 불렸다. 남한처럼, 경찰은 일상적으로 장발의 젊은이들을 세우고 머리를 잘랐다. 심지어 “이상한 복장”도 금지됐다. 학교에서 타이완어를 말하는 어린이들은 매를 맞았고, 댄스파티도 불법이었다. KMT는 TV와 국내언론을 엄격하게 통제했고, 검열관들은 외국 신문과 잡지를 철저히 감시했다. 타이완어로 번역된 성경도 금지됐다. 반세기 대부분 동안, 사적으로 소유된 라디오 방송국은 허용되지 않았고, 라디오는 정부에 등록해야 했다. 본토의 “해적 라디오”를 듣다가 발각되면 누구나 즉시 체포됐다. 반정부 인사들은 살아있다면 감옥에 갇히거나 망명해야 했다. 1960년 총통제를 4년 중임으로 제한하는 개헌이 있었음에도, 국회는 장카이셰이 종신총통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1949년부터 발간된 격주간 잡지 <자유 중국>의 편집자들이 새로운 중국민주당을 건설할 의사를 발표하자, 그들은 즉시 폭동교사 혐의로 기소됐고 잡지는 폐간됐다.

KMT의 권력유지는 단지 경찰의 힘에만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 정부는 노조, 농민조직, 학생단체 등 민간단체들에 대한 특별한 하향식 통제를 행사하면서, 마을 수준에서 선거를 허용했다. 본토에서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미국이 강력히 촉구해서 관대한 토지개혁 프로그램이 시행됐다. 1949년 4월 정부는 소작농들이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던 지대를 최대 수확물의 37.5퍼센트로 제한했다. 소작농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공유지를 살 수 있게 허용한 이후의 조치는 훨씬 더 인기가 있었다. 1953년 “경자유전” 프로그램이 개인이 약 7에이커를 소유하도록 토지구도를 제한했다. 초과 보유분은 경작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됐다. 대지주들은 토지손실에 대해 타이완 최대기업들의 주식과 증권으로 보상받았다. 농민들이 비료를 정부에 의존했기 때문에, 국가는 그들이 판매한 토지대금과 비료판매로 엄청난 수입을 얻었다. 전 토지소유계급의 항의는 새로 쌓은 재산으로 무마됐다.

1962년 타이완의 [일당] GNP는 겨우 162달러였지만, 30년 후 10,000달러를 돌파했다.<sup>30)</sup> 1952년에서 1991년까지 40년 동안, 평균 경제성장율은 경이적인 8.7퍼센트였고, 수출은 GDP의 8.6퍼센트에서 타이완의 경제생산 총액의 절반 이상으로 증가했다.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타이완 성장의 한가지 열쇠는 1950년 한국이 당한 비극이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제7함대로 타이완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원조는 증가했고, 장기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특히 이후 산업화의 기초를 준비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수요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원래 미국의 원조는 1949년 끊겼지만, 한국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미국의 재정지원은 대규모로 회복됐다. 인충칭 경제장관의 말로, “미국원조의 때맞춘 도착은 죽어가는 환자에게 강장제 주사를 주는 것과 다름 없었다.”<sup>31)</sup> 1950년에서 1964

29) June Teufel Dreyer, “Taiwan’s Evolving Identity,” [http://www.formosafoundation.org/pdf/Taiwan’s percent20 Identity percent20\(J\\_Dreyer\).pdf](http://www.formosafoundation.org/pdf/Taiwan's_percent20_Identity_percent20(J_Dreyer).pdf).

30) Jaushieh Joseph Wu, *Taiwan’s Democratization: Forces Behind the New Momentum*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46.

31) Quoted in Stephen Haggard and Chien-Kuo Pang, “The Transition to Export-Led Growth in Taiwan,” in *The Role of the State in Taiwan’s Development*, eds. Joe I. Aberbach, David Dollar, and Kenneth Sokoloff (Armonk: M.E. Sharpe, 1994), 60.

년까지 해마다 정부는 적자운영이었지만, 비록 적자가 1951 회계년도 4억 6,600만 NT달러에서 1962회계년도 31억 9,500만 NT달러 점차 증감했음에도 미국원조가 적자분을 모두 상쇄했다.<sup>32)</sup> 이후 미국의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다시 한번 타이완과 일본(이번에는 타일랜드와 남한)은 모두 뜻밖의 경제적 황재를 수확했다. 미국 군인들은 농산물과 공산품, 휴식과 오락을 필요로 했고, 타이완 하청업자들은 인근 베트남에서 일을 발견했다.<sup>33)</sup>

엄청난 양의 미국 원조물자가 1965년까지 타이완으로 흘러들어 왔다. 남한처럼, 수입을 제한하는 경제정책(그리하여 귀중한 외환을 절약하는)은 미국의 압력으로 수출지향 산업화 전략으로 대체됐다. 미국시장에 대한 관대한 접근과 연계하여 타이완은 “미국의 초대에 의한 발전”(이매뉴얼 윌러스틴)에 착수했다. 1950년대, 수출은 연간 평균 1억달러 내지 1억 2,500만 달러였지만, 수입은 거의 두배였다. 다시 미국의 원조가 약 90퍼센트의 무역적자를 메웠다. 베트남 전쟁의 절정기에, 800,000만명 이상의 미군이 지역에 주둔했고, 타이완의 무역적자는 흑자로 전환했다.

1960-1970년에 보조금과 차관이 타이완의 1965년 GNP의 46.8퍼센트였다. 같은 시기 남한의 경우 차관은 놀랍게도 1965년 GNP의 139.1퍼센트였다. 1970년대초 원조의 비율은 타이완 GNP의 18.3퍼센트로 내려갔고(한국은 30.1퍼센트), 1980년 타이완은 해외원조와 보조금이 영(0)이었고, 한국도 GNP의 1.4퍼센트였다.<sup>34)</sup> 1965년부터 1970년까지, 수입대체에서 수출지향 발전으로의 이행은 1백만명 이상의 젊은이들을 도시로 이주시켰다.

정부지원으로 거대한 대기업이 형성된 남한이나 일본과 달리, 타이완 경제는 소규모 기업체들이 지배한다. 모든 기업의 2퍼센트 이하가 대기업이고, 타이완인 8명 중 한명은 이런 저런 종류의 사장이다.<sup>35)</sup> 1990년대 85퍼센트 이상의 기업이 소수의 종업원을 갖지만, 타이완 노동력의 80퍼센트를 사용했다.<sup>36)</sup> 모든 제조업체의 거의 절반이 1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했고, 24퍼센트 이하가 500명 이하를 고용했다.<sup>37)</sup> 이런 상황 하에서 타이완이 자동차산업이 한국처럼 결코 도약하지 못한 것이 놀라운 일인가? 1970년대 두 나라는 모두 15,000대 미만의 자동차를 생산했다. 1988년 한국은 100만대 이상의 차를 판매한 반면, 타이완은 그 숫자의 1/4정도만 판매했다.<sup>38)</sup> 한국과 타이완에서 모두 미국원조를 철회하겠다는 위협은 수출주도 발전에 대한 정권의 순응을 가져왔다.<sup>39)</sup> 타이완에서 KMT 정책에 순응하는 시민단체들이 질서유지를 도왔던 반면, 한국에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힘이 사용됐고, 거대 재벌(거대한 가족소유 기업들)이 세워져 경제를 운영했다.

미국의 강력한 지원으로 1970년대까지 제조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생산은 치솟았다. 높은 실질임금, 강력한 저축계좌, 일반적으로 평등한 부의 분배는 정권의 안정성을 보장했다. 타이완 전역에서 작은 공장들이 생겨났고, 수많은 주부들이 거실을 도급제 작업장으로 만들었다. 국제적 동학이 개입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어난 소수의 반체제 투쟁은 극히 은밀했다. 1970년 4월 뉴욕에서 피터 황은 장칭취 총통을 암살하려고 시도했지만, 그의 총알은 빗나갔다. 도지사 쉬에통민은 편지폭탄이 터져 손을 잃었고, 다른 사보타지 행동으로 독립옹호자들이 비난을 받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의 번영을 위한 노력에 집중했을 때, 타이완은 다시 한번 국제적 사건들로 뒤흔들렸다. 1971년 미국이 일본에 다요유타이 군도(釣魚台群島: 센카쿠 제도尖閣諸

32) Hung, *History of Taiwan*, 271.

33) Thomas Gold, *State and Society in the Taiwan Miracle* (Armonk: M.E. Sharpe, 1986), 86-87.

34) Susan Greenhalgh, “Supranational Processes of Income Distribution,” in *Contending Approaches to the Political Economy of Taiwan* eds. Edwin Winckler and Susan Greenhalgh (Armonk: M.E. Sharpe, 1988), 80-81.

35) Robert P. Weller, *Alternate Civilities: Democracy and Culture in China and Taiwan* (Boulder: Westview, 1999), 68.

36) Walden Bello, *Dragons in Distress* (San Francisco: Food First Books, 1992), 219.

37) Fang-Yi Wang, “Reconsidering Export-Led Growth,” in *Role of the State*, 28.

38) See Yun-han Chu, “The Automobile Industry in South Korea and Taiwan,” in *Role of the State*, 125-126.

39) Haggard and Pang, “Transition to Export-Led Growth,” 280.

島)에 대한 통제를 이양했고, 일본은 즉각적으로 수세기 된 어장에서 타이완인들을 추방했다. 1971년 10월 본토 “도적” 정권에게 중국의 UN의석이 주어지자, KMT 지배는 다시 한번 위기를 겪었다. 고립되고 분노한 KMT 정부는 항의시위를 선동했지만, 일단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자, 타이완 내부 개혁에 대한 요구들이 제기됐고, 운동은 재빨리 진압됐다.

KMT 경찰은 젊은이들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계속했다. 1972년 2월 5일 450명 이상의 장발, 67명의 나팔바지, 13명의 미니스커트 여성들이 검거됐다.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도 심한 감시를 당했고, 대학생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학생회마저 선택할 수 없었다. 정부의 검열영역 외부에서 활력에 찬 문학운동이 꽃피었고, 최초의 현대적 타이완 밴드그룹(구름문 Cloud Gate)이 시작됐다. 1970년대는 1960년대의 “문화적 사막”에서 등장한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의 시대로 전환했다. 미국 음악이 인기를 얻었고, “우리 승리하리라” 등 유명한 노래가 공개적으로 불렸다. 콘서트 동안, 한 참가자가 사람들에게 레코드의 노래가 아니라 자신의 노래를 작곡해서 부를 것을 제안했다. 그가 자신의 자작곡을 노래하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포크송 작곡열풍이 곧 캠퍼스를 휩쓸었다.

1970년대 내내 수많은 잡지들이 반정부 정서를 응집시켰고, 수십 명의 활동가들이 공개적으로 글을 쓰거나 연설한 사소한 혐의로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식인>(The Intellectual)을 편집한 한 집단은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공공연하게 발언하라고 선동했다. 1971년 이 잡지는 “인구의 3/4을 이루는 43세 이하의 사람들은 결코 중앙수준에서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기회를 결코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규탄하는 선언문을 출판했다. 의회선거에 관한 논쟁이 촉발됐고, 타이완대학(TNU) 대강당을 꽉 채운 모임도 거기에 포함됐다.<sup>40</sup> 정부는 TNU 철학과를 타겟으로 삼아 14명의 교수를 해고했다. 정부의 “포위 캠페인”은 곧 잡지를 중립화시켰다. 곧이어 지식인 집단은 해체됐고, 1백여 개 이상의 협력자들이 다양한 경향들로 분열했고, 하위담론이 확산됐다.

1970년대 10대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가 완성됐다. 타이완이 산업화됨에 따라, 여성의 노동참여는 1969년부터 20년 동안 33.1퍼센트에서 43.5퍼센트로 급증했다.<sup>41</sup> 수출주도 발전의 첫 번째 국면에서 경공업에 중요한 여성들은 저임금 때문에 남성 임금의 62퍼센트를 벌었고, 수천 명의 젊은 여성들이 일하는 카오슝 수출지역 같은 곳은 임금이 더욱 낮았다. 여성 노동자들이 동일임금에 대한 요구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반면, 미국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페미니즘의 초기 그룹을 형성했다. 미국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았던 아네트 루를 포함한 여성 그룹이 여성센터/чат집을 열었고, 수십 권의 책을 출판하고 공개행사를 열었지만, 1973년 KMT는 센터의 폐쇄를 강제했다.<sup>42</sup> 명백하게, 작은 마을까지 조직망을 가진 KMT 여성부가 강조한 꽃꽂이반과 전통적 모성역할의 추구는 적절한 것으로 여겨졌던 반면, 자율적 담론은 그렇지 않았다. 심지어 주류 여성들 사이에서 아네트 루는 솔직한 페미니즘 때문에 항상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비밀경찰의 감시 아래서, 페미니스트들은 1976년 국제 여성의 날에 TV 요리경연을 조직하는 것 같은 전술에 의존했다. 많은 도시에 “사랑, 섹스 그리고 결혼”에 관한 공개행사는 수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sup>43</sup> 여성들은 시위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했고, 때때로 꽃을 들고 선두대오에 섰다. 거리의 경찰들이 그들을 공격하기를 자제한 반면, KMT 당국은 아네트 루에 압박을 가했고, 그녀가 1979년 12월 카오슝의 야당 집회에서 연설을 한 이후 그녀에게 12년형을 선고했다.

1975년 8월, <타이완 정치평론>(Tiwanese Political Review)이 결성되어 지속적으로 유사 레닌주의적 KMT의 “관료주의적 체제를 비판”했다. 1975년 11월 창간호는 “타이완의 인민들이 ‘자

40) Chen Guoying, “The Reform Movement Among Intellectuals in Taiwan since 1970,”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July-September 1982): 34.

41) “The Feminist Movement in Taiwan: 1972-1987,”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January-March, 1989), 14-5.

42) U.S. feminism’s influence was also noted in an interview with Sue Huang, Taipei, February 3, 2009.

43) Hsiu-Lien Annette Lu, “Women’s Liberation: The Taiwanese Experience,” in *The Other Taiwan: 1945 to the Present*, ed. Murray Rubinstein (Armonk: M.E. Sharpe, 1994), 294.



기 자신의 집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두 가지 가능한 길이 있을 뿐이며, 인민의 무장봉기로 KMT 독재를 타도하거나 단결하여 모국과의 조기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재빨리 잡지를 폐간했지만, 다른 잡지들이 계속 민주적 추동력을 다시 만들어냈다. <중국의 조류>(China Tide)지는 미국의 제국 역할, 즉 남한과 칠레에서 독재지원과 전쟁뿐만 아니라,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정부가 이 출판물을 괴롭히고 폐간하자, 잡지 편집자들이 사회운동가로 변신했다. 1977년 타이완의 경제문화적 식민화를 다루는 사실주의적 소설의 출판 이후에 "토착문학" 논쟁이 벌어졌다.<sup>44)</sup> 리위안첸 같은 페미니스트들이 참여하여 원주민 하층집단과 노동계급 사람들의 경험을 입증하는 데 기여했다. 리위안첸은 또한 10대 성노동자들에게 교육을 했고, 그들 대부분은 가난한 부모들이 판 원주민 소녀들이었다.

수년간 야당후보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1977년 11월 19일 사람들은 KMT가 종리의 지방선거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했고, 이미 1975년 특별선거에서 악명높은 선거부정은 수 천명의 사람들에게서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경찰서를 공격하고 폭동 진압 차량을 전복시켜 불태웠다.<sup>45)</sup> 경찰은 총을 쏘 대학생 한명을 죽였다. 전국의 투표가 집계되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비KMT 후보들이 다섯 곳에서 시장직을 차지했고, 30퍼센트 이상의 득표로 타이완 지방의회의 77석 가운데 21석을 차지했다. 더욱이, 종리사건 이후 대중시위가 확산됐고, 야당후보들이 계속 선거에서 승리했다.

1978년, KMT는 표면상 미국과 공산주의 본토 간의 관계정상화가 가져온 위기를 이유로 선거를 취소했다. 선거취소에 대응하여 탕웨이(黨外: 문자 그대로 당외부)라고 불리는 활동가들이 1978년 12월 25일 엠베서더 호텔에서 전국협의회를 조직했다. KMT는 호텔 주인에게 압력을 가해 계약을 취소하게 강요했지만, 대부분 비KMT 후보였던 탕웨이 활동가들은 개인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예정대로 선거를 개최하라고 주장했다. 다시 한번, 국제문제가 개입했다. 1979년 1월 1일 미국은 타이완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그해말까지 상호방위조약을 무효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분노한 시위가 거리에서 터졌다. 같은 오후 수천 명이 미국대사관 앞에 모여서, 일부는 땅콩(지미카터 대통령 농장의 주작물)을 짓밟으면서 미국의 배신에 대한 분노로 절규했다.

야당 활동가들은 계속 선거를 요구했고, 1979년 1월 21일 정부는 78세인 이등파를 구속함으로써 대응했고, 수십 년만에 매우 드문 조직적 시위들 중의 하나를 촉발했다. 1월 27일 미국 무장관 워런 크리스토퍼가 이끄는 미국대표단을 태운 차량이 공항 근처에서 포위됐다. 돌과 달걀이 차창을 부셨고, 크리스토퍼와 미국대사가 부상당했고 보도됐다. 이런 분위기에서, 시위는 고조되는 것 같았고, 대중의 참여는 여러 가지 형태를 취했다. 이 시기에 애국적 감정이 아주 고조되어,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을 기부하라고 요청하자 10일 만에 F-5 전투기 18대를 사기에 충분한 돈이 모였다. 다음 몇 달은 "타이페이의 봄"으로 알려지게 됐고, 침묵과 공포의 오랜 겨울에서 벗어난 흥분된 휴식이었다. 5월에 탕웨이 본부가 세워졌고, 공개적 반정부운동의 정점은 여름에 도달했다. 8월 <포모사>(Formosa)지가 창간됐고, 처음으로 누구든지 전체 반정부진영을 위해 말하려고 시도했다.

저류의 동요를 결정화한 <포모사>지는 100,000만부로 추정되는 발행부와 11개 도시의 지부 사무실과 타이페이의 찾집을 갖추면서 절정에 올랐다.<sup>46)</sup> 잡지는 수많은 집회, 세미나와 공개 행사를 조직하여 새로운 정당 창출을 지향했다. 1979년 12월 10일 활동가들은 인권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타이완 제2의 도시 카오슝을 선택했다. 비록 경찰이 집회를 막으려고 했지만, 조직가들은 집회 개최를 고집했다. 그 전날 밤, 경찰은 전단을 나눠주던 2명의 조직가들을 심하게 구타했었다. 집회 당일 전투경찰이 배치된 가운데, 수백명이 사람들이 오후 6시 <포모사> 지부사무실 밖에 모였다. 정부군이 둘러싸자, 그들은 다른 노래들 중에서 "우리 승리

44) Chen, "Reform Movement," 32.

45) Ibid., 45.

46) John Kaplan, *The Court-Martial of the Kaoshing Defendants*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1981), 14.

하리라”를 불렀다.(푸잔 방언으로)<sup>47)</sup> 경찰은 잡지사 사무실로 들어가 불법집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직가들은 전날밤 전단지들을 나눠주던 사람들을 구타한 경찰이 사과하고 지휘관이 사임하면 동의하겠다고 대답했다. <포모사> 지도자들이 경찰과 협상하는 동안, 군중들은 두 블록 떨어진 원형 교차로로 이동했다. 그들은 집회에 참여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고 경찰저지선을 통과하도록 허락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이 대화를 하는 동안, 누군가가 원형 교차로에서 최루가스 사용을 명령했다. 시위대는 가스를 피해 달렸지만, 경찰은 출구를 봉쇄했다. 군중들은 남쪽을 통해 떠나려고 움직였고 <포모사> 사무실에 다시 모였다. 경찰이 다시 공격했고, 이번에는 최루가스와 무력을 사용하여 그날 저녁 대부분의 부상을 야기했다. 사람들은 근처 공사장의 자재로 무장했고, 반격하여 많은 경찰이 부상당했다. 성급하게 만든 몇개의 화염병은 별 효과가 없었다. 정부는 183명의 비무장 경찰관이 부상당했다고 주장했고, 시위대는 부상당하지 않았다고 우겼다. 이후의 보고는 50명의 시민이 경찰에게 부상당했다고 했다. (군중의 규모 역시 논란거리이다. 미국대사관 내부인사는 숫자를 150,000명으로 보지만,<sup>48)</sup> 조쉬에우는 카오슝 사건 당시 겨우 100명만 참석했다고 주장한다.<sup>49)</sup> 목격자인 마이클 린은 규모가 “아마도 2천에서 3천명이지만, 확실히 1만명을 넘지 않는다”고 추산했다.<sup>50)</sup>

군중의 규모가 얼마이든, 12월 10일의 폭력사태는 분수령이었고, 정권이 그냥 넘어가게 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다음날 밤, 정부는 <포모사> 직원 대부분을 포함해 14명의 야당인사를 체포했고, 며칠 안에 최소한 152명을 검거했다. 폭동교사 혐의로 군사법정에 세우기 위해 8명의 피고가 선택됐고, 재판에서 그들은 공산주의 전복 및 정부관리들에 대한 테러공격과 연계됐다. 이 과정의 와중인 2월 28일(약명높은 1947년 학살 기념일) 피고 린이송의 어머니와 두 살짜리 쌍둥이 딸들이 집에서 칼을 휘두르는 자객에게 살해당했다. 그 집에 대한 24시간 경찰감시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살인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4월 18일, 모든 피고에게 유죄가 선고됐고 장기형에 처해졌다. 민법 하에서 기소된 32명의 피고 역시 징역형을 받았다.

#### 풀뿌리 시위와 계엄령 종료

카오슝 사건으로 운동은 분명하게 중요한 이정표를 통과했다. 이후에 조직가들은 훨씬 자신을 가졌고, 항의시위는 농성, 집회, 기자회견 등과 같이 고도로 조직된 행사가 됐다. 한 목격자의 다소 과장된 평가이지만, “심지어 타이완 활동가들조차 그 당시 반제국주의적 이해(대다수 이상) 없이도 그 당시에 정치적 문제를 이란과 니카라과처럼 무장혁명의 문제로 봤다.”<sup>51)</sup> 비록 반정부세력이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어졌어도, 타이완 운동은 그 성격상 아주 온순한 상태였고 결코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전투적으로 되지 않았다. 문학, 문화와 춤은 가두 투쟁보다 더 중요한 저항의 영역이었고, 어떤 잘 조직된 무장투쟁도 결코 전개되지 않았다. 작가들은 새 표현 형태를 즉흥적으로 만들어내고 푸젠어, 일본어, 영어를 이야기 속에 수용함으로써 타이완 정체성을 계속 발전시켰다.

정권의 탄압이 야당대열을 급격히 위축시키자, 이는 광범한 항의와 국제적 비난을 불러왔다. 1981년 7월 카네기 멜론 교수는 체첸첵이 가족과 함께 타이완을 방문하고 있었다. KMT 간부들은 그의 출국비자를 거부했고, 주둔군 사령부 장교들은 심문하러 그를 데려갔다. 다음날 그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들이 그를 해치지 않고 석방했다는 군대의 주장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후의 절규에서 미국의 하원의원 스티븐 솔라즈는 체첸첵의 죽음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했다. 수사 결과 미국 캠퍼스의 타이완 학생 첩자들의 광범한 네트워크가 드러

47) Email from Michael Lin, August 5, 2009.

48) Kagan, *Chen hui-bian*, 64.

49) Wu, *Taiwan's Democratization*, 63.

50) Michael Lin, interview in Taipei, August 10, 2009.

51) Linda Arrigo, “From Democratic Movement to Bourgeois Democracy,” in *The Other Taiwan: 1945 to the Present*, ed. Murray Rubinstein (Armonk: M.E. Sharpe, 1994), 154.

났다. 그럼에도 정권은 단지 첸웬칭의 죽음에 대한 어떤 연관도 부정했고, 미국 대학에 첩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백색테러는 계속 희생자를 냈다. 1984년 10월 15일, 타이완에서 금지된 장카이셰에 비판적인 전기를 쓴 헨리 류란 시민이 캘리포니아의 집에서 총을 맞아 사망했다. 이후에 미국 FBI는 타이완 첩보부 요원과 대나무연합 갱두목 첸치리를 헨리 류의 살인과 연결시킬 증거를 찾아냈다.<sup>52)</sup> 다시 한번 정권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시끄러웠지만, 이번에는 심각한 반응이 있었다. 장칭취 총통은 비밀경찰 개혁에 착수했고, 그의 가족 중 아무도 미래의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총통의 개혁 약속에도 불구하고, 관료주의는 다루기 힘든 것으로 판명됐다. 1985년 11월, 미래의 총통이자 당시 야당 정치 지도자였던 첸수이벤의 부인이 자동차에 세 번이나 치였는데, KMT가 고용한 깡패들이 자행한 공격으로 그녀는 평생 휠체어에 타야 했다.

모든 상황, 특히 학생회에 대한 정부의 통제에 짜증나서 캠퍼스 그룹들이 결성되어 타이완 국립대학에서 학생회 대표의 직접선출을 위해 선동했다. 당국에 의해 목살당하자, 많은 학생들이 캠퍼스 밖으로 나가 지하신문과 잡지 출판을 도왔다. 1982년 한 집단이 〈각성〉(Awakening)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타이완에서 유일한 페미니즘 잡지가 된 이외에도, 〈각성〉은 매년 3월 8일에 행사를 조직했고,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여성단체들의 동맹을 결성하는 데 기여했다. 1984년 정부가 캠퍼스 신문을 검열한 이후, 편집자들은 백지 신문, “하얀 종이”를 배포했다. 분산된 시위는 진압됐지만, 운동은 많은 대학들로 확산됐고 거기에서 활동가들은 일련의 잡지를 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자유에 대한 사랑〉(The Love of Freedom)이었다. 캠퍼스 밖에서 다른 활동가들이 1984년 타이완 인권협회를 결성했고 이는 당국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었다. 왜냐하면 관제 우익 “인권” 단체들은 전적으로 본토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자기 아버지처럼, 장칭취의 지배도 전제적이었고 반대의견을 용인하지 않았다. 1975년 일단 총통이 사망하자, 장칭취는 1988년 사망할 때까지 13년 동안 지배했다. 아버지와는 달리, 그는 당직에 타이완 출신을 등용했고, 1984년 부통령에 출마한 KMT의 타이완인 당원인 이덩휘와 함께 재선출됐다. 헌법에 따라 인민의 선거가 아니라 국회의 투표로 총통을 선출했다.

30년 동안 타이완은 농업사회에서 현대적 산업사회로 전환됐다. 2차대전 말, 타이완인의 다수가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었지만, 1986년 17퍼센트만이 농업에 종사했고 농업부문의 비중은 아래에 보는 것처럼 훨씬 낮아졌다. 같은 시기에 수출은 1952년 GNP의 10퍼센트에서 1987년 GNP의 절반 이상으로 증가했다.

표 17: 국내총생산의 분포 (%)

연도	농업	공업	서비스
1951	32.5	23.6	43.7
1987	5.3	52.0	42.7
1993	3.5	40.6	55.9

Source: Taiwan government statistics in Wu, *Taiwan's Democratization*, 48.

30년간의 급속한 경제팽창 이후에, 한 추산에 의하면 타이완의 증산층은 인구는 57퍼센트였다(소득의 측면에서 40퍼센트였고, 주관적 자기확인으로 70퍼센트).<sup>53)</sup> 1980년대 정권은 꾸준히 시장자유화 정책을 채택했다. 비록 타이완의 처음 30년간 평등의 부분적 침해가 조성됐지만, 지니계수는 낮았고, 타이완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 중의 하나로 남아있었다.<sup>54)</sup>

52) See Mark O'Neill, "King Duck Goes to his Taiwanese Reward," *Asian Sentinel*, October 24, 2007.

53) Interview with Michael Hsiao, Taipei, February 3, 2009; James C.Y. Soong, "Explaining Taiwan's Transition," in *Institutional Reform*, 209.

같은 시기에 국제조직인 언론인 보호위원회는 1985년에서 1986년까지 타이완에서 구속된 언론인이 어떤 다른 비공산권 나라보다 더 많았다고 추산했다.<sup>55)</sup> KMT는 TV와 라디오를 통제해서, 자주적 정기간행물이 반정부인사들이 메시지를 내보내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인구의 약 85퍼센트인 하층 타이완인들이 대항 공론을 창출하려고 애써서, 모든 계층의 인구가 영향을 받았다. 아래로부터 활동가들은 백색테러에 더욱 과감하게 도전했다. 원주민 단체들의 동맹은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할 때 중국인들에게 힘을 주었다는 한족의 신 우팽의 동상을 파괴했다. 새로운 원주민 대항 기술에서, 그들은 전통적인 중국어 “산악부족”(shanbao) 대신에 “원주민(yuanzhumin)으로 불릴 것을 고집했다.<sup>56)</sup> 심지어 하카스(Hakkas: KMT가 도착하기 오래 전에 타이완으로 이주한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시대정신(Zeitgeist)에 의해 활동의 고조가 이뤄졌다.

1980년대 초 탕웨이 정치 활동가들에게 영감을 받은 노동자들은 주로 “자주적 노조운동”으로 알려진 투쟁에서 KMT로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권을 찾는 데 전념했다.<sup>57)</sup> 1982년에서 1986년까지 대다수의 노동쟁의, 즉 90퍼센트는 회사측이 기존 노동법을 준수하기를 거부해서 촉발됐다.<sup>58)</sup> 1980년대 대다수의 노동자투쟁은 노동자들 자신이 직접, 즉 황색조합의 “도움” 없이 조직했다. 208건의 투쟁 가운데 노조가 지도한 것은 겨우 13건인 반면, 블루-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이 167건을 주도했다.<sup>59)</sup> 아래의 표는 시민사회의 점증하는 불안정성을 가리킨다.

표 18: 타이완의 노사분규 1965-1986년

Year	1965	1975	1980	1984	1985	1986
#	15	485	700	1,154	1,622	1,458

Source: Hsu Cheng-Kuang, “Political Change and the Labor Movement in Taiwan, 1989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paper, as cited in Walden Bello and Stephanie Rosenfeld, *Dragons in Distress: Asia’s Miracle Economies in Crisis* (San Francisco: Food First Books, 1990), 224.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반란적 시대정신” 속에, 소비자운동이 동원했고, 생태주의 그룹이 결성됐고, 1982년 여성들이 투쟁에 나섰고, 1983년부터 원주민 인권운동이 일어났다.<sup>60)</sup> 풀뿌리 반란의 핵심적 차원은 타이완의 아름다움의 퇴화에 대한 반응이었다. 1986년 3월부터 환경운동가들은 미국 뒤편사에 반대하여 두캉에서 수개월에 걸친 시위를 시작했다. 루강반란으로 알려진 이 투쟁에서 지역 엘리트들은 풀뿌리와 단결하여 새 공장 취소를 강제했다.<sup>61)</sup> 투쟁은 또한 산황 화학공장과 리창용 공장에도 집중됐다. 1986년 10월, 최초의 반핵발전투쟁이 타이 전력 본사에서 벌어졌다. 1979년에서 1984년까지 겨우 57편의 반핵 기사가 주류 타이완 잡지에 실렸지만, 1985년만 61편, 1986년에는 79편이 실렸다.<sup>62)</sup>

54) Haggard and Pang, “Transition to Export-Led Growth,” 320; 1980년에서 1991년까지 상위 20 퍼센트 가구의 하위 20 퍼센트에 대한 소득 비율은 결코 5.18배를 넘지 못했다. 반면 브라질은 26.08배, 미국은 8.09배, 오스트레일리아는 5.59배였다. See Wu, *Taiwan’s Democratization* 52.

55) Denny Roy, *Taiwan: A Political Histor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164.

56) Shih-Chung Hsieh, “Taiwan Aborigines in Transition,” in *The Other Taiwan: 1945 to the Present*, ed. Murray Rubinstein (Armonk: M.E. Sharpe, 1994), 412.

57) Chen Hsin-Hsing, “State vs. Civil Society: Dynamics and Pitfalls of Social Movements in Taiwan since the 1980s,” in Cho Hee Yeon, Lawrence Surendra and Eunhong Park, eds., *tates of Democracy: Oligarchic Democracies and Asian Democratization* (Mumbai: Earth worm Books, 2008), 72.

58) Hsin-Huang Michael Hsiao, “The Labor Movement in Taiwan: A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Look,” in *Taiwan: Beyond the Economic Miracle*, eds., Dennis Simon and Michael Kau (Armonk: M.E. Sharpe, 1992), 159.

59) *Ibid.*, 159.

60) Ming-sho Ho, “The Politics of Anti-Nuclear Protest in Taiwan: A Case of Party-Dependent Movement, 1980-2000,” *Modern Asian Studies* 37, no.3 (2003).

61) Wu, *Taiwan’s Democratization*, 41, 67.

1987년 계엄령 해제 오래 전에 민주화에 대한 압력은 아래로부터 증가했다. 추윤한이 말하듯이, “1979년 이래 재야는 법적 금지를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결의로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사 정당의 결성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1984년에 시작하여, 탕웨이(唐偉)는 점진적으로 전에는 결코 용인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민주적 변화의 추진을 가속화했다. 그들은 대중집회를 조직했고, 거리시위를 벌였고, KMT 정권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침식하기 위해 다른 종류의 대결전략을 이용했다.”<sup>63)</sup> 1983년 겨우 175건의 시위에서, 그 숫자는 1986년 1,172건으로 대폭 늘어났다.<sup>64)</sup>

생태주의 시위가 승리를 거두자, 다른 활동가들은 계엄령을 직접 겨냥했다. 1986년 5월 19일 녹색행동에 고무되어, 6개월 이상의 가두투쟁은 계엄령 종식을 요구했다. 사회의 많은 부분이 급진화할까 두려워한 장칭궈는 다음 해 계엄령을 해제하겠다고 선언했다. 만약 방출밸브가 열리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 폭발이 일어났을지 아무도 모른다.

[사진 21]

1986년 타이완의 계엄령에 반대한 시위로 정부는 수십년간의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Photograph by Sung Lung-Chyuan in *Witness: Taiwanese People's Power 1986.5.19~1989.5.19* (Taipei, 2004), 14.

마르크스의 타도 이후, 장칭궈는 벽에 손으로 쓴 낙서를 보았다. 미국문화원(?) 원장 제임스 릴리의 압력으로 그는 야당의 요구에 동의하는 것이 타이완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확신하게 됐다. 그는 즉각 시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려고 애썼다. 양당의 탕웨이 공공정책연구협회(TRAPP)는 내무부 관리들로부터 해체하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장칭궈는 경찰에게 그 단체와 협상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일종의 합의를 추구한 두 번의 모임 끝에, 다섯 명의 야당 정치인들은 구금됐고,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 타이완 전역에서 수천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고, 연사들은 반복해서 “피플파워”와 마르크스의 필리핀 축출을 지적했다.<sup>65)</sup> 1986년 5월 19일, 15,000명 이상의 전투경찰은 야당의 12시간 집회를 막는 데 실패했다.

분명히 “피플파워”는 중요한 힘이었다. 후지엔민이란 활동가는 필자에게 “우리는 필리핀의 피플파워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sup>66)</sup> 또 다른 목격자는 “1986년 민주주의의 등장으로 인근의 전제정권들이 전복되자 타이완에서 파급효과가 느껴졌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sup>67)</sup> 국경을 넘어 운동을 서로 자극하는 그런 연계는 지속적으로 활동가 단체들의 가장 생산적 결과물 중의 하나로 입증된다. 타이완인 목사 C.S. 송은 타이완의 운동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준 외에도, 한국의 민중신학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sup>68)</sup> 일화에 의하면 타이완인들은 거리에서 한국의 민주화운동 노래를 불렀다.<sup>69)</sup> 상호적이고 동시적인 시위들은 운동을 더욱 더 커다란 강도로 추동했고, 활동가들은 몇 달 전만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조치들을 취했다. 반정부 활동가들은 정부가 새로운 당을 인가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1986년 9월 28일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 : DPP)을 건설했다. 약 130명의 탕웨이들은 비록 불법이었어도 바로 회의 마지막에 공식적으로 DPP를 조직하기로 한 제안에 동의했다.<sup>70)</sup> 1당국가에서 불법

62) Ming-sho, “Anti-Nuclear Protest,” 689.

63) Yun-han Chu, “Social Protests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Taiwan,” in *The Other Taiwan: 1945 to the Present*, ed. Murray Rubinstein (Armonk: M.E. Sharpe, 1994), 103.

64) Hung-mao Tien, “Taiwan’s Transformation,” 12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신중한 추정치에 따르면 보도된 사회적 항의의 숫자는 1983년 143건에서 1987년 676건으로 증가했다.. Chu, “Social Protests,” 99.

65) Roy, *Taiwan*, 171.

66) Interview with Wu Jieh-min, Taipei, August 15, 2009.

67) Chin-Chuan Lee, *Sparking a Fire: The Press and the Ferment of Democratic Change in Taiwan* (Austin: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1993), 27.

68) Interview with Oh Choong-il, November 27, 2001, Seoul.

69) 2009년 1월 31일자 이메일에서 윤판은 1980년대 후반 타이완 학생운동가들이 번역된 한국 학생운동을 읽고 있다고 확인했다; interview with Jeon Seung-hee, Cambridge, Massachusetts, 2007.

적으로 새 정당을 결성함으로써, 반정부세력은 마침내 정권의 정치적 독점에 균열을 냈고, 정권을 방어적으로 만들어 완전히 새로운 동학이 시작됐다.

1986년 11월 30일 베니뇨 아키노와 김대중의 망명후 귀국을 상기시키는 행동으로, 카오슝 사건 이후 미국에서 살고 있었던 야당 지도자 후신량의 지지자 10,000여명 그의 귀환할 권리를 지지하여 타이페이 국제공항 주위의 거리로 밀려왔다. 경찰과의 9시간 대치의 정점에, 경찰차량 26대가 전복됐고 양측의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다.<sup>71)</sup> 비행기 좌석을 거부당한 후신량은 12월 2일 다시 한번 시도했다. 또다시 공항에서 대치사태가 발생했지만, 그의 귀국 허가를 얻어내진 못했다. 4일 후에 열린 선거에서 야당은 33퍼센트를 득표했다.

1987년 1월 <각성>지와 장로교회의 무지개 프로젝트인 NGO들의 광범위한 연합이 수많은 10대 창녀들이 매매되는 KMT 소유의 악명높은 타이페이 지구인 Snake Alley를 통해 행진했다. 10대 매춘에 대한 이 최초의 시위는 어린 소녀들을 도우려는 타이완 전국적 운동의 핵심이 됐다. 학생들이 중심으로 이 투쟁을 고조시켰다. 대학개혁 청원 서명의 형태로 지지자를 규합하여, 약 2,000명이 서명했고, 더 작은 그룹의 학생들이 1987년 3월 입법원으로 행진했다. 그들의 후보가 학생회 의장으로 선출됐고, 그는 후임의 직접선거를 제도화할 수 있었다.<sup>72)</sup> 1987년 5월 19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를 동안 롱산사를 점거했다. 경찰이 그들을 포위하자, 지지자들이 경찰저지선 외부에 모여서 계엄령 해지를 요구하던 활동가들에게 빵과 만두를 던졌다.<sup>73)</sup> 비록 KMT이 계엄령을 종식한 당사자라 주장함에도, 명백히 아래로부터 행사된 압력이 핵심적이었다.

#### 민주화의 고양

1987년 7월 7일 입법원은 표결하여 38년 계엄령을 중지하기로 했고, 1987년 7월 15일 백색테러는 공식적으로 끝났다. 시민사회와 사회적 반란의 공생관계로, 세계 최장 독재의 종식을 자극한 야당 그룹들의 승리감은 타이완이 경험했던 것과 다른 풀뿌리운동의 거대한 물결에 수문을 열었다. 계엄령이 해제된 지 몇 달 안에, 노동자, 농민, 제대군인, 정치적 희생자들의 시위 수백 건이 터져 나왔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1987년 7월 15일 계엄령 해제와 1988년 3월 31일 사이에 1일 평균 다섯 건, 총 1,408건의 시위가 발생했다.<sup>74)</sup> 1981년에서 1988년까지 노동쟁의의 숫자가 1,305건이었던 반면, 민주적 권리의 회복이 “고조”로 이어지면서 1989년 상반기에만 1,009건이 발생했다.<sup>75)</sup> 아무도 그 당시엔 몰랐지만, 시민사회가 타이완을 변혁하는 데 기여한 귀중한 자원임이 입증됐다. 1970년대 변화의 시대정신(Zeitgeist)은 문화적 에너지로서 표출됐고, 1980년대에는 사회운동으로서, 그리고 1990년대에는 입헌적, 정치적 변혁으로서 표출됐으며, 이 모두 2000년 야당의 대통령직 장악으로 귀결됐다.<sup>76)</sup> 판윤은 시민 사회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했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시민사회가 없다면, 타이완에서 민주주의가 등장해서 뿌리내리지 못했을 것이다.”<sup>77)</sup>

백색테러는 끝났을지 몰라도, 타이완은 아직 민주주의는 아니었다. 심지어 인민의 대통령 및 의회 선출이란 최저기준에서도 그랬다. 타이완은 1947년 이래 선거를 치루지 않은 국회가 여전히 지배했고, 대통령 직선제는 허용되지 않고 노쇠한 입법부에 넘겨졌다. 집권 KMT는

70) Hung-mao Tien, “Taiwan’s Transformation,” in *Consolidating the Third Wave Democracies: Regional Challenges*, eds. Larry Diamond, Marc Plattner, Yun-han Chu, and Hung-mao Tien (Baltimore: Johns Hopkins, 1997), 123.

71) Alan M. Wachman, *Taiwan: National Identity and Democratization* (Armonk: M.E. Sharpe, 1994), 145.

72) Wright, “Disincentives,” 99.

73) Interview with Frank Chen, Taipei, August 10, 2009.

74) *Central Daily News*, April 20, 1988, 2 as quoted in Wu, *Taiwan’s Democratization*, 60.

75) Hsiao, “The Labor Movement in Taiwan,” 157.

76) I am indebted to Michael Hsiao for this insight.

77) Yun Fan, “Taiwan: No Civil Society, No Democracy,” in *Civil Society and Political Change in Asia: Expanding and Contracting Democratic Space*, ed. Muthiah Alagapp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185.

무자비하게 권력에 매달렸고, 수많은 번영하는 사업체들과 함께 타이완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통제했다. 1987년 계엄령이 무효화되자, 장칭쑤는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인민들은 “계엄령의 100퍼센트 폐지”를 요구하는 캠페인으로 새로운 법률에 맞서 즉각 일어섰다. 다가오는 긴 정치적 변화가 필요했지만, 아무도 누가 그것을 이끌지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다시 한번, 거리의 반란이 정치변화를 한걸음씩 성취할 추동력을 제공했다.

1986년에서 1992년 중반까지, 타이완은 진정한 정치적 르네상스를 경험했다. 정당의 숫자는 3개에서 69개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잡지가 3,354개에서 4,356개로 들어나는 도안 신문의 숫자는 31개에서 246개로 거의 800퍼센트 증가했다.<sup>78)</sup> 한국, 네팔, 필리핀, 방글라데시처럼, 반란이 심한 탄압없이 투쟁할 공간을 쟁취하자 노동자들이 동원됐다. 타이완에서, 17개 유형의 사회운동이 민주화와 함께 등장했고, 여기에는 장애인, 핵발전 반대, 교사의 권리, 원주민 권리 등의 운동도 포함된다.<sup>79)</sup> 1987년 10월 26일 타이완 원주민동맹(원래 1984년 12월 29일 설립된)의 제2차 협의회에서 타이완 원주민 선언은 토지가 원주민 집단에서 반환되어 자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1981년 겨우 10건의 환경시위가 타이완 신문에 보도됐지만, 1991년에는 최소한 278건이 기록됐고 이는 지난 12년간의 수치를 합한 것보다 많았다.<sup>80)</sup> 딱 3년(1988-1990년) 동안, 기업들은 환경소송의 결과로 5억달러(120억 NT달러)를 지불했다.<sup>81)</sup> 예를 들어 독일녹색당(1980년대 초반 광범하게 논의된)의 예처럼, 현대적 생태운동과 지역 타이완 관습의 혼합은 1987년 8월 매우 흥미로운 지점에 도달했다. 호우진 주민들은 예불 도중에 한 징조로 근처 국영 중국석유공단의 나프타 추출공장에 반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신을 시위대열로 모시고 갔고, 공장을 폐쇄할 수는 없었지만, 상당한 보상을 받았다. 1988년 린유안의 중국석유공사 정유소가 수천갤론의 하수를 방출하여 주변 농지를 심하게 오염시키자, 사람들은 공장을 포위해서 폐쇄시켰다. 결국 정부는 보상금으로 12.7억 NT달러를 지불했다. 1988년 3월, 어민들은 지역에 기반을 둔 연라오 반핵자위협회를 설립했다. 13년 동안, 이 단체는 근처에 핵발전소와 싸웠다. 1988년 9월 6일 수질오염으로 인한 조개폐사 때문에 카오슝 어민들이 타이페이로 와서 항의했다.

타이완의 역동적 경제는 더 이상 KMT 독재의 낡아빠진 권위주의적 구조 내에 가뭇들 수 없었다. 기업인들은 전지구적 동학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었고, 학생들은 사상의 공개적 표현에 기초하여 다양화된 관심과 집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산업에 참여하고, 노동자들은 지적인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생산에 참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낡은 국책임체제는 개혁을 필요로 긴급하게 했고, 그렇지 않다면 혁명적 변혁의 위험을 무릅써야 했다. 한국에서 “개발국가”의 사망 및 필리핀에서 “즉근 자본주의”의 종말처럼, 타이완의 체제도 전지구적 자본에 막 흡수될 참이었고, 자본은 새롭고 보다 유연한 구조를 정착시킬 것을 요구했다.

자유화가 이뤄진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은 타이완에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 경우 과일, 닭과 칠면조 고기에 대한 것으로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완화할 의도였다. 미국노동총 AFL-CIO의 압력 아래, 노동기준이 향상됐다(그리하여 국제시장에서 타이완 제품이 더 비싸졌다). 타이완이 신자유주의 시대로 돌진하면서, 주식시장은 호황을 맞았다. 시장자본화는 GDP의 두배에 도달했고, 일일 거래량은 도쿄와 뉴욕 외에 세계의 모든 증권거래소를 능가했다. 타이완의 경제발전은 섬유와 신발제조 같은 노동집약적 부분이 폐쇄돼서 외국으로 이전하는 단결에 도달했었다. 신자유주의의 시작은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더 많은 항의시위를

78) John Minns, *The Politics of Developmentalism: The Midas States of Mexico, South Korea and Taiwan* (New York: Palgrave, 2006), 219.

79) Hsin-Huang Michael Hsiao, “Emerging Social Movements and the Rise of a Demanding Civil Society in Taiwan,” *The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24 (July 1990).

80) Weller, *Alternate Civilities*, 7, 122.

81) *Ibid.*, 110.

촉발했다.

1987년 11월, 가족들의 본토방문이 40년간의 분단 이후에 허용됐다. 신문들은 과거에 제한되던 기사를 인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회선거에 대한 공개적 요구들이 대폭 늘었다. 1988년 1월 13일 장칭취 총통이 사망한 다음, 정당, 집회, 언론자유에 대한 금지가 급속하게 제거됐다. 1987년 12월 DPP는 의회선거에 대한 요구를 극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타이페이의 종화로에서 교통을 봉쇄했다. 다음해 봄인 1988년 3월 29일 다후마을에서 DPP는 오래동안 국회 의원을 하는 자들의 집 근처에서 새로 시위를 조직했다. 1988년 2월, 타오유안의 5일간 버스 파업은 새로운 노동투쟁의 신호였다. 1988년 5월 1일 전국독립노동동맹이 10개 자주적 노동조합들을 한데 모았고 같은 날 14,000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불만에 대해 정부로부터 몇 달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철도 노동자들은 1일 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즉각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으로 반응했다. 7월 석유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8월에는 마오리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신광의 섬유공장이 폐쇄되자, 직업을 구하기 위한 대대적 운동이 등장했고, 사람들은 폐쇄의 원인인 신자유주의를 비난했다.

아마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모든 반란세력 중에서 가장 전투적인 세력은 농민일 것이다. 1987년 12월 8일, 최소한 3,000명이 농민들이 수입과일로 야기된 가격하락에 항의하기 위해 입법원 앞에 모였다.<sup>82)</sup> “1208 사건”으로 알려진 이 최초의 시위는 급속히 수많은 작은 시위들로 이어졌고, 12월 18일 땅콩 농민들은 수입땅콩과 기름에 대한 불공정한 경쟁에 항의했고 크리스마스 시위에도 10,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농민들은 이후 316, 426, 520, 1025에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1988년 4월 25일 수백 명이 농민들이 130대 이상의 트랙터를 몰고 타이페이 경찰서로 갔으며, 거리투쟁으로 KMT 당사 근처 지역이 마비됐다. 타이완-미국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고 미국이 금융규제완화와 무역자유화를 압박하면서 시위들은 격화됐다.

1988년 5월 20일 농민들의 투쟁은 수십 년만에 최대의 대치였고 5,000명이나 참여했다. 시위대는 농민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도울 경제정책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지역시장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개방 중단, 의료보험, 협회선거 개선, 농업부 설치 등), 새로운 의회선거와 헌법개정도 요구했다. 농민들이 항복하기를 거부하면서 거리투쟁은 밤새 새벽까지 지속됐다. 약 200명이 부상당했고, 122명이 체포됐고, 그들 중 68명이 나중에 유죄판결을 받았다.<sup>83)</sup> 많은 정부관리들도 제대군인투쟁동맹이나 타이완 인권협회처럼 농민들을 지지했다.<sup>84)</sup> 학생들도 농민의 편에서 가두에 개입했다. 5월 29일 75명의 KMT 의원들이 비상사태 선언을 요청하면서 보수파의 대응이 시작됐고, 이는 계엄령의 재도입이 가능하다는 신호였다. 백색테러의 부활 가능성을 느낀 농민협회는 다음 집회를 취소하고 6월 16일 사과했다. 100명 이상의 교수와 학자들이 체포자들에게 대한 공정한 재판과 폭력에 대한 정부책임을 요구했다. 정부가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자, 520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자주적 수사위원회를 결성했다.

야당인 DPP로선, 리덩휘 행정부의 탄압이 “과거와의 단절에 대한 희망을 죽였지만” 거리폭력은 명백히 당국이 대화를 시작하도록 설득했다.<sup>85)</sup> 1988년 7월 4일, 정부는 농민을 위한 새로운 의료보험제도를 발표했다. 1988년 8월 5일 바나나 농민들이 일본 무역회사들의 독점에 하의하자, 그들은 행정원의 사과를 받았고, 이는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어려움에 대한 인정이 었다.<sup>86)</sup> 남한의 농민연맹이 타이완 농민연맹을 초청했고, 한국측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여 교수, 목사, 여성단체, 학생, DPP 등이 참여한 집회에서 타이완 농민들을 지지했다.

1987년 7월, 포르노그래피 반대시위가 전세계에서 10,000명의 남성들이 참가한 라이온스클럽

82) Hsin-Huang Michael Hsiao, “Political Liberalization and Taiwan’s Farmers’ Movement,” in *The Politics of Democratization: Generalizing East Asian Experiences*, ed. Edward Friedman (Boulder: Westview Press, 1994), 205.

83) Roy, *Taiwan*, 178.

84) Hsiao, “Political Liberalization,” 213-5.

85) *Ibid.*, 207.

86) *Ibid.*, 215.



총회에서 조직됐다. 페미니스트들은 1987년 8월 18일 다시 쑨얏셴 관에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불평등 대우에 항의하여 시위를 벌였다. 교육기관들에서 여성노동조합이 결성됐다. 10월에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항의하여 미스터 타이페이 경연대회를 후원했다. 1988년 1월 9일 여성들이 다시 한번 10대 매춘에 항의하여 투쟁했고, 55개 단체 대표들이 타이페이에서 행진하면서 문제의 지속성을 극적으로 부각시켰다. 타이완 여성들은 미국 여성들에게 크게 영향을 받았다. 한 작가는 “개인의 출세를 위해 권력과 명성에 굶주린 개인들”을 이용하는 미국 여성운동 인사들에 대한 조 프리먼의 비판을 인용했다.<sup>87)</sup> 여성단체들은 성공적으로 주요 8대법안을 도입시킬 수 있었다. 동성에 타이완인들은 점차 정체성을 공개했고 서로를 부를 때 동지(tongzhi)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용어의 사용은 1988년 홍콩에서 비롯됐는데, 타이완으로 이주했고, 거기서 이 단어의 사용이 과거 표준적 공산당원들의 사용에 대한 연상으로 방해받지 않았다.<sup>88)</sup> 1993년 동성애자 집단모임이 TNU에서 만들어졌고, 비슷한 모임들이 여러 대학들에서 존재하게 됐다.

사람들은 정부의 승인에 몇 달 앞서 자유를 행사했다. 마치 DPP가 정당에 관한 금지가 해제되기 전에 세워진 것처럼, 오랫동안 체포와 투옥을 부른 주제인 타이완 독립의 옹호자들이 1989년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희생은 타이완의 답론을 개방한 힘겹게 쟁취한 승리로 귀결됐다. 활동가 덩난중은 비록 중국계이지만, 타이완 독립을 호소하는 운동을 이끌었다. 대중집회와 그가 출판하는 일련의 잡지를 이용하여(군사검열관이 폐간하는 만큼 자주 이름을 바꿔서), 덩난중은 “1백 퍼센트 표현의 자유”를 추구했다. 1988년 그는 후시카이가 작성한 타이완공화국 헌법초안을 출판하자, 정부는 그에게 폭동 교사혐의를 적용했다. 체포를 거부한 그는 잡지 사무실 안에서 석유 3통을 갖고 자신의 몸으로 바리케이드를 쳤고 71일간 버텼다. 마침내 1989년 4월 7일 체포되기보다 분신하는 길을 택했다. 덩난중의 희생이 죽기를 거부하자, 춘이화가 1988년 5월 19일 그의 발길을 따라 시위 중에 분신하여 사망했다.

비록 타이완 독립을 논의할 형식적 법제화는 1992년까지 이뤄지지 않았지만, 덩난중의 희생은 그렇게 실질적 권리를 확보했고, 이 권리를 쟁취했기에 운동의 다음 단계는 친독립 정당이 경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였다. 1988년 말까지 국회개혁이 운동의 주요 목표였다. 이런 맥락에서 거의 모든 주요 대학들이 참여하여 새로 결성된 민주학생동맹이 펼쳐 일어나 국회의 권력유지에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1989년 9월 28일, 학생들은 교육부로 2,000명의 행진을 조직했다. 캠퍼스 활동가들은 단순히 캠퍼스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정치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 백합 학생운동

1990년 3월 21일로 예정된 새 총통 지명 한달 전에, 타이완은 놀라움과 혐오 속에 KMT 내부의 보수파가 스스로 거부권을 부여하려고 시도하는 것(또 “과외 업무”를 보상하기 위한 엄청난 세비인상을 스스로 표결했다)을 지켜봤다. 그 때 총통 직선제는 허용되지 않았고, 국회는 “늙은 도둑들, 즉 실제로 아무 타이완인도 없이 중국본토 선거구에서 1947년 선택된 KMT 국회의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새 총통이 될 유력한 후보는 부총통(타이완인) 리덩휘였다. 전국민 대부분이 늙은 도둑들의 지속적 “봉사”에 반대했지만, 학생들은 그들에 대한 반격을 이끌 최상의 위치에 있었다.<sup>89)</sup>

개헌과정의 지속적인 비민주성에 대한 반응으로, 학생들은 백합학생운동(3월 학생운동이라고도 부른다)을 시작했다. 1년전 티아난먼 광장의 학생들에게 영감을 받아(타이완 언론이 아낌없이 보도한 사건), 학생들은 헌법개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개입했다. 3월 14일, 약 100명의

87) “The Feminist Movement in Taiwan: 1972-1987,” in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January-March, 1989): 12.

88) Jens Damm, “Tongzhi in Contemporary Taiwan: Successful Only on the Surface? From a Promising Start to the Abuse of a Multiculturalism Policy?” unpublished manuscript.

89) June Teufel Dreyer, “Taiwan’s December 1991 Election,” *World Affairs* 155 (1992).

학생들이 KMT 중앙당사의 경찰저지선을 뚫었다. 놀라운 인내심과 통제력으로 그들은 경찰과 충돌을 피하면서도 다른 200여명의 학생들과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멈춘 곳에 지지를 표하고 미래의 투쟁에 대한 힘을 비축할 에너지 센터를 세웠다. 이를 뒤, 학생들은 KMT의 심장인 장카이셴 기념관 밖의 거대한 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큰 글씨로 쓴 플래카드들은 국회해산, 새 선거, 헌법개정요구의 초점을 맞췄다. 자정이 얼마 지난후, 그들은 참가한 35개 학교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캠퍼스 연합 평의회를 만들었다. 텔레비전이 광장점거를 보도하자, 전국에서 많은 조직들과 더 많은 수천 명의 학생들이 도착하여 3월 17일 농성에 합류했다. 학생들은 마이크를 토론했고, 의견차이가 드러나기도 했고, 또한 “우리 승리하리라”를 불렀다.<sup>90)</sup> 약 1천명의 시민들이 학생들의 정치적 행동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기금을 걷기 위해 도착했다. DPP가 멀지 않은 곳에서 집회를 열자, 학생들은 엄청난 추가적 지지와 지금을 받았다. 티아난먼 광장처럼, 3월 19일 작은 그룹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3월 20일 리등휘가 다음 총통으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선택되기 전 날에 학생들이 숫자는 약 5,000명으로 정점에 이르렀다.<sup>91)</sup> 팝스타들이 노래하고 인형극을 즐기는 가운데, 백합학생운동은 본토 동지들의 공적 공간 점령과 단식농성을 모방했다. 그들은 21일 타이완 전국의 동맹휴학을 호소했는데, 노후한 국회가 아직 투표할 권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날을 “민주주의 수치의 날”이라고 선포했다.

[사진 22]

수천명의 학생들이 장카이셴 기념관 광장을 점거했다.

Photo by Tsai Wen Shiangin *The Age of Defiance 1988-1992* (Taipei: GA Design Corp., 2008), 169.

6일째 마지막 무렵, 약 84개 시민단체들이 동참했지만, 운동의 핵은 학생들이었다. 그들의 내부조직은 규율과 질서가 있었다. 언론에서 이미지를 훼손할 도발행위를 막기 위해 그들의 점령한 주요 지역을 식별가능한 학생들로 한정해 유지했다. 학생 대오 내에서 지도자는 순번제로 했고, 대표자들의 모임 공간 주변에는 보안경계선을 쳤다. 정책그룹에는 다양한 주요 인사들이 포함됐고, 이들은 다시 매일 8시간마다 권한을 순번제로 담당하는 3명을 “지휘센터”로 선택했다. 6개의 부서가 만들어져 임무를 수행했다(재정, 정보, 보안, 동원, 일반어부, 회의). 모든 삶에게 정보를 알리고 운동이 권위구조와 행동수칙을 공표하기 위해 “광장소식지”가 출판됐다. 그들의 자기조직화와 집단적 규율은 본토 학생들의 개인주의나 권력투쟁과 뚜렷하게 대조된다. 자치를 엄격하게 보호한 타이완 학생들은 교수, 대학원생들과 협력했고 그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문그룹을 만들기도 했다. 그들은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간부와 접촉을 유지했다.<sup>92)</sup>

노골적인 친KMT 계열인 수많은 학생회장들을 포함해 대열 내의 엄청난 분열에도 불구하고, 그룹은 위엄있는 과정을 견지했고, 점거기간 내내 집단적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작은 그룹이 독자적 주도력으로 단식농성에 착수하자, 더 큰 그룹들은 자임한 단식농성자들이 언론의 초점이 되고 캠퍼스 연합평의회와 동등한 자주적 파트너가 됐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단식농성자들을 지지했다. 어떤 한 개인도 티아난먼과 같이 권력의 지위에 매달리지 않았다. 총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책그룹이 비민주적 방식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불평하자, 새로운 위원들이 순번제로 들어갔다.

정책그룹 내에서 일부 위원들은 총통관저 진격을 주장했다지만, 다수는 그들을 부결시키고 대신에 협상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고, 협상을 통해 리등휘와의 만남에 대한 합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캠퍼스 연합평의회가 다시 소집되자, 사람들은 총통을 만나기로 한 정책그룹의 결정에 불만을 표현했다. 점거의 민주적 역량은 이 결정적 순간에 주목할 만했다. 모두가 즉각 캠퍼스별로 표결하여 대표자들이 총회에 다시 보고하는 데 동의했다. 과정이 진행되자, 정책

90) Interview with Yi-Cheng Jou, Taipei, August 6, 2009.

91) Yun Fan estimated the number in the tens of thousands in Alagappa, *Civil Society*, 164-190.

92) See Wright, *Perils of Protest*, 106-125 for more details on the Lily Student Movement of 1990.

그들은 먼저 일방적 결정에 대해 사과했고, 전원 사임을 제안했다. 캠퍼스별로 의견을 확인했을 때, 22개교는 찬성, 7개교는 반대, 6개교는 기권했다. 그런 다음 총회는 35개 학교 각각이 리덩취를 만날 대표를 보내고 과거에 선출된 정책그룹 위원들과 단식농성자 대표들, 교수들도 대표단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총통선출 다음날, 리덩취가 처음으로 한 일은 대표단을 만나는 일이었다. 일단 커다란 그룹이 집무실에 모이자, 리덩취는 학생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에 대해 치하했다. “물질주의”의 광범한 지배에 대해 언급한 리덩취는 학생들의 이상에 대해 경하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국회를 폐지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지만, 한 달 내에 헌법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추진하고 보다 민주적인 대의제도와 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열달 전, 중국 리펑 총리는 학생들과 만났지만, 결과는 재난이었다. 명백히 타이완 학생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중국의 실패로부터 배웠고 그 방에는 의사진행을 방해할 위카이시가 없었다.

학생 대표들은 광장으로 돌아와서 농성자 총회에 총통과의 모임 비디오를 보여주었고, 그런 다음 학생들은 캠퍼스 별로 모임을 가졌다, 한밤중에, 캠퍼스 연합평의회는 광장을 떠나기로 표결했고, 새벽까지 다수의 학생들이 집을 싸서 떠났다. 단식농성자들은 같은 날 시위를 끝내기로 표결했다. 정책그룹은 떠나기 전에, 총통이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에 충실한지 확인하기 위한 전국적 학생조직의 결성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광장을 청소했다. 3월 22일 오후 5시 마지막 시위자가 사라졌다.

#### 민주화 이행을 향하여

수많은 상이한 구성원 사이의 중재자로서 리덩취의 역량은 균형잡기 어려운 행동임이 입증됐다. 1990년 4월 23일, 약속대로 헌법은 개정됐고 선거가 예정됐지만, 5월 1일 리덩취가 현역장군 하우포춘을 새로운 총리로 임명하자 분노한 시위대가 뛰어나왔다. 사람들은 군대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고, 이 감정은 아주 폭넓게 퍼져서 하우포춘 자신이 군에서 영원히 은퇴하기로 동의했다. 시위대를 달래기 위해, 1990년 5월 20일 리덩취 총통은 카오슝 피고들을 포함한 모든 탕웨이 활동가들을 사면했다. 1991년 타이완 역사를 연구한다고 타이완 CIA에 의해 구금된 소그룹을 구하기 위해 5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 DPP의 신조류파는 개혁집회를 조직하여 1991년 4월과 5월 거리에 수십만명을 끌어모았다.

1991년 12월과 1992년 초에 1947년 이래 처음으로 국회가 선출됐다. 비록 KMT가 DPP의 24퍼센트에 비해 71퍼센트 득표의 압도적 다수로 승리했지만, 그것은 중요한 시작이었다. 1994년 첫 번째 주지사 직접선거가 이뤄졌고, 1996년 3월 처음으로 시민들이 총통 투표를 해서 리덩취가 선출됐다. KMT의 타이완인 당원들은 1970년대 미미한 6.1퍼센트에서 1980년대초 19.3퍼센트, 1990년대 초반 34.4퍼센트, 그리고 1990년대 후반 53.3퍼센트로 늘었다.<sup>93)</sup> 리덩취 아래서,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적 체제의 정치적 개혁이 차례로 진행됐다. 1995년 리덩취 총통은 공식적으로 228사건에 대해 섬주민들에게 사과했다. 곧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이 지불됐다. 2001년 이래 2월 28일은 국경일이 됐고, 정부는 정부테러의 희생자들에게 보상했고, 아시아에서 남한 다음으로 그렇게 했다. 2000년 첸수이벤이 최초의 비KMT 총통으로 선출됐다.

관측통들은 타이완의 과정을 엘리트가 스스로 변화해서 광범한 개혁을 시행한 변혁과정으로 간주한다.<sup>94)</sup> 비교해 보면, 한국의 6월항쟁은 엘리트와 야당의 행동을 결합한 민주적 이행을 강제했고, 옛 엘리트와 야당이 힘을 합쳐 새로운 지배체제를 창출하는 이행이었다. 그런 대조는 타이완의 풀뿌리 압력, 비합법 정당으로서 DPP의 결성, 2000년의 선거승리를 무시한다.

93) Hung-mao Tien, *Taiwan's Electoral Politics and Democratic Transition* (Armonk: M.E. Sharpe, 1996) as quoted by Yun-han Chu, "Taiwan's Unique Challenges" in *Democracy in East Asia*, eds., Larry Diamond and Marc Plattner,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8), 138.

94) Wright, *Perils of Protest*, 114.

풀뿌리 반란의 한가지 잔여 효과는 민중의 정체성 변혁, 민중들이 점차 자신을 타이완인으로 정의하는 대항담론의 강화이다. 1990년대, “당신은 타이완인가 중국인인가?”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인민의 약 20퍼센트만이 타이완인이라고 선택했다. 그 숫자는 2000년 36퍼센트, 그리고 2006년 60퍼센트로 늘었다.<sup>95)</sup>

중산층의 역할은 타이완의 민주화에서 특히 중요하다. 티엔홍마오에 의하면, “기업가들은 전문직, 경영자, 지식인들과 더불어 민주화운동과 사회운동의 전면에 섰던 새로운 커다란 비즈니스 계급이다.”<sup>96)</sup> 구해근은 한국과 달리 타이완의 “지식인들과 새로운 중산층은 권위주의 국가권력과의 직접적 대치를 피했고, 그 대신에 하향식 이행과정을 얻기 위해 국가통치자에 대한 간접적 압력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sup>97)</sup> 홍콩에서 전문직으로부터의 압력은 또한 1997년 이행 이후 더 많은 자유를 가져왔다. 계속되는 타이완의 변혁은 점증하는 참여를 의미하며, 2001년 최소한 15,000개의 NGO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증거인데, 계엄령 해제 이래 400퍼센트 증가했고 1991년부터 10년간 5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

표 19: 타이완 시민사회단체들의 성장, 1980-2001년

단체유형	1980년의 숫자	%	2001년의 숫자	%
교육문화	541	13.7	2,801	15.2
의료 및 공중보건	48	1.2	526	2.8
종교	64	1.6	725	3.9
스포츠	50	1.3	2,098	11.4
사회복지 및 자선	2,471	62.4	5,794	31.4
국제	51	1.3	2,055	11.1
기타	735	18.6	2,523	13.7
합계	3,960	100	18,465	100

Sourc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s cited by Yun Fan in Alagappa, 177.

타이완 최대의 NGO는 대부분 여성인 불교자선재단이었고, 재단의 복지예산은 타이페이 시 예산보다 많다.<sup>98)</sup> NGO들에 관한 데이터를 조사한 다음, 마이클 샤오는 “핵심 지도자들”의 31퍼센트가 정부관리임을 발견했다.<sup>99)</sup> 그는 이후에 “진짜” NGO들에 대한 데이터를 개발했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그들은 1980년대 비슷한 증가를 경험했다.

표 20: 타이완의 NGO들

설립연도	협회	재단	합계
Before 1949	13	0	13
1950-9	7	1	8
1960-9	14	2	16
1970-9	18	6	24
1980-9	39	23	62
1990-9	103	24	127

Source: Hsiao, “NGOs,” 47.

95) Tu Cheng-sheng, *Educational Reform in Taiwan: Retrospect and Prospect* (Taipei: Taiwan Ministry of Education, 2007), 17.

96) Tien, “Taiwan’s Transformation,” 17.

97) Hagen Koo, “Globalization and the Asian Middle Classes,” in *The Changing Faces of the Middle Classes in Asia-Pacific*, ed. Hsin-Huang Michael Hsiao (Taipei: Center for Asia-Pacific Area Studies, 2006), 16.

98) Weller, *Alternate Civilities*, 17.

99) Hsiao, “Civil Society,” 217.

1991년, 거의 3,000개의 재단이 존재했고, 이는 1980년대 이래 설립된 재단의 3/4 이상이다.<sup>100)</sup> 2004년까지 회원제 협회는 20,000개로 산정됐다.<sup>101)</sup> 전부 2000년 모든 독립적 협회의 75퍼센트 이상이 1980년 이후에 시작됐고, 이는 다시 한번 반란운동이 사회적 다원화와 수평적 정치권력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활동가들의 동원력 역시 몇 배로 증가했다. 2004년 2월 28일, 타이완을 조준한 중국미사일에 항의하여, 200만 명의 인민들이 손을 잡아 섬이 한 쪽에서 다른 쪽까지 연결하는 인간사슬을 만들었는데 타이완 역사상 최대시위였다.

연속적 헌법개정으로 구속은 없지만 처음으로 국민투표가 시행됐고, 이는 카오슝에서 나프타 수출공장에 반대한 호우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다. 1990년 5월 6일, 투표자의 2/3가 반대했지만, 정부는 가동을 시작하기 전에 공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민의 의지가 아주 중요한 곳에서, 지방정부는 13개의 상이한 인기 없는 프로젝트를 중앙정부에 입증하는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이용했다.<sup>102)</sup> 주민투표의 정당성이 아주 높아서, 그 이후 구속력을 갖게 됐다.

엄청난 진보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는 타이완 민주주의를 괴롭힌다. 야당운동 내에서 여성해방은 운동 내부, 특히 여성운동과 사회일반에서 광범한 논쟁을 불러오는 이슈가 됐다. 결과는 성해방 페미니스트의 주변화였고, 그들은 결국 주류조직들에서 배제됐다. 1988년 5월, 성노동자 및 지지자 집단은 13개국의 성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조직하여 “성의 권리는 인권이다!”라고 선언했다. 회의 이후, 각성재단은 창녀들의 조직화 노력을 지원했던 활동가 몇 명을 해고했다.<sup>103)</sup> 운동의 분열이 확대되자 두 가지 경향이 등장했다: 소수자의 생활스타일 자유의 장점에 관한 상이한 견해를 가진 “시민사회” 대 “민중의 민주주의.” 주류 페미니스트들이 DPP 정부의 위계로 통합되자, 평등에 관한 그들의 열망은 점차 국가를 통하게 된 반면, 보다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주류가 “모호하게 성적이어서 아마 자녀에게 해로운 것이며 무엇이나 법의 긴팔을 휘둘러 제거하려는 신경증 발작적 엄마들의 운동”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sup>104)</sup> 양극화된 의견들이 뒤섞인 가운데, 처음에 초기 페미니스트 지도자이자 부총통인 아네트 루는 AIDS가 신의 형벌이라고 주장했다. 학자이자 활동가인 조세핀 호는 “전통적 가치를 타락시키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외설을 선전”했다고 그녀를 비판했던 13개 보수적 NGO들에게 고소당했다. 다행히 조세핀 호는 2004년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녀의 견해로는 “아시아의 신생 민주주의는 정치적 영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회적 공간의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특히 성문제에 대해서는 감시와 규제 정도가 증가해 왔다.”<sup>105)</sup> 타이완의 2008년 게이 프라이드 행진은 20,000명의 참여자를 끌어들이었고, 아시아 최대의 게이 행사였다.

2000년 소수당 대통령으로 선출된 첸수이벤은 DPP가 입법원에서 1/3 이하의 의석을 가졌음에도 타이완화를 개시했다. 그의 첫 번째 임기에, 국가지출은 거의 GDP의 1/4이었던 반면, 수입은 결코 13퍼센트를 넘지 못해 GDP의 46퍼센트에 이르는 누적부채를 남겼다.<sup>10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첸수이벤은 2004년 거의 절대다수를 받았고, 48.8퍼센트의 작은 차이로 과반수

100) Hsin-Huang Michael Hsiao, “NGOs, the State, and Democracy under Globalization: The Case of Taiwan,” in *Civil Life, Globalization, and Political Change in Asia*, ed. Robert P. Weller (London: Routledge, 2007), 45.

101) Hsin-Huang Michael Hsiao, “Civil Society and Democratization in Taiwan, 1980-2005,” in *Asian New Democracies: The Philippines, South Korea and Taiwan Compared* (Taipei: Center for Asia-Pacific Area Studies, 2006), 212.

102) Yung-Ming Hsu, Chia-Hung Tsai, and Hsiu-Tin Huang, “Referendum: A New Way of Identifying National Identity,” in *Asian New Democracies: The Philippines, South Korea and Taiwan Compared* (Taipei: Center for Asia-Pacific Area Studies, 2006), 274.

103) Josephine Ho, “Sex Revolution and Sex Rights Movement in Taiwan,” *Berliner China-Hefte/ Chinese History and Society* 32 (2007): 130.

104) *Ibid.*, 135.

105) *Ibid.*, 123.

106) Chu, “Taiwan’s Unique Challenges,” 51.

에 모자랐다. 첸수이벤은 2000년 9월 국제적 동성애 NGO들과 타이완 동지 활동가들을 환영했다. DPP 행정부의 공식정책은 다문화주의를 타이완의 공식정책으로 확인했고, 그는 모든 정부공무원에 대해 성교육을 의무화했다. 그의 감독 아래 거의 모든 노동조합들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갔다. 활동가들은 낡고 억압적인 노동법(1929년 제정) 개정과 주류 중국노동연맹(CFL)에 대한 대항에 집중했다. 2000년 5월 1일 새로 결성된 타이완 노동조합 총동맹(TCTU)이 대통령 당선자 첸수이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했고, 이는 DPP의 “자주적” 노동운동에 대한 침해를 상징했다. TCTU는 재빨리 또 다른 주류노조가 됐고, 노동법 개정은 아주 달성하기 힘든 목표로 입증됐다. 노무현이 당선된 남한처럼, 2000년 초 DPP가 집권하면서 대규모 항의행동은 대개 중단됐다.<sup>107)</sup>

한국과 타이완의 진보적 행정부는 유권자들에게 했던 중심적 공약들을 철회했다. 노무현은 그가 약속한대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수 없었고, 유권자의 절반이 반대할 정도로 아주 인기없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최고 옹호자가 됐다. 첸수이벤과 DPP는 곧 4호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철회했는데, 리덩취 총통마저 이 발전소의 승인을 거부했었다. 그는 “인민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늘이 따라야 한다”는 기원전 11세기의 고대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08)</sup> 하오 총리는 네 번째 원자력 발전소를 지지함으로써 정부의 권위를 재확립 하겠다고 주장했다. 1991년 10월 13일, 옌라오 활동가들이 건설현장에 바리케이드를 친 이후, 경찰과의 충돌로 한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다. 법정심리는 11명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한명은 종신형을 받았다. 시위가 계속되자, 하우총리는 결국 1993년 초 사임했고, 발전소는 열지 못했다.

많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저항적 사회운동은 개혁후보를 포괄하지만, 일단 후보들이 정부의 기성체제에 통합되면, 그들은 점차 자신을 무명에서 중요한 지위로 오르게 한 바로 그 운동에서 이탈한다. 그들은 점차 그들이 반대했던 과거 집권당의 입장을 채택한다. 그래서 “개혁” 후보들은 사회운동을 이용하여 개인의 의제와 경력을 상승시킨다. 1996년 10월 18일, DPP와 KMT 사이에 비밀합의가 이뤄져, DPP는 핵발전소에 대한 지지를 정치적 양보와 교환했다. 4호 핵발전소를 건설한 웨스팅하우스사의 압력 아래, 타이완의 미국연구소 역시 발전소 건설 재개를 옹호하는 비밀모임을 촉구했다.<sup>109)</sup> 2001년 2월 DPP는 논쟁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sup>110)</sup> 2002년 2월 20,000명 이상의 반핵시위대가 집회를 열어 핵발전 정책의 변경에 대해 DPP를 비판했다. 많은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DPP는 권력을 얻기 위해 핵발전을 둘러싼 생태시위를 이용했다.<sup>111)</sup>

DPP의 배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해 실망했다. 도원은 1993년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감소했다(남한의 경우와 비슷하게)고 보고했다.<sup>112)</sup> 1998년에서 2003년까지, “민주주의가 어떤 다른 종류의 정부에 비해 항상 더 낫다”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타이완서 55.5퍼센트에서 42.2퍼센트로 내려갔다. 한국에서도 절반 이하인 약 49퍼센트가 같은 선호도를 표현했다.<sup>113)</sup> 비록 “민주적”이라도 한국과 대만은 모두 공무에 대해 공무원이 “중립적”이고 “비정파적”일 것을 요구하는 법률을 있으며, 이는 그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

107) Chung Hsiu Mei, et al., “Towards Flexibility and Dynamism: Taiwan’s Social Movements,” in *The Disenfranchised: Victims of Development in Asia*, ed. Urvashi Butalia (Hong Kong: Arena Press, 2004), 209.

108) Lee Teng-hui, “Chinese Culture and Political Renewal,” in *Consolidating the Third Wave Democracies: Regional Challenges*, eds. Larry Diamond, Marc Plattner, Yun-han Chu, and Hung-mao Tien (Baltimore: Johns Hopkins, 1997), 196.

109) Interview with Congresswomen Tien Chiu-Chin, Taipei, February 4, 2009.

110) Ho, “Politics,” 684-5.

111)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은 개혁의 포섭적 이용으로 사회운동의 체제유지의 한 형태가 된다고 본다. 호밍쇼가 DPP의 반핵운동 포기사례를 분석하면서 말한 것처럼, “외부 엘리트의 후원은 토착적 자원의 심각한 박탈을 완화하여 초기 동원의 문턱을 낮췄다.” (“Politics,” 688).

112) Doh C. Shin, *Mass Politics and Culture in Democratizing Kore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260.

113) Chu Yun-han, “Taiwan’s Struggling Democracy,” in Cho et. al., *States of Democracy*, 49.

물론, 진보적 정부들에 대한 주된 불만은 부패였다. 타이완의 첸수이벤과 한국의 노무현은 모두 공개적으로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비슷한 점은 많다: 마르코스와 수하르토가 횡령한 수십억 달러나 전두환이 챙긴 것으로 알려진 수천만 달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며, 각자 부인들이 중심으로 관여했고, 사법적 행동이 취해지기 오래 전에 둘 다 유죄였다. 첸수이벤이 감옥에 갇힌 동안, 노무현은 이명박 정부가 조정한 부당한 기소에 항의하여 자살했다. 야당의 상징으로서 두 전직 대통령의 부패는 야당운동 전체를 불신하게 하는 데 이용됐다. 첸수이벤과 노무현은 모두 보수적 권력기구로부터 반응의 표적이 되어 그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정치적 방향이 시작됐는데, 타이완의 경우 독립이었고, 한국의 경우 통일이었다. 놀랍게도 첸수이벤의 과거 지지자들, 특히 신민당은 2006년 첸수이벤의 이른바 “부패”에 반대하는 풀뿌리 캠페인을 이끌었다. 2006년 9월 9일, 신민당은 일련의 자칭 “피플 파워” 집회와 농성을 이끌었고, 이 투쟁은 9월 15일 300,000명 이상의 군중이 모였을 때 절정에 이르렀다.<sup>114)</sup>

보수파 반격의 불길한 징조로, KMT는 2008년 선거에서 의석의 71퍼센트(2004년 35퍼센트에서)를 획득한 반면, DPP의 몫은 거의 40퍼센트에서 24퍼센트로 하락했다. 곧 이어 새로 선출된 마잉저우 총통의 친통일 정책은 자치를 향한 DPP의 진보적 조치들을 무효화하기 시작했다. 첸수이벤에 대한 KMT 기소의 부당성은 많은 관찰자들에게 분명하다. 마잉저우 총통을 포함해 KMT 지도자들이 부패혐의로 유죄임이 밝혀졌어도, 아무도 지금까지 감옥에서 하루도 보내지 않았다. 과거 타이완인 재산의 몰수로 KMT는 7억 5700만 달러에 이르는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른 모든 정당을 다 합해도 순자산은 KMT의 1퍼센트 이하이다.<sup>115)</sup>

타이완과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제조업인 군수산업의 중요한 소비국이 됐다. 세 번째 경제적 국면(미국원조 수입대체와 수출주도 발전 이후)의 양국관계는 지속적이고 중요한 관계이다. 연간 미국상품의 180억 내지 240억 달러의 시장으로서, 타이완은 엄청난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세계 8위의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sup>116)</sup> 타이완과의 현금 지불 거래는 1993년에서 2002년까지 미국 무기체계의 구매자로서 타이완을 사우디 아라비아 다음 2위로 만들었다. 2001년 미국의 조심스런 암시와 중국의 태연한 협박으로 타이완인들의 공포가 조성된 이후 조지 부시는 대부분이 하이테크 무기인 200억 달러 거래를 성사시켰다. 2009년 워싱턴 DC에서 타이완-중국관계에 관한 랜드재단의 새로운 연구 발표가 이뤄진 회의에서 미국은 유사한 경고를 보냈다. 타이페이에서 광범한 주목을 받은 것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DPP가 승리하면 중국이 군사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한 토론자의 주장이었다.<sup>117)</sup>

만약 군사주의가 타이완이 자원을 계속 탄 대로 돌린다면, 그 비극적 결과는 시민사회와 합의가 세계의 가장 억압적인 국가들 중의 하나인 타이완의 변혁에 아주 중요했기에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더욱 훼손할 것이다. 1990년 점거 동안 타이완 학생들의 놀라운 자기규율과 정부의 공손함은 티아난먼 광장과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중국에서 시위대와 당국은 모두 훨씬 덜 통제되고 덜 침착한 태도로 행동했다. 풀뿌리 시위들이 미안마, 티벳, 중국에서 비극을 견디면서 고통받았지만, 타이완의 성공적인 민주화이행은 더 커다란 자유의 가능한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제시한다. 1990년 타이완의 모범은 네팔과 방글라데시에서 봉기의 승리를 위한 길을 닦는 데 기여했다.

114) Keith Bradsher, “Protesters Fuel a Long-Shot Bid to Oust Taiwan’s Leader,” *New York Times*, September 28, 2006, A3.

115) Jerome Keating, *Taiwan: The Search for Identity* (Taipei: SMC Publishing, 2008), 15; also see Jerome Keating, “Chen’s Gone, the System Lives on,” <http://en.taiwant.org.tw/index.php/editorials-of-interest/15-taipei-times/256-chens-gone-the-system-lives-on>.

116) John Tkacik, “Reflected Reflections: Elections in the U.S., Taiwan, and Japan, and How They Influence U.S. Policy-Making,” in *The U.S.-Japan-Taiwan Trilateral Strategic Dialogue* (Washington D.C.: Heritage Foundation, 2003).

117) William Lowther, “Study warns PRC patience may be tested,” *Taipei Times*, September 25, 2009.

제7장: 네팔

연표

1947년 8월 15일	인디아 독립선포
1951년 2월 18일	네팔에서 라나 가문의 104년 통치 공식 종료: “새로운 민주주의”
1960년 12월 15일	마헨드라 국왕 적접왕정 강요
1979년 4월	학생시위, 국왕 판차야트 체제(의회)에 대한 국민투표 발표
1980년 5월 2일	국민투표 판차야트 체제 승인
1989년 3월 23일	인디아 2곳을 제외한 국경 crossings 폐쇄
1989년 8월	급진적 마오주의자들(CPN-NL)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사업에 동의
1990년 1월 15일	통합좌파전선 구성
1990년 1월 18일	네팔의회당 총회 개최
1990년 2월 18일	민중봉기(Jana Andolan) 시작, 50일간 시위
1990년 3월 30일	파탄 해방구
1990년 4월 6일	50만명 카투만두 행진
1990년 4월 6일	카투만두의 왕궁 근처에서 시위대 수십명 살해됨, 통행금지 선포
1990년 4월 8일	정당활동 금지 해제
1990년 4월 9일	네팔의회당과 ULF 이후의 시위 취소, 국왕과 협상
1990년 4월 16일	판차야트 체제 해체
1990년 4월 19일	과도정부 취임
1990년 4월 23일	경찰, 만달레스(청부 폭력배) 린치
1990년 5월 7일	과도정부 구성
1990년 6월 30일	불교도들이 세속국가를 위한 시위를 이끔
1990년 11월 9일	새헌법 네팔을 “힌두 군주제 국가”로 선포
1991년 5월 12일	선거 개최
1991년 5월 29일	의회당 정부 취임
1992년 4월 5일	경찰 카투만두에서 시위대에 발포, 7명 사망
1996년 2월 13일	마오주의 무장투쟁 시작
2001년 6월 1일	궁정 대학살, 비렌드라 국왕과 일가 살해됨
2002년 5월 22일	가넨드라 의회해산
2002년 10월 4일	가넨드라 국왕 총리 해임하고 권력 장악
2005년 2월 1일	국왕 계엄령 선포
2005년 5월	7대정당동맹(SAP) 결성
2005년 11월 22일	마오주의자들과 야당, 민주주의 회복 12개조 합의에 도달
2006년 4월 6일	봉기 시작, Loktantra Andolan 또는 Jana Andolan 2, 19일간의 시위
2006년 4월 20일	칼란키에서 3명 사망, 1백명 이상 부상
2006년 4월 21일	국왕 야당 지도자에게 총리 취임 요청, SPA 거부
2006년 4월 22-23일	수백만명 시위 참가
2006년 4월 24일	12명 사망, 수백명 부상, 국왕 의회 복권
2006년 5월 1일	네팔전문직총연맹, “전면적 민주주의” 요구
2006년 5월 18일	과도정부에 의해 군주제 폐지됨: “민주주의의 날” 선포
2006년 11월 21일	마오주의자들과 SPA 포괄적 평화협정에 서명
2008년 4월 10일	마오주의자들과 새로운 601석 제헌의회에서 217석 획득하여 승리
2008-2011년	지속적인 토론과 논쟁, 새 헌법 제정하지 못함



우리는 왕국을  
버려진 무덤으로 바꿀 수 있지  
잔인한 체제를 무너뜨려  
연기 속에서 모든 암흑의 법을 끝낼 수 있지.  
- 라메시, <혁명의 화산>

현대사의 전개는 민중들이 정부에 맞서 일어나거나 정부가 자신을 거칠게 다루도록 하거나, 더 많은 자유를 위해 돌파하거나 또는 다가올 수십 년간 혐오스런 형태의 지배를 견딜 것인가를 선택할 상황을 거의 창출하지 않는다. 민중들이 들고 일어날 때, 그들의 용감한 행동은 노래, 춤, 시, 산문, 연극으로 신화화됐다. 그러나 거만한 권력 앞에서 묵인한다면, 어디에서도 승리한 폭군의 내부 지성소를 제외하면 그들을 축하하지 않는다.

역사가 동일한 민중에게 그런 진심어린 선택을 할 기회를 두 번 주는 경우는 드물다. 민중 봉기들이 야만적 권력에 대해 연속적 승리를 기록한 적은 거의 없다. 버마와 티벳에서, 국가의 강철군화는 지속적으로 민중들의 자유에 대한 희망을 분쇄했고, 수천 명의 목숨을 파괴했다. 하지만 네팔에서 1990년 55일 봉기는 다당제 의회를 쟁취했고, 국왕을 입헌군주로 격하시켰다. 왕가의 교묘한 술책과 정치적 파워게임이 개입하여 국왕의 권력을 회복시켰지만, 군주제는 피를 부르면서 절대적 지배를 추구했다. 2006년 민중들은 다시 한번 거리로 몰려 나와 인권침해를 허용하기를 거부했다. 두 번째 영웅적 봉기는 다시 한번 경찰의 곤봉과 총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으로 거리로 밀고나와 새로운 저항형태를 창조한 수십만 민중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19일간의 연속투쟁에서 그들은 마침내 “비쉬누의 환생”인 국왕을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렸고, 세속적 민주공화국을 선포했다.

어떤 궁중혁명(라나 과두제의 1세기 이상의 통치를 반복한 1950년의 혁명처럼)과 대조적으로, 수십만 명의 보통 사람들이 1990년과 2006년 민중봉기(jana andolan)의 추동력이 됐다. 다른 어떤 힘보다, 민중의 단결과 용기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50개 이상의 상이한 민족과 92개의 알려진 언어의 독특한 융합체인 네팔은 카스트로 나뉘어져 있지만, 군주제에 맞선 투쟁을 통해 새로운 단결과 주체성을 구축했다. 한국처럼, 민중들의 믿을 수 없는 단결은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이다.

1990년 봉기는 네팔의 과거에 깊이 뿌리박은 역동적 시민사회로부터 흘러나왔고, 이는 역으로 자유로운 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새로운 풀뿌리 주도력을 키우는 데 기여했다. 봉기 이후에 노동 전투성이 부각됐고, 여성들은 가부장제에 맞서 투쟁했고, 소수민족들은 자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했으며, 자율적 언론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이와 같이 봉기와 시민사회의 상호 강화하는 관계는 이미 남한, 타이완, 필리핀의 시민봉기에서 확인된 패턴이다.

## 네팔의 시민사회

수세기로 전에 기원을 두는 다양하고 복잡한 시민적 관계망은 여전히 네팔인들의 일상생활의 기초이다. 고대 베다사회에서, 다르마(dharma)는 민중의 안녕을 보살피는 정의로운 통치와 수립된 법을 준수하는 시민을 동시에 보살폈다. 왕이 인자하게 통치하는 한, 민중의 그의 권위를 환영했고, 성직자 리시스(rishis)는 통치자들이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도왔다. 네팔의 서쪽 끝에는(수천년간 카투만두 계곡의 고르카 고지대에 있는 왕국지대 밖) 바드가르(badghar: 큰 집) 체제가 마을 수호자들의 선출을 용이하게 했다. 관습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은 압력을 받을 때까지 정중하게 거절했고, 심지어 가족분쟁 내에서 직접 민주주의적 규범이 존재했다. 위기 시에 모든 주민들이 모여 공동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농촌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자발적 노동교환의 파르마(parma) 체제를 통해 사회적 관계가 강화됐고, 협동적 은행체제(dhukuti)는 개인들이 작은 정기적 예금을 하고 때로 약간의 이자와 함께 많은 금액 인출을 허락하는 집단이었다.<sup>1)</sup>

600년 훨씬 전에, 중세길드(guilds)는 “그 범위에서 [유럽의] 길드보다 더 포괄적이었고, 직업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사회적, 종교적 생활도 규제했고... 치트라카라(화가), 탁사카라(목수), 실포카라(공예가) 등 64개 직업 카스트의 시스템으로, 각자는 도시 단위와 각자 길드를 갖추어, 수많은 직업 카스트가 수행하는 전문화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상당히 선진적인 수준의 경제사회적 활동임을 보여준다.”<sup>2)</sup> 어떤 길드 내에서는 참여적 의사결정형태가 존재했고, 작은 댐 건설과 다른 공동의 이익이 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가족들이 협력했다.

아직도 손상되지 않은 이런 문화적 형태(협오스런 카스트 정체성을 포함하여)는 현대 네팔에서 매우 실질적인 힘으로 남아있다. 수많은 상이한 종교적 관례와 문화적으로 특수한 믿음들이 일상생활의 패턴을 이룬다. 아직도 국왕이 비시누의 환생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젊은 “살아있는 여신들” 무리를 숭배하고, 소수는 불교나 기독교 의식을 지킨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과거의 사건들이 아주 생생해서 한 분석가는 2세기 이전 고르카의 카투만두 계곡 접령이 군주제에 대항한 1990년 봉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sup>3)</sup>

인디아와 중국 사이에 끼여 있는 작은 네팔은 조심스럽게 밟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자주 반복되는 것처럼 “돌틈에 낀 감자”처럼 몽개질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나라와 국경을 맞댄 조그만 네팔(3천만 명 이하의 인구)은 이웃들에게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지리적 고립 때문에 인디아로 이어지는 도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심지어, 인디아와의 관계가 좋은 시절에도, 네팔의 경제는 결코 인민에게 번영을 가져오지 못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의 하나로 남아있다. 모든 어린이 가운데 절반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다. 900만명(인구의 약 35퍼센트)이 하루 1달러 이하로 생활한다. 상위 1/3이 부와 소득의 75퍼센트를 통제하고, 네팔의 지니계수는 0.47로 증가했다(남한은 0.31이었다). 고르카 정복에 이은 두 세기 동안, 상위 카스트 사람들이 통치한 왕정이 농촌에서 막대한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불결함과 가난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산발적으로, 성의없이 했을 뿐이다. 1950년 군주제 권력의 회복 이후에, 모든 강력한 국왕들은 “자유, 평등, 우애”에 립서비스를 하면서, 국가의 세습유산을 낭비했다.

국왕의 충성스런 추종은 아주 강력하고 군대의 힘도 아주 막강해서 1951년과 1990년의 네팔 혁명은 둘 다 인디아 정부와 연결되어 있었다. 보다 최근의 농촌반란도 인디아의 낙살파, 중국의 혁명적 과거에 크게 빚지고 있다. 1949년 중국내전에서 공산당의 승리 직후, 티벳이 침략당했고, 이는 그 당시 세계의 나머지가 거의 알아차리지도 못했지만, 히말라야 지역에서 중대한 사건이었다. 중국의 티벳정복은 네팔에 대한 인디아의 가혹한 대우를 촉발했다. 1950년 11월 10일, 40-50명 정도의 소규모 네팔의회당 무장대가 인디아로부터 국경을 넘도록 허가를 받아 비르간지를 공격했고, 전국으로 전투를 일으켜 라나 과두제에 반대한 대규모 시위가 카투만두에서 벌어졌다. 군대는 주로 정권에 충성했지만, 반란군에 대한 인디아의 지지로 1951년 1월 라나 가문은 네팔이 제헌의회 선거를 실시한다(트리부반이 국왕으로 있으면서)는 “제안”을 수용해야만 했다. 1951년 2월 28일, 반세기 후에 네팔 민주주의의 날로 기념하게 된 날자에, 연립정부가 수립됐다.

1951년 궁중혁명과 네팔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감독한 인디아는 트리부반의 아들 마헨드라 국왕이 왕립 판차야트 제도를 도입하고, 당시 같은 이름의 인디아 집권당의 군소정당인 의회당(네팔 의회: Nepal Congress, NC)을 포함해 모든 정당을 금지시켰다.<sup>4)</sup> 같은 해 인디아와

1) Interview with Professor Kapil Shrestha, Tribhuvan University, Kathmandu, April 26, 2009.  
 2) Rishikesh Shaha, *Ancient and Medieval Nepal* (New Delhi: Manohar Publishers, 2001), 105.  
 3) Kanak Mani Dixit, foreword to Kiyoko Ogura, *Kathmandu Spring: The People's Movement of 1990* (Lalitpur: Himal Books, 2001), x.  
 4) See Jagadish Sharma, *Nepal: Struggle for Existence* (Kathmandu: 1986), 37-49. 표면상 궁정이 감독하는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인 판차야트(*panchayat*) 체제는 비록 대부분의 판차들을 민중이 직접 선출하는 것은 아님에도, “계급

중국 사이에 국경전쟁이 일어나자, 인디아의 네팔 군주정과의 관계가 갑자기 개선됐다. 1972년 마헨드라가 아버지를 대신해 국왕이 됐고, NC는 다시한번 무장반란에 잠깐 나섰지만, 인디아의 지원이 없어 재빨리 포기했다. 1989년까지 인디아-네팔 관계는 안정적이었고, 네팔 왕가를 타도할 기회의 새로운 창이 열렸다.

봉기가 정치적 역사의 경로를 바꾼 수많은 나라들처럼,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운동을 촉발하고 조용한 시대에 운동에 지속성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팔 국민의 절반 정도가 문맹이어서, 지식인들은 엄청나게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1979년 카투만두의 작가들이 거리 모퉁이에 모여서, 시를 낭송하고, 판차야트 체제의 종식을 요구했다. 나중에 거리의 시 혁명으로 알려진 이 투쟁은 그 정점에 200명의 시인들이 참여했다.<sup>5)</sup> 많은 작가들이 농촌의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 여행했고, 그래서 운동은 50여개 다른 도시로 퍼졌다.

작가들이 선동한 다음, 학생들이 동원하기 시작했고, 대학에서 개혁을 압박했다. 카투만두에서 경찰에게 무자비하게 탄압당하자, 학생운동은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퍼졌다. 독립적인 학생회에 대한 요구는 운동의 많은 상이한 분파들을 단결시켰다. 1979년 3월 23일, 도시민들이 학생시위에 합류했고, 군중들은 왕궁에 결집하여, 국왕이 보는 가운데 신문사를 포함하여 선택적으로 겨냥한 정부건물들을 불태웠다.

권력에 대한 위협을 직접 감지한 비렌드라 국왕은 다음 날 아침 라디오 네팔에서 국민들이 판차야트 체제와 다당제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여 전국민을 놀라게 했다. 그는 정당에 대한 금지령을 해제했고, 검열을 중지했고, 죄수들(그들 주의 일부는 20년간이나 감옥에 있었다)을 석방했고, 정치문제에 관한 공개논쟁을 허용했다. 운동의 분출과 국왕의 너그러운 대응으로 1년간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지만, 국민투표 결과가 집계되자, 약간의 다수(54.7퍼센트)가 왕립 판차야트 체제 유지를 찬성하여 투표한 것으로 합산됐다.

승리로 관대한 것처럼 보였던 브리엔다 국왕은 1980년 12월 15일 비정당 의회를 선출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민주개혁의 의양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다시 금지됐고, 선출된 관리들도 권한이 없었다. 국왕의 임명자들이 새 의회와 가장 중요하게 국가스포츠 평의회(경찰, 군대와 준군사적 만달레스mandales를 훈련시키는)를 운영했다. 만약 국왕의 절대적 정치권력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궁정 측근들이 첫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를 보복적으로 해임한 다음 아무도 남지 않았다. 부패 스캔들과 독립적 성향의 정치인들에 대한 위협이 정치적 임명자들을 계속 전염시키자, 최소한 민주주의의 외관에 대한 희망도 재빨리 사라졌다. 1980년대 중반, NC는 정부에 대한 비폭력 캠페인(사티야그라하satyagraha)를 시작했고, 공산주의자들도 독자적인 “감옥 채우기” 운동을 동원했다. 1985년 1월 20일 왕궁 주변 다섯 곳에서 일련의 의심스러운 폭탄이 폭발한 다음, 모든 시위가 취소됐다. 거리의 소문으로 폭탄이 가넨드라 왕자(2002년 권력을 장악한)의 작품이란 비난이 퍼져도 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왕실은 한 야당 정치인을 비난했고, 재빨리 그에게 사형이 선고됐고, 야당은 서둘러 후퇴했다.

---

없는 사회”의 창출을 지향했다 이론적으로 판차야트 체제 직접민주주의에 기반했다. 풀뿌리 촌락평의회는 직접 선출되고, 이들이 지구 평의회를 선출하고, 차례로 지구 평의회들이 지역평의회를 선출하고, 이 지역평의회가 140인 라스트리아 판차야트(*Rastriya Panchayat*), 즉 의회를 선출하는데, 이 의회에는 국왕이 임명한 의원도 포함됐다. 그러나 실제로 판차야트 체제 자체는 국왕의 말대로 “아래로부터 선출되고 민중의 적극적 협력과 민중의 합의에 기반한 행정단위로서, 민주적이고 진보적이며 착취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See King Birendra, *Proclamations, Speeches and Messages 1972-1981*(Kathmandu: Royal Government of Nepal, 1982), 7.

5) Michael Hutt, ed., *Nepal in the Nineties*(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작가운동의 뿌리는 1968년 “거부당한 세대”의 출판과 1974년 “구두딱이” 시위에 뿌리를 두는데, 이들은 뉴로드의 보리수 나무 아래 모여 검열에 항의했다.

1986년 공산당을 포함한 여러 명의 진보인사들이 비정파 투표에서 선출됐지만, 판차 당국에 대한 그들의 반대는 그들을 감옥과 의회 사이의 회전문에 서게 했다. 그럼에도, 정당하게 통치할 수 없는 국왕의 무능력을 극적으로 부각함으로써, 선거활동은 운동을 건설하는 데 기여했다. NC가 국왕의 정당 금지 명령을 어기고 공개적으로 조직하자, 국왕은 수백명의 지도자들을 검거했다. 동시에 연료와 식량 부족은 왕실에 대한 국민들의 선의를 서서히 약화시켰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자, 심지어 국왕의 신성성, 즉 비시누의 현재적 환생으로서 국왕의 지위에 대한 힌두교 신자들의 생각도 더욱 쇠퇴했다.

왕실의 정치적 지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전투성은 강력한 힘을 내는 데 도움이 됐다. 1980년대 초 새로운 언론의 자유로 नेपाल 최초의 자율적 신문들이 생겼다. 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은 아주 커서, नेपाल의 신문 숫자는 1960년의 27개와 1980년의 84개 사이 어딘가에서 1980년부터 1990년까지 5배 늘었다.<sup>6)</sup> 도로와 전화 서비스는 크게 향상됐고, 전국의 오지들에서(그리고 활동가들 사이에서) 통신을 용이하게 했다. 문자해독율은 1989년 40퍼센트에 이르렀다(1952년 5퍼센트),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고등교육은 엄청나게 팽창했다. 1984년에서 10년 이내에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학생들의 숫자는 두 배로 늘었고, 야당에서 변화를 위한 강력한 유권자 기반을 제공했다.

표 21: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입학

	1950	1961	1970	1984/5	1989/90	1991/2
중등학교	1,680	21,115	102,704	216,473	364,525	421,709
고등교육기관	250	5143	17,200	55,560	95,240	110,329

Source: Martin Hoftun, William Raeper, and John Whelpton, *People, Politics and Ideology: Democracy and Social Change in Nepal* (Kathmandu: Mandala Book Point, 1999), 95.

교육기회의 팽창과 함께, 카스트 체제에 반대하는 문화혁명의 씨앗이 뿌려졌다. 여전히 नेपाल 사회에서 주요한 힘인 카스트는 일상생활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서 수세기 동안 했던 완고한 최고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 또한 새로운 전문직 중산층의 성장과 여성들이 가족 외부에서 일할 기회의 증가도 중요했다. 교육개혁은 급속했고,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동학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줬지만, 원하는 결과에는 미치지 못했다. 오늘날에도 नेपाल은 여전히 문맹률을 낮추고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너무 많은 어린이들이 강제노동과 굴종의 삶을 산다. 유니세프는 नेपाल 어린이의 절반 이상이 영양실조라고 추산한다.

1980년대 초 नेपाल이 현대화하면서, 영화관이 문을 열고 텔레비전은 소개되자마자 폭넓은 인기를 누렸다. 1980년대 말까지 민주주의를 위한 아시아와 유럽의 붕기에 대한 소식이 방송되자, 사람들은 찾을 수 있는 TV 앞에 몰려들었다.<sup>7)</sup> 붕기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서, 세계의 먼 곳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자유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1986년 필리핀의 피플파워 혁명이 마르코스를 타도하자, 사람들은 기뻐했고, 많은 사람들은 국왕도 권력에서 쫓겨나야 하고, 훨씬 더 중요하게 쫓겨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1989년 동유럽 혁명 동안에, 특히 루마니아(최근에 차우세스쿠 대통령이 नेपाल을 방문했다)의 전투 동안에, 사람들은 붕기를 자세하게 추적했고, 붕기를 모방할 수 있기를 바랐다.<sup>8)</sup> 1990년 नेपाल 민주화운동의 “최고지도자”로 간주되는 가네시 만싱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발표로 이와 같은 일이 심지어 नेपाल에서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 자나 안돌란을 준비하다

6) G. Pokhrel, “Media Perspective,” in *The Role of Civil Society and Democratization in Nepal*, ed. Ananda P. Srestha (Kathmandu: Nepal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1998), 84.

7) William Raeper and Martin Hoftun, *Spring Awakening: An Account Of The 1990 Revolution In Nepal* (New Delhi: Viking, 1992), 24, 76, 86, 97, 108, 214.

8) Ibid., 97.

1990년이 시작되자 국왕이나 야당도 다가올 해에 무엇을 예상할지 몰랐다. 새해 축하가 끝나자 곧 비렌드라 국왕과 왕실가문은 연례 농촌방문을 위해 카투만두를 떠났다. 1주일 후인 1월 10일 7개 공산당들이 통합좌파전선(United Left Front: ULF)을 결성하고 의회당과 협력하기로 동의했다. 다함께 그들은 민주주의 회복운동(Movement for the Restoration of Democracy: MRD)을 결성했다. 더 급진적인 공산당들은 통합민족민주운동(United National People's Movement [UNPM])을 결성했다. 다당제 민주주의와 입헌군주정이란 단기적 목표에 대해 MRD와 합의했지만, 그들은 독자적 행동을 계획하기 위해 독립적 상태로 남았다.

지구를 휩쓴 반란의 물결에 고무된 네팔의 주요 야당들은 1990년 2월 18일 시작하기로 예정된 대중시위를 공동 후원하기로 합의했다. 버마처럼, 시위를 시작할 날짜를 주의깊게 선택했다. 2월 18일은 공식적으로 “민주주의의 날”로 1951년 티리부반 왕의 다당제 시행 기념일이었다. 비밀리에 만난 그들은 목표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 1인 1표 다당제 입헌군주제가 목표였고, 이는 판차야트 체제의 해체와 국왕의 절대권력의 국회 이전이 포함된 변화였다.<sup>9)</sup> 비록 많은 투사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시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운동 지도자들을 시위를 연기했다.

많은 사람들이 1월 18일 약 4천명이 NC 전국협의회를 위해 타멜지구의 가네시 만싱의 호화저택에서 모였을 때 운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야당은 국왕에게 요구에 응할 시간을 주길 원했다. 의회당은 또한 활동가들이 투쟁을 준비할 시간을 벌고 싶었다. 지도자들은 시위를 한달간 연기했고, 1월 30일 ULF와 비밀 조정위원회를 결성했으며, 승리할 수 있는 민중반란의 정교한 계획을 짰다. 2월 18일 행동개시일 다음날, 총파업이 예정돼 있었고, ULF는 2월 25일 “암흑의 날”을 조직하려고 했으며, 또 다른 총파업이 3월 2일에 예정돼 있었다. 심지어 운동이 거리로 나서기 전에, NC 총재 크리시나 프라사드 바타라이는 “이번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국왕에 입헌제를 강요할 것이다. 모든 일이 순조롭다면, 단지 몇주안에, 그러면 우리가 권력을 잡을 것이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나와 동료들은 감옥에 갇히겠지만, 그것은 위협이 안된다.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몇 달만 지속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견했다.<sup>10)</sup>

인디아 의회당의 의원들이 1월 18~20일 NC 전당대회에 파견되어 네팔의 민주화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도왔다. 인디아 자나타당(Janata Party)의 지도자이자 나중에 인디아 총리가 된 찬드라 셰카르는 놀란 네팔인들에게 모든 인디아의 정치지도자들이 네팔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그들은 “차우세스쿠, 마르코스, 이란의 샤 같은 폭군의 타도로부터 용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sup>11)</sup> 수많은 세력들이 봉기의 성공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집결하는 동안, 하나의 핵심적 요소는 양국간 무역 및 교통협약이 만료된 이후 인디아가 강제한 통상금지령이었다. 1989년말, 14개 국경 검문소가 폐쇄됐고, 1990년 2월 15일 전인디아 라디오는 네팔로 가는 두 개의 남은 길은 2월 18일 폐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날은 민주화운동의 투쟁이 시작되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인디아의 교통봉쇄는 육지로 둘러싸인 네팔을 건디기 힘든 위치로 몰았지만, 인디아는 “네팔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이해”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새로운 협약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sup>12)</sup>

9) 그 당시 네팔에 주재했던 폴 라우틀리지는 운동 지도부가 민중봉기에 대해 커다란 통제력을 발휘했다고 봤다. See “Backstreets, Barricades and Blackouts: Urban Terrains of Resistance in Nepal,” *Journal of Environment and Planning* 12, no. 5 (1994), 559-578.

10) Raeper and Hoftun, *Spring Awakening*, 103.

11) Saubhagya Shah, “A Himalayan Red Herring?” in *Himalayan People's War: Nepal's Maoist Rebellion*, ed. Michael Hutt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4), 203; also see Martin Hoftun, William Raeper and John Whelpton, *People, Politics and Ideology: Democracy and Social Change in Nepal* (Kathmandu: Mandala Book Point, 1999), 117.

12) Raeper and Hoftun, *Spring Awakening*, 123. 정당을 합법화하는 국왕의 4월선언 이후에도, 인디아는 새 조약 협상을 거부했다. 시효가 만료된 조약을 부활하는 한편, 새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네팔의 선거 이후까지 기다리겠다고 주장했다.

네팔인들은 즉각 필수품 공급 감소로 고통받기 시작했고, 이 물품부족은 네팔경제의 이미 불안정한 상태를 고려하면 버티기 힘든 것이었다. 1990년 세계은행의 신중한 추정에 의하면 네팔의 2,900만 인구 중에서 최소한 7백만명이 절대빈곤 상태에 살았다.<sup>13)</sup> 1970년과 1990년 사이에 곡물생산은 거의 50퍼센트나 하락했고, 가축의 숫자로 절반으로 감소했고, 들판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도 집과 옷을 제공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가족을 먹이기에 충분한 것을 생산할 수 없었다.<sup>14)</sup> 국민의 90퍼센트가 빈곤한 농촌지역에 사는 반면, 궁정에 만연한 부패는 비록 폭넓게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계속 악화됐다. 1970년대 물가가 두배로 오르고 1980년과 1987년 사이에 다시 두배로 오르자, IMF는 네팔에 구조조정 패키지를 강제했고, 이 악명높은 “해법”은 빈민들의 곤경을 악화하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명했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1979년 투쟁을 통해 획득한 네팔의 새로운 자유와 교육기회는 점증하는 숫자의 계층상승하는 도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했다.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전지구적 소비자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가속화된 기대의 상승은 1990년 운동의 핵심적 추동력이었다. 1990년 초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73퍼센트의 중산층 응답자들이 민주화운동을 지지했고, 25퍼센트는 참여하겠다고 말했다.<sup>15)</sup>

민주주의를 위한 7주간 투쟁은 2월 18일 분출하여 4월 9일 승리 때까지 지속됐고, 야만적 공격에 대한 용감한 저항의 50일이었다. 수십명이 죽었고, 수백명이 부상당했고, 수천명이 체포됐다. 그럼에도 수만명의 사람들이 계속 거리로 나서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다른 누구보다 학생들이 최초의 거리투쟁에서 선두에 섰고, 그들은 경찰폭력으로 가장 많은 고통을 겪었다. 감옥에 갇히고 구타당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죽음은 당해도 학생들은 굴복하길 거부했다. 국왕은 모든 대학을 폐쇄했고, 심지어 수도의 초등, 중등학교들까지 폐쇄했지만, 시위는 퍼져갔다. 비록 카투만두 계곡의 뉴와리(Newaris)와 전문직(교사, 의사, 변호사) 사이에서 가장 강렬했지만, 자나 안돌란(jana andolna) 민주봉기에는 네팔의 모든 민족집단과 카스트, 노동자, 학생, 농민, 청년실업자들이 참여하게 됐다.

1990년 봉기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수십만 민중들의 행동하는 의식을 해명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그 당시 네팔 사회의 가장 규정적 특징이었다. 구체적으로 민중투쟁의 형태와 내용을 봄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열망, 그들의 자주성과 통일성, 그들이 영감을 끌어온 국제적 네트워크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봉기의 구체적 성격을 세밀하게 검토하면 보통사람들의 지성과 혁신이 드러난다.

## 정당들과 민중운동

정당들이 처음에 시위를 호소했겠지만, 민중의 행동은 정치인들의 가장 격렬한 꿈을 훨씬 뛰어넘었다. 카투만두 계곡에서 시작된 봉기는 전국을 끌어들이었고,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결국 군주제가 동의하도록 강제했던 구심력을 창출했다.

학생들이 MRD가 정한 날짜 이전에 동원하자, 국왕은 그들의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2월 12일 국왕부부가 근처에 있었던 포카라에서, 5백명 이상의 젊은 학생들이 체포됐는데, 이들은 넬슨 만델라의 석방을 축하하는 평화적 행진을 하던 중이었다. 많은 여학생들이 옷이 찢겼고, 그들중 한명인 락스미 카르미는 끔찍한 대우를 받았다. 포카라의 비극에 대한 소식이 퍼지자, 대중의 분노가 증가했고, 봉기의 추동력도 증가했다.<sup>16)</sup>

13) World Bank, *Nepal: Poverty and Incomes* (Washington DC, 1991), xii.

14) Alan Macfarlane, “Fatalism and Development in Nepal,” in *Himalayan People’s War: Nepal’s Maoist Rebellion*, ed. Michael Hutt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4), 108.

15) Tribhuvan University survey, January-February 1990 quoted in Hoftun et. al., *People, Politics and Ideology*, 118.

16) Rishikesh Shaha, *Politics in Nepal: 1980-1990: Referendum, Stalemate and Triumph of People Power* (Kathmandu: Manohar, 1990), 188; *Dawn of Democracy: People’s Power in Nepal* (Kathmandu: Forum for the Protection of Human

모든 사람이 다가오는 봉기의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거의 모든 유명한 활동가 지도자들을 체포했다. 2월 10일까지 약 500명이 체포됐고, 13일까지 1,300명이 검거됐고, 18일까지 5,000명이나 되는 정치 지도자들이 무기한 구속된 상태였다.<sup>17)</sup> 운 좋게 경찰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지하로 들어가야 했다. 2월 15일에 시작하여 당국은 사적 소유의 신문들을 몰수하고 언론인을 수십명씩 체포했다. 이런 조치들 가운데 아무것도, 심지어 2월 18일 대부분 야당지도자들의 구금조차 민중운동의 분출을 저지할 수 없었다. “투쟁하라 아니면 민주주의를 위해 죽어라!”가 수천명의 보통 시민들의 집회 구호가 됐다.

2월 18일 시위가 일제히 시작되자, 작가들은 새로운 시집 <봄을 찾아서>(The Search for Spring)를 발표했다. 특히 하나의 시, 비나이 라발의 시 “일단 주먹을 쥐면”은 민중들에게 투쟁할 것을 호소했다:

일단 주먹을 쥐면,  
베를린 장벽도 무너진다,  
일단 주먹을 쥐면,  
티아난먼 사태도 일어난다,  
일단 주먹을 쥐면,  
만델라도 석방된다...  
왜 우리가 주먹을 쥐지 않아  
역사의 죄인의 되고자 하는  
유일한 사람이란 말인가?  
우리 안의 인간은 죽었는가?<sup>18)</sup>

2월 18일, 수천명의 전투경찰이 모든 주요 간선도로에 대열을 이루어 사람들이 거리에 모이거나 인근의 행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깃발을 펴던 최초의 용감한 소수는 끌려갔지만, 사람들이 계속 도착해서 마침내 최소한 10,000명이 카투만두 중심가에서 행진대 오를 형성할 수 있었다. 동시에 정부의 계획된 민주주의날 기념행사도 저명한 판차panchas를 선두에 세우고 모이고 있었다. 경찰은 진압봉과 최루가스로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했지만, 군중은 매맞고 항복하기를 거부했다. 일부는 행진하기 시작한 반면, 다른 사람들, 특히 트리찬드라 대학의 학생들은 판차야트 체제의 창시자인 마헨드라 국왕의 조각상을 훼손했다. 군중은 경찰의 공격을 피해, 공식 민주주의의 날 기념대오와 충돌했다. 돌을 던지면서 그들은 공식 행진단의 선두에 있던 정부 장관들을 쫓아냈다. 그 이후 하루 종일 경찰과 시위대는 수도의 곳곳에서 충돌했다.

그날 저녁 라디오 네팔은 전국적 소요사태에 대해 보도했다. 40곳 이상에서 구청이 시위현장이 됐다.<sup>19)</sup> 한 보도는 치트완에서 5,000명이 체포당한 두 명의 운동 지도자를 구하려고 하자 경찰이 발포해 4명을 죽였다.<sup>20)</sup> 헤타우다에서 한 경찰관이 돌에 맞아 사망했고, 많은 차량이 불탔다. 봉기의 처음 3일간, 국왕의 경찰이 전국적으로 폭력적 수단을 사용해서, 바랏푸르, 바라타푸르, 자낙푸르에서 수십명이 살해당했고, 네팔 전국적으로 총 24명이 사망했다.<sup>21)</sup>

2월 19일 MRD의 네팔 최초의 총파업 호소는 도시 지역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도시

Rights, 1990), 24.

17) *Dawn of Democracy*, 118.

18) Hutt, *Nepal*, 90-91.

19) Ogura, *Kathmandu Spring*, 33.

20) Hoftun et. al., *People, Politics and Ideology*, 120.

21) Krishna Hachhethu, “Mass Movement 1990,” *Contributions to Nepalese Studies* 17, no. 2 (July 1990): 180; *Dawn of Democracy*, 26.

의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교통은 최소수준이었지만, 경찰은 또다시 치명적 폭력을 사용했다. 카투만두 인근 박타푸르의 네와리 마을에서 경찰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군중에게 덤덤탄을 사용하여 6명을 죽이고 25명을 부상시켰다.<sup>22)</sup> 키르티푸르에서, 사람들이 경찰서에 방화했다. 자두쿠하, 나라양하트와 헤타우다의 소식은 모두 시위대의 사망을 보도했다. 남부 테라이에서도 경찰폭력은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국가폭력에 대응해, 변호사협회가 2월 20일 총파업을 호소했다. 2월 23일 전국의 의사들이 2시간 경고파업에 들어갔다. 마하라즈간 의대 병원의 전직원이 경찰이 시체를 훔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원했다. 한 목격자는 “약 2,3백명의 경찰이 영안실에서 시체를 훔치려고 도착했다. 간호사들이 먼저 왔고, 시체를 옮기는 차량 앞에 땅바닥에 누웠다. 그리고 의사들과 심지어 환자들과 친척들이 경찰차량을 포위했다. 그래서 경찰은 협상을 해야만 했다.”<sup>23)</sup>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경찰이 시체를 훔치려고 한 것은 유가족에게서 죽은 사람을 애도할 기회를 거부함으로써 가질 가학적 쾌락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살해하게 했다는 군주의 당혹감과 수치 때문이었다. 아마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살해했다는 것보다 힌두 군주에게 더 저주스런 비난을 없을 것이다. 광주나 버마처럼, 네팔에서도 정부는 엘리트 폭력에 대한 민중의 복수를 미연에 방지하려 헛되게 희생자들의 시체를 숨기려고 했다.

첫 번째 주 말까지, 운동측 소식통은 수천명의 체포와 최소한 40명의 사망을 보고했다. 매일 시위와 경찰공격이 계속되면서, NC는 3월 4일 체포자 총수를 7,045명으로 집계했다. 3월 중순, 인권보호포럼은 2월 18일 이해 구속중인 5,000명 외에, 추가도 20,000명이 일시적으로 구금중이고 발표했다. 정부와는 달리, 민중들의 행동은 인간이 아니라 재산을 대상으로 했다. 정부는 2월 18일에서 3월 4일까지 이후의 사상자를 집계했을 때, “파괴분자들”에게 손상된 버스의 숫자를 43대로 계산했다.

봉기의 첫 달에, 검열은 엄격하게 적용됐다. 텔레비전은 시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그대신 왕실가문의 서부 네팔 방문장면으로 떼뒀다. 네팔의 가장 중요한 독립적 신문사 둘이 폐간 당했다. 비록 BBC, 인디아 라디오, 미국의 소리 방송을 아직 들을 수 있어도, 운동은 상황에 대한 소식을 알리고 미래의 투쟁을 발표하기 위해 자신의 지하네트워크, 즉석 미디어와 사람들의 입에 의존해야 했다. 2월 21일부터 NC는 지하신문 <민중운동소식>(Jana Andolan Samchar)을 인쇄해 몰래 1루피에 팔았지만, 그달말 이전에 경찰이 사무실을 습격하여 폐간시켰다. 2월 26일부터 봉기 마지막 날까지, CPN(ML)은 A4 용지에 일간 <투쟁소식>(Sangharsha Bulletin)을 인쇄했지만, 1일 인쇄량은 겨우 500부였다.<sup>24)</sup>

검은색은 민중의 분노와 희망의 상징이 됐다. 심지어 2월 25일 조직된 그룹들이 검은 완장을 두르고 항의의 검은 깃발을 들었던 “암흑의 날” 이전에도, 사람들은 자연발생적으로 검은색을 자신의 필요에 적응시켰다. 2월 22일 비랏타가르에서 입 위로 검은색 천을 두른 여성이 침묵시위를 벌였다. 밝은 대낮에도 그들은 고대 그리스에서 디오게네스가 그랬던 것처럼, 진리 추구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등불을 들었다. 2월 26일 수천명의 교사와 교수들이 파업에 들어갔는데, 많은 이들이 검은색 옷을 입었다. 3월 2일 두 번째 “네팔 반다”(Nepal Bandah)는 다시 투쟁을 활성화했다. 다음날, 예술가들이 입 주위에 검은색 스카프를 두르고 수도의 트리칸드라 대학 근처의 거리에 앉았다. 곧 오랫동안 네팔독립의 상징이었던 검은 스카프를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었다. 비랏나가르에서는 당나귀, 개와 고양이들도 검은색 스카프와 민주주의 구호로 장식한 채 거리로 뛰어다녔다.

경찰에 붙잡힌 운없는 사람들은 더러운 감방에 함께 가득 채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이나 물에 대해 접근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구타당했고, 똥칠을 당하고 전기봉 고문을 당했다.<sup>25)</sup> 암흑의 날 하루에만 1,000명 이상이 잡혀갔다. 비랏나가르에서 대규모 여성시위가

22) Raeper and Hoftun, *Spring Awakening*, 56.

23) *Ibid.*, 57.

24) Ogura, *Kathmandu Spring*, 74-5.



경찰의 공격을 받아 수십명의 여성들이 잡혀갔다. 3월초 시위가 추동력을 잃은 것처럼 보였을 때, 공무원들이 새로운 투쟁의 주도력을 발휘했다. 3월 8일 국제여성의 날, 검은 깃발을 들고 검은 완장을 찬 수백명의 여성들이 카투만두 파드마카나 캠퍼스에서 모였고, 여성 지도자들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sup>26)</sup> 3월 20일 네팔의 지도적 지식인들이 한 대학에서 네팔의 상황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공개적 집회를 요청했다. 키르티푸르에서 열린 모임 중간에, 경찰이 도착해서 700명을 체포했다. 같은 날 포카라의 산림캠프에서 320명의 학생들이 체포됐다 대량체포는 국왕의 자의적 행도에 대한 네팔의 분노를 더욱 불타게 했을 뿐이다.

[사진 24]

키르티푸르 사람들은 통행금지를 무시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Photo by Rajesh.

3월 23일은 “민중 단결의 날”이었고, 정당들은 2주일 이상 열광적으로 행사를 준비했다. NC와 ULF는 별도의 행진을 계획했고, 정당들은 카투만두에서만 2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럼에도 지정된 시간이 되자 집회장소에는 더 많은 경찰과 사람들이 있었다. 정당들의 노력은 침울한 실패였다.<sup>27)</sup> 다시 한번 보통사람들의 자연발생적 동원력이 중앙에서 조직된 정당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임이 입증됐다.

다양한 그룹들이 자율적으로 상상력 넘치는 투쟁형태를 취했고, 다양한 전술적 혁신을 이뤘고, 자연발생적으로 반란적 통신수단을 창조했으며, 지속적으로 군주제의 종식을 요구했다. 네팔대학교사협회(NUTA)의 후원 아래, 수백명의 강사들이 “업무거부” 파업(pen down strike)을 전개했다. 대학직원들은 때때로 정의를 요구한 성난 직원들에 둘러싸였다. 운동은 고등학교와 심지어 12,13세 학생들에게도 퍼졌다. 3월 27일, NUTA는 운동에 참여한 교사들의 체포와 해고에 항의하여 수업거부와 농성을 전개했다.

3월 28일 야당은 시민들에게 정부를 파산시킬 수단으로서 세금, 물, 전기, 전화요금 지불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고, 이는 필리핀을 연상시키는 전술이다. 네팔의료협회는 첫 번째 임시 회의를 열어 국가의 폭력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틀뒤, 네팔엔지니어협회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3월 31일 주부들도 파드마 칸야 대학 밖에서 주전자 행진단을 결성했고, 정치적 표현의 수단으로서 냄비와 팬을 사용했다. 그 이후에 곧 냄비와 팬은 전국적으로 시위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일제소등(blackout)은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일일 행사가 됐고, 불을 끄는 것 이상 무언가를 하길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게 했다.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일제소등은 데라이의 나라안가트 시에서 원래 시작됐고, 전술은 재빨리 카투만두와 다른 도시로 확산됐다. 3월 19일에 시작된 일제소등은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했다. 카투만두 전역에서 매일 저녁 7시에 10분간 모든 마을 암흑 속에 빠뜨렸다. 비록 일제소등을 존중하지 않는 집에서 창문이 깨지긴 했지만, 일제소등은 연대와 결의의 감동스런 표현이었다. 한 운동 지도자는 나중에 언급했다: “우리가 마침내 승리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저녁시간 때였다.”<sup>28)</sup>

인민대중들은 정당들과 그들의 비밀 “합동조정위원회”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다. 3월 18일 민중봉기의 바로 그 시작부터 “혁명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정도는 판차야트 정부만큼이나 야당 지도자들에게 놀라운 일로 다가왔다.”<sup>29)</sup> 많은 역사가 뛰어난 지도자와 정당을 봉기의 주요한 세력으로 취급하지만, 운동의 지도자들은 민중동원의 정도에 놀라움을 표현했다. 거리에서 조정위원회의 민중들에 영향은 측정하기 어렵지만, 참가했던 한 외국인 참관인은 우

25) *Dawn of Democracy*, 26.

26) Saroj Pant, “One Step Toward a Brighter Future,” [www.asmita.org.np/Women\\_Subject\\_Category/social\\_movement.htm](http://www.asmita.org.np/Women_Subject_Category/social_movement.htm).

27) Ogura, *Kathmandu Spring*, 86-8.

28) Raeper and Hoftun, *Spring Awakening*, 109.

29) *Ibid.*, 106.

리에게 말했다: “MRD는 NC-ULF 동맹이 요구한 대로 성격상 명백히 비폭력적이었다.”<sup>30)</sup> 하지만 그는 어떻게 “일부 활동가들이 돌과 보도석으로 경찰과 전투를 벌였는지” 묘사했다. “... 공간의 공개적 쟁취는 카투만두에 거리의 대소동에 대해 말해주는 징표의 모자이크를 새겼다: 정부청사와 상점의 깨진 창문, 불타서 골격만 남은 정부버스, 경찰과의 전투에서 사용됐다가 거리와 보에 뿌려져 있는 부서진 보도석 등. 친민주주의와 정당 슬로건이 도시와 사찰의 벽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단 거리에 나서는 사람들은 좁은 거리를 가로막는 임시 바리케이드로 쓰러고 차량 타이어에 불을 붙였고, 무장한 전투경찰과 돌을 던지는 시위대 간에 육박전이 벌어졌고, 어두워진 도시를 밝히는 도시의 불꽃이었다.”<sup>31)</sup>

## 파탄 해방구

3월말 파탄(카투만두 바로 강건너편)의 네와리 마을에서 민중들이 도시를 접수해서 1주일간 유지했을 때 봉기는 최고수준의 표현에 도달했다. 어떤 다른 한번의 전투보다, 파탄의 전명적 민중봉기는 절대군주로서 비렌드라의 통치의 종식을 알렸다.

끔찍한 국가폭력이 수주일 동안 파탄의 주민들을 적대화시키면서, 청년들이 만갈 바자르의 판파야트 지역사무소를 공격했다. 경찰이 모여 그들을 저지하기 전에 청년들은 건물에서 책상, 의자, 파일을 꺼내서 불에 태웠다. 전투경찰이 도착하자, 그들의 최루가스는 시위대를 파탄의 좁고 구불구불한 미로같은 거리에서 몰아내는 데 실패했다. 사람들은 계속 다시 모였고, 판파야트 사무소에 대한 또다른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다. 전투가 오후까지 이어지자, 경찰은 총기를 사용하여 도시 중심부 시장에서 최소한 두 명을 사살했다.

다음날, 3월 31일 토요일 대규모 경찰부대가 도착해서 가정집 문을 차고 찾아낸 사람을 아무나 구타하는 등 혐의자를 조직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불이 나가고 일제소 등이 동시적으로 새벽까지 계속되자, 활동가들은 마을(tols)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거리에 대한 통제를 장악함으로써 유혈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했다. 두명의 젊은 참여자들에 따르면, “밤과 낮으로 우리는 마을마다, 블록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일부는 이미 경찰에게 살해당하고 부상당했지만, 형제자매, 아들과 딸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녀노소 사람들은 칼과 창, 막대기, 집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고 나왔다. 활동가들은 모두가 같은 카스트에 속하고 상호결혼으로 파탄에서 가장 단결된 블록인 Chyasal Tol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거기에서 다른 모든 마을과 지역으로 퍼졌다.”<sup>32)</sup> 무기를 들고 도시를 가로질러 행진하자 사람들의 사기는 올라갔다. 활동가들은 그들에게 도시를 해방구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곧 수백명의 사람들이 추가적인 공격으로부터 파탄을 보호하기 위해 참호를 파고 바리케이드를 세우는 것을 도왔다.<sup>33)</sup>

## [사진 23]

파탄 해방구에서 시민들은 전략과 전술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했다.

Photo by Min Bhajracharya in *Dawn of Democracy*, 49.

민중들이 “민주주의 지대”와 “자유국가”로 선포한 파탄해방구는 1주일을 완전히 버텼다. 4월 1일 경찰이 도시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약 50,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판파야트 체제만이 아니라 군주에 대해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그들은 카투만두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범을 따르라고 촉구하기 위해 카투만두로 가는 강을 건너 행진하려고 했지만, 밀집한 경찰부대가 그들을 막았다. 행진은 다시 파탄으로 퇴각했고, 민중들은 파탄으로 이어지는 7개 대로의 바리케이드를 다시 보강하고 방어선의 참호를 더 깊이 팠다.

30) Routledge, “Backstreets,” 565.

31) Ibid., 568.

32) Raeper and Hoftun, *Spring Awakening*, 110.

33) Ogura, *Kathmandu Spring*, 114-117.

파탄 해방구 내에서 거의 모든 마을은 자율적으로 조직된 자위부대를 보유했다. “위원회들은 둥근칼(*khukris*), 연장과 막대로 무장한 50 내지 100명의 사람들로 이뤄졌고, 그들은 24시간 내내 바리케이드를 지켰다. 도시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검문을 받았다.”<sup>34)</sup> 여성들도 정원도구, 빗자루 손잡이, 부엌칼을 사용하여 가족과 도시를 보호하기로 단호하게 결의한 채 서있었다. 사찰의 종들이 정부의 침입에 대해 경고할 때마다, 주민들은 자신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 바리케이드로 결집했다. 한 경우에 바리케이드를 청소하려고 정부가 불도저 한 대를 보내자, 운전자를 쫓아내고 불도저를 불태웠다. 파탄의 좁은 거리는 경찰대오의 밀집을 불가능하게 했고, 동시에 뒷골목은 활동가들에게 마을 사이의 안전한 길을 제공했고, 이는 심지어 카투만두까지 이어졌다.

사람들은 128명의 경찰관들이 갇힌 망갈 바자르의 파탄 경찰서를 포위했다. 주위에 바리케이드를 세우는 외에도,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깊은 참호도 팠다. 갇힌 경찰이 도피하려고 하자, 그들은 주변의 옥상에서 날아온 돌에 맞았다. 그들이 다시 경찰서로 퇴각한 다음, 그들은 안전과 충분한 식량과 물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건물 안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안전에 대한 어떤 약속 없이 떠날 것인지 선택을 하도록 했다. 경찰은 머물기로 선택했다.<sup>35)</sup>

해방된 광주에서 활동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전도시적 참여집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매일 집회는 계속됐다. 전부는 아니라도 대부분의 이런 집회들은 단방향성이었다. 수평적인 의사소통 선을 용이하게 하기보다는 지도자들이 대중들에게 연설했다. 4월 2일, 비합법 정당들의 지하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났다. 순다라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다. 집회가 끝나자, 흰색 헬리콥터의 선회하는 소음이 연사를 압도했다.<sup>36)</sup>

긍정적 측면에서, 사상 처음으로 파탄 해방구는 운동 지도자들에게 수천명의 대중들에게 연설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적 공간을 제공했다. 정치인들이 확성기로 가지고 나오면, 커다란 군중은 그들의 연설에 주의를 집중했다. 하지만, 확성기와 저명한 지도자들이 없으면, 지속적인 공개연설은 작은 그룹별로 이뤄졌다. 사람들의 붐기 동안 서로 자신의 경험을 교환했고, 어떻게 잘 전진할 것인가에 대한 충고를 제공했다. 나중에 참석한 어떤 삶이 필자에게 설명했듯이, “마을지구는 자연발생적으로 조직했다. 본광장에서, 확성기 없는 모임들이 끊임없이 계속됐다. 정당들이 도착하자, 그들은 스피커를 세웠다. 일부가 반대를 표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예의바른 행동을 해야 하고 돌을 던져서는 안된다’ 등의 소리를 말했다.”<sup>37)</sup>

4월 2일, 80,000명이 해방된 도시에서 시위했다. 다시 말하거니와, 급진적 활동가들은 파탄코트를 다른 도시들로 확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지만, 경찰은 군중이 파탄으로 들어가거나 떠나는 것을 막으라는 엄격한 명령을 받고 있었다. “지배자들은 수도로의 행진, 왕궁으로의 행진을 두려워했다. 활동가들은 더 이상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해 군중들을 진정시켜야 했다.”<sup>38)</sup>

카투만두 중심에서 몇 마일 안 떨어진 키르티푸르에서, 사람들은 곧 파탄에 합류하요 도시 중심부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했다. 여성들이 체포된 아들들을 구하려고 경찰서를 공격하면서 투쟁이 발전했다. 그들은 엄청난 양의 최루가스를 맞았는데, 전에 파탄의 집회를 방해했던 똑같은 흰색 헬리콥터에서도 최루가스가 뿌려졌다. 최루가스로 군중을 해산하지 못하자, 경찰은 총을 사용했고 네명을 죽였다. 그날 밤, 주민들은 참호를 파고 도시로 들어가는 주요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세웠다. 희생자들 중의 한명의 장례행진 이후에, 사람들은 집회를 위해 바그 바이랍 사찰에 모였다. 여덟명의 관차야트 관리들이 “교만한 체제”에서 사임한다고 발표하자 모두가 환호했다.<sup>39)</sup> 병원에 입원해 있던 가네시 만싱은 파탄의 영웅적 행동을 최근

34) Routledge, “Backstreets,” 570.

35) Ibid., 570.

36) Ogura, *Kathmandu Spring*, 123.

37) Anonymous interview at the interviewee’s request, Patan, April 14, 2009.

38) *Dawn of Democracy*, 30.

무장한 자유투사들이 차우세스쿠의 군대를 패배시킨 루마니아 티미소아라와 비교했다.<sup>40)</sup>

파탄의 코뮌은 전국적으로 민중들에게 영감을 줬다. 파탄의 예를 따라, 판차이 청사가 수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불탔다. 도시 전문직 사이에서, 특히 왕립네팔항공의 조종사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다른 지역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사람들이 죽었던 반면, 해방된 파탄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 신선한 식품, 등유, 식용유가 떨어지면서 도시 내부에서 긴장이 증가했다. 일주일 후 마침내 정부는 파탄을 재탈환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다. 자살투쟁을 하기보다, 사람들은 군대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군대가 낮 동안 거리를 통제할 수 있겠지만, 밤에는 민중들이 우위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정부가 평화적 시위자들을 구타하기 위해 청부폭력배(mandales)를 풀자, 새로운 계층의 주민이 운동에 참여하게 됐다. 4월 1일, 시위대의 용기로 과감해지고 국가폭력에 분노한 텔레비전 방송인들은 키르티푸르의 소요 소식을 방송했고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4월 2일 정부에 맞선 이후의 총파업(bandh) 동안, 50,000-60,000만명의 교사와 30,000-40,000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sup>41)</sup> 이후에 4월 3일 파탄에서 30,000명이 집회를 가졌고, 다음날 봉기의 열사들을 추모하는 “애도의 날”에 수많은 애도식이 열리는 동안 탱크들이 수도로 진입했다. 왕립네팔항공의 조종사 55명 전원이 12시간 파업에 들어가 모든 국내선 항공편을 취소시켰다.

4월 5일 많은 정부부서에서 “업무거부 파업”(pen down strike)이 벌어졌고, 전기와 전화 노동자들이 파업운동에 합류했다. 시위대오가 계속 늘어나자, 심지어 외무부 장관도 탄압조치에 항의했다.

운동은 예상했던 보다 덜 전통적 수단에 의해 확산됐다: 입으로 전하는 말 외에도, 멜로디가 봉기자들의 행동과 꿈을 담도록 유명한 민요들을 바꿔 불렀다. 시는 운동의 열망을 담았고, 마하바라타 같은 힌두 서사시의 도덕률을 요약해서 실은 전단지들은 국왕의 불의한 통치와 대비됐고, 공공광장의 사진전시는 고문과 탄압을 극적으로 부각시켰다. 파탄에서 운동의 지성은 누군가가 정부의 FM채널을 엿듣고 사람들에게 경찰의 행동에 대해 미리 알려줬다는 것의 의미였다. 복사기와 팩스가 익명으로 나온 일일보고를 네팔 국내와 국외로 배포하는데 사용됐다. 광범한 배달 네트워크가 구두 메시지를 전했다.

전 사회가 정치화되자, 보통사람들의 분출된 에너지와 상상력이 네팔 전체에서 가장 커다란 힘이 됐다. 한 시인이 꿈의 구체화에 대한 새로 발견한 종말을 표현했듯이:

이제 시는 고립 속에서 발견되지 않고,  
여러분은 시위 중에 시를 만난다.  
이제 시는 종이 위에 쓰여지지 않고,  
여러분은 시가 거리로 달려가는 모습을 본다.  
- 줄루스마 카비타, “행진하는 시”

1990년 친민주주의 운동의 “중추”는 타이완, 한국과 필리핀에서도 운동을 활성화시킨 집단인 새로운 전문직 중산층이다.<sup>42)</sup> 마이클 허트는 “새로운 것은 운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학생만이 아니라 새로운 전문직계층,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방식이었다.”<sup>43)</sup> 새로운 중산층이 운동의 “중추”였겠지만, 그들은 노동계급, 농민과 도시빈민을 끌어들이었다. 짧은 몇주 안에 봉기는 도시인구의 많은 부분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었다: 의사,<sup>44)</sup> 변

39) Ogura, *Kathmandu Spring*, 131.

40) Hoftun et. al, *People, Politics and Ideology*, 129.

41) Routledge, “Backstreets,” 567.

42) Raeper and Hoftun, *Spring Awakening*, 79.

43) Michael Hutt, “The Blowing of the April Wind: Writers and Democracy in Nepal,” *Index on Censorship* 8 (1990): 8.

호사, 언론인, 주부, 노동조합원, 예술가, 도시빈민, 트럭기사 등. 여성들은 특히 카투만두 외부의 계곡도시들에서 활동적이었고, 그곳은 여성 공장노동자들이 잘 조직되어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sup>45)</sup>

[사진 25]

농기구로 무장한 여성들이 거리로 나섰다. Photo by Angelika Appel-Schumacher in *Dawn of Democracy*, 51.

한 분석가는 교육받지 못한 빈민의 참여를 개탄했는데, 그녀의 견해로는 그들의 격정적이고 산만한 시위는 “캠페인의 목표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sup>46)</sup> 역사 기술자들은 자주 새로운 중산층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집단의 상대적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처럼 네팔에서도, 중산층이 운동을 촉발시키는 데서 커다란 중요성을 갖지만, 정부탄압이 광범해지자 운동을 유지하는 데에는 도시빈민과 노동계급이 더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이 공정한 것 같다. 일부 노동조합원들은 새로 결성된 네팔 노동조합총연맹(GFNUTU)의 보호 아래 운동에 참여했지만, 많은 노동자들은 개인으로서 참여했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자주 교사, 언론인, 의사, 의료전문인, 변호사, 공무원 등 새로운 노동계급 사이에서 성격상 정치적이었다. 4월 15일 아침, 비르병원 의료직원들은 국왕이 새로 임명한 내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농성(각 참가자가 12시간 단식)을 시작했다. 그들은 내무장관이 4월 6일 피의 금요일에 그들을 대한 “부적절한 방식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투쟁에 나섰다.

물론,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노동계급을 직종이나 경제적 지위로 나누는 것은 부당하다. 1990년 봉기의 경험적 역사는 프롤레타리아화한 전문직과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공장과 들판의 동료들만큼 새로운 대자적 계급, 즉 오직 “객관적” 데이터(직종 또는 임금수준)에 기초하여 계급을 분류하는 학문적 시도를 넘어 투쟁속의 단결을 지속한 봉기자들의 결합된 집단이었음을 드러내준다. 정말로, 프롤레타리아화한 전문직의 보다 적극적인 집단적 참여는 현재적 사회변혁 과정에서 그들의 중요성, 즉 19세기의 경제적 카테고리에 간혀있는 좌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동학을 보여준다.

10명중 8명이 농촌에서 사는 나라에서, 도시 전문직들의 지도력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중산층”의 동요성 때문에 그들의 진정성이 문제지만, 그들의 블루칼라 또는 오합지졸(룸펜) 동료들도 다르지 않다. 1951년 궁정혁명에서 라라 지배를 타도하는 데 기여한 활동가들의 참여 역시 운동에 대한 양날의 칼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운동권의 수많은 공적 대변인들을 제공했고 커다란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운동을 진정시키고 국왕과 협상한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해결로 이끌었다.

1990년 자나 안돌란의 모든 주목할 만한 특징 가운데, 그렇게 많은 종류의 사람들과 정당들의 단결이 가장 핵심적이었다. 농촌 지주들과 판차들을 제외하면, 운동은 성공적으로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창출했고, 미래의 커다란 자원이 됐다.

### 봉기의 절정

가장 급진적인 7개 공산당은 연대체 UNPM 아래 4월 6일 금요일 새로운 전국적 총파업(bandh)을 호소했다. 건잡을 수 없는 민중동원의 힘에 직면하자, 비렌드라 국왕은 그날 일찍 일어났다. 오전 6시45분 라디오 네팔에서 그는 정부의 해산과 전총리 로켄드라 찬드라 이끄

44) See Vincanne Adams, *Doctors for Democracy: Health Professionals in the Nepal Revolution*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45) David Seddon, “Democracy and Development,” in *Nepal in the Nineties*, ed. Michael Hutt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137.

46) T. Louise Brown, *The Challenge to Democracy in Nepal: A Political History* (London: Routledge, 1996), 134.

는 새 내각을 구성을 발표했다. 일정한 변화를 주는 듯한 인상으로 국왕은 민중의 기대를 높였지만, 증오받는 판차야트 행정관들 사이에서 직위 교체를 통해 완고하게 권력을 유지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국왕의 고집은 민중들에게 더욱 불을 질렀다.

그날 오전 나중에, 민중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일터로 가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 대신 도시 중심부로 결집하기 시작했다. 충분히 적절하게. 파판에서 중심가 행진은 10,000명의 여성 공장 노동자들의 모임이 선봉에 섰다. 모든 방향에서, 시위대들이 도시 중심가로 몰려 들어, 왕궁에서 겨우 몇백 미터 떨어진 툰디켈 연병장에 합류했다. 경찰은 개입하지 않았고, 아마도 그들은 엄청난 군중이 왕궁 근처에 집결하는 것을 저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100,000명에서 500,000명까지 다양한 추정되는 사람들이 참여한 거대한 집회(네팔 역사상 최대)는 곧 반군 주제의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모든 곳에서 비합법정당들이 깃발을 자랑스럽게 들고 다녔다. 한 인기있는 후렴구는 “비렌드라 도둑놈, 네팔을 떠나라!”였다. 다른 사람들은 왕비를 모욕한 반면, 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한다!”라고 외쳤다. 멀리서 한 목격자가 알아챘다: “사람의 바다가 ... 끝없이, 평화적으로 무장하지 않은 채로 행진했다.... 그들은 머리 위로 박수를 치면서 구호를 외쳤고, 멀리서 보면 그들은 구호로 외치는 요구의 리듬에 팔을 흔드는 일종의 발레의 참가자들같이 보였다. 바그 바자르 주택가의 사람들은 1층과 2층 창문에서 물을 뿌려주고 있었다. 그날 오후는 아주 더웠고, 이것은 여성들이 행진자들의 열기를 식혀주는 방식이었다.”<sup>47)</sup>

수십년만에 최초의 민주적인 대중집회에서 핵심기는 소수의 메가폰에 한정됐고, 많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연사들이 연이어 다당제 민주주의 회복을 호소하자, 풀뿌리로부터 군주제 폐지의 호소가 더욱 커졌고, 왕국으로 행진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근처의 정부청사를 공격하는 대신에, 군중은 왕궁 방면으로 늘어났다. 사람들이 왕궁 300미터 안에 도달하자 최소한 두 개의 경찰저지선이 깨졌다. 갑자기 4시에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었고 군중에 대한 대대적 공격 신호였다. 모든 곳에서 경찰곤봉이 사람들의 머리 위로 비처럼 쏟아졌다. 돌과 벽돌이 응답으로 날아갔다.

이제 정확히 무슨 일이 다음으로 일어날지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다. 경찰이 엄청난 양의 최루가스를 퍼붓자, 군중들 중에서 보다 전투적인 대오가 국왕 처남이 소유한 상점의 유리창을 깬다. 사람들은 2월 18일 학생들이 공격했던 마헨드라 국왕동상을 다시 훼손하기 시작했다. 한 젊은이가 동상 위로 올라가 동상의 팔에서 군장을 쥐었다. 그는 곧 총에 맞아 죽었다. 그런 다음 군대는 근처 옥상에서 발포했고, 피하려고 움직이는 군중들의 등에 사격을 가했다. 유혈 사격 몇분후, 정부는 과거 시위 7주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다(아마도 10배).<sup>48)</sup> 수백명이 더 부상당했다. 카투만두 전역에서 사람들은 경찰과 군용차량을 저지하기 위해 타이어, 벽돌, 큰돌, 쓰레기통,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바리케이드를 세웠다. 야만적 전투가 새벽까지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웠다. 새벽 4시에 군대가 파탄 해방구로 진입하면서 총성이 멀리서 들렸다.

4월 6일 학살 이후 2일간 통행금지가 강제됐다. 도시 전역에서 전화는 불통이었고, 식량과 연료공급이 줄어들었다. 그 사이 48시간 동안, 야당 지도자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기 시작했지만, 군대가 어디든지 있는 것 같았다. 봉기는 두 단계를 통해 발전했다: 2월 18일부터 그 이후 최소한 한 달간 이어진 형성단계와 주도권이 정당에서 보다 혁명적인 행위자, 즉 이제 사태의 경로를 결정하는 “군중들”에게 넘어간 절정.

“혁명의 두 번째 단계는 ‘절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군중들이 거리로 분출하며 시작됐

47) Shaha, *Politics in Nepal*, 208.

48) See Seddon, “Democracy,” 138; Routledge, “Backstreets,” 573; Hoftun et. al., *People, Politics and Ideology*, 132; *Dawn of Democracy*, reports fifty dead at Bir Hospital and more than hundred more buried in a mass grave at Sundharjal (34); Hisila Yami, *People’s War and Women’s Liberation in Nepal* (Kathmandu: Janadhvani, 2007) reports that over 200 were killed by the shootings (191).

다. 군중의 규모 자체만으로 야당 지도자들은 일시적으로 무력해졌다. 그들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재빨리 행동해야 했다. 이 시기동안, 상황을 지배한 것은 군중들의 분위기였지, 야당 지도자들의 시간표가 아니었다.”<sup>49)</sup>

동원의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열망도 MRD 정당들을 넘어갔다. 전국의 분위기가 변했고, 이제 사람들은 피로 물든 군주제의 종식을 요구했다. 이 시기에 “그 당시 전진하던 운동은 과거에 결코 올리지 못했던 혁명적 성격을 획득했다... 운동은 새로운 형태를 취했다: 진정한 민중의 운동... 운동이 민중의 참여와 선동 스타일의 면에서 혁명적 해결 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비렌드라 국왕은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sup>50)</sup>

아마도 군주제와 온건한 야당 지도자들을 거리의 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구하려는 움직임에서 4명의 중심적 MRD 인물(NC 지도자 K.P. 바타라이와 G.P. 코이탈라, ULF 지도자 사하나 프라단과 R.K. 마이날리)이 국왕과 직접 대화하기 위해 왕궁으로 가기로 합의했다. 명백히, 4월 6일 경찰이 발포하여 수십명의 사람을 살해하자, 군중들이 왕궁을 습격할 것이라는 생각에 경악한 것은 국왕만이 아니었다. 합법화되어 권력의 한 조각을 얻기를 너무나도 원했던 정당들도 더욱 놀라게 됐다.

네명의 정치인들이 왕궁을 떠날 즈음, 국왕은 통행금지와 24년간 정당금지를 해제하는 데 동의했다. 비록 국왕이 판차야트 정부에 활동을 중지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새로운 총리를 지명하고 NC 및 ULF와 협의를 개시했다. 그것은 4명의 야당 지도자들이 운동을 “단호하게 취소한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 협상과 타협

더 이상의 시위를 취소함으로써, 새로 결성된 왕국과 NC/NLF 간의 동맹은 혁명적 과정을 단축시켰고, 봉기는 세 번째 국면으로 들어갔다: 새로운 질서의 공고화. 폭발적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얻음으로써, 야당 지도자들이 군중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비록 거리의 군중들과 보다 급진적 좌파 그룹들이 군주제 종식, 또는 최소한 국왕의 무조건적 항복을 계속 요구했지만, 온건한 세력은 혁명적 상황 이전에 합의한 다당제 입헌군주제라는 최소 목표에 충실한 채로 남았다. 그들은 새로운 임시정부와 협상과 판차야트 치제의 영구적 종식에 집중했다. 국왕의 부하들에게 살해된 수십명, 부상당한 수백명, 감옥에 갇힌 수천명과 헤아릴 수 없는 야만적 사건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군주제 종식에 대한 민중의 외침은 억제당했다.<sup>51)</sup>

국왕 및 군대와와의 “건설적” 대화를 통해서, NC는 자신의 지위를 보강함으로써 국왕의 지위를 구조했다.<sup>52)</sup> 온건 야당과 견고한 판차 간의 협상으로 엘리트 주도의 형식적 민주정부로의 이행이 성취됐고, 이는 헌팅턴이 “전위”(transplacement)라고 지적한 과정이었다.<sup>53)</sup> 한 보도는 미국이 어떻게 NC에게 “네팔에서 좌파의 성장을 막기 위해 왕실과 타협 및 입헌군주제에 합의”하라고 격려했는지 말했다.<sup>54)</sup>

49) Raeper and Hoftun, *Spring Awakening*, 112.

50) Hachhethu, “Mass Movement,” 181.

51) Hoftun et. al., *People, Politics and Ideology*, 134.

52) Raeper and Hoftun, *Spring Awakening*, 113.

53) Huntington, *Third Wave*, 151-161.

54) Brown, refers here to an interview with D.R. Pandey (*Challenging Democracy*, 139). 봉기 초기에 미국 국무부는 정부와 야당의 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필리핀에서 엘리트 주도 이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스티븐 솔라스 의원을 포함한 3명의 하원의원들과 케네디, 펠, 모니한 상원의원 등은 대량체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3월 6일 미국무부 부장관 존 켈리는 하원 소위원회에서 증언하면서 정부의 “자제”를 칭찬했다. 켈리는 의회에서 “네팔은 많은 민주주의의 특징을 갖는 독자적 정부체제를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Shaha, *Politics in Nepal*, 194).

그 당시에 운동이 때 이르게 종결됐다고 깨닫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유혈사태의 중지는 모두를 기쁘게 했고, 4월 9일 국왕과 MRD 간의 합의 발표 이후에, 기쁨에 찬 군중들이 카투만두 거리에 등장했다.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와 툰디켈 연병장에서 민주주의의 축제를 집결했다. 운동으로 체포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석방됐다. 모든 곳에서 붉은 깃발이 나부꼈고, 붉은 색 화약연기가 공기 중에 퍼졌다. 많은 사람들에게 황홀한 순간에 “모두가 인간에게 자유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하고 뿌리 깊은지 느꼈다. 사람들은 그 순간 네팔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잊었다.”<sup>55)</sup>

수십만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부는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미 국왕을 구하기로 결정했었다고 추측했다. 그들은 연단에서 연설하면서 운동을 끝내지 않을 것이며 단지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약속한 정당 대표들을 믿기를 거부했다. 지도자들에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에 대한 민중의 열망은 명백했다. NC 총서기인 G.P. 코이랄라가 “국민과 국왕 모두”의 승리라고 칭송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야유했다. 아우성과 휘파람의 시끄러운 화음이 가라앉자, 연단의 사람들은 군중들이 가할 물리적 공격을 모면하기 위해 잼싸게 행동해야 했다.<sup>56)</sup>

비록 급진적 UNPM이 판차야트 체제를 끝장내지 않은 채 포기했다고 MRD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을지라도, 그들은 운동을 분열시키거나 유혈사태가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의 공개적 성명은 MRD의 행동을 “네팔 인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했지만, 그들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당황했다. 민중의 자주적 동원이 여전히 이뤄졌지만, 봉기의 조정위원회가 국왕과 협상하자, 독자적 행동의 가능성은 제한됐다. 수십개의 도시와 소도시에 좌파는 “해방”을 촉하하는 대중집회를 열었고, 열사들을 추모하는 애도집회를 조직했다.

명성에 맞게 MRD 지도자들은 국왕이 임명한 새로운 판차야트에 동참하기를 거부했고, 새로운 정부를 주장했다. 왕실이 계속 다당제 민주주의에 반대하자, 사람들은 지지하기를 거부했다. 4월 15일 밤, 야당 정치인들과 국왕정부 각료들이 왕립학술원에 협상 중에 있을 때, 수천명의 사람들이 건물을 포위했다. 그들은 국왕이 임명한 모든 관리들의 해임과 즉각적인 과도정부 수립을 요구했다. 새벽 3시 총리가 떠나려고 하자 군중들이 그의 차를 부설했다. 그는 마침내 겨우 떠났지만, 왕궁으로 바로 가서 사임했다. 다음 날 국왕은 판차야트 체제의 종식을 선포했다.

4월 19일 과도정부에 대한 공식합의에 도달했고, NC 지도자 K.P. 바타라이가 총리로 취임했다(거의 30년 전에 그의 형이 같은 직위를 가졌던 이래로 최초의 “민주적” 총리). 새 정부의 다른 10명의 각료에는 국왕 지명인 외에도 ULF 대표들도 포함됐다. 정치인과 정당에게 이날은 위대한 날이었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변한 것은 없었다.

#### 자나 안돌라 1의 미완성적 성격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기를 사용하기를 회피하려는 정당들의 소망을 지지했기에, 자나 안돌라 동안의 유혈사태는 19세기와 20세기 초반 유럽의 봉기시보다 훨씬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단체들은 전국봉기의 과정에서 최소한 500명이 죽었다고 추산했고, 이는 새 총리 프라사드 바타라이가 이용하는 숫자이다. 다른 사람들은 숫자를 두 배로 추정하지만, 1년 뒤에 공식조사위원회가 보고했을 때, 그 숫자는 경우 62명 사망으로 정리됐다.<sup>57)</sup> 살해당한 사람의 다수는 네와리(Newaris: 카투만두 계곡의 전통적 거주민)였지만, 정부의 탄압조치로

55) Pant, “One Step,” 2.

56) Brown, *Challenge to Democracy*, 143.

57) Raeper and Hoftun, *SpringAwakening*, 113; Routledge, “Backstreets,” 573; Hutt, *Nepal*, 29. 몰릭위원회(Mallik Commission)는 2월 18일과 4월 13일 사이에서 겨우 45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Brown, *Challenge to Democracy*, 148).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았다. 살해된 사람의 3/4은 25세 이했다. 한 책은 부상당했던 1,307명의 이름과 주소를 출판했다.<sup>58)</sup> 사망 이외에도, 8,000명 내지 25,000명의 사람들이 체포됐었다.<sup>59)</sup>

어떤 사람들에게겐 혁명이 4월초에 끝났던 반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때 얻은 성과는 그들이 앞으로 기대하는 승리의 첫 맛보기일 뿐이었다. 일단 정당들이 합법화되자, 정치인들은 자연발생적 동원을 중지시키려고 애썼다. 정당한 임금을 위해 파업한 노동자들은 지지를 받지 못했고, 국왕의 경찰에게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부상당한 부모들은 정당한 고충을 들어줄 사람을 아무도 찾지 못했고, 가난은 여전히 문제였다. 사람들은 정의를 원했고, 국왕이나 새 정부도 그들에게 정의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

범죄의 뚜렷한 증가로 많은 마을들이 자체적으로 자율 보안네트워크를 강화했다(운동의 초기 고양 이후에 때로 경찰까지 관여한 범죄활동의 증가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꼈던 버마의 경우와 아주 비슷하게). 긴 장대나 나무 장대로 무장한 젊은이들로 구성된 자경단들이 딜리 바자르, 아손톨레, 나야 바자르, 라인차우르, 자타, 타펠 등 수도 전역에서 마을들을 순찰했다.<sup>60)</sup> 경찰과 정부 폭력배(mandales)는 가정집과 사업체에 대한 절도와 강도, 그리고 개인들에 대한 공격에 계속 가담했다. 다른 곳에서, 권력공백은 낡은 정치적 경쟁과 오랜 원한이 해결되게 했다. 네팔은 그 누구에 통제로부터 빠져나오고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이 시위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이름을 적은 살생부를 공공장소에 붙인 반면, 정부는 수십건의 사망에 대해 조사하는 위원회와 협력하길 거부했고, 심지어 1백명 이상의 실증자를 찾는 것을 돕는 것도 거부했다.

경찰이 계속 활동가들을 괴롭히고 체포하자, 민중들은 마침내 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해결했다. 파탄에서 4월 17일 약 60채의 가옥에 대한 방화 배후에 경찰이 있는 것으로 생각됐고, 상황은 특히 긴박해졌다.<sup>61)</sup> 4월 23일 경찰차를 몰던 10여명의 만달레가 테쿠에서 사람들에게 잡혀 카투만두 중심부로 끌려갔다. 야외집회에서 비난받은 다음 최소한 6명이 처형당했다. 한 설명에 의하면 맞아 죽었다고 한다.<sup>62)</sup>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린치당했다고 한다.<sup>63)</sup> 비록 경찰총감독과 내무부 장관이 도착해서 나머지 인질의 석방을 간청했지만, 성난 사람들은 재빨리 그들을 포위했다(gheraed). 그날 늦게 장관은 군중들로 가득찬 극장에서 가서 경찰서장을 해임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도의 다른 곳에서 사람들의 행진이 부상당한 경찰관과 함께 경찰 시체를 끌고가면서 군주제 반대 구호를 외쳤다. 만달레로 밝혀진 다음, 이 “인민의 죄수들”은 재판을 받았고 일부는 처형당했다.<sup>64)</sup> 새 정부는 경찰에 개입하라고 명령했다. 행진대가 카두만두의 주요 사찰 중의 하나인 하누만 도카에 접근할 때, 경찰이 지붕 위에서 발포하여 시위대 두 명을 살해하고 여러명을 부상시켰다.<sup>65)</sup> 수도의 많은 곳에서, 상황은 그 누구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보였다. 군중들은 구청 사무소 외부에 모였다.<sup>66)</sup> 차들이 불타자 경찰이 발포했다. 딜리 바자르 근처에서 한 군중은 만달레 지도자의 집에 불을 질렀다. 만달레<sup>67)</sup>와 경찰<sup>68)</sup>에 대한 선택

58) Narayan Prasad Sivakoti, *Jan-Andolanra Sahidharu* (Kathmandu: Bhisma Kadariya, 2047 V.S.)

59)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1992년 보고서에서 8,000건 이상의 체포가 있었다고 기록했다. See T. Louise Brown, *The Challenge to Democracy in Nepal: A Political History* (London: Routledge, 1996), 123. 체포자 숫자는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체포에 대한 광범한 학대와 고문을 대해 보고했다.

60) Shaha, *Politics in Nepal*, 220.

61) Richard Burghart and Martin Gaenzle, “Martyrs for Democracy,” *European Bulletin of Himalayan Research* 2 (1991), 13.

62) Shaha, *Politics in Nepal*, 221.

63) Burghart and Gaenzle, “Martyrs,” 14; *Dawn of Democracy*, 38.

64) Brown, *Challenge to Democracy*, 145.

65) Hoftun et. al., *People, Politics and Ideology*, 138.

66) Brown maintains this action was undertaken by *mandales* wishing to destroy evidence of their misdeeds (*Dawn of Democracy*, 38) also attributes this action to *mandales*.

67) Hoftun et. al., *People, Politics and Ideology*, 374.

적 린치에 관한 보고들이 더 있었다. 널리 퍼졌던 소문은 국왕이 수표에 서명을 거부하자 왕비가 국왕을 총으로 쏘았다, 아마도 죽었다는 것이었다. 한편, 같은 인근의 계곡 마을에서 경찰 6명이 맞아 죽었고, 경찰발포로 10여명이 죽었다.<sup>69)</sup>

4월 25일 수백명의 경찰이 살해당한 동료의 시체를 들고 반혁명을 조장할 목적의 공개행진을 했다. “피에는 피”라고 외치고 판차야트 체제의 복원을 약속하면서, 그들은 정부청사에 불을 질렀다. 쿠데타가 다가온다는 등, 인디아 군대가 국경에 집결했다는 등, 수도에 독을 탔다는 등 소문들이 돌아다녔다. 새 정부는 침착을 호소했다. K.P. 바타라이 총리는 국왕이 그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임하겠다고 위협했다. 일단 왕실의 긍정적 반응을 받자, 총리는 카투만두에 야간 통행금지를 명령했고, 이후에 파탄과 키르티푸르로 확대했고, 군대가 통행금지를 집행하라고 요청했다. 전에 야당지도자였던 총리는 폭력을 사용하여 질서는 유지하는 데 별로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 군대는 5월 9일까지 카투만두의 거리에 남아 있었고, 파탄에는 5월 14일까지 주둔했다. 군중에 대한 보편적 공포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왕실권력과 야당 모두 분명히 민중들의 추동력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군정쿠데타의 위협에 방해받지 않고(아니면 위협 때문에) 동원이 강화됐다. 임시정부의 구성과 11월 9일 새 헌법 선포 사이의 6개월간, 네팔은 어마어마한 사회적 투쟁의 장이었다. 4월 30일 포카라에서, 5명의 시위대를 사살한 경찰의 총격만이 한 고위관리를 구했는데, 그는 경찰의 잔혹행위와 연결된 문서를 파괴하려고 지역 판차야트 사무소에 불을 질렀다고 믿어지는 사람으로 수백명의 사람들이 그의 집을 포위했다.

일부에서는 “혼돈”이라고 부르지만, 민중의 창조성은 더욱 폭력적 행동과 나란히 계속됐다. 9월말 라메잡에서 대규모 군중이 모여서 구청의 모든 서류와 문서를 쌓아서 그들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위치로 옮겼다. (덴마크에서, 반아파트헤이트 활동가들은 이런 종류의 행동을 활용했고, 남아프리카 기업체들에 대한 “강제 재배치”라고 불렀다.<sup>70)</sup> 이번 네팔의 경우 싸움은 경쟁그룹과 벌어졌고, 경찰지원부대가 왔다. “무정부상태와 혼돈”은 일부 사람들이 판차야트 체제를 우호적으로 기억하게 만들었다. 한 전직 장관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폭도지배(mob-cracy)가 수립됐다”고 언급했다.<sup>71)</sup> 그는 “사람들이 보석이나 다른 귀금속을 찿 수 없다. 당신은 거리에 걸어가길 두려워하며, 사람들은 더 이상 교통이 쉽게 지나가게 보내주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어떤 사람들에게, 민주주의(prajatantra)는 범죄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았지만, 특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개방은 그들에게 변화에 대한 희망을 줬다.<sup>72)</sup> 1991년 2월 4일 땅이 없는 슈쿰바시(Shukumbasis)들은 도로를 봉쇄하고 구청 건물을 포위했다. 기대했던 총리의 방문이 실현되지 않고 200명의 경찰이 공격했다. 사람들은 반격했고, 경찰을 기차역사로 몰아넣었다. 군중은 해산하기를 거부했고, 경찰은 발포하여 최소한 3명을 죽였다. (활동가들에 따르면 세명이 더 죽었지만, 경찰이 그들의 시체를 숨겼다.)

## 봉기의 시민사회 갱신

1987년 6월항쟁에서 민주세력의 승리가 파업의 해일로 이어졌던 남한처럼, 네팔에서 민주적 발전 이후 즉각적으로 노동자들이 동원됐다. 4월 20일, 노동자들은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고, 파업은 카투만두 계곡의 모든 공장을 강타했다.<sup>73)</sup> 사무직 노동자 그룹이 정

68) Shaha, *Politics in Nepal*, 220-1.

69) Hutt, *Nepal*, 32.

70) See *Subversion of Politics*.

71) Raeper and Hoftun, *Spring Awakening*, 137.

72) Martin Hoftun, “The 1990 Revolution,” in *Nepal in the Nineties*, ed. Michael Hutt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19.

73) Shaha, *Politics in Nepal*, 219.

부청사를 점거했다. 동시에 조직적인 릴레이 단식농성과 게라우스(gheraus: 한 사람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행동)가 일어났다. 과거의 판차는 “아무도 일하지 않고 있다. 어떤 사무실에 가보면, 사람들은 일주일 한번 나와서 출근부에 도장을 찍은 다음 월급을 받는다. 부하직원은 상사에 복종하지 않는다. 간부직원은 상황을 다룰 수 없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모든 곳에서 직원들이 상사에 맞서 책상을 친다. 노동자들은 항상 파업 중이다”라고 말했다.<sup>74)</sup>

5월에 판차야트 시대 관리직들의 해산에 대한 교수들의 요구가 수용됐고, 6월에는 네팔교사협회의 단식농성은 그들의 모든 요구가 충족된 이후에 끝났고, 8월에는 언론인들의 단식파업이 동조적 정부개입을 가져왔다. 9월에 급진적 작가와 화가들이 남성, 친의회당 회원들의 지배 때문에 새로 재구성된 왕립네팔학술원에 항의했다.

1951년과 1979년 사이에 겨우 74건의 파업이 기록됐지만(거의 30년간 1년에 3건 이하), 1991-1992년 128건의 파업이 보도됐다. 다음 해에 25건의 파업이 일어났고, 과거의 평균보다 8배 이상이었다.<sup>75)</sup> (파업의 주된 이유는 임금에 대한 불만이었지만, 소수는 노동시간 단축과 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이었다.)

현장투쟁과 더불어, 종교, 문화, 사회적 갈등이 눈에 띄게 심화됐다. 사실, “마치 모든 카스트, 언어그룹 또는 민족공동체들이 혁명의 끝과 새 헌법의 선포 사이의 6개월간 이런저런 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였다.”<sup>76)</sup> 처음으로 불교도들이 가시적 정치세력이 됐다. 1990년 6월 30일 네팔불교협회는 세속국가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려 카두만두에 약 20,000명의 대열을 이끌었다. 비록 소수이지만, 기독교인들도 세속국가를 옹호했다. 30개의 상이한 민족과 거의 100개의 언어를 가진 네팔사회는 결코 단일하지 않다. 만약 국왕의 전제적 지배로 나라가 통일된 것처럼 보였다면, 민주주의는 깊은 사회적 분열을 폭로했다. 18세기 이래, 고위 카스트 힌두지배는 종교적, 언어적 토대에 의존했었다. 갑자기 단단한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1990년 혁명에 중심적인 파타리, 박타부르, 키르티푸르의 봉기를 이끈 티벳-버마계 네와리들은 몽골, 타망, 마자르족과 함께 자치의 확대를 요구했다. 한 분석가는 “1990년 운동은 여성, 달리트, 기타 하급 카스트 집단, 즉 민족집단, 지역언어적 집단과 종교집단, 수많은 다른 집단에게 비난ascription, 억압과 차별의 낡은 정당성에 도전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정치적 목소리를 주었다”고 결론내렸다.<sup>77)</sup> 민족/카스트 정체성이 이 역동적 시기에 너무 급속히 발전해서 정부의 중앙통계국은 1991년 59개 집단이라고 계산했는데, 이 숫자는 2001년 100개로 거의 두배나 늘었다.<sup>78)</sup>

여성들은 전에 없이 동원됐다. 일부는 즉각적으로 여성의 평등한 재산권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1992년 부트왈의 테라이 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전개됐다. 1995년 전네팔여성협회가 가족 재산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여성의 권리 헌장”을 통과시켰다.<sup>79)</sup> 봉기에서 성장한 그룹 중의 하나인 페미니스트 달리트 조직(Feminist Dalit Organization: FDO)은 네팔 사회가 1990년 이후 변혁된 정도를 보여준다. 1994년 결성된 FDO의 활동가 여성들은 그들이 겪은 억압의 두차원에 대해 대항하려고 노력했다: 여성을 차별하는 가부장제의 가치와, 추가적으로 달리트를 특별한 곤란한 상태에 두는 카스트 체제.

74) Hoftun et. al., *People, Politics and Ideology*, 158.

75) Pushkar Bajracharya, “Trade Union Perspective,” in *The Role of Civil Society and Democratization in Nepal*, ed. Ananda P. Srestha (Kathmandu: Nepal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1998), 20-21.

76) Raeper and Hoftun, *Spring Awakening*, 171-2.

77) Chaitanya Mishra, *Essays on the Sociology of Nepal* (Kathmandu: Fine Print, 2007), 29.

78) Santa B. Pun, “How ‘Inclusive’ Nepal’s Institutions?” in *Peace Building Process in Nepal*, eds. Ananda P. Srestha and Hari Uprety (Kathmandu: Nepal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2008), 89.

79) Gabriele Beisenkamp and Thomas Beisenkamp, *Women of Nepal March Forward* (Kathmandu: Jana Shikshya Griha, 2007), 31.

네팔 국민의 최소한 14퍼센트가 달리트이며, 그들 중 10퍼센트가 공식 빈곤선 이하로 살고 있다.<sup>80)</sup> 그들은 많은 사찰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일상적으로 직업과 임금에서 차별에 직면한다. 농촌에서 달리트는 토지없는 소작농이며, 도시에서 80퍼센트의 성노동자들이 달리트라고 추정된다.

여성의 운동참여는 수많은 가족들이 일상적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게 했다. 하지만 여성의 지위는 크게 억압받는 상태로 남아있다. 여성의 기대수명은 더 짧고, 문자해득율은 남성보다 훨씬 낮다(2001년 65.2 퍼센트의 남성이 글을 읽는 데에 비해 여성은 겨우 42.5퍼센트이다). 추정에 의하면 7,000명 내지 10,000명의 여성과 어린이가 매년 인디아의 6개 직종에 팔렸다. 다른 추정 그보다 열배나 많은, 약 100,000명의 네팔 소녀들이 인디아의 매춘업소에 팔려가며, 그 숫자의 두배나 되는 숫자가 어느 시점이든 그곳에서 일한다.<sup>81)</sup> 농촌 가족들이 자주 현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강제적 어린이 노동은 흔하다. 계약노예로 팔리지 않을 정도로 운 좋은 어린이들도 어린 나이부터 가계와 농장일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주 집에서 일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못한 수많은 어린이들이 평생 문생이며, 대다수는 여성이다. 1992년 강제노동해방이 결성됐고, 8년후 그런 형태의 노예제를 불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sup>82)</sup>

봉기는 반란한 노동자, 농민, 강제노동자, 소수민족들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력으로 활동가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 1974년 네팔 전체에서 겨우 15개의 NGO만이 등록되어 있었다.<sup>83)</sup> 1977년, 왕비를 의장으로 37개 사회서비스 단체들이 전국협의회를 결성했는데, 1990년까지 219개 단체를 포괄할 정도로 성장했다. 1990년 봉기 7년후 NGO들의 숫자는 국립 사회복지협의회에 등록된 5,128개로 늘어났다. 같은 해에 다른 추정치는 20,000개 이상을 계산했고,<sup>84)</sup> 또다른 분석가는 최소한 6,000개의 자발적 NGO들이 있는데 “정당, 그들의 전선적 직업 또는 계급조직, 노동조합, 학생조직, 준정부 지역 및 자치단체들의 네트워크”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sup>85)</sup> 공식적으로 조직된 협동조합의 숫자도 봉기 이후 급증했다. 1992년 이전 총 850개에서 1997년 거의 네배나 많은 숫자(3,200개)가 존재했다.<sup>86)</sup>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나 안돌란으로 새로 발견한 자유와 에너지는 자율적 언론의 엄청난 팽창을 추동했다. 1990년 신문 숫자는 400개 훨씬 이하에서, 1996년 두배 이상 증가해 874개에 이르렀다.<sup>87)</sup>

네팔의 활기찬 시민사회는 1990년 시민봉기를 낳은 데 기여했다. 차례로, 자나 안돌란은 시민사회의 많은 자원을 강화했다: 독립적 언론, 협동조합, 진보적 NGO, 소수민족운동, 페미니즘, 노동운동. 오늘날, 네팔이 계속 새로운 헌법을 추구하면서, 1990년 봉기의 승리에 중심적이었던 새로운 형태의 행동을 창출한 민중의 역량은 여전히 네팔의 위대한 자원 중의 하나이다. 시민사회와 민중봉기의 상호강화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운동건설의 비결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장기적 조직화 노력과 산발적 반란은 추가적이자 보완적일 수 있다. 자주 선택적 용어로 묘사되는 그런 이분법은 아주 전투적 대치정치에 대해 끈기있고 조용한 활동에

80) Yami, *People's War* 141; 2001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인구의 13.8 퍼센트가 달리트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숫자는 훨씬 적다고 생각한다. Prakash A. Raj, *The Dancing Democracy: The Power of the Third Eye* (New Delhi: Rupa and Co., 2006), 57.

81) Yami, *People's War* 188; Sumon Tuladhar, "Gender and Social Change in Nepal," *Society and Education* 1(2007):99.

82) Interview with Subodh Raj Pyakurel, INSEC, Kathmandu, April 13, 2009.

83) D. Chand, "NGO Perspective," in *The Role of Civil Society and Democratization in Nepal*, ed. Ananda P. Srestha (Kathmandu: Nepal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1998), 49.

84) Ibid, 50; similar numbers can be found in Jan Sharma, "Nepal's Faltering Peace Process: Civil Society, Media and International Community," in *Peace Building Process in Nepal*, eds. Ananda P. Srestha and Hari Uprety (Kathmandu: Nepal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2008), 61. 샤프마는 국제 NGO의 숫자를 1990년 221개, 1995년 3,284개, 2005년 약 21,000개로 추산했다.

85) Pokhrel, "Media Perspective," 84.

86) *The Kathmandu Post*, February 22, 1997.

87) G. Pokhrel, "Media Perspective," 86.

특권을 부여한다. 네팔의 1990년 봉기는 족쇄를 푼 민중봉기가 시민사회의 힘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의 생생하고 교훈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 과도정부

1990년 1월, 그해 말 이전에(우연히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날 이후 꼭 1년이 되는 11월 9일) 비렌드라 국왕이 새 민주헌법을 선포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민중봉기는 그에게 완전한 폐위에는 못 미치지만, 다른 어떤 선택을 남기지 않았다. 민중봉기 시에 그러는 것처럼 민중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동원하는 시기에, 시간은 아주 압축되어, 보통 몇 년 걸리는 일이 며칠 안에 완수된다.

거리의 민중들이 군주제의 종식을 호소했고, 보다 급진적인 공산주의자들이 호응하여 외쳤지만, 주류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 했다. 처음부터 정치인들은 MRD의 목표는 입헌민주주의라고 분명히 했다. 1990년 1월 18일 NC 협의회에서, NC엘리트 사이에서 군주제 지지 분위기는 아주 강력해서, 당의 “최고 지도자” 가네시 만싱은 “군주제의 폐지는 네팔에서 민주주의 종식과 다름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했다.<sup>88)</sup>

NC에게서 입헌군주로서 왕좌에 남을 것이라고 확신한 국왕은 마침내 4월 27일 판차야트 체제의 종식을 명령했다. 촌락과 마을 판차야트의 해산은 30년만에 처음으로 정당들이 합법적이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람들이 의회를 투표로 선출할 것임을 의미했다. 물론 정치개혁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농촌의 전통적인 봉건적 관계는 그대로였고, 낡은 판차들은 권력을 유지했고, 카스트는 나라의 대부분에 비천한 삶의 가능성을 계속 노정시켰다. 정의 대신에 사람들은 부패, 차별, 책임부재, 경찰과 지방관리들의 강탈에 부딪혔다. 인플레이션이 급속하게 증가하자, 새로운 정권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경제적 곤경을 개선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됐다.

판차야트 체제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위해 폐지되자, 몇 달이 지나도 아무도 새 체제의 후원 아래 아무도 안정적이라고 느끼지 못했다. 비록 절대군주라기보다 입헌군주이지만, 국왕은 왕궁에 남아있었다. 실제로 관료제의 어떤 행정직도 변하지 않았다. 많은 과거의 판차들이 단지 NC에 가입했고, 일부는 당의 후보로 공직에 출마하기도 했다. 1990년대 초반 NC의 민주주의 공고화전략은 전통적 엘리트들 자신의 대열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판차들의 NC로의 지속적 유입으로 곧 새 헌법이 제정될 즈음 구체제의 성원들이 의회당의 당권파들의 숫자를 능가했다.<sup>89)</sup>

그 밖에도 NC와의 족벌주의는 여전히 노골적이었다. 카투만두에서 당의 후보명단이 발표되자, 사람들은 고참 활동가들이 민주주의 운동의 “사령관”인 가네시 만싱의 부인과 아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충격받았다.

급진적 야당세력은 운동의 분열을 두려워해, 수많은 보통 네팔인들이 희망했던 왕실의 완전한 항복이 아니라 단지 최소강령을 주장했을 뿐이다. NC가 지배한 임시정부에서, 낡은 판차들은 권력의 지위를 유지했고, 과거의 권력남용에 대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봉기 동안 비록 수백명은 아니라도 수십명의 국가 살인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후에 위원회들은 결국 책임있는 경찰과 고위관리들을 지명하고, 심지어 형사고발을 권고했지만,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sup>90)</sup> 1991년 2월, 다섯 명의 고위 관리들이 해임됐지만, 추가적 처벌

88) Hachhethu, “Mass Movement,” 182.

89) Hutt, *Nepal*, 19. Also see Hutt, *Himalayan People's War*, 61 and PPI, Hoftun et. al., *People, Politics and Ideology*, 169.

90) 4월 국왕의 정부는 투쟁 과정에서 가족구성원이 사망한 모든 가족에게 15,000 루피, 심각한 부상자에게 5,000 루피, 경상자에게 2,000 루피를 위로금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시정부는 사망자 위로금을 25,000 루피로 인상했다.

은 이뤄지지 않았다. 남아프리카처럼 어떤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세워지거나 남한과 같은 재판은 결코 진행되지 않았다.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동원된 시민과 새로운 헌법에 동의하는 데 머뭇거리는 국왕 사이에 딱 끼여있던 과도정부는 헌법개정의 과정을 추진했다. NC는 국왕이 “신의 환상”이라는 왕실의 고집을 무시할 의지를 발휘할 수도 없었다.<sup>91)</sup> 세속국가를 지지한 광범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주요 기관들을 통제하던 고위 브라민들은 꼼짝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안도하게, 헌법을 둘러싼 몇 달간의 논쟁이 11월에 끝났고, 선거는 1991년 5월 12일로 예정됐다. 새 헌법은 네팔을 “힌두 군주제 왕국”으로 명명했다. 비록 카스트 차별이 공식적으로 불법이 됐지만, 상이한 민족집단의 38개 모국어의 일부를 학교교육에 수용하라는 요구는 거부됐다. 의회당과 ULF는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지지했고, 새 헌법은 어떤 정당이든 모든 후보의 5퍼센트를 여성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sup>92)</sup> 그럼에도, 군주제, 심지어 입헌군주제의 유지에 대한 그들의 차이는 아주 컸다. 일단 1990년 4월 승리를 얻자, 급진적 공산주의자들은 새 헌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군주제를 폐지시킬 권리를 인민들에게 주도록 강력한 로비를 했다.<sup>93)</sup> 그들은 또한 수많은 총파업(bandh: 도시지역의 경제와 교통 폐쇄)의 선두에 섰고 소수 민족의 권리를 옹호했다. 정치 엘리트들이 왕의 신성을 맹세하는 헌법에 서투르게 타협할 때, 많은 활동가들은 전통적 형태의 정치에서 전화하여 사회변화의 근본으로서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했다. 소수민족집단의 자치, 여성해방, 카스트 차별 모두가 주제가 됐고, 풀뿌리 정치 주도력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

1991년 5월 선거 몇 달전 세계은행, 미국, 일본과 인디아 모두가 탄압에 관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상황을 안정화시켰을지 모르지만, 시위대 살해에 책임있는 관리들을 처벌하거나 심지어 지위에서 해임하지 못한 실패는 이미 불안한 상황에 더욱 불을 질렀다.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IMF 구조조정 체제는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었고, 가난한 자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증가된 빈곤과 곤경을 가져왔다. 동유럽에서 계획경제의 사망은 국제자본의 네팔경제 침투 가속화를 조장했다. 곧 신자유주의 찬송에 할렐루야를 노래하는 전지구적 합창에 동참한 해방된 남아프리카 및 민주적 남한을 포함해서, 나머지 세계와 함께, 조그만 네팔은 자주적 경제발전의 방향으로 급격하게 이탈할 수 없었다.

선거가 다가오자, 정당들 간에 차이는 더욱 확연해졌다. 주로 NC 내부에 국왕과 증가에 대한 ULF의 반대 때문에 1991년 1월 ULF와 NC가 결국 갈라섰다. 이후에 공산주의 세력도 재편됐다. ULF가 분열하여 그중 두 그룹, 온건한 네팔공산당(맑스주의파)[Communist Party of Nepal(Marxist)]와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파)[Communist Party of Nepal(Marxist-Leninist)]가 통합하여, 네팔공산당(통합 맑스-레닌주의파)[Communist Party of Nepal(United Marxist-Leninist)]를 결성했다. 가장 급진적인 공산주의자들은 새로운 통합인민전선(United People's Front: UPP)을 결성했다. 많은 외딴 지역에서 주먹싸움이 많이 벌어진 열띤 선거캠페인에서 학생들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참여할 수 있도록 1달간 휴가를 요구했고 과도정부는 즉각 동의했다.

6명이 사망한 폭력적 대치에도 불구하고, 투표 자체는 질서정연했고, 겨우 40퍼센트의 문자해득율을 가진 나라에서 약 65퍼센트의 유권자들이 투표했다. 선거는 광범하게 공정한 것으로 간주됐고, 선거결과는 모든 정당이 받아들였고, 심지어 극좌파와 판차의 잔당들도 수용했

91) Krishna Hachhethu, “Transition to Democracy in Nepal: Negotiations Behind Constitution Making, 1990,” *Contributions to Nepalese Studies* 21, no. 1 (January 1994):124.

92) 1991년과 1994년 여성들은 모든 후보의 5 내지 6 퍼센트를 차지했고, 하원의원의 4 퍼센트를 차지했다. 상원에는 겨우 3명의 여성만이 있었다. 게다가 한 분석가가 여성의 역할을 요약한 것처럼, 그들에게 오직 한가지 전공, 즉 여성문제만 다루도록 “허용”됐다. See Stephanie Tawa Lama, “Women and Politics in Nepal: Small Actors, Big Issue,” *European Bulletin of Himalayan Research* 11 (1996): 4-7.

93) Raeper and Hoftun, *Spring Awakening*, 188.

다. 비록 영미식 승자독식체제가 대규모 정당에 유리했지만, 공산주의자들은 36.6퍼센트의 득표(의회당보다 약간 적음)로 새 의회에서 약 82석을 얻어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sup>94)</sup> 그들은 카투만두를 휩쓸었고, 과도정부 총리오 가네시 만싱의 부인과 아들에게 승리했다. NC는 거의 모든 지역구에 전국적 후보명단을 제출한 유일한 정당이었고, 다수 의석을 얻었다. 가장 급진적 정당인 UPF도 놀랍게 9석을 얻었던 반면 낡은 판차야트 체제와 연결된 정당들은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겨우 4석(과 12퍼센트 득표)을 얻었다.

표 22: 전국선거결과, 1991년 5월

정당	의석수	의석비율	득표율
네팔 의회	110	53.60	37.75
네팔공산당(통합 맑스-레닌주의파) CPN(UML)	69	33.66	27.98
네팔민주당(찬드) NDP(Chand)	3	1.46	6.56
네팔민주당(타파) NDP(Thapa)	1	0.49	5.38
통합인민전선(UPF)	9	4.39	4.83
네팔 사드바하바나당(NSP)	6	2.93	4.10
네팔공산당(민주파) CPN(M)	2	0.98	2.43
네팔노동자농민당(NWPP)	2	0.98	1.25
무소속/기타정당	3	1.46	9.72
합계	205	100	100

Sources: Hutt, *Nepal*, 78; Hoftun et. al., *People, Politics and Ideology*, 183.

비록 선거가 왕당파들에게 치명타를 가했더라도, 새 정부의 브라민 지배는 불길한 징조였다. 네팔이 결렬한 새로운 투쟁에 돌입하기 것은 단지 시간문제였다. 파업, 작업거부, 항의, 시위 등이 새 정부가 취임하기도 전에 NC 정부를 맞이했다. 선거직후 공무원들이 민주적 발전 이후 세 번째로 파업에 들어갔고, 그들은 “새 정부의 업무 첫 두 달간을 마비시켰다.”<sup>95)</sup>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르자, 경제붕괴가 항상적인 공포가 됐다. 정부는 무력하게 보였고, 부패는 계속 정부를 괴롭혔다. 군주는 “조국을 구하고” 네팔사회 붕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때를 교활하게 기다렸다.

정치인들이 권력의 지위를 두고 경쟁하는 동안, 급진적 공산주의자들은 직접행동을 취했다. 선거 이후 채 2년이 안된 1992년 4월 5일 인민선동 합동위원회가 카투만두에서 30분 소등을 호소했다. 활동가들이 차량을 공격하여 일제소등을 강제하려고 하자 비르병원 외부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다음날, 정부는 카투만두 중심가에서 야외집회를 막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다. 경찰이 공격하자 군중의 일부가 네팔통신 건물을 불태우려고 시도했다. 경찰이 발포하여 최소한 7명을 죽였고(일부는 14명이 죽었다고 추산했다) 수십명 이상을 부상시켰다.<sup>96)</sup> <가디언>지는 “대중적 불만의 물결이 네팔의 신생 민주주의를 탈선시키려고 위협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sup>97)</sup>

1994년 NC가 CPN-UMP보다 가까스로 더 많은 표를 얻자(33.4퍼센트 대 30.9퍼센트), 자칭 맑스-레닌주의들이 이끄는 소수파 연합정부가 구성되어, 네팔은 공산주의 군주제라는 희귀한 사례가 됐다. 1995년과 1999년 사이에 대여섯 연합정부가 권력을 교대했고, 마침내 1999년 선거에서 의회당이 절대다수가 됐다. 2002년까지 12년간의 다당제 의회민주주의는 10개의

94) John Whelpton, “The General Elections of May 1991,” in *Nepal in the Nineties*, ed. Michael Hutt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71.

95) Raeper and Hoftun, *Spring Awakening*, 216.

96) Hoftun et. al., *People, Politics and Ideology*, 189.

97) *The Guardian*, April 27, 1992.

정부를 만들어냈지만, 어느 정부도 네팔을 앞으로 전진시킬 능력을 입증하지 못했다. 하층 카스트 민중들, 소수민족과 여성은 의회에 제대로 대표되지 않았다. (여성은 선출된 의원 중에서 5.6퍼센트 이상을 결코 넘지 못했다.)<sup>98)</sup> 네팔의 경제가 주춤거리자, 2백만명의 젊은이들이 외국에서 직업을 찾아 나라를 떠났다. 의회당 정부들이 점차 억압적인 지배로, 많은 좌파 활동가들이 무기를 들고 싸울 준비를 하게 됐다.

마오주의 지도자 바르부람 바타라이의 추정으로, 1990년 의회개혁을 지지했던 상층계급은 점차 왕당파 진영으로 되돌아간 반면, 하층 계급과 일부 중산층은 인민전쟁 쪽으로 넘어왔다.<sup>99)</sup> 권력의 두 가지 핵심요소인 군대와 국민주권이 왕의 손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1990년 헌법은 치명적 결점이 있었다.<sup>100)</sup>

나아가, 정치엘리트 사이에서 부패가 아주 만연해서, 심지어 미국 패트릭 리어히 상원의원은 네팔의 1990년대 정부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이 나라 정당의 지도자들은 개인적 재산을 축적하고 국민들을 위해 거의 아무것도 안함으로써 유명해졌다.”<sup>101)</sup>

### 마오주의의 추동력

1972년에 이미 좌파와 민주적 경향으로 나뉘어진 네팔의 야당정치는 소수의 다른 나라들처럼 파편화됐다. 심지어 네팔의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이론의 해석과 그것을 실천하는 방식에서 상당히 다른 14개 정당으로 조직돼 있었다. 모두 군주제와 투쟁할 필요에는 동의했고, 그들의 단결은 보다 광범한 운동의 동원에 중요한 추동력이었다. 1909년 이전에 공산주의자들은 네팔에서 실질적 권력이 없었지만, 민중들이 각성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은 군주제, 카스트 지배, 계급지배와 가부장제에 반대하는 명확한 입장으로 많은 새로운 지지자들을 확보했다. 연방주의 개념을 옹호했던 그룹들은 즉각 소수민족에서 많은 당원을 끌어냈다. 네팔 공산주의의 일관된 핵심은 경제적 불평등이었고, 어떤 다른 정당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커녕 우선수위에 들 것 같은 양은 사회에서 하나의 상처였다. 1990년 봉기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중요한 역할은 그들이 새로운 자주적 주도력을 발휘하도록 자극했고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선 거승리를 가져다 줬다.

네팔의 상황에서 공산주의의 독특한 호소력은 문화적 전통의 프리즘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참 활동가이자 파탄의 공산주의 지도자인 툄사 랄 아마타는 설명했다: “우리 고대 시절에 힌두 성인(rishis)이 다음과 같은 격언을 암송하곤 했다. ‘함께 살자, 함께 먹자, 함께 일하자, 우리의 지성이 자라도록, 그리고 서로 시기하지 말자. 친구처럼, 가족처럼 함께 살자’ 그리고 이것은 바로 공산주의가 의미하는 바다.... 아무도 그들이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체제 아래서 고통받지 말게 하라... 부다는 통치자의 원칙은 이 왕국의 눈에 눈물이 맺힌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자 부다가 상징하는 것은 역시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sup>102)</sup>

아타타는 계속 말했다: “공산주의의 평등개념은 연민과 의로운 네와르 왕이란 불교적 개념과 나란히간다.” (1990년 혁명의 성공에 결정적이었던 파탄의 대중봉기도 도시의 네와리들의 민족적 연대로부터 성장했다.)

1990년 혁명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은 여전히 농촌투쟁의 선두에 섰다. 주류 정당들이 카투만두의 새 정부에 들어갔을 때(그리고 대부분 민주적 형태의 대중참여를 건설하는 데 실패했

98) See Birendra Prasad Mishra, *Rebuilding Nepal* (Kathmandu: Bhrikuti Academic Publications, 2007), 176-184.

99) Barburam Bhattarai, *Monarchy Vs. Democracy: The Epic Fight in Nepal* (Noida, India: Samkaleen Teesari Duniya, 2005), 5.

100) Ibid., 43.

101) Patrick Leahy, Speech to the U.S. Senate, September 18, 2007 as quoted in Srestha and Upreti, *Peace Building Process in Nepal*, 1.

102) As quoted in Raeper and Hoftun, *Spring Awakening*, 92-3.



다), 좌파는 농촌으로 이동하여 판차야트 기구의 종말로 남겨진 공백을 채웠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빈민들의 가혹한 상태는 새 정부로 거의 바뀌지 않았다.

가장 급진적인 공산주의 그룹인 네팔공산당(마오주의파)는 1994년 총선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고, 이후 UML정부에서 배제당했다. 1996년 2월 인민전쟁을 전개한 간부와 지도자 85명의 소규정당은 몇 년 안에 5,000 내지 19,000명의 무장 전투원의 인민군(People's Army)으로 성장했다. 1990년 봉기처럼 농촌의 무장반란은 지도부를 포함해서 그 누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지지자들을 얻었다.<sup>103)</sup> 최소한 21개 지구에서, 그들은 “봉건분자들”과 “매판 및 관료적 자본가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를 통해 인민의 정부를 구성했다.

마오주의적 사법체제는 농촌빈민 사이에 광범한 지지를 얻었다.<sup>104)</sup> 마을 수준에서 부의 재분배는 수세대의 노예적 생활에서 해방된 많은 사람들에게 마오주의에 대한 지지를 높였다. 그들은 농민들의 은행부채 기록을 태웠고 마을사람들에게 연간 60퍼센트까지 이자를 부과하는 대부업자들과 세금관리들을 공격했다. 많은 경우 이 대부업자들이 빚을 갚기 위해 빚진 가족들에게 아이들을 성노예로 팔라고 강제했다면, 공산주의 재판은 사형을 선고했다. 마오주의자들은 토지를 재분배했고, 여성을 지도부의 지위에 승진시켰고, 여성만의 전투부대를 결성했고, 어려운 처지의 개인들에게 보통 이자율로 돈을 빌려줬다. 그들은 주사위, 카드, 알콜을 금지했고, 부인에 대한 남성폭력 금지를 엄격히 시행했다. 그들은 군주제가 소수민족에게 강요했던 불가사의한 산스크리트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도록 강제했고, 부자의 자식들만 다니지 못하도록 사립학교의 수업료도 인하였다.

비록 그들이 보통 네팔인을 대표해 발언했지만, 마오주의자들은 인민들 위의 세력으로 남았다. 마오주의 잡지의 뒷 표지에, 당지도자들이 샤 군주의 후계자로 묘사된 사진이 실렸다.<sup>105)</sup> 1990년의 민중운동은 카투만두에서 외부로 퍼져나갔지만, 마오주의자들의 전략은 이 방향을 역전시켜, 농촌의 기반지역을 세우고 수도를 포위하는 것이었다. 2002년 5월, 공식적 추산에 의하면 마오주의자들이 전국의 25퍼센트를 통제했다.<sup>106)</sup> 2003년까지 그들은 대토지 소유자들의 거의 모든 토지를 장악했지만, 왕립네팔군(Royal Nepalese Army: RNA)은 사람들이 그 땅을 경작하는 것을 막았다. 2006년까지 마오주의자들의 중국의 권력장악 경로(확보한 기반지역에서 장기적 인민전쟁)의 채택은 아주 성공적이어서, 그들은 농촌의 절반 이상을 통제했고 그들의 무장투쟁을 수도로 가져갈 위치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고, 수도에 그들은 이미 많은 사업체들에 자신만의 세금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sup>107)</sup> 2005년까지 통합혁명인 민평의회(URPC)는 새 정부의 맹아로 믿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마오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은 우려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2년 5월 2일 데우바 총리에게 “가서 그들을 잡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끝내시오”라고 지시했다.<sup>108)</sup> 미국은 군사 지원으로 2천만 달러 이상, 그리고 전쟁수행을 지원한 개발원조로 4천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했다.

네팔의 다른 많은 정치적 경향들처럼 마오주의 반란의 구체적 선구는 인디아에서 추적할 수 있고, 이 경우는 1967년 지주들에 맞선 낙살바리 무장투쟁의 폭발이었다. 네팔에서 낙살파에

103) Interview with Shalik Ram Jamkattel, Kathmandu, April 12, 2009.

104) See Sudheer Sharma, “The Maoist Movement,” in *Himalayan People's War: Nepal's Maoist Rebellion*, ed. Michael Hutt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4), 43-7.

105) Marie Lecomte-Tilouine, *Hindu Kingship, Ethnic Revival, and Maoist Rebellion in Nepal*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219.

106) Arjun Karki and David Seddon, eds., *The People's War in Nepal: Left Perspectives* (New Delhi: Adroit Publishers, 2003), 43.

107) Raj, *Dancing Democracy*, 22.

108) Bush quoted in Jan Sharma, “Nepal's Faltering Peace Process: Civil Society, Media and International Community,” in *Peace Building Process in Nepal*, eds. Ananda P. Srestha and Hari Uprety (Kathmandu: Nepal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2008), 70.

영감을 받은 최초의 투쟁은 1971년 네팔 남동부의 자파 주변지역에서 벌어졌고, 거기에서 반란이 진압되기 전 “계급의 적” 7명이 제거됐다.<sup>109)</sup> 1990년대 중반 시작된 마오주의 캠페인의 과정에서 사망자의 숫자는 13,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8,000명은 RNA와 경찰의 손에 5,000명은 마오주의자들에게 살해됐다.<sup>110)</sup> 실종자 5,000명이 더 있었다. 미국이 훈련시킨 RNA이 그들이 수천명의 “마오주의 혐의자”를 살해하면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되풀이해 자행했다. 인권조직들은 정부의 초사법적 살해로 희생당한 약 2,000명이 2001년과 2004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의 극히 적은 일부”일 뿐으로 추산했다.<sup>111)</sup> 세계은행은 전쟁으로 인한 재산파괴가 1996년 2월과 2002년 5월 사이에 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고, 네팔의 GDP는 2001년에서 2002년으로 감소했다.

## 2002년 10월 4일 궁정쿠데타

2001년 6월 1일 궁정의 유혈학살로 비렌드라 국왕과 그의 가까운 모든 가족이 살해당했고, 가넨드라가 새로운 군주로 선포됐다. I비록 왕자들 중의 한명이 살인자로 비난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왕이 책임이 있고, 선왕이 마오주의자들과 비밀회담을 했고 군대가 게릴라들에 대해 결정적 행동을 취하도록 허가하지 않았던 것이 살해의 동기였다고 믿었다.) 1990년 헌법의 아킬레스의 건은 제115조로, 이는 국왕에게 비상사태를 선언한 권한을 부여했다. 2002년 5월 22일, 가넨드라 국왕은 국회를 해산했고, 몇 달후 10월 4일 그는 절대권력을 장악했다. 엄격한 언론검열을 강행하는 외에도, 그의 정부는 수도와 주변, 다른 지구에서 어떤 종류의 집회, 행진, 농성과 집회를 금지했다. 일단 국왕이 카투만두에서 집회의 자유를 폐지하자, 전제적 통치에 반대하는 운동이 다른 도시로 퍼졌다.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시위 하러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여행제한이 실시됐다. 임의적 체포와 플라스틱 총탄의 사용은 일상적 사건이 되자, 전문직, 특히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운동에 참여했다. 많은 시위는 전네팔자유학생연맹이 주도했고, 연맹 적청황 삼색기는 거리로 나섬으로써 경찰의 야만적 탄압과 체포의 위험을 무릅쓸 만큼 충분히 용감한 사람들에게 집회장이 됐다.

2005년 2월 1일, 국왕은 농촌에서 마오주의 반도들의 위협이란 핑계를 이용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전화선은 끊겼고, 총리와 다른 정치지도자들은 구금됐다. 위성은 폐쇄됐고, 언론은 검열받았고, 공항은 폐쇄됐다. 사흘 뒤, 군대 헬리콥터가 포카라에서 시위하는 학생들에게 발포해 15명을 부상시켰다. 10개월 안에 6,000명 이상이 보복적으로 체포됐고, 많은 사람들이 비밀 구치소에 의료적 치료도 못받고 갇혔다. 운 좋은 활동가들은 인디아로 도망가서 재조직했다. 네팔은 국왕의 강철군화와 마오주의자들의 철권 사이에 갇혀 파국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였다.

다가오는 재난의 손아귀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7대정당동맹(Seven Party Alliance: SPA)이 결성됐다.<sup>112)</sup> 네팔에서 정당에 소속하는 것이 다시 불법이 됐기 때문에, 가넨드라는 SPA 회원들을 찾아내려는 시도로 가정집과 사업체에 대한 수없는 습격을 명령했다. 혐의자들은 운동계획과 조직원에 관한 정보를 실토하도록 구타당하고 고문당했다. 2005년 11월 22일, 인디아 정부의 격려로 SPA와 마오주의자들이 군주제에 반대하여 단결하는 합의에 서명했다. 정당들은 헌법을 개정할 권한을 가진 제헌의회 선거를 개최하기로 약속했고, 마오주의자들은 야당제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기로 약속했다.

109) Deepak Thapa, “Radicalism and the Emergence of the Maoists,” in *Himalayan People’s War: Nepal’s Maoist Rebellion*, ed. Michael Hutt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4), 33.

110) Interview with Professor Lok Raj Baral, Kathmandu, April 15, 2009.

111) Human Rights Watch,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Civilians Struggle to Survive in Nepal’s Civil War,” vol. 16, no. 12 (2004), <http://www.hrw.org/reports/2004/nepal1004/nepal1004.pdf>.

112) 7대정당연합(SPA)에는 네팔 의회당(NC), 네팔의회당(민주파), 네팔공산당(통합맑스-레닌주의파)(CPN-UML), 네팔노동당(NWPP), 네팔선의당(NGP), 통합좌파전선(ULF), 인민전선(PF)이 가입했다.

야당이 호소한 총파업(bandh)이 2006년 1월 24일 카투만두를 정지시켰다.<sup>113)</sup> 2006년 1월 일방적 휴전을 철회한 마오주의자들은 2월말 일주간의 또다른 총파업을 주장했고, 군사적 힘을 사용하여 카투만두를 봉쇄했고, 3월 14일부터 교통을 마비시켰다. 19일 그들은 봉쇄를 해제하라는 SPA의 요청에 동의했고, 또한 4월 16일에 시작할 4일 총파업에 참여했다.<sup>114)</sup> 2월 그들은 예정된 지방자치선거를 보이콧하고 새로운 민중봉기를 준비했다. 2006년 1월 19일 국왕의 지방선거에 반대하는 계획된 시위 하루 전에 경찰은 100명 이상의 활동가들을 검거했다.<sup>115)</sup> 일련의 대치는 2월 중순까지 이어졌고, 수백명 이상이 체포됐고 경찰은 공개적으로 시위할 만큼 과감한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발포했다. 아시아 인권위원회(AHRC)는 2005년 3월과 2006년 4월 사이에 최소한 800건의 고문사례를 기록했다.<sup>116)</sup>

## 자나 안돌란 2 - 2006년 록탄트라 안돌란

4월 6일, 네팔력에 따르면, 최초의 자나 안돌란 꼭 16년 후에, 민주주의운동의 지도부가 대거 동원했다. 비록 그들은 처음에 또 다른 지속적 인민봉기를 호소하지 않았지만, 자율적 풀뿌리 주도력은 계획된 전국적 4일 총파업을 마침내 군주제를 몰아낸 19일 봉기인 자나 안돌란 2(Jana Andolan 2)으로 변혁시켰다. 1990년처럼, 민중은 커다란 위협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거리로 나섰고, 많은 사람들이 구타당하고 체포당했으며 21명이 사망했다. 다시 한번, 필요한 것에 대한 보통사람들의 비전은 지도적 정당들보다 더 급진적이고 정확했다. 이번에 마오주의자들의 무장투쟁이 비무장 반란을 보완했다. 다른 어떤 요소보다 더 결정적이었던 것은 민중들이 압도적 국가권력에 굴복하길 완강히 거부해서 승리했다는 점이다. 전국적 총파업은 교통을 정지시켰고, 나라 전체를 변혁했다. 그 정점에서 5백만 명이 참여했고, 수백만 이상이 열정적 희망을 갖고 지켜봤다.<sup>117)</sup> 군주제 측에서 국왕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의지는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 모두 자나 안돌란 2의 21인 열사와 더불어, 18명이 실종됐고, 3,723명이 부상당했고, 2,979명이 체포됐다.<sup>118)</sup>

시위의 처음 며칠 동안, 겨우 몇천명이 거리에 나섰지만, 봉기가 전개되면서 그들의 숫자는 급속하게 증가했다. 4월 5일 공안세력은 거의 모든 정당 지도자들, 약 50여명을 검거했고, 정부군은 샵타리에서 평화롭게 시위하던 다르산 랄 아다브를 살해했다. 다음날, 계획된 총파업 첫날, 최소한 17명의 언론인을 포함해 450명 이상이 카투만두에서 체포됐다. 대량체포가 시위를 방해하는 데 실패하자, 경찰은 곤봉을 사용하여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구타로 거리를 진정하는 데에 실패하자 총탄이 사용됐지만, 아무도 자유에 대한 민중의 열망을 제지할 수 없었다.

비무장 민중운동이 군대와 직면했던 1990년 봉기와는 달리, 2006년 자나 안돌란에는 마오주의자들이 이끄는 농촌의 무장투쟁이 역동적 민중동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 두 가지 이질적인 반정부 경향의 통일은 사회운동이 심하게 분열된(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서로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나라들에서 알려지지 않은 힘과 탄력성을 네팔운동에 주었다. 4월 3일 마오주의자들은 카투만두 계곡에 일방적 휴전을 선포했다. 수도로 통하는 길의 봉쇄를 시행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곳에서 군사적 공격을 개시했다. 4월 6일 밤, 그들은 말란가와 마을을 급습하여 197명을 죄수를 석방했다. 야간투시경을 갖춘 정부 헬리콥터가 추락했고, RNA는 기술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던 반면, 마오주의자들은 자신이 격추시켰다고 주장

113) Ayaz Muhammad, "Nepal: *Jana Andolan and Its Challenges*," *Nepali Journal of Contemporary Studies*, 6, no. 2 (2006): 4.

114) Mishra, *Rebuilding*, 168.

115) Asia Human Rights Commission, *The State of Human Rights in Eleven Asian Nations—2006* (Hong Kong, 2006), 133.

116) *Ibid.*, 139.

117) Roshan Chitrakar, "Education for Social Transformation," *Society and Education* 1 (2007): 10.

118) Kundan Aryal and Upendra Kumar Poudel, *Jana Andolan-II: A Witness Account* (Kathmandu: INSEC, 2006). 이는 최소 수치이다. 다른 소식통은 22명이 사망했고, 4,000명 이상이 중상을 당했다고 보고한다. See Anirban Roy, *Prachanda: The Unknown Revolutionary* (Kathmandu: Mandala Book Point, 2008), 135.

했다. 4월 8일 수천명의 게릴라들이 부트왈과 카필파스투를 공격했고, 더 많은 죄수를 석방했고, 군기지와 경찰서를 파괴했다. “무장투쟁이 없었다면, 2006년 승리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마오주의 지도자 샬리크 팜 잠카텔이 카투만두에서 필자에게 말했다.<sup>119)</sup>

운동의 조정된 군사공격과 총파업은 질적으로 높은 수위의 위협을 군주제에 가했고, 국왕은 거리집회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폭력으로 대응했다. 4월 7일, 의료계 인사들이 은행 및 통신 노동자들과 함께 시위에 가담했다. 총파업을 위반한 택시들이 파손되기도 했다. 4월 8일 국왕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통행금지를 명령했고, 시위대가 보이면 사살하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대대적 배치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많은 곳에서 통행금지를 무시했고 수십명이 부상당했다. 포카라에서, 최소한 한명이 사살당했고 두 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바라트푸르에서 베란다에 앉아있던 여성들이 경찰총격으로 부상당했다. 치트완에서 50,000명 이상의 시위대들이 정부청사를 점수해서 몇 시간 동안 점거했다.

다음날 SPA는 시위를 무기한 계속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중들에게 세금지불을 거부하라고 호소했다. 바네파에서, 경찰이 발포해서 한 사람이 죽고 세 명이 부상당했다. 자나푸르에서 거의 1천명의 담배공장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지지하여 파업에 들어갔다. 파라시에서, 통신, 은행, 전기 노동자들과 기타 공무원이 모두 시위에 참여했다. 치안세력은 포카라와 시낙자를 포함한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발포해서 3명을 죽이고 최소한 26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혔다.<sup>120)</sup>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끌려들자, 의료 노동자들은 많은 지구의 병원에서 시위를 조직했다.

정부의 통행금지가 연장되도 사람들이 계속 거리에 머물자, 경찰은 가정집을 침입하기 시작했다. 풀초우크에서, 경찰은 엔지니어 협회의 평화적 집회에 발포했다. 포카라에서, 대학과 학교 교사들이 수많은 부상에 항의하여 통행금지를 무시했고, 수십명이 체포됐다. 전국의 언론인들도 언론자유와 동료 수십명의 투옥에 항의했다. 그들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하게 구타당했다. 카투만두에서 500명의 의사들이 집회를 가졌고, 최소한 9개 지구에서 내과의사들도 집회를 가졌다.

4월 11일 시위 6일째 SPA는 무기한 총파업을 호소한 반면, 국왕은 통행금지를 연장했다. 20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곤가바우에 총격으로 부상당했다.<sup>121)</sup> 랄릿푸르에서 주민들은 치안세력이 발포하자 그들을 쫓아냈다. 포카라에서 경찰은 다시 수천명의 집회에 발포했다. 타멜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한 9명의 관광객들이 체포됐다. 경찰은 카투만두 바네시와르 구에서 열린 시낭송회에 발포했다.<sup>122)</sup>

4월 12일 전문직들이 계속 동원하자, 경찰은 수십명의 교수, 언론인, 교사, 변호사들을 체포했다. 포카라에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문직협회의 집회는 239명의 체포로 끝났다. 13일 평화적으로 모인 변호사들에게 고무총탄이 발포됐고, 세 명이 부상당했다. 경찰이 곤봉으로 공격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고, 네팔변호사협회가 조직한 변호사 1,000명의 집회에서 70명이 체포됐다.

4월 9일에서 21일까지 시위가 추동력을 확보하자, 거리의 사람 숫자는 300,000명으로 증가했다(일부는 50만명이라고 주장했다). 4월 10일 비르캄 삼바트의 날(네팔의 새해) 대규모 군중들이 수도의 거리로 홍수처럼 몰려나왔고, 전국적으로 수백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다음 날 밤, 더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부상당하는 와중에, 군인들이 의과대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군대는 포카라에서 한 시위자를 사살했고 군대의 총탄은 많은 다른 사람들을 타격했다. 앰블런스와 의료노동자들이 부상자를 신는 허가를 거부당했지만,

119) Interview with Shalik Ram Jamkattel, Kathmandu, April 12, 2009.

120) Asia Human Rights Commission, *State of Human Rights*, 146.

121) This is a minimal number. Other sources reported 200 wounded. See Poudel, *Jana Andolan-II*, 1.

122) Raj, *The Dancing Democracy*, 31.

그들은 부상자를 보살피기 위해 군대의 보복에 두려움 없이 맞섰다. 바리케이드와 불타는 타이어는 수도의 어느 곳에서나 보이는 것 같았다. 교외에서 민중들은 정부 세무관서에 불을 질렀다. 언론인들이 다시 한번 검거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구금중 발로 채이고 주먹에 맞았다고 보고했다.

1990년보다 훨씬 더 많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동원됐다: 농민과 노동자, 도시빈민, 여성단체, 문화노동자, 학생, 교수, 엔지니어, 변호사, 회계사, 은행직원, 운수 및 정부관청 노동자 등. 그들의 봉기 참여는 봉기에 새로운 성격을 부여했고, 단지 네팔의 도시 엘리트들의 상이한 부분에 기반한 정당의 도구가 아니라, 봉기를 민중들의 운동으로 만드는 중요한 세력이었다. 농민들은 마을에서 도시와 대도시로 가서 시위했다. 배우들은 반정부 연극을 공연했고, 음악가들은 새로운 운동을 자극하는 가사로 친숙한 멜로디를 노래했고, 코미디언들은 웃음과 아이러니를 무기로 사용했으며, 시인들은 말을 통해 영감을 줬다. 사람들은 야외에서 시위가 허용되지 않으면, 그들은 정부 청사를 점거했다. 행진과 집회 외에, 다른 전술에는 파업, 농성, 촛불시위 등이 포함됐다. 모든 곳에서 차량교통이 중지됐고, 온 나라가 정지했고, 이로써 모든 것이 변했고 또는 그런 것처럼 보였다.

표 23: 자나 안돌란 1과 2의 비교

<i>Jana Andolan 1</i> (1990년)	<i>Jana Andolan 2</i> (2006년)
주요 도시	주요 도시에 한정되지 않고 농촌지역에서도, 대규모 민중참여
중하 중산층	전례없는 숫자
정치적 변화: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정치적 변화: 입헌군주제에서 공화국으로
단일체제	연방체제
힌두국가	세속국가
49일	19일
<i>판차야트체제 전복됨</i>	군주제 종식

1990년 봉기에서 경험을 축적한 민중들은 승리 때까지 계속 투쟁할 필요성을 잘 이해했다. 프라카시 만싱은 2006년 봉기를 “지속적”(sustained and durable)이라고 묘사했다: “이것은 국왕에 대한 마지막 봉기여야 한다!”가 우리 모두가 동의한 바였다.”<sup>123)</sup> 시위금지가 총탄과 곤봉으로 강제되더라도 군대와 경찰에 대해 우위를 가질 수 있음을 알게 된 야당은 모든 체포와 사상자를 계산하기로 결정했다.

2006년 4월 13일, 약 1,500명의 변호사들이 카투만두 근처에서 평화적 촛불집회를 수행했다. 경찰은 집회에 발포하여 두명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다른 50명에게도 부상을 가했다. 그들은 그런 다음 72명 법률 노동자들을 체포했고 나머지 시위대를 몰아내려고 최루가스를 발사했다. 이에 대응하여 네팔변호사협회는 구속자들이 석방되고 발포관련 경찰이 처벌될 때까지 모든 법원 사건을 보이콧하기로 결의했다. 그날 늦게 NGO 활동가들이 모인 경기장에서 1백명이 체포됐다. 2백명의 언론인들이 검열에 항의하자, 경찰은 그들의 평화적 집회를 공격했고 20명을 체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다. 6일간의 시위 후에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네팔 언론인 97명이 체포됐고 23명이 부상당했다고 집계했다.

대량체포는 4월 14일과 15일에도 계속됐고, 특히 바글룽 지역과 비랏나가르에서 그랬다. 정당들이 랄릿푸르에서 평화적 시위를 개최하자, 경찰이 발포해서 1백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당했다.<sup>124)</sup> 4월 16일 시위가 계속 수그러들지 않자, 경찰은 평화적 집회에 발포를 재개했

123) Interview with Prakash Man Singh, Kathmandu, April 12, 2009.

고, SPA는 네팔인들에게 세금지불을 거부하고 왕실에 속한 모든 사업체를 보이코트하라고 호소했다. 수천명의 여성들이 가이가트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행진했고, 행진 끝에 최소한 5,000명이 집회를 가졌다. 탕세에서도 수천명의 여성들이 행진했다. 타멜에서 수천명의 관광 산업 노동자들과 기업가들이 정부의 탄압에 항의했다. 치트완에서, 2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SPA 집회에 참석했다.

다음날, 치안세력이 전국적으로 100명 이상을 부상시켰다. 바라의 니가디에서 사람들이 국왕의 허수아비를 불태우자 100발 이상의 총탄이 발사됐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한명이 죽었다. 카투만두에서 경찰이 늦은 오후에 발포하여 수십명이 부상당했다. 추치체파티(카투만두)에서 약 30여명의 여성들이 꽃과 음식을 치안대원들에게 가져가서 폭력사용을 중지해 달라고 부탁했다.

[사진 26]

여성들이 꽃을 가져가서 치안세력에게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설득했다. Photo by Shruti Shrestha in Kunda Dixit, *A People War: Images of the Nepali Conflict 1996-2001* (Lalitpur, Kathmandu: Jagadamba Press, 2006), 186.

한편 치트완에서 경찰이 발포하여 수십명이 부상당했다. 카브레에서 여성들이 집회를 했고, 다른 수습 곳에서 사람들이 거리에 나서서 격렬한 탄압에 부딪혔다. 타나훈의 총격과 마마울리의 곤봉으로 다섯 명이 부상당했다. 카투만두에서 대법원 직원들이 1시간 동안 농성을 했고, 검은 완장을 썼다. 은행 노동자들도 항의했다. BBC는 부트왈, 네팔간지, 바이라와에서 100,000명 이상의 군중이 모였다고 보도했다.<sup>125)</sup>

4월 18일 1명이 사망하고 1백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약 36명의 시위대가 사바그리하 초우크에서 경찰 총격으로 부상당했다. 시위가 3주째로 넘어가자, 모랑 교도소에서 고문이 보고됐다. 실탄과 함께 고무총탄이 계속 사용됐고, 부상자 수는 극적으로 증가했다.<sup>126)</sup> 비록 언론은 점차 제한됐지만, 전국적으로 수습건의 집회가 열렸다.

1990년처럼 봉기는 정당들을 합법화할 도구로서 시작됐고, 민중들의 운동으로 성장했다. 달리트와 더불어, 노동자, 교사, 의사, 엔지니어, 장애인 단체, 공무원, 대법원 직원과 변호사 등 모두가 시위에 참여했다. 운동 참여가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시위대로 확장되자, 민중의 꿈과 열망도 커져갔다. “달리트, 여성, 소수민족을 해방하는 미래의 의제가 거리의 민중들에 의해 제기됐다. 정당들이 이 노력을 선도했던 것이 아니다.”<sup>127)</sup>

1990년과 달리, 경찰과 군대는 사람들이 거리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결연하게 싸웠다. 많은 경우에 질서의 세력들은 사람들을 집안까지 쫓아가 감히 공개적으로 시위했다고 그들을 구타했다. 4월 19일 경찰은 의대 기숙사에 난입하여 그날 일찍부터 시위를 구경했던 학생들을 격렬하게 구타하는 정도까지 갔다. 자파에서는 RNA가 진압하면서 두 명이 총에 맞아 죽었고 수백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반케에서 한 명이 죽었다. 라디오 네팔 직원들도 시위에 참여했다. 네팔간지에서 경찰이 100,000명 이상의 집회를 공격해서 한 여성이 최루탄을 얼굴에 맞아 죽었다.

다음날, 연장된 통행금지를 무시하고 100,000명에서 300,000명으로 추정되는 시위대가 도시 둘레의 4차로 순환도로를 채워서 카투만두를 포위하라는 SPA의 호소에 응하여 평화적으로 모였다.<sup>128)</sup> 국왕이 집회를 금지했던 지역 밖에서도 도발이 없어도 경찰과 군인들은 칼란키

124) Poudel, *Jana Andolan-II*, 75.

125) Raj, *The Dancing Democracy*, 32.

126) Asia Human Rights Commission, *State of Human Rights*, 147.

127) Interview with Professor Lok Raj Baral, Kathmandu, April 15, 2009.

128) Poudel, *Jan Andolan-II*, 49.

에서 발표하여 3명을 죽이고 최소한 1백명을 부상시켰고, 거의 10여명은 치명상을 입었다. (다음날, 희생자 가족들은 치안세력이 그들에게 희생당한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이 마오주의 자라고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헛수고를 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응한 대규모 시위대는 경찰에 시신을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 27]

마다브 쿠마르 네팔이 칼란키에서 군중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Photo by Bimal Chandra Sharma.

칼란키 대학살 이후로, 시위의 규모는 훨씬 더 극적으로 팽창했다. 4월 21일, “사람들의 바다가 수도로 밀려들었다.”<sup>129)</sup>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국왕을 교수형에 처하라!”가 많은 시위자들에게 인기있는 주문(mantra)였다. 소식통들은 1백만명의 사람들이 통행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참여했다고 주장한다. 포카라에서 거의 100,000명이 항의행진에 참여했다.<sup>130)</sup> 그 날 저녁 인디아 특사와 만난 다음, 가넨드라 국왕은 수그러든 것처럼 보였다. 텔레비전 연설에서 그는 의회의 재소집을 허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SPA의 크리시나 프라사드 코일랄라에게 새 총리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4년 훨씬 이전에 그가 해임했던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 궁정은 왕실가문의 1990년 헌법에 따라 지위를 유지하기를 원했다(헌법은 국왕과 가족을 법률 위에 두었다). 국왕의 교묘한 수법을 충분히 알고 있던 SPA는 더 이상의 시위를 취소하기로 동의하기 이전에 의회의 완전한 복귀, 과도정부, 새 헌법이 틀을 작성할 회의를 주장했다. 특히 마오주의자들은 군주제를 폐지할 권한을 가진 제헌의회를 주장했다. 거리의 구호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요구했고, 지도자들에게 타협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많은 사람들은 왕국과의 어떤 합의로부터 자주적으로 행동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UML의 지도자인 마다브 쿠마르 네팔은 국왕이 “민중의 힘이 보여졌다”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 의회를 복권하는 것에 대해 SPA가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1990년 봉기와 대조적으로, 이번에 농촌의 무장투쟁은 수도의 봉쇄와 연료 및 식량의 부족을 의미했다.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학교들은 폐쇄됐다. 사무실들도 닫혔다. 상점들은 예측할 없는 시간에 열렸다 닫혔다. 등유는 아주 귀해져서 중심가 한 어머니는 월요일에 저녁으로 감자튀김과 같은 네팔요리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시장은 왕궁의 통행금지 변덕에 따라 열려서,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다른 날은 오전 11시에 열렸다.... 연료트럭은 총파업 때문에 수도에 들어갈 수 없었고, 총파업이 차량이동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소수의 열린 주유소에서, 이른 아침부터 뱀처럼 긴 줄이 거리로 이어졌다. 파업으로 농촌에서 상품을 실어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토마토 가격은 3주 만에 네 배로 뛰었다. 도시의 도매야채시장 한 일당 노동자는 더 이상 하루에 두 끼를 먹을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sup>131)</sup> 시민들이 전던 곤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궁과 정당들이 때 이르게 봉기를 끝내도록 내버려둘 분위기는 아니었다. 4월 22일과 23일 수백만명의 네팔인들이 거리로 가서 시위했다. 마다브 쿠마르 네팔은 4월 22일에만 5백만명의 네팔인(3천만명 이하의 인구 가운데)이 시위했다고 추정했다. 2009년 4월 12일 카투만두에서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인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묘사했다: “2,500백만 인구 중에서, 5백만명이 거리에 있었고, 또 다른 5백만명이 옥상에서 환호했고, 1천만 명이 운동이 성공하길 희망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그 결정적 순간에 인디아, 미국, 중국, 유럽에서 국왕과 타협하라는 압력이 왔지만, “우리는 왕이 우리 앞에 머리를 숙일 때까지 멈추길 거부했다”고 기억했다.<sup>132)</sup> 나라 전체가 거리에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치트완의 여성 100,000명은 주목할 만한 부대였고, 네팔 역사상 전적으로 여성으로 이뤄진 최대의 행진이었다.<sup>133)</sup> 일요일인 4월 23일, 가넨드라가 “혼돈과 무정부상태”를 미연에 방지할 대규모 군사

129) Ibid., 2.

130) Ibid., 130.

131) Somini Sengupta, “In a Retreat, Nepal’s King Says He Will Reinstate Parliament,” *New York Times*, April 25, 2006.

132) 2009년 4월 12일 카투만두에서 했던 다르하브 쿠마르 네팔과의 인터뷰 도중, 그는 필자에게 자나 안돌란 2 이전에 광주를 방문했고 “민중의 영웅적 투쟁에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133) Ameet Dhakal, “Triumph of People Power,” *Republica*, April 24, 2009, 1.

작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육군참모총장과 외무부 장관을 인도대사에게 보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디아인들은 가넨드라의 요청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심지어 그 선택에 대해 생각이라도 해보라고 질책했다.<sup>134)</sup>

군주제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 이해하는 보통사람들의 역량 때문에 그들은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 4월 22일 봉기의 이번 정점에, 200명 이상의 시위대가 총격으로 부상당했다. 영웅적 투쟁은 민주주의에 유리하게 힘의 균형을 바꿨다. 4월 23일 관련된 위협을 충분히 잘 아는 민중들은 왕궁으로 행진했다. 경찰이 총탄과 최루가스로 공격했을 때, 최소한 23명이 치명상을 입었고 수백명 이상이 병원으로 후송됐다. 입으로 퍼진 소문은 사람들이 재결집해서 2백만 명이 이를 뒤에 왕국을 습격할 것이라고 했다.<sup>135)</sup> 24일 저녁, 1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리로 모여들었다. 다시 군주제를 겨냥해서 수천명의 목소리가 “국왕을 교수형에 처하라!”와 “왕관을 불태워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날 밤 마오주의자들은 카투만부에서 북쪽으로 겨우 75마일 떨어진 차우타라에서 통신탑을 포함한 정부시설을 공격했다.

마침내 24일 늦게 더 많은 시위자들이 죽고 수백명이 부상당한 이후에 가넨드라 국왕은 수그러들어 국회(2002년에 그가 해산했던)를 복권하고 헌법에 관한 국민투표를 허용하는 데 동의했다. 국왕의 25일 선언 이후에, 사람들은 거리로 달려나와 힘들게 쟁취한 승리를 격렬하게 환호했다. 민중들이 지도자들에게 국왕과의 타협을 받아들이지 말하고 계속 외치는 가운데, SPA는 총파업을 철회했다. 승리집회가 몇주일 동안 이어졌다.

[사진 28]

2006년 6월 2일 카투만부에서 마오주의자들의 승리 집회. Photo by Narendra Shrestha in *A People War*, 204.

국왕이 공개적으로 패배를 시인하기 전에, SPA 소속 7개 정당 가운데 3개의 대표들이 한 서구 외교관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묘사한 모임에서 미국대사 제임스 모리아트리와 만났었다. 미국은 마오주의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분류했고, 가넨드라의 야만적 비타협성이 단지 마오주의자들에게 더 많은 지지자들을 가져올 뿐이라고 우려했다. 4월 25일 선언 이후에, 미국무부는 국왕에게 즉각 권력을 의회에 이양하고 국가의 통치에서 예식적 역할만을 담당하라고 요구했다. SPA는 K.P. 코이랄라의 막내 아들이자 노약한 80대 기리자 프라사드 코일라라를 새 정부의 지도자로 선택했지만, 마오주의자들은 이의를 제기하며, 새 의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전상태(status quo ante)를 회복할 뿐이라고 말했다.

마오주의자들은 “이른바 국왕 포고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7대 정당의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카투만부의 봉쇄로 계속 투쟁하면서 제헌의회를 압박하겠다고 맹세했다.

네팔이 새로운 균형을 찾으려고 애쓰는 동안, 외국의 영향은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요소였다. 비록 중국은 군주제를 지지했지만, 가넨드라에게 매우 적은 지지를 제공했다. 그가 곧 왕좌를 잃을 것이라고 느낀 중국인들은 국왕에 대한 지지를 보류함으로써 그들은 어떤 정당이 통제력을 장악하든 그들과 동맹 맺는 것이 매우 쉬울 것임을 알고 있었다. 미국은 처음에 국왕을 지지했고 SPA에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경고했다. 미국은 네팔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고 네팔에 강력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길 원했다. 민중운동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미국은 입장을 바꿔 국왕에게 국회가 책임지도록 허락하라고 경고했다. 인디아는 지속적으로 네팔을 어린 동생으로 본다. 2003년까지 인디아는 네팔에 2,580만 달러 어치의 무기를 공급했고, 무기거래로 1,29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쓸 계획이었다. 수많은 네팔 난민이 인디아에 있어서, 인디아는 저임금 공장노동자로서 그들의 지위 때문에 이득을 본다.

134) Ibid., 3.

135) Roy, *Prachanda*, 135.



민중들이 국왕의 약속을 대규모 시위를 중단할 충분한 근거로 받아들일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사는 주로 젊은 시위자들이 군주제 종식과 공화국 창출을 요구함으로써 정당들보다 더 나아갔다고 지적했다.<sup>136)</sup> 4월 25일자 온라인 보도는 이렇게 말했다: “공식적으로 총파업은 SPA에 의해 해제됐다.... 그러나 거리에서 모든 것은 여전히 ‘정상’은 아니다. 과거를 충분히 알고 있는 수천명이 여전히 SPA 지도부에게 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그냥 프라자탄트라(Prajatantra:민주주의)가 아니라 록탄트라(Loktantra: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경고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sup>137)</sup> 군중들은 계속해서, “왕관을 불태워라!”와 “국왕을 교수형에 처하라!”라고 외쳤다. 한 시위자는 경고했다: “우리는 단지 왕의 패배를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만약 인민을 배신하면 바로 이 군주들이 그들을 살려두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sup>138)</sup> 거리의 분위기는 큰 기쁨에 젖어 있었다. NC중앙위원인 람 찰드라 포우델은 “이것은 거리에 있는 민중들의 승리”라고 이해했다. 같은 날, SPA는 제헌의회 선거를 약속했고, 마오주의자들은 3개월 휴전을 선언했고 수도에 대한 봉쇄를 해제했다.

4월 27일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SPA가 호소한 엄청난 축하집회에 카투만두의 거리를 메웠다. 19일 연속 불법집회 끝에, 민중은 위대한 승리를 쟁취했다. 동시에 그들이 정당들이 또 봉기의 성과를 허비하지 않도록 경계했다. 거대한 승리집회에서, 일부는 한 의회당 연사가 새 총리 G.P. 코이랄라 대신 등장하자 연단에 돌을 던졌다. 84세의 새 총리는 너무 아파서 참석하지 못했고, 4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가 소집된 지 며칠 후에 취임선서를 했다. 5월 1일 네팔 전문직총연맹은 제헌의회와 “전면적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다음날 학생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개인적 권력을 위해 경쟁하는 “넓은 관행의 재등장”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중은 그들이 겪었던 체포와 수년간의 굴욕은 말할 것도 없이 시위대 사살의 책임자 처벌을 원했다. 새 정부는 재빨리 행동하거나 상황에 통제력을 잃거나 해야 했다. 5월 12일 네명의 왕당파 장관들이 체포됐고, 봉기동안 인권침해에 대한 수사명령이 내려졌다. 4명의 체포는 민중을 달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수많은 시민을 사살하라고 명령한 군주제 자체의 종식을 원했다. 의회가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는 데 실패하자, 시위대는 차량을 태우고 정치인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sup>139)</sup>

마침내, 임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기념비적 법안으로 국왕은 모든 권력을 박탈당했다. “네팔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린 법안은 네팔을 세속공화국으로 만들었고 세계의 마지막 힌두왕국을 끝장냈다. 모든 국왕의 권력은 의회가 접수했고, 군대의 명령권은 총리에게 지명됐고, “왕립”이란 단어는 군대와 항공사 이름에서 삭제됐고, 사상 처음으로 정부는 군주에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5월 18일 임시정부가 퇴위법을 제정한 날은 이제 민주주의의 날(Loktantric Day)라고 불린다. 동시에 조용히 통과된 것은 카투만두 정부청사와 왕궁 근처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었고, 본질적으로 국왕의 과거 금지명령의 복사본이었다.

## 어려운 수확

이 역동적 시기에 민중은 그들이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다고 느꼈다. 네팔의 힌두왕국은 238년 지속됐고, 마침내 전국의 모든 곳을 휩쓴 민중의 힘으로 전복됐다. 11월 21일, 기쁜 승리가 여전히 생생한 가운데, 마오주의자들과 SPA는 농촌의 무장투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조약에 서명했다. 1년전 12조 합의안(군주제에 대한 통일적 저항의 기초를 제공했던) 이래, 약 1,380

136) John Lancaster, “Bowing to Protests, Nepal King Reinstates Parliament,” *Washington Post*, reprinted in the *Boston Globe*, April 25, 2006.

137) Akhilesh Tripathi, editor of Kantipuronline, as quoted in “Nonviolent Uprising Restores Democracy in Nepal” by Alyson Lie, [www.peaceworkmagazine.org/node/94](http://www.peaceworkmagazine.org/node/94).

138) See the article by Nathalie Hrizi, “Mass Uprising in Nepal Forces King to Grant Concessions,” *S&L Magazine*, June 2006.

139) Somini Sengupta, “Nepal Legislators Move to Curb the King’s Powers,” *New York Times*, May 19, 2006, A14.

명이 무장투쟁으로 죽었고, 70퍼센트는 마오주의자들에게 살해당했다. 임시헌법으로 새로운 연립정부가 구성됐고 마오주의자들도 포함됐다. 도달한 합의중에는 60일 이내에 제헌의회의 직접 선출과 진실과 화해 위원회 수립이 포함돼 있었고, 위원회의 과제는 실종자의 운명을 밝혀내고 인류에 대한 범죄를 수사하고 가족들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1990년 자나 안들란 이후에 일어난 것처럼(다른 많은 나라의 봉기후 고양에서), 거리의 운동에 자극받아 NGO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2001년 결성된 44개 평화 및 인권 NGO들의 상상력 넘치는 네트워크인 평화를 위한 집단캠페인(COCAP)이 크게 강화됐다. 봉기동안, 그들은 55명의 전임 자원자들이 사무실에서 살았다. 정부검열관을 피하기 위해 5,000개 이메일 신분을 사용하여, 그들은 모든 인터넷 연결, 휴대전화, 전화선이 모두 폐쇄된 마지막 주만 제외하고, 활동가들과 네트워크를 업데이트 할 수 있었다.<sup>140)</sup> 군주제에 대한 승리 이후에, 그들의 추동력은 이월됐고 COCAP는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2009년 그들은 내전중 실종자를 위한 전국적 자전거행진을 후원했고, 폭력없는 선거를 위해 300개 이상의 단체를 동원했다. 또다른 NGO 센터인 비공식부문 서비스센터(INSEC)는 인권라디오 프로를 후원하여 2009년까지 5,000명 이상의 청취자 클럽의 풀뿌리 형성에 기여했다.<sup>141)</sup> 어린 소녀들이 학교다닐 권리를 위해 공개적으로 시위한 다음, INSEC은 그들이 어린이 행진을 조직하도록 도왔다. 또한 어린이들이 “평화지대”라고 선포했고, 어린이 의회를 열어 제헌의회에 제안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봉기는 많은 사람들의 “정상적” 일상생활을 변화시켰다. 노예 노동자들이 동원했고 그들을 노예상태에서 해방시키는 법안을 쟁취했다. 마오주의자들은 그들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노예제를 끝내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 비록 불법이지만 노예노동은 여전히 지배적이다.<sup>142)</sup> 봉기 이후 민중의 정체성이 변화되자 테라이에서 작은 운동들이 민족집단 사이에서 일어났고 그들은 연방구조 내에서 참여의 증대를 요구했다. 2백만명 이상의 네팔인들이 공동체 소유 산림에서 직접민주주의 형태를 제도화했다.

봉기 이후의 고조는 아주 엄청나서 많은 사람들이 민중동원에 압도됐다고 느꼈다. 2009년도 자치와 연방구조를 추구하는 소수집단에 의한 테라이의 지속적인 총파업(bandh)으로 카투만두에서 연료공급을 기다리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긴 행렬을 이뤘다. 록 라즈 바랄 교수가 상황을 묘사한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국가가 없는 것처럼 느낀다. 총파업이 모든 곳에서 일어난다. 공장은 폐쇄되어 있다 수출은 중단됐다. 수십억 루피가 세금 수입으로 걷혔지만 아무도 쓸 수 없다. 모든 정당이 뿔을 원한다. 교육제도는 사립학교를 제외하곤 붕괴했다.”<sup>143)</sup> 도로들은 심하게 구멍나 있고 안전하지 않다. 수도에서 전기는 하루중 일부만, 때로는 몇시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 민중들이 자신만의 법을 시행하자, 마을 주민들은 안전한 주차에 요금을 부과하고 광범한 토론없이 다른 규정을 시행한다.

지속되는 정치적 동기의 살인과 공격은 군주제 이후 네팔에 주요한 문제를 이룬다. 민주적 발전 이후 처음 12개월 동안, 인권단체들은 정부군이 34명의 사람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마오주의자들은 같은 시기 46명의 살해에 책임이 있다.<sup>144)</sup> 경찰은 비록 2006년 시위 탄압에 깊이 개입했었지만 그대로 근무 중이다. 정말로, 칼란키의 총격에 연루된 특정한 사람들은 승진했다.<sup>145)</sup> 많은 사람들에게 군대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2009년 30명의 최고 육군 사령관 중에서 26명이 결혼으로 묶인 라나족과 샤족 출신이며, 이들은 수세기 동안 나라

140) Interview with Deepak Kumar Bhattarai, Gopi Krishna Bhattarai, Bishnu Khatri, Pawan Roy, Punya Bhandari, and Bhawana Bhatti, Kathmandu, April 11, 2009.

141) Interview with Subodh Raj Pyakurel, INSEC, Kathmandu, April 13, 2009.

142) Interview with Madhav Kumar Nepal, Kathmandu, April 12, 2009.

143) Interview with Professor Lok Raj Baral, Kathmandu, April 15, 2009.

144) Liam Cochrane, “A Year After Uprising, Nepal Takes Halting Steps Toward Peaceful Republic”, *World Politics Review*, April 25, 2007.

145) Interview with Bimal Sharma, Kalanki, April 17, 2009.

를 지배했다.

처음에 과도정부는 완전히 우유부단한 것으로 입증됐다. 인권침해를 조사할 위원회의 보고는 200명의 사람들(가넨드라를 포함해)이 학살에 책임있음을 밝혀냈다고 하지만, 되풀이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국왕의 의회복권 1주년에 시위대는 보고서 공개와 가넨드라 구속을 요구했다. 국왕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묘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대는 “민중의 운동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와 “왕정체제 타도!”를 외쳤다. NC 원로 람 찬드라 푸델이 민중승리 1주년에 일어나서 연설하자, 그는 야유를 받았고 빈병에 맞았다.<sup>146)</sup>

2007년 4월 1일, 8개 정당(마오주의자들을 포함한)이 임시정부를 구성했지만, 몇 주 동안 정족수의 대표들이 한 번에 모이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다. 몇 달을 제헌의회 선거일정을 잡는데 허비한 후에도, 결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정당들 간의 “화해할 수 없는 차이” 때문에 표결이 두 번이나 연기됐다. 공평하게 말해서, 마오주의자들은 선거참여의 전제 조건으로서 합리적 것을, 특히 세속공화국 선언과 비례대표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 참관인이 지적한 대로, 아주 눈에 띄는 다툼 때문에 정당들에 대한 대중적 환멸은 광범했다: “... 네팔 국민들은 오늘날 1990년 다당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운동의 성공으로 사실상 전국을 휩쓸었던 다당제의 결과에 환멸을 느끼게 됐다. 겨우 약 17개월의 기간에 가장 인기있는 부러워하던 지배형태에 대한 이런 혐오는 주로 민주적 규범과 가치가 새 지도부에 의해 바람 속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생겼다.”<sup>147)</sup>

국왕이 폐위되자 아무도 나라 전체를 대표해 말할 수 없었다. 한 전문가는 70퍼센트 이상의 네팔인들이 군주제를 유지하길 원하고 주장했지만, 가넨드라라는 인물은 아니었다(그는 카투만두에 남아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있었다). 2006년 7월초, 100,000명이 거리에서 국왕에 존경을 표했다. 그러나 2007년 2월 국왕이 카투만두의 순례지를 방문하려 하자, 한 군중이 국왕의 자동차 행렬을 돌로 공격했다. 무언가 분명하다면, 그것은 반란이 광범하게 확산됐고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새로 발견한 보통사람들의 권력화(empowerment)는 여전히 지배적이었다. <Himal> 지 편집자 카낙 딘시트는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의 피플파워는 독특하다. 그것은 풀뿌리와 농촌인민들에게서 나온다. 그들은 타일랜드처럼 중산층만이 아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민주주의의 전위이다.”<sup>148)</sup>

그토록 기다리던 선거가 2008년 4월 10일에 치러졌다. 마지막 표가 집계되자, 마오주의자들은 경이적 승리를 거뒀다. 그들은 310만표 이상을 얻어 229석을 획득한 반면, 의회당은 230만 표로 겨우 115석을 얻었고, CP-UML이 108석으로 그 뒤를 따랐다. 모두 24개 정당이 제헌의회에 대표됐지만, 1/3이 여성이었고, 최초의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국회의원도 포함됐다. (과거의 입법부에서 5퍼센트 이하의 의원들이 여성이었다.)

표 24: 제헌의회 선거결과 (55개 정당중 상위 12개 정당)

정당	득표	득표율	의석수	의석비율
네팔공산당(마오주의파) CPN(M)	3,145,519	30.52	229	38.10
네팔의회NC	2,348,890	22.79	115	19.13
네팔공산당(통합맑스-레닌주의파)CPN-UML	2,229,064	21.63	108	17.97
Madhesi Jana Adhikar Forum, Nepal	634,154	6.15	54	8.98
Tarai-Madhesh Loktantrik Party	345,587	3.35	21	3.49

146) Somini Sengupta, “New Conflicts Accompany Nepal’s Efforts at Democracy,” *New York Times*, April 29, 2007.

147) Srestha, *Peace Building*, v-vi.

148) Quoted in Bill Weinberg’s blog entry “Nepal: ‘Light at End of Tunnel’—for Tribal Peoples Too?,” World War 4 Report, <http://ww4report.com/node/2184>

Rastriya Prajatantra Party	310,214	3.01	8	1.33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파) CPN-ML	168,196	1.63	9	1.50
Sadbhavana Party	174,086	1.69	9	1.50
Janamorcha Nepal	136,846	1.33	8	1.33
네팔공산당(통합파) CPN-U	39,100	0.38	5	0.83
Rastriya Prajatantra Party Nepal	76,684	0.74	4	0.50
Rastriya Janamorcha	93,578	0.91	4	0.66

Source: Nepal Election Commission,

[http://www.election.gov.np/reports/CAResults/reportBody.php?selectedMenu=Party%20Wise%20Results%20Status\(English\)&rand=1260333150](http://www.election.gov.np/reports/CAResults/reportBody.php?selectedMenu=Party%20Wise%20Results%20Status(English)&rand=1260333150).

5월 28일 첫 회기 동안 제헌의회는 네팔을 연방공화국으로 선언하기로 표결했고, 그리하여 찬성 560 대 반대 4의 표결로 군주제를 폐지했다. 8월 15일 마오주의 지도자 두푸시파 카말 다할(프리찬다)가 CPN(UML) 및 20개 기타 정당의 지지로 총리로 선출됐다.

새로운 세속공화국의 모호한 성격은 불안정한 평화를 정착시켰다. 제헌의회가 헌법을 작성 하면서, 그들은 다양한 포럼에서, 입법자를 위해 열심히 모은 수천건의 서면제안을 포함해 민중의 의견을 요청했다. 전국의 많은 지역은 다양한 민족집단과 지역이 자신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연방구조를 요구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네팔의 권력이전(devolution)과 심지어 인디아에 의한 합병(1974년 시킴에서 일어난 것처럼)에 대한 두려움이 지배적 관심 사였다. 네팔 정부가 지옥과 천당 사이에 머물렀기 때문에, 많은 집단들이 즉각적인 정의를 위해 경쟁했다.

중요한 문제로 분열된 정당들은 끝없이 의회 회기를 보이코트하여, 정부가 당면한 국민의 필요에 대처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소수민족이 자치와 정부에서의 적절한 대표에 대한 요구를 극적으로 부각하기 위해 파업, 교통방해, 시위를 이용함에 따라 남부 지방에서 수십명이 시위도중 사망했다. 자나 안들란 2의 승리 3년후에, 달리트 페미니스트 조직의 의장인 두르가 솜은 달리트 여성들이 상층 카스트들에게 “끊임없이 마녀행위를 한다고 비난”받았다고 주장했다. “달리트 여성은 평등한 대표성을 호소한다”고 그녀는 말했다.<sup>149)</sup> 2009년 국경없는 기자회 투쟁위원회는 언론인에 대한 공격과 언론자유에 부정 측면에서 네팔을 수단 아래 등급으로 매겼다. 2009년 8월 “식량안보의 급속하고 지속적인 쇠퇴”를 인용하면서 UN 세계식량 프로그램은 3백만 명 이상의 네팔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고했다. 이 기관은 5세 이하 어린이의 48퍼센트가 만성적 영양실조이며, 산악지대에서 60퍼센트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네팔을 떠나면서, 최소한 GNP의 17퍼센트는 외국에서 오는 송금이었다(일부는 이 수치는 25퍼센트에 더 가깝다고 말한다)

긍정적 지표는 하나의 계급으로서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노동자들의 점증하는 자기의식에서 발견할 수 있다. 2009년 5월, 합동 노동조합조정센터(JYUCC)가 세워져서, 6개 정당(CPN-마오주의, NC, UML, 라시트리아 프라자탄트라당을 포함한)에 가입한 노동조합을 포괄했다. 네팔 전문지총연맹(CPN)과 함께, 활기찬 네팔노동조합 총연맹(GFNTU)도 등장했다.

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가?

두 번의 봉기를 되돌아보면, 보통사람들의 믿을 수 없는 영웅적 행동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신속하게, 또 결연하게 행동하지 못한 정당들의 실패는 명백하다. 비록 거의 모든 시민들이 가넨드라 왕에게 작별인사를 했지만, 일부는 군주제의 복원을 선호한다.

149) *Himalayan Times*, May 2, 2009, 2.

전총리이자 NC 창건자이 K.P. 바타라이는 군주제 폐지를 “순전한 바보짓”이자 “실수”라고 불렀다.<sup>150)</sup> 라시트리아 프라자탄트라당 총재 카말 타파는 네팔의 영토적 완결성을 유지하고 민족통일성을 보존하기 위해 군주제의 복원을 오랫동안 옹호했다. 최소한 하나의 신문인 <인민평론: 정치경제 주간>이 공개적으로 군주제 복원에 관한 국민투표를 요구했다.

압도적으로 마오주의자들의 편에서 도시와 농촌의 빈민들 또는 룸펜은 군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면책없는 정의를 위해 계속 투쟁한다. 2007년 중반에서 2008년 중반까지 1년 동안 정치적 갈등으로 600명 이상이 죽었고 더많은 숫자가 구타당하거나 위협당했다.<sup>151)</sup> 수천명의 PLA 투사들이 UN 감시단과 함께 주둔지에 반감금 상태에 있는 가운데, 마오주의자들은 상당한 힘의 세력을 유지했다. 게다가 그들은 PLA와 나란히 준군사조직인 청년공산주의동맹(YCL)을 천천히 건설했다. 그들이 경쟁적 정치단체를 공격하거나 강탈금을 요구한 수백건의 경우 중에서, 한 건만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PLA 지휘관 비비두는 한 기업인을 살해한 혐의로 수배 중에 2009년 체포됐지만, 마오주의자 내무장관의 명령으로 석방됐다. 이후 언론의 폭로로 비비드가 PLA 캠프에서 경찰을 피했고 통합CPN(마오주의)의 강력한 중앙서기국 수준으로 진급했음이 밝혀졌다.

2009년 중반, 국군에 대한 통제는 네팔의 핵심적 정치문제가 됐다. 과거의 합의에 따르면, PLA는 네팔 군대로 통합될 예정이었지만, 최고 군사령관들은 심지어 군대의 소수 마오주의자들이 아마도 95퍼센트가 하층 카스트인 100,000명 규모의 전체 군병력을 전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용하면서 합의준수를 거부했다. 군대를 통합하라는 정치적 지침을 지키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마오주의자들은 4월 룩만구드 카탈왈 장군의 사임을 요구했는데, 장군은 8월 의무퇴역을 겨우 몇 달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임시헌법에 의하면,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군을 통제한다. 야다브 대통령이 카타와 해임을 거부하자, 마오주의자 프라찬다 총리는 항의하여 사임했고, 마오주의자들이 주도한 정부는 붕괴했다. 확실히 카탈왈도 성자가 아니며, 그의 후임으로 마오주의자들이 지명한 그의 부사령관도 마찬가지다. CPN-UML은 세명의 최고위 장성을 모두 해임하고 완전히 새로운 군지도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마오주의자들은 그 제안을 거부하고 그 대신 프라찬다가 사임하고 정부가 붕괴하는 위기를 창출했다. 일단 프라찬다가 물러나고 그들이 이끈 정부가 붕괴하자, 마오주의자들은 농촌지역에 “대항 정부”를 부활시켰고, 수도에서 항의시위에 박차를 가했다.

마오주의자들은 가난에 찌든 수십만의 민중을 봉건적 속박의 고통과 지독한 자본주의적 착취로부터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군주제를 종식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들은 여성 해방과 민족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에 섰다. 그들은 촌락평의회를 조직했고, 민족단결의 정부에 참여성 있게 참여했다. 하지만 그들의 종파주의는 사회 전체를 이끌 수 있는 통일된 헤게모니 블록의 창출 실현에 장애물로 남아있다. 프라찬다를 대신한 총리인 CPN-UML의 마다브 쿠마르 네팔은 과거 마오주의 동맹자이자 철저한 반제국주의자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와 적절하게 일할 수 없었고, 그 이유는 반동이나 외국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외국인 “동지들”이 네팔에서 투쟁을 시작할 수단으로서 종파적 투쟁의 불을 붙였고, 그들은 그 투쟁으로 국가권력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기를 희망했었다.<sup>152)</sup>

네팔 텔레비전이 2008년 1월 치트완에서 열린 PLA 투사 모임에서 프라찬다의 연설 비디오를 내보자 논쟁은 더욱 가열됐다. 프라찬다는 당이 의도적으로 UN을 기만하여 PLA의 세력이 35,000명이라고 믿게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숫자는 7,000명 내지 8,000명이었다. (숫자를 부풀리는 것은 마오주의자들에게 통합된 군대 내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됐

150) *People's Review*, April 30-May 6, 2009, 1.

151) Interview with Sudip Pathak, Human Rights Organization of Nepal, Kathmandu, April 24, 2009.

152) See “Who is Endangering Civil Peace in Nepal?” <http://links.org.au/node/1050>, December 10, 2009. 이 논문의 제목 자체가 헌정위기가 새로운 내전의 가능성에 대해 외국인과 반동세력을 비난하는 핑계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좌파 세속주의 정치의 고매한 세계에서, 아프가니스탄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나란히 싸울 고르카 병사들의 모집을 허용하는 과제를 마오주의 정부에 들고왔다.

다.) 같은 비디오에서 프라찬다는 열사들에 대한 미래 정부의 배상금이 “궁극적 반란”을 위한 “좋은 전투계획”의 실현에 자금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sup>153)</sup> 평화과정과 다당제 민주주의에 대한 네팔 마오주의자들의 헌신은 중요했지만, 폴포트의 유감스런 유산이 그들 주위를 맴돈다. 그들 내부의 강경파는 1917년 두 차례 러시아혁명의 성공을 모방하여 정부의 타도를 요구한다(블셰비키는 차르를 타도할 광범한 연합과 먼저 동맹한 이후 “민주적” 정부로부터 권력을 장악했다.)

군주제를 패배시킨 95퍼센트 네팔 민중의 놀라운 단결은 그들의 위대한 자원 중의 하나이다. 만약 네팔(과 버마)의 봉기가 사전에 계획하여 위로부터 조직했다면, 광주항쟁은 군부의 폭력에 대한 자연발생적 대응이며, 아래로부터 구조화했다. 네팔과 버마에서 민중들 사이의 폭력은 한국의 상황과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 네팔에서 정치적 차이는 자주 논쟁의 원인이며, 물리적 대치, 심지어 살인도 흔하다. 그런 폭력의 뿌리는 민중봉기의 낙관적 순간에도 발견할 수 있다. 여러 설명에 의하면 1990년 “자발적” 일제소등 동안 불을 끄지 않은 집들의 창문이 깨졌고, 그 후 그 집 사람들은 만약 계속 소등에 협조하지 않으면 집이 불탈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sup>154)</sup> 광주에서 항쟁세력은 심지어 포로로 잡은 적 군인을 인간적으로 치료해줬고, 일부는 다시 부대로 돌려냈고, 최소한 한명의 경우 총을 잃었다고 장교가 처벌하지 않도록 M-16 소총을 돌려받았다. 광주의 경찰서장이 부하들에게 시위대에 발포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거부하자, 그는 잡혀가서 지휘권을 빼앗겼다. 보도는 많은 한국 경찰이 옷을 갈아입고 반란군에 동참했다고 지적한다. 네팔의 융통성없는 분열은 사회의 진보에 장애로 남아있다.

2006년의 위대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다시 거리의 민중들의 희생으로 쟁취한 성과를 공고화할 수 없음을 보여줬다. 군주제는 폐지됐고, 새로 발견한 자유는 민중의 일상생활을 크게 향상시켰고 정당들의 권력을 증가시켰다. 카투만두에 있는 왕실의 중심적 거주지는 박물관으로 바뀌어, 수만명의 보통 네팔인들이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긴 줄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5년간의 의회 논쟁으로, 새로운 헌법을 제도하는 길에서 별로 성취된 것이 없고 헌법은 여전히 개정되어야 한다. 마오주의 무장세력은 네팔군대로 통합되지 않았다(주로 그들이 쉽사리 군대 전체를 전복시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경쟁과 외국의 음모가 제기되면 아무도 네팔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이웃의 방글라데시도 시민투쟁과 군대 사이에서 비틀거리지만, 1990년 방글라데시 민중은 네팔의 동료처럼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 단결했다.

153) The video is available at <http://www.nepalnews.com/archive/2009/may/may05/news12.php#1>.

154) Routledge, “Backstreets,” 568.

[번역]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들 2권 8장

제8장: 방글라데시

연표

1971년 3월 1일	파키스탄 계엄령 당국 국회소집 거부
1971년 3월 25일	“암흑의 밤”: 파키스탄 탱크 다카에 등장
1971년 3월 26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 선포
1971년 12월 16일	1백만명 이상 사망 후에 독립전쟁 승리
1975년 8월 15일	무지부르 대통령과 가족 군부쿠데타로 살해됨
1975년 11월 3일	무지부르 지지자들의 역쿠데타
1975년 11월 7일	군인들의 쿠데타로 정부 전복
1977년 4월 21일	지아우르 라만 장군 대통령 취임
1981년 5월 30일	지아 대통령 암살당함
1982년 3월 24일	H.M, 에르샤드 장군 권력장악
1982년 11월 8일	경찰 다카대학 공격, 학생들 3개월간 다카대학 해방시킴
1982년 11월 21일	학생투쟁조직(OSS) 결성
1984년 12월 22-31일	노동자단결평의회(UEUC) 2일 총파업(hartal) 조직함
1988년 1월	치타공과 다카에서 시위도중 수십명 사망
1989년 11월 11일	시위대 누르 후사인 광장 근처의 내무부에 방화
1990년 8월	정부 강화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동의
1990년 10월	전당파 학생연맹(APSU) 결성
1990년 11월 19일	3대 동맹 에르샤드 반대 연합전선 선언
1990년 11월 22일	정부군 다카대학 공격
1990년 11월 25일	다카대학에서 육박전 이후 정부 폭력배(mastan) 몰아냄
1990년 11월 27일	통행금지령, 자연발생적 저항, 다카대학 해방구
1990년 12월 4일	에르샤드 사임하는 데 동의
1990년 12월 6일	에르샤드가 권력을 과도정부에 넘기면서 의회 해산
1990년 12월 27일	섬유공장 화재로 25명의 어린이와 여성 노동자 사망
1991년 1월 2일	20,000명 섬유노동자 행진, 노동조합 결성
1991년 2월 27일	과도정부 선거 개최,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 다수 획득
1991년 10월	성노동자 조직화
1992년 3월 26일	인민재판소 무슬림 근본주의자들이 파키스탄과 협력한 혐의로 유죄 판결
1993년 2월	페미니스트 작가 타슬리마 나스린 강제 망명
1993년 12월 7일	여성 NGO들, 브라만바리아에서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공격받음
1994년 4월 26일	섬유노동자들 시위 폭발, 다카 마비시킴
2006년 5월 20일	비공인 파업으로 약 4,000개 공장 마비
2006년 6월 12일	노사정 삼자 양해각서 서명
2007년 1월 11일	“비밀 쿠데타”로 군부 정권장악
2008년 12월 29일	아와미동맹 선거 압승
2010년 2월 25일	H&M 의류제조업체인 가지푸르 공장 화재로 노동자 22명 사망
2010년 12월 14일	다카 외곽에서 공장화재로 26명의 섬유노동자 불타서 사망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1950년대와 1960년대 방글라데시보다 더 커다란 강조와 지속성, 관심을 가진 학생운동은 없었다... 학생들을 당간부로 사용하는 것 역시 다른 무슬림 다수 지방보다 벵갈에서 더욱 필요했다. 주된 이유는 정치적으로 유효한 주요부분, 즉 변호사, 의사,

실업가와 지주들은 거의 전적으로 힌두인들에 의해 지배됐기 때문이다.”

- Talukder Maniruzzaman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은 그것이 대중들에게 자유, 소유 또는 행복추구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의회민주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빈민들, 짓밟히고 상속권이 없는 계급의 경제적 문제를 악화시켰다.”

- Babasaheb Ambedkar

네팔에서 절대군주제가 타도된 지 8개월 후 방글라데시의 민주세력은 무하메드 에르샤드 장군의 군부독재를 타도할 수 있었다. 다시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에 선두에 섰다. 방글라데시에서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훨씬 더 전위로 기능했는데, 주된 이유는 방글라데시의 주요 정당들이 지도자들의 개인적 언쟁으로 무능력해졌기 때문이다. 지속적 반대로 정권의 공격을 받아 학생들은 전사회를 앞으로 전진시킴으로써 대응했다.

### 유혈사태로 탄생한 방글라데시

영국 식민주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남아시아에서 후퇴하자, 무슬림 국가로서 파키스탄이 탄생했는데, 두 개의 분리된 지리적 지역은 1천마일이나 떨어져 있었고 엄청난 문화적 차이가 있었다. 수십년 간의 빈약한 공존 후에, 1970년 벵갈어를 사용하는 동파키스탄의 아와미 동맹이 전국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얻자 양측 간의 균열이 발생했다. 국민의 투표에도 불구하고, 서파키스탄의 견고한 지도자들은 권력을 포기하기를 거부했다. 1971년 3월 2일 파키스탄 계엄당국이 새로운 국회의 소집을 거부하자, 학생들이 거대한 집회에서 방글라데시의 새로운 깃발을 들었고, 독립을 향한 경로를 개척했다. 몇주 안에 파키스탄 탱크들이 “암흑의 밤”에 다카에 나타났다. 다음 날인 1971년 3월 26일 파키스탄으로부터 방글라데시의 독립이 선포됐다. 이어 발생한 유혈사태에서 파키스탄군은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헛된 시도로 1백만 명 이상의 민중을 도살했다. 방글라데시를 탄생시킨 9개월 간의 전쟁 동안 전부 3백만 명이 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고, 수만명의 여성들이 강간당했다.

일단 독립이 이뤄지고 파키스탄 지배계급이 권력에서 쫓겨나자, 아와미 동맹(Awami League: AL)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중산층이 새로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는 독특한 상황이 발생했다. 어떤 중요한 농촌 지주계급이나 견고한 정치엘리트의 부재로, 사회적 자본(교육자격증, 학위, 국제금융기구와 네트워크할 역량)이 성공의 열쇠가 됐다. 예상된 것처럼, 변호사들이 AL을 지배했고, 도시전문직, 특히 교사와 의사들도 매우 중요했다.

새 국가에서 단명한 정부들이 군부통치의 시대와 교대했다. 심지어 독립 이후에도 폭력은 계속됐다. 1974년 약 4,600만 국민(7,400만 전체인구 중에서)이 빈곤선 이하로 살고 있었다. 이번에 쌀값이 10의 인수로 증가하자, 인구의 78퍼센트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절대 빈곤선 수준인 1일 1,935칼로리 이하로 생존했다.<sup>155)</sup> 홍수가 전국의 2/5 이상에 범람했고, 기근이 시작됐다.<sup>156)</sup> 무지부르 라만 대통령(“조국의 아버지”)는 9월 워싱턴을 방문했지만, 미국은 원조를 거부했다. 10월말까지 최소한 50,000명이 굶어죽었다. 무지부르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의 대가로 세계은행이 이끄는 컨소시엄의 가혹한 조건을 수용해야 했다. 그는 새 국가의 통화를 50퍼센트 평가절하하고, 국가소유 산업을 탈국유화하고, 수입제한을 자유화하고, 외국인투자를 지원하는 새로운 규칙을 채택하고, 재무장관을 해임하도록 강요당했다.<sup>157)</sup> 11월 미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짧은 방문으로 닷다카에 도착해서 무지부르와 두 시간 동안 만났다. 방글라데시는 정치적 동기의 살인으로 비틀거렸다. 1974년 약 4,000명의 AL 회원들

155) Lawrence Lifschulz, *Bangladesh: The Unfinished Revolution* (London: Zed Press, 1979), 44-45, 109, 139.

156) Anthony Mascarenhas, *Bangladesh: A Legacy of Blood* (London: Hodderand Stoughton, 1986).

157) Lifschulz, *Bangladesh*, 140-141.



(최소한 5명의 의원을 포함해)이 살해당했다.<sup>158)</sup>

그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미국의 안보이해는 파키스탄이 우선이었고, 신생국 방글라데시에게는 거부된 지위였다(키신저가 “경제마비 국가”[basket case]라고 불렀던). 키신저 방문 1년 안에 1975년 8월 15일 무비부르 대통령과 가족 40명이 군사쿠데타로 살해당했다. 방글라데시의 첩보기구를 장악한 사람들은 워싱턴에서 훈련받은 40명 이상의 벙갈인 장교들이었고, 이후에 미국이 사전에 주동자들과 쿠데타에 대해 논의했다는 증거가 나타났다.<sup>159)</sup>

1975년 11월 3일, 무지부르의 지지자들이 새로운 군부통치자들을 타도했고, 4일후 일반 군인들이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성공적으로 장악했다. 급진적 사회주의조직인 자티오 사마즈탄 트릭 달(Jatyo Samajtantrik Da: JSD)이 이 시기에 국가의 지도부로 등장했다. JSD는 100,000명의 집회를 열었고 두 번의 총파업을 이끌었다. 군대는 내무장관 관저를 향한 행진 도중에 발포해서 최소한 8명을 죽였다(의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30명). 당사가 습격당했고 지도자들은 체포됐고 신문은 폐간당했다. 11월 7일 JSD가 성공적인 전국적 봉기를 전개했을 때, 약 10,000명의 회원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 비록 권력을 장악했지만, 강령의 급진적 잠재력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 주된 이유는 전쟁영웅 아부 타헤르 대령을 포함한 지도자들이 지아루르 라만 장군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를 다음 대통령이 될 위치에 배치했기 때문이다. 지아루르 라만 장군에게 등을 돌리고 변칙적인 비밀재판 후에 그를 처형시켰다.

지아의 1977년 이후 체제 아래서, 광범한 정부의 이슬람화가 진행됐다.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무엇이든 새 공화국의 모든 정부는 민중의 권리를 제한했고, 아마도 지아의 정부가 가장 심했다. 무비부르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특별권한법을 제정했고, 일당지배를 도입한 헌법개정을 했으며, 비록 군부실세의 권한을 제한할 의도였지만 엘리트 준군사조직은 대대적인 인권침해와 고문을 자행했다.<sup>160)</sup> 방글라데시의 의회는 두 주요 정당 간의 끝없는 소동으로 활력을 잃었다. AL(독립 직후 정부를 지배한)과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 후자는 1979년 의회선거에서 300석 가운데 207석을 얻었다. 일단 BNP가 권력을 획득하자 영향력 상실에 좌절한 AL은 1980년 10대정당 동맹을 결성하여, 총파업(hartals), 시위 및 선출된 BNP 정부에 대한 지속적 선동 등 비의회적 투쟁에 착수했다.

최소한 두 번의 쿠데타 시도에서 살아남았지만, 1981년 5월 30일 지아 대통령이 암살당했다. 최고 정치지도자들이 계속 암살되는 상황에서, 정당들은 1982년 3월 24일 군부가 다시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이 쿠데타로 무하마드 에르샤드 장군이 자신을 독재자로 선포했다. 방글라데시의 국민(body politic)처럼, 레르샤드에 대한 반대는 AL과 BNP 간의 경쟁으로 약화됐고, 그들 간의 차이는 자주 각당을 이끄는 여성들로 인격화됐다. AL의 지도자 하시나 와제드는 그녀의 아버지이자 “건국의 아버지”인 셰이크 무지부르의 1975년 암살을 이유로 BNP를 비난했다. 다른 쪽에서, BNP 지도자인 지아 대통령이 1971년 암살당하자, 미망인 칼데라 지아는 남편의 당내 역할과 함께 AL에 대한 끝없는 적대도 물려받았고, 그녀는 남편의 암살에 대해 AL을 비난했다.<sup>161)</sup>

## 학생들 전면에서

158) Al Masud Hasanuzzaman, *Role of Opposition in Bangladesh Politics* (Dhaka: The University Press Limited, 1998) ,60.

159) Lifschulz, *Bangladesh*, 100-119.

160) Interview with Md. Shariful Islam, Dhaka, December 22, 2010.

161) Hasanuzzaman, *Role of Opposition*, 99. 하르탈(hartal [총철시] 또는 네팔과 미얀마에서 사용하는 단어인 *반드 bandh*)은 총파업 이상이며, 총파업을 포괄하되 초월한다. 모든 사람이 일상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체는 문을 닫고, 학교는 휴업하며, 사무실은 비고, 상하수도와 전기 같은 일반 서비스는 작동하지만, 교통시설은 중단된다. 하르탈은 언론의 이벤트가 아니라, 운동의 힘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하르탈이란 단어는 시장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haan*)와 폐쇄를 의미하는 힌두어(*tal*)의 조합한 단어이다. See Robert S. Anderson, “Stop Everything in Bangladesh: Communication, Martial Law and National Strikes,” *Canadian Journal of Communication* (December 1988): 85.

분파갈등으로 정당들이 무력화되자, 민주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비의회적 세력이 활성화돼야 했다. 방글라데시의 학생들은 국가를 앞으로 이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탈록데르 무니루자만의 추정으로,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1950년대와 1960년대 방글라데시보다 더 커다란 강조와 지속성, 관심을 가진 학생운동은 없었다.”<sup>162)</sup> 국제적으로 유례없는 학생운동으로 알려진 수십년간, 방글라데시의 학생운동은 수많은 주목할 만한 사례들 중에서도 위력적이다. 역사적으로 낮은 입학률과 높은 빈곤율로 학생들은 특히 특권적이었고, 정치 엘리트의 일부가 될 운명이었고, 그들은 방글라데시의 보편적 이해에 기초한 영웅적 지도력으로 대응했다.<sup>163)</sup> 지역이 동파키스탄으로 알려져 있었을 때, 학생들은 아유브 칸의 통치에 맞선 반독재투쟁에서 지도적 역할을 했다. 1969년 말 그들은 11개조 프로그램을 정식화하여 대규모 노동자투쟁을 포함해 광범한 지지를 받는 반정부운동을 시작했다. 1971년 3월 독립을 위해 벵갈인들을 동원하면서 학생들은 “간디마저 놀랐을” 거대한 비협력운동을 조정했다.<sup>164)</sup>

방글라데시의 민주화의 전개에서 사건의 패턴은 익숙하다. 독립 이후 10년간 수십번의 쿠데타 후에 후사인 무하메드 에르샤드 장군의 군대는 규모와 힘을 증가시킴으로써 1982년 이후 권력을 공고화했다. 현역 또는 퇴임 군장성들이 22개 대기업 중에서 14개의 사장이었고 모든 해외대사 중의 1/3이 군출신이었다.<sup>165)</sup> 같은 날 에르샤드의 쿠데타로 그의 전제적 지배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가 시작됐다.<sup>166)</sup> 에르샤드의 권력장악 후 한달 안에, 학생들의 반대는 폭력으로 응답받았고, 탄압과 저항의 주기가 시작됐고 학생운동에 대한 대중적 동조가 확산됐다.

학생들은 시위를 벌였고, 일부는 죽었다. 변호사들과 노조원들도 정권에 맞서 투쟁했고, 정권은 위협전술을 강화했다. 대학내 반대세력의 기반을 침해하기 위해, 정권은 고등교육을 제한하는 계획을 개발했다. 그 계획이 캠퍼스의 반대를 격화시키자, 경찰과 준군사세력은 1982년 11월 다카대학을 침입하여 학생들과 교직원을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수십명이 야만적으로 구타당한 후 학생회는 24개 단체를 모아 학생투쟁조직(OSS)을 결성했다. 각 단체별 2명의 대표와 한명의 순번제 의장을 둔 이 조직의 48명의 유동적 지도부(극소수의 여성을 포함한)는 운동의 목표를 정식화시킬 수 있었다. 그들의 세 가지 주요 요구는 다음과 같았다:

1. 계엄령의 즉각적인 중단, 그리고 완전한 민주주의의 시행과 인권존중
2. 새로 제안된 교육정책의 취소
3. 모든 정치범의 석방과 탄압중단

1983년 2월 14일, 수천명의 학생들은 교육부로 행진했고, 거기서 경찰과 준사병세력이 발포하여 최소한 4명이 죽었다. 이 사건으로 일반 학생들은 이중으로 좌절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달 전(1월 11일)에 다카대학에서 교육부 청사로 행진을 시도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정당들(공산당, 사회당, 노동당, 아와미동맹을 포함한)의 거부권으로 시도가 좌절됐었기 때문이다. 2월 13일 밤, 정당들이 다시 한번 투쟁을 막으려고 하자 수백명의 학생 활동가들은 지도자들에게 행진계획을 바꾸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서약하도록 강제했다. 다음날 학생들은 교육부를 타겟으로 주도력을 발휘했지만, 치명적 총격을 당했던 것이다.<sup>167)</sup>

AL과 BNP의 최고 지도자들이 같은 방에서 만나지도 같은 연단에서 연설하지도 않던 때에, 자주적 학생지도부는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에 응집력과 단결을 가져올 필요가 있었다. 권력

162) Talukder Maniruzzaman, *Bangladesh Revolution and Its Aftermath* (Dhaka: The University Press Limited, 1988), 53.  
 163) Bazlul M. Chowdhury, *Class and Social Structure of Bangladesh* (Dhaka: Ankur Prakashani, 2008), 66.  
 164) Talukder Maniruzzaman, “The Fall of the Military Dictator: 1991 Elections and the Prospect of Civilian Rule in Bangladesh,” *Pacific Affairs* 65, no. 2 (Summer 1992): 3, 63, 80-82.  
 165) *Ibid.*, 203-224.  
 166) Interview with Amirul Haque Amin, Dhaka, May 10, 2010.  
 167) *Ibid.*

에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학생들은 행동을 통해 분열된 정당들을 부끄럽게 했다. 학생들의 영웅적 희생의 결과로, 19개 정당들이 그들을 지지한 합동 성명을 발표했고, 방글라데시는 통일된 반체제 투쟁의 탄생을 목격했다. 1980년대 중반 반정부세력은 “다양하고 분산적이었고, 수천개의 저항지점을 제공했지만,”<sup>168)</sup> 학생들은 두 가지 이유로 지도적 역할을 유지했다: 끝없는 AL-BNP 경쟁 외에도 당국이 시위를 다루는 완전히 비합리적 방식.

학생들이 평화행진으로 거리로 나설 때에도 경찰은 그들에게 발포하여 많은 학생을 죽였다. 학생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연설하면 체포당했다. 민족주의적 요구만을 발표하는 데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네팔, 미얀마, 한국, 팔레스타인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연대를 선언했다.<sup>169)</sup>

학생들과 나란히, 변호사들도 정권의 탄압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82년 6월 에르샤드 정권이 고등법원 장소를 변경하자, 변호사들은 대법원의 전국적 보이콧을 전개했고 에르샤드 퇴진을 요구했다. 의사, 엔지니어, 교사 협회들과 노동조합들도 나서서 에르샤드에 도전했다. 1980년대 풀뿌리 활동에 자극받아, 에르샤드에 반대하는 15개 정당동맹이 결성되었고, 단결된 행동에는 다른 7개 정당연합도 포함됐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에르샤드 정권은 시위에 총격으로 답했다. 1983년 11월 28일 야당연대체들이 수천명의 사람들을 행정청(정부 소재지)으로 이끌자 경찰은 수많은 시위대를 죽였다.<sup>170)</sup> 다음 3월 반정부진영은 지방선거를 아주 성공적으로 보이콧해서 정부는 선거를 취소했다. 1984년 노동자단결평의회(SKOP란 약어로 알려진, 15개 이상의 전국적 노조연맹을 대표하는 연대체)가 호소한 2일 총파업(hartal)은 정부가 노동조합을 합법화하기로 한 기존의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는 사용자협회가 사업을 중지하겠다고 주장함으로써 봉쇄했던 개혁안이었다. 총파업 동안, 두 명이 죽었고, 다카에서 이를 동안 772명이 체포됐다. 분노한 시위대는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거와 버스를 부설했고, 문을 연 최소한 하나의 상점이 공격당했다. 라사히대학의 학생행동위원회(SAC)의 연대행동시, 지도자인 샤 자한 실라스가 경찰총격으로 사망했다.

정권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후원한 선거는 지속적으로 에르샤드에게 통치권을 부여했고,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상식으로 에르샤드 정권이 광범하게 인기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부정을 주장했다지만, 에르샤드의 정치적 책략의 또다른 이유는 방글라데시 국민의 고립이었다. 1986년 주류언론은 인구의 4퍼센트(즉 4백만명)에게 도달했다. 즉 이들은 400,000대의 TV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로, TV 가격은 은행지점장 급여의 6개월분에 해당했다. 라디오는 매일 약 3,000만에서 4,000만 명의 청취자들(인구의 40퍼센트)에게 도달했지만, 신문 발행부수는 겨우 580,000부였다. 이야기꾼, 유람 극단, 축제, 시장, 버스에서 돌아다니는 소문 등 전통적 의사소통 방법은 반정부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이 사용했지만, 이 영역은 대량전자매체의 동시성과 광범한 청중은 갖지 못했다. 전통적 매체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집중화된 매체보다 더 다중심적이고 참여적이었고, 전통적 매체의 이용은 반란이 활기찬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됐고, 다음에는 운동의 성공에 기여했다.

반정부 상층연대체는 1985년까지는 그럭저럭 함께 협력했지만, 그때 새로운 선거 참여여부를 둘러싼 의견차이가 발생했다. AL이 선거에 반대하기로 한 약속을 깨자, BNP를 포함한 거의 모든 다른 정당들은 선거를 보이콧 했다. 1982년 에르샤드의 권력장악은 사실상 BNP가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됐지만, 또한 AL이 에르샤드와 연합을 들어갈 기회를 제공했다. 영국인 참관단이 “민주주의의 비극”으로 묘사한 선거에서, 에르샤드의 당이 다수를 얻었지만, 대중시위로 새 의회는 해산했다.<sup>171)</sup>

168) Anderson, “Stop Everything,” 67-86.

169) Interview with Dr. Mushtuq Husain, Dhaka, May 10, 2010.

170) Hasanuzzaman, *Role of Opposition*, 109.

171)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y 22, 1986.

정당들이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지만, 하층세력은 다시 모여 에르샤드의 “계엄령 민주주의”에 맞선 투쟁을 이끌지 않을 수 없었다. 1986년까지 약 17개의 농민 및 농업노동조합, 언론인, 변호사, 교사, 의사, 문화노동자 단체들이 도시 노동자들과 학생들에 합류하여 민주주의를 위한 요구를 제기했다. 다카에 집중된 운동은 다른 도시로 확산됐지만, 활동가들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서 농촌지역에서는 별로 행동이 없었던 것 같다. 학생들, 도시전문, 공무원들이 운동의 전면에 나섰고, 이는 한 관찰자가 “도시 부르주아지의 반란”이라고 이름붙일 정도로 명백한 사실이었다.<sup>172)</sup> 기성 정당들에 자주적인 이 부문들의 자연발생적 자기조직화 역량은 반에르샤드 운동에 승리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자원이었다.

1987년과 1988년 3개 연대체들이 단결하여 에르샤드의 사임과 공정선거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요구했다. 방글라데시의 양대 도시인 다카와 치타공에서 반정부 집회 도중 38명이 죽었다.<sup>173)</sup> 1987년 봉기는 특히 격렬했다. 비록 에르샤드를 퇴진시키는 데 성공하진 못했지만, 봉기는 1990년 그를 퇴진시킬 반정부세력의 역량을 형성하는 데 강력하게 중요했다. 아르샤드가 군대를 증강하고 퇴직 최고사령관들을 부와 권력의 지위에 앉히고 장교들의 급여를 두 배로 인상하고 군대의 숫자를 팽창시키는 동시에, 에르샤드는 방글라데시를 더욱더 미국에 접근시켰다. 그는 미국의 첫 번째 걸프전쟁을 돕기 위해 2,300명의 군부대를 사우디 아라비아에 파견하는 데 동의했고, 이 “연대” 행동으로 방글라데시는 3억5천만 달러를 받았는데, 외환수입의 40퍼센트 이상이었다. 1990년 8월 IMF는 강화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협상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두 가지 조치는 아주 인기가 없었다.

방글라데시는 차관과 보조금에서 국제금융기구들에 심하게 의존한다. 독립과 민주화 사이에 (즉 1971년에서 1991년까지) 외국원조 총액은 330억달러 정도였는데, 보조금과 차관의 비율은 거의 같다. 새로운 매판 지배계급은 그런 원조를 착복했고, 실제로 국내투자보다 투자수익률이 높은 중동으로 자본을 수출했다.<sup>174)</sup> 방글라데시 헌법이 평등을 약속하고 번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올랐지만, 탄압과 빈곤의 현실은 정권에 대항한 행동할 의지를 키웠다.

자신의 통치에 대한 반대가 강화되자, 에르샤드는 그가 대통령으로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을 추진했다. 정당들은 1990년 10월 10일 정부청사 농성으로 대응했지만, 다시 한번 AL과 BNP간의 적대가 운동을 심하게 분열시켰다.<sup>175)</sup>

### 방글라데시 학생권력

다른 어떤 세력보다 더 학생들은 조국을 진보시키기 위해 단결했다. 정당들은 서로 협력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운동에 별로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단지 서로 회피하면서 끝없이 전술적 차이에 대해 논쟁했다. AL과 8대 정당 동맹은 총파업을 호소했지만, BNP와 7개 다른 정당들은 대규모 집회를 옹호했고, 좌파 5개정당 연합은 포위전술(ghrao)을 호소했다. 이 전술은 언론의 친에르샤드 편견에 주의를 돌리려고 TV 방송국을 포위하는 것이었다.

대학가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단체들이 1990년까지 공존했고, 민족주의 학생당(NSP: BNP와 느슨하게 연결된)은 전국 350개 대학 중에서 270개 학생회 선거에서 승리했다. 정당들의 다름은 오랫동안 단결하려는 학생들의 노력을 방해했지만, BNP의 대다수와 함께 학생들은 그들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sup>176)</sup> 1990년 10월 1일, 2,700명 이상의 학생 지도자들이 다카 대학 중앙학생회의 호소에 응답했다. 모인 학생들은 에르샤드 정부의 사임을 강제할 단결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고, 그의 사임 이후 중립과도정부가 선거를 후원할 것을 요

172) Badruddin Omar as quoted in S. M. Shamsul Alam, “Democratic Politics and the Fall of the Military Regime in Bangladesh,”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27 (1995): 36.

173) Maniruzzaman, “Fall,” 206.

174) *Ibid.*, 218.

175) Hasanuzzaman, *Role of Opposition*, 133.

176) Interview with Adilur Rahman Khan, Dhaka, May 11, 2010.

구했다. 그들은 10월 10일 “정권만이 아니라 야당 지도부에도 반대하는” 전투적 시위를 조직했다.<sup>177)</sup> 자율적으로 조직된 이 시위 동안 경찰이 집회를 공격해서 최소한 다섯명이 죽었고 수백명이 부상당했다. 정권의 지속적인 폭력에 격노한 학생들은 BNP 학생지도자 자하드의 시신을 다카대학으로 다시 가져갔다. 그의 시체가 놓인 강단 주위에 집결한 수만명의 학생들은 오른 손을 들고 에르샤드가 퇴진할 때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sup>178)</sup>

[사진 29]

학생 자하드의 시신이 다카대학으로 되돌아갔다.

이를 뒤 운동은 심하게 공격받았고 많은 지도자들이 부상당했다. 저명한 개인들이 공격대상이 되면서, 약 22개 학생조직들은 전당학생단결(All Party Students' Unity: APSU)을 결성했는데, 매일매일의 참여모임과 시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연대체였다. 10월 15일까지 이 연대체는 정당들의 3대 연대체와 연결하는 연락위원회로서도 기능했다.

[사진 30]

학생들은 1990년 방글라데시 운동을 단결시키고 지도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정치인들이 민중운동을 지도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조직된 활동가들이 시위, 공개장례식, 집회의 주요한 조정자가 됐다. 한 달 안에, 학생들은 모든 주요 정당의 지구위원회들이 함께 일하도록 촉구했다. 마침내 11월 19일, 풀뿌리 그룹들의 단결에 부끄러움을 느낀 3대 연대체들이 공동선언에 서명했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에르샤드에 대한 통일전선을 선포하고, 학생들이 제시한 민주적 이행과정을 승인했다. 정당들이 단결을 발표했음에도, 셰이크 하시나는 BNP 지도자 칼레다 지아와 같은 연단에서 발언하기를 계속 거부했다.

그해 말까지 동원된 학생들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포위(ghraros)전술을 이용하여 다카와 나머지 지역 간의 통신을 여러 차례 끊을 수 있었는데, 학생들은 방송국을 포위하거나 점거했고, 요구가 들어질 때까지 관리자들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막았다. 이 시기에 운동은 또한 여러 차례 총파업을 시행했고 대규모 학생시위는 경찰 및 준군사조직 폭력배들과의 거리전투로 이어졌다. 권력을 유지하려는 냉담한 시도로, 에르샤드 세력은 인종 갈등의 불을 지필 희망으로 힌두인 사업체에 대한 공격을 조직했다. 풀뿌리 활동가들이 에르샤드를 계속 압박하자, 정권은 미얀마에서 사용된 것과 비슷한 새로운 전술을 개발했다: 한 무리의 단련된 범죄자들을 감옥에서 석방해서 거리의 시위대를 공격하도록 보냈다. 11월 20일, 마스탄스(msatans: 정부가 권한을 부여한 불법 무장단체)가 학생지도자 나즈물 하크를 거의 죽였고, 다음날 그들은 수십명의 학생을 더 죽였다. 11월 22일 그들은 다카대학 캠퍼스에 대한 무장공격을 감행했고, 마스탄스들이 예상대로 공격하자 학생들도 준비했고 소수는 마스탄스의 무기에 대항하려고 무기를 소지했다. 몇시간 동안 캠퍼스 전투에서 마스탄스는 완패해서 정부차량으로 도주했다.

불법 무장세력이 지리멸렬하자, 에르샤드는 비상법안에 호소했고 11월 27일 통행금지를 선포했지만, 민중들은 계속 저항했다. 특히 무하메드 푸르의 주민들은 수고스러웠지만 야외에 머물렀다. 시위 동안, 밀란 박사(1982년 APSU의 주요 지도자)가 거리를 건너다 총에 맞아 죽었다. 언론인연맹은 만약 정권이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면 신문을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약속을 충실히 지켰다.<sup>179)</sup> 학생들은 불법시위를 조직했고, 다카대학의 전직원이 사임했다. 파업이 확산되자,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의 예술가들과 노동자들은 12월 1일 시작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거부했다. 사흘 뒤, 공무원들은 에르샤드가 사퇴할 때까지 파업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실제로 방글라데시의 행정업무를 마비시켰다.

177) Alam, “Democratic Politics,” 33.

178) Interview with Fazlul Haque Milan, Dhaka, May 11, 2010.

179) Interview with Aaur Rahman, Dhaka, May 11, 2010.

수백건의 시위, 자연발생적 집회, 다양한 종류의 항의가 수도 전역에서 발생했다. 학생연락 위원회는 투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구별로 매일 활동했다. 비밀리에 만나도 APSU 조정위원회는 지속적인 전국적 시위를 연결했다. 파즐를 하케 밀란이 필자에게 말했듯이: “우리의 주요한 무기는 우리의 정신적 우위다. 우리는 죽더라도 신경쓰지 않으며, 엄청난 숫자의 학생들이 거리에 있었다. 방글라데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한다. 그것이 우리의 주된 힘이다.” 심지어 군대의 일부도 학생들의 편을 들었던 것으로 보였다.<sup>180)</sup> 군대 주둔지에서도 반에르샤드 감정이 폭넓게 나타났다.<sup>181)</sup> 11월 27일 이후 정권의 군대 내에서 불만이 아주 커져서, 불법 무장세력이 바리케이드를 친 곳에서 사람들은 폭력없이 돌파할 수 있었다.

은 나라가 분명히 자신에게 반대하자, 에르샤드는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3대 야당연합의 승인을 받은 부통령을 선출하고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에르샤드가 후계자를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시위를 취소하기를 거부했다. 이 결정적 순간에 활력을 가진 민중은 정권의 엘리트 뿐만 아니라 야당을 뛰어넘는 지성과 단결을 갖고 있었다. 알람의 말로: “대중들은 정권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느꼈고, 야당 지도자들이 정권과 밀실 타협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했다.”<sup>182)</sup>

수만명 시민들의 지속적인 동원에 직면하자 에르샤드는 12월 4일 사퇴하는 데 동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후에서 그는 새로운 계엄령 체제를 구축하려고 시도했지만, 최고위 장성들이 그를 지지하기를 거부했다. 거리의 운동이 거둔 굉장한 승리에 불구하고, 야당은 과도정부의 지도자에 합의할 수 없었다. 자율적 APSU가 이끌던 정치활동가들은 정당들이 어떤 합의에 도달한 시한을 12월 5일 오후 6시로 정했다. 12월 6일 의회가 해산됐고, 에르샤드는 권력을 과도정부에 넘겨줬다. 에르샤드의 사임소식이 퍼지자, 밤새도록 축하행사가 다카를 달구었다. 자정이 지난 후 모하메드 푸르의 주민들은 꽃을 들고 행진했고, 다음날 수천명의 사람들이 부라노 팔탄의 승리집회에 참석했다. 전국언론클럽 앞에서 군중들이 광증을 메웠다. 꽃이 모든 곳을 뒤덮었다.

[사진 31]

여성 TV 스타들이 에르샤드가 타도된 다음 축하행진을 이끌고 있다.

### 민주적 발전

그것은 값비싼 승리였다. 1982년부터 1990년까지 통틀어서, 에르샤드에 대한 투쟁으로 최소한 105명이 죽었고 수천명이 더 부상당했다.<sup>183)</sup> 10명의 장관과 함께 에르샤드는 나중에 부패혐의로 처벌받았지만, 그의 명령으로 자행된 살인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다. 전 독재자는 5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그가 횡령한 것으로 생각되는 1억 달러는 결코 한푼도 반환하지 않았다. 독재의 종식과 더불어, 시민의 자유에서도 주요한 성과를 거뒀다: 노동조합은 합법화됐고, 소수민족은 더 많은 권리를 얻었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됐고, 상대적으로 깨끗한 선거가 열렸다. 다른 곳에서 본 것처럼, 자유의 확대와 함께, GNP는 전례없는 비율로 증가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세계적 사건들은 민중의 동원을 이해할 중요한 맥락을 제공하며, 방글라데시도 예외는 아니다. 그 당시 민주적 격변을 경험한 나라들에 방글라데시가 속한다는 사실은 민족자존의 원천이다. S.M. 삼술 알람이 표현했듯이, “반권위주의적 사회적 선동에 대중적 참여 정도에서, 방글라데시는 필리핀, 아이티 등 수많은 사회주의 및 비사회주의 나

180) Interview with Ashim Kumar Ukil, Dhaka, May 10, 2010.

181) Interview with Amirul Haque Amin, Dhaka, May 10, 2010.

182) Alam, “Democratic Politics,” 34.

183) Interview with Gopal Chandradas, Dhaka, May 11, 2010.

라들과 나란히 섰다.”<sup>184)</sup> 에르샤드 정권을 끝장낸 피플파워 봉기로 이끈 필리핀, 미얀마, 티베트의 운동들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방글라데시에서도 보통시민들이 사회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확신시켰다.<sup>185)</sup>

봉기, 특히 승리한 봉기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며, 그들에게 단지 정권의 성격 또는 권력의 최고위에 있는 남녀의 이름보다 삶의 차원을 더 변화시키도록 추동한다. 우리는 한국과 네팔에서 억눌린 열망의 유사한 일반화된 발산을 목격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1987년과 1990년 민주적 발전 이후 몇주 안에 노동자들은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했고, 여성들은 더 많은 삶의 가능성과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자유를 주장했다. 한국과 네팔처럼 방글라데시에서, 정치적 민주화의 여운 속에서 투쟁의 가장 중요한 즉각적인 성과는 노동민중의 장기적 권리를 옹호할 노동조합의 결성과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이었다.

네팔과 한국처럼, 민주적 발전은 또 오래 지속된 차별패턴을 뒤집으려는 하층집단의 자주적 동원으로 이어진다. 봉기는 오래된 편견을 깨뜨리고 민중들이 가장 깊이 뿌리박힌 행동패턴에 대해서도 새로 도전하도록 이끈다. 다른 경우들처럼, 노동자, 여성, 다른 억압받는 그룹들이 민주주의 운동에 참여한 결과 그들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가시화됐다. 동시에 NGO들의 숫자는 몇배로 늘어났고, 전문적 활동가들이 새로운 풀뿌리 캠페인 내에서 명성을 얻었다.

표 25: 방글라데시의 공식 등록된 NGO들 1990-2006년

연도	국내	외국	합계
1990-1991	395	99	494
1995-1996	887	134	1021
2000-2001	1500	171	1671
2005-2006.1	1807	190	1997

Source: Farida Chowdhury Khan, Ahrar Ahmad and Munir Quddus, eds., *Recreating the Commons? NGOs in Bangladesh* (Dhaka: The University Press limited, 2009), 10.

1991년 2월말의 전국선거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비록 AL과 BNP는 각각 3,400만 표 중에서 1천만표 이상을 얻었지만, 어느 정당도 표의 1/3조차 얻지 못했다. 300석 가운데, BNP가 141석, AL이 44석, 민족주의당(물러난 독자재 에르샤드가 이끄는)이 35석으로 끝났다. 차이가 무엇이든, 이 3대정당은 각각 변호사, 실업인과 자본가로서 선출된 공직자의 70퍼센트 이상을 이뤘다. 새 정부의 선출된 대표들의 나머지 주요 구성부분은 도시전문직(에르샤드에 반대했던 의사, 교수, 교사, 언론인, 학생활동가들)으로, 그들은 새 입법부에서 겨우 17퍼센트를 차지했다. 9월 칼레다 지아를 총리로 하는 의회체제가 구성되자, 장관의 3/4 이상이 변호사와 실업가였다. 여성들은 극소수의 의석을 차지했다.<sup>186)</sup> 야당은 아주 분열돼서 심지어 언론인과 여성단체들도 당노선에 따라 별도로 결성됐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정당성을 거의 주장할 수 없었다. 비록 약 48명의 전 학생운동가들이 선출됐지만, 새 의회의 311명 의원 중 일부는 인간 밀수업자로 알려졌고, 30여명은 의류공장(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로 악명높은)의 소유주였고, 또 다른 60명은 그런 소유주와 연결되어 있었다. 한 인권옹호자가 표현했듯이, “선출된 정부가 반드시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공식적으로 “민주적”이었지만 연속된 정부들은 교착상태에 빠져 비효율적이었던 반면, 활성화된 시민사회는 해방된 방글라데시 상상력과 의지의 보다 광범한 영향으로부터 성장했다. 1971년 살인적 침략시 파키스탄 군대를 적극적으로 도운 지도자들을 기소하라는 분위기

184) Alam, “Democratic Politics,” 28.

185) Interview with journalist Aini Elias, Dhaka, May 9, 2010.

186) Interview with Dr. Beena Shikdar, Dhaka, May 10, 2010; Hasanuzzaman, *Role of Opposition*, 209.

가 팽배하자, 1992년 3월 26일 민중의 공개재판이 열렸다. “1971년 협력자와 암살자 제거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자주적 대중법정을 후원하고 무슬림 근본주의 지도자 골룸 아잠이 파키스탄 학살과 협력한 혐의로 유죄로 판명됐다. “공개법정”(public court)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정부는 그의 가능한 범죄를 조사하는 데 동의했을 뿐이다.

20년 동안, 어떤 방글라데시 정부도 파키스탄 협력자들에게 참혹한 학살에 책임지도록 할 의지나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1990년 투쟁으로 성장해 자율적으로 조직된 시민 활동가들은 정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했다. 이 특별한 문제는 선출된 정부의 무능력을 극적으로 부각시켰다: 2011년 정부는 1971년 잔혹행위에 가담한 개인들에 대한 기소를 계속 고려 중이다.

방글라데시 경우는 어떻게 전문직협회들(특히 의사, 언론인, 교사, 변호사)이 정당제도 외부로부터 은이 부분적으로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투쟁을 지속할 수 없는 무능력을 보여준다. 한 전 활동가가 기억하듯이, “우리, 1982년부터 투쟁했던 학생들이 과도정부를 접수했어야 했다. 그 대신 선거가 시작되자 부패가 들어왔다. 기업인과 부자들이 돈을 이용해서 후보와 장관이 됐다.”<sup>187)</sup> 비나 식다르 박사는 그 감정에 동감한다. “반란을 일으킨 것은 학생들, 그 다음에 변호사들,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었지만, 정당들은 우리 노동의 열매를 훔쳐갔다.”

활동가 그룹의 숫자와 약간의 민주적 권리가 에르샤드에 대한 투쟁으로 쟁취했지만, 방글라데시는 탄압과 불의한 권위에 대한 저항의 쓰라린 주기에 여전히 묶여 있다.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에르샤드의 부패의 지속적 효과는 더 이상 보편적 이해로 동기부여 받지 않는 것 같은 학생운동을 포함한 다른 수준으로의 하향침투(trickling down)이다. 새로운 민주정권의 하향식 성격은 AL과 BNP의 주요 결정이 지도자에 의해 결정되고, 군대의 권한이 증가하고 부패한 관료주의가 확대되는 데서 반영되지만, 빈곤과 문맹은 여전히 만연해 있다.

## 여성운동

민주적 발전 직후에 무슬림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커다란 긴장의 집중점이 됐다. 1991년 10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다카의 사창가에 대한 캠페인에 착수했다. 매춘부들은 대항시위를 조직했고 때로 자율적 여성단체인 여성의 편(Women's Side)의 도움을 받았고, 자신의 공간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93년 2월, 페미니스트 소설가 타슬리마 나스린이 남성 이슬람적 분노의 대상이 됐다. 신성모독으로 그녀를 비난하는 결정(fatwa)이 발효됐고, 1993년 9월 2일, 무명의 종교집단이 그녀의 머리에 1인당 GDP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을 때겼다. 다른 집단들은 그녀의 암살을 호소하자, 그녀는 인디아로 달아났고, 거기에서도 무슬림 지도자들을 그녀의 암살을 호소하자 스웨덴에 피난처를 구했다.<sup>188)</sup> 나스린의 경우는 방글라데시 여성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여준다.

양대 정당의 지도자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때로 여성 일반이 가부장제 통제의 멍에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됐다고 말한다. 먼저, 지아와 와제드는 암살당한 전대통령들의 미망인과 딸이다. 그들은 혈연이나 결혼으로 연결된 남성으로부터 권력을 받았지, 개별 여성으로서 그들의 지위 때문은 아니었다. 더욱이,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의 실천은 전형적인 남성적 정치행동과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단결하기보다 계속 서로 싸웠고, 때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그랬다. 1990년대 중반 함께 일할 수 없는 그들의 무능력 때문에 정부는 수년간 교착상태에 빠졌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폭력대치의 폭발을 가져왔다. 여성의 지위에 관한 더 나은 지표는 2003년 여성 문자해득률이 남성의 52퍼센트에 비해 겨우 29.3퍼센트라는 사실이다. 여성의 노동력 참여는 1996년 겨우 14퍼센트였다.<sup>189)</sup>

187) Interview with Amirul Haque Amin, Dhaka, May 11, 2010.

188) 알람에게, “방글라데시와 다른 이슬람 나라의 이슬람교는 시민사회의 수준에서 친족, 마을, 종교 공동체의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제적 틀에 현대적 조건을 재생산하며, 그런 공동체들이 사회경제적 현대화에 의해 분산되고 이완되는 시기에도 낡은 틀을 재생산한다.” (“Democratic Politics,” 39.)



민주주의로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가부장제는 견고했고, 많은 사람들이 에르샤드 독재로부터의 해방과 더불어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정말로, 여성에 대한 범죄의 급격한 증가가 보고됐고, 특히 전통적 정의가 심하게 강요되는 농촌지역에서 특히 그랬다. 1993년 간통으로 고발된 여러 여성들이 돌에 맞아 죽었고 다른 여성은 불타 죽었다.<sup>190)</sup> 이슬람 성직자들은 수십건의 결혼을 강제로 해산시켰고 약 5,000명의 여성 NGO 활동가들의 가족을 배척했다.

비당파 여성단체들은 오랫동안 남성폭력에 반대하고 농촌여성들의 삶의 향상을 위한 자율적 시위에 적극적이었다. 매춘여성들을 자조 캠페인과 공장 노동자들의 공정한 임금과 안전한 조건을 위한 지속적 투쟁은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1990년대, 여성운동이 일어나 가정폭의 종식, 성노동자들의 권리, 가사노동의 인정을 요구했다.<sup>191)</sup> 1998년 12월 7일, NGO들이 브라만바리아에서 8,000명 이상의 남녀 빈민들을 모았을 때, 지역 이슬람학교(madrassah)의 성직자들이 칼과 도끼로 폭력적 공격을 가했다. 3일 동안 NGO사무실과 학교에 대한 광범한 약탈이 벌어졌고, NGO 회원들의 집 26채가 불탔다. NGO와 연결된 지역 여성들은 공개적 옷짓기로 모욕을 당한 반면, 많은 NGO 지도자들은 수입 SUV를 타고 도망가 다카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외국 기부자들에게서 새로운 기금을 모으기 위해 사건을 이용했다.<sup>192)</sup> 1999년 여성에 대한 폭력이 상당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고, 신고된 공격의 숫자는 5년간 1,705건에서 8,710건으로 증가했다.<sup>193)</sup> 여성들이 더 많은 권리를 위해 투쟁해서 2001년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 대법원은 모든 종교적 심판(fatwas)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 의류 노동자들의 계급투쟁

에르샤드 이후의 방글라데시가 경제생산의 증가를 누리자, 상층은 부를 축적했고 불만의 표현에 폭력으로 대답했다. 동시에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은 농촌의 전통적 거주지에 뿌리 뽑혀 도시로 강제이주 당했고, 도시에서는 기껏해야 일시적 직업만 찾았다. 의류 노동자들은 1969년 285,000명에서 2006년 약 2,500개 공장에 180만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그 가운데 90퍼센트가 여성이다.<sup>194)</sup> “떠도는 도시 노동자들”은 사회의 주변에서 궁핍한 삶을 견디며, 그들의 조건 때문에 어떤 임금으로든 어떤 직업이라도 받아들여야만 한다. 생존할 만큼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최저임금은 월 14달러)은 자주 휴가나 병가 없이 주 7일, 하루 12시간씩 일하도록 강요받는다.

방글라데시의 여성 노동자들은 이중(또는 심지어 삼중)의 억압을 받는다. 가족이 가사일과 소득 양 측면에서 그들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들은 저임금 직업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수년간 작업장 안전문제가 그들을 괴롭혔지만, 그들의 복지를 위해 제공된 것은 거의 없었다. 공장 소유주들은 조합결성을 막았고, 무장 폭력배들(mastans)은 여성 노동자들을 순응 시키려고 폭력을 사용했다. 에르샤드에 대한 승리 몇주 후인 1990년 12월 27일 수도 외곽의 사라카라는 공장에서 끔찍한 화재로 25명의 여성과 어린이가 죽었다. 민주적 발전의 대중동원은 거의 끝나지 않았고, 민중은 경제적 정의를 위한 투쟁을 위해 민주화운동으로 열린 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다. 1991년 1월 2일, 약 20,000명의 의류 노동자들이 사상자에 대한 보상, 적절한 정부조사, 작업중 안전조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다카에서 행진했다.<sup>195)</sup> 아마도

189) Intiaz Ahmed and Binayak Sen, “The Case of Bangladesh,” in *The Disenfranchised: Victims of Development in Asia*, ed. Urvashi Butalia (Hong Kong: Arena Press, 2004), 221, 245.

190) Lamia Karim, “Democratizing Bangladesh: State, NGOs, and Militant Islam,” in *Recreating the Commons? NGOs in Bangladesh*, eds. Chowdhury Khan, Ahrar Ahmad, and Munir Quddus (Dhaka: The University Press limited, 2009), 149.

191) Amena Moshin, “The Nation State and Its Limits: Reflections from Bangladesh” in *Nepal: New Frontiers of Restructuring the State*, ed. Lok Raj Baral (New Delhi: Adroit Publishers, 2008), 209-11.

192) Karim, “Democratizing,” 169.

193) Ahmed and Sen, “Case,” 243.

194) Chowdhury, *Class and Social Structure*, 93.

여성시위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포괄적 노조인 의류노동자 및 사무직 통합평의회(UCWOPG)였다.

1990년대초, 노동자들을 힌두인과 무슬림으로 분열시키려는 고용주의 시도는 노동자들이 시위와 파업에서 단결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1993년 노동자들은 조합이 이끄는 총파업 동안 고속도로를 봉쇄했고, 최소한 네 개의 대학도 폐쇄됐다. 운동이 심화되면서, 1994년 4월 26일 다카를 폐쇄하는 데 성공했고, 파업은 6월까지 계속됐다.<sup>196)</sup> 노동자들의 곤경이 해결되지 않자, 농민들은 10월에 황마작물을 대부분 불태웠다. 12월 비공인 파업과 폭력이 계속됐고, 심지어 하급경찰과 민병대도 합류했다. 불만을 가진 일반사병들이 다카의 본부를 점령하고 22명의 장교를 인질로 잡은 다음, 엘리트 특수부대(ESF)가 투입됐다. 정부가 통제권을 회복할 때까지 최소한 4명이 죽고 50명이 부상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류 노동자들은 1995년 1월까지 계속 파업했다. 시위는 항구도시인 치타공에서 특히 격렬했다. 1995년 말까지 기차, 버스, 선박, 비행기 모두가 파업으로 정지됐다.

1990년대 초반 강렬한 시위의 물결 이후에, 다음의 광범한 계급대치가 비등점에 도달하기까지 또 10년이 걸렸다. 그 사이 시기에, 방글라데시는 계속 잔혹한 탄압에 맞서야 했다. 2002년 군대, 경찰과 국경수비대가 연속 86일간 동원됐고 그 기간에 11,000명 이상이 체포되어 최소한 58명이 감옥에서 죽었다. 당국의 의료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들 모두 “심장마비”로 죽었다.<sup>197)</sup> 2004년, 신속행동대대(RAB)가 창설됐고, 곧 새로운 사법의 살인, 고문, 기타 범죄가 새로운 전염병처럼 발생했다.<sup>198)</sup>

2006년 한 노동자의 사살에 대응하여, 노동자들이 다카 안팎에서 7개 공장을 불태우고, 고속도로를 봉쇄하고 며칠 동안 경찰과 충돌했다.<sup>199)</sup> 상승하는 파업과 폭력을 제어할 수 없게 되자, 과도정부가 수립됐지만, 5월 20일에서 5월 24일까지 비공인 파업의 물결이 4,000개 공장을 휩쓸었다. 인근 지구의 노동자들은 고속도로를 봉쇄했고, 정부는 총격과 곤봉으로 대응했다. 첫 주에 최소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3,000명이 부상당하고 수천명이 체포됐다. 5월 20일 구속된 동료의 석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농성에 사측이 꾀뚱더위에 마실 물도 없도록 감금(lock-in)으로 대응해서 시위는 격화됐다. 그런 다음 경찰과 폭력패들이 밀집한 노동자들을 공격해, 12명에게 총격을 가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을 구타했다. 그날 밤까지 노동자들은 교통을 봉쇄하고 계속 저항했고, 80명 이상이 총상치료를 받아야 했다. FS 스웨터 공장 앞에서 최소한 한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이틀뒤 사바르 EPZ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주장하던 노동자들이 사설 경비대의 공격을 받았지만, 시위대는 이웃 공장을 다니며 연대를 호소했고 다른 노동자들로 참여해 20,000명이 행진했다. 다시 한번 무차별 총격이 가해졌고, 이번에는 수백명이 부상당했다. 폭력이 수도로 확산되었고, 대규모 시위로 중심가 공단이 폐쇄됐다. 일부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공격받았다는 보도도 있다.<sup>200)</sup>

다음날인 5월 23일 다카의 교외 공단지역은 총파업으로 폐쇄됐다. 노동자 위원회들은 휴가, 탄압중단, 구속시위자 석방, 임금인상, 잔업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다시, 고속도로가 봉쇄됐다. 7개 공장에 불탔다. 그날 저녁, 국경수비를 담당한 부대인 방글라데시 소총부대(BR)이 질서회복을 위해 투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24일 공장지구들을 계속 폐쇄했다. 마침내 노동부장관이 많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합의안을 조정했지만, 공장소유주들은 장관이 약속한 개혁을 존중하길 거부했다. 5월 29일, 저항과 탄압의 새로운 판이 벌어졌다. 수백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총격으로 부상당했고, 최소한 한명이 죽었다.

195) Alam, “Democratic Politics,” 41.

196) Kasimere Bran, “Setting Hell on Fire: Solidarity and Destruction in Bangladesh,” *A Murder of Crows* 20 (March 2007) :6.

197) Asia Human Rights Commission, *State of Human Rights*, 19.

198) Ibid., xix.

199) “Workers’ Uprising in Bangladesh,” <http://www.infoshop.org/inews/article.php?story=2006052417570713>.

200) Ibid.

불법무장단체인 신속행동대대(RAB)의 잔인한 탄압으로 6월 8일 3주간의 투쟁 이후에 공장들이 다시 문을 열었다. 공장소유주들은 총액 7천만 달러의 피해액을 정부에 청구했다. 타협에 도달하자, 노동자, 사료자와 정부는 2006년 6월 12일 삼자간 양해각서에 서명했고, 이 각서는 최저임금,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 작업장 복귀의 대가로 모든 구속노동자의 석방을 의무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공장소유주들은 합의안을 존중하기를 거부했다.<sup>201)</sup> 그 결과 2006년 10월 다시 광범한 작업중지, 고속도로 봉쇄와 국가폭력이 의류 노동자들에게 퍼졌다. 구사대가 우타라 신택스 스웨터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폭행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즉각 반대했다. 경찰이 곤봉으로 공격하자, 노동자들은 그들을 다시 경찰서로 몰아넣고, 모든 유리창을 깨고 밖에 주차된 경찰차량 7대를 파괴했다. 1주일 후 다카에서 충돌이 일어났고 재빨리 우타라, 압둘라푸르, 통이, 미르푸르, 팔라비, 사바르 등으로 퍼졌다. 수십개의 공장에서 사보타지가 보고됐고, 3개의 쇼핑몰이 공격당했다.

36명이 사망하고 경제가 거의 붕괴된 3개월간의 격변 이후에 2006년 10월 임시 과도정부가 교체됐다. 헌법에 의하면 선거는 90일 이내에 치러져야 했고, AL이 주도한 대연정(Mohajote)이 승리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다.<sup>202)</sup> 경쟁하는 그룹이 서로 격렬하게 싸우면서 몇 달이 지나갔다. 이 시기에 이런저런 전국적 총파업 없이 한 주가 지나가는 일은 흔치 않았다.<sup>203)</sup> 1991년, 1996년과 2001년의 선거는 민주적 이행을 공식화했지만, 두 주요정당은 실제적으로 정치논쟁을 독점했다. 각 당은 다수를 획득하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총파업(hartals)과 봉쇄에 호소했다. 한 목격자는 이런 악화과정을 “민주주의와 민주적 지도력의 장례식”이라고 불렀다.<sup>204)</sup>

폭력과 종파주의가 만연하자, 2007년 1월 11일 군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비밀쿠테타”(Stealth Coup)로 권력을 접수했다. 기본권이 정지됐다. 경찰은 200,000만명 이상을 구금했고 집과 사무실을 “임시감옥”으로 바꿨다. 비상법령 7개월 동안 60명이 구금중 사망한 것으로 보도됐고, 이는 대량체포 이후 최소한 58명이 구금중 사망한 2002년의 “깨끗한 마음 작전”을 상기시켰다.<sup>205)</sup> 중국, 인디아, 미국과 UN이 군사정부를 지지하자, 군부는 자신의 규칙을 만들어 피로써 강제할 수 있었다.<sup>206)</sup> 심지어 최고 정치지도자들이 이 청소에 포함됐다. 셰이크 하시나는 2007년 7월 16일에 체포됐고 칼데라 지아도 9월 3일에 체포됐다. 부패와의 전쟁이란 이름으로 지배하면서, 군인들은 정부부서를 장악하고 공적 비용으로 치부했다. 군장교들은 일상적으로 법원을 감시했고 투표자 명부를 준비할 공식적 책임을 맡았다. 최소한 160개 신문과 하나의 텔레비전방송이 폐쇄됐다. 2007년 1월 11일에서 2008년 말까지, 50만 명이 체포되거나 구금당했다.<sup>207)</sup>

비록 선거가 예정돼 있었고 비상통치는 헌법에 의해 최대한 120일로 제한돼 있지만, 군두는 2년 이상 선거없이 권력을 유지했다. 이 시기 동안 시민들의 권리는 위축됐다. 2007년 7월 31일, 4개의 황마공장이 6,000명 노동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군부에 의해 폐쇄됐다. 18개 공장의 다른 14,000명의 노동자들도 비슷한 처지였다. 다음달, 거의 100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군대의 다카대학 점령에 반대하는 시위로 부상당했다. 며칠 후인 2007년 8월 23일, 학생과 군대 간의 싸움을 취재하던 최소한 12명의 기자들이 체포됐다.<sup>208)</sup> 2008년

201) J. Hasan, *Labour Rights in the Readymade Garment Industry in Bangladesh* (Dhaka: Odhikar, 2008), 15-18.

202) Moshin, “Nation State,” 201.

203) Rater Zonaki, “The Misrule of Law in Bangladesh,” *Article26*, no.4(August2007):38.

204) Md. Shariful Islam, “Democratization and Human Rights in Bangladesh: An Appraisal of the Military-Controlled Fakhuddin Interregnum,” *Article 27*, no. 4 (December 2008): 27.

205) Other reports put the number of deaths in detention during the first seven months at 126.

206) Interview with Subodh Raj Pyakurel, INSEC, Kathmandu, April 13, 2009.

207)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Insidious Militarization and Illegal Emergency,” 21.

208) Asian Legal Resource Center, “Bangladesh’s State of Emergency is a State of Lawlessness,” *Human Rights Solidarity* 17, no. 5 (September 2007): 3.

거의 300개의 공장, 그중에 사바르 수출가공지역의 21개 공장이 새로운 폭력사태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심하게 부상당하고 수백명이 체포됐다.

부패가 방글라데시의 발전에 주된 장애라고 세계은행은 간주했다. 투명성 인터내셔널(TI)은 방글라데시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세계의 부패 명단에서 가장 바닥 등급으로 매겼고, 그 이후는 2006년은 바닥에서 3위, 2007년은 바닥에서 7위였다.<sup>209)</sup> (세계은행은 1974년 관개사업에 4백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지급했고, 동시에 기아에 허덕이는 신생국가에 막대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제했기 때문에 세계은행의 결론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sup>210)</sup> 매일 부패가 보도되는 와중에, 정치인들과 경제계 지도자들은 군부 지도자들에 의해 처벌될 수 있도록 허락받는 동시에 수백만명의 보통 시민들은 반기아 상태로 내몰렸다. 언론이 재갈에 묶이자, 군부는 2008년 반부패 캠페인으로 거의 12,000명을 체포했다.<sup>211)</sup>

2008년 선거가 허용되자, AL이 권력에 복귀했다. BNP는 의회에서 거의 10퍼센트의 의석도 얻지 못했고, 그 지도자들은 다시 정치적 기소를 당할 처지였다. 칼레다 지아는 가족저택에서 퇴거당했다. 회복된 민주주의 아래서 경찰은 일상적으로 BNP 당원들을 괴롭혔다. 많은 사람들이 AL을 학대의 유일한 가해자로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정부에 복귀한 전독재자 모하마드 에르샤드의 역할을 지목한다. 군부통치 동안의 범죄로 거의 5년간 복역한 다음, 에르샤드는 국회의원으로 다섯 번이나 선출됐고, 그의 당은 2009년 이후 AL 연립정부의 일원이 됐다. 타룩데르 마니루자만은 그들 “마키아벨리의 환생”이라고 부른다.<sup>212)</sup> 비록 경제는 연간 6퍼센트로 성장하고 있지만, 빈곤은 뿌리깊고 불평등은 증가한다. 활동가 아누 무하마드는 방글라데시의 딜레마를 이렇게 요약했다: “비록 주요 정당들이 1982-83년 이래 전제적 정부와 그 정책에 대해 반대했고, 1990년 대중봉기를 통해 그 정부가 타도됐지만, 이 정당들은 선출되자마자 차례로 군부정권 아래서 정식화된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느라 바쁘게 됐다. 그래서, 선출됐든 아니든 군사정부와 비군사정부는 정부정책의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정부들이 동일한 계급적-제국주의적 이해를 대표했기 때문이다.”<sup>213)</sup>

기성 정당들이 방글라데시를 괴롭히는 체제문제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NGO들도 자신이 비판했던 바로 그 착취체제로 편입됐다. 한 활동가의 견해로: “빈곤완화 프로그램 또는 소규모 대출 등의 수혜자는 빈민들 아니라, 일부 중산층과 부자들이다. 사실 소수를 예외로 하면, NGO를 만드는 것은 빈민, 환경, 성평등 및 인권의 이름으로 돈을 버는 좋은 수단이 됐다. 이런 NGO들의 성장은 또 신자유주의적 현상으로, 국가의 시민에 대한 책임이 철저히 줄어들고 시장에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완전한 권위가 주어진다. 이 모델에서 NGO는 시장경제의 보완물이자 도구이다.”<sup>214)</sup>

독재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려는 민중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바바사헵 암베드카드의 예언적 말이 인디아만큼 방글라데시에도 진실되게 울린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은 그것이 대중들에게 자유, 소유 또는 행복추구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의회민주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빈민들, 짓밟히고 상속권이 없는 계급의 경제적 문제를 악화시켰다.”<sup>215)</sup>

209) Iftekharruzaman, “Corruption, Human Insecurity and Democratization in Bangladesh,” in *Breaking the Barriers*, eds. Mohiuddin Ahmad and Cho Hee-Yeon (Dhaka: Nabodhara, 2008), 170-171.

210) “Letter from London,” *Far Eastern Economic Review*, February 7, 1975.

211) Somini Sengupta, “Nearly 12,000 Are Arrested in Roundup in Bangladesh,” *New York Times*, June 5, 2008.

212) Interview with Talukder Maniruzzaman, Dhaka, December 20, 2010.

213) Manoranjan Pegu, “Development, Capitalism, NGOs and People’s Movements in Bangladesh: An Interview with Anu Muhammad,” <http://links.org.au/node/2075>.

214) Pegu, “Development.”

215) Babasaheb Ambedkar, “What Congress and Gandhi Have Done to the Untouchables,” (1946).

2010년 노동자들의 불만과 사용자의 비타협성은 다시 정의를 위한 광범한 투쟁을 가져왔다. 의류산업은 방글라데시 외환 수입의 3/4 이상과 산업노동력의 4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비록 16개의 인정받은 노동조합이 존재하지만, 낮은 조직율과 노동운동의 파편화는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켰다. 의회에서 대표성을 거부당한 노동자들은 마침내 분노를 표출했지만, 그들의 외침은 공감과 개혁보다는 폭력으로 응답받았다. 2월 H&M 의류를 제작하는 가지푸르의 공장에서 화재로 최소한 22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6월에서 8월까지의 항의로 정부는 2010년 11월 겨우 월 40달러의 최저임금법을 제정해야만 했다. 이 새로운 임금규정은 거의 시행되지 않고, 평균급여는 월 29달러였다. 노동자들은 73달러를 목표로 삼았지만, 심한 법적 장애에 부딪혔다. 법적 임금구조의 시행을 위한 캠페인에 대한 대응으로, 수십명의 노동 지도자들이 구속됐고, 거의 21,000명의 노동자들이 거꾸로 소송을 당한 상태였다.

시위는 12월 7-12일에 정점에 이르렀고, 이 때 파업은 4개 도시에서 일어났다: 다카, 치타공, 나라산간지하와 가지푸르. 핵심은 치타공 수출가공지역에 있는 한국계 영원기업의 공장였고, 이 회사는 의류산업의 총수출소득의 거의 5퍼센트를 차지했다.<sup>216)</sup> 최소한 4명이 사망하고, 20개 공장이 피해를 입었고, 1백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EPZ 전체가 폐쇄돼야 했다. 12월 14일, 갭, JC페니, 반호이젠을 위해 의류를 제작했던 공장의 9층에서 불이 났다. 최소한 26명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들 대부분은 잠긴 문 때문에 탈출할 수 없었다. 깨끗한 옷 캠페인(CCC)은 지난 5년간 의류산업에서 공장화재로 200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했다고 추정했다.<sup>217)</sup> 방글라데시 소방-민방위부는 2006년과 2009년 사이에 213건이 공장화재로 414명의 의류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민주주의”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는 계속 폭력으로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 2010년 10월, 정치적 폭력으로 모두 24명이 사망하고 770명이 부상당했다. 2010년 위키리크스(WikiLeaks)는 신속행동대대(RAB)가 영국정부로부터 “심문기술”을 훈련받았음을 증명하는 전문을 공개했다. RAB는 2004년 이래 1,000건 이상의 사법의 살인에 책임있다.<sup>218)</sup> 2010년까지 10년간, 4일마다 한명의 시민이 정치폭력으로 죽었고, 인권감시단체인 오희가르(Odhikar)는 총 853명으로 집계했다.<sup>219)</sup> 비록 폭력과 빈곤의 문제가 계속 방글라데시를 짓누름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민중은 20년전 중요한 전진을 했다. 그들의 지속적인 투쟁은 미래의 자양분을 끌어낼 수 있는 자부심과 영감의 원천을 1990년의 승리에서 발견할 수 있다.

216) Mubin S. Khan, “Wage Wars,” *New Age Extra*, December 17, 2010, 11.

217) Amy Kazmin and Jonathan Birchall, “Brands on Safety Push after Bangladesh Fire,” *Financial Times*, December 20, 2010.

218) “UK Aids Dhaka ‘Death Squad,’ ‘Cables Show,’” *South China Morning Post*, December 23, 2010, A8.

219) Interview with Adilur Rahman Khan, Dhaka, May 11, 2010.

제9장: 타일랜드

연표

1973년 10월 5일	11명의 정치활동가들 12월 10일까지 민주헌법 요구
1973년 10월 9일	수백명이 탐마삿 대학의 보 나무 주위에서 집회
1973년 10월 10일	수천명 집결, 집회를 탐마삿 축구장으로 이동
1973년 10월 11일	학생 동맹휴업으로 방콕의 대학 70퍼센트 이상 폐쇄
1973년 10월 12일	100,000명 이상 탐마삿에 모임
1973년 10월 13일	약 500,000명의 타이역사상 최대 시위대가 탐마삿을 떠남
1973년 10월 14일	군대 학생시위대에 발포, 73명 사망, 건물 방화, 타놈 사임
1973년 10월 15일	전투 계속, “노란 호랑이” 이공계 학생들 선봉에 섬
1973년 10월 15일	타놈과 최고위 장성들 망명
1973년 11월	봉기후 고조 시작: 노동자, 농민, 예술가, 여성, 학생들 동원
1974년	새 헌법
1975년	투자파업으로 자본 타일랜드 국외로 이동
1975년 4월 30일	사이공 함락으로 베트남 해방, 라오스와 캄보디아 왕실 폐위
1975년 5월 1일	방콕에서 250,000명 노동자들의 메이데이 집회
1975년	우익 자경단 수십명의 농민 활동가 살해
1976년 9월 10일	타놈 망명후 귀환, 국왕부부의 방문을 받음
1976년 10월 4일	탐마삿 대학에 7,000명 모임, 타놈 축출 “기지” 창출
1976년 10월 6일	경찰과 자경단 탐마삿 대학에서 학생 학살, 41명 사망
1976년 10월 6일	군부 정권장악, 가혹한 독재 강제
1976년	3천명의 학생활동가 농촌의 무장투쟁에 합류
1979년	학생 활동가 사면, 선거 실시, 신자유주의 시행
1991년 2월 23일	군부 쿠데타
1991년 4월 19일	민중민주주의를 위한 캠페인(CPD) 민주헌법 요구
1992년 4월 7일	수친다 크라파운 총리취임
1992년 4월 8일	찰라르드 보라삿, 수친다 퇴진 강제하며 단식농성
1992년 4월 20일	찰라르드 지지하는 100,000명 집회, 수친다 퇴진 요구
1992년 5월 4일	방콕시장이자 전직 장성 참롱 단식농성 시작
1992년 5월 6일	거대한 군중 의회 지별, 참롱 그들을 사남 루앙으로 이동시킴
1992년 5월 8일	집회 라자담노엔 가로 이동
1992년 5월 9일	지도자들, 집회를 5월 17일까지 연기하고 결정
1992년 5월 14일	민주총동맹 재조직화, 7명의 새 지도자 선출
1992년 5월 17일	300,000명 이상 사남 루앙에서 집회
1992년 5월 17일	군대 시위대가 팜파 다리 너머로 행진 저지
1992년 5월 18일	군대 자정 이후 발포, 수십명 사망
1992년 5월 18일	정부청사 불탐, 군대 학살계속, 민중들 반격
1992년 5월 19일	군대 로열호텔의 가설병원 습격
1992년 5월 20일	시위 전국적으로 확산
1992년 5월 20일	국왕 수친다와 참롱에게 차이를 해결하라고 명령, 군대 철수
1992년 5월 22일	민주총동맹 수친다 퇴진 요구
1992년 5월 22일	사망자 52명으로 집계, 300명 실종중, 시위대 처벌 요구
1992년 5월 24일	국왕 시위 참여자 모두에게 사면, 수친다 퇴진
1992년 9월 13일	친민주주의 정당 새 정부 구성하기에 충분한 의석 획득
1997년	민중의 헌법 시행, 타이 역사상 최초, IMF 위기

2001년	탁신의 타이락타이당이 2001년 첫 선거에서 승리, “마약과의 전쟁” 수행
2006년	민주주의 민중동맹(노란 셔츠) 탁신 반대시위
2006년 9월 19일	탁신에 반대하는 군부쿠데타
2008년 11월	노란 셔츠 법원이 친탁신 정부 해산하자 공항점거 중지
2009년 4월 13일	방콕에서 붉은 셔츠와 군대 간의 격렬한 대치
2010년 4월에서 5월	군대가 방콕 중심가에서 붉은 셔츠를 정리하면서 최소한 90명 사망, 1,800명 부상

“태국에서 대부분 정치적 희생자의 시신은 전지구적 자본의 가치와 보조를 맞춘 자유주의적 자유시장 정치로의 변혁을 실현하는 데에 영혼을 불러내는 그들의 힘을 빌려줬다.”

- 앨런 클리마

네팔 민중처럼, 타이인들도 민주주의를 위한 성공적 봉기에서 두 번 대규모로 시위했고 목숨을 잃기도 했지만, 영웅적 희생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허비되고, 독재자들에게 휩쓸려 사라지고 전지구적 기업의 이윤이 되는 경험을 했다. 네팔인들과 달리, 타이인들은 군주제를 폐지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극단에 가까운 광신으로 왕실을 존경한다. 20세기 후반의 풍부한 봉기의 역사는 보통 시민들 사이에서 공적 공간을 통제하는 민중의 힘에 대한 지속적 이해를 결정화했다. 붉은 셔츠와 노란 셔츠 간의 지속적 전투는 이런 의식의 가장 가시적인 지표일 뿐이다.

1973년 10월 학생들이 이끄는 수십만명의 전투적 시위대는 군부독재를 타도했지만, 군대가 71명을 살해하고 수십명을 실종, 부상 상태로 또는 트라우마를 남긴 이후에야 승리했다. 1973년 미소짓는 젊은이들에게 굴욕을 당한 정부는 3년 뒤 엄청난 반격을 가했다. 1976년 10월 6일 불법 무장단체와 경찰부대는 방콕의 탐마삿 대학을 공격하여, 최소한 41명을 살해했고, 많은 경우 기괴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산채로 태우거나 나무에 목매달았다. 미소의 나라는 섬뜩한 내면을 드러냈다. 1976년 학살 이후, 군부는 노동운동을 포악하게 탄압했고, 신자유주의가 피 속에 태어나자 시민의 자유를 삭감했다.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시위가 1992년 5월 대중적 토대를 활성화시켰고, 다시 한번 군대와 경찰은 유럽과 미국에서 당연히 여겨지는 권리를 요구한 평화적 시위대에 폭력적으로 대응했다. 최소한 44명이 살해됐고, 38명이 실종됐는데, 고삐풀린 군대가 무차별 폭력의 3일간 시민들에 가한 엄청난 폭력을 은폐하는 최소의 숫자이다. 1992년 봉기에서 분출된 반란의 에너지는 광범한 민주주의 공세를 추동했고, 그 찬란한 정점은 1997년 참여헌법과 권리장전으로 도달했다.

새로운 선거제도는 억만장자 CEO 거물 탁신 시나와트라가 대통령이 될 기회의 문을 열었다. 필리핀의 전대통령 피델 라모스처럼, 탁신도 칼라일 아시아의 자문위원이었고, 이 직책은 초국적 자본이 “측근”(“일국”이라고 읽을 것)의 경제적 통제를 피해가는 그들의 전지구적 지배사슬의 한 고리였다. 명성에 걸맞게, 탁신은 학교와 병원을 오랫동안 궁핍화된 농촌지역에 세웠다. 그는 도로를 세우고 오랫동안 주변화된 농민들을 지원했다. 그러나 탁신의 인기가 국왕에 필적할 정도로 높이지자, 군주제는 그를 망명으로 몰아낼 시위를 조종했다. 새로운 군부독재는 아시아의 오랜 역사에서 최상의 헌법 중의 하나인 1997년 헌법을 내팽개쳤다. 2008년 이래 붉은 셔츠와 노란 셔츠의 경쟁하는 진영으로 분열된 타이인들은 민주적 봉기의 귀중한 정치적 열매를 두고 계속 투쟁하고 있다.

민족, 종교, 국왕

외부에서 보면, 타일랜드는 행복하고 조용한 나라, 유럽 식민화의 저주를 피한 동남아시아의

소수 나라들 중의 하나로 남아있다. 그런 운명을 피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타인인들을 16세기 버마의 점령으로부터 민족을 구했을 때처럼 군주제에 그 영광을 돌린다. 그 결과 미소의 나라라는 표면 아래 멀지 않은 곳에 야만적 권위주의와 가혹한 처벌이 왕실에 대한 의심없는 존경을 위반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외국인과 타이인 모두를 기다린다.<sup>1)</sup> 이 책에서 논의한 나라들과는 달리,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한 한, 전세계의 다른 어떤 곳보다 타일랜드에서 국왕은 반신반인의 지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왕실에 대한 충성은 타일랜드를 가장 잘 정의하는 문화적 특징 중의 하나다. 국왕의 축복으로, 군대는 경제와 정치에서 과도한 역할을 한다.

1946년 이래 타일랜드는 18번의 군부쿠데타와 15회의 헌법을 경험했지만, 국왕은 단 한명이었다. 수십년 동안 군부독재자들이 키를 쥐고 있어서, 민간 정부들은 장군들의 권력을 제한하고자 했던 민중반란에도 불구하고 주변적 존재였다. 부미볼 국왕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군주인 것은 우연이 아니고, 2008년 그의 추정재산은 350억 달러로 UAE의 셰이크 하이파(230억달러)와 사우디 국왕 압둘라(210억달러)보다 더 많다.<sup>2)</sup> 입헌군주로서 국왕은 법률적 권력이 아니라 단지 도덕적 권위를 누리지만, 그는 법적 도전을 받지 않고 그의 통치를 지속적으로 강제했다. 위계적 후견관계는 타이 사회의 전통적 조직의 패턴이었다. 아래로부터 세워진 중국이나 한국의 상호부조 협회와 비교하면, 타이의 네트워크는 위로부터 아래로 나온다.<sup>3)</sup> 17세기 왕궁법은 고위 관리들이 비밀리에 만나거나 국왕을 제외한 누구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했다.<sup>4)</sup> 분명한 수직선으로 모든 부와 계급이 국왕을 통해 흘렀다.

수세기 동안 전통적으로 왕실은 정의를 위한 청원을 존중해야 했다. 13세기에 타이 민중들은 불만의 해결을 요청하기 위해 궁 밖에 종을 울릴 수 있었다. 수코타이의 석판에는 이렇게 써 있다: “만약 이 나라의 어떤 평민이 불만을 가지면... 왕국의 통치자인 람감행 국왕은 호소를 듣는다. 그는 가서 그들에게 질문하고 사건을 검토하고 정의롭게 결정한다.” 부미볼 국왕은 이 석판을 타이의 전통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인용한다.<sup>5)</sup> 영화 <왕과 나>로 유명해진 부미볼의 증조부 출랄롱코른은 타일랜드가 유럽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소녀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했고 노예제를 폐지했다(그렇게 함으로써 권력을 놓고 경쟁하던 귀족을 약화시켰다). 그의 행정개혁은 민족적 통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타일랜드에서 대학교육의 기원은 국왕이며, 1916년 왕명으로 공무원학교가 출랄롱코른 대학으로 이름을 바꿨다. 1933년 무혈 쿠데타가 절대군주정으로 끝장낸 1년 후, 나중에 탈마삿대학(“도덕과학 대학”)으로 이름을 바꾼 학교가 새 정부의 자유주의적 이상을 대표하기 위해 설립됐다. 타이 민중의 강력한 도덕적 나침반 때문에 그들은 1950년 한국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운동을 조직했고, 타이의 경제가 한국전쟁으로 이익을 보고 있음에도 1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청원에 서명했다.<sup>6)</sup>

- 
- 1) 타일랜드의 법률제도는 타일랜드를 가난한 미소의 나라로 유지하는 국왕의 역할에 대해 조금이라고 믿는 사람들조차 의문을 갖도록 한다. 채 10권도 안 팔린 자비 출판 소설의 오스트레일리아인 작가인 해리스 니코이디스는 타일랜드의 가혹한 대역죄 법률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니콜라이디스의 책이 “국왕의 권력 남용을 암시”했다고 판결했다. 2008년 4월 한 타이 시민은 극장에서 영화 시작 전에 연주된 국왕가가 연주될 때 자리에 앉아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한 동료는 “일어서지 않는 것은 범죄”라고 쓰여진 셔츠를 입었다고 보복 해고를 당했고, 그녀의 노조는 이후에 그녀를 지지하길 거부했다. 2008년 유사한 수십건의 그런 사건이 재판 중이었고, 지 웡파코른 교수는 자신에게 가해진 자의적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타일랜드를 더났다. 수백 개의 웹사이트가 폐쇄됐다. 불교 활동가 술락 시바락사는 부미볼의 통치에 대한 호화판 축하행사에 의문을 제기하자 대역죄로 고발당했다.
  - 2) “Thai King is World’s Wealthiest: Forbes,” *KoreaTimes*, August 23-4, 2008, 5.
  - 3) See Prudhisana Jumbala, “Toward a Theory of Group Formation in Thai Society and Pressure Groups in Thailand after the October 1973 Uprising,” *Asian Survey* 14, no. 6, (June 1974): 537.
  - 4) Yuangrat Wedel, with Paul Wedel, *Radical Thought, Thai Mind: The Development of Revolutionary Ideas in Thailand* (Bangkok: Assumption Business Administration College, 1987), 6.
  - 5) Ian Buruma, “All the King’s Men,” *New York Review of Books*, October 11, 2006, 44.
  - 6) Ji Ungpakorn, *The Struggle for Democracy and Social Justice in Thailand* (Bangkok: Arom Pongpangan Foundation,



## 그림 2: 태일랜드의 쿠데타 1932-2006년

[사진 32]

Source: *Article 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Vol. 6, No. 3, June 2007 (Hong Kong: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12.

베트남 전쟁 동안, 타이의 군부는 미국의 자금으로 상당한 이익을 봐서, 태일랜드는 인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미국의 전쟁을 위한 거대한 대기지역이 됐다. 24시간 내내 타이 기지로부터의 공중폭격은 10년 이상 계속됐다. 추정에 의하면 1966년과 1968년 사이 타이 GNP 증가의 절반이 워싱턴과의 계약 때문이며, 최고 군사령관들은 미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치부했다.<sup>7)</sup> 1968년까지 48,000명의 미군이 태일랜드 내에 주둔했다. 대부분 비밀인 북동부의 미공군기지들은 고급장교들을 위한 최고급 호텔, 군대를 위한 부대서비스 또는 “휴식과 오락” 동안 즐기기 위해 베트남에서 휴가를 받아 몰려든 미군 병사들을 위해 엄청난 건설비용을 필요로 했다. 연간 추가적 5,300만 달러가 원조로 태일랜드에 흘러들어와, 260,000명 이상의 타이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 타이군의 고급간부는 아주 많아서 서구 군대에서 3,000명당 1명의 비율에 비해 300명당 1명의 장군이 있었다.

한국의 경우처럼, 미국의 인도차이나 전쟁은 태일랜드 경제에 엄청난 호황을 가져왔다. 미군 기지 건설만으로 태일랜드에 2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됐다고 했다. 태일랜드가 미국의 전쟁에 복무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저류는 불교 활동가 술락 시바락사의 진술에서 표현되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물질적 부의 추구가 타이 문화의 기초를 파괴한다고 상기시켰다. 미국 달러 외에도, 타이 문화와 제도, 특히 교육 및 경제의 미국화는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 모든 타이인의 절반 이상이 빈곤 속에 살았고,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이 만성적 영양실조였고, 수만명의 어린 소녀와 소년들이 가족을 먹이기 위해 성노동자로서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수만명의 십대들이 마약에 중독돼 있었다. 1992년에 한 추정에 의하면 1,100만명의 어린이들이 이런 저런 형태의 노동을 강요당했다.<sup>8)</sup>

대개 군부에 결부된 부유한 매판계급은 최고위 장성들의 재산이 그들의 정치적 야망처럼 더욱 커졌음을 의미했다. 장군들이 군주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집단이 되면서, 기업 이사와 정부 관직을 위한 권력투쟁은 국가에 값비싼 희생을 요구했다. 1971년 11월 17일 군부내 한 분파가 권력을 장악했다. 최고 군사령관 타놈 키티카초른과 경찰총수 프라파스 차루사티아라는 타놈의 아들이자 프라파스의 사위인 나롱 키티카초른 대령까지 계속될 정치적 왕조를 창출할 희망으로 쿠데타를 실행했다. 1년 뒤인 1972년 12월 타놈은 임명된 의회에 군부와 경찰 출신의 다수를 제공하는 새로운 임시헌법을 발표했다. 두 가문이 나라를 운영하는 것에 반대하는 민중동원이 이뤄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 1973년 학생혁명

1961년에서 1976년까지 국가발전계획은 모든 정부기금의 30퍼센트 이상을 교육에 제공했고, 대학생 숫자는 1961년 18,000명에서 1972년 100,000명으로 늘어났다. 나라를 앞으로 이끌 위치에 있는 이 “새로운 세대의 젊은 남녀들”은 군부의 권력장악을 뒤흔들 이상주의를 수용했다.

1968년 청년시위의 전지구적 물결은 타이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줬다. 음악, 미술, 철학, 뉴스보도, 책 등은 모두 태일랜드에 젊은 세대를 위한 새로운 사상을 가져왔다. 이미 남한에서, 학생들이 1960년 이승만 독재를 타도하는 데 성공했다. 외국 유학에서 돌아온 학생들은

1997), 20.

7) J. Stephen Hoadley, *Soldiers and Politics in Southeast Asia: Civil-Military Rela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Cambridge: Schenkman Publishing, 1975), 32; Surachart 1985, 152-155).

8) Van Erven, *Playful Revolution*, 207.

시위에 특히 중요했다. 일부는 미국에서 시간을 보냈고, 거기에서 학생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램파트>(Ramparts) 잡지, 헤르베르타 마르쿠제의 글, 검은표범당(BLP)에 관한 논문번역이 새로운 세대의 감수성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줬다.<sup>9)</sup> 장-폴 사르트르의 글과 프랑스에서 1968년 5월 혁명에 대한 이해도 민중의 의식에 활동의 힘을 불어넣었다. 학생반란의 또 다른 지적 선구는 초기 세대의 타이 좌파 지식인들로, 학생들은 그들의 책을 복사해서 공부했다. 충성-민주-민족주의의 혼합은 군부독재에 맞섬에 있어 정당성과 비판적 힘의 수단이 됐다.<sup>10)</sup>

1968년까지 학생들이 이끈 방콕의 불법시위는 수도에서 계엄령이 해제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sup>11)</sup> 1969년 학생들은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짧은 투쟁에서 이겼고, 탐마사트, 출랄롱코트, 치앙마이 대학의 대표들이 전국학생평의회(NSC)를 결성했다. 다음 해, 수천명의 학생들이 전국선거에서 투표감시를 위해 동원됐고, 일련의 캠퍼스간 모임을 통해 11개 대학에서 각각 2명의 대표가 참여하는 타일랜드 전국학생센터(NSCT)가 결성됐다.

1972년 여름 치앙마이 대학의 수백명 학생들이 캠퍼스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하이드파크 스타일의 자유발언 집회에 모였다.<sup>12)</sup> 타일랜드의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생활수준 하락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파업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었다. 많은 사람들은 군-기업 콤플렉스의 탐욕이 타이의 문제라고 비난했다. 파렴치한 부패와 나란히 미국과 일본의 경제지배가 손쉽게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11월, 일본과의 점증하는 무역적자에 놀라 NSCT는 “일제상품 반대주간”을 조직했고, 정부에 경제부활을 위한 10개항 계획을 제출했다. 아주 소박한 시작으로부터 민주헌법을 위한 운동이 전국을 휩쓸었다.

의회선거와 새 헌법을 요구함으로써, 학생운동은 노동자들의 경제투쟁을 정치화했다. 1973년 5월부터 학생과 노동자들은 민주헌법과 의회선거를 위해 거리에서 집회를 가졌다. 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람캄행대학 총장은 잘못 계산했다. 그는 타이군 최고위 간부를 비난하는 풍자잡지를 발행했다고 9명의 학생을 제적했다. (장교들은 헬리콥터를 이용해 영화배우 여자친구들과 통야이 자연보호지역에 사냥하러 놀러 다녔다.<sup>13)</sup>) 6월 20일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교내집회는 “람캄행 9인”의 복학을 요구했다. 바로 다음날, 대학경비들이 학생을 공격하여 많은 학생이 부상당했다. 5개 대학의 교수 82명이 학생들을 지지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6월 21일 저녁, 방콕의 모든 대학의 학생 1만 명이 1932년 절대군주제의 평화적 타도를 기념하는 도심의 거대한 구조물인 민주주의 기념비에 모였다. 5천명의 학생들이 500명의 경찰에 포위된 채로 밤새 남아 있었다. 정부는 방콕의 모든 주요 대학을 폐쇄하라고 명령했지만, 다음날 아침 수천 명의 학생들이 더 시위대에 합류했다.

기념비에서의 노숙농성에서 만들어진 한 유인물은 새로운 분위기를 반영했다. “이제 이 사건들은 우리가 폭군에게 통치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학생들의 요구는 상승하여 6개월 이내의 민주헌법 제정을 포함했고, 그들을 지지하는 숫자는 6월 22일 낮 50,000명으로 늘어났다. 시민들은 음식, 음료수와 돈을 기부했다. 국왕에 대한 학생들의 충성심은 주기적으로 그들이 왕궁을 향한 다음 국왕의 노래를 부른 데서 분명했다.<sup>14)</sup> 위기가 통제를 벗어나자, 타놈 총리는 비상회의에서 내각과 협의했다. 학생대표자들을 만나 그들은 9명의 학생을 복학시키고,

9) Interview with Prajak Kongkiriti, Bangkok, October 28, 2008.

10) Email with Prajak Kongkiriti.

11) Ross Prizzia and Narong Sinsawasdi, “Evolution of the Thai Student Movement: 1940-1974 (Brussels: Asia Quarterly, 1974), 13.

12) Ruth Inge-Heinze, “Ten Days in October—Students Vs. the Military,” *Asian Survey* 14, no. 8 (June 1974): 491.

13) 줌발라는 이 그룹이 1969년에 세워졌다고 주장한다(Jumbala, “Group Formation,” 540); 다른 사람들은 1970년이라고 한다. Charnvit Kasetsiri, ed., *From October 14, 1973 to October 6, 1976: Bangkok and Tongpan’s Isan* (Bangkok: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Textbooks, Thai Year 2549), 94.

14) Prizzia and Sinsawasdi, “Evolution,” 26.

그들을 제적한 총장을 조사하고, 학생들을 공격한 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모든 대학을 다시 여는 데 합의했다. 헌법문제는 당분간 다루지 않았다.

미국대사관은 이 사건들을 긴밀하게 추적했고, 우려를 표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주둔이 “잘못된 풍자극에 등장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왕국에서 지금까지 열린 최대의 시위였다. 목격자들은 이것이 또한 학생들이 전국적 규모로 단결한 첫 번째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대부분 학생문제는 캠퍼스 별로 터졌었다.... 상당한 비율의 시위자가 여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이 오지의 캠퍼스를 포함해 그들의 동료들을 불러낸 속도와 조직화 기술이 정부를 놀라게 했던 것은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sup>15)</sup> 대사관은 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의 복귀가 나라를 얼마나 변화시킬지 모른다고 결론 내렸다.

6월의 승리에 탄력을 받은 NSCT는 헌법개정 캠페인에 착수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승리에 도취돼 있었다. 티라웃 분미가 쓴 논문인 “학생들이 공격대상을 찾기 시작했다”는 “학생운동은 인도네시아, 터키, 프랑스, 일본, 미국 등 다른 낱에서 목격한 것처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연구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sup>16)</sup> 동시에 일련의 비공인 파업이 일어났다. 1973년 첫 9개월간 타이철강사의 승리한 파업을 포함해 최소한 40건의 파업이 일어났다.<sup>17)</sup>

1973년 10월 5일 11명의 정치 활동가들이 타이랜드 헌법의 날인 12월 10일까지 민주헌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다음날 그들은 비판에서 국왕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헌법을 요구하는 반독재 유인물을 나눠주다가 모두 체포됐다. 경찰이 그들의 집과 사무실을 수색했을 때, 활동가들의 포스터는 모든 곳에 붙여진 것 같았다. 또 다른 학생이 체포되면서 구속자 수는 12명이 됐다. 10월 7일 일요일 NSCT는 공개성명을 발표하여 “파시즘과 공산주의 독재를 제외한 세계의 어느 정부도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요구한다고 시민을 탄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군부는 공개적으로 시위대를 공산주의자들과 불렀지만, 사적 모임에도 그들은 일부 학생들이 “조국의 생존을 위해 희생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10월 5일 탐마삿 대학의 학생회는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뒷마당의 보나무 들레에 공개마이크를 설치하고 대중토론을 시작했다.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반응할 수 있었던 참여적 모임은 수많은 아이디어와 행동을 쏟아냈고, 60명의 교직원 대표들이 12명의 구속학생을 면회하자는 계획도 나왔다. 그러나 교수들이 감옥에 도착하자, 당국은 그들을 외면했지만, 방명록에 이름을 쓰고 “우리 승리하라!”고 덧붙일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며칠 동안 사람들은 보나무 주위에서 평화롭게 대화를 계속했다. 광주도청 앞 분수대 들레의 모임처럼, 이 곳은 협의 민주주의가 민중투쟁을 자극한 장소가 됐다. 10월 9일까지 2,000명의 학생들이 군부독재를 어떻게 타도할 것에 대한 토론에 참여했다. 그들이 대화하고, 의견차이를 드러내고, 논쟁하여 결론에 합의했기 때문에, 그들의 참여는 많은 상이한 사고의 흐름을 통일된 운동으로 융합하는 데 기여했다. 처음에 겨우 몇십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버클리 자유발언운동처럼, 모임은 규모가 급속하게 커졌다.<sup>18)</sup> 사람들이 차례로 발언할 때, 모든 관점은 존중받았다. 최소한 네 개의 흐름이 한데 합쳐져 학생운동의 고조를 창출했다: 신좌파, 왕당파, 자유주의 및 민족주의. 그들의 단결된 개혁요구는 교수들, 변호사협회, 농촌에서 올라온 고등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그들 모두 보나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왔다. 8개의 인근 교육대학이 동맹휴업을 선언했고, 고등학생과 직업학교 학생들도 수업거부를 발표했다. 연이어 대학별로 지지성명이 도착했고, 방콕의 많은 지역주민들이 수백 명씩 몰려

15) U.S. Embassy Confidential Memorandum, June 23, 1973 (BANGKO 09756 231325Z).

16) As quoted in Prizzia and Sinsawasdi, “Evolution,” 29.

17) Giles Ji Ungpakorn, *A Coup for the Rich: Thailand's Political Crisis* (Bangkok: Workers Democracy Publishing, 2007), 71.

18) Interview with Prof. Naruemon Thabchumpon, Chulalongkorn University, Bangkok, October 29, 2008.

왔다. 그날 오후 탐마삿 대의원회는 4대 투쟁원칙을 승인했다: 비폭력시위, 구속자 석방을 협상할 대표자 10명 임명, 모든 대학에 지지를 요청하는 편지 보내기, “만약 정부가 이 모든 비폭력 시위 이후에도 12인의 석방을 거부한다면, 학생들은 시위와 유혈의 형태로 폭력에 호소할지 여부를 표결할 것이다.”<sup>19)</sup>

10월 10일까지 모임은 너무나 커져서 근처의 축구장으로 옮겨졌다. 비록 명목상 보수적이고 왕당파라고 간주됐지만, 불교 승려들이 학생들을 지지하길 원하는 수천명의 사람들의 지속적 대열과 함께 도착했다. 모든 곳으로부터 음식과 지지가 흘러들어 왔다. 카세차르트 대학에서 차량 70대의 행렬이 4,000명의 학생을 실어왔다. 잔타케삼 교육대학 학생들이 33대 차량행렬을 조직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과 미국의 유학생들이 지지편지를 보내왔다. 프라파스 부총리를 “대부”로 패로디하는 풍자극이 웃음과 비웃음을 자아냈다. 모임이 가진 중요성을 고려해, NSTC가 탐마삿 학생회로부터 조정권한을 넘겨받았다.

[사진 33]

탐마삿 대학의 모임은 그 누구의 예상을 뛰어넘어 커졌다.

10월 11일, 학생 활동가들은 방콕의 모든 대학들의 70퍼센트 이상을 폐쇄시켰다. 탐마삿에서 승려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도, 연사들은 구속자들의 단식농성을 발표했다. 프라파스는 학생 대표들을 만났지만, 구속된 활동가들을 석방하는 것은 거부했다. 학생들을 회유하여 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프라파스는 12개월 이내 새 헌법을 약속했다. 좌절한 대표들이 탐마삿으로 돌아왔을 때, 집회는 50,000명 이상의 규모로 불어나 있었다. 다음날 모든 주요 대학의 시험연기와 방콕의 모든 학교의 무기한 폐쇄로 고무되어, 집회는 규모가 두 배로 늘어 1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 탐마삿 축구경기장 위로 포스터와 깃발의 바다가 공중에 펼쳐졌다. 도시 전역에서 학생대오가 노래하며 행진했고, 100,000개의 점심가방을 포함해 운동을 위한 기부금을 모았다.<sup>20)</sup> NSTC는 다음날 정오까지 24시간 최후통첩을 통해 정부가 구속자를 풀어주지 아니면 “결정적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동원되자, NSTC는 아래의 도표처럼 조직을 재편했다. 다양한 하위집단이 중요한 자원조달 역할을 했지만, 최종적 의사결정 기구는 총회였고, 이는 1980년 해방광주에서도 나타났던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였다. 며칠간의 열띤 모임 이후에, 학생들의 새로운 단결이 성취됐다. 자율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그들은 권력을 찬탈한 장군들보다 사회를 더 잘 운영할 자신의 역량을 드러냈다. 이것이 바로 사회의 수많은 상이한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동참한 한 가지 이유이다.

도표 3: 타일랜드 전국학생센터의 조직

[사진34]

Source: Prizzia and Sinsawasdi, 37.

인쇄 매체는 헌법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 소식을 전했고, 치앙마이 대학, 송클라 나카린 대학, 콘카엔 대학 등 지방대학들의 시위도 많은 곳에서 자율적으로 조직됐다.

비록 구속된 활동가들에게 보석이 제시됐지만, 그들은 거부하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주장했다. 방켄 구치소에서 쫓겨난 학생들은 건물 밖 잔디밭에 남아있었다. 몇 시간 동안 탐마삿 대학에서 수천명의 사람들 간의 논쟁으로 수감자들이 취할 적절한 경로에 대해 정리됐다. 마침내 참석자의 다수가 보석 제의를 거부하기로 표결했다. 총회의 결정은 석방된 구속자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일시석방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하길 거부했다. 캠퍼스의 대표단이 국왕을 알현하려 왕국으로 갔다. 밤새도록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발언하고,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노래부르고 시를 낭송하는 동안, NSCT는 다음 날의 계획을 점검하고 다시 점검했

19) Quoted from Prizzia and Sinsawasdi, “Evolution,” 32.

20) Inge-Heinze, “Ten Days in October,” 497.

다. 수천명이 사람들이 다음 날의 행진을 준비하는 철야 모임에 참석하자, 첩보부서는 경찰 병력의 증강을 보고했다.

정부에게 주어진 시한인 10월 12일 정오가 다가오자 군중들이 계속 도착했다. 마침내, 정확히 정오에 NSCT 대표자들은 사람들을 이끌고 기도하고 국가를 부르고 국가, 종교, 국왕과 헌법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다.<sup>21)</sup>

대학에서 평화롭게 행진을 시작한 거대한 군중은 순결하게 조직됐다. 스카우트들이 행진로를 정리하기 위해 앞서 나갔다. 제일 앞에는 쇠갈고리를 가진 “특공대”가 섰고 그 뒤를 꽃과 타이국가, 다르마 차크라 깃발을 든 여성만의 대오가 뒤따랐고, 모두 오열종대로 조직됐다. 행진은 학교별로 모인 그룹만이 아니라, 긴급구조, 음식, 조정, 특공대 등 기능별로 조직된 그룹도 포함됐다. 수천명의 미소짓는 젊은 학생들, 부미불 국왕의 초상화를 든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단결의 표현을 통해 행진 조직가들이 부른 것처럼 “기쁨의 날”로 만들었다.

[사진 35]

국왕 부부의 초상화를 들고 미소짓는 젊은이들이 “기쁨의 날”을 이끌었다.

사람들은 경찰견에게 뿌릴 고춧가루 주머니와 바리케이드를 제거할 밧줄을 포함해 다양한 무기로 무장했다. 복지위원회 대오는 트럭에 음식, 과일, 최루가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물과 타월을 실었다. 민주주의 기념탑을 향하던 타이 역사상 최대 시위에는 전기트럭을 포함한 13대의 작은 픽업트럭으로 보호받는 “지휘센터”가 있었다. 이공계 학생들은 나무막대기와 쇠파이프를 갖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철조망이나 경찰견에 던질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갔다. 직업학교 학생들은 곰, 코끼리, 노란 호랑이, 비시시누 등의 이름을 가진 10개의 사수대를 구성했다. 학생들과 나란히 또는 뒤에는 타이국기, 꽃, 국왕 부처의 초상화를 든 미소짓지만 단호한 시민들의 대오가 있었다. 전부 군중들은 500,000명으로 추산됐다. 그들의 미소와 결의는 권력을 잡은 장군들을 제외하고 온 나라의 공감과 지지를 끌어냈다. 한 보도에 의하면 다수의 버스 기사들이 정류장을 지나치거나 시위에 가는 사람들만을 태웠다고 한다. 한 기사가 설명했다: “우리는 모두 헌법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sup>22)</sup>

민중들이 행진하자, 정부는 그들을 달래려고 재빨리 움직였다. 4시 20분 NSCT 지도자들은 프라파스로부터 체포된 학생들이 석방될 것이며 새 헌법이 1년 이내에 제정될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 9명의 NSCT 대표단은 국왕과 만났고, 그도 1년 이내에 새 헌법을 약속했다. 부미불과의 만남 이후에 시위 지도자들은 군중들에게 연설로 시위의 종결을 호소했고 축하하기 위해 탐마삿 대학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거리의 많은 사람들은 시위를 끝내기로 한 지도자들의 결정을 듣지 못했거나 또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탐마삿의 총회 동안 며칠 내내 사람들은 민주적으로 협의했다. 이제 국왕과의 만남과 프라파스의 약속에 기초해 내린 중심 그룹의 일방적 결정은 수십만명의 사람들을 해산하라고 설득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입증됐다. 학생기의 되풀이된 발표도 작동하지 못했다. 오후 5시 30분 시위행동대의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민주주의 기념탑에서 라마 5세 국왕 조각상 옆의 연병장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오후 8시 정부 라디오는 시위대의 요구수용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10시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남아있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지도자들이 살해당했다거나 우롱당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자정 무렵 군중은 경찰이 움직이면 국왕이 보호해줄 것이란 희망으로 지틀라다 왕궁 근처로 이동했다.

거리의 평화로운 밤이 지난 다음, 오전 5시 30분 경 국왕의 대변인이 다시 시위대에게 해산하라고 호소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불렀고 집에 갈 준비를 했다. 오전 6시 사수대의 직업학교 학생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화염병을 부렸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모범을 따르라고 호소했지만, 그들이 떠나려고 하자 경찰 특공대가 출구를 봉쇄했다. 이어진 몸

21) Kasetsiri, *From October 14*, 108.

22) Inge-Heinze, “Ten Days in October,” 499; Prizzia and Sinsawasdi, “Evolution,” 38.

싸움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경찰에게 던지자 경찰은 최루탄과 총탄을 발포했다. 사람들은 화염병으로 대응했다. 공격과 반격이 이뤄지자, 어떤 사람들은 운하쪽으로 밀렸고 다른 사람들은 근처 담을 넘어 동물원으로 갔다. 기관총의 화력이 군중들을 해산시켰다. 시위대는 총격에서 벗어나려고 허둥거렸고, 많은 사람들은 왕궁 들레의 해자(壕字)에 뛰어들어 국왕의 개입을 간청했다. 왕실 시동들이 왕궁 문을 열어 학생들을 왕궁마당으로 피하게 했다.

[사진 36]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사살당했다.

다른 사람들은 거리에 머물면서 반격했다. 오전 8시 탐마사 대학 근처에서 소방차 한 대가 징발됐고, 라자담노엔의 수도경찰본부가 공격받았다. 시민들이 학생들에게 합류하자, 정부는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탱크 부대를 불러들였다.

36시간 동안 거리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던 권총을 사용했다. 사람들은 버스를 접수해서 경찰진지를 공격하는 데 사용했다. 작은 그룹의 시위대들은 공보부 건물(시위에 관한 허위 보도를 만들어낸 것으로 믿어지는) 같은 상징적으로 중요한 구조물을 공격대상으로 선택했다. 사람들은 건물로 몰려가서 소화기를 탈취하고 불을 질렀다. 오전 11시 45분 국제청이 불태워졌고, 몇시간 후 국립복권청도 불탔다. (복권은 두 가문이 조작한 것으로 널리 믿어졌다.) 나롱의 반부패센터도 불태워졌다.

[사진 38]

군대의 공격이 계속되자, 작은 그룹들이 상징적으로 중요한 대상에 방화했다.

군대는 다시 탱크와 헬리콥터로 공격했다. 오후 3시 30분 군대는 탐마사 대학을 점령했다. 달아나던 수백명의 학생들은 프란녹에 몰려갔고 강 반대편으로 갔다. 타놈루앙 근처에서 싸우다가 도망치던 사람들이 캠퍼스에 도착하자, 옥상의 저격수와 헬리콥터의 군인들이 그들을 사살했다.<sup>23)</sup> 시민들은 학생들을 지지하기 위해 거리로 계속 몰려들었고 약 400,000명이 모였다. 5시 30분경, 사람들이 항복하길 거부하자, 정부는 군인들을 라자담노엔 가로 철수시켰지만, 이미 수십명의 사람들이 죽은 다음이었다.

국가의 수호자로 보이게 된 것을 너무 기뻐한 부미볼 국왕은 타놈을 왕궁으로 소환한 다음, 방송을 통해 타놈의 사임을 발표했고 새 헌법을 약속했다. 국왕이 1백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하자 타이인들의 기쁨은 슬픔으로 변했다. 국왕은 폭력의 종식을 요청했고, 탐마사 대학총장이자 타이랜드 불교협회 회장인 산야 탐마각디를 새 총리로 임명했다. 10월 14일 오후 6시 10분 타놈 키티카초른은 공식적으로 사임했다. 하지만 거리의 사람들은 집으로 가길 거부했다.

오후 11시, 국왕의 모친이 방송에 나와 진정을 호소했고, 산야는 6월 이내 새 헌법을 약속했다. 공식적으로 사임했음에도 타놈 역시 방송에 나왔지만, 그의 메시지는 불길한 기조를 띄웠다. 그는 모든 “책임있는 장교들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요청했다. 타놈과 군부내 강경파는 국왕의 권위를 무시하려고 시도했지만, 군내부, 특히 방콕에 군대의 추가파견을 거부했던 육군사령관(이자 미국이 선호한) 크리스 시바라 장군의 반대로 좌절당했다.<sup>24)</sup> 왕립 타이해군도 일부 육군과 공군 장교들처럼 공개적으로 학생들을 지지했다.<sup>25)</sup> 다시 한번, NSCT 지도자들은 시위대에 집으로 가라고 간청했지만, 사람들은 화를 내며 타놈(육군 최고사령관으로 남아있는)과 프라파스(여전히 경찰총장인)를 비난했다. 경찰본부를 습격할 공격조가 만들어졌다. 새로 전투가 벌어졌고 전투는 14일 밤부터 15일 오후까지 계속됐다. 화염병을 갖고 노란 머리카락을 맨 이공계 학생들의 그룹인 “노란 호랑이”가 나서 반복적으로 경찰본부를 공격했

23) Inge-Heinze, “Ten Days in October,” 501.

24) *Far Eastern Economic Review*, October 22, 1973 and October 29, 1973.

25) Prizzia and Sinsawasdi, “Evolution,” 44.

다. 이제 NSCT 지도자들은 주변화됐고, 정확한 정보조차 얻을 수 없었다. 10월 14일 밤 활동가들은 투쟁을 조정할 새로운 “타이 민중센터”를 세웠다. 밤새도록 경찰서에 대한 공격이 계속됐다. 오전 1시에 약 400명의 이공계 학생들은 판파 다리를 돌파하려고 싸웠지만, 기관총 사격에 밀려났다. 가장 유혈적 전투는 찰레름 타이 극장 앞에서 벌어졌다. 그 오안 약 30,000명의 사람들은 민주주의 기념탑 주위에 모여 있었다.

다음날 아침, 왕부라파 지구의 최소한 다섯 개의 총포상이 학생들에게 습격당했는데, 학생들은 버스로 철봉으로 막힌 문을 들이받았다. 지휘용 버스와 트럭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은 바리케이드를 쌓고 저항을 조직했다. “두 가문의 이름을 갖는 두명의 폭군”에 대한 총파업과 “야만인들”로부터 조국의 해방을 위한 총파업을 호소하는 “학생과 민중 조정단위”의 게시문이 등장했다. 돈무앙 공항에서, 공군인사들이 경찰, 군인, 공무원들에게 평화적 항의로 파업하라고 요구하는 유인물을 붙였다. 오전 8시 15분 산야 총리가 정부공무원에 대한 3일간 임시휴무를 발표했다. 은행과 관공서들이 폐쇄됐다. 외곽지역의 학생들이 동원되면서, 지역적 봉기들도 발생했다.

방콕에서 경찰서들이 계속 공격받는 동안 군인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 검거하고 폭행했다. 수도의 나머지 곳에서 학생들과 보이스카웃이 교통정리를 했다. 정오에 민주주의 기념탑의 시위대 1만 명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고, 한 측은 비폭력을 호소했고 다른 측은 투쟁을 계속하기로 맹세했다. 곧 경찰이 다시 그들에게 격렬한 총격을 가하자, 노란 호랑이들은 탈취한 소방차를 이용하여 판파 다리의 경찰서를 불태웠다.<sup>26)</sup> 군중들은 이공계 학생들이 가솔린을 불어 건물을 불태우자 환호했다. 경찰은 윗층에서 계속 총격을 가했고, 군중들은 또 다른 소방차를 탈취하여 더 많은 가솔린을 건물에 퍼부었다.

전투가 격화되자, 부미볼은 타놈, 프라파스, 나룽에게 타일랜드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시바라의 타놈에 대한 반대 때문에, 이용가능한 실탄과 보강병력이 부족해지자, 3명의 장군들은 떠나기로 결정했다. 프라바스와 나룽은 오후 8시 45분 타이완으로 떠났고, 다음날 타놈은 스미스란 이름으로 TWA 항공편으로 보스턴을 향해 떠났다. 오후 9시 증오하는 독재자들이 나라를 떠났다고 발표됐고, NSCT 지도자들은 TV에 나와 폭력을 중단하라는 호소를 발표했다. 시바라는 공개적으로 새 정부를 지지했다. 보다 중요하게, 정부군이 철수했다. 방콕 거리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나 군인을 단 한명도 볼 수 없었다. 뚜렷한 승리감이 모든 곳에서 느껴졌다. 학생들은 교통정리를 했고, 사람들은 무리지어 나와서 거리를 청소하고 전투로 남겨진 혼란스런 상태를 깨끗이 정리했다.

총격이 멈추었을 때, 최소한 77명의 시민이 사망했고, 857명이 부상당했다.<sup>27)</sup> 수십명 이상이 실종상태였고,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 10월 14일 발표명령은 타놈이 내렸고, 많은 사람들은 사전에 계획한 살인행위라고 불렀다.<sup>28)</sup> 비록 사람들이 처벌을 계속 요구했지만, 결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타놈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 실패는 3년 뒤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된다.

## 봉기후 고조

타일랜드의 정치발전에서 전환점인 1973년의 민주적 발전은 타일랜드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시기 중의 하나를 가져왔다. 시위하고 평화롭게 집회하고 공개적으로 거슬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들이 쟁취됐다. 정당들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 있었고, 경제계 지도자들은 정치구조에서 더 많은 권력을 얻었다.<sup>29)</sup> 로스 프리지아와 나론 신사와스디

26) Ungpakorn, *Coup for the Rich*, 72.

27) Haggard and Kaufman say that nearly eighty were killed (*Political Economy*, 104) Norman Peagam, “A Cinema Review of *Tongpan*,” uses the figure of seventy-one in Kasetsiri, *From October 14*, 168. The remarkable video, *October 14, 1973 Student Uprising* (with English subtitles by Benedict Anderson) gives the figures I use above.

28) See Terence C. Lee, “The Causes of Military Insubordination: Explaining Military Organizational Behavior in Thailand,”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Honolulu, Hawaii, March 2005.

는 “50년 이상 수천명의 타이인들을 군사적 권위에 굴복하게 했던 심리적 장벽이 완전히 부서지진 않았더라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sup>30)</sup> 다음 3년간, 베네딕트 앤더슨의 견해로는, “타일랜드는 전후로 자신이 경험했던 정치체제 중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체제였다.”<sup>31)</sup>

타이 학생들은 전세계적으로 반란운동을 흥분시켰다. 봉기 1주일 후 그리스 학생들이 아테네 공과대학에서 파파도풀로스 독재에 맞서 일어났다. 태국처럼, 군대는 학생들에게 탱크를 동원했고, 11월 15일 34명이 사망했다. 타이 활동가들은 그리스 학생들이 타의 군부독재타도 성공을 칭찬하는 구호를 외쳤다고 들었다.<sup>32)</sup> 미국의 반전운동도 영감을 얻었던 반면, 미국 정부는 버마학생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1973년 11월 7일 랑군의 미국대사관은 워싱턴의 국무장관에게 전문을 보냈다. 1급비밀 전문은 결론내렸다: “그러나 타이학생들의 성공은 버마학생들이 1962년 GUB(버마연방 정부)군이 그들을 진압했을 때 배운 교훈을 잊도록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지 웅파코른은 1973년 “군부독재에 맞선 대중봉기가 타이 지배계급을 그 토대로부터 뒤흔들었다. 작은 사람들(pu-noi)이 실제로 아래로부터 혁명을 시작한 것은 처음이었다. 혁명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혁명은 단지 민주헌법을 요구하는 학생혁명만은 아니었다. 혁명에는 수천명의 노동계급 보통사람들이 참여했고, 노동자 파업의 고양되는 파고의 정점에서 일어났다. 군부독재 타도에 성공하자 자신감이 증가했다. 노동자, 농민, 학생들은 단지 의회민주주의 이상을 위해 투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회정의와 오래 유지된 특권의 폐지를 원했다. 일부는 착취와 자본주의 자체의 종식을 원했다.”고 이해했다.<sup>33)</sup>

학생들이 주요세력이었지만, 노동자들도 전례없이 동원됐다. 비농업 노동력은 1970년까지 10년간 2백만명에서 3백만명으로 증가했다. 1958년에서 1972년까지 노동조합은 불법이었기에, 겨우 약 20건의 파업만 일어났다. 일단 봉기가 노동자들의 집단적 행동에 대한 제한을 없애자, 봉기 후 2달에 300건 이상의 파업이 일어났고, 대부분 비공인파업이었다. 파업숫자가 1972년 34건에서 1971년 501건으로 늘어났다( 그 중 약 73퍼센트는 10월봉기 이후에 일어났다.)<sup>34)</sup> 1973년 석유가격 인상으로 야기된 경제적 곤란 와중에, 파업에 177,807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다.<sup>35)</sup>

봉기에 관한 이 연구에서 되풀이해서 봤지만, 새로운 풀뿌리 조직들이 민중봉기 후에 결성된다. 교사 집단과 나란히 봉기 이후 노동자들의 결사들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졌다.<sup>36)</sup> 등록된 노동자협회의 숫자는 1974년초 60개에서 1976년 185개로 세배나 늘었다. 1974년 10월, 약 154개의 새로운 노동조합이 조직됐고, 1975년 말까지 그들은 타일랜드 노동조합연맹(FLUT)으로 단결했다.<sup>37)</sup> 노동자들이 중앙노조연맹을 결성하자, 국영기업의 부패한 관료들에 맞서 파업을 했다.<sup>38)</sup>

29) Interview with Somchai Homlaor, Bangkok, October 28, 2008.

30) Prizzia and Sinsawasdi, “Evolution,” 44.

31) Quoted in Somchai Phatharathananunth, *Civil Society*, 55.

32) Interview with Prof. Ji Ungpakorn, Chulalongkorn University, Bangkok, October 30, 2008.

33) Ji Giles Ungpakorn, *History and Class Struggle in Thailand*.

34) Katherine A. Bowie, *Rituals of National Loyalty: An Anthropology of the State and the Village Scout Movement in Thailan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104; David Morell and Chaianan Samudavanija, *Political Conflict in Thailand: Reform, Reaction, Revolution* (Cambridge, MA: Oelgeschlager: 1981), 188-9.

35) Walden Bello, Shea Cunningham, and Li Kheng Poh, *A Siamese Tragedy: Development and Disintegration in Modern Thailand* (Oakland, CA: Food First Books, 1998), 75.

36) Jumbala, “Group Formation,” 542.

37) Marian Mallet,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October ‘76 Coup,” in *Thailand: Roots of Conflict*, eds., Andrew Turton, Jonathan Fast and Malcolm Caldwell (Nottingham: Spokesman, 1978), 1082.

38) Ungpakorn, *StruggleforDemocracy*, 91.



1974년 6월 거대한 파업에 600개 공장 약 20,000명의 섬유노동자들이 참여했다. 학생들의 지원으로 파업은 1일 최저임금으로 1.25달러로 두배 이상 인상하는 데 성공했다. 한 시점에 수천명의 농민들의 섬유노동자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방콕에 집결했다.<sup>39)</sup> 1975년 방콕의 스탠더드 의류회사에서 2천명의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장기파업을 이끌었다. 하라 청바지의 여성들은 작업장을 점거했고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운영했다. 동시에,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PD)과 시민자유연맹(UCL) 같은 새로운 단체들은 집회의 자유 같은 공적 권리의 확대를 옹호했다. 1975년 5월 1일, 방콕에서 약 250,000명의 노동자들이 집회를 가졌고, 다음해 50만 명이 인플레이션에 항의하는 총파업에 참여했다.<sup>40)</sup>

자율적인 농민단체들이 등장했고, 토지개혁과 세금경감을 요구했다. 농촌의 빈곤은 타일랜드의 취약한 안정성을 괴롭혔다. 1,400가구 이상에 대한 치앙마이 1974년 통계조사로 37퍼센트가 무토지 상태로 밝혀졌다.<sup>41)</sup> 1974년 5월, 집회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호되자 곧 수백 명의 농민들은 거리로 나서서 대부업자들이 그들의 토지를 빼앗도록 한 고리대 이자에 대한 공개적 항의시위를 했다. 처음으로, 수천 명이 방콕의 타눔루앙 공원에 집결해, 토지개혁, 세금경감, 지대인하를 요구했다. 다음 달, 농민의 불만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새 정부위원회에는 10,000건의 청원이 쇄도했고, 석달 뒤 그 숫자는 53,650건으로 늘어났다. 이런 동원으로 탄력은 받아 1974년 11월 19일 타일랜드 농민총동맹(FACT)가 결성됐다. 총동맹은 성공적으로 정부를 압박하여 지대상한선을 강제하고 기금을 농촌지역에 할당하도록 했다. 노동자들과 함께, 학생 활동가들은 농촌 농민들과 동맹을 결성했다.

붕기후 고조 시기에, 수십만 명의 노동자와 농민들이 동원하자, 많은 학생활동가들은 집중적으로 민주주의 투쟁에 참여했다. 10월 승리 직후, NSCT는 학생이 아닌 수천 명을 자신의 행사에 끌어들여 지도적 그룹이 되었지만, 구성원들이 여러 캠퍼스의 학생단체 의장들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이 고도로 집중된 그룹에는 정치적으로 날카로운 학생들보다는 운동을 잘하거나 인기있는 학생들이 포함돼 있었다. 붕기후 한 달 안에, NSCT 내 활동가들은 가입했고 타일랜드 독립학생연맹(FIST)을 결성했다. 이 시기에 학생운동은 아주 강력해서, FIST는 농민들의 관심사를 듣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의깊게 선택한 5,000명의 학생들을 농촌지역에 파견했다. 대변인 티라이숏 분메는 베트남 공산당을 연구하여 “베트남인들의 용감한 투쟁, 베트남 사회의 변혁과 혁명에 대한 연구는 가치가 있고, 우리가 그들의 방법을 타 사회에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sup>42)</sup> FIST의 지침에는 “민주주의와 나라의 종교, 국왕의 보존”이 포함돼 있었다.<sup>43)</sup> FIST는 “불교사회주의”를 옹호하며 급하게 행동을 요구했고, 그래서 사회를 반영한 “뉴스 가로채기”와 “개인의 지배”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10월 21일 민주적 돌파 며칠 안에 방콕에서 수천명이 학생들이 람퐁 지방의 부해판 주지사의 사임을 요구해 받아냈고, 이는 수도에 운동의 승리에 이은 농촌의 일반화된 고양의 일부였다. 학생들은 다양한 이슈로 동원했다: 부당한 학교관리자 반대, 편향적 신문 반대, 미국 대사와 군인사에 대한 반대 등. 반미 동원은 다음해까지 지속됐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으로 CIA가 만든 군첩보기관인 국내안보작전사령부(ISOC)가 수십 명의 농촌 주민들을 학살했다.<sup>44)</sup> 원래 공산주의자들에게 비난이 가해졌지만, 학생 활동가들은 생존자들을 방콕으로 데려와 ISOC 가해자들에게 증언하게 했고, 이후 내무부의 조사로 수많은 학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확인됐다.

1973년 11월, 주목할 만한 두 사건이 일어났다. 출랄롱코른 대학의 학생들이 새로운 미국대

39) Bruce D. Missingham, *The Assembly of the Poor in Thailand: From Local Struggles to National Protest Movement* (Chiang Mai: Silkworm Books, 2003), 24.

40) Ungpakorn, *Coup for the Rich*, 73.

41) Bowie, *Rituals*, 101.

42) Quoted in Wedel, *Radical Thought*, 145.

43) Inge-Heinze, “Ten Days in October,” 505.

44) Harold Stockwin, “The Unholy Gros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November 5, 1973, 45.

사 임명자 윌리엄 키티에 반대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그들의 유인물은 “미국의 인도차이나 개입이 태일랜드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전 군사정부에 대한 지원은 태일랜드에서 민주주의의 부패로 이어졌고, 미군 기지들은 독립국가로서 태일랜드의 좋은 이미지를 퇴색시켰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sup>45)</sup> 학생들의 반미 캠페인은 CIA의 어설픈 실수가 폭로되자 예상치 못한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CIA는 공산주의 게릴라 지도자가 태일랜드 총리에게 보냈다고 하는 가짜편지를 보냈다. 미국 대사 키티가 2년 동안 CIA를 위해 일했고 증오의 대상인 독재자 타눔 키타초른이 그의 CIA 멘토들과 예외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었다. 1월초, 활동가들은 미국대사관에 “추악한 미국인들, 집으로 가라”고 쓰인 쪽지와 함께 화환을 놓았다. 정부는 마침내 태일랜드의 CIA에 현장사무소 폐쇄를 명령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CIA의 최대 작전기지들 중의 하나를 위협했다. 마히돌 대학에서 학생들은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침략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책을 출판했다. 11개 기지와 국경의 작전지역으로 미국은 육군의 많은 부대에 심지어 대대 수준까지 군사고문을 두고 있었다.

봉기 한달 후, 공공행정학교 교장은 도쿄에서 학생들이 1973년 운동을 잘못 대표한다고는 연설을 한 다음 사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란 후에, 학교의 학장과 교과장의 선출과정이 민주화되어, 교직원들은 학과장에 대해 투표할 수 있었고, 학과장들이 학장을 선출하게 됐다. 이 같은 시기 동안, 일본 총리 타나카의 방콕 호텔이 성난 학생들에게 버스로 포위됐는데, 그들은 타이 상품에 대한 일본의 수입쿼터 해제와 태일랜드에 대한 일본의 차관 공여조건의 수정을 요구했다. 마침내 타나카가 나가도록 허락되자, 학생들은 그의 차를 둘러싸고, 차를 두드리면서 “일본인은 집에 가라”고 외쳤다.

학생혁명의 성공으로, 예술가들은 과거 수십년보다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즐겼다. 타이 예술가연합은 1975년 10월 라자담노엔 가에서 민중미술 거리 전시전을 열었다. 풀뿌리로부터 “민중의 연극”, “삶을 위한 연극”, “민중을 위한 노래”(보통 서구 포크송에 타이어 가사를 붙인), “민중을 위한 문학” 등과 같은 캠페인이 시작됐다. “불타는 문학”이란 제목의 한 전시회는 엘리트교육에 반대하는 캠페인의 일부로 “봉건적”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활동가들처럼 많은 예술인들은 마오주의적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에 큰 영향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개념주의, 초현실주의, 다른 형태의 실험으로 반응했고, 여기에는 부활한 전통적 형태의 변형도 포함됐다.<sup>46)</sup>

학생회 선거에서 자율적 정당, 예를 들어 탐마삿대학의 도덕적 힘의 당, 람캄행대학의 도덕적 진리당, 치앙마이 지역의 인민의 도덕당 등의 지지를 받는 좌파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출판업도 번성했다. 수백종의 팜스주의 서적과 팜플렛들이 번역되어 공개적으로 팔렸다. 미국제국주의와 일본 신식민주의는 흔한 토론주제가 됐고, 토착적 타이 이론과 역사가 갑자기 재출판되어 새로운 독자들을 얻었다. 인문주의적 가치로의 새로운 전환은 1973년 미스 태일랜드 미인대회의 중단으로 이어졌다.<sup>47)</sup> 교육개혁은 농촌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 교육 불평등은 마침내 다뤄졌고, 커리큘럼이 만들어졌다. 문화적 가치를 변혁하고자 학생들은 할크루(langkru) 캠페인, 즉 낡은 스타일로 권위주의적 관행을 반영하는 교사들을 문자 그대로 “청소”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새 헌법 초안이 여성단체를 포함한 광범한 시민단체들에 의해 작성됐고, 이들은 마오주의의 영향력과 민주화 추동력으로 등장했었다.<sup>48)</sup> 1974년 승인된 새 헌법은 성문제를 다뤘고 타이 역사상 처음으로 평등권 보호조항을 넣었다. 여성들이 판사와 검사로 될 기회로 급속한 변화가 약속됐고,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약속됐다. 새 헌법은 1973년 봉기의 성공으로 자극받은

45) *Bangkok World*, November 18, 1973 as reported in Prizzia and Sinsawasdi, “Evolution,” 47.

46) Queen’s Museum of Art, *Global Conceptualism: Points of Origin, 1950s -1980s*, (2000),144.

47) Callahan, *Cultural Governance*, 47.

48) See Virada Somsawasdi, “The Women’s Movement and Legal Reform in Thailand,” April 1, 2003, Cornell Law School, <http://lsr.nellco.org/cgi/viewcontent.cgi?article=1001&context=cornell/biss>.

신생 사회운동을 통합할 필요가 있었다.

1974년 1월 NSCT는 운동의 지도세력으로서 독재반대 전국연합(NCAD)로 대체됐고, 이 우산 조직에는 노동자, 농민, 학생을 삼각동맹으로 단결시킨 20개 이상의 단체들이 가입했다. 타일랜드 공산당(CPT)의 영향력은 도시에서도 증가했다. 이미 그들의 게릴라 부대에는 7,000명의 전사들과 100,000명의 지지자들이 있었다.<sup>49)</sup> 이웃 인도차이나에서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이 접수됐고,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왕가가 타도됐다.

경제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은 1972년 5퍼센트 이하에서 1973년 15퍼센트 이상으로 뛰어올랐고, 1974년 24.3퍼센트에 이르렀다. 실질임금은 1973년 3.8퍼센트 하락했고, 1974년 8.8퍼센트 하락했다.<sup>50)</sup> 타이 시민사회의 고조와 인근 인도차이나의 몰락 도미노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주 겁먹은 결과 투자파업이 벌어졌다.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 오랫동안 가장 높았던 일본의 몫은 1974년 7억 4,690만 달러에서 다음해 4억 2,360만 달러로 떨어졌다. 1975년 1월 선거에서 좌파 후보들이 의회에서 37석을 얻었고, 다음 8개월간 순자본유출은 5,990만 달러에 이르렀고, 이는 그 전해 첫 8개월간 해외로 빠져나간 2,770만 달러의 두 배였다. 새 총리 쿠크릿은 “투자자들이 특히 비타협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들에게 겁을 먹었다”고 설명했다.<sup>51)</sup> 1975년 12월 3일 <방콕 포스트>는 미국대사 찰스 화이트하우스의 말을 인용했다: “미국에서 볼 때, 타일랜드의 투자분위기는 지난 2년간 악화됐다.”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훨씬 더 곤란한 것은 군부의 주요 소득원 상실이었다. 장군들의 권력은 그들이 서로 지불하는 엄청난 금액에 의존했고 주로 세 개의 자원에서 나왔다: 미국원조, 마약거래와 산업. 후자는 기업 이사회의 이사가 됨으로써 얻는 수입이었다.<sup>52)</sup> 1973년 이후 이 영역으로부터 장군들의 수입은 급격하게 감소했고, 군대의 지위상실은 학생들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동시적 폭발과 더불어 이중의 굴욕이었다. 1975년 쿠크릿 정부는 모든 타일랜드로부터 미군부대의 철수를 감독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전망은 많은 이유로 주요 군지도자들을 격노케 했는데, 그것은 아무 수익성 높은 관계의 종말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사회운동 이론가들은 우익운동이 지위하락의 조건 아래서 발생한다고 오랫동안 지적했고, 타일랜드도 예외는 아니었다. 군부의 쇠퇴와 함께, 필사적 대응이 준비되고 있었다.

### 1976년 학생 대학살

타일랜드의 갑작스런 개방과 급속한 변화를 고려하면 폭력적 반혁명과 부딪히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니지만, 10월 6일 최소한 46명이 살해된 탐마삿대학에 대한 공격의 기괴한 성격은 지속적으로 격노와 혐오를 불러일으킨다. 만약 그 학살이 운동에 대한 첫 번째 공격이었다면, 놀라운 일이겠지만, 타이의 시민평화는 한걸음씩 악화되고 있었다. 1974년 7월 3일 민중들이 미국의 타일랜드 간섭에 항의하기 위해 플랍플라차이 경찰서에 집결하자, 경찰이 발포해서 평화적 시위자들을 죽였다. 1975년 3월과 8월 사이에, 농민총동맹(FCT)의 최소한 21명의 지도자들이 살해당했다.<sup>53)</sup> 1976년 9월 24일, TU 학살 2주전 두 명의 학생들이 방콕에서 포스터를 붙이다 붙잡혀 교수형을 당했고, 그들의 시신은 놀란 동료들에 의해 다음날 발견됐다.

여러 상이한 우익 자경단의 네트워크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미국 첩보부와 밀접한 관계를

49) Inge-Heinze, “Ten Days in October,” 506.

50) World Bank, IMF, Haggard and Kaufman, *Political Economy*, 92.

51) Mallet, “Causes and Consequences,” 86.

52) Alex Hang-Keung Choi, *Non-Governmental Development Organizations (NGDOs) and Democracy in Thailand: The 1992 Bangkok Uprising*, Unpublished Thesis (Queen’s University, 2001), 45-6.

53) Bowie, *Rituals*, 102. Between 1974 and 1979, 46 leaders of the FCT were killed. “People’s Progress: 30 Years On,” Special Supplement to the *Bangkok Post*, October 14, 2003.

가졌다고 소문난 단체도 있었다: FCT 지도자 살해와 북서부에서 반베트남 학살의 배후 단체인 나와폰(Nawaphon). 나와폰은 산스크리트로 “아홉번째 권력”이란 단어로, 차크리 왕조의 아홉 번째 통치자인 붐피볼 국왕을 가리켰다. 나와폰에 가입한 지도적 불교승려 키티우토는 공산주의자 살해의 미덕을 설파했다. 1975년 말까지, 이 조직은 150,000명 이상의 회원을 자랑했고, 대지주, 지방 주지사, 마을촌장 등이 세포구조로 조직되어 있었다. 붉은 가우르(Red Gaur)는 평화적 시위대를 공격한 또 다른 그룹이다. 베네딕트 앤더슨이 “높은 급여, 풍부한 공짜 술과 창년촌 특권의 약속”에 응한 “고등학교 중퇴자, 실업상태의 거리 소년들, 빈민가 무법자 등”으로 묘사하는 이들은 10월 6일 탐마삿 대학의 가장 복수심에 불타는 공격자들이었다.<sup>54)</sup> 많은 사람들이 1973년 봉기의 기동타격대였던 직업학교 학생들의 대열에서 나왔고 다른 사람들은 미국의 라오스 전쟁에서 남겨진 실직 용병들이었다. 1975년 12월 국왕은 왕실수비대에게 나라가 “적”의 공격대상이 되었다고 경고했고, 그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힘을 분비하고 비상사태에 대처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sup>55)</sup> 1976년 초에 아주 상징적인 사건에서 그는 개인적으로 레드 가우르(Red Gaur) 캠프에서 화력무기를 시험했다. 1976년 3월 21일 타일랜드로부터 미군 철수를 옹호하는 30,000명의 시위대에 수류탄을 던지는 레드 가우르가 포착됐다.

거리시위와 파업이 일상화되자, 의회는 정치적 의지를 발휘할 수 없었다. 정부가 쌀과 설탕 가격을 인상하자, 노동연맹(FLUT)은 1976년 1월 총파업을 선언했다. 쿠크릿은 가격인상을 취소했지만, 심지어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의 정당성은 아주 심하게 침해됐다. 1백 명이 지도적 장교들이 그의 사임을 요구한 다음날인 1월 12일 그는 의회를 해산했다. 4월 새 선거가 다가오자, 학생 지도자들과 저명한 사회당 정치인들이 암살당했고, 약 20명 이상의 FCT 지도자들도 살해당했다. 타일랜드 최고 군사지휘관은 방콕에서 베트남인들의 공병에 대해 경고했다. 투표율은 방콕에서 최저수준인 29퍼센트였고 전국적으로 46퍼센트였고 4월 23일, 1973년 타놈을 제압하여 그를 권력에서 몰려나게 강제한 민주주의 옹호자인 크리스 시바라 장군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국민이 미래의 징표를 찾고 있을 때 미국은 1977 회계연도 군사원조가 1975년 대비 900퍼센트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것은 워싱턴이 타일랜드가 어디로 가길 원하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였다.

명백히, 1973년 아주 열정적으로 민주주의의 수호자였던 타일랜드의 군주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왕실의 몰락을 목격하고 마음을 바꿨다. 군대의 라이벌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그의 무제한적 권력에 대한 주요한 위협이라고 확신한 부미볼은 마을 스카우트를 포함한 극우 무장 그룹들을 후원했다. 국왕의 후원 아래, 마을 스카우트 모집은 급상승했다. 방콕에서만, 19,828명이 가입했고, 1976년 4월 새 선거에서 우익 후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이 기간에 30명 이상이 죽었다).

우익 동원이 진행되자, 1973년 망명을 떠났던 장군들인 타놈과 프라파스는 공개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희망을 표현했다. 곧 프라파스는 타이완 망명에서 타일랜드로 돌아왔다. 1973년 봉기 사망자와 실종자의 가족들은 분노했고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를 다시 제기했다. 그들의 시위로 정부는 프라파스를 귀환시킬 특별 전세기를 타이페이로 되돌려 보냈지만, 며칠 후 타놈 역시 돌아오고 싶다고 발표했다. 내무부 장관 사막 순토르베즈가 국왕의 요청으로 동행한 가운데 타놈은 9월 19일 입국이 다시 허가됐다.<sup>56)</sup> 국왕 부처는 그가 피해있던 수도원으로 그들 방문했다. 10월 1일, 왕세자가 그가 공부하던 오스트레일리아의 던트론 군사학교에서 돌아왔고, 그도 타놈을 방문했다.

1973년 사망자의 유가족들은 타놈의 기소를 요구했다. 10월 3일 그들은 총리 집무실 밖에

54) Benedict Anderson, “Withdrawal Symptoms: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the October 6 Coup,”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9, 1977, pp. 19-20, from Bowie, *Rituals*, 106.

55) Mallet, “Causes and Consequences,” 85.

56) Suthachai Yimprasert, “The Coming of 6th October 1976 Suppression in Thailand,” *Colonialism, Authoritarianism and Human Rights of South East Asia*, Conference book (Gwangju, South Korea: May 18 Institute, 2001).

모여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경찰이 그들을 괴롭히자, 그들은 탐마삿 대학 불교협회의 환대를 받아들여 캠퍼스 안의 성지로 옮겼다. 10월 4일 7,000명의 학생들이 탐마삿대학에 모였고, 그들은 대학이 타남을 축출한 기지로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sup>57)</sup> 10월 5일 몇천 명의 사람들(인력거 운전수와 노동자들을 포함해)<sup>58)</sup>이 집회와 연극공연을 보러 탐마삿 내부에 모였다. 연극 중의 하나는 최근 두 명의 활동가의 교수형을 재연했지만, 언론은 이를 왜곡하여 왕세자가 구타당하는 것으로 묘사하여 레드 가우르들을 격분시켰다. TU 근처의 타놈루앙 공원에서 이미 험악해진 분위기는 이른바 황세자 살해 연극의 사진이 희랍되면서 살인적으로 변했다. 군대가 통제하는 라디오는 사람들에게 캠퍼스를 공격하라고 요구했고 동시에 경찰의 봉쇄로 아무도 대학을 떠날 수 없게 막았다. 같은 날, 마을 스카우트들은 세 명의 진보적 각료들의 사임을 요구하기 위해 가장 열렬한 회원 수백명을 정부청사로 동원했다. 정부 관리들을 쫓아내는 성공하자 그들은 다음날 탐마삿 대학에서 폭력적 난동으로 타이 역사를 바꾸게 된다.

오전 4시경 1976년 10월 6일 아침 확성기에서 국가가 울려 퍼질 때 경찰은 국립박물관과 캠퍼스를 나누는 벽 뒤에서 탐마삿 대학 내부로 발포했다. 첫 총성이 울렸을 때 대학 내부에서 연극부가 가난한 도시주민들의 삶에 관한 연극을 하던 중이었다. 기관총과 M79 로켓발사기에 압도된 경무장 학생 사수대는 약 6000명의 경찰, 우익깡패, 병사들의 첫 부대가 벽위로 총격을 하자 물러섰다. 최소한 4시간 동안 총격이 계속됐다. 오전 7시경 뿔나팔을 든 한 학생이 캠퍼스 앞에 나타나 경건하게 항복했다. 그는 자동무기 총격으로 쓰러졌다. 오전 8시 15분 대대적 새 공격이 시작됐고, 또다시 바주카포가 사용됐다. 정문으로 도망치려던 재수없는 사람들은 끌려가서 근처 나무에서 폭행당했다. 다른 사람들은 법무부 앞에서 산 채 불태워졌다. 이미 사살당한 한 여성은 막대기로 성적 학대를 당했다. 다른 남자는 나무 꼬챙이로 몸을 찔렸다. 한 남자가 일부 시신에 오줌을 누자,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서 춤을 쳤고, 더 많은 사람들은 지켜보며 환호했다.

[사진 39]

경찰, 군인, 민간인 폭도들이 1976년 탐마삿 대학생들을 공격했다.

폭도들은 축구장 근처의 건물에 숨었던 공포에 질린 학생들은 다시 축구장으로 끌려와 상의를 벗긴 다음 진흙에 얼굴을 처박았다. 제복 경찰은 그들 머리 위로 기분관총 사격을 가했다. 일부는 대학 뒷문을 통해 도망갈 수 있었고 상인들이 숨겨줬다. 수감명은 헤엄쳐 안전하게 강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다. 많은 학생들이 익사한 반면, 해안 경비대 보트가 운 좋은 사람들을 구조했다. 강으로 가는 길 역시 처참한 살인과 치명적 사격의 장이었다. 폭력배들은 수백명의 구경꾼들이 보는 가운데 학살을 자행했다. 섬뜩한 사건에 대한 많은 사진들이 출판됐지만, 경찰은 결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학생 지도자들은 총리 관저에 앰블런스로 도착했지만, 총리는 만나길 거부했다. 오후 6시 왕세자가 도착해서 폭도들에게 해산하고 요구했다. 살육이 끝나자, 최소한 41명이 살해됐고 수백명이 부상당하고 3,027명이 체포됐다. 시신을 화장한 중국자애협회는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sup>59)</sup> 같은 날 밤 군부는 국가행정개혁 평의회(NARC)의 이름으로 권력을 장악했다. NARC라는 이름에 충분히 어울리게. [마약이라는 뜻]

국왕은 1976년 10월 6일 학살의 배후세력이었는가?<sup>60)</sup> 왜 부미볼은 10월초 황세자를 국내로 다시 불렀는가? 왜 국왕은 학살 이후 채 한 달도 못돼서 마을 스카우트의 신입 회원 모집을

57) Frank C. Darling, "Thailand in 1976: Another Defeat for Constitutional Democracy," *Asian Survey* 17, no. 2 (1977), 127.  
 58) Puey Ungpakorn, "Violence and the Military Coup in Thailand,"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9, no. 3 (1977), 5.  
 59) Puey Ungpakorn, p. 8.  
 60) See Bowie, *Rituals*, 128 for discussion of academics' views on the role of the monarchy in the October 6, 1976 bloodbath.

중지하는 포고를 내렸는가? 탐마삿 학살에 가담한 국경경찰대는 국왕의 총애를 받는 부대로 알려졌다. 1977년 1월 1일 신년 메시지에서 부미볼은 10월 6일 쿠데타를 “국민이 분명히 원하는 것의 표현”이라고 언급했다.

1974년 헌법을 폐지한 군부는 폭력의 난동이 발생한 같은 날 국회도 폐지했다. 그들은 피노체트에게 어울리는 탄압을 제도화했다. 피노체트는 1973년 9월 11일 미국이 지원한 유혈쿠데타로 최소한 2,000명의 피해자를 살해했다. 수백명의 학생 활동가들과 노동지도자들이 검거됐고, 지도자로 확인된 18명의 학생들은 감옥에서 2년 이상 보냈다. 모두 최소한 6천명이 체포됐고, 20개 이상의 신문이 폐간됐고, 204종의 책이 금지됐고, 모든 정당이 해산됐으며, 4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됐고, 파업은 불법화됐고, 헌법은 폐기됐다. 권력을 장악한 군사평의회는 “타일랜드 역사상 가장 억압적인 정부”라고 불렀다.<sup>61)</sup> 술락 시바락의 불교서점이 수색당했고 100,000권 이상의 책이 불태워졌다.<sup>62)</sup> 나치의 분서를 상기시키는 유사한 책소각은 많은 대학도서관을 숙청한 다음에 일어났다. NARC가 권력을 휘두르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루 밤 사이에 파업을 끝냈고, 노동자 투쟁은 과거 속으로 희미해졌다. 1976년 133건의 파업이 기록됐다. 학살과 쿠데타 이후에, 1977년에는 겨우 7건이 파업이 있었고, 아래 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노동자들은 수년간 침묵했다.

표 26: 타일랜드의 파업 1972-1980년

연도	파업 숫자	참가 노동자 숫자
1975	241	9,474
1976	133	65,342
1977	7	4,868
1978	21	6,842
1979	62	15,638
1980	18	3,230

Source: Thai Ministry of Interior as quoted in Andrew Brown, “Locating Working Class Power,” in *Politics IChange in Thailand: Democracy and Participation*, ed. Kevin Hewison (London: Routledge, 1997), 171.

1977년 2월 방콕의 한 작은 공장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자, 소유주는 그들을 모두 해고했다. 전국적으로 노동 지도자들이 암살된 반면 투자자 신인도는 올라갔다.

약 3,4천명의 학생 활동가들이 도망쳐 농촌지역에서 피난처를 구했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이 CPT의 마오주의 게릴라에 합류했다. 1975년 겨우 75건의 공격에서, 10월 6일 학살 이후 1년 동안 717건의 전투에서 1,475명의 적군을 살해했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1979년까지 그들은 전국의 많은 곳에서 대대 규모의 전투부대를 구축했고 10,000명의 무장 전투원을 주장했다.<sup>63)</sup> 많은 사람들은 무장혁명이 독재에 반대하는 유일한 성공가능한 수단이라고 확신했지만, 마오주의자들은 신병들을 통합시킬 능력이 없었다. 그들은 학생들을 “프티 부르주아”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비참하게 대우했다. 한 고참 활동가의 말로, “우리가 정치에 관해 질문이 있어도 거의 대답을 듣지 못했다.”<sup>64)</sup> 희생에 대해서 칭찬받았지만 학생들은 자기 쓴 것을 대부분 출판하도록 허락받지 못했고, “오직 지역문제만을 다루고 주요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들었다.<sup>65)</sup> 공산주의자들은 권위주의적 행동은 학생들의 평등주의적 규범

61) See Bowie, *Rituals*, 115.

62) Ungpakorn, *Coup for the Rich*, 84.

63) P. de Beer, “History and Policy of the Communist Party of Thailand,”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8, no. 1 (1978), 148-9 in Bowie, *Rituals*, 137

64) Comrade “Sung,” “Looking Back to When I First Wanted to Be a Communist,” in *Radicalizing Thailand: New Political Perspectives*, ed. Ji Giles Ungpakorn (Bangkok: Institute of Asian Studies, 2003), 172.

65) Wedel, *Radical Thought*, 163.

과 자율적 조직화 역량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학생들의 역량은 1973년 아주 성공적인 동원에 도움이 됐다. 일부 지역에서 CPT 지도자들은 적을 죽이는 폴포트와 크메르 루즈의 할당제를 채택했다. 1980년 후반, “고참 동지들은 우리 10월 6일 학생들을 마치 적처럼 바라봤다. 만약 우리가 당에 복종하지 않거나 조직화 동지[지도자]에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다룰지 물어볼 것을 주장하면 여러번 그들은 무기의 안전장치를 풀거나 칼을 우리 얼굴에 휘둘렀다.”<sup>66)</sup> 한 활동가는 “그들이 우리가 서로 그렇게 죽이길, 할당을 채우길 바란다는 것이 아주 위협적임을 알았다.”<sup>67)</sup> 비록 CPT 지도자들이 이후에 잘못을 인정했더라도, 게릴라운동은 이미 비참한 패배였다. 10년 이내에 CPT는 몰락했다.

### 신자유주의의 타이식 얼굴

1970년대까지 무장반란이 정점에 접근하자 타이 군부내 많은 장교들이 게릴라 진압의 새로운 접근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자수한 활동가들에게 사면을 제공하면서 새 정권이 등장해 헌법을 개정하고 1979년, 1986년, 1988년에 선거를 허용했다. 많은 학생 활동가들은 도시의 집으로 돌아가 삶을 재건할 기회를 이용했다. 타일랜드는 정상으로 돌아갔지만, 정치체제 내에서 좌파 조직은 없이 그렇게 했다. 10월 6일 학살 이전에 사회주의 정당들은 약 15퍼센트의 표를 받았지만, 1976년이 남긴 상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수많은 친미적 정치인들 외에 반정부세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1976년의 야만적 탄압은 1980년대 커다란 번영에 자리를 내주었고, 연간 파업 숫자는 1985년에서 1991년까지 결코 7건을 넘지 못했다.

1982년 IMF구조조정 협정이 체결되어 초국적 자본이 타일랜드 경제의 대부분을 장악할 길을 연 경제자유화를 가져왔다. 은행규칙의 자유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타일랜드의 시장에 침투할 수 있게 되었고, 소수의 부유한 중국계 타이 가문들이 오랫동안 통제했던 타이의 금융엘리트를 주변화시켰다.<sup>68)</sup> 외국인 투자는 특히 일본과 남한에서 동남아시아로 흘러왔다. 일본만 1987년에서 1991년까지 5년간 240억 달러를 투자했다.<sup>69)</sup> 1988년에서 1993년까지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에 400억 달러를 더 투자했고, 역사상 최대의 자금흐름 중의 하나였다. 타일랜드는 1988년에서 1993년까지 일본투자로 53억달러를 유치했고, 과거 37년간 투자된 액수의 거의 500퍼센트였다.<sup>70)</sup>

표 27: 외국인 직접투자(미달러)

	1980	1985	1990	1995	1997
인도네시아	180	310	1,092	4,346	4,677
타일랜드	189	164	2,562	2,068	3,626
필리핀	-106	12	550	1,459	1,249

Source: UNCTAD, as quoted in Dae-oup Chang, “Neoliberal Restructuring of Capital Relations in East and South-East Asia,” in *Neoliberalism: A Critical Reader*, eds. Alfredo Saad-Filho and Deborah Johnston (London: Pluto Press, 2005), 254

자본 유입으로 경제가 팽창하자, “아시아의 기적”이란 용어가 점차 퍼졌다. 오랫동안 배후에서 타일랜드 은행체제를 통제했던 소수의 중국인 가문들은 글로벌 체제로 편입됐다.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은 타일랜드에 근소한 번영을 가져왔다. 제조업 노동자 숫자는

66) Comrade “Sung,” “Looking Back,” 179-180.

67) Wedel, *Radical Thought*, 183.

68) See Dae-oup Chang, “Neoliberal Restructuring of Capital Relations in East and South-East Asia,” in *Neoliberalism: A Critical Reader*, eds. Alfredo Saad-Filho and Deborah Johnston (London: Pluto Press, 2005), 252; Joseph Kahn, “Thai Troubles Drive a Dynasty To Sell Its Crown Jewel Bank,” *New York Times*, April 16, 1998, A1.

69) Bello, “Asia.”

70) Bello, Cunningham, and Li, *Siamese Tragedy*, 66.

1988년까지 240만 명으로 늘어났고, 1961년의 거의 다섯 배였다.<sup>71)</sup> 태일랜트 경제가 수입대체와 식량수출에서 섬유와 전자 중심의 수출지향적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중산층이 등장했다. 1980년 수출의 3/5은 농업이었고, 1995년 4/5 이상이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됐다.<sup>72)</sup> 비슷한 과정이 남한과 타이완의 “기적”으로 이어졌지만, 그 나라에서 개발국가가 산업이행의 재원을 조달했다. 태일랜트에서 자본의 사적 원천, 특히 왕실의 시암상업은행의 거액이 경제를 지배했다.

1991년 태일랜트의 성적은 아주 성공적이어서, 1991년 세계은행과 IMF는 태일랜트를 “아시아의 다섯 번째 호랑이”라고 언급했다. 태일랜트의 경제는 1985년에서 1995년까지 평균 10퍼센트로 세계의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경제에 속했다. 그 10년간 1인당 GDP는 두배로 늘어 약 1,000달러에 이르렀지만(1960년의 겨우 200달러에서), 부의 분배는 훨씬 더 왜곡됐다. 1975년 사회의 상위 20퍼센트는 49.3퍼센트의 부를 소유했고, 이 숫자는 1987년 54.9퍼센트로 증가한 반면, 하위 20퍼센트의 몫은 1975년 6.1퍼센트에서 1987년 4.5퍼센트로 하락했다. 1975년과 1992년 사이에, 인구의 하위 80퍼센트의 소득 비율은 하락했지만 상위 20퍼센트는 늘었고, 이는 신자유주의의 명백한 “혜택”이었다.<sup>73)</sup> 칠레, 타이완, 터키처럼, 태일랜트에서도 군부독재는 전지구적 자본에 유리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얼마나 피를 뿌리든 개의치 않고 시민들을 짓밟았다.

부와 빈곤의 양극화와 더불어, 공해가 증가했다. 방콕에서 거리의 자동차 숫자는 6년 만에 거의 두배로 늘어나 1백만대 이상이 됐다. 오늘날 방콕은 세계에서 최악의 교통혼잡 문제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급속한 변화에 압도된 생태학자들은 1988년 남초안의 거대한 댐건설에 맞서 성공적으로 투쟁했다. 태일랜트가 지역의 쌀수출 선두주자인 “아시아의 쌀 밥그릇”에서 벗어나자, 지역의 수입분배가 점차 왜곡됐다. 방콕 주민들의 불균형적 비율은 1960년 북동부 주민의 다섯 배에서 1987년 1인당 국민소득의 아홉 배로 증가했다.<sup>74)</sup> 압도적 다수의 경제활동인구(64퍼센트)가 1990년 1차부문인 농업과 어업에 종사했다.<sup>75)</sup> 1991년 농업은 GDP의 11.8퍼센트를 차지했고, 공업은 40.4퍼센트(제조업은 26.6퍼센트), 무역과 서비스가 47.8퍼센트를 차지했다.<sup>76)</sup>

아시아의 나머지 대부분이 현대화하는 동안, 태일랜트는 신봉건적이라 부르는 구조에 얽혀 있었다. 태일랜트의 경제는 지구화됐지만, 낡은 정치구조는 1976년 학살로 냉각된 독의 시대에 머물러 있었다. 1987년에서 1990년까지, 태일랜트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36퍼센트로 세계 최고였다.<sup>77)</sup> 1960년대와 1970년대 경제는 지속적으로 5 내지 6퍼센트 성장했고, 이 시기 태일랜트는 “세계의 어떤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 통화와 최소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sup>78)</sup> 경제의 수출지향적 다변화로 놀라운 팽창이 이뤄지면서, 새로운 번영은 특히 상승하는 전문직과 고학력 노동자들 사이에서 기대상승을 촉진했다. 고등교육은 1987년과 1994년 사이에 급속하게 확대했고, 대학기관의 총 입학생은 364,000명에서 659,000명으로 늘어났다.<sup>79)</sup> 1인당 소득은 1992년까지 거의 1,500달러로 증가했다. 유아사망율과 어린이 영양실조의 급격한 감소 같은 기본지표들은 단지 절반의 이야기였다. 더 많은 집에 전기가 들어왔고, 기대수명은 증가했고, 실질임금은 상승했다. 비록 1982년에서 1989년까지 겨우 연간 1.4퍼센

71) Ibid.,74.

72) Pasuk Phongpaichit and Chris Baker, eds., *Thailand's Boom and Bust* (Chiang Mai: Silkworm Books, 1998), 4.

73) Bello, Cunningham, and Li, *Siamese Tragedy*, 37.

74) Gerald W. Fry, “Saturday ‘Surprise,’ the February 23, 1991 Coup in Thailand: The Role of the Military in Politics,” Georgetown University School of Foreign Service, Case 353, 1992, 12.

75) *Statistical Yearbook*, Thailand, 1992

76) Kevin Hewison, ed., *Change in Thailand: Democracy and Participation* (London: Routledge, 1997), 140.

77) Fry, “Saturday ‘Surprise,’” 3.

78) Ibid.; Larry Diamond, Juan Linz, and Seymour Martin Lipset, eds., *Democracy in Developing Countries: Asia*, (Boulder: Lynne Rienner, 1989), 329.

79) Phongpaichit and Baker, *Boomand Bust*,147.



트 증가했지만, 1990년부터 임금은 연간 8.2퍼센트의 비율로 치솟았다.<sup>80)</sup> 국영기업 노동자 숫자는 1973년 137,437명에서 1983년 433,64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조직화율은 민간부문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높았다. 1983년 민간부문의 약 323개 노동조합은 겨우 81,465명의 조합원을 가졌던 반면, 91개 국영기업 노조들은 조합원이 136,335명이었다.

1986년 피플파워의 마르코스 타도와 1987년 한국에서 전두환의 퇴진의 충격은 특히 전문직들에게 심각했다. 많은 목격자들은 의대생과 의사들에 대한 동원효과에 대해 논평했다.<sup>81)</sup> 분명한 변화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1989년 미국의 민주주의 전문가인 래리 다이아몬드는 타일랜드의 민주세력이 “장기적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의 견해로는, “당분간 안보문제에서 군대의 지배력과 정치참여를 실용적으로 양보함으로써, 철저한 민주주의자들은 미래 민주화의 토대를 건설할 공간을 찾을 수도 있다.”<sup>82)</sup> 헌팅턴처럼, 다이아몬드도 민중반란의 엄청난 힘과 그런 운동이 가능하게 하는 급속한 변혁을 예상할 수 없었다.

1991년 군부 보수파가 다시 권력을 장악했다. 경제계는 1991년 2월 23일 쿠데타 이후, 특히 타이 산업연합의 회장이자 존경받는 테크노크라트인 아난드 판야라춘이 총리로 임명되자, 군부의 역할에 수용적이었다. 쿠데타에 대응하여, 미국상공회의소 소장인 토마스 A. 실은 쿠데타를 “타일랜드를 투자하기에 유리한 지역으로 만들 더 나은 타이식 민주주의로 향한 건 대한 도약”이라고 불렀다.<sup>83)</sup> 아난드 정부는 과거 정부가 3년간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법제화를 1년 만에 추진했다. 1990년 4월 임금인상 파업을 탄압한 새 정부는 국영기업에서 노동조합을 금지했고, 단번에 국영부문 노동조합의 숫자는 130개에서 36개로 줄었고, 조합원 숫자는 절반으로, 336,061명에서 162,424명으로 줄었다.<sup>84)</sup> 타이노동조합회의(TTUC)는 집행평의회 의 위원 39명 중에서 위원장과 4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18명을 잃었다. 1991년 새 군사평의회가 제도화한 이후의 법률이 국영기업에서 파업과 노동조합을 금지했고, 이는 민간부문의 450만 노동자들 가운데 겨우 5.6퍼센트만이 조직된 상황에서 노조 조직화의 핵심사항이었다.<sup>85)</sup> 1991년 6월 19일 타일랜드(LCT) 위원장인 타농 포안이 의문의 실종의 당했다. 그는 암살된 것으로 추정됐다.<sup>86)</sup>

군부의 지배적 역할에 도전할 어떤 정당도 출현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의회적 세력이 뭉쳐 반정부세력을 구성했다. 쿠데타 약 한달 후, 민주 활동가들이 민중민주주의를 위한 캠페인(CPD)으로 알려진 네트워크를 재활성화했는데, 이들은 민주헌법을 선포한 과거의 시도를 선택했던 바 있었다.<sup>87)</sup> 1991년 4월 19일 19개 단체연합(노동, 농민, 학생, 여성단체, 판자촌 공동체 조직가, 학자, 교사, NGO, 인권단체)은 그 당시 작성되고 있던 새 정부의 헌법을 비판하는 공개행사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정권은 새 헌법을 작성하면서 하원을 우회하려고 했지만, CPD는 풀뿌리로부터 헌법을 작성할 지역, 광역지역 회의에서 선출된 광범한 대표자들의 모임을 소집했다. 1991년 하반기, 타일랜드 학생연맹(SFT)도 부활했다. 1991년 출신 20명의 활동가들과 1973년 출신 같은 수의 활동가들이 가진 두 번의 세대 간 모임을 이뤄졌다. (고

80) Ibid.,97.

81) Scott Bamber, “The Thai Medical Profession and Political Activism,” in *Political Change in Thailand: Democracy and Participation*, ed. Kevin Hewison (London: Routledge, 1997), 240.

82) Larry Diamond, “Introduction,” in *Democracy in Developing Countries: Asia*, eds. Larry Diamond, Juan Linz, and Seymour Marin Lipset (Boulder: Lynne Rienner, 1989), 44.

83) *New York Times*, February 27, 1992 as quoted in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Bloody May: Excessive Use of Lethal Force in Bangkok, The Events of May 17-20, 1992, October 1, 1992.

84) Larry Diamond, “Introduction,” in *Democracy in Developing Countries: Asia*, eds. Larry Diamond, Juan Linz, and Seymour Marin Lipset (Boulder: Lynne Rienner, 1989), 44.

85) Bello, Cunningham, and Li, *Siamese Tragedy*, 77.

86) See Somsak Kosaisook, *Labour Against Dictatorship* (Bangkok: Friedrich Ebert Foundation, Thai Labour Museum, and Arom Pongpangan Foundation, 2004), 87-89 for discussion.

87) Formed in 1979 to amend the constitution, the group formed again in 1983 when military control of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was imminent. Its third incarnation was in 1991. Interview with Professor Naruemon Thabchumpon, Chulalongkorn University, Bangkok, October 29, 2008.

참 활동가들은 1973년이 기억처럼 그렇게 비폭력적이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그들은 또한 시위의 모든 세부사항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준비모임 이후에 25개 주 가운데 24개 학생회가 한데 모였다.<sup>88)</sup> SFT는 CPD에 합류하여, 농촌포럼 대표자들과 도시 중산층 활동가들로 이뤄진 헌법민중회의(PCC)를 조직했다. 많은 논쟁과 협의 끝에 이 단체는 새 헌법의 핵심조항을 추려냈고, 타일랜드 제헌헌법 기념일에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그들은 총리가 선거로 뽑힌 의원이어야 하고, 의회 회기는 생중계로 방송해야 하고, 임명된 상원의 역할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들에서 그들의 제안을 지지하는 1백만 서명을 모으는 캠페인을 발족했다.<sup>89)</sup>

무역자유화 조치, 시장기반 개혁, 공공부문 노동조합 취소 등은 인기가 없었지만, 아난드 정부는 1992년 3월 선거에서 가까스로 승리했다. 정부 내에서 거의 반대가 없기 때문에, 시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1년 11월 19일, 7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SFT와 CPD의 공동호소에 응했고, 이후 5개 정당들이 헌법개정을 위해 압력을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직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단체들은 농민과 노동자에서 학자와 청년들까지 타이 사회의 광범한 부문들을 동원했고, 독재에 맞서기 위해 등장한 광범한 다계급 동맹에 대해 설명하려는 노력을 조직했다.

민중의 저항에 대응하여, 육군사령관 수친다 크라파윤 장군이 총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1992년 3월 선거 이후에, 수친다는 270명의 상원의원 명단을 국왕에게 제출했는데, 147명은 육군, 공군, 해군 출신이며, 총인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헌법 94조를 위반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지명자들은 국왕으로부터 임명받았다.<sup>90)</sup> 아난드는 처음에 총리로 남았지만, 1992년 4월 17일 수친다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위해” 총리직을 넘겨받았다. 그는 즉각 출라츄클라오 군사학교 제5반의 친구들을 돈되는 권력의 지위에 임명했다. 다음날, 퇴역 해군장교이자 전의원인 찰라르드 보라차는 수친다가 퇴진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한번 권력을 둘러싼 유형투쟁의 무대가 마련됐다.

#### 1992년 “검은 5월”

1992년 4월 8일, 단식농성자 찰라르드 보라차가 의사당 옆에 앉아서 민간인 총리가 타이 정치를 축복할 때까지 먹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한 군소 정치인의 이 외로운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 곧 사무직 노동자들과 기업인들이 퇴근 후 도착하기 시작했고,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차를 세우고 야외에 모였다. 군중들이 늘어나자, 그들은 사남 루앙으로 옮겨졌고, 음식 노점상과 행상들은 연이은 연사들과 연예인들이 참여한 즐거운 모임을 제공했다. 모든 텔레비전 방송국을 포함한 정부가 통제하는 매체들은 찰라르드의 단식을 보도하지 않았지만, 독립적 인쇄매체는 단식을 폭넓게 다뤘다. 신문의 정확한 보도 때문에 <네이션>지 발행인 수티차이 윤의 자가용은 창문이 깨졌고, 민주당 지도자 추안 락파이는 되풀이해서 살해위험을 받았다. 4월 16일 의회의 공개회의 내에서 야당 의원들은 “타일랜드에서 민주주의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 검은 완장을 찼다.<sup>91)</sup>

단식농성 12일 이후에, 찰라르드가 의회 밖에서 간디 초상화 옆에 앉아 있을 때 약 50,000명이 왕궁광장에 모였다. 4월 25일 단식 17일째 SFT, CPD와 이제 “천사”의 당이란 불리는 4개 야당이 또한번 집회를 조직했고, 이번에는 새희망당(NAP)의 차발릿 장군의 재정지원을 받았다.<sup>92)</sup> 대부분 사무직 노동자와 중산층 전문직인 100,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은 타이 국

88) Interview with Parinya Thevanaruemidkul, Bangkok, October 30, 2008.

89) Choi, *NGOs and Democracy*, 306, 316.

90) Khien Theeravit, *Thailand in Crisis: A Study of the Political Turmoil of May 1992* (Bangkok: Thailand Research Fund, 1997), 20.

91) Surin Maisrikrod, *Thailand's Two General Elections in 1992: Democracy Sustained*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92), 29.

92) Tatsuya Hata, *Bangkok in the Balance: Bangkok's 'Slum Angel' and the Bloody Events of May 1992* (Bangkok: Duang

왕가를 불렀다. 시위자들은 “악의 무리”의 권력을 통해 “국가를 집어삼킨 정치적 암흑을 쫓아내기 위해” 촛불행진을 했다. 5월 1일 두 개의 노동자의 날 축하행사가 별도로 열렸다: 사남루앙의 공식 집회와 국회에서 여린 자주적 노조들의 행사. 국회에서 노동자들은 찰라르드에 동참한 단식농성자들에게 수천송이를 장미를 선물했다.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탱크가 들어와도 노동자들은 버틸 것이다”, “노동은 자유를 가져야 하고, 민중은 민주주의를 가져야 한다.”<sup>93)</sup>

단식 24일째 찰라르드가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그의 딸이 단식을 이어갔고, 이 영웅적 모범으로 100,000명 이상이 모인 5월 4일의 거대한 집회에 불꽃을 지폈다.<sup>94)</sup> 두명의 노동지도자들이 수많은 연사에 포함됐다,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관광객들이 집으로 향하자, 운동은 추동력을 얻었다. 단식농성에 여러명이 더 참여했고, 가장 유명한 사람은 참롱스리마웅으로, 2번 입기를 역임한 인기있는 전 방콕시장, 경건한 불교신자이자(아주 금욕주의적 산티 아소케 종파의 일원), 1976년 마을 스카우트 지도자였다(1976년 학생학살에 참여했다는 소문이 있었다).<sup>95)</sup> “미스터 클린”으로 알려진 참롱과 그의 미덕의 힘당(Palang Dharma Party: PDP)은 의회에서 방콕의 35석 가운데 32석을 막 얻었다. 5월 4일 그는 과거의 군부 동료인 수친다가 자임한 총리로서 사임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선언했다. 단식에 동참한 다른 사람 중에는 빈민 활동가 프라팁 응손탐, 학생지도자 파리나 테바나루 밋트레쿨, NGO 인사 산트 히티랏 등이 있었다.<sup>96)</sup>

다른 누구보다도 언론은 참롱에게 초점을 맞췄고 그들 운동의 지도부로 추동했다. 자신이 아직도 군대에 있는 것처럼 명령을 내린 참롱은 5천명의 행진대를 의회로 이끈 다음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물만 마시고 포도당, 염분주사, 의료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한 참롱은 수친다가 사임하지 않으면 7일 안에 죽을 것이라고 극적으로 예언했다. 놀랍게도 참롱은 1989년 티아난면 광장에서 단식농성중인 중국학생들이 통제권을 장악하려고 사용한 것과 아주 똑같은 전술을 사용했다.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끌어내려고 단식농성으로 인한 죽음의 위협을 사용하여 참롱은 새로운 민주정부의 핵심인 풀뿌리 단체들의 권위를 우회하여 자신의 카리스마와 의사결정으로 대체했다. 두 경우에 모두, 개인적 지도자들이 운동에 의해 창출된 민주적 구조 외부에서 결정을 내렸고, 두 경우 모두 개인의 영웅적 행동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동원했다.

5월 6일, 최소한 150,000명의 사람들이 국회를 포위했다. 군중들은 수친다가 도착하자 퇴장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환호했다. 그 때까지, 그들의 숫자는 거의 200,000명으로 불어났고, 1973년 10월 14일 이래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 그들이 국회 주변의 공간을 넘칠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집회는 이동해야 했다. 이 결정적 순간에, 참롱과 그의 추종자 무리는 투쟁을 조직하는 시위 조직들의 연합(CFD와 SFT를 포함한)으로부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군중을 사남 루앙으로 이동시켰다. 다음날, 군대가 시위대에 해산을 명령하자, 참롱은 사람들을 다시 왕궁광장으로 이동시켰다. 그날 밤, 국회 주위의 시위대는 수백 명의 경찰에 포위됐고, 철조망 바리케이드가 다른 사람들이 합류하는 것을 막았다. 오전 9시경, 노동자들은 바리케이드 중의 하나를 자동차로 뚫었다. 군인들이 밀려나고, 군중은 사남 루앙으로 밀려갔다.

5월 8일의 강렬한 열기 속에서 수천명의 사람들은 사남 루앙에서 위치를 계속 고수했다. 단식 농성 4일째 참롱이 쓰러졌다. <뉴욕타임스>는 4대 주요야당들이 국왕에게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날 저녁, 군중들이 200,000명으로 불어나자, 처음으로 학생

Prateep Foundation, 1996), 178.

93) Kosaisook, *Labour*, 98.

94) Alan Klima, *The Funeral Casino: Meditation, Massacre, and Exchange with the Dead in Thailan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96.

95) Interview with Prof. Vipar Daomanee, Thammasat University, Bangkok, October 28, 2008.

96) Hata, *Bangkok*, 251.

지도자 파리냐 테바나루에밋쿨에게 시위가 승리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sup>97)</sup> 정부 비행기가 머리위로 날면서 사람들에게 떠날 것을 촉구하는 전단을 뿌렸다. 거센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머물렀다. 군대 라디오는 군중들이 연례 불교 쟁기질(Makha Bucha) 행사를 방해할 의도라고 주장했다. 조직가들은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고 논의했고 상이한 의견이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은 남아있길 원했지만, 참룡은 일방적으로 전체 그룹을 라자담노엔 로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모두 사람이 그의 대오에 합류했다. TV와 라디오는 참룡이 “민족의 평화와 단결을 유지했다”고 축하했다. 참룡의 개인적 언론 호소력과 집회에서 그의 카리스마는 조직가들을 상대적으로 힘없는 위치에 밀어넣었다.

5월 9일 이른 아침 민주주의 기념탑에서 참룡은 밤새 남아있던 수천명의 사람들에게 그가 계속 그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단식을 끝낼 “허가”를 요청했다. 군중들은 환호했고, “민주주의는 그의 순교보다 지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참룡의 결정을 칭찬했다. 집회는 라자담노엔 가에서 하루종일 계속됐다. 철도 노동자와 가족의 대오가 들어오자 엄청난 환호를 받았다. 노동계급적 람감행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노조원들이 집회의 사수대를 구성했다. 노동 지도자 솜삭 코사이숙은 회상했다: “나는 랏담노엔 가의 밤들을 죽는 바로 그날까지 기억할 것이다. 모였던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사랑했고, 강력한 윤리적 입장을 소유했고, 놀라운 자기규율을 보여줬다. 그들은 서로 보살피고 지지했다. 그들은 음악의 리듬에 맞춰 함께 노래 부르면서 박수쳤고, 이는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강화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서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훨씬 더 큰 신념,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로 살 평등, 자유와 우애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에 대한 신념을 자극했다. 시위자들은 모든 계층에서 나왔지만, 차이는 없었고, 따스함과 협력의 느낌만 있었다. 비록 그 시기는 짧았지만, 랏담노엔 가의 분위기는 나에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아마도 어느 날 타이 사회와 세계 사회가 진정으로 민주적으로 될 것이라는 꿈을 남겼다. 인류가 자신들 사이에서 끝없는 경쟁을 멈추고, 증오와 폭력을 멈출 것이라는 꿈을 ... 사건들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착취함에도 평화적 윤리를 소유하고, 자신보다 다수를 생각하고, 폭력 대신 이성을 이용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민주주의 사회이다.”<sup>98)</sup>

연사들은 공손하고 비폭력적이었고, 풍자를 농담이나 진지한 논평과 섞었고 음악을 중국 경극과 섞었다. 학생들은 논리정연한 성명을 낭독했고, 코미디언들은 정치적 일상을 소재로 코미디로 삼았다. 네명의 노동 지도자들이 집회에서 연설했다. 하지만 마이크가 없었고, 전략과 전술에 대한 공개적 협의도 없었다. 앨런 클리마의 견해로, “시위는 시장이고, 시위무대는 대중매체이다. 학생들, 정치인, 유명인사, 대중들 가운데 논리정연한 사람들이 연설을 했고, 민주주의에 관한 금지곡을 연주한 록스타 아에드 카라바오를 포함한 음악가들의 연주가 교대했다.”<sup>99)</sup>

미국 학계에 어울리는 냉소주의의 특징을 지난 클리마의 글s은 야간 집회의 에로틱한 에너지로 물들어있다. 군중들은 세 명씩 나누어 거리에서 비닐 물주머니 터트리기 시합을 했고, 조직가들이 “피플파워”라고 불렀던 물폭포를 만들어냈다. 클리마는 군중들에게서 솟아나는 감정을 묘사했다. “그 때는 좋은 시절이었다. 그 시기를 장밋빛 언어로 묘사할 수 있을 뿐인게 유감이다. 일시적인 항의의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서로에게 친절했다. 그들은 정의, 도덕, 진실이 지배하길 원했다.... 그들은 몇 시간씩 평화롭게 앉아서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몇 시간씩 비폭력투쟁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성취할 고귀한 방법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그것은 마치 사찰에서 설법을 듣는 것과 아주 비슷했다. 무대는 제단 같았고, 청중은 신도들 같았고, 그들은 바닥에 점잖게 앉아서 저런 손발의 고통과 졸림을 참으면서 긴 설법을 들었다. 이것은 어떤 사찰보다, 지금까지 어떤 사찰보다 더 컸고, 훨씬 더 컸다.”<sup>100)</sup>

97) Interview with Parinya Thevanaruemidkul, Bangkok, October 30, 2008.

98) Kosaisook, *Labour*, 109-110.

99) Klima, *Funeral Casino*, 101-102.

여기에서 두 가지가 두드러진다: 첫째, 에로스 효과, 즉 타인들 사이에서 감정적 유대와 사랑. 둘째, 의사소통의 일방성을 지적해야 한다. 라자담노엔 가에서 자리한 청중의 공간적 관계는 일방적 대중매체를 반영했고, 이는 1973년 탐마삿 대학의 보나무 모임이나 1980년 광주 도청앞 분수대 앞과 달랐다. 거기에 연사들이 일방적으로 연설하기보다는 수만 명의 사람들과 의사소통했다.

민중의 초월적 에너지는 아주 강력해서 5월 9일 방콕에 군대가 배치되었을 때에도 적백청 타이 국기의 평화로운 바다가 모든 사람들을 진정시켰다. 거대한 축하집회들이 계속됐고, 민요가수와 록앤롤 밴드가 거리에서 노래했다. 마침내, 정부는 비선출직이 총리가 될 수 없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변화로 수천만의 임기는 끝나게 된다.

하원의장이 민주적 헌법개정을 약속하자마자, 시위를 조정하 소그룹이 모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머물길 원했다 다시 한번, 참룡의 개인적 의사결정과 언론호소력이 힘을 발휘했다. 5월 10일 오전 9시 조직가들이 집회를 끝내려고 시도했지만, 군중들이 아우성으로 그들을 저지했다. 참룡이 5월 17일까지 시위를 중지하고 그 때까지 정부가 개헌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동원하자고 호소하자 많은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울었다. 아무도 시위대 사이에서 연대의 붕괴를 원치 않았고, 참룡이 일시적인 중지라고 주장하자, 모두가 다시 그와 함께 갔다.

수천다는 시위대가 공산주의자라고 더 나쁘게 왕실에 불충하다고 비난했다. 언론조작에 힘입어 그는 거리의 사람들이 막대한 다수의 타이인들이 아주 소중히 여기는 국가, 종교, 국왕의 성스러운 삼위일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란자들 가운데 국왕과 왕가에 대한 존경을 보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정말로, 그들은 항상 국왕의 초상화를 들고 다니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어떤 사건도 마하 공주가 사남 루앙의 불교주간 공개행사를 주관하기로 예정됐던 5월 10일 일요일보다 시위대의 왕실에 대한 충성을 더 입증하지 못했다. 그전 금요일부터 라자담노엔 가에 시위대가 밀물처럼 밀려들었고, 국영언론은 그들이 행사를 방해할 의도라고 주장했다. 규율과 지혜(하지만 반드시 전통적 가치와 결정적 단절이 아닌)를 보여준 수천 명의 사람들은 왕실행진을 위해 길을 열어줬고, 타이 국기를 들고 라자담노엔 가에 줄지어 섰다. 자동차 행렬이 우회했는데, 그것은 군대의 판파 다리 봉쇄 때문이었지, 거리를 봉쇄한 사람들 때문은 아니었다. 5월 14일 목요일, 왕실 쟁기행사가 열리자, 거의 사람들이 왕실이 타눔 루앙에서 행사를 진행하자 경건하게 침묵을 지켰다. 이를 후, 국왕과 가신들이 대왕궁의 녹불사(Temple of Emerald Buddha)에 들어가자, 시위대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시위의 유예 동안, 활동가들은 조직구조를 강화했다. 5월 14일, 26개 단체(SFT, CPD, 노동조합, 선거감사 자원봉사단, NGO, 야당들을 포함한)에서 약 125명이 로열호텔에서 모였다. 4시간 회의 후에 7명의 지도부를 갖춘 광범한 다계급 동맹체인 민주주의 총동맹(CFD)을 결성했고, 지도부의 다수는 참룡 충성파였다. 참룡 외에, 빈민 활동가 프라팁, 노동지도자 솜삭, 학생 지도자, 프리냐 테바나루미트라쿤, 지트라바디 보라차(아버지 찰라르드의 대리인으로서), 학자 산트 하티랏과 웹 토지라칸(1973년 세대의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운동의 지도부가 됐다.<sup>101)</sup> 별도로, 노동운동은 5월 15일 민간부문과 국영기업의 노조 지도자들을 모았다. 5월 16일, 노조원들이 찰라르드가 단식농성을 계속 했던 벤차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수천만의 퇴진을 강제하기 위해 다음날 오후 5시에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호소했다.<sup>102)</sup>

100) Klima, *Funeral Casino*, 108-9.

101) Choi, *NGOs and Democracy*, 350; *Thai NGOs: The Continuing Struggle for Democracy* (Bangkok: The NGO Support Project, 1995), 130.

102) Kosaisook, *Labour*, 117-8.

봉기와 엄청난 규모의 유사한 위기 동안, 풀뿌리로부터 에로틱한 유대가 등장하는 순간에, 사회적 계층의 중요한 형태를 명목상 숨기는 베일이 사라지고, 주요 기관의 심장부에서 폭력과 부패의 추악한 현실을 드러낸다. 타일의 군대는 곧 다시 한번 악명높은 학살극에 착수해, 방콕에 탱크를 투입해 보통시민들에 대한 전투를 벌인다. 명목상 중립적이고 진실된 것으로 간주되는 기관들조차, 예를 들어 언론도 1992년 지지분한 면을 드러냈다. 방송매체가 압도적으로 군대의 편을 들고 시위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또는 보도할 때 사건을 아주 심하게 왜곡했지만), 일부 인쇄매체는 용감하게 민주주의를 지지했고, 반정부 시위의 역사상 처음으로 사건들에 대한 진실된 설명을 추구했다. 가장 투명한 종류의 노골적인 거짓말에 대한 민중들의 경험으로 “누가 언론을 통제하는가?”라는 의문이 확산됐다.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가 전국 및 지역 텔레비전의 100퍼센트와 484개 라디오 방송국의 82퍼센트를 통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sup>103)</sup>

### 5월 17일 최후의 결전

5월 17일 일요일, 300,000명 이상의 시위대가 사남 루앙에 모였다. 일부는 50만명 이상의 군중이라 추정했고, 타이 역사상 최대시위와 같은 규모였다. 연단에서 차례로 연사들이 수천다와 정부가 헌법개정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집회 동안, 지도부는 사람들이 사남 루앙에 남는 것이 최선인지 떠날 것인지 군중들의 의견을 물었다.<sup>104)</sup> 그들은 수천다가 다음 날 아침 일하러 도착할 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수천다 총리 집무실 외부로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수천다가 방콕에 있지 않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오전 9시경 참봉은 연설하면서 수천다가 퇴진할 때까지 사람들이 시위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도록 이끌었다. 약 500명의 노동자들이 총리 집무실 근처에 모여 주요 집회대오의 도착을 준비하며 자리를 잡았다. CFD 지도자들은 집회에 총리 집무실로 들어가기로 한 결정을 알렸고, 사람들은 승인하며 환호했다. 수만명이 정부청사로 향했다. 그들은 세 대오로 나누어, 10대 오토바이가 선두에 섰다. 비폭력 활동가에는 참봉도 포함됐다. 조정그룹의 일원이자 학생 지도자 파리나 테바나루에밋쿨은 참봉이 “군대의 병사들처럼” 시위대를 이동시켰다고 기억했다.<sup>105)</sup>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다고 우려한 SFT는 야간집회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CFD 지도자들이 참봉을 따르기로 표결하자 상황은 이제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났다. 북부지역을 여행하던 수천다는 바로 그날 밤 폭동을 진압하여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평화적 군중은 “방콕의 단면이었다: 가난한 노동자, 중산층 공무원과 상점주, 부유한 여피들.”<sup>106)</sup> 판파 다리에서 “베를린 장벽”이라고 이름붙인 철조망 바리케이드에 부딪히자, 사람들은 거리에 남았다. 선발대가 철조망을 돌파하자, 참봉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앞으로 밀고 나갔다. 참봉은 전투경찰에게 그들을 체포하라고 했다.<sup>107)</sup> 곧 경찰이 군중을 해산하려고 물대포를 사용했다. 사람들이 물을 쓰는 트럭위로 올라가자, 경찰 곤봉이 그들을 맞았다. 투사들은 철조망 담장을 부수하고 최소한 소방차를 고장나게 할 수 있었다. 다리 근처의 다른 사람들은 연설에 귀 기울였다. 곧 폭발소리가 들렸고, 소방차 한 대가 나레웅 경찰서와 청소년복지센터와 함께 불타올랐다. 행진대 마지막 차량에 자리를 잡았던 SFT 지도자 파리나는 경찰서가 불타는 것을 보고 문제가 생길 것임을 직감했다. 군중들이 툰과 화염병을 던졌다. 경찰서와 복지센터 외에도, 약 10대의 차량과 푸카오통 소방서가 불태워졌다.<sup>108)</sup> 자정까지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군대가 동원됐다. 군인들은 라자담노엔의 판파 다리에서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고, 1973년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같은 장소였다. 많은

103) Public Relations Department, 1990, as reported in Ubonrat Siriyuvasak, “The Development of a Participatory Democracy: Raison D’Etre for Media Reform in Thailand,” *Southeast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22 (1994), 105.

104) Kosaisook, *Labour*, 117.

105) Interview with Parinya Thevanaruemidkul, Bangkok, October 30, 2008.

106) Paul Handley, *The King Never Smiles* as excerpted in *Asia Sentinel*, September 8, 2006.

107) Kosaisook, *Labour*, 123.

108)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Bloody May,” 8.

사람들이 다리 옆 길거리에 남아있었다. 그날 밤 시위를 보도한 CNN은 “오토바이 부대”가 동원된 군부대에 맞섰다고 묘사했다.

1992년 5월 18일은 현대 타이 역사상 가장 유혈적인 날 중의 하나였다. 오전 1시경 탱크들이 도착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기념탑 근처에 모여서 일부는 노래하고 일부는 자고 있었다. 오전 2시경, 프라팁은 거기에 모인 40,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연설했다.<sup>109)</sup> 한 시간 뒤 수천 명의 군대가 실탄과 “반불교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사격명령을 가지고 도착했다. 시위 지도자들은 그들을 둘러싼 군대에 연설을 했고, 일부 사람들은 군인들에게 꽃을 주었다. 오전 3시30분, 학생 지도자들이 승합차 위에서 군중들에게 연설하자, 군인들이 발포했다. 몇 시간 동안, 간헐적 총격이 계속됐다. 오전 4시경 군대는 평화적 집회를 습격하여, 도착하면서 사격했고 떠나면서 사망자와 부상자를 남겼다. 심지어 사람들이 오전 5시 30분경 민주기념탑에서 국왕가를 부르려고 할 때조차, 군인들은 발포했다. 군대가 시민들에게 동조하지 않도록 캄보디아 국경에서 새로운 부대를 불러 3시간마다 교대시켰다. 한 목격자는 “군인들이 사격을 중지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갖다 줬고, 총에 꽃을 꽂았다.”고 회상했다.<sup>110)</sup> 사살당한 사람들의 다수는 도망치다가 등에 총을 맞았다. 다른 사람들은 근처에서 처형당했다고 알려졌다. 부상자를 치료하던 의사들도 폭행당했다.

이에 대응하여, 군중들은 주의깊게 선택한 건물들을 공격했다. 시소 전투에서, 사람들은 경찰을 밀어 부쳤고, 경찰이 공격하면 퇴각했다. 많은 시민들은 운하로 내몰렸고, 일부는 판파 다리 아래로 뛰어내렸다. 여러 대 트럭에 나눠 탄 시위자들이 반격하는 사람들을 보강하자, 거리투쟁에 더욱더 많은 노동자들이 가담했다.<sup>111)</sup> 일단 사격이 시작되자, 시위 지도자들은 무기력해졌고, 중산층 사람들은 사라졌다. 중앙 지도력이 없는 다중심적 투쟁의 장은 행동의 폭발을 허용했다. 휴대전화 시대에 시위대는 서로 연락했고, 공격을 수평적으로 조율했고, 공간이 허용되면 조직을 재편했다. 곧 방콕 외곽의 노동계급적 람캄행 대학에서 수천 명이 모였다.

새벽이 밝아왔을 때 약 10,000명의 군대가 라자담노엔 가를 통제했다. 아직도 사람들은 거리에 남아있었다. 오후 2시30분경, 군대는 참룡을 끌고나왔다. 군대는 마제스틱 호텔로 쳐들어가 다른 지도자들을 찾았지만, 솜삭과 프라팁은 군중들의 도움으로 도망쳤다. 수백 명이 체포됐고, 많은 체포자들은 셔츠를 벗겨지고 포승에 사지가 묶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은 항복하기를 거부했다. 윌리엄 켈러헌이 발견했듯이, “실제로 참룡(다른 수천 명과 함께)이 체포되고 군대가 라자담노엔 가를 청소한 다음 대규모 시위가 꽃피웠다.”<sup>112)</sup> 오후 6시경, 50,000명이 악명높은 공보청 건물 앞에 모였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근처 로열호텔 로비를 야전병원으로 바꾼 다음, 경찰은 라자담노엔 가에 바리케이드를 세웠다. 오후 9시 30분경, 여전히 1만명 규모였던 군대는 총검을 장착했다. 한 시간 후, 시위대들은 철조망 바리케이드를 두 대의 버스로 밀어붙였고, 경찰은 발포했다. 다음 30분 동안 총격이 계속됐고, 20분 만에 “가차없는 천둥소리”에 이르렀다.<sup>113)</sup>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등에 총을 맞았고, 군대의 명사수들은 선택적으로 겨냥한 개인들을 저격했다. 대부분의 살상은 10시 20분과 10시40분 사이에 일어났다.

광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민주화 시위대를 “폭도”라고 부르고 사상자를 무시하는 방송매체의 거짓보도는 친구들이 구타당하고 살해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 사람들은 국영 라디오 타이랜드가 위치한 공보부를 “거짓말 부”라고 불렀고, 건물에 불을

109) Hata, *Bangkok*, 189.

110) Quoted in Stan Sesser, “The Course of Corruption,” *Mother Jones*, May/June 1993.

111) J. Ungpakor, *The Struggle for Democracy and Social Justice in Thailand* (Bangkok: Arom Pongpangan Foundation, 1997), 108-112.

112) William A. Callahan, *Imagining Democracy: Reading “The Events of May” in Thailand*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98), 86.

113)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Bloody May,” 9.

질렀다.<sup>114)</sup> 이 불은 국세청으로 번졌고, 광주에서 똑같은 두 건물이 불타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런 동안 수백 명의 노동계급 오토바이 부대가 시위대를 체포하거나 살해하던 군대 첩자인 “머리 사냥꾼”(headhunters)에게 쫓기면서 도시를 누볐다. 숨막 코사이숙은 약 2,000의 오토바이가 있었다고 추산했다.<sup>115)</sup> 모두 신중하게 선별한 7개 건물이 불탔다.

[사진 40]

“오토바이 부대”가 거리를 휩쓸었다.

몇 시간 안에, 사망자와 부상자의 사진이 실린 잡지들이 나왔다. 다음날 아침에는 CNN과 BBC 방송 테이프를 노점상들이 팔았다. 타이 텔레비전이 시위를 다루지 않았지만, 기업이나 국가 아닌 시민사회의 자율적 생산물이 편집되지 않은 채로 유통됐고, 진실성의 아우라와 실제적 경험감을 부여했다. 유인물들은 수천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은 장소는 민주주의의 성전이 됐다. 한 시점에, 모두 검은 옷을 입고 검은 플래카드를 들고 검은 화환을 든 행진대가 나타나 민주기념탑을 지난 로얄호텔로 향했다. 수백 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경건한 행진대의 눈에 띄는 대오를 이뤘고, 마지막 행진대오는 “거리의 열기와 먼지, 소란한 노점상들과 뒤섞인 수백개 토론그룹들”에 몰려들었던 수천명의 사람들이었다.<sup>116)</sup> 사람들이 민주기념탑과 로열호텔에 꽃을 바쳐서, 연꽃잎과 향은 곧 기념탑을 에워쌌다. 다음날 수십 명의 승려들이 망자를 위한 공식 장례식을 준비했다.

그 동안 군대는 계속 사람들을 잔인하게 구타했다. 사흘 동안 살육은 계속됐다. 한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차오 프라야 강 근처에서 군인들이 머리를 발로 차면서 누구의 포로가 먼저 기절하는지 내기를 걸었다.<sup>117)</sup> 정부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모든 학교를 폐쇄했고, 인쇄매체에 대한 제한법규를 제정했다. 화장터는 신원 미확인 시체들을 불태웠고, 대규모 무덤가 시신을 실어나르는 헬리콥터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5월 19일 군대는 임시 응급실과 시체공시소였던 로열호텔로 들어가 부상자를 치료하던 의사와 간호사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외국에 보도된 텔레비전 뉴스는 군대가 비무장 시민들에게 발포하고 개머리판으로 그들을 구타하고 욕하고 환자들을 짓밟는 장면을 보여줬다. 군인들은 총으로 위협하면서 약 3천명의 사람들이 상의를 벗고 밖으로 기어나가게 했고, 다른 곳으로 실려가기 전에 손이 묶이고 무릎을 꿇은 채 몇 시간씩 기다리게 했다.

[사진 41]

군인들이 수천 명의 옷을 벗기고 묶었다.

학교, 사무실, 병원, 상점이 폐쇄됐고, 심지어 도시의 버스들도 운영을 중단했다. 방콕 동부의 람캄행 대학에서 수만명의 시위대가 해방구를 수립하고 군대의 공격에 맞서 캠퍼스에 바리케이드를 세웠다.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북으로 치앙마이, 콘퀘과 나콘 라차시마, 남으로 나콘 스리탐 마랏, 송클라, 크라비, 트랑, 파타니주로 확산됐다. 남부에서 국영기업 총연맹과 학생, 교사, NGO 등은 핫야이에서 30,000명의 집회를 조직했고, 나콘 스리탐마랏에서 약 60,000명이 집회를 열었고, 수랏 타니에서도 30,000명이 모였다. 수만명이 송클라, 크라비, 트랑, 페타니, 랏차림, 콘킨 등 주도에서 시위했다. 치앙마이에서 약 10,000명이 모였다.<sup>118)</sup> 전체적으로 아래 표에서 보듯이 12개 주도에서 유례없는 농촌동원에 최소한 186,000명이 참여했다. 농촌주민의 각성은 당연히 1992년 봉기의 가장 중요한 지속적 영향 중의 하나이다.

114) Siriyuvasak, “Development,” 107.

115) Kosaisook, *Labour*, 128.

116) Klima, *Funeral Casino*, 138.

117) Philip Shenon, “Military Crackdown in Thailand Blunts Protest Against Army Rule,” *New York Times*, May 20, 1992, A1.

118) Choi, *NGOs and Democracy*, 332.



표 28: 농촌의 시위, 1992년 5월 20일

지역	주	참가자
북동부	Nakhon Ratchasima	20,000
	Khon Kaen	30,000
	Ubon Ratchathani	20,000
중부	Nakhon Panthom	30,000
	Kanchanburi	1,000
남부	Songkhla	30,000
	Phatthalung	5,000
	Trang	10,000
	Nakhon Srithammarat	10,000
	Surat Thani	10,000
	Yala	10,000
북부	Chiang Mai	10,000
합계		186,000

Source: *Bangkok Post*, May 21, 1992.

5월 20일 오전 10시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을 표결했다. 40,000명의 군대가 동원됐음에도 산발적 전투 4일동안 지속됐다.<sup>119)</sup> 수친다는 방콕에 오후 9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금지를 선포했다. 전국이 내전의 상태로 근접하자, 부자들은 자리를 포기했다. 황세자 바지탈롱고른은 남한으로 떠났고, 일본대자 오카자키가 배웅했다.<sup>120)</sup> 파리에 있던 마하 차크리 공주는 프랑스 방송에서 우연히 군대가 국민을 총을 쏘 죽이는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됐다. 조국에 닥친 재앙에 미친듯이 놀란 공주는 아버지와 연락하려고 시도했다. 연락이 되지 않자, 공주는 폭력중지를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날 오후, 시린도른 공주는 마침내 국왕과 통화했고, 국왕은 이미 위기를 직접 다루기로 결심한 상태였다. 수친다와 참룡이 왕국으로 소환됐다. 국왕 앞에 무릎을 꿇고 수친다는 개혁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참룡은 국민들에게 시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모임은 5월 20일 밤 10시경 방송됐다.

두 사람은 서로 잘 알고 있었다. 출라츨클라오 군사학교의 “형제들”인 둘은 미국에서 훈련을 받았고, 함께 수년간 근무했다. 그들은 사회적 위기를 개인적 불화로 바꾸려고 최선을 다했다. 5월 18일 수친다는 총체적 위기를 “나와 참룡 소장의 갈등”이라고 언급했고, 참룡은 독재자를 “형”이라고 부르면서 수친다에게 보내는 공개호소문을 썼다. 국왕은 투쟁을 더욱 더 개인화하여 참룡과 수친다에게 공개적으로 “집은 당신들 둘이 서로 대적하지 말고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살육이 계속되는 동안, 태일랜드의 최대 외국원조 기부국이자 경제열강인 일본 정부는 태일랜드에 강경탄압을 중지하라고 압박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공식적으로 태일랜드 군대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미군은 오지의 군기지로 배치되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방콕의 거리에서 총격을 가한 군인들을 비밀리에 훈련시켰다.<sup>121)</sup> 타이 경제계는 수친다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5월 18일 학살 이후, 수친다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민주주의를 위한 경제인협회, 타이산업연맹, 타이 상공회의소, 은행가협회 등이 승인했다. 수많은 병원에 걸린 플래카드들은 수친다 사임을 촉구했고, 자가용 소유자들은 수친다 퇴진의 신호로 대낮에도 라이트를 켜고 운전하기 시작했다.<sup>122)</sup>

119) Hata, *Bangkok*, 235.

120) *Ibid.*, 215

121) Klima, *Funeral Casino*, 9.

122) Interview with Prof. Naruemon Thabchumpon, Chulalongkorn University, Bangkok, October 29, 2008.

5월 21일 위기는 계속됐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민주기념탑에 모였고, 거기서 참봉은 약속된 헌법개정이 다시 실현되지 않으면 새로운 시위를 하겠다고 위협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은 국왕과 참봉, 수친다 사이에서 이뤄진 거래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들은 분노하면서 수친다와 발표명령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사람들이 살해당한 장소는 민주주의의 제단이 됐고, 사람들은 5월 열사들을 기리는 기념비를 만들었다. 수천송이 꽃이 민주기념탑에 바쳐졌다.

5월 22일, CFD는 총격을 명령한 장교들의 처벌과 총리 및 최고 군사령관직에서 수친다의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했다. 사람들이 고의적 폭력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발표된 통계를 믿을 수 없었다. 52명이 죽었고, 293명이 실종됐고, 505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사건 직후 외교관들과 의료 종사자들은 다시 미확인 시신들이 군대에 의해 화장터로 보내졌다고 보고했고, 대중은 1,000건 이상의 실종신고를 제기했다. 1992년 5월 영웅 유가족위원회는 이후에 실종자 숫자로 약 300명으로 추산했다.<sup>123)</sup> 수친다 퇴진이란 훨씬 덜 과격한 요구처럼. 책임자 처벌요구는 광범한 공감을 불렀다. 타이 외무부의 공무원 수백명도 탄압에 항의하여 검은색 옷을 입었고, 외무부 장관 자신도 수친다의 사임을 요구했다.

5월 24일, 수친다가 계속 협상하자, 국왕은 시위를 진압하면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모든 사람에게 사면을 재가했다.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국왕의 사면령이 보통 타인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수친다를 위해 준비된 것임을 깨닫자, 그들의 감정은 분노로 변했다. 국왕의 용서를 받자, 수친다는 마침내 물러났다. 수친다의 48일 독재가 끝나자, 수만 명의 타이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민주기념탑에 모여 다시 한번 수친다와 측근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일부 야당들은 국왕의 사면령을 번복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국왕은 누구에게 사면을 재가할 헌법적 권한이 없었고, 정치 지도자들이 비록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해도 그들 중 아무도 국왕에 맞서려고 하지도, 맞설 수도 없었다.

다음날 새벽, 대부분 가난하게 살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5월 열사들을 기려 불교 승려들에게 공양을 드리러 일어났다. 너무 많은 구호품이 당황한 승려들에게 쏟아져서, 그들은 택시를 부르고 최소한 한 대의 픽업트럭을 불러야 했다. 같은 날, 의회가 소집됐고, 수천 명이 외치는 구호는 국회 안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의사회 앞에서 한 커다란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써있었다: “대량 학살자들에게 평화는 없다!” 수친다의 행방은 미스터리였다. 하원은 군대가 임명한 상원이 아니라, 하원에서 투표로 국무총리를 선출되어야 함을 명시한 헌법개정안을 승인했다.

정당들이 국왕 사면령의 합헌성(또는 결여)에 대해 논란을 벌이는 한, 새 정부는 구성될 수 없었다. 안전한 비밀 장소에서 새 육군사령관은 어떤 유혈사태 책임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조사하려고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sup>124)</sup> 5월 31일 <방콕 포스트>는 979명의 실종자 명단을 발표한 반면, 내무부와 경찰은 그 숫자가 약 500명이라고 주장했다. 독재타도 이후 반정부 운동이 새 국무총리를 결정했던 네팔과는 달리, CFD나 거리시위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 6월 10일 자신의 무기력을 공식화한 조치로, 타이 의회는 새로운 총리로 아난드 판야라춘을 재임명하는 국왕의 권고안을 받아들였고, 이 조치로 의회는 더욱 무력화됐다. 6월 17일, 육군과 공군 사령관들은 살상이 봉기에 대한 적합한 대응이었을 뿐이라고 말함으로써 학살을 정당화했다. 아무도 지금까지 학살로 처벌받지 않았다.

## 1992년 검은 5월의 성과

123) 타이 내무부는 44명이 사망하고, 38명이 실종되고 11명이 불구자가 됐고 5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주장한다. 인권 활동가들은 수백명이 살해당하거나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타이의 어떤 정부도 1973년, 1976년, 1992년 민주화 시위대의 학살에 대해 결코 책임지지 않았다.

124) Philip Shenon, “Thai Coalition Struggles to Form a New Government,” *New York Times*, May 29, 1992, A7.

20년만에 두 번째로 태일랜드의 용감한 시민들은 군부 통치자들을 타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안전을 희생했다. 일단 수친다가 물러나자, 민중운동은 새 헌법을 작성하는 풀뿌리 캠페인을 완료하여, 1997년 승인된 사상 최상의 헌법을 만들어냈다. 수친다 정부의 몰락과 더불어, 수친다의 사위인 아사라폰 육군장군을 포함해 최고 군사령관들이 해임됐다. 그는 태일랜드 전화기구의 총재에서 물러나야 했다. 수세에 몰린 군부는 기억이익과 도시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들에게 정치적 헤게모니를 잃었다. 많은 국유기업들이 탈군사화됐고, 국영항공, 통신사, 국영철도청을 장악했던 군인들이 제거됐다. 민간인 내각은 군사예산의 증액을 일상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했다. 금융자유화는 태일랜드은행의 권한을 축소했고, 국제 투자자들의 역할을 확대했다.<sup>125)</sup>

언론개혁도 정열적으로 추진됐다. 처음으로 민간허가가 주어졌고, UHF 채널이 열렸다. 인쇄매체의 진실된 보도로 그들의 정당성이 창출됐고, 타이정치의 새로운 역동적 참여가 이뤄졌다.<sup>126)</sup> 언론개혁과 더불어, 권력의 탈집중화가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시행됐고, 주, 마을, 지구 수준의 권한이 향상됐다. 부패는 일시적으로 줄었고, 민중의 정부참여는 증가했다.

전 대법원 판사 소폰 라타나코른에게 “검은 5월”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주어졌고, 새 선거가 열리기 전에 1992년 9월 25일 조사위원회의 보고가 발표됐다. 그는 군사정부가 5월 7일부터 일찍이 시위대에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52명이 사망했고 3,500명 이상의 체포됐다고 집계했는데, 체포된 사람 중 다수가 고문당했다. 피살자(한명의 외국인 포함) 외에도, 36명이 “불구”가 됐고, 210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고, 115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한 다른 207명이 내무부의 실종명단에 있었다. 82명의 경찰이 외래 진료를 받았고, 4명의 군인이 심한 부상을 당했고, 192명이 경상자였다. 인적 피해 외에도, 7채의 건물이 방화로 파괴됐고, 총 재산손실액은 15억 8백만 바트(그 당시 25:1의 환율로 7천만 달러)였다.<sup>127)</sup> 소폰 보고서는 국방부에 비상시에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내각과 협의하도록 권고했고, 미래 군부쿠데타를 이끌 누구에게라도 가혹한 처벌을 요구했다. 노동사회복지부는 44명 사망, 42명 실종, 292명 부상의 수치를 발표했다.<sup>128)</sup>

명백히 민주주의는 태일랜드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팽창했기 때문에 성장에 좋은 것이었고, 1992년 7.6퍼센트, 1993년 8.1퍼센트, 1994년 8.5퍼센트의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다.<sup>129)</sup> 붕기 3개월 후에 열린 선거에서 천사와 악마의 당들이 권력을 놓고 경쟁했고, 친민주주의 정당들이 62퍼센트 이상의 사상 최고의 전국투표율로 새 정부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의석을 얻었다.<sup>130)</sup> 새 총리로 “민주주의의 수호자” 추안 립파이가 됐다. 10월 7일 새 의회는 만장일치로 수친다의 사면을 거부했지만, 그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결코 책임지지 않았다.<sup>131)</sup>

한편 국왕은 최근에 임명된 256명의 장군과 대령들을 초대했다. 상처입은 자존심을 진정시킨 국왕은 태일랜드 군대에 상부가 너무 많다는 외국의 비판을 반박했다. 많은 외국인 목격자들이 검은 5월 폭력을 중지시키려 개입한 국왕을 칭찬했지만, 국왕은 1993년 2월 노벨 평

125) Xiaoke Zhang, *The Changing Politics of Finance in Korea and Thailand: From Deregulation to Debacle* (London: Routledge, 2003), 128.

126) See Thitinan Pongsudhirak, “Thailand’s Media: Whose Watchdog?” in *Political Change in Thailand: Democracy and Participation*, ed. Kevin Hewison (London: Routledge, 1997), 217.

127) Maisrikrod, *General Elections*, 37; Theeravit, *Thailand in Crisis*, 58.

128) Reported in Surichai Wun’gao,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Thailand,” in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New Millennium*,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20th Anniversary of the Kwangju Uprising Program (Gwangju: May 18 Institute, 2000), 155.

129) Jacques Bertrand, “Growth and Democracy in Southeast Asia,” *Comparative Politics* 30, no. 3 (April 1998), 369.

130) Maisrikrod, *General Elections*, 1.

131) “Ousted Thai’s Decree for His Own Amnesty is Reversed,” *Boston Globe*, October 8, 1992.

화상 수상자 8인과의 만남 동안 자신의 보다 정확한 초상을 보여줬다. 사람들이 놀랍게, 부미불은 공공연하게 이웃 버마의 아웅산수기가 외국인과 결혼했다고 비난했다. 그의 견해로 그녀는 버마 문화의 대표자가 아니었고, 국왕은 그녀가 투쟁을 포기하고 영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은 지속적으로 온건하게 선동했고, 예를 들어 11월말 임페리얼 퀸파크 호텔에서 “라치담노엔의 기억”이란 제목의 정치예술 전시회를 조직했는데, 다양한 매체의 120점 이상의 작품이 운동과 학살을 재조명했다.<sup>132)</sup> 1995년 유가족위원회는 1992년 군대에 사격명령을 내린 5명의 군지도자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들은 국왕의 사면으로 처벌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했다. 비록 내각이 국왕사면을 승인하지 않았고 국왕에게 민형사상 기소에서 아무도 면제할 합헌적 권위가 없었음에도,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민간모금으로 희생자 가족, 특히 가장이 죽은 가족들을 위해 약간의 돈이 마련됐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독립적인 실사위원회, 추모기념관, 5월 17일의 “민주주의의 날” 국경일 지정을 요구했다. 20살짜리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는 보상금 전액(100,000바트, 약 3,000달러)을 가난한 어린이 교육재단을 세워달라고 기부했다.<sup>133)</sup> 비록 정부가 38명만 실종됐다고 주장하지만, 약 100명 실종자의 유가족들은 검은 5월 유가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사랑하는 이들의 시신 위치를 계속 찾았다. 2001년 3월, 유가족위원회는 계속 실종자 숫자가 1,000명 이상이라고 주장했다.<sup>134)</sup>

#### “휴대전화 폭도”

“피플파워”라는 용어가 1986년 필리핀의 마르코스 타도를 정의하는 명칭이라면, “휴대전화 폭도”(Cell Phone Mob)는 검은 5월과 연상되게 됐다. 언론은 이 명칭을 사용했고, 여피들이 시위의 주류였다고 주장했다. 비슷하게 냉소적 명칭이 서구 언론에서도 메아리쳤다. 확실히, 도시 전문직들은 군부의 헌법초안이 처음 발표된 1991년 11월 최초의 시위에 광범하게 참여했다. “휴대전화 혁명”에 대한 언론의 초점은 그들이 직장에서 퇴근해서 도착하자 “명품 의류와 값비싼 시계”, 메르세데스와 BMW 고급승용차에 관심을 끌었다.<sup>135)</sup> 며칠 동안 비슷한 논조의 기사들이 주요 언론에서 다뤄졌고, 서구 기자들도 시위대에 그 별명을 붙였다.<sup>136)</sup> 그 사이에 이 이야기는 학술논문과 잡지 회고담에서 반복됐다.

1980년대 강력한 경제성장의 시기에 크게 늘어난 중산층의 동원은 주목할 만했다. 교사, 학자, 의사, 간호사, 사업가와 다른 전문직들은 시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체제가 상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서 시위가 시작된 동유럽과는 달리, 상승하는 기대수준은 1992년 타이 운동에 기름을 부었다.

시위의 평화적 국면 동안, 타일랜드 사회과학협회는 여론조사를 해서 대부분이 결혼한 화이트 칼러였다고 확인했다. 그들은 약 2/3가 학위를 가졌고, 40퍼센트가 공공부문에서 일했고, 86퍼센트가 월 5,000바트 이상의 소득을 가졌다(이 집단의 절반 이상은 두배 이상의 소득을 벌었다)는 것을 밝혀냈다.<sup>137)</sup>

노동자들의 중요한 역할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고, 주된 이유는 사적으로 소유된 언론이 중산층 기업가들의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동시에 노동자들의 참여에 대한 취재는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케빈 브라운은 비록 작업복을 입고 망치와 낫을 든 산업노동자의 전형

132) See Callahan, *Imagining Democracy*, 145-148 for discussion.

133) Wun'gao, “Human Rights,” 157.

134) The Relatives Committee of the May 1992 Heroes, “The Status of the Missing as a Result of the May 1992 Political Crackdown,” (Pathumdhani: March 2001), 73.

135) Philip Shenon, “Mobile Phones Primed, Affluent Thais Join Fray,” *New York Times*, May 20, 1992, A10.

136) Philip Shenon, “The ‘Mobile Phone Mob’ Faces Guns and Tanks,” *New York Times*, May 24, 1992, E3.

137) Kevin Hewison, “Thailand” in *The New Rich in Asia: Mobile Phones, MacDonald's and Middle-Class Revolution*, eds. Richard Robison and David Goodman (London: Routledge, 1996), 138; Phongpaichit and Baker, *Boom and Bust*, 238.

적 이미지는 아니더라도 노동계급의 참여가 강력했다고 설득력있게 주장한다.<sup>138)</sup> 2008년 인터뷰에서, 솜삭 코사이숙은 시위에서 안전을 관리한 3,000명의 사수대는 모든 노조원이거나 농민들이었고, 살해당한 거의 모두가 “학생들이나 중산층이 아닌 노동자와 풀뿌리 민중들”이었다고 상기시켰다.<sup>139)</sup> 또 다른 목격자인 앨런 클리머는 시위대를 지원한 “손수레 노점상 군대”에 대해 말하며, “살해당한 대부분이 도시와 농촌 빈민들”이었다고 말한다.<sup>140)</sup> 노동계급 “오토바이 부대”는 대부분의 중산층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 거리에 남아있던 투사들에게 귀중한 첩보와 기동성을 제공했다. 한 타이인 목격자는 45.5퍼센트가 “중산층”임을 발견했지만, 총격이 시작된 다음 남아서 싸웠던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노동계급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노동자들과 하층계급 사람들은 운동의 일부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운동을 그렇게 오래 동안 지속시켰던 것은 위험한 순간에 이 집단이 후퇴하거나 도망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sup>141)</sup> <타이 뉴스>는 체포자들이 “하위직 공무원, 교사, 공기업 노동자, 육체 노동자, 대학생과 고등학생, 의료 노동자들”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노동계급 랍캄행 개방대학의 여학생이었던 한 목격자는 총격을 당한 소수 대학생의 이름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의 견해로, “5월사태의 영웅들은 모두 이름없는 사람들, 착한 ‘추종자들’이었다. 아무도 상층계급이나 중산층 출신이 아니었다. 모두가 순수한 마음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요구하려 나온 사회의 밑바닥 사람들이었다.”<sup>142)</sup>

육체노동자들의 참여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즉각적으로 명백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노동조합은 조직대로로 행진하지 않았다. 타이 노동력의 파편화와 사적 부문 기업의 작은 규모 때문에, 3년전 베이징처럼 커다란 대오를 결집할 수 없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 당시에도 노동자들의 광범한 참여는 언론취재에서 주변화됐고, 언론은 일상적으로 운동을 “학생 시위”로 언급했다.) 게다가 대략 25퍼센트의 노동력은 자업이고, 14퍼센트는 가내 노동자였다. 또다른 요인은 노동조합들의 분열이다. 검은 5월 몇년 전, 8개의 노동조합 중앙조직과 18개의 등록 노조연맹이 집계됐었다.<sup>143)</sup> 1992년 동원의 주력은 타이 NGO와 비공식적, 자율적 조직들이었지, 결코 노동조합과 정당이 아니었다.<sup>144)</sup>

### 1997년 민중의 헌법

타일랜드의 기업가계급은 자신의 힘이 증가하고 군대의 역할이 감소하자, 봉기 이후 급속한 경제팽창을 감독했고, 국제 투자자들은 타일랜드의 새로운 역학에서 이윤을 내려고 줄을 섰다. 많은 경우에 본 것처럼, 성공적인 봉기와 민주주의는 경제에 좋았고, 타일랜드도 예외는 아니었다.

1993년 무역자유화를 장려하는 법안이 제정됐고, 금융자본의 흐름에 대한 제한이 완화됐고, 정규직 노동자의 숫자는 감소해서 정리해고와 파업이 늘어났다. 다른 많은 경우처럼, 1992년 봉기 이후, 노동쟁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sup>145)</sup> 타이 섬유 노동자들은 정부청사에서 5일 밤낮으로 시위해서 부당한 해고를 중지시키는 투쟁을 승리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995년에서 1998년까지 무려 80퍼센트나 증가했고, 20억달러에서 36억달러로 늘어났다. 1996년 아시아 국가들의 동남아시아 FDI는 1990년 114억 달러에서 520억 달러로 증가했고, 이는 타일랜드 국내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일본의 지배력 공고화를 가리킨다. 일본자본의 아시아

138) Andrew Brown, “Locating Working Class Power,” in *Political Change in Thailand: Democracy and Participation*, ed. Kevin Hewison (London: Routledge, 1997),162.

139) Interview with Somsak Kosaisook, Bangkok, October 31, 2008.

140) Klima, *Funeral Casino*, 9, 159.

141) Anek Laothamatas, *The Mobile Phone Mob: The Middle Class and Businessmen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Thai) (Bangkok: Matichon Publishing, 1993) as quoted in Ungpakorn, *Struggle for Democracy*, 111.

142) As quoted in Ungpakorn, *Struggle for Democracy*, 112.

143) Bello, Cunningham, and Li, *Siamese Tragedy*, 80.

144) Callahan, *Imagining Democracy*, 109.

145) Phongpaichit and Baker, *Boomand Bust*, 141.

태평양에 대한 지배는 아주 급속하게 이뤄져서, 1993년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거둔 일본의 이윤이 미국의 그것보다 높아지게 됐다.<sup>146)</sup>

수출지향 생산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제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비율은 1981년 7.1퍼센트에서 1995년 13.4퍼센트로 늘어났다. 이미 천문학적 수치였던 작업장 재해율은 1988년 노동자 1천명당 32명에서 1995년 44.4명으로 급증했다. 1권에서 남한의 악명높은 재해율을 논의했지만, 노동자 1천명당 15명의 재해율은 타일랜드가 야만적으로 보이게 하며, 또 그래야만 한다. 직업병 사망은 1988년 282명에서 1996년 927명으로 늘어났다.<sup>147)</sup> 1993년 5월 10일, 역사상 최악의 공장 화재로 카데르 완구공장에서 최소한 189명의 노동자들이 불에 타죽었다. (의미심장하게 이 동일한 홍콩계 공장은 광둥에서 중국 여성들을 고용했고, 대부분이 겨우 20살이었고, 한 달에 약 21달러에 하루 14시간 주 7일을 근무했다. 한 카데르 경영진은 광둥에서 “우리는 이 여자아이들을 밤낮으로 일을 시킬 수 있지만, 홍콩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sup>148)</sup> 그 당시 NGO들은 12세 이하의 어린이 50만명 이상이 공장에서 상점에서 일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붕기 이후에, NGO들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여기에는 민주적 성향의 후보를 지지한 민주주의를 위한 기업인회(BCD)와 정치인들의 기록을 공개적으로 모니터하는 의원감시단(MP's Watch)같은 단체들도 포함됐다. 1995년 최소한 10개의 NGO조정기구들이 존재했고, 농촌개발에 관한 한 기구는 220개의 가맹조직을 거느렸다.<sup>149)</sup> 1999년까지 타일랜드에는 18,000개의 NGO들이 등록했다. 너무나 많은 협조주의적 NGO들이 군사정부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민주주의에 반대해서, 일부에서는 두가지 다른 종류의 NGO에 대해서 언급한다: “협조주의적 NGO와 자율주의적 NGO.” 1992년 이후 중산층의 지위와 돈을 얻자, 노동계급과 농민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화 결과로 자신의 소득이 악화된다고 봤다. 과거의 동맹자들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벌어졌다.

1992년 붕기에서 민중들의 희생에 걸맞은 헌법을 작성하기 위해 활동가들은 1997년 “민중의 헌법”을 위해 지지치 않고 일했다. 99인의 선출직 의회가 작성한 헌법은 희망찬 개혁을 제도화했고, 광범한 시민의 정부참여를 용이하게 했고, 타일랜드를 대의제를 넘어 “참여” 민주주의로 나아가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76명의 선출직 대표들과 23명의 전문가들이 수백개의 풀뿌리 단체들과 협의한 다음 초안을 작성했다. 전과정을 통해 활발한 논쟁은 협의를 도왔고,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서로 조율했다. 1992년 붕기에서 활동했던 CFD와 다른 조직들은 “민중의 헌법”에 147개 이상의 단체들이 참여하려는 노력을 조정했다.<sup>150)</sup> 타넷 아포르수반 박사는 믿었다: “헌법작성의 전과정은 또한 현대 타이정치사에서 유례없었다. 권력자들이 정당성을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과거의 대부분 헌법과 달리, 1997년 헌법은 진정한 민주적 정권을 원하는 시민들의 주도로 만들어졌다.”<sup>151)</sup> 처음으로 시민들은 “유죄 입증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선포했다.

여성단체들도 양성평등 옹호, 가정폭력에서 여성보호, 모성휴가의 30일에서 60일로 확대, 아동매춘 가해자의 처벌을 포함한 매춘 규제법의 강화 등의 활동에서 특히 활발했다.<sup>152)</sup> 타이

146) Bello, Cunningham, and Li, *Siamese Tragedy*, 66.

147) *Ibid.*, 83.

148) *Business Week*, October 31, 1988.

149) Amara Pongsapich, “Strengthening the Role of NGOs in Popular Participation,” in *Thai NGOs: The Continuing Struggle for Democracy* (Bangkok: The NGO Support Project, 1995), 30.

150) Kosaisook, *Labour*, 226.

151)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Thailand: The Return of the Military and the Defiance of Common Sense,” *Article 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5, no. 5 (October 2006): 4.

152) Somswasdi, “Women’s Movement.” 저자가 지적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헌법은 낡은 질서의 비진보적 특징을 유지했다. 결혼과 가족생활은 그대로다. 여성들은 “여전히 약혼하기 원하는 남자가 살 수 있다... 그는 그녀가 강간당하거나 다른 남자와 합의 아래 성행위를 하는 경우 결혼을 거부할 수 있지만, 여성은 그럴 수 없다. 남성은 단 한번의 혼외정사로 여성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에게 허용한 유일한 이혼사유

여성단체들은 1970년대 반매춘법에 반대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 법이 심지어 성노동을 강요 받는 경우를 포함해서 여성을 범죄화하는 반면, 고객들은 처벌하지 않고 포주에겐 낮은 형량만을 내렸기 때문이었다.<sup>153)</sup> 하지만 태일랜드가 “아시아의 사창가”가 되고, 1백만 명 이상의 성노동자들이 추정되면서 새로운 관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태일랜드의 민주주의는 이 견을 허용할지 모르지만,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일본에서 성노동자로 일하게 수출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1백만 명의 성노동자들을 유지하고 태일랜드의 AIDS 위기를 무시한다. 여성노동력 참여가 76퍼센트를 초과하면서, 타이 여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활동 인구 비율에 속하며 주요 제조업 부문에 속하는데, 섬유노동자의 95퍼센트, 가죽제품의 100퍼센트, 신발과 의류의 79퍼센트를 이룬다.<sup>154)</sup> 여성들이 모든 전문기술직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을 이루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겨우 10퍼센트 정도이다.<sup>155)</sup>

풀뿌리로부터 다양한 범위의 운동들이 동원됐고, 정당의 영역 외부로부터 자율적 형태로 등장했다. 1990년 LGBT(남녀동성애, 양성, 성전환자) 운동은 서서히 등장했고, 2000년 의료 전문가와 NGO활동가들이 무지개하늘(RS)을 결성했다. 가장 중요한 단체 중의 하나는 빈민회의(Assembly of the Poor: AOP)로, 8개국 NGO들의 국제네트워크인 비아 캠페시나(농민의길: Via Campesina)에 속하고 아시아지역 조정그룹이기도 하다.<sup>156)</sup> 자신을 조직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하고 의사결정과 권력이 탈집화된 “네트워크”란 개념을 선호하는 빈민회의는 1995년 12월 탐마삿 대학과 콩치암(우본 라차타니주)의 동시 집회에서 결성됐다. 국가와 기업계, 마을주민들 간에 천연자원에 대한 “전쟁” 와중에 탄생한 이 단체는 풀뿌리 관심을 집합하고 권능화하는 자율적 수단이 됐다. “10월 세대”(1973년 봉기로부터 삶을 형성하는 정체성을 끌어낸 과거의 학생 활동가들)의 다수가 안락한 전문직으로 옮겨간 반면, 다른 활동가들은 AOP같은 단체에 참여했고, 1976년 대학살 이후 CPT의 무장투쟁에 피난처를 찾아서 도시를 탈출했던 이들이 특히 그랬다. AOP 내부에서 최종적인 의결결정의 권위는 “주방장”(phokruayai)에게 있었고, 이들은 다양한 숫자의 마을대표자들, 보통 약 260명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아무도 총서기 같은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지 않으며, 국가의 탄압(또는 포섭)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게 한다. 이 단체의 첫 전단지는 조직구조를 아래와 같이 예시했다.

도표 4: 태일랜드 빈민회의의 구조  
[삽입 42]

결성 직후 빈민회의는 약 180,000명을 문제집단(땀, 산림, 대안농업, 빈민촌 공동체)으로 조직했다.

1996년 4월, AOP는 10,000명 이상을 정부청사로 결집시켜, 5주간 농성 하면서 정부가 약 100가지의 허위공약에 대해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다시 1997년 1월 25일, 수천명의 농촌주민을 방콕으로 결집시켰고, 도시 빈민촌 주민들이 합류하자 그 대오는 25,000명으로 불어났다.<sup>157)</sup> 49일간 “빈민들의 마을”은 연설과 공연을 구경했다. 국왕의 대형사진과 타이 국기를

는 남성이 공개적으로 다른 여성(들)을 부인으로 인정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다. 게다가, 결혼상 강간은 처벌받지 않고 이혼사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 그 밖에도 노동자들은 투표하려면 고향 마을로 돌아가야 하는 조항에 대해 불평했는데,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며, 대학 학위가 없는 후보를 금지하는 조항 역시 불만사항이다. (Kosaisook, *Labour*, 226-7).

153) Yuki Fujime, “The Prohibitionist System and Feminism in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in *Contemporary Women’s History in Asia* (Osaka: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Contemporary Asian Women’s History and Gender, 2005), 29.

154) Bello, Cunningham, and Li, *Siamese Tragedy*, 81.

155) Juree Vichit-Vadakan, “Women in Politics and Women and Politics in Thailand,” in *Women and Politics in Thailand: Continuity and Change*, ed. Kazuki Iwanaga (NIAS Press, 2008), 28.

156) 소마차이 파타라탄나논트는 AOP 결성의 기원을 같은 시간에 열린 10개국 NGO 국제회의에 둔다. 미싱햄의 획기적 분석을 보완한 이 뛰어난 연구에서, 그는 농촌지역 조직화의 역사와 과거 노력의 집중 속에서 AOP의 등장을 위치지운다. (Somchai Phatharathananunth, *Civil Society*, 143-4).

157) Missingham, *Assembly of the Poor*, 121.

든 이 단체는 그룹에도 집단 지도력과 내부 민주주의를 주장했다. NGO 회원들은 도시 전역으로 흩어져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접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기 동안 빈민회의는 당국과 협상하기 위해 38차례 회의를 가졌고, 마침내 정부는 모두 122개의 불만을 수용하고 댐파괴로 피해입은 7,000개 가족에게 보상함으로써 “유례없는 양보”를 했다.<sup>158)</sup> 그러나 피해는 상당했다. 10명이 죽었고, 두 명이 더 자살했다.<sup>159)</sup>

“타이의 기적”이 1997년까지 지속되면서, 공식 빈곤층은 인구의 13퍼센트로 집계됐다.<sup>160)</sup> 아무도 신자유주의 정책과 수출지향 생산이 성장과 번영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1997년 7월 금융붕괴는 경제를 황폐화시켰고 재빨리 동아시아로 퍼졌다. 이웃의 수하르토 독재가 몰락했고, 말레이시아의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 1997년 IMF 위기

금융위기는 부의 재분배에서 강력한 무기이자 자본주의 생애주기의 핵심적 부분이다. 위기는 내생적 구조의 일부로서 “적자생존”으로 귀결하기 때문에, 붕괴, 혁명, 정치변화의 형태로 민중적 의지가 만들어내는 위기와는 전혀 다른 종류다. 동아시아를 휩쓴 1997년 IMF 위기의 경우, 통화와 대부시장의 국제 금융투자자들과 IMF 자신이 내린 결정은 지역경제의 폭락을 촉발하고 가속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과거 IMF 수석경제연구원이었던 조셉 스티글리츠는 IMF의 역할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특히 조지 소로스는 태일랜드의 불행에서 엄청난 이윤을 챙겼다. 소로스의 악명높은 관토편드는 태일랜드 경제팽창의 상승세를 탔지만, 1992년 5월 14일과 15일 대대적 매각을 단행했고, 특히 바트화의 평가절하에 엄청난 돈을 걸었다. 소로스는 타이 통화로 시장에 홍수처럼 들어왔다가 가치가 하락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빠져나갔고, 이 과정은 그에게 하룻밤 사이에 수억 달러를 번 반면, 타이 경제를 망치고 전지역으로 그 여파를 미쳐 이웃나라들도 곤란에 빠뜨렸다. (한 시점에 소로스는 악의적인 탐욕 때문에 타이법정에 실제로 기소됐지만, 명백히 그의 도덕적, 윤리적 규범위반은 특히 그가 국왕을 알현한 다음 태일랜드인의 탄력적인 법률해석을 조롱했다.)

바트화가 가치의 절반 이상을 상실하자, 주식은 훨씬 더, 75퍼센트나 하락했고, 재산가치도 곤두박질쳤다. 1997년 경제가 위축하자, 수십만명의 도시 거주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갔고, 600,000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들도 집으로 보내졌다. 1998년 경제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10퍼센트 이상 하락했다.<sup>161)</sup> 정부는 은행과 상품을 헐값으로 외국인 투자자, 특히 일본계 투자자들에게 매각했고, 국내의 부를 유출시켜 태일랜드 경제를 더욱 더 세계체제 속에 편입시켰다(미래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켰다). 3년뒤, GDP는 위기 이전인의 2.3퍼센트 수준이었다.<sup>162)</sup> 2003년까지 GDP는 여전히 1996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못했다.<sup>163)</sup> 1970-1986년 미국이 일본에 약간의 우위를 지켰지만, 태일랜드에 대한 일본의 직접투자는 1997-2006년 미국의 세배 이상이었다.<sup>164)</sup> 국내 소매와 생산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유럽기업인 테스코, 카르푸 등 대형 할인매장들이 매장을 1996년 18개에서 2000년 58개, 2006년 148개로 늘렸다.<sup>165)</sup>

하루 밤 사이에 시암은행은 생존의 위협에 처했고, 왕실 재산국(CPB)도 수입의 75퍼센트를

158) See Pei Palmgren, “Claims to Globalization: Thailand’s Assembly of the Poor and the Multilevel Resistance to Capitalist Development,” *The Resistance Studies Reader 2008*, ed. Christopher Kullenberg and Jakob Lehne (London and Gothenburg, Sweden: Resistance Studies Network, 2009), 34-60. Also see Phatharathananunth, *Civil Society*, 161.

159) Phongpaichit and Baker, *Boom and Bust*, 207.

160) World Bank, Thailand Country Brief, September 1997.

161) Pasuk Phongpaichit and Chris Baker, eds., *Thai Capital After the 1997 Crisis* (Chiang Mai: Silkworm Books, no date), 9.

162) Stiglitz, *Globalization*, 97.

163) Peter Brimble, “The Experience of FDI Recipients: The Case of Thailand,” in *Multinationals and Economic Growth in East Asia*, eds. S. Urata, C. Yue, and F. Kimura (London: Routledge, 2006), 354.

164) Phongpaichit and Baker, *Boom and Bust*, 24.

165) *Ibid.*, 92-3.



상실해 유지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sup>166)</sup> CPB의 수입은 면세이고 자산은 비밀로 부쳐지지만, 비밀유지는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쉬운 일이다. 자회사인 시암상업은행을 통해, CPB는 전국의 초대 투자자이고, 시암시멘트 그룹을 통해 건설업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유지한다. 방콕에서 토지보유는 엄청나다. 2005년 약 400억 달러로 추정되는 그 순가치는 태일랜드 GDP의 약 40퍼센트에 해당한다.<sup>167)</sup>

국제 채권등급이 AA+에서 정크본드 수준인 DD로 하락하고 890억 달러의 외채 절반 이상의 만기가 몇 달 안남자, 태일랜드의 파산은 유일한 의지수단이 170억 달러 가량의 IMF 구조조정 구제금융임을 의미했다. 노동자들이 “노예계약”이라고 부르는 IMF 조건의 주요 구성요소는 높은 이자율 유지, 예산삭감, 국영기업 민영화, 세금증액, “외국 자본투입”에 대한 금융부문의 추가적 개방 등이었다.<sup>168)</sup> 위기에 대한 태일랜드의 대응은 예상 가능한 것으로, 위기를 야기한 자들인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욱 더 심하게 의존하는 것이었다. 1997년 외국기업들은 일부 기업에서 주식의 절반 이상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2년뒤 공개적 타겟의 목록은 늘어났다. 정부 프로그램의 축소가 이뤄지자, 시장의 힘이 국영기업, 대학, 의료시설에 도입됐다. AOP의 협약은 도중에 실패했고, 외국인 토지소유에 대한 과거의 저항과 금융기관들의 100퍼센트 외국인 소유 금지도 사라졌다.

억만장자 텔레콤 거물인 탁신 신나와트라가 시암상업은행과 국왕을 구하러 나서서 파산한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과대평가된 가격으로 샀다. 이 거래를 추동한 것은 자비심이 아니라 야망이었다: 탁신은 곧 방송국을 자신의 정치적 경력 향상의 도구로 바꿨다. 태일랜드의 주요 산업을 지배하는 투자체제의 성격변화는 정치적 변혁을 수반했다. 1997년 헌법으로 타이의 기업가 계급은 군대에 우월적인 권력을 갖게 되었다. 탁신은 국내 선거에서 그의 지속적 성공을 보장한 북동부 지역에 지지기반을 구축했다. 그는 2001년과 2005년에 총리로 선출됐다. 2001년 69.95퍼센트의 투표율은 타이 역사상 최고였다. 탁신의 인기는 아주 높아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부미볼의 경쟁자로 보였다. 탁신은 농촌 빈민들을 위해 병원과 학교를 지었고, 보편적 의료보험을 시행했고, 농촌지역에 도로건설을 완공했고, 북동부 농민들에게 금융구호 자금을 줬고, 도시 중산층에서 농촌지역으로 부를 재분배했다.

하지만 탁신의 지배에는 가혹한 면이 있었다. 2003년 2월부터 시작한 “마약과의 전쟁”으로 2,000명 이상이 살해됐다. 남부의 무슬림에 대한 대대적 탄압도 벌어졌다. 2004년 10월 25일 탁바이에서 약 90명이 무슬림 청년들이 학살당했고, 이는 탐마삿 대학의 1976년 학살과 비교되는 조치였다. 무슬림이나 마약상과 나란히, 노점상, IMF반대 시위대, 농민, 송유관 반대자들을 해산시키려고 경찰력이 대대적으로 사용됐다. 빈민회의는 회원 560명이 기소당했고, 118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농민시위는 대규모 경찰폭력으로 해산됐다. 200,000명 전기 노동자들의 대규모 운동은 탁신의 민영화 계획에 반대했다. 탁신은 아마도 IMF 위기 때에 부미볼을 도왔기 때문에 국왕의 은총을 받는다고 믿었다. 그보다 더한 착각은 없었을 것이다.

#### 붉은 셔츠와 노란 셔츠

탁신에 대한 반대의 수문이 열리자, 군주제와 군부의 반격이 촉발됐다. 1973년과 1992년 봉기를 특징짓는 군주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상한 혼합이 갑자기 산산이 폭발했다. 과거의 동맹은 적이 됐고, 노란 셔츠가 탁신을 공격하고 붉은 셔츠가 탁신을 방어하면서 지속된 거리전투로 태일랜드는 심한 진통을 겪었다. 2006년 4월 노란 셔츠로 알려진 23개 조직의 민중전선인 반탁신 민주주의 민중동맹(People's Alliance for Democracy: PAD)이 조직한 시위가 100,000명 이상의 초대형 집회로 커졌다. 2005년 결성된 PAD는 1992년 봉기의 주역인 참롱

166) Ibid., 168.

167) “The Crown Property Bureau in Thailand,” talk at Harvard University, Southeast Asia Workshop Series October 4, 2007.

168) Bello, Cunningham, and Li, *Siamese Tragedy*, 45.

시무앙과 솜삭 코사이숙을 포함한 핵심 지도부들이 주도했다. 노란 셔츠들은 서구식 민주주의가 부패를 촉진한다고 믿는다. 그들의 견해로, 탁신은 부패한 억만장자로 국가의 지도자인 국왕을 대체하려고 시도하며, 농촌지역의 유권자들을 병원, 학교와 도로로 매수했다. 그들은 “다르마 민주주의”(Dharmocracy)를 신봉했다. 이는 다르마(dharma: 의로운 통치), 이타심, 금욕, 고통받는 모든 이에 대한 연민 등 불교적 개념의 통치로서 선거제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다. 다르마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 국왕의 지혜가 절대적이고, 노란 셔츠는 군주가 의회의 다수를 지명할 것을 요청했다. 비선출직 의회에 대한 수천대의 제안을 부활시킨 노란셔츠는 하원의석 30퍼센트만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1992년 수천대의 제안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적” 활동가들의 역설은 그들의 상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

타일랜드 최근의 기억보다 더 양극화 되어 있던 2006년 9월 19일 탁신이 뉴욕에서 UN 연설을 준비할 때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 서구 언론의 동정적 취재를 받은 2차대전 말 이래 18번째 쿠데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를 타도했을 뿐만 아니라, 타일랜드 역사상 최상의 헌법마저 폐기했다. 새로 취임한 총리는 1992년 비무장 시위대를 사살한 책임이 있는 군사령관이었다. 군사평의회는 새 헌법을 작성할 그룹을 주의깊게 선택했고, 그것을 승인한 2007년 국민투표 전까지 헌법에 대한 공개적 비판을 금지했다.

개정 헌법 하의 모든 새 선거에서 탁신 지지자들이 승리했지만, 노란 셔츠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8년 8월 수만 명의 노란 셔츠는 정부청사를 포위하여 새 총리공관을 사실상 폐쇄했지만, 육군 사령관 아누퐁 파오친다 장군은 총리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했다. 시위 다섯째 날 많은 목격자들은 축제 분위기를 지적했다. 2008년 8월 30일, AP는 보도했다. “군중들에는 주식거래인, 금융분석가, 기업가들이 포함돼 있었고, 많은 이들이 비싼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거의 모두 타일랜드의 광범하게 인기있는 국왕 부미볼 아둘라데즈를 기리는 노란색 옷을 입었다. ‘이것이 투쟁하는 민주주의’라고 화학공장 사장인 아모른이 말했다. ‘우리는 피플파워를 보여주기 위해 함께 모였다. 이 느낌은 서양인들에게 이탈하지 모르지만 우리에게겐 정상적이다.’” 마침내 9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인기있는 TV 요리쇼에 대해 총리의 금품수수가 이해의 충돌을 구성하며, 총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의회에서 친탁신 세력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어서, PAD 시위는 계속됐다. 2008년 10월초, 노란 셔츠 시위대에 경찰이 중국제 최루탄을 사용하여 최소한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구가 됐다. 경찰과 시위대 사이의 충돌 시에 폭발로 팔다리가 절단됐다.<sup>169)</sup> 히포크라테스 선언서에도 불구하고, 방콕의 일부 의사들은 노란셔츠를 공격한 부상당한 경찰관의 치료를 거부했다고 보도됐다. 한 타이항공 조종사도 비슷하게 친탁신계 피플파워당(PPP) 의원 3명의 비행을 거부했다. 왕비의 지지와 군대의 개입기피로 고무된 노란 셔츠는 푸켓과 방콕 공항을 폐쇄하려 몰려갔고, 타일랜드의 대위기를 촉발했다. 병가 중이던 수백 명의 철도 노동자들은 수십대 열차편의 취소를 강요했다.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친탁신 정부를 해산한 이후인 2008년 12월에 시위가 끝났다. 이 판결로 국왕에 충성하는 새로운 총리 압히시 베자지바가 취임할 길이 열렸고 그는 2011년 새로운 선거 때까지 통치했다. 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은 압히시가 의견 때문에 야당 지도자를 체포하고,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라디오 방송국을 폐쇄하자 그를 “최근 타이 역사상 가장 왕성한 검열관”이라고 불렀다.

탁신이 이해충돌 법을 위반한 유죄로 밝혀지자, 여권은 몰수됐고 재산 대부분은 동결됐고, 그는 궐석재판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다. 2009년 8월, 붉은 셔츠, 독재반대 민주주의 연합전선(United Front for Democracy against Dictatorship: UDD)은 국왕에게 탁신에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청원서에 5백만 명의 서명을 모았다. (국왕은 이 요청을 거부했다.) 민주적 개혁을 쟁취하려는 시도가 점차 좌절하자, 붉은 셔츠는 방콕 중심가를 점거하고 비선출직 합히시 정부는 불법이며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4월에 시작해 거의 두달 동안, 붉은 셔츠는 핵심 상업지구를 포함한 도시 중심부 대부분을 점거했다. 정부가 폭력의 위협에 다가

169) Seth Mydans, “In Thai Heartland, Anger over Protests,” *New York Times*, October 13, 2008.

갈 때, 레드 셔츠의 가장 중요한 동맹자 중의 한명인 카티야 사왓디폴 육군장군이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와 인터뷰 도중 머리에 총탄 한발을 맞고 암살당했다. 5월 19일 군부는 레드 셔츠를 무력으로 축출하기 위해 이동했고, 레드셔츠는 고급 쇼핑몰과 중심가 상업용 건물에 불을 질러 대응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최소한 84명이 민간인과 8명의 군인이 2010년 4월과 5월의 폭력으로 사망했고, 1,800명 이상이 부상당했고, 30동의 건물이 불탄 이외에 62건의 폭탄공격이 있었다.<sup>170)</sup> 필리핀에서 본 것처럼, 피플파워 3에 참가한 가난한 시위대는 1986년 피플파워 1이나 2001년 피플파워 2의 보다 용인되는 중산층 참여자들보다 더 커다란 폭력에 부딪혀야 했다.

타일랜드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에서 중산층의 동요는 그들의 변화하는 입장에서 드러난다: 1873년 지지, 1976년 반대, 1992년 지지, 2008년 반대.<sup>171)</sup> 언론은 노란셔츠를 중산층, 즉 “왕 당파, 군장교, 시업가, 사회활동가, 학생, 중산층 주부 등의 다양한 혼합”으로 분류한다.<sup>172)</sup>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다. 2008년 필자가 노란셔츠의 청부청사 점거를 두 번 방문했을 때의 경험에서 보면 그들의 노동계급 구성은 상당하다. 지도부의 집결지역을 지키는 노동조합 사수대는 체계바라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만약 “노동귀족”을 중산층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면, 어떤 분명한 중산층 레벨도 적합지 않다. (이후의 장에서 시민봉기에서 중산층의 역할을 논할 것이다.) 연이은 연사들은 총리 집무실 외부에 텐트를 친 집회공간에 모인 수천 명에게 연설할 때, 노점상들이 캠프 사이로 경찰이나 군대가 침입하기 어렵게 만든 꼬불꼬불한 길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그 물품에는 사파티스타 비디오에서 팔레스타인 배지까지 상당한 양의 좌파 용품들이 있었다. 노란셔츠 대변인 수리야사이 타카실라는 CPD의 지도자이기도 했던 전 학생 활동가이다.<sup>173)</sup>

레드셔츠는 상대편보다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포괄했지만, 그들이 신자유주의적 의제를 가진 억만장자 기업가인 탁신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 UDD의 투쟁이 진행되면서, 왕실과의 거리는 당연히 벌어졌고, 심지어 혁명적 발전에 해당할 파열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장구한 전통에 충실한 위계제 정치의 지속적 패턴은 붉은셔츠에 대한 탁신의 영향력과 노란셔츠에 대한 군주제의 영향력에서 모두 목격할 수 있다. 타일랜드의 미래는 투명하고 평등한 관계보다는 밀실거래로 쓰여지고 있다. 무대 뒤에서 두목들이 엄청난 힘을 휘두르는 동안, 보통시민들은 민주적 협의와 협치(governance)에 대한 훨씬 더 많은 능력을 보여준다.

지난 세월 계속된 갈등은 타일랜드 봉기의 역사에서 생산된 대중의식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2010년 붉은 셔츠에 대한 군대의 폭력 이전에, 학생 지도자 파리냐 테바나루에밋쿨은 1992년 봉기 당시에 2주 동안에 세 번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 1973년에는 18시간 동안 두 번의 집회가 있었다고 기억했다. 2008년 100일 이상 동안 노란셔츠는 20회의 집회를 열었고 아무도 죽지 않았다. “타이 민족은 비폭력의 힘을 배웠다. 비록 우리는 1976년처럼 분열되어 있지만, 우리는 차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sup>174)</sup> 거리에서 공개적 대결의 공간은 수년에 걸친 민중들의 희생의 열매이다. 아주 많은 민중동원으로, 민중들은 자신의 힘에 대한 믿음을 내면화했지만, 그들이 이미 두 번이나 쟁취한 종류의 자유를 누리긴 아직 이를지도 모른다.

170) Seth Mydans, “Conflict in Thailand Shifts from Protests to Politic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2, 2010, 8.

171) Thanks to Ji Ungpakorn for helping to formulate this insight.

172) Mydans, “Thai Heartland,” *New York Times*, October 13, 2008.

173) Giles Ji Ungpakorn, *Thailand's Crisis and the Fight for Democracy* (London: WD Press, 2010), 61.

174) Interview with Parinya Thevanaruemidkul, Bangkok, October 30, 2008. He also expressed his view that another pole is needed since neither red nor yellow represent the poor and working class.

[번역]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붕괴들 2권 10장

제10장: 인도네시아

연표

1975년 12월 7일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침공, 수천명 살해
1991년 11월 12일	딜리 학살: 최소한 273명의 비무장 동티모르인 살해
1996년 7월 27일	자카르타에서 수천명이 경찰 바리케이드와 대치
1998년 1월 9일	IMF 위기: 루피아화가 달러당 2,400에서 10,000로, 다시 17,000으로 폭락
1998년 1월 12일	로렌스 서머스 미국대표 자카르타 도착, 수하르토에게 IMF 협약서 명 강요
1998년 2월 9일	많은 도시에서 식량폭동 발생
1998년 3월 10일	입법부 수하르토에게 대통령직 7년임기 부여
1998년 5월 12일	트리삭티에서 경찰 발포로 학생 4명 사망
1998년 5월 12일	자카르타에서 유혈폭동 발생, 수백명 사망하고 강간당함
1998년 5월 13-15일	폭동이 많은 도시로 확산, 수백명 이상 사망하고 강간당함
1998년 5월 18일	수만명의 학생들이 국회의사당 점거
1998년 5월 20일	100,000명의 학생들이 국회에서 집회
1998년 5월 20일	자카르타에서 1백만 이상의 시민들 행진
1998년 5월 20일	의회 지도자들이 수하르토 탄핵 요구
1998년 5월 20일	미 국무장관 메델린 올브라이트도 수하르토 퇴진 요구
1998년 5월 21일	수하르토 대통령 사임
1998년 5월 22일	군대 남아있던 2,000명 학생들을 의사당에서 조용히 쫓아냄
1998년 11월 12일	10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군부의 정치개입에 항의시위
1998년 11월 13일	수십만명의 노동자들과 도시빈민들도 동원
1998년 11월	군인들의 발포로 아트마자바 대학 근처에서 5명 사망, 16명 살해됨
1999년 8월 30일	동티모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독립 승인
1999년 8월 30일	국민투표 전후로 인도네시아 민병대가 1,000명 이상의 민간인 학살
2004년 9월 7일	활동가 무니라 인도네시아 항공으로 비행중 독살됨

“인도네시아는 지난 10년간 주목할 만한 경제발전의 성과를 이룩했고,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경제실적을 기록한 나라들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 세계은행, 1997년 9월

“1998년 위축된 경제는 마이너스 경제성장률과 기록적인 실업률을 기록하고 타일랜드에서 100만명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2,000만 명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자, IMF는 놀랍지도 않게 부패한 정부, 은행가, 조지 소로스과 함께 수백만의 궁핍화된 한국인, 타이인, 인도네시아인들이 보기에 위기의 장본인 대열에 합류했다.”

- Walden Bello

이미 30년 이상 권력을 유지했던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권은 다른 나라와 달리 나라 전체를 황폐화한 1997년 IMF 위기가 없었다면, 아시아를 휩쓴 붕괴의 물결에 살아 남았을지도 모른다. 재정위기가 닥치자, 2,100만명 이상의 인도네시아인들이 빈곤선 이하로 쫓겨갔고, 식

량폭동이 나라 곳곳에서 발생했다. 모하메드 수하르토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 이상을 다시 가져온 IMF 협약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1998년 학생들이 이끈 시위는 그 규모에서 상승했다. 12년전 필리핀에서 마르코스의 타도 기억을 상기한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피플파워 혁명”을 요구했고, 군대가 저지선을 통과시켜 주자 국회의사당을 점거했다. 야당 위원들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움직였다. 마지못해 수하르토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헌법개정문을 열었다.

수하르토는 1966년 적지 않게 학생운동의 도움을 받아 권력을 장악했다. 그해 “민중의 세가지 요구”는 수카르노 대통령의 사임, 인도네시아 공산당(ICP)의 청산, 기본상품의 가격인하를 요구했다. 수하르토는 훨씬 더 강력한 친구들을 가졌고 그중에는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고생하던 미국이 있었다. 미국의 인지와 지원으로 수하르토 정권은 권력장악 첫 4년간 500,000명으로 추정되는 “좌파들”을 학살했다. 수하르토가 미국의 인도를 아주 밀접하게 따라서 CIA와 국무부는 야당 지도자들을 노린 살생명부를 작성했다.<sup>175)</sup> 수하르토가 인도네시아를 “정화”하자 국제투자자들이 이 나라에 몰려들었다.

1971년 킬링필드의 공포가 잦아든 다음, 학생들이 정권에 대항했다. 그들은 백지투표 캠페인을 시작하여 민중들에게 불공정한 선거에 항의하기 위해 투표에서 기권하라고 요청했다. 비록 심하게 탄압받았어도, 학생소요는 계속됐다. 1974년 1월, 타나카 일본총리의 방문에 반대하는 시위는 수하르토를 당황케 했다. 왜냐면 외국자본의 인도네시아 지배의 뚜렷한 상징이 그의 통치 하에서 공격받았기 때문이다.<sup>176)</sup> 예술가들도 정권의 부패와 정실정치(favoritism)에 대항했다. 검은 12월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1974년 자카르타 비엔날레의 심사위원 선발과정에서 항의했다. 곧 인도네시아 새예술운동(NAM)이 그 결성을 발표했다.<sup>177)</sup> 미술교육 제도에 도전한 그들의 선언은 미적 위계제의 전복을 요구했던, 아상블라주, 해프닝, 오브제 투르베를 옹호했다. 1978년 새예술운동의 세 번째 전시회는 수하르토 대통령을 직접 비판한 몽타주와 그의 권위를 패로디한 퍼포먼스 작품을 포함했다. 심하게 탄압받았지만, 인도네시아 학생운동은 지속적으로 재활성화하여 다양한 이슈에 대한 반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저항을 이용했다.<sup>178)</sup> 1978년 반동공과대에서, 타나카 방문반대 시위 4년 후에, 학생들은 대통령이 선택한 주로 임명직 입법부인 국민자문회의에 도전했다. 그들은 반식민주의 투사들을 기념하여 제정된 “영웅의 날”을 선택하여 “한때 독립을 위해 싸웠던 인민은 지금 부를 위해 싸운다” 같은 정교한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sup>179)</sup>

수익률 높은 제안으로 거대 다국적기업들을 유치한 수하르토는 그의 가족을 위해 실질적 제국을 건설했고, 동시에 그의 정권은 1960년 인구의 절반 이상에서 1996년 약 12퍼센트로 빈곤을 감소시켰다.<sup>180)</sup> 수십년간 꾸준한 연 7퍼센트의 성장은 작은 중산층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됐다. 이슬람 나라들에서 아주 희귀한 동성애운동이 1980년대 후반에 등장했다. 석유 가격 하락으로 정권은 이 시기에 중대한 이행, 즉 외국인 투자자를 배려하는 시장지향적 정책으로 선회했다. 정권은 경제생산을 수입대체에서 수출로 전환시켰다. 쌀 생산량이 감소하자 농업은 쇠퇴했고, 인도네시아는 더 많은 식량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노동력의 제조업 부문은 1980년 9.1퍼센트에서 1997년 25퍼센트로 확대됐고, 1990년대 중반 외국인 직접투자가 1990년에서 1997년까지 400퍼센트 이상 늘어남과 동시에 노동운동이 등장했다.<sup>181)</sup>

175) Blum, *Killing Hope*, 194.

176) *The Long Road to Democracy: A Photographic Journey of the Civil Society Movement in Indonesia, 1965-2001* (Jakarta: Yappika Publishers, 2002), 33.

177) Queen's Museum of Art, *Global Conceptualism: Points of Origin, 1950s -1980s*, (2000), 144.

178) See Mikaela Nyman, *Democratising Indonesia: The Challenges of Civil Society in the Era of Reformasi* (Copenhagen: Nias Press, 2006), 64-8.

179) “The White Book of the Indonesian Student Movement,” *Ampo* 10, no. 1-2 (1978): 30.

180) Irwanto, “Indonesia,” in *The Disenfranchised: Victims of Development in Asia*, ed. Urvashi Butalia (Hong Kong: Arena Press, 2004), 31.

181) Irwanto, “Indonesia,” 19.

수하르토 정권 32년간 인도네시아는 군도 전역, 특히 최근에는 포르투갈 식민주의로부터 해방된 기독교계 동티모르에서 독립운동에 대해 유혈 개입을 감행했다. 군부는 1975년 침략 이후 최소한 100,000명을 학살했다. 침략 전날 밤, 수하르토는 1975년 12월 6일 자카르타에서 헨리 키신저와 미국 대통령 제럴드 포드와의 개인적 만남에서 녹색신호를 받았다.<sup>182)</sup> 이 협의모임에서 그들은 타일랜드와 말레이시아의 반란에 대해 논의했고, 포드는 “베트남의 심각한 차질”을 언급했다. 포드는 인도네시아에 M-16 제조시설을 건설할 계획의 “열광적” 지지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자국의 편협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비밀리에 영토를 분할하는 이 현대판 태프트-카츠라 조약은 70년 동안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얼마나 변한 게 없는지 보여준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인권” 정책 시기인 1970년대 후반 동티모르의 사상자가 증가하자, 자카르타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계속 흘러들었고, 미국은 학살을 중단하려는 UN의 시도를 봉쇄했다. 1982년에서 1984년까지 레이건 행정부 아래서 수하르토 정권에 대한 무기 판매는 10억달러 선을 넘었다.<sup>183)</sup> 동티모르의 학살은 20년 동안 계속됐다. 1991년 11월 12일 최소한 273명의 비무장 동티모르인들이 딜리에서 학살당했다.

이 같은 시기에 전국적으로 수십명의 민주주의 활동가들이 군부에 납치당했다. 민중의 인내는 마침내 1996년 7월 27일 정부측 폭력배들이 인도네시아 민주당(IDP)의 지도자들(수하르토의 전임자의 딸인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를 포함한)을 공격하고 사무실을 점령하자, 그 한계에 도달했다. 거리로 나선 수천명의 민중들은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군대의 바리케이드와 대치했다.

[사진 43]

1996년 7월 27일 수천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독재에 맞서 일어섰다. Photo by Robinsar VDN, in *The Long Road to Democracy: A Photographic Journey of the Civil Society Movement in Indonesia, 1965-2001* (Jakarta: Yappika Publishers, 2002), 33.

워싱턴은 수하르토가 훨씬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너무나 우려한 나머지, 미국은 보다 친미적 기업환경을 만들 민주적 이행을 용이하게 할 희망으로 1995년에서 1998년 중반까지 수하르토의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비밀리에 2,600만 달러를 썼다.<sup>184)</sup> 필리핀의 마르코스처럼,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권은 막스 베버가 “술탄주의”라고 부른 것, 즉 통치자와 그 가족, 친구들의 단단한 서클들이 이끄는 정권이 됐다. 정당성을 결여한 술탄주의 정권들은 그들 권력에서 제거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붕기에 취약하다.<sup>185)</sup> 민주적 정권, 즉 개인적 부의 온건한 분배와 투표에 의한 정당화 의례에 기초한 정권은 훨씬 더 변화시키기 힘들다.

1998년초, <포브스>지는 수하르토의 재산을 160억달러로 추정했고, 그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부유한 사람이 됐다.<sup>186)</sup>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300억 내지 400억 달러라고 추측했다.<sup>187)</sup> 그의 가족사업은 호텔에서 인공위성까지 뻗어갔고, 루슨트 테크놀로지, 제너럴 일렉트릭, 하이야트 호텔, 휴즈 등과의 협력관계를 자랑스럽게 주장했다. 30년간의 통치 동안 세계은행은 그를 지지했고, 300만 달러 이상의 차관을 제공했다. 수십년 동안, 자체 보고를 포함한 수많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부패를 용인했고, 그릇된 정부통계에 그릇된 지위를 주고, 그것을 다른 나라의 모델로 제시하여 독재를 정당화했고, 인권의 상태와 경제의 독점적 통제에 대해 만족했다.”<sup>188)</sup>

182) For related documents, see <http://www.gwu.edu/~nsarchiv/NSAEBB/NSAEBB62/#doc4>, December 9, 2009.

183) Boggs, *Crimes*.

184) Tim Weiner, “U.S. Has Spent \$26 Million Since ‘95 on Suharto Opponents,” *New York Times*, May 20, 1998, 11.

185) Thompson, *Democratic Revolutions*, 114.

186) Mydans, “Suharto and Co.”

187) Nicola Bullard with Walden Bello and Kamal Malhotra, “Taming the Tigers: The IMF and the Asian Crisis,” in *Tigers in Trouble: Financial Governance, Liberalisation and Crises in East Asia*, ed. Jomo K.S. (London: Zed Books, 1998), 95.

188) Walden Bello, *Deglobalization: Ideas for a New World Economy* (Manila: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그 당시 서구 기자들은 수하르토의 연고주의를 혹평하기를 좋아했고 “도둑정치”(kleptocracy)의 종식을 요구했다. 이 단어는 전쟁 폭리취득자 리처드 체니의 이후 조치들과 부시 행정부가 헬리버튼/블랙워터에 준 수십억 달러의 무입찰 계약에 아주 잘 적용된다. 2000년 플로리다에서 되풀이된 남한의 1987년 사기선거fixed election처럼, 인도네시아의 연고주의와 1997년 경제위기는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했고, 2008년 미국을 정면으로 타격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에 대해 말한 것은 당연히 미국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연고주의의 전체적 기초, 즉 입찰없는 계약체결, 거대한 부의 축적 등 이 모든 것은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sup>189)</sup>

## IMF 위기

1997년 인도네시아 IMF 위기의 격렬한 속도에 많은 전문가들이 당황했던 것처럼, 하룻밤 사이 급속한 경제악화로 수백만명이 가혹한 생존조건에 몰렸다. 1997년 7월 타이 바트화의 가치가 폭락한 직후, 전염병은 자카르타로 퍼졌다. 국제 투기꾼들은 인도네시아 주식을 팔기 시작했고 시장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졌다. 통화도 70퍼센트 이상 하락했다. 구원하러 달려온, 또는 그렇다고 주장한 IMF는 10월 43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거부했다. 그 대가로, 수하르토는 공공기업을 매각하고 더 많은 외국투자자에게 문을 개방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 IMF 지침은 또한 16개 지방은행을 폐쇄할 것을 명시했고 남은 금융기관들에 대한 지불청구 채도를 야기했다. 7월 달러당 2,400루피아 수준에서 1월 9일, 10,000루피아 이하로 떨어졌다.<sup>190)</sup> 2주 안에 달러당 17,000루피아에 도달했다. 훨씬 더 많은 돈이 공포에 질려 나라를 떠나자, 수하르토 사임요구는 더욱 더 거세졌다.

수하르토가 동의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IMF 구조조정 패키지는 수하르토가 국가독점기업들을 폐쇄하고, 토착 자동차 및 항공산업의 발전을 취하하고, 모든 IMF의 “지원” 프로그램처럼 기초식품 가격을 낮게 유지했던 정부보조금을 삭감할 때까지 분할 지급금을 연기했다. 국제 투자자들의 지침에 굴복하길 거부한 수하르토는 인도네시아를 경악시켰고 세계인론까지 경악시켰다. 1998년 1월 6일 그는 쌀과 연료같은 생필품 가격에 대한 보조금의 인상을 포함한 정부지출의 전면적인 32퍼센트 인상을 발표했던 것이다. 1월 8일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전화통화에도 불구하고, 수하르토는 완강하게 저항했다. 1월 12일 재무부 차관 로렌스 서머스(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재무부 장관)가 수하르토에게 IMF 협약에 서명하도록 압력을 가하려고 자카르타를 방문했다. 1월 12일 헬무트 콜 독일총리,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 존 하워드 오스트레일리아 총리가 모두 IMF의 긴축패키지의 강제를 촉구하는 전화를 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자, 1월 14일 수하르토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가 시행을 주저하자, 클린턴 미대통령은 전부통령 월터 먼데일을 보내 압력을 가했다. 1월 17일 <이코노미스트>는 “물러나라, 수하르토”라고 크게 떠들었다.

국제 투자자들과 미국 정치인들은 인도네시아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강제했지만, 1월 15일 수하르토가 마침내 임시협정에 서명할 때 미셸 캉드쉬 IMF 총재가 수하르토 뒤에서 팔짱을 끼고서 엄격하게 서있는 사진이 발표되자 그들의 모든 압력은 역효과를 낳았다. 보통 인도네시아인들은 자기 지도자가 국제자본의 대표자에게 그토록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고 분개했다. 그들의 대통령,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국가수반은 많은 사람들에게 IMF 조건의 실행을 거부하는 영웅으로 비쳤다. IMF가 30억 달러의 분할지불금을 유보했기 때문에, 경제의 자유낙하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였다. 3월 10일 국민자문회의는 수하르토에게 7번째 대통령 임기를 부여했다.

## [사진 44]

미셸 캉드쉬 IMF 총재는 수하르토가 협정에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2006), 70.

189) Muthiah Alagappa quoted in the *New York Times*, May 20, 1998.

190) See Bullard “Taming the Tigers,” 93-96.

이미 700억달러로 추정되는 해외차관을 인도네시아 기업들에게 제공했기에, 국제 관료들은 경제를 부양하는 데 필사적이였다. 4월 정부가 가솔린과 식량 보조금의 인기없는 중지(많은 사람들이 반정부 시위 때문에 비난했던)를 연기할 수 있게 한 세 번째 구조패기지에 서명했다. 5월 납치된 민주주의 활동가의 숫자가 최소한 14명으로 늘어나자, 미국과 IMF는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의 국가이익은 경제개혁이 전진하도록 감독하는 것이다.”라고 한 백악관 관료가 <뉴욕타임스> 5월 9일자에 떠벌이면서, 10억달러의 미국 차관 보증이 인권보장에 대한 고려없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거의 모든 나라의 기업들이 기술적인 파산상태에 있었고, 물가상승은 식량폭동으로 이어졌고, 특히 메단, 수라바야, 자카르타에서는 유혈폭동으로 변했다. 오래 동안 식량수출국이었던 인도네시아는 베트남에서 쌀을 수입해야 했다.

### 1998년 학생봉기

3월 수십개 캠퍼스에서 수하르토에 대한 반대가 동력을 얻자 매일 시위가 조직됐다. 학생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전국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1986년 필리핀 피플파워 봉기의 감동적인 해설을 유포했다(봉기 이후 그들을 반란모델로 삼았다). 문자 메시지는 시위를 조정하는 것만 아니라 경찰과 군대의 이동에 관한 첩보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됐다. 정부의 비밀척자들이 모두 모임과 공개단체에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인식한 학생들은 지도부를 순번제로 하고 핵심조직중의 하나인 도시포럼(City Forum)의 사무실을 매주 옮김으로써 대응했다. 이 전술은 경찰척자들 아닌든 운동에 대한 지배력을 주장하는 어떤 개인에게든 어려움을 야기하는 데 성공했다.<sup>191)</sup>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지역 그룹에서 대표자를 끌어내서 탈중앙적 조정구조를 발전시켰다. 시위에서 여성의 역할은 자주 무장 군인과 시위대 사이에 선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여러 경우에, 1967년 펜타곤 행진과 1968년 러시아 침공시 프라하의 거리에서 그랬던 것처럼, 학생들은 그들을 겨누 총구에 꽃을 꽂았다. 4월말, 사마랑이란 작은 도시의 주부들이 2천명의 여학생 행진에 합류했다.<sup>192)</sup>

학생들의 평화행진이 계속되는 동안, 모든 곳에서 “피플파워”에 대한 말이 오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일 수하르토는 5년 동안 어떤 정치개혁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심지어 가족 기업을 매각을 논의하는 것조차 단호하게 거부했다. 같은 날, 30개 이상의 자카르타 노동자 단체의 대표들이 데폭의 인도네시아 대학 캠퍼스에 와서 4시간 동안 학생 활동가들과 만났다.<sup>193)</sup> 반동과 수라바야에서도, 학생과 노동자들이 공동행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났다. 5월 12일 약 1만명 학생들은 평화적 행진하면서 노래를 불렀고, 엘리트적 트리삭티 대학 캠퍼스에서 주요 고속도로로 진출했다. 갑자기 행진대오가 자카르타의 국회로 향하지 않을까 두려워한 경찰이 공격했다. 최루탄 세례를 퍼부은 다음, 경찰 저격수가 네명의 학생을 사살했다.<sup>194)</sup> 온 나라의 충격은 곧 분노로 변했다. 수많은 도시에서 학생들이 반격했다. 아주 신속하게 수도는 유혈폭동에 압도됐다.

5월 13일에서 15일까지, 파괴적 폭동이 재빨리 다른 도시들, 특히 솔로, 우궁파당, 족자카르타, 팔렘방으로 퍼졌다. 학생시위로 시작된 것이 도시민민의 약탈로 변했고, 그런 다음 집단 강간, 방화, 살인 등 보다 치명적인 공격으로 변했다. 자카르타에서, 군중들이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과 그들의 사업체를 골라내면서 수백명이 죽었고, 전국적으로 1천명이상 죽었다.<sup>195)</sup>

191) Jorgen Johansen, “Waves of Nonviolence,” 37.

192) Nicholas D. Kristof, “Students in Struggle to Topple Suharto,” *New York Times*, April 29, 1998, A1.

193) Margot Cohen, “Indonesia: To the Barricade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y 14, 1998, 22.

194) 이 사건들에 대한 묘사적 분석은 <워싱턴 포스트> 1998년 6월 8일자에 실렸고, 다음 책에 다시 실렸다. Edward Aspinall, Herb Feith and Gerry Van Klinken, *The Last Days of President Suharto* (Clayton, Australia: Monash Asia Institute, 1999), 45-50.

195) 그 당시 군부는 자카르타에서 499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고, 경찰은 더 낮은 숫자인 293명을 주장했지만, 5월 18일 예수회의 조사는 1,188명이 자카르타와 탕계랑에서 살해당했다고 판단했다. See Gerry Van Klinken,



“무슬림 소유”란 간판을 건 많은 상점들은 군중폭력의 파괴적 힘에서 피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작은 부분인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국부의 75퍼센트를 통제한다.) 거의 모두 중국계인 468명의 여성들이 15곳에서 며칠 만에 집단강간 당했다. 1천 채 이상의 가옥이 불탔고, 1,604개 상점이 피해를 입었고, 40개 쇼핑몰, 20개 호텔, 11개 파출소와 수백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sup>196)</sup> 동 자카르타의 요가 플라자에서, 174구의 검게 탄 시신들의 처참한 장면이 연출됐다. 많은 사람들이 트리삭티 학생 사살과 여성들에 대한 공격 배후에서 수하르토와 그의 사위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검은 손을 보았다.<sup>197)</sup> 이런 행동은 1965년 수하르토를 정권에 앉힌 반중국인 학살과 유사했고, 그 당시 거의 50만명의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살해당했다. 그리고 1998년의 모방은 수하르토의 퇴진에 대한 공포를 퍼뜨리도록 계획한 것으로 생각됐다.

5월 18일, 밝은 색의 대학 자켓을 입은 수천명의 학생들이 의사당 건물로 행진해서 점거했다. 그들은 “정치, 경제, 법률의 영역에서 개혁”을 요구했고, 수하르토가 현직에서 사임할 때까지 의회에 남아 있겠다고 맹세했다.<sup>198)</sup> 중국과 타이완처럼, 학생들은 그들의 “순수성”을 유지할 것을 고집했고, 비학생의 운동참여를 막았다.<sup>199)</sup> 시인, 작가, 교수들로 구성된 별도의 지지그룹들이 수하르토 사임을 요구했다. 4시간 동안, 군인들은 건물입구를 지키면서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지만, 하원의장 하르모코가 수하르토의 사임을 요구한 다음, 군인들은 방관하자 수천명의 학생들이 건물을 접수했다.<sup>200)</sup> 장미(군인들에게 줄)를 들고, 학생들은 며칠 동안 내부에 머물렀다. 그날밤, 군대는 건물을 고립시킨 다음 자카르타 전역에 탱크를 배치했지만, 학생들에게 곧 수천명의 캠퍼스 동료들이 합류했다.

[사진 45]

학생들이 의회를 접수하자 군인들은 학생들에 협력했다.

학생운동은 의식적으로 전지구적 피플파워의 체현과 동일시했다.<sup>201)</sup> 인도네시아의 대학에서 한 미국인 특파원이 수행한 인터뷰로 “피플파워” 정체성이 공적 공간의 점거라는 전술적 혁신과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 채택했음을 밝혀냈다. 이 에로스효과의 순간에, 학생들은 정치체제의 주인이 되어 나라를 앞으로 이끌 수 있었다. 학생들은 군대와 민중 사이에서 광범한 지지를 누렸다. 수하르토 세대의 고위 군장교들이 그에게 사임을 촉구했고, 의회를 점령한 학생들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5월 20일, 90년전 네덜란드인들에 맞선 반식민투쟁을 기리는 국민각성의 날에 약 100,000명의 학생들이 의사당 단지에서 집회를 하는 동안, 1백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근처 욱자카르타에서 행진했다. 의사당의 돔지붕과 마당에 몰려든 학생들은 즐거워하면서, 그 장면을 “봄방학 동안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의 인도네시아 판”으로 연출했다. 내부에서 사람들이 대리석 복도에 모여있던 동안, 주회의실에서는 지도자들이 “자연발생적 그림자 정부”로서 논쟁하고 연설하고 정치인과 장군들을 조롱했다. 한 미국인 기자는 이 장면을 덜 낙관적으로 묘사했다: “인도네시아 해양대학에서 온 카키색 제복의 학생들은 책상 위로 방 여저저기로 뛰어다녔다. 다른 학생들은 발언자에게 종이뭉치를 던져서 방해했다. 그리고 연단에 앉아있던

“The May Riots,” in *The Last Days of President Suharto*, ed. Edward Aspinall, Herb Feith and Gerry Van Klinken (Clayton, Australia: Monash Asia Institute, 1999), 50; 아시아 인권감사(Asia Human Rights Commission) 역시 1,00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State of Human Rights*, xvi)

196) Van Klinken, “May Riots,” 50-1.

197) See Susan Berfield and Dewi Loveard, “Ten Days that Shook Indonesia,” *Asiaweek*, July 24, 1998 as reprinted in *The Last Days of President Suharto*, ed. Edward Aspinall, Herb Feith and Gerry Van Klinken (Clayton, Australia: Monash Asia Institute, 1999), 53-64.

198) Seth Mydans, “Suharto Reverse Hike in Fuel Price Demanded by I.M.F.,” *New York Times*, May 16, 1998, A1.

199) Nyman, *Democratising Indonesia*, 77.

200) Seth Mydans, “In A Suharto Fief, ‘Hang Suharto!’” *New York Times*, May 19, 1998, A10.

201) See Cohen, “Barricades,” 21-22.

비공식 지도자들은 강당에서 차례를 차지하려고 서로 팔꿈치로 밀어제치면서 나아갔다.”<sup>202)</sup> 그런 소극 대신에, 학생들은 수만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조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매혹적인 의사당에서 권력의 모방이 회의를 서커스로 변하게 했다. 이 회의를 1980년 광주학생들의 진지함이나, 1973년 탐마사 대학 또는 1990년 3월 장카이셰 광장의 점거와 비교하면, 이 점거들과 인도네시아의 점거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벌어진다.

바로 마지막까지, 미국은 세계은행과 IMF처럼 수하르토를 지지했다. 봉기는 아주 예측불가능해서, 1998년 4월 수하르토의 종말 며칠 전에야 한 목격자가 예상했다: “그러나 일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미래의 민주화의 전망은 희박하다.”<sup>203)</sup> 민중이 들고 일어나 수하르토의 퇴진을 주장했을 때에야 그의 국제적 수혜자들은 “민주주의”를 지지했다.<sup>204)</sup> 학생들이 의회를 점거한 같은 날, 의회 지도자들은 3월 대통령 재선거를 취하하고 수하르토를 탄핵할 선거위원회 특별회의를 요구했다. 미국무장관 메델린 올브라이트 역시 수하르토에게 퇴진하고 민주적 이행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다음날인 5월 21일 수하르토 대통령은 마침내 사임했고, 권력을 손수 선택한 2인자 B.J. 하비비 부통령에게 넘겼다.

어떤 조직이나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없는 야당이 방관하는 동안, 학생들의 수하르토 타도는 일련의 기성 정치인들이 국가권력의 최고위 수준에 자기 차례를 주장하러 이동하게끔 했다. 5월 22일 아침, 3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여전히 의회를 점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기괴한 행동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지도력을 제공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학생들은 결코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이미 하비비와 그의 “개혁내각”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민주적 선거를 주장한 사람들로 분열돼 있었다. 그날 밤 늦게 군인들이 조용히 들어와 남아있던 2,000명이 학생들을 5일간 점거한 건물에서 내쫓았다.

#### 레포르마시 시대

인도네시아인들은 개혁(reformasi)의 길로 통하는 권리를 쟁취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이 완전한 사회의 재구조화로 이어질 것으로 희망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낡은 병에 새 포도주를 부었고, 수하르토 없는 수하르토주의에 부딪혔고, 그것은 그들이 투쟁했던 군부 지배체제의 새로운 버전으로, 불균형적으로 상층에서 소수의 가문이 혜택을 누리고 광활한 바다 위로 펼쳐진 2억 민중이 자카르타 정치군사 엘리트의 명령에 복종하는 체제였다.

하비비가 “밀월”에 대해 말하기도 전에,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는 계속 격화됐다. 모든 피고용인의 거의 15퍼센트가 1998년 8월까지 직업을 잃었다. GDP는 1998년 13.1퍼센트 하락했다.<sup>205)</sup> 빈곤은 1998년 인구의 1/4인 4,000만 내지 5,000만명에 영향을 미쳤다.<sup>206)</sup> 극빈층의 곤궁이 아주 심해서 매년 170,000명의 어린이가 굶어죽었고, 이는 매일 465명 사망한 것이다. 1인당 GDP는 1996년 1,155달러에서 1998년 449달러로 떨어졌고, 1999년 720달러 약간 올랐다.<sup>207)</sup>

인도네시아인들이 고통을 겪는 동안, 외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의 자산을 헐값으로 사들였

202) Mark Landler, “Joyfully, Indonesian Students Thumb Noses at Authority,” *New York Times*, May 20, 1998, A10.

203) Jacques Bertrand, “Growth and Democracy in Southeast Asia,” *Comparative Politics* 30, no. 3 (April 1998), 369.

204) Thomas Carothers, “The Sequencing Fallacy,” *Journal of Democracy* 18, no. 1 (January 2007): 21.

205) Dae-oup Chang, “Neoliberal Restructuring of Capital Relations in East and South-East Asia,” in *Neoliberalism: A Critical Reader*, eds. Alfredo Saad-Filho and Deborah Johnston (London: Pluto Press, 2005), 252.

206) 이는 세계은행의 수치다. 크리스 매닝과 피터 반 디어먼은 빈곤선 아래서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1976년 5,400만명에서 1996년 2,250만명으로 감소했다고 제시한다. 댄 라보츠는 훨씬 더 높은 수치를 인용한다. See Manning and Peter Van Diermen, *Indonesia in Transition: Social Aspects of Reformasi and Crisis* (London: Zed Press, 2000), 151. See MDan La Botz, *ade in Indonesia: Indonesian Workers Since Suharto* (Boston: South End Press, 2001), 37.

207) Irwanto, “Indonesia,” 57.

다.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16개 이상의 은행 폐쇄를 강요했고, 정부의 최대은행 PT BANK 마드리 Tbk, 제2의 통신기업, 수백개의 민간기업들이 바닥수준의 헐값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팔렸다. 인수는 왜곡된 환율로 믿을 수 없게 값싸게 이뤄졌다. 그해 하반기 정부는 다수의 국영기업을 매각할 계획을 발표했다. 남한과 타일랜드에서 그랬던 것처럼, IMF 위기와 민주화는 민영화와 전지구적 기업들의 침투강화로 이어졌다.

몇 달 안에, 시민사회의 변화된 성격은 분명해졌다. 많은 단체들이 수하르토 몰락 이후 몇 달 동안 동원했다. 거의 즉각적으로 쫓겨난 농민들이 타포에서 수하르토의 거대한 농장을 점거했다.<sup>208)</sup> 떤단에서 약 2,000명의 농민들이 토지반환을 요구하며 시위했다. 운송노동자와 교사들도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을 위해 시위했다.

[사진 46]

수하르토 타도 이후, 교사들이 대대적으로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Photo by Vitasari/Antara in *The Long Road to Democracy*.

1998년 8월 한 은행 노동자들의 선언으로 화이트칼라 노동조합이 결성됐고, 조합은 수십개 은행의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제공했다.<sup>209)</sup> 곧 언론 노동자, 교사, 공무원, 서비스 노동자, 의약품 노동자 등도 조직했다. 반수하르토 운동에서 오래 활동했던 독립언론인동맹(AIJ)은 핵심적 역할을 했다. 미국대사관의 노동전문가, AFL-CIO,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제노동단체들이 인도네시아의 조합들을 재편하여, 1998년 8월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미국식 노동연맹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줬다.<sup>210)</sup>

1999년, NGO들의 숫자는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 7,000개로 추산됐다.<sup>211)</sup> 새로운 단체 중에는 1998년 결성된 인도네시아 실종자가족협회 같은 희생자단체들도 있었다. KontraS(비자발적 실종 및 폭력희생자 협회)는 오랜 역사를 가진 인권감시단체들의 연장선 속에서 1998년 3월 20일 결성됐다. 새로운 NGO 중에는 1998년 8월 17일 결성된 무슬림방어전선(MIDF)같은 수많은 보수적 단체들도 포함된다. 온 나라에 대해 샤리아(sharia: 이슬람 법률)를 옹호하는 그들은 자체적 민병대와 수사국을 결성하기도 했다. 그들은 자바에서 이른바 “검은 마술” 시술자 수백명의 살해가 실제로 무슬림에 대한 공격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sup>212)</sup>

수하르토 타도 이전처럼, 학생들은 여전히 운동의 선두에 섰다. 학생들의 요구는 선거를 개최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군부의 역할을 종식시킬 과도정부의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다시 한번 운동은 민중들 사이에서 광범한 공감을 받았다. 지역 주민들은 행진하는 학생들에게 돈과 음료수를 줬고 말로 지지를 표했다. 군대의 사주를 받은 수백명의 폭력배들이 학생을 공격하자, 가난한 민중들이 그들을 지키러 달려갔고, 폭력배들을 쫓아냈다. 11월 10일 수만명의 학생들이 의사당에 집결해, 하비비가 즉각 퇴진하고 노벨상 수상자 카를로스 벨로주교를 포함한 5인의 레포르마시 지도자들의 과도 최고회의에 권력을 이양하라고 요구했다.<sup>213)</sup> 학생시위는 11월 12일밤 국회 주위의 육탄전에서 그 정점에 올랐다. 다른 도시들에서도 학생들이 여전히 활동적이었다. 솔로에서 학생들은 지방정부 청사를 접수했고, 욱야카르

208) Anton Lucas and Carol Warren, “Agrarian Reform in the Era of *Reformasi*,” *Indonesia in Transition: Social Aspects of Reformasi and Crisis*, in eds. Chris Manning and Peter Van Diermen (London: Zed Books, 2000), 228.

209) Donni Edwin, “The White Collar Movement,” in *Indonesia’s Post-Soeharto Democracy Movement*, eds. Stanley Adi Prasetyo, A.E. Priyono, and Olle Tornquist (Jakarta: Demos, 2003).

210) La Botz, *Made in Indonesia*, 174-175.

211) See Philip Eldridg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Democratic Transition in Indonesia,” in *Civil Life, Globalization, and Political Change in Asia*, ed. R. P. Weller (London: Routledge, 2005), 149.

212) Jajang Jahroni, *Defending the Majesty of Islam: Indonesia Front Pembela Islam, 1998-2003* (Chiang Mai: Silkworm Books, 2008), 25.

213) David Bouchier, “Habibie’s Interregnum,” in *Indonesia in Transition: Social Aspects of Reformasi and Crisis*, eds. Chris Manning and Peter Van Diermen (London: Zed Books, 2000), 19.

타에서는 국영 라디오방송국을 점거했다.<sup>214)</sup> 국민자문회의(여전히 주로 수하르토의 임명자들로 구성된)가 군부의 지도적인 정치적 역할을 재확인하자, 10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11월 12일과 13일 시위를 벌였다. 그 밖에도, 수십만명의 노동자들과 도시빈민들도 동원했다. 국회 근처의 왓마자야 대학 인근에서 군인들이 5명을 사살하자 수십개 도시에서 민중들은 3일 총파업을 지지했다. 아체에서 2명 사살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총 16명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5월 이래 폭력은 가장 격렬한 수준에 이르렀다. TV는 군중들이 고립된 경찰관을 피나게 구타하는 장면을 보도했고, 그는 해병대가 개입해서야 겨우 목숨을 구했다.<sup>215)</sup>

사람들이 수하르토의 신질서(New Order)로부터 남겨진 부패한 개인들을 정부관직에서 “청소”하려고 하면서 몇 년간 투쟁이 벌어졌지만, 결과는 극소수였다. 지역자치는 소수민족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교사의 급여는 2004년 여전히 월 50달러 이하였고, 말레이시아 교사의 1/10, 필리핀의 절반 수준이었다.<sup>216)</sup> 위기의 “종료” 3년 후에, 인도네시아의 GDP는 1997년보다 7.5 퍼센트 낮았다.<sup>217)</sup> 1999년 6월 9일 마침내 새 선거가 열렸고, 2001년 7월 메가와티가 새 하원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택됐다. 2004년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선거로 선출됐다. 포스트 수하르토 시대에 탈집중화는 아주 조금 이뤄졌고, 정책결정에서 약간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도화됐다. 정부의 개혁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위원회, 부패척결위원회의 창출이 포함됐다. 경찰과 군대의 기능은 서로 분리됐지만, 고문은 여전히 경찰관행의 일부로 남아있다.<sup>218)</sup>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동티모르가 독립을 쟁취했다. 새로운 레포르마시 정권은 국민투표를 허용했고, 섬주민들은 1999년 8월 압도적으로 독립을 승인했다. 거의 즉각적으로 인도네시아 군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가 살육에 돌입했다. 1천명 이상의 순수한 민간인들이 학살당했고, 약 300,000명의 난민들이 인도네시아가 계속 통치하는 서티모르로 내쫓겼다. 동티모르는 자카르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처리하기 힘든 문제에 부딪혔다), 아체와 서파푸아는 별로 운이 좋지 않았다. 2004년 12월 츠나미로 황폐화된 아체 사람들은 독립이란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고, 최소한 이번 세대에는 그랬다. 사실, “자유화” 이후 아체에서 고문, 사법의 살인과 실종은 표 29에서 보는 것처럼 해마다 두배 이상 늘었다.

표 29: 아체의 폭력 1999-2002년

연도	사법의 살인	고문	체포/구금	강제실종	합계
1999	421	802	293	101	1,617
2000	524	549	419	140	1,632
2001	1,014	768	578	110	2,470
2002	1,307	1,860	1,186	377	4,730
TOTAL	3,266	4,024	2,476	728	10,449

Source: Database KontraS, 2002

2002년 통티모르의 전주지사가 인류에 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1999년 독립 국민투표 이후 민병대의 살육극을 막지 못한 혐의로 3년 징역형을 받았다.<sup>219)</sup> 2년 뒤 판결은 번복되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행한 잔혹행위에 대해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2007년 5월 1998년 피살자 친척들이 책임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에 대한 요구를 되풀이했다.<sup>220)</sup> 리키 구나완

214) John Percy, *Green Left Weekly*, November 19, 1998, <http://www.mail-archive.com/leftlink@vicnet.net.au/msg00262.html>.

215) *Albion Monitor*, November 15, 1998, <http://www.monitor.net/monitor>.

216) Irwanto, “Indonesia,” 25.

217) Stiglitz, *Globalization*, 97.

218)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Torture, Killings Continue Despite 10 Years of Reforms” *Hong Kong* 7, no. 4 (December 2008): 94.

219) Jane Perlez, “Indonesia Convicts an Ex-Governor in East Timor Killing Frenzy,” *New York Times*, August 15, 2002.

220) “May 1998 Riots Remain a Mystery: Indonesia,” <http://www.planetmole.org/daily/may-1998-riots-remain-a-mystery-indonesia.html>.

이 표현했듯이, “면책의 사슬을 끊지 못한 인도네시아의 실패는 인권침해가 용인된다는 관념을 만들어낸다. 반복되는 면책은 형사재판제도를 취약하게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조만간 부서질 유리로 만든 집과 같다.”<sup>221)</sup> 인권침해는 심지어 가장 온건한 형태의 반대조차 계속 괴롭힌다. 2004년 9월 7일 운동 지도자 무니르가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의 암스테르담행 비행 도중 독살됐고, 이는 2년간 인권 활동가 8명의 살해 중 하나였다.<sup>222)</sup> 비록 한 개인이 이후에 무니르 사건에 대해 유죄로 판명됐지만, 정부 고위관리로 추정되는 배후 조종자는 체포되지 않았다.

풀뿌리 단체들 간의 국제적 연계는 1998년 봉기의 또다른 중요한 유산이다. 2004년 총선거에 이르기까지, KontraS는 “피의 정치인”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한국의 낙선운동에서 직접 배운 방식으로 반동적 의회 후보를 낙선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59명의 낙선후보 중에서 89명이 패배했다. 인도네시아의 운동이 이웃나라의 피플파워에서 영향을 받았듯이, 인도네시아의 영향은 말레이시아에서 느껴졌다. 1998년 3월 8일 부총리 안와르 이브라힘의 해고는 자칭 “레포르마시” 운동으로 전환한 불만의 폭발로 이어졌다. 마하티르 정부의 가부장주의(paternalism)에 반대하여 시민들이 여러 달 동안 동원했다. 시위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한 9월 20일에 정점에 올랐다.<sup>223)</sup> 수만 명이 국립 모스크에 모여서 총리관저로 행진했다.

시민봉기의 개별적 경우가 성공적이든 아니든, 봉기는 미래 운동의 길을 개척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의 평화에 대한 봉기의 기여는 항구적이다. 다음 장에서 필자는 아시아 봉기들의 지속적 영향과 함의를 추적할 것이다.

---

221) Ricky Gunawan, “Indonesia can learn from Korean uprising,” May 20, 2009, [http://www.upiasia.com/Human\\_Rights/2009/05/20/indonesia\\_can\\_learn\\_from\\_korean\\_uprising/7836/](http://www.upiasia.com/Human_Rights/2009/05/20/indonesia_can_learn_from_korean_uprising/7836/)

222) Impartial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Test of Our History? A Thick Wall on the Murder investigation of Munir* (Jakarta, 2006), 3.

223) Liew Chin Tong, *Speaking for the Reformasi Generation* (Kuala Lumpur: Research for Social Advancement, 2009), xiii and 17.

제11장: 피플파워와 그 한계

“필리핀, 남한, 방글라데시와 나 자신[스리랑카]을 포함한 많은 다른 나라에서 민중의 투쟁은 피플파워를 위한 투쟁이 아니었다. 그들의 투쟁은 억압구조의 종식, 권력과 자유의 관계발전의 보다 정교한 형태의 가능성 창출, 그리고 자유의 영역을 확대하고 권력의 영역을 축소할 가능성을 위한 것이었다.”

- 바실 페르난도

“바로 그 본성으로 인해 인간은 자유롭게 될 운명이다.”

- G.W.F. 헤겔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참여민주주의가 먼 과거의 영역, 고대 그리스 또는 뉴잉글랜드 마음모임의 잔재라고 가르치지만, 20세기말 아시아의 봉기들은 참여민주주의의 존재에 대한 현재적 증거를 제공한다. 현대적 형태의 참여민주주의는 인류가 평등과 합의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런 성향으로의 복귀를 체현한다. 1968년 이래 사회적 봉기들은 활성화된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이지, 서로 다를 것 없는 둘 사이에서 선택하는 많이 악용되는 수동적 대의제와 관계없다. 사회적 봉기는 수백만 민중을 세계체제의 주변부에서 지옥처럼 살게 하고 우리 모두를 지속적 전쟁과 지구파괴에 관여하게 하는 전지구적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앞의 사례연구에서 보았듯이, 봉기 동안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보통사람들의 능력은 지속적으로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민주적 형태의 협의를 생산했다. 보통사람의 지배는 어떤 엘리트의 지배를 뛰어넘지만, 부자와 권력자들은 자주 민중의 삶과 자원에 대한 집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봉기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적 자유와 “신자유주의”의 이름으로 억만장자들은 수세대의 노동자들이 생산한 막대한 사회적 부를 자신의 사적 소유로 전유한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치인들은 군사화된 민족국가들 보편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영역으로 만들고, 때로는 수천 명씩 인명을 파괴한다. 정치 지도자들이 교육과 연금에 대한 기금삭감 같은 “해결책”을 논하면서, “정의로운” 전쟁을 수행하고 거대기업을 “구함”으로써 귀중한 자원을 탕진한다. 기업측 대중매체의 끊임없는 공포 메시지는 전쟁을 필요한(심지어 “인도주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길들이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 수십억 달러의 광고는 삶의 힘을 소비선택으로 전환시키려고 애쓴다.

봉기는 견고한 독재를 타도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국가를 초월하는 이해관계를 갖는 전지구적 엘리트들에게도 유용하다. 에로스 효과는 기존정권을 전복하는 데 명백히 효과적이지만, 체제는 자신의 작동을 안정화하기 위해 봉기의 물결에 올라타는 데 익숙하다. 피플파워 봉기의 물결은 세계의 더 많은 지역을 일본과 미국 은행의 궤도로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줬다. 노동조합 권리를 위한 남한 노동계급의 영웅적 투쟁은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침투에 유용했다.<sup>1)</sup> 민주적 남한과 타이완에서, 마르코스 이후의 필리핀 등의 경우처럼 새로 선출된 행정부들은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을 가속화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거에 닫혔던 시장에 침투하고 더 많은 이윤을 끌어내기 위해 수백만 명의 노동력에 규율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인류의 끝없는 자유에 대한 필요는 지구의 가장 강력한 자원을 구성한다. 자유로운 인간을 창출하는 투쟁에서 정치운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봉기는 사회변혁을 가속화하고, 정부를

1) See Loren Goldner, <http://libcom.org/history/korean-working-class-mass-strike-casualization-retreat-1987-2007>.

교체하고 개인의 의식과 사회적 관계를 혁명화한다. 대부분의 민중반란은 수백만 민중에게 자유를 확대했고, 그들을 야만적으로 탄압하는 정권은 그 몰락의 날만 헤아린다. 봉기의 엄청난 에너지는 민중의 일상생활을 변혁하고 그들이 쇠퇴해도 오랫동안 계속 에너지를 불어 넣는다. 필리핀, 타이완, 네팔, 방글라데시, 태일랜드 등 경험적 사례에서 발견된 봉기 이후의 고조는 시민사회의 동일한 현상적 활성화와, 노동계급, 학생, 소수민족 또는 여성이든 하위집단의 동원을 보여준다. 봉기 이후, 자율적 언론과 풀뿌리 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여성주의가 강화되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심지어 불참자들 사이에도 이 쾌감의 순간에 발산된 강력한 에로스 에너지를 통해 유대가 창출된다. 마르쿠제가 “정치적 에로스”라고 부른 이 경우들은 상상력을 재점화하고 희망을 키우는 데 심오하게 중요하다.

20세기는 엄청난 번영 속에 끔찍한 전쟁과 대량기아로 기억될 것이다. 또한 인류가 세계체제 전제를 변혁하는 투쟁을 시작한 시대로 알려질 것이다. 20세기말의 봉기들은 전지구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민중들의 시도를 보여준다. 풀뿌리로부터 지난 30년간 전세계 수백만 명의 민중들은 자본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장기적 민중봉기를 구성한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대안세계화운동의 우리 수백만명은 세계경제체제 기구들의 엘리트 모임에 대항했고, 이 실제적 공격대상의 보편적 의미는 새로운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민중의 열망을 심오하게 가리킨다. 어떤 중앙조직도 여기에 집중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백만 명의 민중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자율적으로 투쟁을 발전시켰다. 비슷하게, 중앙조직 없이, 2003년 2월 15일 전세계에서 3천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두 번째 전쟁에 항의하여 거리로 나섰다. 전지구적 운동이 점차 자신의 힘을 인식하면서, 전략과 영향력은 확실히 더 집중되게 되었다. 직접민주주의적 형태의 의사결정과 전투적 민중저항을 창조적으로 종합함으로써, 민중운동은 1968년과 이후의 아시아 봉기에서 드러난 역사적 계보를 따라 계속 발전할 것이다: 자율, “의식적 자생성”과 에로스 효과의 문법 안에서.

21세기로 들어서면, 아랍의 봄은 역사를 변화시키려 거리로 나서는 보통사람들의 성장하는 의식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한다. 1968년,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날, 전세계가 각성하고 있는 것이 더욱더 맞는 경우다. 무바라크 없는 이집트의 안정화는 체제의 핵심은 유지하면서도 최상층의 소수를 처리함으로써 타도의 위험, 따라서 미국의 궤도에서 벗어날 위험에 처한 독재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이집트의 군부 지도자들은 무바라크 없는 무바라크주의, 미국에 우호적인 엘리트의 보다 안정적인 체제 지배를 강제한다. 마르코스 없는 필리핀, 군부독재 없는 한국, 백색테러 없는 타이완에서 본 바와 같이, 불안정한 나라들은 미국과 일본의 은행과 기업들의 비옥한 놀이터로 변했다. “측근” 자본주의의 종말은 초국적기업들의 시장과 이윤 확대를 의미했다.

여기에서 핵심적 문제는 사회운동이 자신의 에너지를 견고한 경제, 정치적 엘리트들에게 포섭당하지 않으면서 사회를 지속적으로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너무나 자주, 꿈을 한번에 이루지 못해서 실망하는 경우 커다란 기대는 비통함과 절망을 낳는다. 심지어 위대한 시몬 볼리바르조차 다르지 않았다. 라틴아메리카의 투쟁이 에스파냐 지배의 멍에를 제거하지만 고리대 민족엘리트로 대체되는 것을 목격한 볼리바르는 말했다: “혁명을 했던 자들이 바다에 쟁기질을 했다.”

부자와 권력자에게 봉기의 유용성은 부분적으로 오랜 세월의 억압과 언론조작에 고통받았던 민중들이 자유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 때문이다. 자신의 봉기로 자유를 쟁취할 때에도, 민중들은 자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습관적으로 항상 일하는 사람들은 자유시간이 생기면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 수감생활에 익숙한 죄수처럼, 그들은 해방된 상태를 다루지 못하며, 남이 결정을 내리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실질적 선택을 하는 데 익숙지 않다. 이 자유의 문제는 가혹한 탄압이 일상적 생활방식이었던 사회에서 특히 첨예하다. 수세기 동안 지역적 억압의 형태 아래 살았던 사람들은 자주 읽고 쓰고,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과 함께 오는 지성의 역량 같은 많은 역량을 박탈당했다. 그들은 의사소통의 문화적 역량도 부정당해서 자신의 일상적 억압에 대한 지속적 투쟁의 고유한 형태를 발전시킬 수 없다.

봉기의 승리 후에, 민중들 내부에 형성된 수십 년된 습관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았다. 지성의 저발전은 정치적 변화와 함께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를 자본주의적 관계에 주입시킨 경쟁과 위계서열이 가치도 사라지지 않는다. 자신의 창조성을 소탕할 민중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읽고 쓰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이 관심사를 심오한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문자해득력을 갖고, 비위계적, 협동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리핀과 방글라데시에서, 수세기의 억압으로 고통받던 민중들이 특정한 정권에 맞서 일어나, 정권을 붕괴시켰지만, 그 다음에 소수 엘리트에 의해 그 성과는 빼앗겼다. 민중들은 다시 모호한 상황으로 밀려나서 새 정권에 다시 탄압당했다.

엘리트들은 자신의 지배를 추구함에 있어 자주 무자비한 반면, 피억압자의 모호함과 소심한은 여전히 작동된다. 경제적, 정치적 성과를 얻지만, 내부적 문화형태의 억압은 계속 민중들이 최소한 현재 바라는 종류의 자유를 획득할 역량을 거부한다. 자유의 대한 사랑은 특정한 정권의 퇴진을 목표로 하는 봉기에서 표현될 뿐만 아니라, 인간, 특히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의 총체적 변혁에 대한 사랑이며, 이를 통해 그들이 보다 명료해지고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고 수세기에 걸친 지역적 억압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신의 문화적 억제를 극복할 수 있다.

바실 페르난도의 견해로, “피플파워’라는 용어의 발명은 뭔가 긍정적 의미를 갖지만, 국가의 억압적 행위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사고에 대한 제한을 창출했다. 피플파워의 결과로 권력을 잡은 정권이 반드시 더 나은 국가는 아니었다.... 억압구조의 많은 측면이 여전히 남아있고, ‘피플파워’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 권력을 잡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의해 이용되기 때문에 그 성과는 부분적이다.”<sup>2)</sup> 성공적인 봉기는 억압체제의 가장 즉각적으로 혐오스런 차원을 제거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핵심에서는 엘리트 지배와 자본주의적 관계를 강화했다.

봉기는 민중의 도덕적 역량을 확대하고, 창조성을 위한 새로운 장을 창출하고 민중의 내적 열망이 완수되지 않을 때에도 새로운 형태의 표현을 발전시킨다. 봉기 동안 용기와 희생을 통해 표현된, 민중들이 원하는 바는 권력이 아니라 자유다. 민중봉기의 궁극적 목표는 억압구조를 파괴하고 자유의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민중은 국가권력의 약화를 원하는 반면, 정부와 정당들은 더 많은 통제를 추구한다. 민중이 원하는 것은 다양한 차원의 자유다: 배고픔으로부터 자유, 교육혜택을 통한 무지로부터 자유, 어떤 종류의 가부장제와 독재로부터의 자유, 고된 일로부터 자유, 그들의 삶을 노동으로 정의하는 것에 반대하는 자유.<sup>3)</sup> 민중은 생산물과 생산과정을 통제할 자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자유, 예술적 영역의 자유를 원하며, 그들은 간섭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추구하길 원하며 자신이 선택한대로 자신을 표현할 자유를 원한다.

### 전지구적 과제

2차대전 후 한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 사회운동이 가장 강력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의 운동은 전투적 전술과 수적 지지만이 아니라, 운동의 내적 힘에서도 가장 강력했다. 한국의 윤상원(광주항쟁의 영웅)이나 베트남의 응우옌 반트로이(1964년 미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를 암살하려다 처형당한)의 사랑스런 초상에 상응하는 최근 유럽 또는 미국의 인물을 찾는 것은 헛된 일일 것이다. 두 경우에, 미국의 전쟁은 수백만 명의 사망을 야기했고, 공동체 문화가 저항을 유지한 운동을 조건지웠다.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아주 민감한 시민을 갖는 나라인 한국은 2003년 칸쿤 WTO 시위에서 농민 이경해의 자살과 같은 희생적 행동을 통해 모든 나라의 활동가들에게 열정적으로 말하는 목소리를 갖고 있다. 2005년 12월 수십 명의 한국 농민들은 WTO 회담장에 시위를 벌이기 위해 홍콩 항구에서 수영했다.

2) Thanks to discussions with Basil Fernando for the above insights.

3) 많은 음모이론가들은 자유의 이런 기본적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대신 개인에 대한 새로운 집단적 통제 메카니즘을 옹호한다.



자유에 대한 민중의 열망이 간혀있는 심적 감옥의 지배를 느슨하게 하는 일련의 도구로, 다른 사람들이 봉기하는 사례는 강력한 대항력이다. 역사를 보면, 1969년의 전지구적 운동은 그 세계사적 성격에 대해 대개 의식하지 못했다. 1990년대 처음 나타난 새로운 대안 지구화 운동은 국제적인 성격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끝없는 전쟁과 빈곤의 체제적 성격을 깨뜨릴 수 있는 중요한 특징도 가지고 있었다. 전지구적 정의와 민주적 협의의 합리적 형태를 창출하기 위해, 반란운동은 자생성과 의식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개발하고, 행동과 목적을 국제적으로 동기화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의 자의식을 증가하고 내적 발화를 자극하는 것은 그 경험적 역사, 특히 남한에서(현대적 사회운동의 풍부한 역사는 1권에서 추적했다) 추적할 수 있는 것처럼 이미 봉기에서 작동중인 과정이다.

자기패배적 행동(헤르베르트 마르쿠제가 이 현상에 이름붙인 것처럼 “심적 테르미도르”)만이 아니라, 운동 내부의 배신은 봉기를 통해 쟁취한 민중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몹시 필요한 힘을 내적으로 소진시킨다. 하지만 베트남의 민족해방투쟁의 발전처럼 위대한 승리조차 기업의 세계화와 자본의 권력에 의해 은밀하게 전복되는 구조적 이유도 있다. 전지구적 반아파트헤이트 투쟁은 넬슨 만델라를 수십 년간 로빈섬의 투옥에서 벗어나 남아프리카 최고권력의 지위에 올려놓았지만, 만델라 역시 빈민들을 더욱 괴롭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사하게, 독재에 반대한 동아시아의 봉기들도, 심지어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중요한 세력을 포함했음에도, IMF와 세계은행이 권력을 확대하도록 했다.

현대 혁명의 역사는 세계체제가 가장 강력한 고리를 깨지 않으면 변혁시킬 수 없음을 보여준다. 과거의 혁명들은 자본주의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강화했지, 변혁하지는 못했다. 프랑스와 미국혁명에서 러시아와 중국혁명까지, 체제는 힘을 끌어내고 지배를 확대했다. 체제가 자신의 성과 대부분을 파괴했을 때에도, 그 붕괴는 변혁과 동일하지 않다. 이름에 걸맞는 자유는 단순히 기존구조의 개혁도 아니고 거대한 자본구성체의 붕괴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바 정치의 전복을 필요로 한다. 이후의 장에서 필자는 위계적 중앙집중적 정당에 대한 대안적 형태의 전위조직, 뿐만 아니라 변혁을 필연화하는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구조적 과제를 논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1968년 이래 에로스 효과의 일화 동안 자기조직화의 점증하는 국제적 역량을 추적할 것이다.

## 1968년에서 봉기 2.0으로

혁명의 변증법적 과정에서, 동학은 자유의 의미가 그러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전지구적으로 의식하는 운동은 이미 베트남에서 미국 제국주의를 패배시키고, 남아프리카에서 아파르트헤이트를 종식시키고, 동아시아 독재들을 개혁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 투쟁들의 유산에 기반함으로써, 인간과 모든 형태의 생명에 적합한 세계를 계속 창출할 수 있지만, 우리의 승리와 패배를 주의깊게 평가할 때에만 그럴 수 있다.

시민들은 혁명이 위축되거나 심지어 그 대립물로 전화되는 것을 지켜봤다(미국과 소련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참여적 흐름과 나란히, 사회운동의 역사는 민중반란이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들, 체코나 방글라데시의 민주주의자들, 또는 한국이나 프랑스의 노동조합들이든 간에, 과거의 진보적 운동에서 자라난 정당과 조직들에 의해 진정되거나 순응하거나 매수되는 역사였다. 명령 내리는 지도자들의 하향식 단체들이 조직한 의례화된 시위는 “대중들”을 거리로 나서게 하는 데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명백히, 레닌주의 유형의 정당들처럼 견고한 엘리트들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운동의 개량주의를 초월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운동들은 스스로 보편적 비판과 자치의 자율적 역할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0년간 동아시아의 일련이 봉기들은 민중들이 전문적 정치인들의 “지도” 없이도 직접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역량을 확인했다.

21세기에 사회의 변화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최근의 투쟁전술을 소화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적용할 수 있는 민중의 역량도 가속화된다. 1968년 이래, 전지구적 운동의 동원은 1999년에서 2001년까지 대안세계화 시위 동안 무의식적이고 자연발생적 형태에서 “의식적 자생성”의 형태로 변화했다. 아랍의 봄 동안, 봉기의 연쇄반응은 튀니지에서 이집트로, 다시 예멘, 바레인, 시리아와 리비아로 퍼졌고, 진짜 해일로 바뀌었다. 수백만 명의 보통사람들이 거리로 나서서 정권을 바꿀 수 있다는 성장하는 의식을 증명했다. 시위대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SMS) 사용의 점증하는 정교화와 반란이 확산되는 초국경적 속도는 21세기 피플파워의 잠재력을 미리 조금 보여준다. 누군가 봉기 2.0이라고 불렀던 것은 세계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소식을 재빨리 전파하고, 실시간으로 행동을 조정하고 직접적으로 전지구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지칭한다.

소셜미디어로 용이하게 된 동기성은 풍부한 환경에서 성장했는데, 운동들이 이미 1968년 이래 국제적 동기성을 위한 역량을 축적해오고 있었다. 그 당시 전지구적 운동은 자연발생적 동시성과 함께, 민중들의 서로에 대한 직관적 동일화로부터 국제적 조정화와 함께 등장했다. 4년 뒤, 전세계 민중들이 독립을 위한 베트남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단결했을 때, 전세계적 운동의 상당한 부분이 중앙 지도부 아래 함께 했다. 1972년 2월 베트남인들이 프랑스 베르사이유에서 국제회의를 조직했고, 80개국 이상의 평화운동이 대표단을 파견했다. 대표들은 미국의 전쟁이 얼마나 인기없는지 보여주기 위해 국제적 시위를 조정하도록 고안한 투쟁일정에 합의했다. 베트남에서 부활절 즈음 무언가 일어나고, 이어 동에서 서로, 즉 모스크바에서, 파리, 뉴욕, 마지막으로 샌디에고로 이어지는데, 그곳에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8월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재지명될 예정이었다. 전세계적으로, 계획된 전세계적 평화공세를 시작한 베트남의 부활절 공세에 남베트남 게릴라부대의 무기고에서 처음으로 탱크가 등장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베트남군은 탱크를 분해하여 남부로 옮긴 다음 발각되지 않고 다시 조립했다. 전지구적 정치운동과 조정하여, 베트남의 저항세력은 동시에 쿠앙트리 수도로 하는 임시혁명정부의 구성을 발표했다. 미국의 대응은 파괴의 증가였다. 미군폭격 이후 쿠앙트리의 사진은 벽이 남아있는 건물이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그 당시 1945년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보다 더 많은 파괴력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베트남의 국토와 민중에게 가해진 끔찍한 야만행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승리하여 재통일했고, 오늘날 더욱 번영하고 있다. 2001년, 프랑스와 미국에 맞선 베트남군의 군사지도자인 보응우엔지압은 베트남이 미국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요약했다. 미국내 반전운동은 그의 목록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수년간, 베트남 지도자들은 미국의 운동이 자신들의 전장전술과 조정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할 때까지 미국의 운동을 지원했다.<sup>4)</sup> 하지만 전장의 승리는 곧 위로부터 무제한적 억압에 자리를 내줬다. 베트남이 WTO와 세계은행에 가입하자, 그들의 혁명적 이상은 경제적 번영의 제단 앞에 희생됐다. 그렇지만 경제적 번영은 여전히 베트남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힘든 목표이다.

국경을 넘어서 운동이 확산된 이 경우들은 상호 증폭과 시너지의 과정에 관련된 것으로, 미래의 동원에 중요한 선례이다. 1968년 이후의 시기에, 탈집중화된 국제적 조정을 위한 전지구적 운동이 역량이 발전하면서, 국제적 에로스 효과의 다섯 가지 상이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1. 1980년대 초반 군비축소 운동
2. 이 책에서 논의한 동아시아 봉기의 물결
3. 소비에트 체제에 반대한 동유럽의 반란들(1장을 보라)
4. 반세계화운동의 물결과 2003년 2월 10월의 반전동원

4) 우리 모두는 베트남에 커다란 빛을 지고 있다. 그들의 희생과 저항으로 민족독립의 이상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 전정에 대한 저항은 개인의 자유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1980년대 중앙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저지하는 데 기여했다. 한국전쟁 동안 미군의 학살에 대한 진실이 알려졌다면, 얼마나 많은 베트남인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까?

## 5. 2011년 아랍의 봄

1972년, 베트남인들이 전지구적 행동을 중앙에서 조율했지만, 어떤 단 하나의 조직도 보다 최근의 “의식적 자생성”의 물결을 책임질 수 없었다.

신좌파의 명백한 쇠퇴 이후, 미국과 소련이 냉전의 확산을 지속하자 대규모 평화운동이 촉발됐다. 양대 초강대국은 근거리 퍼싱과 SS-20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여, 소련과 미국이 서로 직접 공격하지 않으면서 “제한적” 핵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이 결정적 순간에, 시위는 급속히 확산되어, 동시적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많은 도시의 거리에 나섰다. 모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파리, 런던, 로마, 브뤼셀과 본의 거리에 나섰다. 1970년대 한중의 핵무장해제 시위대에서, 1980년대 초반 엄청난 평화운동이 세계사를 바꿨고, 냉전을 종식시키고 지구적 힘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1982년 6월 12일, 거의 1백만 명의 사람들이 핵없는 지구를 요구하기 위해 뉴욕에 집결했다. 그해 가을, 1,1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핵무기 동결에 투표했다. 이런 풀뿌리 동원으로 고르바초프는 독일의 침략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유럽 완충국가들에 대한 통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같은 시기에, 동아시아 봉기의 물결은 억압적 냉전정권들을 붕괴시키고 동유럽의 토착저항을 증폭시켰다.

냉전종식의 평화 배당이 실현되지 않고 전지구적 자본주의가 강화되자, 수백만명의 사람들은 “자연발생적으로” 거대기업과 WTO-IMF-WB 축에 도전하기로 선택했다. 어떤 중앙그룹이 민중동원의 초점을 결정하지 않아도, 민중 자신은 전지구적 자본주의체제를 투쟁의 초점으로 삼았다. 전세계적으로 전지구적 경제정의와 평화를 위한 풀뿌리운동은 1990년대 엘리트 정상회담에 대항했고, 세계 극빈국들의 부채 탕감과 WTO, IMF, WB의 폐지와 같은 요구를 제기했다. 수십 개국에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맞선 반란들이 일어났다. 1988년 베를린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지구적 금융엘리트들의 회의에 맞서자 세계의 은행가들은 계획보다 하루 일찍 회의를 마쳐야 했다. 기업지배를 강요하려는 시도에 맞선 거대한 거대한 대치가 카라카스(1989년)와 서울(1997년)에서 벌어졌다.

1998년과 1999년 “전지구적 카니발”에서 시작하여, 수십개국의 활동가들은 엘리트 모임에 항의하는 투쟁을 동기화했다. 1999년 WTO 회담을 중단시킨 시애틀의 신나는 승리는 팀스터와 거북이, 노동자와 생태주의자들, 레즈비언 어벤저와 사파티스타 부대가 모두 통일된 투쟁으로 수렴하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날 전세계적 투쟁의 조정으로 전세계의 수십 개 다른 도시에서도 투쟁이 벌어졌다.<sup>5)</sup> 시애틀 이후, 볼리비아 코차밤바(2000년)와 페루 아레키파(2002년) 같은 곳의 보통사람들도 공동체 천연자원의 사유화 시도에 맞서 투쟁해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 전세계적으로 엘리트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수만 명의 시위대가 투쟁했고, 다음과 같은 장소가 거기에 포함된다:

1. 워싱턴 DC의 세계은행 총회 (2000년 4월)
2. 타일랜드 치앙마이 아시아개발은행 총회 (2000년 5월)
3. 오스트레일리아 멜번의 세계경제포럼 (2000년 9월)
4. 프라하의 세계은행과 IMF 합동총회 (2000년 9월)
5.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2001년 1월)<sup>6)</sup>
6. 캐나다 퀘벡시의 아메리카 정상회담 (2001년 4월)
7. 스웨덴 예테보리의 유럽정상회담 (2001년 6월)
8. 이탈리아 제노바의 G-8 정상회담 (2001년 7월)

엘리트 지배에 민중적 반대의 결과, 세계 엘리트들은 사람들이 여행하기 힘든 외딴 곳에서,

5) See Mark Laskey, “The Globalization of Resistance,” in *Confronting Capitalism: Dispatches from a Global Movement*, eds. Eddie Yuen, Daniel Burton-Rose and George Katsiaficas (New York: Soft Skull Press, 2004).

6) 동시에 약 20,000명이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첫 번째 세계사회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모였다.

예를 들어 2001년 카타르의 WTO 각료회담 또는 2002년 로키산맥의 G-8 정상회담처럼, 회담을 진행해야 했다.

2001년 9월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알카에다의 공격은 이 풀뿌리 대안지구화의 고조를 상당히 약화시켰다. 그럼에도, 전지구적 운동은 미국이 이라크를 두 번째로 공격할 준비를 하던 2003년 2월 15일 새로운 수준의 동기성에 도달했다. 2002년 가을 피렌체의 유럽사회포럼에서 반전시위에 대한 호소가 제기됐다. 어떤 중앙조직도 없이 전세계에서 2월 15일 3천만명의 사람들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여 거리로 나섰다.<sup>7)</sup> 60개국 800개 도시에서 사람들이 풀뿌리로부터 전쟁에 반대하여 동원했다.<sup>8)</sup> 다마스쿠스에서 아테네까지, 서울에서 시드니, 뉴욕, 로마,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수백만명이 〈뉴욕타임스〉가 “제2의 수퍼파워”라고 이름붙인 전지구적 시민사회를 구성했다. 런던에서는 도시의 2,000년 역사상 최대시위에 140만 명이 거리로 나섰다.<sup>9)</sup>

평화에 대한 민중의 열망은 세계의 모든 곳에서 놀랍게 비슷했고, 이는 전쟁을 강요하고 기업이익을 요구하는 엘리트들에 비해 보통사람들의 지혜를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였다. 운동이 많은 방향을 취하면서, 연극단체들은 아리스토파네스의 반전연극 〈리시스트라타〉(Lysistrata)를 1천회 이상 무대에 올렸다. 2003년 3월 3일까지, 미국의 50개주 전체와 최소한 다른 59개국에서 1천회 이상의 공연을 기록했다. 1년 뒤인 2004년 3월 20일 중앙집중적으로 조직한 반전시위가 700개 이상의 도시에 벌어졌고, 참여자는 200만명으로 추산됐다.<sup>10)</sup>

비록 정상회담 대치와 동원이 전쟁을 끝내거나 하루밤 사이에 자본주의를 바꾸진 못했지만, 아랍의 봄과 미래 초국적 동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필리핀의 1986년 봉기, 1987년 한국의 6월항쟁, 1990년 네팔의 자나 안돌란, 1990년 태일랜드의 수친다 타도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는 시위가 벌어졌다. 선구적 동원은 민중과 조직을 훈련시켰고, 한걸음 한걸음 실천적 경험을 쌓았고, 대규모 봉기로 결정화하는 귀중한 교훈을 가르쳤다. 구타, 총격, 감옥은 단지 저항을 단련시켰을 뿐이다. 수백만 명의 민중은 어떻게 상승하는 대치가 경기장의 파도응원처럼 퍼져나가고, 직관적으로 다른 곳의 유사한 운동을 동원하며, 마침내 시위의 점증적 고양(crescedo)이 폭발해서 독재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는지를 배웠다.

봉기의 주기는 에로스 효과를 통해 상호관계 속에서 발전했다. 1968년의 전지구적 폭발에서 광주 이후 아시아의 봉기연쇄로, 1989년 동유럽에서 엘리트 정상회담에 맞선 대안지구화 대치까지, 보통사람들은 역사의 교훈을 얻었다. 아랍세계에서 민중반란의 물결은 보통시민들이 모든 곳에서 투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명시한다.

## 아랍의 봄

1986년에서 1992년까지 6년간, 아시아의 봉기들은 7명의 독재자를 타도했고, 공간적, 시간적 분산 때문에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채 넘어갔지만 엄청난 위업이었다. 아랍의 봄 동안, 아시아에서 몇 년간 걸렸던 운동의 분출은 몇주만에 일어났고, 모두가 알아차렸다. 견고한 엘리트들의 유혈저항 때문에 소수의 승리만 기록했지만, 격변은 이미 전지구적 반항을 불러일으켰다.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은 카이로에서 18일간의 영웅적 파플파워 봉기로 쟁취한 놀라운 승리인 “이집트혁명”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였다. 몇 달전만 해도, 호스니 무바라크가 이집트인들에 대한 파라오적 통치를 끝내야만 할 것이라는 예측은 우스꽝스러운 것 또는 희망사

7) See Barbara Saueremann, ed., *2/15: The Day the World Said NO to War* (Oakland: AK Press, 2003).

8) 이 투쟁들의 윤곽을 경험적으로 연구하고 보다 정확한 숫자와 최대의 영향을 미친 부분, 투쟁의 형태, 참여조직 등을 정교화하면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9) Joss Hands, “Civil Society, Cosmopolitics and the Net: The Legacy of February 15, 2003,”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9, no. 2 (April 2006): 225-243.

10) John Berg, “Waiting for Lefty: The State of the Peace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in *Tamkang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12, no. 4 (April 2009): 77-101.

향으로 간주됐을 것이다. 하지만 무바라크는 권좌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수천명의 사람들은 그가 부패혐의로 재판에 회부될 때까지 침묵을 지키길 거부했다. 무바라크가 시위대를 진압하라고 명령해서 질서의 세력이 살해한 846명에 대해 누가 처벌받을 것인가는 또다른 문제다.

수십년간 장악한 무바라크의 권력은 이웃 튀니지의 농촌 야채노점상 모하메드 부아지지의 자살로 촉발된 사건들의 연쇄반응으로 깨졌다. 튀니지에서 민중봉기는 견고한 장기독재자를 망명지로 쫓아냈다(그의 강력한 부인과 함께, 비행기에 실을 수 있을 만큼의 국부도). 부아지지와 알제리, 모리타니아, 이집트에서 최소한 다른 8명의 분신은 강력한 풀뿌리 대응을 불러일으켰고, 30년 이상 권력을 쥔 예멘 대통령 알리 압둘라 살레가 퇴임하기로 약속하도록 강제했다. 민중봉기의 물결이 몇주 안에 바레인, 팔레스타인, 시리아로 퍼지면서, 수백 명,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리비아에서 유럽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정권 반대파가 가다 피를 타도하려고 시도하면서 내전이 터졌다. 갑자기, 아랍 전역에서,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독재자들은 서둘러 예방 개혁을 시행했다.

민중의 풀뿌리 권력이 마침내 아랍세계에 도착하는 동안, 지역을 휩쓴 현상의 이해를 지역 주의적 역사로 한정하는 것은 최근 역사에 대한 오독일 뿐만 아니라, 운동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확실히 범아랍적 감성은 추동력이지만, 핵심적인 것은 아니다. 첫 눈에, 현재의 반란은 아랍세계에 국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민족적 경계를 넘어 에스파냐와 그리스의 “격앙파”(indignants)도 수용했다. 곧 그 영향은 가봉, 이란, 중국, 이스라엘에서도 분명했다. 생활수준 하락에 맞서 투쟁하던 위스콘신의 노동자들도 이집트 봉기에 대한 감탄을 표했다. 미국이 타흐리르 광장의 순간에 이르렀는지 질문하면서, 시위자들이 은행가들의 탐욕에 반격을 가하기 위해 월스트리트를 점거했다. 민중들은 뺏속에서 변화가 가능하다고 느낀다.

장기적 권위주의 정권의 지배를 갑자기 종식시킨 다른 피플파워 봉기의 최근 사례를 보면, 필자는 한국에서 연속 19일간 수십만 명의 민중들이 불법으로 거리에 나서 수만 명의 전투경찰과 맞서 전투를 벌였던 87년 6월항쟁의 유사성에 특히 놀란다. 6월 29일 마침내 군부독재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한 야당에 굴복했고, 26년 군부통치를 종식하게 된다. 2011년 2월 11일 이집트처럼, 1987년에는 다른 아닌 독재의 2인자가 있었다. 노태우는 진보적 경쟁후보의 쓰라린 분열과 광범한 투표조작으로 얼룩진 서거 이후 한국의 새 대통령이 됐다. 군부가 선거를 허용한 이후 민중의 높은 기대와 낙관은 쓰디쓴 실망으로 변했다.

한국의 민주화가 이집트에 가능한 교훈을 주는 것처럼, 1986년의 필리핀도 마찬가지다. “피플파워 혁명”이 장기독재자 페르난드 마르코스를 망명 보낸지 1년도 채 안되어, 코라손 아키노의 새 정부는 토지개혁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며 마닐라로 행진하던 무토지 농민 21명을 사살했다. 오늘날 필리핀은 점증하는 기아로 고통받으며, 3백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저체중, 저신장 상태다. 1973년 타일랜드의 학생들은 방콕의 거리에서 77명이 총격으로 사망한 이후 증오하던 군부독재를 타도했다. 타일랜드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시기였던 2년간을 보낸 후, 군부는 유혈쿠데타로 독재를 다시 강제했고 수십 명의 학생들을 살해했다. 1990년 네팔에서, 62명이 사망한 50일간의 민중시위로 입헌군주제를 쟁취했지만, 몇 년 안에 왕실은 다시 절대권력을 장악했다. 2006년 19일간의 피플파워 봉기가 군주제를 종식시켰지만, 질서의 세력이 21명 이상의 비무장 시민들을 죽인 다음에야 가능했다.

급속하고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화는 더욱 더 21세기에 삶의 진실이 되고 있다. 과거 50년간 하이테크 매체는 지구를 전역 없이 통일시켰고, 민중들은 정부를 전복한 동시적 민중투쟁의 힘을 인식하게 됐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공적 공간을 점거함으로써, 민중들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반란을 시작했다.

무바라크가 전복된 다음 주류언론의 보도가 주로 오바마와 이집트 군부통치자들의 책동을 다루는 반면, 진짜 이야기는 이집트인들이 독재명령의 수동적 수용자에서 변화를 위한 계기

의 능동적 창조자로 변화됐다는 점이다. 손으로 쓴 낙서가 벽에 적혀 있다. 카이로의 다중은 방콕의 붉은셔츠와 노란셔츠, 마르코스를 타도한 마닐라의 노락색종이의 교훈을 수용했다. 미국이 “진보”의 제단에 허수아비 독재자 한명을 희생시키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금 새로운 것은 피플파워가 아랍대중들에게 수용되었다는 사실이다. 1987년초 첫 번째 팔레스타인 인티파다(intifada)는 지역 민중들이 동원된 시민의 힘을 이해하도록 길을 닦았다.<sup>11)</sup> 시위의 물결이 지역에서 독재자들을 청소하든 말든, 활성화된 시민의 등장은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는가가 아니라, 권력 자체의 형태에 문제를 제기한다. 피플파워의 궁극적 목표는 민중적 형태의 의사결정의 제도화이며, 엘리트에게서 권력을 빼앗아 권력을 풀뿌리 형태도 재구성하는 것이다. 1980년 광주에 민중은 살인적 군대에 포위된 상태에서 아름답게 단결하여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스스로 통치했다. 운동의 이런 급진적 잠재력이 바로 오늘날 정치 엘리트들이 앞다투어, 체제변혁이 아니라 권력 최정상의 인물교체로 변화의 외관을 시행하는 이유이다.

카이로의 청년활동가들은 무바라크의 축출을 출발점으로 이해하지만, 그들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정의, 부자들에게 수치스럽게 수탈당한 민중의 부의 회복, 그리고 최근 거리에서 벌어진 846명 비무장 시민의 도살은 말할 것도 없이 수십 년간 고문과 독재의 책임자 처벌을 원한다. 이집트에서 누가 승리자로 등장할지 아직은 불분명하다. 평화로운 시위대가 주도권을 잡고 사회를 더 높은 수준의 민주화로 이끌지, 아니면 더 가능해 보이지만, 미국 정치인과 이집트 군인들이 계속 지배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도약을 위한 현재의 잠재력은 소실될 것이다.

아무도 중동에서 작동 중인 상황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없지만, 역사적 선택은 가능한 결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중동에서 살해된 시민들의 피는 1980년 광주에서 수백명의 열사처럼 자유의 나무에 물을 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희생은 미국은행과 전지구적 기업들이 “측근 자본주의”를 부유한 투자자들의 훨씬 더 수익성 높은 무대로 대체하는데 바뀌어 윤택유가 될 것인가? 의심의 여지없이 두 경우 가능하지만, 그들 간의 균형은 실제로 자유를 위한 투쟁에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에 달려있다. 아시아에서 봉기의 물결은 유례없는 경제팽창의 시기를 가속화했고, 이집트와 튀니지의 경제도 앞으로 수십 년간 상당히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다. 무바라크가 타도되기 전에, 이집트(인구 8천만 명)는 코스타리카(겨우 800,000명)보다 생산량이 적었다. 이미 새로운 기회가 하이테크와 통신에 열려 있어서 이집트의 미래는 훨씬 유망하다.

혁명과 민중봉기는 반드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더라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심지어 몇 세대 후에, 민중의 기억과 심리는 과거 투쟁의 물결로부터 교훈을 흡수한다. 1979년 이란인들의 용기, 샤와 군대에 의한 지독한 탄압의 저항은 전세계 민중에게 분명했고, 아이티인과 필리핀인들이 독재자를 타도하도록 영감을 줬다. 1987년, 필자는 이렇게 쓴 바 있다: “1968년 이후의 시기에 민중운동은 사회변혁의 수단으로써 공적 공간점거의 신좌파 전술을 내면화했으며, 이 전술의 국제적 확산은 샤, 뒤발리에와 마르코스의 몰락을 이끌어냈고, ... 에로스 효과의 중요성과 동기화된 세계사적 운동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아랍의 붉은 반란과 공적 공간 점거(1968년에 등장한 전술)의 동기성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부문에서 수용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지금 외견상 주변화된 오늘날의 전지구적 운동에는 우리 종의 역사적 진화에서 그 어느 시점보다 더 많은 활동가들이 관여하고 있다. 다중이 우리 자신의 동학을 활성화하면서, 우리가 미래로 투사하는 경향은 전지구적 에로스 효과의 활성화이며, 여기에서 전세계적으로 동시적 투쟁이 분출하여 국경, 나이, 성, 인종의 경계를

11) 팔레스타인 민중은 BDS(Boycott Divest Sanction: 보이코트 투자철회 제제)와 같은 단체들의 국제적 연대행동을 자극했다. BDS의 “조직된 자생성”은 이스라엘 상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에서 댄스시위를 벌이는 행동으로 많은 지지를 얻었다. See [http://www.youtube.com/watch?v=y6dO9eVOY2I&feature=player\\_embedded](http://www.youtube.com/watch?v=y6dO9eVOY2I&feature=player_embedded).

넘어 민중을 통일시킨다.

### 에로스 효과의 재검토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 자신의 힘과 전략적 역량에 대한 인류의 점증하는 인식은 수십만명의 민중에 의한 갑작스럽고 동시적인 권력투쟁으로 표출됐다. 민중운동의 무기고에서 중요한 새로운 전술인 에로스 효과는 단지 정신의 행위가 아니며, 단순히 “의식적 요소”(또는 혁명정당)의 의지대로 이뤄질 수 없다. 오히려 에로스 효과는 보통사람들이 역사를 자신의 손에 가져가면서 민중운동이 자기 자신의 권리에 맞는 세력으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에로스 효과의 개념은 자생성의 혁명적 가치를 구원하는 수단이자, 무의식적인 것의 재평가를 자극하는 방식이다.<sup>12)</sup> 감정을 반응에 연결된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에로스 효과의 개념은 감정을 긍정적인 혁명적 자원의 영역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하며, 그 자원의 동원은 중대한 사회변혁을 결과할 수 있다. 헤르베르트 마르크제가 이해하듯이, 내적, 인간본성을 포함하여 자연은 혁명과정에서 동맹자이다.

보수적 정치지향에도 불구하고, 칼 융도 본능이 우리의 반란적 행동을 필요하게 만드는 방식을 이해했다: “문화의 성장은 우리는 아는 바와 같이, 동물의 인간에 대한 점진적인 종속으로 이뤄져 있다. 그것은 자유를 갈구하는 동물본성 측의 반란 없이는 성취될 수 없는 가속화의 과정이다. 때때로 말하자면, 문화의 한계 내에 너무나 오랫동안 제한된 인간들의 대열을 통해 광기의 물결이 지나간다.”<sup>13)</sup> 융에게, 이 내적으로 필요한 변화의 동력은 유럽의 르네상스와 다른 형태의 문화적 표현에서 표출됐다. 특정한 조건 아래서 그것들은 사회적 분출을 생산할 수 있었다: “본능적 본성으로부터 분리는 불가피하게 문명화된 인간을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 정신과 자연, 지식과 신앙 간의 갈등, 인간의 의식이 더 이상 본능적 측면을 무시하거나 억압할 수 없는 순간이 병적으로 되는 분열에 몰아넣는다. 이 심각한 상태에 몰린 개인들의 축적은 대중운동을 촉발한다.”<sup>14)</sup>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무언가인 자유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필요는 에로스 효과를 통해 집단적으로 승화된다. 비록 현재의 합리적 선택론자들(사람들의 행동의 핵심적 동시로서 개인적 이익을 강조하는)은 공동체적 동기를 이해할 수 없지만, 심지어 미스터 X라는 가명으로 쓴 논설로 유명하게 냉전을 시작했던 조지 케넌도 1980년대 초반 반핵시위의 물결이 “순수한 생존에 대한 심오한 본능적 주장의 표현”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 운동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기본적이고, 자기보존의 자연스런 인간본능에 너무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가볍게 제쳐둘 수 없다.”<sup>15)</sup>

행동의 본능적 기초는 광주항쟁을 언급한 사회과학자 최정운도 발견했다. 1980년 발생한 상황을 잘 모르는 기성학자였던 최정운은 이후 직업적인 학문적 관심으로 봉기를 연구했다. 광범한 연구 이후에, 그는 광주시민들이 모두가 평등하고 사랑의 유대로 단결한 “절대적 공동체”를 결정화시켰다고 결론지었다. 최정운에게 “절대공동체는 숫자의 힘에 의존하는 비겁한 자들의 ‘폭도’가 아니었다. 절대공동체는 존엄성을 가진 전사들 간의 조우를 제공했다. 절대적 공동체는 오직 사랑으로 형성됐다.... 서양철학에서 이성만은 고립된 개인에게서 나온다. 그러나 광주항쟁은 이성이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인식하는 인간들에 의해 성취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성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역량이었다.”<sup>16)</sup>

최정운은 광주에서 발견한 연대에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믿게 됐다: “가장

12) For an earlier theoretical formulation, see my 1989 paper at <http://eroseffect.com/articles/eroseffectpaper.PDF>.

13) Carl Jung, “The Eros Theory,” in *Collected Works*, , vol. 7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6), 19.

14) Carl Jung, *The Undiscovered Self* (New York: Signet, 2006), 79.

15) George Kennan, “On Nuclear War,”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January 21, 1982 as quoted in Marc Nerfin, “Neither Prince Nor Merchant: Citizen—An Introduction to the Third System,” *Development Dialogue* (1987), 175.

16) Choi, *Gwangju Uprising*, 134.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는 역사와 문화를 초월하여 여행하며, 인류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하여 알려지지 않은 미래로 계속된다... 이 원초적 본능을 가리키는 용어는 남한의 편협한 정치적 담론과 이론 영역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20세기 후반 군중행동의 경험적 역사는 광주에서 가장 분명하게 군중의 고정된 범주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며, 이 고정된 범주는 광주 민중들이 열정적으로 지성적이고 사랑하는 때에도 그들을 감정적으로 열등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에로스 효과는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전술이자 분석적 개념인가? 대규모로 공적 공간을 점거하는 민중들의 갑작스런 등장, 한 도시에 다른 도시로, 전국적으로 반란의 확산, 수십만 명의 직관적인 상호동일화와 자신들의 행동의 힘에 대한 동시적 믿음, 지역주의, 경쟁적 기업 관행, 범죄행위, 탐욕과 같은 정상적 가치의 중지 등 이 모든 차원의 에로스 효과는 광주에 존재했다.

전세계적으로 풀뿌리 운동들을 관통하는 연결고리는 아주 다른 투쟁처럼 보이는 수많은 경향들 속에 직관적으로 한데 엉겨있다. 1970년대 이탈리아 아우토노미아를 구성한 수십 개의 자율적 그룹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룹인 이탈리아의 대도시 인디언(Metropolitan Indians)은 미국의 아주 유사한 개념을 채택했다. 그들 이전에 이피(Yippies)와 검은표범당, 네덜란드의 프로보(Provos)와 크리스티아나섬의 코뮌나르드 등.<sup>17)</sup> 어떤 조직적 통신수단도 이들 세 투쟁의 공동체를 연결하지 않았고, 오히려 직관과 상식으로 동일한 결론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흘렀다.

에로스 효과가 활성화되면, 서로에 대한 인간의 사랑과 연대는 갑자기 과거에 지배적인 가치와 규범을 대체한다. 경쟁이 협력에, 서열제가 평등에, 권력이 진실에 자리를 내준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전쟁 동안, 수많은 미국인들의 애국주의는 베트남 민중과의 연대에 압도됐고, 인종주의 대신에 많은 백인 미국인들이 베트남인들의 삶이 미국인들의 삶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대되는 취지의 지속적인 언론공세를 무시하면서). 그 당시 많은 여론조사에 의하면, 베트남 지도자 호치민이 미국 대학캠퍼스에서 닉슨 대통령보다 더 인기 있었다. 에로스 효과의 순간은 투쟁하는 수백만 명의 운동의 열망과 비전을 드러내며, 지도자나, 조직, 정당의 성명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차원이다.

투쟁의 순환이란 맑스주의적 개념과 확산의 개념은 투쟁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치있다. 새뮤얼 헌팅턴이 “눈덩이”(snowballing)이라고 불렀던 확산개념은 하나가 어떻게 다른 것을 낳고 또 다른 것을 낳는지 추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이론도 에로스 효과의 순간에 일어나는 투쟁의 동시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단순한 연쇄반응도 아니고, A가 B를 낳고 다시 C를 낳는 것도 아니다. 여러 지점에서 사건들이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상호적으로 증폭한다. 사건들은 다중적 반복으로 피드백 고리를 생산한다. 수학적 분석용어로 표현하자면, 투쟁의 확산과 순환이 운동발전을 기하학적으로 묘사하는 반면, 에로스 효과는 동일한 발전을 미적분의 용어로 묘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새뮤얼 헌팅턴은 “눈덩이” 개념을 단시간에 수많은 운동의 등장에 대한 설명적 비유로서 사용했다.<sup>18)</sup> 눈덩이는 1950년대 미국의 반공주의를 인도했던 “도미노 이론”의 포스트모던 버전이다. 반란의 단일한 기원점이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 그의 개념은 자유투쟁의 동시적 출현에 대한 놀라운 기쁨이 아니라, 자신이 적에게 포위된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통제의 중심에 대한 편집증적 분노를 표현했다. 워싱턴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연루된 헌팅턴은 다중심적 풀뿌리 운동의 등장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외부자로서 이 사건들을 목격한 그는 믿었다: “그들 사이에 어떤 경제적 연관이 존재하든, 아시아와 미국 사회 간의 근본적인 문화적 차이는 그들이 공동의 집에서 함께 하는 것을 배제한다.”<sup>19)</sup>

17) See Mary Anne Staniszewski, Dara Greenwald, and Josh MacPhee, eds., *Signs of Change* (Oakland: AK Press, 2010).

18) Huntington, *Third Wave*, 46.



헌팅턴이 눈덩이라고 부른 것은 다른 사람들, 심지어 바버라 엡스타인 “사회운동 산업”(social movement industry)의 경우처럼 진보적 지식인들에 의해 시위효과, 확산, 모방, 도미노 효과, 전염 등의 용어로 묘사됐다. 명칭의 숫자만으로 이 현상이 최근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음을 암시한다. “전염” 같은 병리적 명칭과 “확산” 및 “시위효과”같은 덜 경멸적 용어에 내재된 가치의 차이를 별도로 하면, 이 개념들은 모두 단일한 외적 기원점을 가정한다. 이 개념중 어떤 것도 상이한 민족들 사이에서, 심지어 문화를 초월하여 반란의 동시적 출현을 이해하지 못한다. 한 사건의 다른 사건에 대한 영향이 의문의 여지없이 실질적인 반면, 운동을 외적으로 귀납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마치 불링공의 충돌처럼, 내적 논리와 의미에 대해 뭔가 핵심적인 것을 놓치는 것이다. 반란의 동시적 등장과 상호증폭은 대안적 이해이며, “에로스 효과”의 개념에 기반한 이해이다. 단순한 시위의 비인과적 과정이라기보다, 에로스 효과는 운동 에너지의 다중심적, 사실 탈중심적 원천을 이해하는 방식을 제공한다. 헌팅턴에게 동시성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그는 미리 그것을 배제한다.<sup>20)</sup> 헌팅턴의 이론과 법집행관의 차이는 크지 않다. 미국의 시민권운동이 1960년대 가속화되자, 보안관과 경찰은 자기 도시의 문제에 대해 마틴 루터 킹이나 맬컴 X를 비난했고, 대학 행정관료들은 자주 “외부 선동가들”이 대학시위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에서 일련의 투쟁으로부터, 활동가들은 에로스 효과와 아주 비슷한 개념을 발전시켰다. “혁명운동은 최초의 불꽃 이후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가는 선형적 과정인 전염병이나 산불과 같지 않다. 차라리 음악의 형태를 취하며, 그 핵심 지점은 시간과 공간에서 퍼져나가지만, 자신의 변주의 리듬을 강제하며, 항상 더 높은 밀도를 취한다.”<sup>21)</sup> 많은 곳에서 풀뿌리 활동은 “과학적” 이해를 무시한 동시성과 자율성을 가진 이 동일한 현상의 “발견”을 가능하게 했다.

소셜 미디어 오래 전에, 동시적인 전술적 혁신이 상이한 곳에서 일어났다. 단 하나의 예를 들면, 1970년 5월 미국이 캄보디아를 침공하고 자기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죽이자, 전국의 활동가들이 동시적으로 고속도로를 봉쇄했다. 사람들에게 행동을 지시한 어떤 중심적 조직도 없었다. 사람들이 고속도로의 흐름을 방해한 것은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매일 수백 명의 목숨을 파괴하는 사회를 멈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직접적인 통신선 없이도, 서해안의 활동가들이 5번 국도를 막는 동안, 동시에 다른 지역의 활동가들도 근처 도로에서 교통을 막았다. 전술은 확산의 과정을 통해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선을 그리며 움직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전술적 혁신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칼 융에게 동시성은 아주 추상적이고 “표현불가능”해서 그는 심리가 두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22)</sup> 그 대신 원형(archetype)을 통해 그는 무의식적 충동이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해했다. 그런 본능적 충동은 무의식의 깊은 층, 융이 “계통발생적 하위층”이라고 부른 것에 기원을 둔다.<sup>23)</sup> 본능적 충동은 먼 과거로부터, 즉 인류존재의 여명에 공동체주의 세계(“원시적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것)로부터 우리의 알려지지 않은 삶을 의식으로 귀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융에게, “먼 의식적 과거로부터의 기억 외에도, 완전히 새로운 사고와 창조적 관념도 무의식으로부터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결코 전에 의식하지 못했던 생각과 관념을 드러낸다. 충동은 마음의 검은 심연으로부터 망우수(忘憂樹: Lotus)처럼 자라나서 잠재심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sup>24)</sup> 무의식은 합리적이

19) Samuel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London: Simon and Schuster, 1996), 307.

20) Huntington, *Third Wave*, 33.

21) The Invisible Committee, *The Coming Insurrection*, <http://www.bloom0101.org/thecominginsurrection.pdf>, 6.

22) Carl Jung, *Synchronicity: An Acausal Connecting Principl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89.

23) Carl Jung,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286.

24) Carl Jung, “Approaching the Unconscious,” in *Man and His Symbols* (New York: Dell, 1968), 25.

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합리적 사고보다 더 합리적이다. “합리적” 산업화로 야기된 무자비한 자연파괴에 대해 모든 사람이 느끼는 직관적 혐오감을 생각해 보라.<sup>25)</sup>

무의식이 자극되면 그것은 의식을 향해 흐르고, 이 심리적 과정은 필자가 에로스 효과라고 이해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sup>26)</sup> 융은 “영혼 속에 내재”하면서, 특히 “과도한 사랑 또는 증오”의 순간에 사물을 변화시킬 힘을 갖는 무언가를 언급한다.<sup>27)</sup> 사랑이란 융에게 모든 형태의 에로스이지 단순히 섹스가 아님을 지적해야 한다. 융에 의하면, 프로이트는 일차원에 따라 우리의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내적 에로틱한 필연을 이해하려고 시도했다. 프로이트는 “섹스라는 거친 용어 내에서 제한될 수 없는 에로스를 움켜쥐려고” 시도했다.<sup>28)</sup> 삶-세계의 상품화의 역전이 지배적인 우리 시대에, 섹스로서 물화의 절정에 이른 에로스를 다시 주장할 수 있는가? 마르쿠제에게, 정치적 에로스는 “가장 승화된 형태의 아름다움”이었다.<sup>29)</sup> 에로스 효과는 본능의 저수지, 집단적 무의식에서 나오며, 본능적 충동이 연대와 사랑의 에로틱한 채널로 승화된 형태이다.

에로스 효과는 직관에 의존하며, 그 동시성을 사회적 통제중심(경찰)이 침투할 수 없도록 하는 양화 불가능한 질이며,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불가능하다. 융에게, 동시적 현상은 마술과 비슷하며 통계적으로 검증불가능하다.<sup>30)</sup> “유의미한 우연의 일치”는 이성적 인식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을 회상하는 것은 미래의 재현을 위한 기반을 준비하는 것이다. 마치 꿈의 기록이 꿈에 대한 기억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에로스 효과의 경우를 상기하는 것도 미래의 사건을 위한 기반을 준비한다. 융에게 혁명적 정신은 감각적 인식의 영역 밖에서 일어난다. “정신의 특징은 첫째, 자연발생적 운동과 활동의 특징이다. 둘째, 감각인식과 독자적으로 이미지를 생산할 자연발생적 능력이며, 셋째, 이 이미지의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조작이다.”<sup>31)</sup>

에로스 효과의 순간에 시간과 공간이 급격하게 변화하면, 선형적 인식을 가정하는 성명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에로스 효과의 원인은 학술적 사회과학의 틀 내에서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융이 그런 순간을 묘사하듯이, “나는 세계와 완전히 하나가 되고, 너무나도 그 부분이 되어서 실제로 내가 누군지 완전히 잊어버릴 것이다. ‘자신을 잃어버리다’는 이 상태를 묘사하는 좋은 방식이다. 그러나 단지 의식이 볼 수만 있다면 이 자아는 세계이다.”<sup>32)</sup> 시간은 무의식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무의식은 우리가 왜 반란의 폭발이 동일성(identity)을 통과하는지 이해하도록 도울 수도 있다. “세계와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유대를 맺는 것을 의미하며, 카에타노 모스카가 “도덕적, 때로는 육체적 갈등”에 깔려있는 “무리지움”에 대한 인간의 “본능”으로 인식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다.<sup>33)</sup> 어떤 집중화된 통제력을 갖지 않지만 국부적 상황에 적절한 반응을 하는 그런 똑똑한 집단적 행위는 이미 순록, 새, 벌, 개미 등에 존재한다. 벌떼 이론은 1999년 시애틀 시위를 이해하는 적절한 수단인 것 같다. 그 당시 휴대전화, 문자, 인터넷, 사람들의 상식이 “물고기 떼처럼” 모였다가 흩어지고 다시 모이는 “똑똑한 폭도”(smart mobs)를 창출했다.<sup>34)</sup>

25) Teodros Kiros considers a “rationality of the heart” an antidote to contemporary civilization’s misuse of reason. See *Zara Jacob: Rationality of the Human Heart* (Trenton, NJ: Red Sea Press, 2005).

26) Jung, *Synchronicity*, 30.

27) Jung, *Synchronicity*, 32. 융이 지적한 것처럼, 이 개념은 원래 아비체나(Avicenna)의 것이다. 3백년 후에 이븐 할둔은 유사하게 이성적 사고의 영역 외부에 존재하는 인식형태를 논했다. See my essay, “Ibn Khaldun: A Dialectical Philosopher for the New Millennium,” in *African Philosophy: Critical Interventions*, ed. Teodros Kiros (New York: Routledge, 2000).

28) Jung, “Eros Theory,” 28.

29) Herbert Marcuse, *The Aesthetic Dimension: A Critique of Marxist Aesthetics* (Boston: Beacon Press, 1978), 64.

30) See Jung, *Synchronicity*, 95, 103, 106-7.

31) Jung, *Archetypes*, 212.

32) *Ibid.*, 22.

33) Gaetano Mosca as quoted in Mancur Olson,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17.

34) For more on swarm theory, see Peter Miller, “Swarm Theory: Ants, Bees and Birds Teach Us How to Cope With a

이후의 장에서 필자는 주류 사회과학이 아시아 봉기의 폭발에 대해 만족스런 설명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다. 필자는 그들의 어떤 설명변수도 보편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중산층 문턱, J커브, 종교적 유사성, 탄압지수 등). 오히려 봉기의 동시성과 서로에 대한 관계가 보다 중요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어떤 주류적 설명도 아랍의 봄과 같은 일을 예상하지 못한 반면, 가속화되는 동시적 봉기의 시기에 대한 에로스 효과의 정식화는 예상할 수 있다. 권위주의적 조직모델에 기반한 정치적 지도력이 자유를 사랑하는 운동들 사이에서 쇠퇴한 반면, 봉기의 모범과 동기성의 힘은 점차 강력해진다. 특히 봉기의 주도자들이 다수에게 모든 것을 제공할 능력을 가진 세계의 가장 가난한 주민들 사이에서 나올 때 그렇다.

### 에로스 효과의 활성화

미래의 전지구적 고양은 2차대전 이래 확장되는 민중의 운동참여와 국제적 동기성을 보여줄 것이다. 다음 세대의 시위는 치아파스, 카라카스, 광주, 베를린, 시애틀, 2003년 2월 15일과 아랍의 봄까지 이어진 궤적을 따라 폭포와 같이 연속적인 전지구적 공명으로 이 다른 물결들을 넘어설 것이다. 세계체제의 전지구적 경향이 수백만 민중의 일상생활에 그 충격을 강화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조정된 반대는 더욱더 필요하게 된다. 에로스 효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수천 명, 그 다음에 수백만 명의 민중이 행동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일상적 패턴을 부정하고 뿌리깊은 패턴을 부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비록 촉발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단지 작은 집단의 의지로 작동되지 않는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전지구적 운동은 지역의 문화를 뚫고 민중의 자유에 대한 지구적 제한에 대치하는 장기적 민중봉기를 향해 건설되고 있다. 공격대상이 결정되면, 과녁의 정중앙에 도달한다: 인류의 집단적 재산을 탐욕스럽게 비축하는 백명의 억만장자들, 훨씬 더 적은 숫자의 전지구적 거대은행과 기업,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군사화된 민족국가들.

최근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필자는 어떻게 에로스 효과가 의식적 결정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본다. 1999년 여름 사파티스타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여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호소하자, 여러 도시의 활동가들이 반응했다. 정글에서 열린 사파티스타 만남(encuentro: 활동가들의 국제적 모임)이 국제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을 호소한 뒤, 런던은 최소한 10년간 최대의 폭동을 경험했다. 처음에 그런 만남(encuentro)에서 제안되어 1999년 2월 전지구적 민중행동(People's Global Action: PGA)가 결성되었고, 연대와 저항 국제행진단(International Caravan of Solidarity and Resistance)을 조직하여 36회의 직접행동을 주도했고, 버밍엄 G-8회담과 제네바의 WTO 총회에 대한 대규모 투쟁에서 그 정점에 이르렀다.<sup>35)</sup> PGA의 창립선언문은 가부장제와 인종주의를 포함한 모든 지배체제와 자본주의의 명확한 거부를 호소했고, 자율적 그룹으로 조직된 대치적 직접행동을 옹호했다.<sup>36)</sup> 몇 달 뒤, PGA는 두 번째 "저항의 행진단"을 모아서 43개국에서 행동했다(한 런던투쟁을 포함하여). 유럽에서 그들은 거리를 탈환하라(Reclaim the Streets), 자본주의에 대항한 카니발(Carnival Against Capitalism), 유럽메이데이(EuroMayday) 등과 같은 행동을 촉발하는 데 기여했다. 전지구적 투쟁달력의 세 번째 저항의 날은 N30에 정점에 올랐고, 지금은 신화화된 시위로 가장 유명한 시애틀의 WTO 반대투쟁이었다.<sup>37)</sup>

Complex World," *National Geographic*, July 2007, 146.

35) See Amory Starr's inspiring book, *Global Revolt: A Guide to the Movements Against Globalization* (London: Zed Press, 2005), 26-7. 최소한 한 가지 결정적 차원에서 활동가들은 60년대보다 더 앞선 것으로 보인다. 이데올로기적 차이로 인한 종파주의적 분란은 명백히 존재하지 않다는 점이다.k 활동가들 자신이 진정한 믿음의 위협에 더 적절히 대응했고, 그 결과 자율적 조직화가 가능했다.

36) For an earlier Zapatista version, see Markus S. Schulz, "Collective action across borders," *Sociological Perspectives* 41 (Fall 1998) 3.

37) See Yuen, et al., *Confronting Capitalism*.

이런 사례는 멕시코의 사파티스타들이 지구상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조정을 제공하려면 전위정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투쟁은 다른 방식으로 증명됐다. 다중은 자신의 지성, 삶-힘의 지성, 마음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 에로스 효과는 데카르트적 이중성의 지성이 아니라, 특별한 이성의 순간이다. 어떻게 빈약한 무기로 무장하고 주로 가난한 아메리카 원주민 게릴라 3,000명이 멕시코시티, 뉴욕, 런던, 파리, 토론토, 마드리드, 밀라노, 시드에서 사람들을 지지를 얻을 수 있었는가? 완전한 통제와 지배, 원주민 문화와 지역자치의 파괴에 대한 기업의 전지구적 추구는 치아파스 민중의 존엄성을 위한 사파티스타 운동에서 가장 분명한 부정을 발견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되는 1994년 1월 1일 시작한 사파티스타 봉기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체제적 불의에 대한 풀뿌리 행동의 전세계적 집중점이 됐다. 이런 국제적 동원의 방법이 성공하기 위해 호소를 주도한 그룹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사회적으로 정당한 지도부여야 하고, 광범한 헤게모니적 권위를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사파티스타 외에도, 광주는 더욱더 그런 국제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포퓰리즘 전함처럼, 광주의 투쟁은 다시 한번 봉기의 시대를 알릴지도 모르며, 이는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무도 튀니지 작은 마을에서 야채 노점상의 자살이 아랍의 봄을 촉발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심지어 모하메드 부아지지 자신도 그의 외로운 절망과 분노의 행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지도자 없는 정세가 자주 에로스 효과를 낳는 것처럼 보인다.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에로스 효과를 작동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다. 우리는 자신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우리는 단지 계속 사랑에 빠져 있을까? 만약 에로스 효과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된다면, 우리는 전사(prehistory)의 영역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자신이 살기 원하는 유형의 사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제12장: 코뮌 - 자유의 현상학적 형태

“혁명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의회 공화국은 탄압조치와 함께 자원과 정부권력의 집중화를 강화해야 할 처지에 있음을 알게 됐다. 모든 혁명은 이 기구를 분쇄하는 대신에 그것을 완성했다.”

- 칼 맑스

“지방자치 평의회란 부르주아적 이상에 무심한 인민대중들은 코뮌에 기울었다.... 왜 그들이 심지어 선택적이지만, 실질적 자유도 없고, 국가에 속박된 평의회, 학교와 병원의 행정에 대한 권위, 정의와 경찰도 없고, 동료 시민들의 사회적 노예화와 다투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평의회에 관심을 갖겠는가?”

- 리사가라이

봉기 동안, 투쟁하는 민중들은 자유로운 사회를 예시하는 새로운 조직적 투쟁형태를 창출한다. 자연발생적으로 창출된 조직과 임기응변적 공간접수는 1973년 방콕의 탐마삿대학, 1980년 해방광주, 1989년 티아난먼 광장, 1990년 파탄(네팔), 1990년 타이페이의 장카이셴 광장에서 여러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로 이어졌다. 1968년 5월사태 동안 파리의 해방된 소르본의 기능처럼, 그런 일시적 자율적 공간이 시민사회가 정치를 집어삼키고 국가를 대체하는 순간에 협의 민주주의를 제공한다. 그 공간 안에서 모두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며, 정당, 노조, 하층민집단, 집단, 개인들은 모두 압박한 변화의 냄새를 맡고 마침내 시간이 왔다고 느낀다. 코뮌의 형태는 이 모든 관심의 혁명적 우산이지, 소비에트 공산주의자들이 인민의 의지를 대신한 것처럼 지도적 정당(아무리 올바르더라도)의 획일적 강제가 아니다.

위기의 순간에, 해방공간은 운동이 계속될지, 아니면 질서의 세력이 평온을 회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일 수 있다. 에로스 효과가 활성화되는 순간에, 그런 공간은 민중의 의지를 정식화하고 실행하는 데 열쇠가 된다. 그 공간은 운동이 계속적으로 비전과 전술을 개발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장이다. 무바라크 전복 이후 몇 달 만에 이집트 운동의 타흐리르 복귀가 보여주듯이, 공적 공간의 지속적 점거는 하층집단의 대항담론을 재활성화하고 체제의 포섭세력에 도전할 수 있다. 운동이 승리하면, 이 해방공간은 코뮌, 자유의 현상적 형태를 낳는다. 코뮌은 지배 엘리트들 간의 의례화된 선거가 제공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환상을 깨부수는 형태의 자유이다.

정부들은 심지어 평온한 순간에도 해방된 공간이 제기하는 위협을 인식한다. 1968년 이래 봉기는 상품체제의 주변에서 반문화적 공간이 제공한 피난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치아파스에서 크리스티아나, 와하카에서 광주까지, 브릭스턴에서 크로이츠베르크까지 많은 사람들은 주류적 장소보다 상당히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공적 공간의 해방이 세운 모범은 전복적이며, 사람들이 모이는 즉각적인 장소를 훨씬 넘어 외부로 영향을 미친다. 자유로운 공간에서 사람들은 아무리 일시적이라도, 때로 압도적으로 끊임없는 현금연결과 도구적 관계의 강제로부터 단절을 경험할 수 있다. 비록 주변화되고 외적으로 하찮고 심지어 희극적으로 보일지라도, 봉기의 최고조가 쇠퇴한 이후 잔재로 남은 고립지(enclave)인 이 해방 공간은 민중들이 자기 삶의 비전을 새로운 용어로 그려낼 역량을 믿을 수 없이 중요하게 촉진한다. 민중들이 실질적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모든 공간, 여성의 자율성, 청소년의 심리적 독립성, 하층집단의 역능감이 충만한 모든 공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이 공간의 전복적 효과는 왜 크리스티아나가 지속적인 경찰침입의 위협을 당했고, 왜 수십년간 코펜하겐 운동의 중심이었던 우뚝슈세트가 2007년 3월 1일 폭력적으로 철거됐는지 설

명하지 않는가?

중요한 문제의 자유로운 협의는 시간의 새벽 이래 인간의 조건을 정의했고, 현대문명이 아무리 민중의 자율과 선택을 제한하더라도 계속 그럴 것이다. 아테네의 폴리스에서 미국의 마을회의까지, 활성화된 시민들의 민주적 협의의 형태는 번성했다. 사람들은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했다. 19세기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시민들의 지역회의는 자유국가의 힘을 구성한다. 마을모임과 자유의 관계는 초등 학교와 과학의 관계와 같다. 마을 모임은 자유를 인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그의 견해로, 미국 민주주의의 지주는 “마을에서 대표체제가 채택되지 않고.... 유권자 기구가 치안판사를 지명한 다음 국가의 단순한 보통 집행문제를 넘어서는 모든 것에서 그들에게 지시를 내린다”는 점이다.<sup>1)</sup>

1957년 보다 최근의 경험에 기초하여, 코르넬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는 헝가리 노동자평의회 의 협의적 의사결정을 민주적 협의의 모델로 평가했다. 카스토리아디스는 정치인들이 공적 영역을 독점화하는 반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한 적절한 공간은 “각 특정 기업의 노동자 평의회와 총회이며, 의견의 대립과 정보에 기반한 정치적 의견의 정교화가 가능한 중요한 집단적 배경이며, 이 기관들이 모든 정치적 결정의 궁극적인 주권적 권위가 될 것”이라고 인식했다.<sup>2)</sup> 미국의 급진적 운동 내에서, 두가지 분리된 경향의 급진 민주주의적 사상이 바로 유사한 결론에 이르렀다. “혁명적 범공동체주의”를 옹호한 검은표범당 지도자 휴이 뉴튼(Huey Newton)과 “지방자치 사회주의”를 제안하고 정치적 형태의 자유를 직접민주주의와 지역통제로 정의한 무정부주의자 머레이 북친(Murray Bookchin)이 그들이다.

지난 2천년간, 유럽과 아시아의 정부들은 자유롭고 공동으로 소유되는 광장을 통제해 왔다. 강과 토지에서 친밀한 관계까지, 정부는 우리 일상생활을 허가하고 통제하게 됐고, “완전한 범위의 통제”를 수립했다. 문화적 식민화는 합의와 직접 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연스런 민주적 형태를 파괴했고, 투표는 “민주주의”라는 규정 아래 민주주의를 포섭하여 민중의 통제력을 약화시켰다. 투표의 물신화는 추상적 개인의 삶-세계에서 상품형태를 반영한다. 투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충족하는 반면, 감수성은 소비주의로 격화되고 에로스는 섹스로 축소된다. 이 삶세계를 역전시켜, 일상적 권력관계의 상투적 수용을 파괴하려면 비상한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21세기에, 소셜미디어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의사소통, 전에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규모의 직접민주주의적 협치를 위한 훨씬 더 많은 역량을 준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독립적 주체는 다양한 주체의 복수성으로 대체되었다. 오늘 구글 독스에 문서를 작성할 역량은 내일 새로운 형태의 합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데카르트 이래 서양의 정치적 존재를 특징지은 주체-객체 이중성의 철학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은 통일된 주체-객체로서 민중의 출현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 내에서 “집단지성”이 위키피디아 같은 창조물에서 새로운 세력이 되자, 마치 음과 양의 이음매없는 태피스트리가 작동하는 것처럼, 정보의 생산자는 동시에 소비자이며 그 역도 성립한다. 웹 2.0은 인류에게 “생산을 조직하는 새로운 양식”의 기회를 준다. “급진적으로 탈집중화되고, 협력적이고 비소유적이며, 시장의 신호나 경영진의 명령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려는 광범하게 분포되고 느슨하게 연결된 개인들 사이에서 자원과 생산물의 공유에 기초한 양식.”<sup>3)</sup>

1871년 파리코뮌과 1980년 광주봉기 동안 살아난 과거의 두 코뮌은 구체적 경험에서 민중의 직접적 정치참여의 역량과 필요를 드러낸다. 이 역사적 경험 동안 코뮌적 형태의 자유는 정

1)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vol. 1 (New York: Colonial Press, 1899), 60-61.  
2) Cornelius Castoriadis, *Political and Social Writings 1955-1960: From the Workers' Struggle Against Bureaucracy to Revolution in the Age of Modern Capitalis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8), 140.  
3) Yochai Benkler, *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6), 60.

치의 미래를 투영할 낙관적 근거를 제공한다.

#### 파리코뮌에서 광주민중봉기로

현대 세계사의 두 사건이 수십만 명의 보통사람들이 스스로 통치할 자생적 역량의 독특한 햇불로서 두드러진다. 1871년의 파리코뮌과 1980년의 광주 민중봉기. 두 도시에 자기 정부에 반대하는 비무장 시민은 “법과 질서”를 재확립하려고 시도하는 잘 무장한 군사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도시공간에 대한 통제를 효과적으로 획득했다. 수십만 명의 민중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통적 정부형태를 대체한 민중적 정치권력기관을 창출했고, 해방의 시기 동안 범죄율은 급락했고, 민중은 서로 새로운 형태의 동류의식을 느꼈다.

두 사건이 수렴하는 놀라운 방식이 존재한다. 이 해방된 영역에서 수많은 유사한 동력이 발생했다:

1. 민주적 의사결정의 민중적 기관의 자연발생적 등장
2. 아래로부터 무장저항의 등장
3. 도시에서 범죄행위의 감소
4. 시민 사이에서 진정한 연대와 협력의 존재
5. 계급, 권력, 지위의 위계제 중지
6. 참여자 사이에서 내부분열의 등장

파리코뮌처럼, 광주의 역사적 의의는 국제적이다. 그 교훈은 동과서, 남과 북에 똑같이 적용된다. 1980년 민중봉기는 이전의 혁명적 순간처럼, 계속 국제적 반향을 유지한다. 투쟁의 상징으로서 광주는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계속 영감을 준다. 보통사람들이 권력을 자신의 손으로 가져간 사례로서 이후 동아시아에 이전 사건들의 선구였다. 1996년 홍콩의 아시아 인권위원회 활동가 산지와 리야나지는 봉기의 이런 차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민중의 권력”은 너무 강력해서 폭력적 억압수단으로 파괴할 수 없다. 민중에서 나오는 그런 권력은 여러 세대에 지속될 정신을 퍼뜨린다. 광주는 ‘피플파워’로 가득 찬 도시이다.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것은 단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다. 광주는 여전히 잔인하게 야만적인 정권과 군사정부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빛과 희망을 주었다.... 광주 민중들이 선동적 투쟁을 수행하려는 힘과 의지는 아주 인상적이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이 성취한 것에 대해 찬사를 바친다... 나는 그들의 용기와 정신에 영감을 받았다. 광주는 억압되지 않는 민중권력을 상징하는 특별한 징표로 남아있다. 그 징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길이다.”<sup>4)</sup>

이 봉기들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유산은 인간존엄의 확인과 자유로운 사회의 예시이다. 파리코뮌처럼, 광주의 민중은 이길 수 없는 세력에 맞서 자생적으로 펼쳐 일어났다. 파리 봉기의 오랜 전통처럼, 광주의 민중은 되풀이 하여 최근 1894년 농민전쟁과 1929년 학생반란과 1980년 봉기까지 한국에서 혁명의 도래를 알렸다.

두 봉기는 불의에 대한 불만의 축적으로 만들어져 극단적 사건들로 촉발됐다. 파리코뮌은 승리한 프로이센인들이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의 말에 프랑스 수도를 장악하려 이동하자 1871년 발생했다. 프로이센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완전한 굴복은 파리인들을 격노케 했고, 3월 18일 파리의 국민군(National Guard)이 상대적으로 무혈 쿠데타로 도시 통제권을 장악했다. 자신의 정부가 공격했음에도, 코뮌나르드들은 프로이센 정복자들이 무장시켜 지원한 프랑스 군대에 맞서 70일간 버텼다. 코뮌나르드들은 국방을 조율하고 파리인들의 일상적 필요를 충족시킨 기능적 정부를 수립했다. 두 번의 선거가 열렸고, 선택된 대표들은 강력하게 민주적 방식으로 해방된 도시를 통치하려고 노력했다. 마침내 5월 28일 압도적 군사력이 봉기를 분쇄했고, 시가전의 “피의 1주일”에 수천 명이 살해당했다.

4) Sanjeewa Liyanage, “Gwangju, The Flame of People’s Power,” *International Youth Net* 1 (1996): 29.

1세기 이후 광주의 민중봉기는 군대의 화력이 몇 배나 증가한 시대에 일어났다. 도시로 진군하는 외국 정복군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은 자기 정부의 군부독재(미국의 지원과 교사를 받은)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다.<sup>5)</sup> 정예 공수부대가 광주민중에게 끔찍한 야만행위를 가한 후에, 수천 명의 민중이 용감하게 군대와 싸워서 군대를 도시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해방된 공간을 6일간 지켰고, 파리코뮌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이었다. 해방된 광주 내에서, 매일 수만 명의 민중이 참여한 시민집회에서 오랜 세월의 좌절과 억눌린 열망을 표현하는 보통사람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역 시민들의 그룹들은 질서를 유지했고, 새로운 유형이 정부,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정부를 창출했다. 1980년 5월 28일, 파리코뮌이 109년 전에 분쇄된 거의 같은 날, 광주코뮌은 군사력에 압도당했다.

봉기를 억제하고 봉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존 정부는 두 도시를 고립시켰다. 지방에서 고립된 파리코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지자들을 발견했고, 비슷한 코뮌 실험이 마르세이유에서 투르까지 많은 도시에서 분출했다. 파리에서, 코뮌나르드들은 반란을 확산하기 위해 편지를 채운 풍선을 지방으로 날려 보냈고,<sup>6)</sup> 농민들을 위한 회람은 성공적으로 전달됐다.<sup>7)</sup> 광주에서 반란은 최소한 전라남도의 인근 16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확산하기 위해 광주 주변의 군사적 저지선을 뚫으려고 시도하다 살해당했고, 방어를 돕기 위해 광주로 들어가려다가 수십 명이 더 죽었다.

방돔 궁의 기둥을 부순 것으로 기억되는 쿠르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코뮌을 지지했던 예술가 그룹에 참여했던 파리처럼, 광주의 예술가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당극 집단(광대)은 집회를 조직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했고, 홍성담과 시각 예술가들은 운동을 위해 포스터를 만들었고, 일간신문 제작을 도왔다.

두 도시에서 봉기의 배신자들과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코뮌을 방해하고 파괴하기 위해 코뮌 내부로 침투한 첩자와 파괴선동자saboteurs를 포함하여)은 꽤 많았다. 광주에서 정부 첩자들은 도청 지하실에서 기폭장치를 제거하여 화순 광부들이 가져온 다이너마이트를 쓸모없게 만들었다. 파리코뮌 동안, 작은 그룹의 코뮌나르드들이 도시를 굽어보는 요새 중의 하나를 지키는 초소를 떠나기로 결정해서 가장 전략적 위치를 상실했고, 반동세력은 곧 그 초소를 이용해서 대포로 파리를 폭격했다. 파리는 내부의 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방돔궁전과 부르스에서 베르사이유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왕당파” 시민들이 선동한 폭동이 일어났다. 광주에서 “독침사건”은 일련의 내부문제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일 뿐이다.<sup>8)</sup>

파리와 광주 코뮌들의 해방된 현실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하고 따라서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광범하게 선전되는 신화와 모순된다. 오히려, 이 해방의 순간 시민들의 행동은 자치와 협력의 내생적 역량을 드러냈다. 엄청난 야만성과 불의로 행동한 것은 자율적으로 통치한 민중이 아니라, 패배한 국가의 세력이었다. 국가의 야만성에 관한 다음의 묘사를 읽으면, 그것이 파리에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광주에서 일어났는지 구별하기 어렵다. “너희들은 무엇을 하든 망할 것이다! 만약 손에 무기를 든다면, 죽음을! 자비를 구한다면, 죽음을! 오른쪽, 왼쪽, 뒤로 앞으로, 위로 아래로 어느 쪽으로 돌든, 죽음을! 너희들은 단지 법 외부에 있을 뿐 아니라, 인류 외부에 있다. 나이나 성별도 너희와 가족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죽겠지만, 먼저 부인, 여동생, 어머니, 아들과 딸, 심지어 요람에 있는 것들까지 고통을 맞볼 것이다. 네 눈 앞에서 부상자는 앰불런스에서 끌려나와 총검으로 난도질 당하거나 개머리판으로 짓이겨질 것이다. 그는 부러진 다리나 피흘리는 팔을 잡혀 산

5) For details on U.S. involvement in the suppression of the Gwangju Uprising, see the PowerPoint at my web site, <http://eroseffect.com/powerpoints/NeoliberalismGwangju.pdf>. For a graphic comparison of Gwangju and the Paris Commune, see <http://eroseffect.com/powerpoints/518ParisCommune.pdf>.

6) Louise Michel, *The Red Virgin: Memoirs of Louise Michel*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81), 65.

7) Eugene Schulkind, ed., *The Paris Commune of 1871: The View from the Left* (New York: Grove Press, 1974), 152.

8) See Volume 1, Chapter 6.



채로 끌려나가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는 쓰레기 더미처럼 시궁창에 던져질 것이다. 죽음을! 죽음을! 죽음을!”<sup>9)</sup>

1871년과 1980년 모두, 해방의 평온한 날이 유혈사태로 끝난 후에, 야만적 탄압이 유행이 됐다. 파리코뮌 이후 처형된 사람들의 숫자는 30,000명에 이르며, 프랑스 제국의 머나먼 태평양 보호령에 즉결로 추방된 수천명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이다.<sup>10)</sup> 광주에서 훨씬 적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는 자기 시민을 살해할 정부권력의 쇠퇴에 대한 증언이다. 비록 오늘날 공식적 사망자 집계는 200여명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 봉기 동안 2,000여명이 죽었고 수백 명이 실종됐다고 믿었다. 심지어 광주코뮌이 무자비하게 분쇄된 이후에도, 봉기의 소식은 너무나 전복적이어서, 군부는 알려지지 않은 숫자의 시신을 불태웠고, 다른 시신은 표지없는 무덤에 묻었고 기록을 파괴했다. 봉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천 명이 체포됐고, 군부가 학살에 대한 속삭임마저 탄압하려고 하면서 수백 명이 고문당했다. 최소한 10여명이 학살의 진실을 주장하면서 자살했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민중은 새로운 형태로 봉기를 지속했고, 궁극적으로 미국이 지원하는 군부독재를 타도하도록 한국을 이끌었다.<sup>11)</sup> 광주처럼 프랑스에서도, 수년간의 탄압은 진실을 억누르려고 애썼다. 경찰은 장례식을 괴롭혔고, 공개적으로 운동과 연관된 사람의 경건한 매장을 허락하길 거부했다. 이런 관행은 1887년까지 지속됐고,<sup>12)</sup> 남한에서도 최소한 1987년까지 계속됐다.<sup>13)</sup>

두 봉기는 장기간 경제성장 이후에 일어났다. 비록 억압적이었지만,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 민중의 기본권에 대한 체계적 탄압을 통한 노동계급의 초과착취의 대가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한국경제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프랑스에서, 루이 나폴레옹의 제2제국 동안 생산은 팽창했다. 1853년과 1869년 사이에, 농업은 64에서 114의 산출로 증가했고, 산업은 51에서 78, 건설업은 51에서 105, 수출은 25에서 66으로 증가했다. 1860년과 1870년 사이에, 국민소득은 152억 프랑에서 188억 프랑으로 올라갔고, 실질임금도 1852년에서 1869년까지 60에서 72로 증가했다.<sup>14)</sup> 비슷하게 한국에서도 1968년과 1979년 사이에 농업은 68 생산량에서 124로 증가했고, 산업은 26에서 220(이 지표: 1975=100), 건설업은 3.6배, 수출은 33.1배, 국민소득은 16.8배 증가했다. 1980년 광주와 1871년 파리의 주변지역은 농업에서 공업으로의 비슷한 이행을 경과하고 있었고, 농촌에서 도시로의 거대한 이주를 가져온 경향이였다. 1872년 인구조사는 프랑스 산업노동자의 숫자를 노동력의 44퍼센트로 잡지만, 1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공장은 15개에 불과했고, 100여개이 공장이 20내지 50명의 노동자를 고용했다.<sup>15)</sup> 비슷하게, 1980년 광주는 많은 소규모 공장의 본거지였고, 이는 보다 높은 형태의 산업화로 이행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1866년 49.8퍼센트의 프랑스 국민이 제1부문에서 일했고, 28.9퍼센트가 제2부문(제조업)에서, 21.3퍼센트가 서비스업에서 일했다.<sup>16)</sup>

9) Quoted in Peter Kropotkin, “The Commune of Paris” which first appeared in English as *Freedom Pamphlets 2* (London: W. Reeves, 1895).

10) 루이 미셸은 사망자는 35,000명으로 추산한다(Louise Michel, *Red Virgin*, 67 and 168). 스투어트 에드워즈는 25,000명이라고 한다(Stewart Edwards, *The Communards of Paris, 1871*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3], 42). 패트릭 허튼은 코뮌의 진압 이후 벽에서 25,000명이 처형됐다고 추정한다(Patrick Hutton, *The Cult of the Revolutionary Tradition: The Blanquists in French Politics, 1864-1893*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96). 로저 윌리엄스는 17,000 내지 20,000명이 살해당했다고 추정하며, “그들 중 다수가 무자비하게 도살당했다”(Roger L. Williams, *The French Revolution of 1870-1871* [New York: W.W. Norton, 1969], 151). 사망자 외에, 1871~1875년 재판에 계류된 46,835건의 사건 중에서, 24,000명이 무죄로 석방됐다. 거의 13,000명의 유죄 판결 중에서 110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그 가운데 26명이 실제로 처형당했다.(Williams, *French Revolution*, 152).

11) See Na Kahn-cha, “A New Perspective on the Gwangju People’s Resistance Struggle: 1980-1997,” *New Political Science* 23, no. 4 (December 2001); reprinted in *South Korean Democracy: Legacy of the Gwangju Uprising* (London: Routledge, 2006), 165-183.

12) Hutton, *The Cult*, 127.

13) Alain Plessis, *The Rise and Fall of the Second Empire 1852-187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69. (This index was calculated in constant Francs with 1890=100.)

14) Plessis, *Rise and Fall*, (1900=100)

15) Edwards, *Communards of Paris*, 15.

1975년 45.9퍼센트의 한국 국민이 제1부분에서 일했고, 19.1퍼센트가 제2부분, 35.0퍼센트가 서비스업에서 일했다.<sup>17)</sup>

두 봉기 동안, 여성들이 가부장제적 노동분업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적이라고 생각되는 영역 내에서 기여하려고 조직했음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강력한 여성주의적 감정이 파리에서 나타났고, 특히 국제노동자협회(IWA)의 대열 내에서 그랬다. IWA 러시아 지부의 젊은 회원인 엘리자베스 드미트리예프는 파리방어 및 부상자치료를 위한 여성연합을 건설하는 데 기여했다. IWA는 양성평등과 매춘폐지를 요구했다. 여성연합은 코뮌의 많은 투쟁위원회에 참여했고, 또 극빈자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라 마르밋 식당 같은 작업 협동조합을 조직했다. 비록 첫 선거에 투표를 거부당했지만, 여성은 새로 구성된 체제에서 투표권을 얻었다. 광주에서 여고생들이 많은 시신을 수습했고 부상자 치료를 도왔다. 비록 소수의 남성이 도청과 도시 전역에서 공동식사 준비에 참여했지만, 모든 사람이 식사하도록 돌본 것은 주로 여성들이었다. 비록 일부 여성들이 광주봉기 동안 무기를 가지고 다녔지만, 파리 국민군의 분리된 여성대대는 프로이센과 프랑스 동맹군이 공격할 때 블라시 궁을 방어하기 위해 싸웠다.

### 두 봉기의 차이

이 두 역사적 사건의 차이는 꽤 분명하다. 전에 언급한 것처럼, 파리코뮌은 3월 18일 봉기에서 5월 28일 최종진압까지 약 10주간 지속됐다. 광주 민중봉기는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겨우 6일 동안 해방광주를 지켰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 사건에서 시간은 핵심변수가 아니며, 최소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할 때 그렇다.

1789년 혁명의 반란자들처럼, 코뮌나르드들은 교회를 적의 영토로 생각했다. 4월 첫주, 200명 이상의 사제들이 체포됐고, 주로 폴뿌리들이 주도했다.<sup>18)</sup>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수많은 동네교구를 접수했고 교회를 공동체 센터, 고아원, 가족피난처, 도시의 빈민들의 휴식처로 바꿨다. 공동체의 민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교구에 소집했다. 대조적으로 광주에서는 교회가 봉기를 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이 봉기에 대해 논의하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 결정하도록 모임 장소가 됐다. 카톨릭 사제 조비호는 전선에서 젊은 투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YMCA와 YWCA는 일부 가장 급진적인 반란자들에게 조직화 센터였다. 해방된 광주에서 아무도 처형당하지 않았다. 파리에서는 곧 몰락하게 되자 파리의 대주교와 소수의 사제들이 처형당했다.

파리코뮌에는 많은 유럽 국적의 사람들이 포함됐다. 이탈리아인, 폴란드인, 독일인, 스위스인, 심지어 러시아인들도 평등하게 참여했다. 한동안 파리방어를 담당한 사령관은 폴란드인 자로슬라브 돔브로프스키였고, 헝가리인 레오 프랑켈은 정부에 선출되어 노동부 장관이 됐다. 광주에는 지리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운동에 참여한 외국인이 거의 없었지만, 한국의 외국인 환대성향은 기자와 선교사까지 환영했고, 그들은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갈채와 도움을 받았다.

보다 중요한 차이는 광주에서 파리 국민군과 같은 기존의 군대가 권력에 대한 공격을 이끌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방광주는 정부의 계략이나 정당들의 계획 없이 조직됐다. 오히려 공수부대의 잔인한 행위에 대한 자연발생적 저항과정이 남성과 여성을 나서게 해서 전개되는 역사적 사건들의 구체적 맥락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정치적 경험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었다. 비록 군복무가 모든 남성에게 의무적이었지만, 일부는 공식교육을 전혀 또는 거의 받지 못했다. 20세기 후반에 광주봉기는 군부독재나 소수 엘리트보다 수백만 민중들이 훨씬 더 현명하게 스스로 통치할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16) Plessis, *Rise and Fall*, 96.

17) The Bank of Korea, *Year 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1), 132, 142, 178-9, 206, 288.

18) Hutton, *The Cult* 81-2.

다. 민중들의 직접 자기통치 역량(뿐만 아니라 엘리트 지배의 치명적인 불합리성)은 광주봉기의 사건들에서 너무나도 분명했다.

쿠데타를 전개할 기존의 어떤 조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봉기가 시작됐을 때 알려진 운동 지도자는 체포됐거나 숨어 있었다. 5월 17일 밤에, 군 첩기기관과 경찰은 시 전역에서 활동가들의 집을 습격했고, 운동의 지도부를 체포했다. 잡히지 않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도시를 떠나 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학생들이, 다음엔 전 도시가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되어, 군대를 몰아낸 다음 평화적으로 스스로 통치했다. 심지어 엄청난 유혈사태 속에서도 그들의 직접민주주의 역량은 명백했다. 5월 20일, 수만명의 민중이 금남로에 모여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했다. 공수부대의 곤봉이 노래하는 군중을 해산시켰지만, 5,000명의 대오가 다시 모여 길에서 농성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대표자를 뽑아 군대와 경찰을 분리하려고 했다.<sup>19)</sup>

광주에서 수만명 민중의 일일 집회는 의견의 차이를 드러내고 다양한 시각을 표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포럼을 제공했다. 모든 계층의 민중이 전체 도시민에게 연설할 수 있었고, 연대를 약속한 범죄 갱단의 두목들도 있었다. 구두담이 소년, 매춘부, 보통 사회의 “바닥”이라고 간주되는 사람들이 해방된 도시에서 평등하게 참여했다. 파리에선 선출된 지도자들이 민중을 위해 결정을 내리고 포고를 발표했던 반면, 광주 민중은 직접 결정을 내렸다. 그런 두가지 중요한 결정은 군대에 항복하지 않는다는 것(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대로)과 수십명의 폭도석방의 대가로 수백정의 무기를 군대에 돌려준다는 것이었다. 시민들이 투쟁의 필요를 주장하면, 즉각 그룹을 구성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광주의 총회와 직접민주주의와 달리, 파리에선 다양한 대의적 권력구조가 존재했다. 프로이센에 대한 전쟁 동안, 1870년 8월 11일 프랑스 정부는 이미 유산계급에서 선발한 60개 대대와 나란히 싸울 새로운 국민군 200개 대대를 조직했다. 1871년 2월 8일 새로 선출된 국민공회는 프랑스가 프로이센에 항복하기로 표결하자, 민중은 그 결정을 증오했고, 국민군은 민족자존의 유일한 원천이 됐다. 3월 15일, 약 215개 대대가 북스홀Vauxhall에서 총회를 열고 가리발디를 국민군 총사령관으로 선포했다. 같은 모임에서 30명의 지구 대표자들이 선출됐다.<sup>20)</sup> 기존의 260개 국민군 대대 중에서 최소한 215개 대대의 지지로, 그들의 지도자들은 3월 18일 권력을 장악했다. 파리의 20개 지구(*arrondissements*) 당 3명의 대표로 구성된 국민군 중앙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새 정부가 됐다. 파리는 이미 주성된 조직과 정당들로 가득찼고, 예를 들어 맑스가 속한 국제노동자협회도 있었다. 3월초, IWA 파리지부는 아직 명확한 정치적 강령이 없었다.<sup>21)</sup>

새로운 정치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3월 26일 선거가 열렸고, 287,000명이 투표했다(여성은 아직 선거권이 없었다). 코뮌의 90인 위원이 선출됐지만, 거기엔 15명의 정부 지지자들과 정부에는 반대하지만 3월 18일 “봉기”에 반대하는 9명의 시민도 포함됐다.<sup>22)</sup> 다음날 호텔드빌(시청)에서 열린 결과발표와 새정부 취임식에 200,000명이 참석했다. 모두가 발언권을 가진 광주 민주광장의 자유로운 집회에 달리, 파리의 군중은 대표자들이 선서하는 것을 지켜봤고, 그런 다음 단지 떠났다. 새로 선출된 정부는 여성 선거권, 교회와 국가의 분리, 베이커리의 야간노동 금지, 빈민에 대한 밀린 지대 금지, 반동적 사제의 체포, 버려진 공장의 재가동, 노동자에 대한 벌금 금지 등을 선포했다. 마지막 조치로 노동자들은 전당포에 맡긴 연장을 되찾을 수 있었다.

19) Lee Jae-eui, *Gwangju Diary: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UCLA Asian Pacific Monograph Series, 1999), 64.

20) Prosper Olivier Lissagaray, *History of the Paris Commune of 1871* (St. Petersburg, FL: Red and Black Publishers, 2007), 68-9. Originally published in 1876.

21) Schulkind, *Paris Commune*, 294.

22) Plessis estimates the number of voters at 230,000 out of 470,000 who were registered (*Riseand Fall*, 171).

그러나 선출된 대표들은 고려해야 할 유일한 권력이 아니었다. “공화파 중앙위원회[국민군을 배출하고 군주제나 엘리트 지배보다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지구협회들에 기반한]가 그림자 정부로 행동했다.”<sup>23)</sup> IWA 및 노동자협회연합(FCWS)와 나란히, 세 개의 별도 그룹이 각각 코르데리궁에서 소집해서, 때로는 함께 선언을 발표하고 때로는 서로 대립하기도 했다.<sup>24)</sup> 많은 지구에서, 별도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시민들에게 자신의 지침을 발표했다. 게다가, 국민군 사령관들도 부대에 독자적인 명령을 내렸다. 지침의 불협화음 속에서, 야전의 장교들은 때로 상충되는 세가지 명령을 받았다. 선출된 의원들의 명령은 자주 권위를 주장하는 다른 그룹들, CC나 공화파 지구협회들에 의해 뒤집히기도 했다. 그 결과 선출된 정부는 실제로 무력했고, 군사문제에 대해서는 CC와 경쟁을 벌였고, 자율적 지구협회들에게 정치권력을 빼앗겼다. 새 정부는 파리를 운영하기 위해 9개 위원회를 창설했고, 가장 급진적인 것이 노동교환소(Labor and Exchange)였지만, 이 위원회들은 효과적으로 일하지 못했다. 풀뿌리 포대위원회는 정부의 전쟁국과 대포의 배치에 대한 논쟁을 벌였고, 각 그룹은 다른 장소에서 대포를 통제했다.<sup>25)</sup>

비극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구성원 사이의 개인적 적대로 허우적거렸고, 복무를 거부하거나 사임한 선출직 대표들이 빠져나갔다. 가장 중요하게, 새 정부는 코윈의 원수인 옛 정부에 충성하는 자들에 의해 내부적으로 약화됐다. 공개 종교행사 예산삭감 같은 중요한 문제에 정신을 빼앗긴 정부는 즉각적 관심이 필요한 긴급한 군사문제를 무시했다. 지휘관 장군들은 상임대표들에게 자세한 군사정보를 알리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다.<sup>26)</sup> CC 지도자들이 몽발레리앵 요새(코윈나르드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믿었던 전략적 진지)의 함락소식을 들었지만, 정부는 대중에게 알리지 않았고, 우호적 진지라고 생각한 곳에서 총격을 받아 수많은 용감한 코윈나르드들이 죽었다.

잘못된 결정 또는 어떤 결정의 부재는 곧 혼란의 일이 됐다. 대표자에 대한 의존이 민중 스스로의 통치보다 열등한지를 보여주는 단 하나의 예로 충분하다: 파리의 1,200문의 대포 중에서 겨우 200문을 코윈나르드들이 사용했고, 2,500명의 노련한 포병 중에서 겨우 500명만 근무 중이었다.<sup>27)</sup> 마침내 5월 11일 34대28의 표결로 대의체제가 붕괴하자, 정부는 “모든 위원회에 대해 권위를 갖는” 공안위원회를 창설했다.<sup>28)</sup>

보통 파리인들은 대의정부를 선호하지 않고 대신에 직접민주주의를 원했던 것 같다. 리사가 라이가 말하는 것처럼: “지방자치 평의회란 부르주아적 이상에 무심한 인민대중들은 코윈에 기울었다.... 왜 그들이 심지어 선택적이지만, 실질적 자유도 없고, 국가에 속박된 평의회, 학교와 병원의 행정에 대한 권위, 정의와 경찰도 없고, 동료 시민들의 사회적 노예화와 다투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평의회에 관심을 갖겠는가? 인민들이 추구했던 것은 그들에게 상태의 개선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는 정치형태였다. 그들은 모든 헌법과 모든 대의정부가 이른바 대표된 선출자의 의지와 반하는 것을 보았고, 더욱 더 전제적으로 변하는 국가권력은 노동자들에게서 심지어 자신의 노동을 방어할 권리조차 박탈했으며, 바로 숨쉬는 공기마저 명령하는 이 권력은 항상 자본주의적 약탈에 개입하길 거부했다.”<sup>29)</sup>

여기에서 파리와 광주의 가장 중요한 차원을 볼 수 있다: 다음 지배자를 선택하는 단순한 선거보다 훨씬 더 권능화하는 체제인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파리와 광주의 민중들은 자유가 미래에 취할 형태의 궤적을 보여준다. 선거가 마침내 파리에서 열려서 전시 조건 아래서 점증한 권력이 공안위원회의 손아귀에 집중된 반면, 광주에서는 입

23) Williams, *French Revolution*, 90, 122, 130.

24) Lissagaray, *History*, 47, 6.

25) *Ibid.*, 177-8.

26) *Ibid.*, 137.

27) *Ibid.*, 171.

28) *Ibid.*, 198-9.

29) *Ibid.*, 80.

박한 침공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은 결연하게 코뮌적 형태의 협의 민주주의를 유지했다. 심지어 군대의 위협이 가해지고 해방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에도, 많은 인근 도시의 별도 지부와 함께 집회와 저항을 용이하게 할 새 구조가 창출됐다. 새 지도부는 총회를 대신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의 결정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자신을 인식했다. (자세한 내용은 1권을 보라.)

## 군대의 역할

두 코뮌은 궁극적으로 군대에 압도당했다. 파리코뮌 동안, 정규군 전부대가 코뮌쪽으로 넘어갔다(비록 대부분이 정부에 충성하고 프로이센의 편에서 싸웠지만). 코뮌의 편에 섰던 군부대들은 때로 규율이 없었다. 한 목격자에 따르면, “포병대대는 실제로 더 완벽하게 법 그 자체였고, 자신의 지구위원회를 두고 주력 국민군 중앙위원회에 통합하는 것을 거부했다.”<sup>30)</sup> 비록 코뮌이 60,000명의 투사, 200,000정의 머스킷총, 1,200문의 대포, 5개 요새, 몇 년간 쓰기에 충분한 탄약을 확보하고 있었지만,<sup>31)</sup> 혼란과 다중심적 권위패턴 때문에 결정적 행동을 취하기 어려웠다. 1871년 3,000명의 불량키주의자들이 있었음에도,<sup>32)</sup> 파리는 행을 접수하려는 어떤 시도도 이뤄지지 않았다.<sup>33)</sup> 루이스 미셀은 마지막 피의 주간에 15,000명의 민중이 군대와 대결하려 떨쳐나섰지만,<sup>34)</sup> 5월 21일 베르사이유군이 처음으로 파리로 밀고 들어 왔을 때, 대규모 군중은 킬레리에 정원에서 연주를 경청하고 있었다고 전한다.<sup>35)</sup> 정말로, 적의 파리 입성을 감시하는 고지대를 지키는 전략적 위치의 한 부대는 진지를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치명적 최후의 공세에 파리로 향하는 문을 열어줬다.

파리처럼, 광주에서도 군인과 경찰은 때로 반란자의 편에 섰다. 31사단(주로 전라남도 출신으로 이뤄진) 사단장 정웅 장군과 전남계엄사령관 윤흥중 장군은 모두 명령이행 거부로 해임당했다.<sup>36)</sup> 광주역 근처의 전투에서, 31사단 부대는 확성기를 통해, “우리는 국민 여러분을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길을 내주십시오!”라고 발표했다. 그들은 사고 없이 떠날 수 있었고, 군중의 지혜가 군인들의 진심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특수수대가 사단본부에 쳐들어와, 무고한 민간인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용감하게 거부했다고 정웅 사령관을 구금한 사실이 알려졌다. 1960년(독재자 이승만을 타도한 학생혁명에서) 치명적 총격을 명령한 경찰간부들이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 광주의 경찰 서장도 살육에 참여하길 거부했다. 많은 개별적 경찰관들은 부상당한 시민들을 도왔고, 광주가 일단 해방되자 새로운 민간당국에 협조했다. 일부는 심지어 제복을 벗고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 반란자들과 나란히 싸우기도 했다.

미국의 비밀문서가 광주 봉기자들이 잡힌 적을 처형했다고 비난했지만, 해방광주에서 아무도 처형당하지 않았다. 파리에서는 제한된 숫자의 처형이 이뤄졌다. 3월 18일 코뮌이 바로 시작되자마자, 세 번이나 부대에 발포명령을 내린 르콩트 장군이 잡혀와 코뮌을 위한 군중의 동원에 동조적인 반란군에 의해 처형됐다. 비록 장교들이 그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20명의 병사들이 줄지어 섰고, 그들의 머스킷총은 재빨리 장군과 그의 부관 한 명을 재판없이 처형했다. 5월말, 격렬한 전투로 파리가 불타고 잡힌 코뮌나르드 수백명이 이미 즉결 처형당하자, 공안위원회는 다르보이 대주교를 포함한 6명의 저명한 죄수의 처형을 명령했다. 의용병들이 처형을 집행하려 달려 나갔다.<sup>37)</sup> 반동적 신문들도 탄압을 받았고, 모두 약 800건의 체포가 이뤄졌다. 파리에서 단결의 부족을 훨씬 더 잘 보여주는 것은 국민군 중앙위원회의

30) Edwards, *Communards of Paris*, 32.  
 31) Lissagaray, *History*, 183.  
 32) Hutton, *The Cult*, 30.  
 33) Williams, *French Revolution*, 138.  
 34) Michel, *Red Virgin*, 67.  
 35) Edwards, *Communards of Paris*, 40.  
 36) Lee, *Gwangju Diary*, 70.  
 37) Lissagaray, *History*, 75, 280.

포스터였다: “약탈에 죽음을! 절도에 죽음을!”<sup>38)</sup> 대조적으로, 해방광주에는 약탈이나 절도 사건은 특히 전무했다.

1917년 상트 페테르스부르크와 모스크바, 1919년 바이에른 또는 1923년 함부르크, 광풍과 상하이 등 21세기 초반의 봉기들은 예를 들어 공산당처럼 권력장악을 지향하는 중앙집중적 조직들이 지도했다. 이 초기의 반란적 봉기의 물결은 적의 군대를 제압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붉은 군대의 창설을 필연화했고, 이런 의미에서 이 봉기들은 중앙집중적 조직들이 지도하지 않았던 20세기 말 시민봉기의 물결보다는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전쟁에 더 가까웠다. 중국, 한국, 베트남에서, 중앙집중적 정당들이 지도한 지구전은 민족해방에 결정적이었다. 유럽의 공산주의 반란과 아시아의 민족해방전쟁은 단순히 전술적 차원 이상에서 최근의 시민봉기들과 다르다. 시민봉기는 국가나 정당이 아니라 시민사회로부터 발생하며, 그 열망과 결과는 훨씬 덜 명확하고 따라서 군대의 승자독식 전투보다 승리하기 더욱 어렵다. 현대적 운동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노골적인 정부탄압을 완화할 수 있지만, 국가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시민을 학살하는 것을 자제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 광주봉기에서 파리코뮌의 역할

자주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봉기의 최대 성과 중의 하나는 보통사람들을 철저히 변혁시킨다는 점이다. 일단 자유의 쾌감을 맛보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경험하면, 보통사람들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또다시 거리로 나설 준비가 된다. 이는 왜 필리핀인들이 1986년 이후 두 번의 피플파워 봉기를 했고, 왜 2008년 한국의 촛불시위가 그렇게 대규모였고, 왜 2007년 버마의 샤프론 혁명이 그렇게 빨리 불붙었고, 왜 2008년 티베트의 시위가 가장 널리 확산됐고, 왜 2006년 네팔의 두 번째 민중봉기가 군주제를 종식시켰고, 왜 타이랜드의 붉은셔츠와 노란셔츠가 대치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유를 위한 투쟁은 이후의 봉기를 조건짓고, 이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 내로 한정되지 않는 현상이다. 세계 어느 곳의 역사적 사건들은 대륙과 세기를 넘어 사람들에게 영감과 동기를 부여한다. 20세기 초반 독일의 혁명가들이 자신을 스파르타쿠스주의자라고 불렀던 것은 우연이 아니고, 19세기 파리코뮌의 기억이 1980년 광주와 1989년 베이징(5장에서 지적한 것처럼)에서 활동가들에게 영감을 준 것도 우연이 아니다.

광주의 투사들과 했던 수십 건의 인터뷰 과정에서, 필자는 파리코뮌의 역사적 기억에서 영감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발견했다. 2001년에 수행한 29건의 봉기참가자들과의 인터뷰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광주항쟁 이전에 파리코뮌에 관한 학습모임의 일원이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한 사람은 봉기의 상징인 윤상원 열사가 1976년 녹두서점에서 김남주 시인이 파리코뮌에 대해 논한 모임에 참석했다고 기억했다.<sup>39)</sup> 봉기 동안 윤상원은 다른 지도적 활동가들과의 토론에서 파리코뮌에 대해 최소한 한번 이상 공개적으로 발언했다.<sup>40)</sup>

전남대에서 역사를 전공한 이양현은 1970년대 파리코뮌에 대해 읽었다. 독서를 통해 그는 “서너살 짜리 아이가 프랑스군에 돌을 던졌다”고 회상했다. 비록 과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양현은 자신의 세 살짜리 아들이 광주봉기 동안 경찰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목격했다.<sup>41)</sup> 고등학교 시절, 이양현과 동료 정상용(저명한 국회의원)은 독서모임의 회원이었고, 이 모임은 한 때 파리코뮌에 집중했다. 김종배는 정상용, 윤강욱, 김영철, 윤상원, 박효선 등이 모두 봉기 이전 파리코뮌 학습모임의 회원이었다고 보고했다.<sup>42)</sup> 윤강욱은 이 모임이 “느슨한”, 즉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모임이었다고 묘사했고, 리영희 교수의 핵심적 역할을 회상했다. 김효석은 YWCA이 “좋은책 클럽”의 모임에서 파리코뮌에 대해 읽었다.<sup>43)</sup> 장두석, 윤영규, 송기

38) Schulkind, *Paris Commune*, 136.

39) Interview with Kim Jang-gil, November 7, 2001.

40) Interview with Lee Yang-hyun, June 22, 2001.

41) Ibid.

42) Interview with Kim Jong-bae, November 27, 2001.

석이 조직한 이 클럽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윤영규에 따르면, 1970년대 후반 최소한 18개의 독서모임이 조직됐다. 고등학생, 대학생, 교수들을 한데 모은 이 모임들에는 “의견 지도자”와 비합법 조직의 지도자들도 포함했다. 파리코뮌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었고, 모두 불법이고 많은 책이 인쇄상태가 불량했다.<sup>44)</sup>

정상용은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타도 이후 만들어진 광랑(光郎: 광주의 젊은이들)이란 그룹에서 봉기 이전에 파리코뮌에 대해 읽었다고 기억했다.<sup>45)</sup> 그가 회상하는대로, 1966년 텍스트는 한 대학선배가 일본어로 감독했고, 그 모임은 당시에 각 학년별로 여러명씩 20여명이 참석한 세미나였다. 이 사람들은 차례로 동료들과 조를 나누어 주제를 토론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학습하는 데 용이한 구조였다. 김상윤은 1978년 파리코뮌을 주제로 한 학습모임을 기억했다. “많아봐야 다섯명이 함께 공부했다. 각자는 다시 거의 같은 주제로 다른 모임을 만들었다. 김남주는 파리코뮌에 관한 일본어책을 갖고 있었다.”<sup>46)</sup> 이춘희는 봉기 이후에 파리코뮌에 대해 집중적으로 읽었지만, 봉기 중에 지도적 인물들이 YWCA에서 체계바라의 중요성과 함께 파리코뮌에 대해 말했다고 회상했다.<sup>47)</sup>

김장일에 따르면, 파리코뮌과 광주봉기는 공동체정신, 즉 다른 상황 아래서 사람들이 “함께 살고 투쟁했던” 면에서 유사했다. 파리코뮌처럼, 실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봉기에 대한 수많은 호소가 있었다. 김장일은 그와 김남주, 박석무 등이 1972년 봉기를 호소했다고 회상했다. 그들은 12월 8일 전남대학 본관과 법과대 옥상에서 유인물을 몰래 뿌렸고, 그 다음에 광주일보와 한 여자고등학교에서도 그 행동을 반복했다.<sup>48)</sup> 그는 또한 1980년 훨씬 이전에 봉기를 호소했던 또 다른 경우도 언급했다.

다른 사람들은 두 사건이 그다지 비슷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일련의 인터뷰에서 광주봉기를 역사적으로 기술한 책의 저자인 이재의<sup>49)</sup>는 파리코뮌과 광주 민중봉기의 차이와 유사성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했다.<sup>50)</sup> “파리 코뮌에서 그들은 선거를 조직하고 행정구조를 수립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광주에서는 지도부가 민중으로부터 권위를 획득한 시간이 없었다.” 그는 계속했다: “상황에 대한 대응에서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이데올로기적,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 등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인간은 존엄과 존재를 지키기 위해 대응한다.”

윤한봉은 파리코뮌과 광주봉기가 비슷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파리코뮌이 더 “체계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었기 때문이다.<sup>51)</sup> 그의 견해로는 광주가 더 “자발적”이었다. “민중의 민주주의 수준은 여기에서 매우 낮았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들은 미국배가 그들을 도우려 온다고 믿었고, 이는 국제적 정치동학에 대한 이해가 없음을 보여줬다.” 윤한봉은 파리코뮌의 노동자들이 높은 의식을 가졌지만, 광주의 노동자들은 교육받지 못했다고 느꼈다. 광주봉기는 “도덕적”이었고, 상점과 은행은 약탈당하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약간의 계급의식 개념을 가졌다면, 이 상품과 기금을 빈민들에게 재분배했었을 것이다.” 필자가 파리코뮌에서도 프랑스 은행을 내버려 뒀고, 사실 코뮌나르드들이 지켰다고 반박하자, 우리는 다음번에 아주 길게 토론을 계속하기로 했다. 불행하게도, 윤한봉은 우리가 토론을 계속하기 전에 사망했다.<sup>52)</sup>

43) Interview with Kim Hyo-sok, November 6, 2001.

44) Interview with Yoon Young-kyu, April 10, 2001.

45) Interview with Jung Sang-yong, October 17, 2001.

46) Interview with Kim Sang-yoon, April 15, 2001.

47) Interview with Lee Chun-hee, December 21, 2001.

48) Interview with Kim Jang-gil, November 7, 2001.

49) Translated into English as Lee Jae-eui, *Gwangju Diary: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UCLA Asian Pacific Monograph Series, 1999).

50) Interview with Lee Jae-eui, March 17, 2001.

51) Interview with Yoon Han-bong, October 29, 2001.

파리코뮌과 광주봉기의 이런 직접적 연관은 파리든 광주든 봉기의 유산이 어떻게 다른 인간들이 억압에 맞서 투쟁하도록 힘을 주는지 보여준다. 파리와 광주의 영웅적 투쟁 이후에, 민중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권능화되었고, 미래의 자유투쟁을 준비하는 교육을 받았다. 심지어 봉기가 이 두 경우처럼 잔인하게 진압당했어도, 그 경험은 공개적으로 민중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 새로운 열망과 새로운 필요, 새로운 공포와 새로운 희망을 창출한다. 1987년 19일간의 영웅적 6월봉기로 한국인들이 일어섰을 때, “광주를 기억하라!”는 핵심적 투쟁구호였다. 2년뒤 1989년 5월 20일 티아난먼 광장을 점거한 중국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우리는 우리 생명의 피로 또다른 코뮌나르드의 벽을 세울 것이다”라고 선언한 공동성명으로 파리코뮌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sup>53)</sup> 봉기는 역사적으로 혁명이론의 수원지이었지만, 20세기에 소련과 제휴한 공산당들이 러시아를 혁명의 모국이라고 선언한 이후, “자생성”에 대한 폄하는 아주 극단에 이르러, 소련공산당의 통제 외부의 어떤 민중운동도 혁명적 행동의 영역에서 배제됐다. 1968년 5월 프랑스와 1977년 이탈리아에서, 공산당들은 반란운동에 반대했고 정부의 편을 들었다. 18세기와 19세기 봉기의 역사를 보면, 아주 다른 지향의 혁명가를 볼 수 있다.<sup>54)</sup>

맑스와 레닌은 모두 파리코뮌을 그들의 열망의 체현으로 환영했다. 소비에트 공산주의이론이 자생성을 매도하고 조직을 몰화한 반면, 무정부주의적 사고는 더 반란과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표트르 크로포트킨의 기여는 우리 자신의 시대에도 유효하다. 볼셰비키 혁명의 운명에 비하면, 그런 과제는 직설적이다. 혁명에 우호적이면서도, 크로포트킨은 아주 초기부터 혁명의 발전과 퇴행을 분석할 수 있었다. 크로포트킨의 사상을 20세기 후반부 혁명운동의 발전에 적용하는 것은 다소 더 어려운 것 같다.

#### 표트르 크로포트킨과 민중봉기

우리는 많은 면에서 크로포트킨을 용서해야 한다. 그 목록의 최상단에는 카이저가 차르의 지배를 종식시킬 것이라는 희망으로 1차대전시 독일을 지지한 사실이 있다. 그 목록의 어딘가에는 유럽중심적 편견도 있다. (1권 1장을 보라).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인 크로포트킨은 너그러운 아이같은 어른이었고, 러시아 귀족 중에서 최상의 인간이자 혁명적 변화에 대한 결의에서 열정적이었다. 그는 국제주의자였다. 그가 편집하던 스위스 신문 <반란>(Le Revolte)의 역할을 고려하면서, 그는 썼다. “사람의 심장 뛰는 소리에, 오랜 불의에 맞선 반란에, 새로운 형태의 삶을 만들어내려는 시도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혁명적 신문의 주된 의무가 되어야 한다. 혁명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sup>55)</sup>

러시아혁명 및 영국과 미국의 경험과 나란히 크로포트킨은 주로 프랑스의 운동에서, 특히 1789년에서 1793년까지의 혁명과 1871년 파리코뮌에서 혁명에 대한 분석을 발전시켰다. 크로포트킨에게 자유로운 코뮌은 진정한 혁명의 목적이자 수단이 됐다. 그는 대의제 정부와 민중의 책임과 권리를 가로채는 관료들을 혐오했다. 여러차례 그는 먼 곳의 장군들처럼 앉아서 거리의 운동에 명령을 내리는 자들을 맹비난했다.<sup>56)</sup> 오늘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집에 앉아 있다가 내일 활동가들에 대한 충고로 가득 찬 “지침서”를 쓰는 자들에 대해 그가 뭐하고 말할지 상상해 보기만 하면 된다. 당대에 크로포트킨은 무장시위에 참여했고, 운동내 비겁함을 극복할 필요성을 주제로 삼았다.<sup>57)</sup>

52) 이 예비적 언급은 파리코뮌과 광주민중봉기 간의 유사성과 차이를 더욱 밝히기 위해 필요한 작업의 방향을 가리킨다. 필요한 경험적 연구에는 봉기 전후와 봉기 동안 범죄통계, 도청과 호텔드빌[파리시청]의 도시 나머지 지역에 대한 관계상 공간동학의 비교, 고등교육과 종교부문의 비교, 파리코뮌과 광주 권위구조에 대한 도표의 정식화, 보다 충분한 1870년 파리와 1980년 광주의 비교, 제반 문서들의 비교 등이다.

53) Zhang, *Tiananmen Papers*, 236.

54) See W. J. Fishman, *The Insurrectionists* (London: Methuenand Co., 1970).

55) Peter Kropotkin, *Memoirs of a Revolutionist*,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71), 418.

56) See for example, Kropotkin, *Memoirs*, 282.

57) *Ibid.*, 419.



크로포트킨의 보통사람에 대한 믿음은 한계가 없었다.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 민중이 보여준 자연발생적 조직화”를 찬양하면서, 그는 도시의 각 지부가 자신의 군사 및 민간 위원회를 지명했지만, “모든 중요한 문제가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곳은 저녁에 열리는 총회였다”고 지적했다.<sup>58)</sup>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지부들은 공안위원회의 도구(즉, 국가의 도구)로 변했다고 크로포트킨은 진술했다. 40,000개의 혁명위원회들을 국가가 집어 삼키면서 혁명은 살해당했다.<sup>59)</sup>

혁명운동에서 목숨을 잃은 수천만 민중의 희생은 크로포트킨에게 진정한 혁명의 형태를 드러내줬다: “독립적 코뮌.” 그의 저작 전체를 통해 크로포트킨은 민주공화국과 대의정부를 중산층 급진파, 즉 기존 사회질서 전체를 혁명화하기보다 개인적 운명의 개선을 위해 기존체제의 개혁을 원하는 자들의 야망 완수로 이해했다.<sup>60)</sup> “대의정부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했고, 긍정지배에 치명타를 가했다.”<sup>61)</sup> “절대군주정은 농노제 체제에 조응했다. 대의정부는 자본지배 체제에 조응한다.”<sup>62)</sup>

1871년 파리코뮌에 대해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킨 그는 이렇게 썼다. “파리코뮌의 붕기는 모든 혁명가를 고뇌하게 만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져왔다. 두 번이나 프랑스는 집중적 정부를 통해 강제함으로써 일종의 사회주의혁명을 성취하려고 시도했다: 강력한 자코뱅 조치를 통해 프랑스가 진정한 경제적 평등(*l'égalité de fait*)을 도입하려했던 1793-4년과, ‘민주적 사회주의 공화국’을 강제하려 했던 1848년. 그리고 두 번 다 프랑스는 실패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해결책이 나왔다: 새로운 코뮌이 자신의 영역에서 해야만 한다....”<sup>63)</sup>

크로포트킨에게 자유로운 사회의 정치적 형태는 독립적 코뮌이었다. “이것은 사회적 혁명이 취해야 하는 형태, 독립적 코뮌이다. 모든 나라와 모든 세계가 코뮌에 대항하게 하라. 그러나 일단 주민들이 상품의 소비, 교환과 생산을 코뮌화하기로 결정하면, 그들은 자신들 사이에서 코뮌을 실현해야 한다.”<sup>64)</sup> 파리코뮌과 그에 이은 카르타헤나 및 바르셀로나 코뮌의 이해에 있어서, 크로포트킨은 정치적 형태로서의 코뮌의 의미를 구체화했고, 그것을 미래로 투사했다. “만약 우리가 이 운동을 그 자체만 아니라 그것이 코뮌적 혁명 동안 표출된 정신과 경향에 남긴 영향도 분석한다면, 우리는 시회발전에서 보다 진보한 미래의 인간 복합체에서 코뮌이 독립적 생활을 시작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법과 폭력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항상 평범의 지배인 다수지배에 종속하는 대신에 모범에 의해 한 민족의 후진적 부분을 전환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보여주는 경향을 인식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코뮌 자체 내에서 대의정부의 실패는 자치와 자주행정이 단순한 영역적 의미보다 더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효과를 보이기 위해 코뮌은 자유로운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생활기능을 수행해야 한다.”<sup>65)</sup>

이후의 저작에서 크로포트킨은 1971년 이후 “자유로운 코뮌이 현대적 사회주의 사상이 실현되는 매체가 되었다.”고 선언했다.<sup>66)</sup> 그리고 상호부조에서 그는 공동체적 협력이 진화와 역사에서 취한 형태를 추적했다.

58) *The Great French Revolution* (New York: Vanguard Press, 1929), 313.

59) *Ibid.*, 532.

60) See, for example, *The Conquest of Bread*, (London: Chapman and Hal, 1906), 44 and 213-4.

61) “Anarchist Communism” in *Kropotkin's Revolutionary Pamphlets*, ed. Roger Baldwin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70), 68.

62) *Ibid.*, 52.

63) “Modern Science and Anarchism,” in *Kropotkin's Revolutionary Pamphlets*, ed. Roger Baldwin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70), 164.

64) *Ibid.*, 163. Italics in the original.

65) “Anarchist Communism,” 51-2.

66) Page xiv of the 1906 preface to *The Conquest of Bread*.

1917년 이후, 크로포트킨은 러시아로 돌아갔다. 볼셰비키에 비판적이었지만, 그는 주로 러시아에 파견된 반혁명적 외국군대에 대한 공격을 노리는 두 개의 짧은 성명만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자유로운 코뮌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러시아 제국의 자연스럽게 분리된 부분을 중앙통제 아래 재통합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 나는 이 연방의 각 지역이 그 자체로 자유로운 코뮌과 자유로운 도시의 연방이 될 때가 오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나는 또한 서유럽의 특정한 지역도 곧 같은 경로를 따를 것이다.”<sup>67)</sup>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모든 혁명에 대해, 크로포트킨은 진정한 자유의 목적을 독립적 코뮌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들은 이 목표를 성취할 것인가?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 크로포트킨에게 대답은 분명했다: 봉기가 그 기반을 닦을 것이다. 전위정당이나 달리 조직된 소규모 집단이 아니라 민중 자신이 자신의 혁명을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봉기와 자유로운 코뮌은 크로포트킨에게 필수적이었다. 민중동원을 위해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 당시 팔레 루아얄(Palais Royal)처럼 중심적 모임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정원과 카페가 있는 팔레 루아얄은 야외 클럽이 됐고, 거기에서 가서 모든 계급의 사람 1만명이 매일 소식을 교환하고 시시각각 나오는 팜플렛을 토론하고, 군중들 사이에서 미래의 행동에 대한 열정을 다시 확인하고 서로에 대해 알고 이해했다.”<sup>68)</sup>

민중동원에 모임장소가 중요한 한가지 사례는 1789년 6월 10일이었다. 11명의 병사들이 파리지민에게 사용한 머스킷총의 장전을 거부했다고 체포되어 투옥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약 4,000명의 시민들이 즉시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 팔레 루아얄로 갔다. 그런 대규모 군중을 보고 간수들은 순응했고, 군중을 멈추려고 전속력으로 달리던 기마병들은 재빨리 기마도를 칼집에 뽑고 민중들과 친밀하게 어울렸다.<sup>69)</sup> 거리의 민중들의 자연발생적 전투성을 찬양한 크로포트킨은 상점을 통제하는 군중들이 약탈하지 않아서 도둑질이 끝났지만, 집단적 영양과 방어가 필요하게 됐다고 지적했다.<sup>70)</sup> 반란이 한 도시에 다른 도시로, 파리에서 프랑스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되자, “모든 유럽이 혁명의 말과 행동에 대해 열광했다.” 크로포트킨은 어떻게 반란이 과거에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프랑스를 통일시켰는지 추적했다.<sup>71)</sup>

광주봉기가 크로포트킨의 분석틀을 입증하고 검증하는 주된 방식은 세가지가 있다:

1. 독립적 코뮌과 자유로운 상품의 분배
2. 대의정부가 아니라, 민주광장의 총회가 최고의결기구였다.
3. 자연발생적 조직화

1871년 파리코뮌 이후 스페인의 카르타헤나와 바르셀로나에서 비슷한 봉기가 일어나자, 크로포트킨은 봉기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영감을 준다는 것, 에로스효과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접근했다. 크로포트킨은 봉기가 자주 절망의 산물이지만 혁명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한 대로 국부적 성공의 희망으로, 싫어하는 일부 관리들에 대한 작은 반란이나 파업으로 또는 굶주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지만, 빈번하게 어떤 성공의 희망도 없이 그렇게 한다: 단지 조건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단 하나 또는 둘, 열 번의 반란이 아니라 수백번의 비슷한 반란이 선행했고, 모든 혁명에 선행해야 한다. 이런 반란이 없다면, 어떤 진화도 이뤄지지 않는다.”<sup>72)</sup>

67) “Letter to the Workers of Western Europe,” *Kropotkin’s Revolutionary Pamphlets*, ed. Roger Baldwin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70), 254. Originally published in English on July 20, 1920.

68) *The Great French Revolution*, 61.

69) *Ibid.*, 69.

70) *Ibid.*, 75, 106.

71) *Ibid.*, 95, 177.

72) “Modern Science and Anarchism,” 190. Italics in the original.

크로포트킨은 나중에 봉기가 단지 수단일 뿐만아니라, 혁명의 목적을 결정하는 열쇠이기도 하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모든 혁명의 성격은 그것에 선행하는 봉기의 성격과 목적에 의해 규정된다고 진술할 수 있을 것이다.”<sup>73)</sup> 1968년의 전지구적 반란이 1989년 러시아와 동유럽의 획기적 사건들의 기반을 닦았던 것처럼, 파리코뮌도 광주봉기의 길을 닦았고, 광주는 이후의 반란운동의 물결에 길을 닦았다. 오늘날, 이런 코뮌들은 진화하는 형태의 자유의 구체적 체현으로 등장한다. 코뮌은 우리 모두에게 인간의 존엄에 대한 구체적 감정과 해방을 위한 투쟁을 강화할 필요성을 계속 제공한다.

---

73) Ibid., 191.

제13장: 조직과 운동

“우리, 예술가들은 전위로 복무할 것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무기 중에서 예술의 힘은 가장 신속하고 가장 효율적이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사상을 퍼뜨리고자 할 때, 우리는 차례로 수금, 시 또는 노래, 이야기 또는 소설을 이용한다. 우리는 그 사상을 대리석이나 캔버스 위에 새긴다. ... 우리는 마음과 상상력을 겨냥하고, 따라서 우리의 효과는 가장 생생하고 가장 결정적이다.”

- 앙리 드 생시몽

“예술의 자율성은 자유롭지 못한 사회에서 개인의 부자유를 반영한다. 사람들이 자유롭다면, 예술은 그들의 자유의 형태이자 표현이 될 것이다.”

-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정치적 변화를 실행하기 위해 거리로 밀고나올 보통사람들의 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민중봉기를 촉발할 조직과 단체들의 능력도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가 됐다. 아랍의 봄에 촉매가 된 상당한 영향 때문에 소셜미디어는 상당한 칭찬(또는 관점에 따라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 봉기에 주된 설명을 소셜미디어에 돌릴 정도였다.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에 대한 낙관적 독해는 민중을 동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과 현대 사회운동의 진정한 추동력, 즉 역사는 상당한 정도로 민중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민중의 자기이해와 혼동한다. 이 의식이 없다면, 소셜미디어는 그 내용이 해체된 개인화된 네트워킹 수준으로 넘어가는 상호작용의 외피이다. 활성화된 민중의 맥락에서 소셜미디어는 상상력과 행동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고, 많은 미국 도시들의 공허함보다 실제적인 공적 공간을 창출한다.

봉기는 혁명적 변화의 가능성과 그것에 대한 장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풍부하게 한다. 에로스 효과가 활성화되면 봉기는 예상치 못한 속도로 발생하여 급속하게 확산된다. 이 동학의 가속화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 규정된다. 소셜미디어의 유희유 역할로 민중의 행동하려는 직관적 충동은 훨씬 더 즉각적으로 된다. 관료적 좌파가 집중화된 정당을 주장하는 반면, 경험은 되풀이 하여 그들의 민중운동 배반을 가리킨다.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운동 내부의 집단은 시민의 급진적 열망을 좌절시킬 역량을 갖고 있다.

위기 동안(위기가 예비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가들이 민중에게 자치역량에 대한 자기 확신을 주고, 자치를 위한 공간을 건설하고, 민중권력의 기관, 특히 총회를 강화하는 것이다. 심지어 군대가 공적 공간을 점령하려 출동해도, 가장 긴급한 것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면 가상현실에서, 사이버스페이스 또는 시민사회에서 코뮌을 건설하는 것이다. 현대적 형태의 아방가르드 혁명조직은 민중을 직접적으로 역능화(empower)하며, “역사적으로 진정하게 혁명적인 운동이 범하는 오류는 가장 똑똑한 중앙위원회의 무오류성보다 무한하게 더 유익하다.”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믿음을 훨씬 더 통찰력 있는 것으로 만든다.

정치적 위기의 순간에, 이집트의 페이스북 파르티잔이나 1968년 프랑스의 투쟁위원회처럼 작은 그룹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전위당과 달리, 탈집중화된 아방가르드 그룹들은 자율, 평등, 탈상품화, 연대(“에로스 효과”)의 문법에 따라 발전한다. 직접 민주주의적 형태의 의사결정과 전투적인 민중저항은 자기조직화에 기반한 운동 내에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보통 정치영역 외부라고 간주되는 예술계는 의식의 장기적 변혁을 성취하는 강력한 형태를 제공한다. 편협한 한계의 감각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을 창조하는 투쟁에서, 입체파(Cubism), 다다와 초현실주의는 크게 기여했다. 비록 각각 적은 숫자로 시작했지만, 결국 광범한 문화

적 영향을 주었고, 궁극적으로 미적 표현형태에 도전해 변화시켰으며, 대안적 정치경제적 영역의 선구자였다. 이 점에서, 그룹들이 운동을 지도하여 의식을 변혁할 역량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미래의 혁명가들에게, 다다와 초현실주의 같은 예술운동은 전위당보다 더 나은 모델일 수 있다.

### 미학적 아방가르드

20세기 대부분 동안, 아방가르드(avant-garde)라는 용어는 예술계에서 개념과 관계에 새로운 차원을 창조한 그룹을 정의할 때 광범하게 사용됐다. 하지만 이 용어는 예술과 정치의 교차점에 기원을 두며, 바로 거기에서 가장 폭발적 해석을 발견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증구성적 행동으로 인식하는 반면, 혁명과 예술은 종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존재에서 사회적 존재로 자신을 건설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최상의 상태에서 예술은 생산자가 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형태의 생산이다.

오늘날 “아방가르드 예술”이라고 불리는 것은 자주 완전히 탈정치화되어 있고, “미학적” 담론은 감성적 경험의 영역, 종교적 구조화를 세속적 등가물인 “예술”로 대체하는 모더니즘 담론의 한 양상이다. 아방가르드 개념의 탈정치화는 예술이 상품(예술시장에서 판매를 위한)이 되는 과정의 일부,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겪는 운명이다. 소비에트 맑스주의는 거만하게 “아방가르드주의”를 “자본주의 및 프티 부르주아 개인주의에 물든” 것으로 공격했고, 동시에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을 물신화하여 예술을 당과 국가를 미화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sup>1)</sup>

19세기 프랑스에서 현대까지 아방가르드 운동 내에서 아방가르드적 실천과 관계된 정치적 영역과 미적 영역 사이에서 상당한 긴장이 명백하다.<sup>2)</sup> 지난 2세기 이상, 미학과 정치를 변혁하려고 노력한 그룹들은 어떤 때에는 보완적 관계로 서로 얽혔으며, 다른 순간에는 분리되거나 심지어 적대적 경향으로 존재했다. 예술운동과 관련하여 “아방가르드”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19세기에(즉, 소비에트 공산주의와 “모더니즘” 시대 이전에), 그런 운동은 단순히 미학의 영역 내부만이 아니라, 사회를 진보시키는 세력으로 생각됐다.

아방가르드 개념은 프랑스에서 혁명정치의 환경과 아카데미의 예술지배에 대한 반대의 교차점에서 등장했다. 1825년, 앙리 드 생시몽이 그의 책 <문학, 철학 및 산업에 대한 의견>에서 “아방가르드”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예술가들은 전위로 복무할 것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무기 중에서 예술의 힘은 가장 신속하고 가장 효율적이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사상을 퍼뜨리고자 할 때, 우리는 차례로 서정시, 송시 또는 노래, 이야기 또는 소설을 이용한다. 우리는 그 사상을 대리석이나 캔버스 위에 새긴다. ... 우리는 마음과 상상력을 겨냥하고, 따라서 우리의 효과는 가장 생생하고 가장 결정적이다.”<sup>3)</sup>

귀스타브 쿠르베, 오노레 도미에, 장 프랑수아 밀레 같은 화가들은 미술이 사회에서 해방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의 초기 옹호자들이었다. 전국적 혁명운동이 실패한 지 1년후인 1849년에 그린 쿠르베의 기념비적 캔버스화 <돌개는 사람들>은 부자나 권력자가 아니라, 보통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묘사했다.<sup>4)</sup> 파리코뮌 동안, 쿠르베는 예술가연맹의 주요 조직가 중의 하나였고, 원래 나폴레옹의 전투승리를 기념해 세워진 방돔궁의 기둥의 파괴를 수행하

1) See the 1973 edition of the now-defunct *Great Soviet Encyclopedia*. For a critique, see Marcuse, *Aesthetic Dimension*.  
2) Paul Wood, *The Challenge of the Avant-Gard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9), 270.  
3) Reprinted in Charles Harrison and Paul Wood, eds., *Art in Theory 1815-1900: An Anthology of Changing Ideas* (Oxford: Blackwell, 1998), 40.  
4) 이 그림은 1945년 영국공군이 독일의 드레스덴 시에 소이탄을 사용하여 수만명을 죽였던 1945년 2월 14일 폭격으로 파괴됐다.

는 것을 도왔다. 비록 그는 코뮌 마지막 “피의 주간”에 벌어진 살육에서 살아남았지만, 감옥에 갇혔고 그의 작품은 전시금지 당했다. 재정적으로 파산한 그는 스위스로 망명해서 몇 년 뒤 거기에서 죽었다.

비록 이 시기 프랑스 예술에서 대부분 빠져있지만, 그 시대의 결정적 사건은 15,000명 이상의 목숨이 희생된 파리코뮌의 유혈진압이었다. 우리는 코뮌 이후 툴루즈-로트레, 모네, 르누아르, 드가 등이 그린 유쾌한 파리의 정경에 너무나 익숙하며, 이 그림들은 오늘날 예술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갖는다. 코뮌 이후 시기 파리의 쾌락을 그린 화가들은 우리 주위에 광기가 넘침에도 야만 속에서 자신을 즐기라고 우리에게 요청한다. 이 과도적 시기에, 인상파는 처음에 수치스런 것으로 간주됐음에도 미술의 결정적 장르로 등장했다. (프랑스 의회는 공적 자금으로 인상파 전시회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고려했다.) 인상파는 자동차가 도시풍경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고 공업이 자연을 쓰레기로 만들기 이전에 20세기의 도시 거주자들이 범죄 때문에 내면으로 돌아서기 이전의 좋은 시절(belle epoch)의 기억을 불러낸다. 인상파의 감각적인 빛과 색채감은 감각의 즉각적인 만족을 주고, 현대의 인기는 상업주의와 개인적 이익에 기반한 사회에서 그 맥락을 위치지움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코뮌 이후 프랑스에서 나온 예술생산의 대안적 흐름은 에두아르 마네의 그림에서 위치지울 수 있다. 비록 마네의 가장 유명한 그림 <초원위의 점심>(Le Dejeuner sur l'herb)은 자주 즐거운 파리생활의 묘사로 간주되지만, 다른 읽기도 가능하다: 마네는 정면의 여성이 관객을 직접 응시하도록 그렸고, 그렇게 하여 그녀가 남성들에게 보통 유보된 주체성을 드러냈다. 흔히 초기 모더니즘으로 이해되는 마네의 캔버스화들은 직접적으로 분명한 것보다 더 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다. <깃발을 든 튀 모니에>(1878년)에서, 도시풍경은 거의 황폐하다. 전면에, 관객에 등을 돌린 다리가 하나뿐인 남자가 목발을 짚고 황량한 거리를 걸어간다. 프랑스 국기가 기이하게 머리 위도 나부끼는데, 애국적 축하만큼이나 위협적인 장치이다. 대조적으로 클로드 모네의 <튀 몽토르귀에, 1878년 6월 30일의 축제>는 코뮌 이후의 파리를 용맹하고 행복한 국가로 만들어, 애국적 행진과 끝없는 국기로 분비고, 그림 정중앙에는 국기가 공중에 신비롭게 펼쳐진다. 예술계의 마네에 대한 평가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것은 그가 코뮌 동안 파리 국민군에 복무한 사실이며, 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이후 <바리케이드>와 <내전>(둘 다 1871년)의 구성에서 결정적 요소였다.

후기 인상파 중에서 카밀 피사로, 폴 시냐크와 자칭 무정부주의 화가들은 예술적 관심과 정치적 관심을 통합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시냐크에게, 예술가들이 “노동자들을 자본에 대립시키는 거대한 사회적 과정에 대한 목격하도록 한” 것은 점묘법(pointillism) 같은 급진적 테크닉이었다. 시냐크는 급진적 예술의 그 내용으로 격하(프루동 같은 정치활동가들이 옹호하는 것처럼)를 맹비난했고, 그 대신 혁명이 “노동계급 주거지 같은 주제 적용되거나... 또는 훨씬 낫게, 데카당스의 쾌락을 종합적으로 표상함으로써 순수 미학에서 더 강력하고 더 웅변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sup>5)</sup> 역사가 사회적 참여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순간에, 시냐크 같은 예술가들은 사회세계를 재구조화하는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단으로 보는 새로운 방식을 선전했다.

예술사에 관한 책이 수백권임에도, 아방가르드를 창조함에 있어 무정부주의자들의 역할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다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피카소는 바르셀로나의 무정부주의 서클에서 등장했고, 파시즘이 에스파냐를 예속시키자 파리의 자유로운 영혼들이 그에게 몽마르트의 피난처를 제공했다. 무정부주의와 예술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에, 1908년 영국의 작가 G.K. 체스터튼은 “예술가는 무정부주의자와 동일하다”고 말했다.<sup>6)</sup> 1905년 아우토노미 살롱에 전시된 <야수파>(Fauves) 또는 앙리 마티스의 표면상 비정치적 작품이 제기한 “문화적 가치에 대한 무정부주의적 위협”(1913년 시카고 미술대학 학생들은 그의 <푸른 누

5) Reprinted in Harrison and Wood, *Art in Theory*, 797.

6) Quoted in Theda Shapiro, *Painters and Politics: The European Avant-Garde and Society 1900-1925* New York: Elsevier, 1976), vii. 영국은 아방가르드 미학과 정치발전에서 오랫동안 프랑스에 뒤쳐져 있었고, 영국에서 “아방가르드”라는 용어는 1910년 <데일리 텔레그래프>지의 평론에서 처음 사용됐다(최소한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따르면).

드>(Blue Nude) 허수아비를 불태웠다<sup>7)</sup>에 대해 고려하든, 아방가르드 예술이 제기한 정치적 위협은 아주 실제적인 것으로 간주됐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체파(Cubism)이며, 500년 이상 유럽미술을 지배한 과학적 단일시점을 급진적으로 해체했다. 입체파는 감각적 쾌락의 촉감세계에 대한 인상파의 집착을 퇴색시킨 지적 예술을 창조했고, 그리하여 예술가들이 시각적 표현과 의식의 문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의 중요한 사례를 제공했다. 인상파처럼, 입체파도 처음에 충격과 혐오를 유발했다. 입체파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각의 세계로부터 구성을 해방시킨 발전을 생각해 봐야 한다.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Les Femmes d'Alger)은 오늘날 20세기 전반기의 가장 훌륭한 작품중의 하나로 간주되지만, 피카소 자신도 그가 생산한 작품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그림을 몇 년동안 침실 벽장에 숨겨뒀다. 출발부터 거의 1세기 후에 입체파를 되돌아보면, 그 영향이 계속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식을 변화시키는 이 과정에 정치운동이 수용할 수 있는 논리가 있을까?

1차대전의 대살륙이 유럽을 쇠퇴시키고 그 정치기관의 야만성을 드러낸 이후, 예술은 그런 유혈사태를 만들어낸 질서정연한 정신에 등을 돌렸다. 다다와 함께 부르주아적 질서정연함에 대항한 궁극적 반항이 등장했다. 놀이, 무작위, 혼돈, 자생성이 아방가르드의 새로운 핵심적 가치로 신성시됐다. 캔버스에 한정하는 대신에, 다다는 콜라주, 음악, 영화, 사진, 조각 등 모든 가능한 매체를 이용하여 유럽문화의 “문명화된 야만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했고, 이 매체들은 다시 자신을 겨냥했다. “예술을 타도하라!” 그들은 절규했다. “다다는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편이다.” 그들은 “한줌의 도적떼에게 버려진 세계의 완전한 공격적 광기”의 파괴를 요구했다.<sup>8)</sup> 운동이 전유럽으로 퍼져나가자, 다다는 급진적 공산주의와 점차 뒤섞였고, 한때 “독일 불세비즘”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러시아 혁명과 그를 뒤이은 내전 동안, 추상적 예술의 새로운 언어는 반혁명을 패배시키는 투쟁에 동원됐다. 다른 어떤 아방가르드 형태의 예술보다 공학(engineering)에 더 가까운 구성주의(Constructivism)가 새로운 사회건설과 제휴한 예술운동으로서 등장했다. 구성주의는 두 개의 다른 원천으로부터 침해당했다. 한편에서, “기능을 따르는 형태”라는 바우하우스 개념으로의 변이로 구성주의는 순수하게 효용론적 시도가 됐고, 혁명이 공고화되자 당국의 제재를 받거나 그 대립물로 변했다. 혁명 후 첫 10년간 아주 활기찼던 소련의 초기 혁명적 추동력이 반혁명으로 전환되고 고참 불세비키들이 스탈린주의 숙청으로 청산되자,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 유일하게 수용가능한 형태의 예술이 됐다. 소비에트 당국은 모든 형태의 아방가르드주의를 비난했다. 1932년 모든 자율적 예술단체들은 법적으로 해산됐고, 억압적 검열제도가 지배하게 됐다.

자본주의적 서구에서, 초현실주의자들은 비록 그곳에서도 급진적 정치사상이 그들의 미학에 영향을 주었음에도 다다의 반개인주의를 부정했다. 최초의 초현실주의 잡지는 <초현실주의 혁명>이었고, 두 번째는 <혁명에 봉사하는 초현실주의>였다. 프로이트의 무의식대륙 발견에 강한 영향을 받은 초현실주의자들은 상업주의적 문화상품화와 전통적인 개인정체성 개념에서 거리를 두는 수단으로서 꿈과 환상을 그렸다. 초현실주의처럼, 다다와 구성주의도 미학적 혁신을 사회질서에 대한 급진적 비판과 결합하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삶의 실천으로 시작된 기관으로서의 예술의 해체”를 추구하고, 이는 “고급 모더니즘”(high modernism)과의 결별이었다. 혁명적 활동가 서클 내에서 등장한 다다와 초현실주의, 구성주의는 정치참여와 미학적 혁신의 관계를 재할성화할 수 있었다. 팝아트, 최소주의(Minimalism), 추상적 표현주의, 행동미술(Action Painting)과 함께, 미학적 형식주의와 정치적 참여 간의 거리는 벌어졌다. 2차대전 후 뉴욕 미술시장에서 그런 그림의 가격은 치솟았다. 노골적으로 급진적인 주제와 관계있는 미술은 거래상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했다. 다다, 초현실주의, 구성주의와 미래주의(이탈리아의 우익적 버전과 러시아의 좌익적 버전 둘다)의 미학적, 정치적 참여를 1945년 이후

7) See Harrison and Wood, *Art in Theory*, 186.

8) See Tristan Tzara, *Dada Manifesto*.

뉴욕미술의 소비주의적 호소력과 비교하면, 선진 자본주의에 의한 상상력과 예술의 식민화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소비주의가 욕망의 대륙을 에워싸고 대량파괴무기가 아름다움의 토대를 파괴하는 시기에는, 예술 자체의 자율적 논리가 구원이 될 수 있다. 이 명백한 모순의 해결은 예술의 형식적 미학 내에서 사회를 변혁하는 진리가 억제된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이다. 마르쿠제에게,

“예술은 오직 예술로서만, 그 자체의 언어와 이미지로 급진적 잠재력을 표현할 수 있고, ... 예술의 해방적 ‘메시지’는 ... 결코 오지 않을 밀레니엄까지 지속될 것이며, 예술은 여전히 소외로 남아야 한다. ... 예술은 혁명을 대표할 수 없으며, 단지 다른 매체로, 정치적 내용이 메타정치적으로 되고, 예술의 내적 필요에 의해 지배되는 미학적 형태로 혁명을 불러낼 수 있을 뿐이다.”<sup>9)</sup>

정치투쟁의 지침에 복종하라는 예술에 대한 호소는 “상상력이 온전히 기능적으로 됐고, 도구주의적 이성의 노예”임을 의미한다.<sup>10)</sup> 특히 민중을 소비주의로 매수하기 위해 그들이 일하고 살도록 체제가 상품을 공급하는 시대에, 예술의 역할은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기에 “민중의 적”의 역할이 되기도 한다.<sup>11)</sup>

### 정치적 아방가르드

혁명적 정치조직들은 미학운동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흔히 생각되지만, 현대 소비주의의 바로 그 성공이 일상생활의 미학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창출했다. 마르쿠제가 그 모순을 제기했듯이, “예술의 자율성은 자유롭지 못한 사회에서 개인의 부자유를 반영한다. 사람들이 자유롭다면, 예술은 그들의 자유의 형태이자 표현이 될 것이다.”<sup>12)</sup>

예술가들이 공공연하게 정치적 관심에서 거리를 두자, 2차대전후 운동의 활동가들은 동시에 정당으로부터 자율적으로 되었고, 미학적 아방가르드의 차원을 일상생활을 변혁하는 실천적 시도에 통합했다. 다다의 불확정성과 우연 개념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은 모더니즘 음악가들에 기원을 둔 플럭서스(Fluxus)는 네덜란드의 프로보(Provos), 오렌지 자유국가(Orange Free State), 카부터(Kabouters), 프랑스의 상황주의자들(Situationists), 독일의 전복행동(Subversive Aktion), 미국의 디거(Diggers)와 이피(Yippies) 등의 정치그룹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동일한 순간에 예술계를 재할성화했다. 많은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그룹들은 일상생활의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 주요 대도시의 거리를 이용했다. 민중생존의 문법을 변혁하고 삶의 미학적 형태를 바꾸려고 노력한 이피들은 뉴욕 증권거래소 바닥에 돈을 뿌렸고, 이는 뛰어난 다다적 행동이었다. 그들은 중개인들이 달러지폐를 주우려고 하자 주식거래를 중단시키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무한경쟁(rat race)에 대한 젊은이들의 거부를 광범하게 알리기도 했다. 1968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돼지를 출마시킨 이피들은 정치인들의 이미지 계산법을 영원히 바꿨으며, 이는 미국만이 아니다. 스투 엘버트가 회상한 것처럼, 이피는 1960년대 전지구적 대항문화 속에서 헤엄쳤다. “1971년 독일에서, 제리 루빈, 필 옥스와 나는 다니엘 콘-벤디트와 며칠 동안 지냈다. 금방 친해졌다. 그는 내가 보안관 선거에 출마했었다는 사실을 무척 좋아했고, 계속 우리가 모두 서부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행동했다. 카부터? 우리는 암스테르담의 인도네시아 잔디밭에서 그들과 함께 며칠을 보냈다. 그들은 일종의 우드스톡 국가인 오렌지 자유국가의 창설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리와 나는 프로보의 영향을 받았다.

이피들은 매드매거진(Mad Magazine), 아르토드(Artaud), 진 셰퍼드와 닥터 스트레인지러브에서

9) Herbert Marcuse, , *Counterrevolution and Revolt* (Boston: Beacon Press, 1972), 103-4.

10) Ibid., 107.

11) Marcuse, *Aesthetic Dimension*, 35.

12) Ibid., 72-3.



다다와 초현실주의까지 많은 다른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사물을 한데 모아, 이상하고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배열하여, 충격을 주고 관심을 끌고 핵심을 지적하는 감각을 가졌다.

우리는 TV가 의식의 확장이 됐고, 이제 코뮌적 인간두뇌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의 목표는 너무나 다르고 재미있어서(백만장자 주식중개인에게 돈을 던지고, 돼지를 대통령에 출마시키는 것) TV에 보여지면 대량사고의 중독된 패턴을 전복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거리와 그 물건들을 TV 이미지 창조를 위한 무한한 야외 소품들로 바꿔놓았다.”<sup>13)</sup>

이피들은 작은 직접행동이 정당보다 현대사회의 변혁에 더 적합한 수단일지 모른다는 관념을 자극했다. 1968년 5월 학생반란이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되자, 작은 그룹의 선배 활동가들이 갑자기 소르본을 점거했고, 운동의 집중적 모임장소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냈다. 해방된 소르본은 상이한 직업과 계급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포럼이 됐다. 이것은 우리가 20세기 후반 작은 그룹의 아방가르드 행동이 더 커다란 변화와 운동을 촉발했다고 지적할 수 있는 한 사례이다.

예술은 전략적 행동의 모델 외에도, 전술적 혁신을 제공할 수 있다. 2000년 세계은행 반대시위에서, 완전 전투군장을 한 워싱턴 DC 전투경찰이 대오를 갖추고 해산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한 수천명을 해산할 준비를 하자,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침착하게 대형카세트의 볼륨을 최대한으로 높인 채 스타워스의 주제곡을 틀었다. 그 순간, 어떤 다른 수단도 전투경찰을 무장해제 시키는 데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전투경찰은 물러나서 자신의 어리석은 복장을 보고 웃었다.

예술가들은 또한 운동의 정체성 형성에서 중심적 인물들이며, 특히 반란자들이 공적 공간을 점거했을 때 그렇다. 해방광주에서 광대 연극단은 일일집회의 조직화와 무대관리를 지도했다. 홍성담과 같은 화가들은 운동의 열망을 대표하게 된 목각판화를 만들었다. 티아난먼 광장에서 미술과 학생들은 봉기의 가장 지속적 상징인 민주주의의 여신상을 만들었다. 다양한 그룹의 예술가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토지를 경계지어 합병하려고 세운 1백마일 이상의 불법장벽을 거대한 갤러리 공간으로 바꾸어 장벽반대를 표현했다.<sup>14)</sup>

맑스가 공장생활의 단조로운 규율이 해방적 프롤레타리아트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올림픽이나 월드컵(민족주의적 포장에도 불구하고)같은 소비사회의 스펙터클이 인류의 국제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실을 목격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민중은 전보다 더 서로를 밀접하게 동일시한다. 에로스 효과를 통한 봉기의 확산은 그런 보편적 정체성에 대한 하나의 강력한 지적이며, 국경을 넘어선 전술적 혁신의 재생산도 그렇다. 20세기 후반에 전지구적으로 실현된 시위에 대한 한가지 접근은 블랙블록(Black Bloc: BB)이며, 의회와 게릴라전술 양자에 대한 전투적 대안이다. 주요 시위에서 검은 옷으로 위장한 활동가들이 급진적 대오를 형성했고, 운동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가리키는 타겟을 공격했다. 미국 대통령 레이건의 베를린 방문의 대치로부터(미국이 핵무기 경쟁을 가속화했을 때) 남독일의 바커스도르프 핵재처리공장(독일에 무기등급 플루토늄을 제공할) 반대투쟁까지, 블랙블록은 기존 전지구적 체제 전체의 부패에 대한 저항을 열었다. 블랙블록의 의식적 자생성은 소수의 무장행동이 아니라 민중의 참여와 가두진출에 의존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선 일련의 지속적 대치는 훨씬 더 커다란 동원의 주기를 가져왔고, 민중적 격변을 각성시키는 중요한 차원이다. 학계와 전문적 활동가들이 조직적 노력과 자원축적을 운동건설의 중심적 과제로 강조하지만, 대치정치는 다른 어떤 것과 달리 민중의 의지와 상

13) Interview, Stew Albert, Portland, Oregon, December 3, 1999.

14) See Zia Krohn and Joyce Lagerweij, *Concrete Messages: Street Art on the Israeli-Palestinian Separation Barrier* (Arsta, Sweden: Dokument Press, 2010).

상력을 분출시킨다. 1980년대 가두행동과 대치의 와중에서 형성된 국제적 네트워크는 거대 초국적기업의 인류의 부에 대한 통제 반대와 대항세계화 운동의 씨앗이 됐다. 국제적 시위에서 많은 언어집단과 문화 출신 활동가들의 자연발생적 응집은 전지구적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모든 수단이다. 대치정치의 순간에 정치적 정체성의 형성은 장기지속적 사회운동의 창출에서 중요하다. 아주 많은 젊은이들이 수십 년간 활성화됐다는 사실은 대치정치의 전술적 공명, 세대에서 세대로 시위를 혁신할 능력을 보여준다.

전투적 가두대치는 필요와 욕망의 심적 재작동의 도가니이자, 엄청난 변혁적 가치를 가진 현실의 무대이다. 제노바 이후, 한 블랙블록 참가자는 필자에게 자신의 경험이 “과거 몇 년간 모임보다 며칠만에 나를 더 많이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다른 활동가는 그것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라고 했다. 만약 소비자 문화가 일종의 식민화라고 받아들인다면, 블랙블록의 맥도널드, 나이키 매장과 은행 파괴가 구체적 탈식민화이며, 기업통제로부터 공간의 해방이자 경찰이 통제하지 못하는 자율적 공간의 창출이다. 오래전에 파농이 발견한 것처럼, 폭력은 탈식민화 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블랙블록의 통제된 폭력은 거리에서 개인들의 심적 재작동일 뿐만 아니라, 체제 전체에 대한 반대의 순간이다. 민중의 해방열망을 구체화함으로써, 수십년의 귀먹게 하는 소비주의와 쇠약하게 하는 안락을 하루밤 사이에 던져버릴 수 있다. 기존의 전지구적 체제의 책임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전투적 대치는 중요한 장기적 영향을 가질 수 있다.

전투적 행동의 전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한때 활기찬 행동의 의례적 반복으로 굳어지면 그 유효성은 급속하게 상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지어 상황주의자들처럼 과거에 활기찬 그룹들도 이데올로기적 종파로 굳어지자 운동보다는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자크 랑시에르가 말했듯이, “전후시대 아방가르드 예술운동에서 나와서 1960년대 정치의 급진적 비판으로 발전한 다음, 오늘날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적’ 대역으로 행동하는 환멸스런 담론의 일상으로 흡수된 상황주의 담론의 궤적은 의심할 바 없이 미학과 정치의 현대적 부침과 아방가르드적 사고의 향수로의 변신의 징후이다.”<sup>15)</sup> 전투성의 의례화 문제와 더하여, 블랙블록에는 또한 경찰이 상당히 침투했고, 경찰 공작원이 시위대를 공격해서 시위대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연출했다.

운동의 중산층 분자들은 모든 종류의 전투성을 악마화한다. 시위의 대규모 평화시위대와 나란히 전투적 가두대치로의 분화는 현대 운동의 다양성, 공동으로 인식한 문제에 대한 시위로 결합한 집단의 다양성과 자율성의 반영이다. 하지만 일부 집단은 획일적 통제를 강제하려고 애쓴다. 일부 “평화주의자들”은 1999년 시애틀에서 보다 전투적인 시위대를 물리적으로 제한하고 가면을 벗김으로써(심어 경찰이 그들을 체포하는 것을 도왔다), “규율”을 강제했다. 활기찬 다양성의 더 나은 사례는 2000년에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대항세계화운동은 세계은행과 IMF의 총회에 맞선 시위를 위해 프라하에 모였다. 다양한 범위의 전술의 통일성은 도시의 여러 지역에서 도착한 색깔별 대오로 정점에 도달했다. 많은 은행가들은 회의에 참석하러 불비는 거리를 뚫고 지나갈 수 없었고, 총회는 일찍 휴회해야 했다. 운동 내에서 다양성과 즉흥성은 성공적 저항을 촉발한 열쇠였다. 분명하게, 비록 모든 측면에서 흑백의 선이 그려지긴 하지만, 어떤 하나의 전술이나 조직은 해결책이 아니며, 문제도 아니다.

## 봉기 2.0: 가상 코윈의 건설

대중시위의 물결을 건설하는 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인간통제 외부의 낮은 힘으로서 역사적 발전과 체제의 힘은 투쟁의 가능성을 미리 규정한다. 우리 자신이 선택한 조건에 따라 미래를 만들 수는 없지만, 최근의 봉기에서 분명한 것처럼 주요한 순간에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군중의 지혜는 시위 동안 상승하는 동학이었다. 2001년 경제위기가 벼락처럼 닥쳐서 하루밤 사이에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15) Jacques Rancière, *The Politics of Aesthetics* (London: Continuum, 2004), 9.

봉괴했을 때, 자율적 풀뿌리 동원은 환상적이었다. 2008년 남한에서 촛불시위처럼, 민중은 어떤 지도자도 용인하지 않았다. “군중에 합류하려 했던 소수의 정치지도자들은 거부당했다.”<sup>16)</sup>

민중은 IMF/세계은행의 궁핍화에 굴복하길 거부했고, 협조주의적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동원했다. 자주관리적 노동자평의회와 직접민주주의 형태들이 전국적으로 꽃피웠다. 아시아의 봉기에서 나타났던 것과 비슷한 그런 참여적 형태의 협치는 민중의 직접민주주의 역량과 열망에 대한 중요한 지적이었다. 직업, 식량, 교육을 요구한 젊은 피케테로tm(piqueteros)들은 거리봉쇄를 조직했다. 정부와 협상할 대표를 보내지 않겠다고 주장한 그들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도록 도로봉쇄 장소에서 모든 결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2002년 6월 26일 정부는 더 이상 봉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수천 명의 민중이 동원했고, 수백명의 경찰도 출동했다. 픽업트럭과 소총을 사용한 경찰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전역에서 피케테로스를 사냥했고, 1백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히고 최소한 160명 이상을 체포했다.<sup>17)</sup> 노동자들은 공장, 호텔, 사무실을 접수했고, 자본가들보다 더 생산적으로 운영했다. 수백 개의 마을 민중회의가 결성되어 미래의 행동과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매주 회의를 열었다.

비슷한 동학이 2006년 멕시코에서 나타났다. 교사파업으로 시작된 것이 와하카시의 해방과 그에 대한 정부의 공격으로 이어졌다. 교사들이 학생 신발 같은 하찮은 물품을 요구한 다음, 그들은 멕시코 시티의 선출된 정부에 손에 와하카의 주변화로 오랜 동안 분노한 도시 주민들을 끌어들이었다. 풀뿌리 진원지인 APPO(와하카 민중회의)는 도시의 통제를 위해 투쟁하는 시민들의 지속적 동원에서 성장했다. 민중적 참여평의회는 수개월 동안 도시의 사실상의 정부였고, 광주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코뮌형태였다. 도시를 재장악한 수천명 경찰의 지속적 물리적 공격과 살상으로 얼룩진 투쟁에도 불구하고, APPO는 영향력이 크게 줄었어도 계속 저항했다.

사파티스타에서 아레키파(페루)의 코뮌나르드까지, 라틴 아메리카 민중의 일상적 삶은 투표, 시위, 모든 종류의 정치적 활동(선거와 민중봉기를 포함한)을 통해 개선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검은표범당이 만들어낸 슬로건인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는 차베스의 볼리바르주의 정부에 의해 아래로부터 민중행동을 고무하기 위해 사용된다. 차베스 정부는 남반구은행(Bank of South)을 설립했고, 그 목표는 지역경제에 대한 IMF와 WB의 약탈적 지배를 제거하는 것이다. 남반구은행은 베네수엘라의 모든 외채를 거의 상환했고, 전지구적 기구들을 몰아내기 위해 합리적 이자율로 엄청난 액수를 다른 나라들에 빌려줬다. 그들은 의료전문가들과 교환으로 쿠바에 석유를 보냈고, 그 결과 베네수엘라의 많은 사람들이 평생 처음으로 의사를 보게 됐다. 비록 이 운동이 차베스에게 많이 빚지고 있지만, 그것은 차베스나 베네수엘라에 한정되지 않는다.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은 풀뿌리 운동의 확대되는 토대를 반영한다. 라틴 아메리카 사회운동은 수세기 된 종속과 위계제 관계를 철저히 파괴하기로 약속했다. 민중동원이 강화되자, 중도좌파 정권들이 등장했지만, 거리의 운동을 억제하고 소멸시켰다. 그 이후 꿈, 남아있던 민중적 성과의 지표가 감소한 반면, 지역의 전통적인 형태의 종속, 예를 들어 상품수출국 역할과 엘리트 지배의 종속은 회복되기 시작했다.<sup>1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들이 단일한 지도자나 정당으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풀뿌리 변화를 활성화한다. 로저 버바치는 그들의 비의회적 토대를 처음으로 묘사한 사람 중의 하나였다: “남아메리카에서 국가변혁의 새 모델은 진보적 사회적 주체와 운동의 복잡한 혼합체에 기반한 광범한 정치적 연합을 건설한 데 뿌리를 둔다. 이 과정에서 정당의 바로 그 역할은 격렬한 논쟁의 주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당의 중심성을 거부하고, 정

16) Carlos Gabetta, “Argentina: IMF Show States revolt,” *Le Monde Diplomatique*, January 2002, as quoted in Starr, *Global Revolt*, 77.

17) John Jordan and Jennifer Whitney, *Que Se Vayan Todos: Argentina’s Popular Rebellion* (Montreal: Kersplebedeb, 2003), 42.

18) See James Petras and Henry Veltmeyer, *What’s Left in Latin America? Regime Change in New Times* (Surrey, UK: Ashgate, 2009) for further discussion.

당이 내적으로 위계적(그리고 자주 가부장제적)이고 따라서 진정한 민중참여에 적대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들은 ‘사회운동의 정당’이라고 스스로 정의하는 볼리비아의 사회주의를 향한 운동(MAS) 같은 ‘새로운 유형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19)</sup>

그런 자의식적 자율성의 대규모 분출은 라틴 아메리카에 국한되지 않는다. 2008년 남한에서 2001년 아랍의 봄까지, 시위자들은 조직하고 서로 돕기 위해 인터넷, 특히 페이스북과 탈중심적 조직을 이용했다. 튀니지인들은 경찰에 부상당하는 경우 다른 활동가들이 와서 도울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올렸고, 경찰부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려 활동가들에게 피해야 할 지역을 알려줬다. 대안적 시각의 주류언론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인터넷이 동원과 정보의 귀중한 수단이 됐다(최소한 당국이 인터넷을 폐쇄하기로 판단하기 전까지). “똑똑한 군중”은 실시간 동원을 위해 휴대전화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이미 본 것처럼, 1992년 타이 시위대는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1989년 중국학생들은 통신을 위해 휴대용 팩스를 사용했다. 2001년 1월 필리핀에서, 문자 메시지는 수백만명을 동원하여 조셉 에스트라다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2007년 버마 활동가들은 외부 세계와 통신하기 위해 영상전화와 블로그를 이용했다. 사실, 씽크몰도바(ThinkMoldova)의 설립자 중 하나인 나탈리아 모라르는 최초의 15,000명 시위의 배후조직이 “6명, 10분간의 난상토론과 결정, 몇시간 동안 네트워크, 페이스북, 블로그, SMS, 이메일을 통한 정보의 전파”라고 설명했다. 다음날 아침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사용해 사람들에게 다시 모이라고 해서 수천명이 동원됐지만, 이번에는 경찰과의 충돌이 벌어졌고, 정부건물이 공격받았다. 193명의 체포 이후, 트위터는 시위에 관한 수백 가지 이야기를 퍼뜨렸다. 정부는 즉시 인터넷을 폐쇄했다.<sup>20)</sup>

2008년 새로 선출된 보수적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산 쇠고기에 반대한 시위의 물결인 한국의 “촛불혁명”을 보면, 비슷하게 혁신적인 형태의 조직화 행동을 목격할 수 있다. 모든 계층의 참가자들을 모은 집회의 공개마이크, 지도부의 순번제, 새로운 부문의 등장(초기 단계에 시위를 시작하고 이끈 여중생과 여성 네티즌). 한국인들 사이에서 광범하게 인정되는 것은 “축제같은” 분위기와 “지도자없는” 운동이었다. 대통령을 “2메가바이트”(이름을 이용한 장난)라고 부른 10대 소녀들은 한국의 사전과 가장 강력한 정치의 정치적 위상을 유머스럽게 바꿨다. 한겨레신문의 기사는 봉기의 분위기를 포착했다: “서울광장은 게임과 풍자, 웃음의 축제장이 됐다... 정부에 대한 엄숙한 저항은 사라졌고, 분노는 풍자로 바뀌었다. ‘축제’에 참가한 가족, 대학생, 회사 노동자들은 서로 알지 못해도 하나가 됐다... 음식을 나눠먹으면서 시민들 간에 새로운 유대가 끈끈해졌다”<sup>21)</sup>

거리에서 사람들의 숫자가 치솟자, 경찰은 시위대를 분리하려는 시도로 대응했다. 경찰버스와 화물 컨테이너가 갑자기 주요 거리의 엄청난 방어벽으로 쌓였다. 즉시 누군가 버스를 끌어내어 로프를 온라인으로 요청하자, 몇 분 안에 로프가 도착했고, 사람들은 차단벽을 옆으로 밀어내고 군중은 앞으로 밀려나갔다. 고등학생들이 장미를 전투경찰에게 주자, 연인들은 시위에서 만나서 데이트를 했다. 보수적 언론이 시위대의 “폭력적” 성향을 비난하고 시위대의 압도적으로 평화적 성격을 왜곡하자, 네티즌들은 “시위 2.0”에 대한 그들 자신의 설명을 방송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럴 권한을 주지 않았지만, “블박이” 시민들은 기자가 되어 자기 노트북을 사용해 실시간 보도를 방송했고, 한편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은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채팅을 했다. 유튜브를 이용해서 보도를 올리는 활동가 웹사이트들이 곧 생겨났고, 이는 한스 엔첸베르거가 수십 년전에 주장했던 것, 즉 모든 수신자가 송신자가 되는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실행했다. 곧 주류언론은 네티즌을 인용하기 시작했다.<sup>22)</sup> 1987년 6월항쟁의

19) See Roger Burbach, “Ecuador’s Popular Revolt: Forging a New Nation,” in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40, no. 5 (September/October 2007), 5. For parallel European developments, see Carl Boggs, *Social Movements and Political Power: Emerging Forms of Radicalism in the West*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6).

20) Ellen Barry, “For Protesters in Moldova, the Revolution Will Be Tweeted,”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9, 2009.

21) “Protests Against U.S. Beef Imports Transforms into a Huge Festival.”

기념일인 2008년 6월 10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국역사상 최대의 시위가 됐다.<sup>23)</sup> 촛불시위 동안 서울의 시민기자들이 만든 미니 TV방송국은 2007년 봉기에 대한 비디오, 사진, 설명을 내보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버마의 용감한 기자들과 유사한 사례였다.

웹사이트와 인터넷 통신의 다양성과 변성은 운동의 탈집중화와 이데올로기적 획일성의 거부에 기여한다. 이런 의미에서 소셜미디어는 민중 위에 군림하는 “의식적 분자”의 필요성 감소를 지적한다. 소셜미디어는 집단적 지성을 증가시키는 자원이며, 풀뿌리 참여와 통제를 결정화하는 참여민주주의의 도구이다. 웹 사용자의 집단적 지성은 사람들이 새로 발견한 민중 권력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줬다. 대통령을 2MB로 이름짓는 한국 시위대의 역량은 사람들이 현존 권력을 초월하기 위해 역설과 장난스런 비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일 사례일 뿐이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새롭지만 식민화된 방식으로 우리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지성과 직접행동 역량이 봉기의 현상적 형태를 재형성할 감독없는 집단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아방가르드 집단의 문제의식은 민중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에너지를 유지하고 상상력을 촉발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봉기를 보면, 이 통찰력은 광주와 버마의 비교에서 얻을 수 있다: 탈집중화된 풀뿌리 반란이 하향식 봉기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 특히 단 한 명의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존하면, 1988년 이래 여러 세대의 버마인들이 견뎌낸 치명적 패배에서 드러난 것처럼 집중화된 지도력의 약점은 너무나도 명백하다.<sup>24)</sup> 오늘날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 지명됐든 민주적으로 선출됐든 어떤 종류의 통치자보다 더 지성적임을 알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 중의 하나인 남한에서, 네티즌들은 한국정치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직접민주주의 전망이 광범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들이 예측한 전자민주주의의 이상은 엘리트 주도의 대의민주주의 대신에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본질적인 참여민주주의를 획득하는 것이다. 전자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택하는 전통적 참여방법을 고수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당, 투표 또는 이익집단 같은 정치적 매개를 통한 간접참여보다 일상생활에서 직접참여를 선호한다. 정치적 참여의 모델은 집단에 기초한 개인에서 네트워크에 기반한 개인으로, 그리고 대표자 선출에 초점을 맞춘 간접참여에서 의제의 수립, 여론의 동원과 의사결정으로 구성된 직접참여로 변했다. 이 일상적인 직접적 정치참여방법은 민주적 정치체제의 핵심인 ‘국민에 의한 지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sup>25)</sup>

현대적 테크놀로지는 전에 가능하지 않았던 규모로 협의민주주의와 자율성을 용이하게 한다. 몇 년 전에, 풀 마틱은 민족국가 또는 심지어 노동자 자주관리가 아니라 대중적 시민평의회가 생산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력있게 주장했다. 역사상 어느 때보다 더욱, 모든 민중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무엇을 생산할지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심지어 필요하기도 하다.

22) See Ronda Hauben, [http://www.columbia.edu/~rhauben/percent7Erh120/other/netizens\\_draft.pdf](http://www.columbia.edu/~rhauben/percent7Erh120/other/netizens_draft.pdf)

23) 한국에서 촛불시위는 오랜 역사를 가지며, 최소한 1975년 오충일과 김대중이 군부독재에 대한 투쟁을 극적으로 만들려고 조직한 바 있다. 2002년 두 명의 여중생이 미국 탱크에 비극적으로 사망하자, 몇 달에 걸쳐 촛불시위가 일어나서 모스크바, 워싱턴 DC 등까지 한국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확산됐다. 한 온라인 제안에 약 15,000명이 11월 30일 첫 촛불시위에 모였고, 두 주 후에 100,000명 이상의 시위대가 서울 중심가에서 촛불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24) 버마와 한국에서 운동에 대한 가한 권력은 아주 커서 봉기운동이 군부에 의해 학살당하고 있을 때, 미국 항공모함이 구조하러 온다는 소문이 퍼졌다. 한국의 경우 항공모함은 광주의 봉기자가 아니라 군부정권을 지지하기 위해 파견됐다. 버마에서 그런 미국 군함이 버마 해역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비록 사실 아니더라도 소문은 희망과 바램을 표현한다. 미국의 권력이 민주주의 편에서 개입하길 기대했다. 모든 곳에서 실망은 명백했다.

25) Yun Seong-Yi,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New Internet Era,” *KoreaHerald*, January 18, 2008. For a prescient analysis of participatory democracy, see Michael Hauben, “Participatory Democracy From the 1960s and SDS Into the Future On-line,” available at [www.columbia.edu/~rhauben/CS/netdemocracy-60s.txt](http://www.columbia.edu/~rhauben/CS/netdemocracy-60s.txt).

## NGO의 역할

비록 성공하지 못해도, 봉기는 새로운 집단의 형성을 자극하고 더 많은 자유에 대한 민중의 열망을 촉발한다. 이 책에서 논의한 모든 경우에, NGO, 시민단체, 자율적 언론, 기타 시민사회 기관들의 폭발적 출현은 민중봉기의 후광 속에서 이뤄졌다. 진보적 활동의 아우라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수많은 주요 NGO 인사들은 급여도 빈약하고 위험한 사회운동 활동에서 하층민의 필요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넉넉한 세계의 유혹을 받았다. 산업화된 북반구의 다수가 wmf기는 변영의 수준으로 살 만큼 후원자에 급여를 받으면서, 과거의 활동가들은 자신의 사회적 토대에서 유리되고, 그 대신에 잠재적 반대집단을 통제하면서 자신을 도울 토착 동맹자를 필요로 하는 국제적 엘리트들과 제휴한다.<sup>26)</sup> 미국 기관들은 미국의 이익에 우호적이고 전지구적 기업체제에서 하위 엘리트로서 봉사하고자 하는 토착 지도력을 건설하기 위해 대상국가의 NGO들에 자금을 대주었다. 제임스 데이비스가 재치있게 비꼰 것처럼, “NGO와 제국주의의 관계는 보헤미안적 예술가들과 도시미화의 관계와 같다.”<sup>27)</sup>

1945년 UN이 창설되었을 때 회원국가나 정부가 아닌 자문역을 포함하기 위해서 비정부기구(NGOs)로 공식 인정받은 NGO들은 오늘날 그 숫자가 결코 적지도 않고 그 영향력도 결코 주변적이지 않다. 그 숫자의 첫 번째 대규모 증가는 1968년 전지구적 반란 이후에 이뤄졌다. 1985년, <국제단체 연감>은 7,109개 NGO의 존재를 지적했다.<sup>28)</sup> 1999년 제임스 페트라스는 제3세계에서만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최소한 100억 달러 이상을 받는 50,000개 이상의 NGO를 집계했다.<sup>29)</sup> 1년 뒤 다른 추산은 미국에 2백만 개의 NGO들, 인도아에 1백만 개 이상의 “플뿌리 그룹들”이 있다고 밝혔다. 1988년과 1995년 사이에 약 100,000개의 NGO들이 동유럽에서 시작됐다. 적십자에 따르면, 2000년 세계의 NGO들은 “세계은행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다.”<sup>30)</sup>

국제적으로, NGO 숫자는 엄청나게 증가했다.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영역에 대해 숫자를 제시하면, 국제NGO(INGO)는 아래 표30에서 보는 것처럼 500퍼센트 이상의 경이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표 30: 초국적 사회운동 조직들의 숫자 1973-2003년

연도	숫자
1973	183
1983	348
1993	711
2000	959
2003	1011

Source: Jackie Smith and Hank Johnston, eds., *Globalization and Resistance: Transnational Dimensions of Social Movements*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2003), 32.

위의 숫자는 최소수치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1996년 INGO 숫자를 26,000개(1990년 6,000개)로 추정하며, UN은 INGO 수치를 2002년 37,000개로 산정한다.<sup>31)</sup>

26) Robinson, *Promoting Polyarchy*.

27) Quoted in James Davis, “This is What Bureaucracy Looks Like: NGOs and Anti-Capitalism,” *The Battle of Seattle: New Challenges to Capitalist Globalization* (New York: Soft Skull Books, 2002), 178.

28) Nerfin, “Neither Prince Nor Merchant,” 172.

29) See James Petras, “NGOs: In the Service of Imperialism,”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29, no. 4 (1999), 429-440.

30) *The Economist*, quoted in Heather Gautney, *Protest and Organization in the Alternative Globalization Era: NGOs, Social Movements, and Political Parti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0), 89.

31) Gautney, *Protest*, 88.

팝스타 보노가 화려하게 장식한 NGO들은 원주민 저항을 진정시키기 위해 기성 제국체제와 함께 일하는 기능을 담당했던 선교사들의 역사적 발걸음을 따른다. 마치 노동조합이 기업에 노동계급을 순응시키는 수단이 된 것처럼, NGO들도 체제의 최악의 과도함을 완화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하며, 또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의 흔적을 뿌리 뽑은 다음, NGO들은 사회서비스를 민영화하는 방식이 됐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최근 NGO 호황의 주된 이유는 서구 정부들이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민영화의 문제이다.”<sup>32)</sup> 정부와 기업이 점차 전지구적 시민사회에 개입하면서, NGO들은 시민운동에서 등장한 과거에 자율적이었던 영역에 대한 그들의 침투도구가 됐다. 1990년대 기업들의 기부는 거의 3,850억 달러로 두 배나 늘었다.<sup>33)</sup> 세계은행은 80명 이상의 시민사회 국가별 담당자들이 이끄는 네트워크를 통해 NGO의 참여를 추구하고, WTO의 1994년 마라케시 협정은 NGO과의 “협업과 협력”을 위한 문을 열었다.<sup>34)</sup>

일단 “측근들”이 타도되고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전지구적 은행과 기업들로 대체되면, NGO들은 하층의 요구를 민영화하고 저항운동을 탈동원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의 진보적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적 활동가들을 자기 행정부에 끌어들이므로써, 거리시위를 꺾었고, 진보적 조직들의 활동가 회원은 급감했다. 보수파가 권력에 복귀하자, 시위는 다시 시작됐고, 저항은 다시 활력을 얻었다. 독재에 비해, 민주정부는 대항문화적 공간처럼, 여성, 동성애자, 청년 등 하층그룹에게 새로운 기회와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한다. 한국에서 민주주의 쟁취, 남아프리카에서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식, 미국에서 인종주의와 성차별의 완화, 하층 민중의 권리 확대 추진 등 모든 민중의 승리는 전문적 활동가들이 개인의 경력을 쌓을 무대를 창출한다. 흔히 전문적 활동가들과 특수집단들은 체제에 대한 도전을 완화하는 효과를 갖는데, 국제 기부자들이 자칭 지도자들에게 주는 물질적 보상 때문만이 아니라, 민중의 필요를 관리가능한 개량주의적 경로에 틀을 맞춤으로써 그렇게 한다. 군사화된 민족국가를 탈정당화하고 약탈적 초국적기업들을 사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적 시민사회를 구성할 필요에 대한 민중적 직관은 체제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NGO 전문가들의 논리와 상충한다. 전문적 활동가들은 근본적 변화의 언어를 말하지 모르지만, 이때뉴얼 왈러스틴이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그들은 “양극화되고 불평등한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녹색우주, 다문화 유토피아, 만인의 기회 등 반체제적 운동에서 등장한 슬로건들”을 사용한다.<sup>35)</sup>

전지구적 엘리트들과 어깨를 부딪히는 국제적 회의에서 돌아온 NGO 활동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양성평등” 같은 구호로 “진보”와 “계몽”의 언어를 말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적응을 고무한다. 국제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NGO들이 민주적 구조를 갖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들이 기업세계화에 반대하는 경우는 훨씬 더 드물다. 하위집단의 파편화를 촉진함으로써, NGO들은 자주 체제 전체에 대한 명확한 비판에 장애가 된다. 그들은 자주 반란을 기존체제로 포섭하고 급진적 요구를 개량주의적 결과로 전환시키는 수단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사회”란 용어는 계급분리를 모호하게 하는 수단, 국제자본과 세계은행과 WTO같은 기관들이 침투하여 풀뿌리 에너지를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는 데 외피가 됐다. 제임스 페트라스가 발견한 것처럼, 비록 NGO들이 공적 이미지를 “권위주의적 국가주의와 야만적 시장자본주의 사이의 제3의 길”로 포장해도, “시민사회의 전위”라는 그들의 주장은 사기다. 오히려, NGO들은 오늘날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한 불평등을 자주 모호하게 한다. 페트라스가 상기시키듯이, “노동자들에 대한 최대의 불의는 대부분 국내부채에 대한 과도한 이자지불을 쥐어짜내는 시민사회의 부유한 은행가들, 농민들을 땅에서 쫓아내는 지주들과 노동자들을 착취공장에서 기아임금으로 탈진시키는 산업자본가들이 자행한다.”<sup>36)</sup>

32) Quoted in James Davis, “Bureaucracy,” 177.

33) John Keane, *Global Civil Socie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83.

34) Jody Jensen and Ferenc Mészlivetz, “Global Civil Society: From Dissident Discourse to World Bank Parlance,” in *The Languages of Civil Society*, ed. Peter Wagner (New York: Berghahn Books, 2006), 196-197.

35) See *New Left Review* 62: 141.

그런 조직된 작은 그룹의 잠재력에 대해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도록, CIA와 국제투기꾼 소지 소로스가 그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살펴보자.

### NGO와 변화하는 미국개입의 성격

미국과 민주적 반란물결의 관계는 기존 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주제이다. CIA, 전국민주재단(NED)의 더욱 음흉하고 은밀한 개입과 조지 소로스의 기업이해 선전은 상대적으로 다루지 않는 연구영역이다.<sup>37)</sup> 광주봉기의 진압에서 본 것처럼, 미국은 정치적 자유화를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자유화를 강제했고, 그 이후 수십 년간 반미주의라는 결과에 부딪혔다. 반미적 동기가 1980년대 남한에서 미국의 엄청난 투자에 위협이 될까 걱정한 미국은 자본주의적 세계시장을 확대하고 “측근” 체제가 봉쇄한 경제에 침투하기 위해 민주적 봉기의 물결에 올라타기 시작했다.

비록 공산주의에 대한 마르코스의 전쟁 등 미국에게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필리핀은 문제의 또 다른 경우다. 1980년대 초반 공산당계 신인민군은 수천 명의 남녀를 무장시켜 농촌의 광대한 지역을 해방시킨 반면, 필리핀 육군은 적절한 의료나 장화조차 없었다. 전쟁에 사용하라고 미국이 제공한 헬리콥터들은 야전의 부대에서 사용되지 않고, 마르코스의 친구나 친척들의 호화파티에 손님을 나르는데 사용됐다. 마르코스는 측근들에게 부를 축적할 권한을 줬다(자신과 이멜다가 뉴욕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계좌에 축적한 개인재산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에 우호적인 엘리트들이 통제하는 의회정권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대항하고 미국의 기업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친미독재보다 더 유리했다.

1990년대 후반 “색깔혁명”(때로 “벨벳혁명”이라고 불리는)<sup>38)</sup>은 슬로바키아(1998년), 세르비아(2000년), 벨라루스(2001년과 2006년), 그루지아(2003년), 우크라이나(2004년), 키르기스스탄(2005년), 우즈베키스탄(2005년), 아제르바이잔(2005년), 카자흐스탄(2005년) 등 많은 나라에서 발생했다. 이 혁명들은 러시아를 둘러싼 전략적 지역에 일어났고,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전술한 사용해서, 서구의 개입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 이 색깔혁명들은 나토의 제5열인가? 소규모 집단의 효율성이 미국기관들의 숨겨진 역할 처럼 많은 색깔혁명에서 드러난다.

1986년 필리핀 봉기에서 CIA는 RAM 반란군과 24시간 직접 접촉을 유지했고 그들에게 마르코스 군대의 이동에 관한 실시간 첩보를 제공했다. CIA가 지원한 쿠데타는 1953년 이란, 1954년 과테말라, 1963년 브라질에서 일어났다. 1973년 CIA는 산티아고 거리에서 아옌데의 사회주의 정부를 흔들기 위해 주부들이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는 시위를 조종했고 트럭 기사들의 파업을 자극했다. 미국이 인정하지 않은 개입은 때로 1973년 칠레, 1976년 타일랜드, 1980년 한국과 터키에서 신자유주의의 유혈적 강제를 모호하게 한다. 오늘날 정권교체에 대한 CIA의 직접개입은 대부분 불필요하다. 왜냐면 다른 정부기관들이 CIA의 영역이었던 바로 똑같은 프로젝트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보다 최근 형태의 미국개입은 NGO와 시민사회를 통해 반정부세력을 양성하고, 뿐만 아니라 대상국가를 미국/영국 언론의 선전방송으로 폭격하는 것이었다.

2009년 대통령 선거 이후 이란의 야당세력은 선거결과에 항의하여 거리로 나섰지만, 이미 오랜 전에 그들은 서구의 재단들과 일련의 모임을 가졌다. 이란의 메르통신사는 보도했다: “이란 대통령 선거 반년 전에, CIA는 오렌지혁명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다. CIA 요원들은 이란 야당인사들을 만나 터키, 아제르바이잔, 쿠웨이트, UAE(아랍에미레이트연합)에서 그들

36) Petras, “NGOs: In the Service of Imperialism.”

37) An important counterexample can be found in William Blum’s “Anti-Empire Report.”

38) See Timothy Carton Ash, “Velvet Revolution: The Prospects,” *New York Review of Books* 56, no. 19, December 3, 2009.



에게 지침을 줬다. 우드로윌슨센터와 소로스재단이 이란혁명계획을 꾸미고 전략을 완수하기 위해 3,200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했다고 비난받고 있다.”<sup>39)</sup>

공산주의에 반대한 동유럽투쟁에 CIA의 개입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냉전종식 이래, NED, 헤리티지재단, AFL-CIO, 프리덤하우스 등 미국의 재단들은 러시아 근처의 나라에서 활동을 강화했다. 그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정부재정에 더욱 의존하는 “NGO”들의 망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 중부와 동유럽에서 1900-1999년까지 주로 미국 국제개발청에서 나온 “민주주의 지원” 기금 총액은 15억 달러에 약간 못 미쳤다.<sup>40)</sup>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운동의 출현 이후, 전지구적 자본은 이 운동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려고 시도했다. 색깔 셔츠와 플래카드로 완성된 대규모 시위는 문제의 나라 외부로부터 조정되고 자금 지원을 받았다. 미국의 기업이익에 비우호적인 정권에 맞선 많은 세력들 가운데에는 미국의 소리(VOA), 자유라디오, 라디오 자유유럽 등 공산주의에 대한 전쟁의 유물들이 있었다. 억만장자 국제투기꾼 조지 소로스와 같은 신참은 자신의 이익에 비우호적인 정부를 타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다른 관여 그룹으로는 전국민주재단(NED)가 있는데, 이 재단은 2002년 4월 차베스의 타도를 시도하는 데 연루됐다.<sup>41)</sup> 2009년 대통령선거 이후 이란의 탈안정화는 그루지아(장미), 우크라이나(오렌지), 키르기스스탄(튤립), 레바논(삼나무), 벨라루스(데님), 이라크(자주) 미얀마(샤프론), 베네수엘라(흰색), 아르메니아(민들레), 몰도바(트위터) 등의 색깔 혁명과 놀라운 정도로 유사하다.<sup>42)</sup> 이 가운데 CIA의 직접개입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장미혁명(2003년 그루지아)와 오렌지혁명(2004년 우크라이나)이었다.

무대 뒤에서 일하는 미국기관들은 NGO들을 동원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1997년 12월, 시민사회재단의 후원 아래 빈에서 열린 행사에서 NGO와 학생 활동가들이 모여 불가리아 반체제 활동가들의 교훈을 연구했는데, 1월 불가리아에서 소피아 도심의 텐트촌이 경찰에 공격을 받았다. 그로 인한 분노가 촉발돼서 현직 대통령 젤류 제레프가 선거에서 패배했다. 빈의 난상토론에서, 젊은이들을 동원하기 위해 록음악을 이용하는 등 주요한 아이디어가 등장했는데, 그것은 미국의 평화봉사단 회원 마이크 호크루트너의 제안이었다.<sup>43)</sup> 미국이 힙합가수 쿨리오를 비롯해 국제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선수와 음악가들 불러와서, 그들은 마레크 카푸스타가 청년층 유권자의 20퍼센트 투표율을 80퍼센트로 끌어올리려고 조직한 “투표를 록으로!”(Rock the Vote)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용했고, 1998년 선거에서 슬로바키아의 현직 블라디미르 메시아르 대통령이 패배했다.

프리덤하우스는 그 당시 슬로바키아에서 대부분은 외국여행을 한 적이 없었던 지역 활동가들의 회의를 소집했는데, 그 모임은 “미래 혁명이 ‘인명사전’처럼 읽혔다.”<sup>44)</sup> 퇴역 미육군 대령 로버트 헬비는 이미 1988년 버마국경에서 활동하고 있었다(활동가들은 그가 그들의 투쟁력을 꺾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스턴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연구소의 소장인 진 샤프와 함께 1992년과 1998년 사이에 최소한 8개의 미션을 담당했다. 비록 샤프와 헬비가 전술로서 비폭력을 옹호했지만, 그들은 지속적으로 미국에 비우호적인 정권들에 대해서만 그 전술을 활용하고, 펜타곤과 연계를 갖고 있다. F. 윌리엄 앵달의 의견으로 그들은 수많은 시위사건에 책임이 있다: “샤프론 승려들이 이끈 비폭력적 정권교체전술의 지휘자는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의 기만적 명칭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연구소의 설립자 진 샤프이며, 이 단체는 전세계 주요 지역에서 미국에 우호적인 정권교체를 양성하기 위해 NED의 한 유관단체로부터

39) PanArmenian.net, June 29, 2009 as quoted by Rick Rozoff in “West’s Afghan War and Drive into Caspian Sea Basin,” <http://groups.yahoo.com/group/stopnato/message/40624>, July 10, 2009.

40) Sarah E. Mendelson and John Glenn, eds., *The Power and Limits of NGOs: A Critical Look at Building Democracy in Eastern Europe and Eura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5, 191-2.

41) Eva Golinger, *The Chavez Code: Cracking U.S. Intervention in Venezuela*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2007).

42) Rozoff, “Afghan War.”

43) Arias-King, “Orange People,” 44.

44) Ibid.

자금을 지원받는다. 샤프의 연구소는 정권이 반정부세력을 침묵시키려 약 3,000명의 시위대를 학살한 직후인 1989년 이래 버마에서 활동했다. CIA 특별요원이자 랑군주재 전 미국무관인 로버트 헬비 대령[미육군에서 퇴역<sup>45)</sup>]은 비밀작전 전문가로, 1989년 반정부세력을 비폭력 전략으로 훈련시키도록 샤프를 버마에 소개했다. 흥미롭게도, 샤프는 티아난먼 광장의 극적인 사건 2주일 전에 중국에도 있었다.<sup>46)</sup>

버마 미션을 설명하면서 헬비는 보고했다: “내가 한 유일한 일은 그들에게 비폭력 제재의 잠재력을 보여준 것 뿐이고, 비폭력 제재가 다른 종류의 전쟁처럼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sup>47)</sup> 하지만 망명 버마국회에 속한 한 활동가는 헬비와 샤프의 기여가 “버마운동을 무장해제 하고 약화시키는 것”이었다고 신랄하게 불평했다.<sup>48)</sup>

헬비에게, “군사적 승리는 적의 전투역량과 의지를 파괴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비폭력전략은 아주 상이한 무기체계가 사용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무장분쟁과 다르지 않다.”<sup>49)</sup> 헬비는 베트남에서 현역 미국장교였고, “베트남에서 한 일은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했다.”<sup>50)</sup>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종인 헬비는 비폭력이 “베트남 시대 ‘꽃을 든 어린, 평화주의자, 병역기피자들’과 함께 생겨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폭력에 결코 관심이 없었다.<sup>51)</sup> 1987년에서 1988년까지 하버드대학의 국제문제센터에서 미육군 선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헬비는 샤프를 만났고, 비폭력을 펜타곤의 무기교로 통합하는 데 기여했다. (샤프는 토마스 셸링 교수의 도움으로 펜타곤 기금을 받은 다음 하버드에 있었다.) 이 두 사람은 미국의 목표를 확장하기 위해 비폭력 무기를 사용하여, 자주 미국의 자금으로 전세계적 캠페인에 착수했다.

미국 프리덤하우스의 자금으로, 베오그라드의 한 사적 그룹이 진 샤프의 책 <민주주의에서 독재> 5,000부를 인쇄했고, 로버트 헬비는 2000년 3월 부다페스트 힐튼호텔에서 세르비아 활동가들의 직접훈련 강좌를 지도했다. 헬비의 주된 초점은 “경찰과 군대를 포함한’ 정권의 ‘지지축’을 어떻게 전복할 것인가”였다. 그는 특히 활동가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며s 국제적 기부자들이 이탈하고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sup>52)</sup> 슬로바키아 활동가들도 세르비아 학생그룹 옷포르(Otpor: 저항)에게 크게 영향을 받았고, 자주 세르비아로 가서 1999년 3월 시작된 나토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유지한 밀로셰비치에 맞선 선거 캠페인을 지원했다. 2000년, 옷포르, 시민주도센터와 다른 그룹들은 미국의 국제공화연구소와 전국민주연구소로부터 최소한 4,000만 달러를 받아 밀로셰비치 반대캠페인에 사용했다.<sup>53)</sup> 옷פור는 미국정부의 기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회원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자, 가장 이타적인 지지자들 대부분이 항의하여 사퇴했다.<sup>54)</sup>

2000년 10월, 수십 대의 차량이 옷פור의 깃발 아래 콜루바라의 반밀로셰비치 광부들을 태우고 베오그라드로 향하는 차량행진단을 구성했다. 이 행진단은 밀로셰비치와 최후의 결전을 벌였다. 2000년 10월 5일 야당후보가 선거에서 이겼지만, 밀로셰비치가 결선투표를 주장한 다음, 군중들이 의사당을 공격해서 불태웠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져 최소한 여성 1명이 사망하고 다른 4명이 부상당했다. 라디오 텔레비전 세르비아도 점거당해 불탔고, 인근의 경찰서

45) Ackerman and Duvall, *A Force More Powerful*, 475.

46) Engdahl, “Chokepoint!”

47) Ackerman and Duvall, *A Force More Powerful*, 475.

48) Interview with Burmese activist Aung Kyaw So in Maesot, Thailand, November 2008.

49) Robert L. Helvey, *On Strategic Nonviolent Conflict: Thinking About the Fundamentals* (Boston: The Albert Einstein Institution, 2004), xi.

50) Interview with Gene Sharp, Boston, March 3, 2011. For a recording, see <http://eroseffect.com>.

51) Helvey, *Nonviolent Conflict*, xii.

52) Ackerman and Duvall, *A Force More Powerful*, 485-6.

53) Johansen, “Waves of Nonviolence.”

54) Tina Rosenberg, “Revolution U: What Egypt Learned from the Students Who Overthrew Milošević,” *Foreign Policy*, February 16, 2011.

도 불렀다.<sup>55)</sup> 그날 저녁 국회가 계속 불타는 동안, 약 100,000명의 민중이 모여서 밀로세비치의 퇴진을 요구했다. 다음날 그는 사임했다. 나토폭격이 이루지 못한 것이 다른 수단으로 완수됐다.

이 똑같은 활동가들, 특히 카푸스타는 그 다음 그루지아로 이동해서 2003년 11월 에두아르드 세바르드나제의 축출을 지원했다. 2003년 그루지아의 “장미혁명”을 이끈 것은 학생운동 단체인 크마라(Kmara: 충분해)였고, 베오그라드의 비폭력저항센터의 지원과 함께 조지 소로스의 열린사회연구소(OSI)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다. 세바르드나제 타도에 결정적이었던 동일한 그룹들은 그 다음으로 우크라이나로 이동해, 2004년 오렌지혁명을 권좌에 올렸다. 포라(Pora: 시간이 됐다)가 이끄는 우크라이나 학생운동은 오프와 크마라의 베테랑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미국의 프리덤하우스와 전국민주연구소에서 재정지원을 받았다. 시위대가 몇주 동안 국회를 포위하고 있을 때, 비밀경찰인 우크라이나 보안원은 야당에게 다가오는 탄압을 경고했고, 그들이 시위대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정권의 탄압을 저지했다.

학생단체 켈켈(Kelkel: 부활)이 이끈 키르기스스탄의 툴립혁명이 다음 차례였다. 오프, 포라, 크마라(그루지아), 벨라루스의 주브르(Zubr: 때가 됐다), 카자흐스탄의 카하르(Kahar: 항의), 아제르바이잔의 욱(Yok: 안돼) 등에서 영감을 받은 키르기스 운동 역시 동일한 미국 재단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자유연구소의 전이사이자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기비 타르가 마제는 툴립혁명 동안 키르기스 야당 지도자들에게 충고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야당 지도자들과 비폭력투쟁 테크닉에서 상의했다. 수도의 폭동으로 3명이 사망하자, 아스카르 아카예프 대통령의 정부는 2005년 3월 붕괴했다.

위키리크스에 유출된 전문에 따르면, 이집트와 예멘의 주요 활동가들은 국제공화연구소, 전국민주재단과 프리덤하우스에 의해 훈련과 자금을 받았다.<sup>56)</sup> 이집트 시위대의 최소한 한명의 지도자는 돈을 받고 베오그라드에 가서 2000년 슬로보단 밀로세비치를 타도한 전 오프 활동가들에게서 일주일간 훈련을 받았다. 이 사례는 작은 그룹들의 힘은 성공적 봉기를 촉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깊게 선택된 그룹들에게 사용가능한 외부지원과 금융자원이 융합된 전지구적 시각이다. 비록 정권을 타도하는 데 유용했지만, 이 같은 유형의 그룹들은 스스로 기존체제의 정치장악과 경제의 구조적 과제를 독자적으로 파괴할 수 없다. 전지구적 자본주의는 이 젊은 개혁가들에게 이미 만들어진 대안을 제공했다.

물론, 전세계를 휩쓴 피플파워의 물결이 민중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따라서 많은 경우에 민중들이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외부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 쿠바혁명에서 1968년의 신좌파까지, 아시아의 봉기들에서 아랍의 봄까지, 민중반란은 교조적 정당과 화석화된 이론 없이도 발생했다. 오히려 그런 운동들은 보통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에서 터져나왔다. 자주, 민중운동의 꿈은 질서의 세력에 의한 유혈탄압에서 익사한다. 안타깝게도, 전세계의 정부들은 공손한 행동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계속 폭력을 유발한다. 토착반란이 즉각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 성공할 때, 풀뿌리 에너지는 흔히 기쁨의 축하나 물리적 소진으로 붕괴한다. 정당과 전업적 활동가들이 민중이 쟁취한 승리의 열매를 훔치려 달려가면서 동원은 끝난다. 그에 따른 권력투쟁은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지고, 운동은 탈정치화되며, 전지구적 자본은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화된 정치체제 내에서 확장한다.

사람들에게 막대한 사회적 부의 관리를 위한 질적으로 다른 조직화 원칙을 확신시키기 위해, 문화활동가들이 혁명적 위기 이전에 민중의 의식을 준비시키고 그들의 꿈을 자극하기 위해 활동할 필요가 있다. 역사는 여전히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민중봉기

55) Sharp, *Waging Nonviolent Struggle*, 336. 2011년 3월 3일 필자는 보스턴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연구소에서 진 샤프와 인터뷰 했고, 비폭력 혁명에 대한 미국의 지지에 대한 우려를 그와 논의했다. The interview is available on my web site, <http://eroseffect.com>.

56) Ron Nixon, “U.S. Groups Helped Nurture Arab Uprisings,” *New York Times*, April 14, 2011.

는 자기 삶의 경로를 바꾸기 위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수의 수단 중의 하나이다. 최근의 반란들은 우리에게 미래에 어떤 주체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도록 지시한다.

제14장: 프롤레타리아트의 변화하는 얼굴

“현대적 생산조건은 오늘날 노동하는 자들에 의한 생산과 경제의 일반화된 자주관리 발전의 객관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 세르주 말레

“노동이 해방되면, 모두가 노동자가 되고 생산적 노동은 계급적 속성이기를 멈춘다.”

- 칼 맑스

20세기의 경로에서 혁명적 변화가 러시아와 중국에서 제도화되자, 봉기 이론의 근본적 수정이 이뤄졌다. 맑스주의는 약자의 무기에서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독재의 도구가 됐다. 선진 자본주의 나라에서, 혁명적 변화는 실현되지 못했고, 학문적 맑스주의는 노동의 형이상학, 즉 전세계에서 변화의 물결이 쇠퇴하자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인의 아편으로 신성화됐다. 무정부주의는 러시아만큼 에스파냐에서 야만적으로 탄압받았고, 아메리카의 아나키즘(아르헨티나에서 미국까지)도 덜 폭력적이지만 같은 정도로 철저한 패배를 당했다. 한때 바르셀로나의 거리, 콜로라도의 광산, 아르헨티나의 팜파에서 메아리쳤지만, 무정부주의도 민중으로부터 고립된, 주변화된 자의식의 교조가 됐다.

혁명의 퇴조는 정당과 이론의 잡동사니를 남겼지만, 그 현대적 유용성은 의심스럽다. 1968년 프랑스 공산당은 1천만 노동자와 학생의 비공인파업에 반대했다. 1977년, 이탈리아 공산당은 청년학생의 시위를 탄압하는 경찰을 도왔다. 이 구식 조직들이 급진적 고양에 호전적으로 반대한 것처럼, 그들의 이론도 혁명적 변화를 위한 변화하는 조건에 대항한다. 맑스가 프롤레타리아트의 객관적인 경제적 조건(즉자적 계급)과 주체적인 역사적 등장(대자적 계급)을 구별할 것을 주장한 반면, 맑스주의자들은 거의 전적으로 객관주의적 생산범주라는 단일 렌즈를 통해 계급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련과 중국 맑스주의가 혁명 이데올로기로부터 통치의 도구로 전환하자, 민중봉기를 “자생성”으로 낙인찍었다. 경제적 생산범주에 대한 과도한 관심 중에, 구체적 역사에서 등장한 변화를 위한 운동주체에 대해선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많은 맑스주의자들과 생디칼리스트들에게, “노동계급” 범주는 육체노동자들의 지도역량과 헤게모니에 대한 선호를 의미한다. 거의 모든 최근 봉기에서 좌파가 무의미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형이상학적 정의이다. 고정된 이데올로기적 전제에 묶여있던 좌파 정당들은 오랫동안 새로운 사회세력의 등장을 인식할 유연성을 결여했다.<sup>1)</sup> 해리 브레이버먼 같은 이론가들이 노동계급에 대한 중요한 탐구했지만, 생산의 고정된 범주는 학문적 또는 분석적 맑스주의의 한계를 계속 설명한다. 자칭 노동계급 이론가들은 여성이나 소수민족을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단지 드문 경우에(헤르베르트 마르쿠제가 마지막 책에서 그랬던 것처럼) 노동에 대한 강제 없이 살 의미의 가능성으로서 자유를 고려한다.<sup>2)</sup> 인간이 20년간 주당 20시간을 일하고 쾌畅하게 살 충분한 돈을 가지고 은퇴하는 것이 가능한 때에, 국가 자본주의적 체제는 정부와 기업이 계속 기능하기 위해 우리가 더 많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시간을 일할 것을 요구한다. 소련류의 국가사회주의도 별로 낫지 않다. 사실 그런 종류의 맑스주의는 전세계를 하나의 공장으로 만들길 원하는 것으로 제대로 인식됐다.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편 꼭대기 위에서 춤출 수 있는지 논쟁했던 중세 신학자들처럼, 이상주의적 범주적 과제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 민중부문을 분석할 많은 좌파들의 수단을 정의한

1) See the discussion of Michael Zweig in Volume 1, Chapter 10.

2) Marcuse, *Aesthetic Dimension*, 28-9.

다. 주류 민주화 이론가들에게, 민주화의 도구로서 중산층을 선호하는 편견이 존재하는 반면, 학구적 맑스주의자들은 완고하게 노동계급이 핵심이며, 그들이 갈끔하게 감시하는 경계 밖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을 토론회와 잡지에서 배제할 정도이다.<sup>3)</sup> 많은 맑스주의자들에게, “프롤레타리아트”는 집단적인 아버지 인물로 기능하고, 보편적으로 “가치”있지만 아무데서도 유효하지 않은 응고된 형이상학에서 확고하게 고정된 물자체로 기능한다.

최근 봉기의 역사는 민중부문들의 정치적 입장을 평가하고, “대자적 계급”의 구체적인 역사적 의미를 측정하는 풍부한 경험적 자원을 제공한다. 혁명적 주체는 구체적 실천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분석적 맑스주의자들”의 모호한 계산과 도표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프롤레타리아적 교조주의 때문에 좌파는 학문적 모래통에서 놀거나 존재하지 않는 “주인 계급”을 역사의 쓰레기통에서 찾는다.

러시아 혁명가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레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후진적 경제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확신시키고 봉기의 전야에 볼셰비키당을 떠나겠다고 위협해야 했다. 마오쩌둥은 당을 주력군으로서 농민들의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을 재정립해야 했고, 농촌에 기반한 투쟁을 옹호했다고 당에서 추방당했다. 호치민은 디엔비엔푸에서 중국과 러시아 고문들을 기각해야 했다. 피델 카스트로는 도시가 아닌 산악지대를 혁명기지로 제시해야 했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비전을 가진 활동가들이 비슷하게 이단자나 수정주의자로 불릴 모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올바른 독선적으로 믿는 자들의 서클로부터 배척과 추방을 무릅쓰는 것이다.

유연성은 20세기 모든 혁명의 특징이며, 21세기에는 유동적 개념화와 변화하는 조건에 대한 조정은 필요성 훨씬 이상이다. “대자적 계급”(혁명적 변화의 주체)의 특징은 여전히 철학적 범주에서 프롤레타리아트로 정의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단호한 부정, 막대한 다수의 민중, 그리고 “사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 없는” 사람들. 하지만 구체적으로 실제 역사를 평가한다면, 불가해한 텍스트의 케케묵은 페이지가 아니라 실천에서 드러난 사회운동의 변화하는 주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확대되는 혁명의 토대: 중산층과 림펜 프롤레타리아트

1968년 새로운 노동계급의 정식화에서 시작한 연구는 유럽과 미국만이 아니라 선진 자본주의 내에서 정치투쟁에 핵심적인 새로운 집단을 점차 발견했다.<sup>4)</sup> 그 당시, 학생들은 중국에서 멕시코까지, 파리에서 뉴욕까지 전세계적으로 반란의 지도부에 있었다. 비록 프랑스와 폴란드에서 공장노동자들이 활성화되었지만, 노동자들(물질적 생산의 객관적 범주로 정의된)이 투쟁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는 점차 경험적 현실에 실망했다. 노동자 집단이 투쟁에서 지도적 역할을 했을 때, 그들은 비물질적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화이트칼라 노동자, 오프라인 사무직과 보건의로 노동자, 프롤레타리아트화한 전문직들)인 반면, 공장 노동자들의 활성화는 자주 민중봉기 이후에 이뤄졌다. 동유럽 관료독재의 타도와 아랍의 봄처럼 아시아의 봉기에서, 대항세계화운동에서 아랍의 봄까지, 비슷한 동학이 드러났다. 학생과 프롤레타리아트화한 전문직들이 자주 운동을 이끌었던 반면, 노동자들은 민중화 봉기의 절정이 투쟁의 공간을 연 이후에 분출했다.

필리핀, 남한, 네팔, 방글라데시, 타이완과 태일랜드의 봉기들은 모두 언론에서 “중산층”이라고 정의된 주체들의 광범한 참여를 끌어냈다. 정부 공무원과 기업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해

3) 최근의 사례로, 미국사회학협회(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의 회장인 에릭 올린 라이트(Erik Olin Wright)는 2011년 자율적 사회운동에 관한 패널을 승인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자율적 사회운동들이 “노동계급적”이라고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As a beginning point, see Serge Mallet's essays on the new working class in *The New Working Class* (Bristol, UK: Spokesman Books, 1975) and *Bureaucracy and Technocracy in the Socialist Countries* (Nottingham, UK: Spokesman Books, 1974).

서, 많은 주류 이론가들은 중산층을 민주화의 주요 주체로 규정했다. 타이랜드의 봉기는 운수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핵심 참여자였음에도, 서구 언론에서 “휴대전화 폭도”라고 폭넓게 규정됐다. 중국의 티아난먼 광장 시위도 비록 노동자들이 의존할 수 있는 핵심집단이고 학생운동이 쇠퇴하자 광장에 집결했음에도, 거의 항상 학생운동으로 묘사됐다. 광주항쟁도 도시빈민과 운수 노동자들이 봉기에 핵심적이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학생운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검토하는 거의 모든 봉기에는 기술직 노동자와 화이트칼라, 교사와 학생, 작가, 언론인, 공무원, 그리고 의사, 교수, 변호사 등 프롤레타리아트화한 전문직들이 참여했다. 이 집단들이 수행한 중요한 역할은 역사적 정확성에 무관심한 위험을 무릅써야 무시할 수 있다. 동시에 주류언론에 의한 중산층의 최고 중요성 규정은 하위집단을 모욕하고 육체 노동자들과 도시빈민들의 기여를 축소한다.

생산의 물질적 조건이 역사적 주체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학생과 전문직의 지도적 역할에 대한 설명은 변화하는 경제적 조건에서 발견할 수 있다. 20세기의 엄청난 기술적 발전은 대학들이 상아탑으로서의 고전적 지위를 포기하게 했다. 그 대신 대학은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변했고, 제국적 통제의 유지에 중요한 자원이 됐다. 미국에서 하버드는 수많은 나라의 정부에 관리자를 제공하고, MIT는 국방부를 위해 선진무기체계를 개발했다.<sup>5)</sup> 그런 전쟁과 정치적 지배기관들 내부로부터 비전을 가진 학생운동이 등장했다. 대학의 경제와 정치 참여는 고등교육의 엄청난 확대를 동반했다. 오늘날 전세계에서 9천만 명 정도가 중등교육 이후의 학생이며, 그 숫자는 1980년 5,100만 명에서 1995년 8,200만 명으로 급증했다.<sup>6)</sup>

혁명에 대한 지식인들의 친화성은 20세기 생산의 변화보다 이전의 일이다. 차리즘을 공격하는 강력한 세력인 19세기의 러시아 학생들은 “사상의 프롤레타리아트”라고 불렸다.<sup>7)</sup> 1968년에 시작해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엄청난 비전을 가진 진보적 세력이 됐다. 그들은 자신의 자유를 위해 투쟁함과 동시에, 전세계 민중과 연대하여 투쟁했다. 그들의 실천에서 드러난 것처럼, 학생들과 중산층은 거대한 자기조직화 역량을 보유한다. 학생들은 투쟁을 촉발하는데 정통한 반면, 보통 투쟁을 지속할 수 없다. 제한된 시기 동안 캠퍼스에 집중되어 있고 주로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학생투쟁은 초기의 핵심적 순간 이후에 자주 소멸한다. 학생들은 사소한 논쟁과 말다툼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민중의 다른 부문에 비해 어려움에 대한 참을성은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광주봉기 동안 일단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많은 학생들이 사라져 집으로 돌아간 반면, 다른 학생들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광주를 떠났다. 동시에, 도시빈민과 노동자들이 전선에 모여들었다. 버스 운전사와 택시 기사들은 군대가 치명적 무력을 사용해 민중의 사기가 떨어진 것처럼 보였던 직후인 5월 20일 밤 민중을 집결시켰다. 광주의 최대기업인 아시아 자동차에서 노동자들은 새로 만든 장갑차를 포함해 수십대의 차량을 제공했고, 도시가 해방된 이후 중장비를 가져와 불에 탄 차대와 다른 쓰레기를 거리에서 청소했다. 1992년 타이랜드에서 비록 학생들이 민중봉기를 촉발했지만, 운수노동자와 노동조합원들의 참여가 중요했다. 중국에서, 학생대오가 줄어들자, 베이징 자주노동자연맹이 성장하는 세력이 됐다. 노동계급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베이징과 방콕에서 주요한 첩보기능을 제공했다. 방글라데시, 네팔, 남한에서 최초의 돌파 직후에 노동자들이 하나의 계급으로 활성화됐다. 최근의 역사적 실천에 기초하면, 학생들은 혁명적 고양의 뇌관인 반면, 노동자와 빈민들은 다이어마이트였다. 심지어 폴란드처럼 노동계급이 명확히 선두에 있을 때에도, 좌파 당원들은 시민들의 완고한 종교적 보수주의와 서열조직에 뒷걸음질 쳤다.

현대 자본주의가 더욱 진화하면 할수록,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인구의 훨씬 더 작은 부분을 이룬다. 전통적 노조조직은 그 조합원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생산의 재조직화와 관련된 구조적 이유는 이런 변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1968년에 브라질의 활동가 라디스라스 도우보르는 “현대적 부문의 성장이 전통적 산업의 위기를 발생시킨다.... 그 결과 노동계급은 점차 생산과정에서 쫓겨나고, 주변인 계급을 팽창시키고, 훨씬 더 작고

5) See the recent indy film, *Veritas: Harvard's Hidden History*.

6) Keane, *Global Civil Society?*, 129.

7) Fishman, *Insurrectionists*, 119.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상대적으로 만족한 노동계급이 혁명에 대한 의향을 전혀 없게 만든다”고 말했다. 앙드레 고르는 1980년 이런 현상을 더욱 정교화했다. “전통적 노동계급은 이제 특권적 소수에 불과하다. 인구의 다수는 이제 포스트산업의 비프롤레타리아트에 속하며, 그들은 어떤 고용안정이나 명확한 계급적 정체성 없이 임시직, 계약직, 비정규직, 시간제, 파트타임 고용을 채운다.”<sup>8)</sup> 수십 년전 고르가 인식한 경향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 오늘날 남한에서도 모든 직업의 거의 절반이 파트타임이고 수당도 없다. 오늘날 미국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15퍼센트 이하를 대표하며, 공무원, 교사, 기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조합비 납부 조합원의 거대한 비율을 이룬다. 1988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일랜드에서 노동력의 10퍼센트 이하가 제조업에 고용된 반면, 중산층은 태일랜드와 필리핀에서 약 20퍼센트였다(45퍼센트가 빈곤 속에서 살았다.)<sup>9)</sup>

수퍼리치 사이에서 부의 끝없는 자본축적 때문에 주변화되고 빈곤화된 사람들의 숫자가 팽창하자, 더욱 더 많은 빈민들이 운동에 참여할 것이다. 비록 언론과 주류학계가 그들의 사회운동 참여를 폄하함에도, 아시아의 많은 봉기 동안 도시빈민 또는 룬펜 프롤레타리아트는 봉기가 발생하자 투쟁했다. 네팔에서 룬펜은 중요한 마오주의의 신병들이었고 전사로서 엄청난 힘을 가져왔다. 광주의 매춘부들은 다른 사람들이 관여하지 않으려고 할 때 시민군 대원들을 숨겨줬다. 많은 성노동자들이 헌혈할 것을 고집했고, 수많은 팀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일했다. 광주의 깡패두목들도 첫 번째 총회들 중 하나에서 참여해서 동원된 시민과 함께 일하겠다고 맹세했다. 정부가 시민을 “폭도”라고 규정하고 그들 모두를 “룬펜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불량배, 녀마주이, 실직자, 노가다, 구두닦이, 거지들”이라고 봤다. “... 봉기는 이런 집단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참여한 투쟁이었다. 상황은 일상생활이 정지되는 극도의 비상사태였다.... 광주시민의 자발적 분업체제와 즉흥적 조직화는 놀라운 정도로 작동했다. 도시빈민이 가두투쟁의 전위에 섰고 범죄깡패들이 시민들의 자치활동과의 협력을 선언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시민정신의 표현이었다.”<sup>10)</sup> 검은표범당과 알제리혁명 내부에서 룬펜 프롤레타리아트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19세기 파리의 투쟁에서 도출한 이론은 메타역사적 판단에 고정되어 있었다.

최근 중산층과 도시빈민은 모두 권위주의적 통치자들을 지지했다. 태일랜드에서, 도시 중산층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에서 동요했다. 봉기와 운동의 경험은 우리가 추론하고 투사할 수 있는 실제적 경험을 제공한다. 1973년, 태일랜드의 공과대 학생들은 경찰서를 공격했지만, 1976년 똑같은 개인들 중 일부는 탐마삿 대학을 공격하고 수십 명의 학생을 죽인 잔인한 폭도의 일부가 됐다. 1970년대, 중산층 가정주부들은 아옌데와 사회주의에 반대하여 동원했지만, 1990년대 그들은 피노체트 독재에 등을 돌렸다.

아무리 경계를 그리고 먹기 위해 일해야 하는 압도적 다수의 민중들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키더라도, 많은 오프라인 노동자들의 구조적 지위는 불안정하며, 민영화와 기업의 인원삭감으로 대량해고가 너무나 흔한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특히 불안정하다. 세르주 말레, 앙드레 고르,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등이 “새로운 노동계급”으로 이해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들이 새로운 “중간” 계급이라고 주장한다. 경영자가 되기에 충분히 교육받은 그들의 직업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간의 전통적 구별을 거부한다. 대부분이 명령을 받아 상사 아래서 소외된 위계 속에서 일한다. 현대 경제 내에서 새로운 노동계급은 수치스럽게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지만 권력보유자보다 자신이 더 지적이라고 이해한다. “새로운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이란 바로 그 개념이 이 집단의 모순적 개념을 가리킨다. 경영자와 결정을 하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은 화이트칼라 명령수취자와 아주 다른 지위를 차지한다. 벨 버리스가 주의한 것처럼, “경험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론이든 모든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노동계급의 일부이든 또는 별도의 중간계급으로든 단일한 응집적 계급의 일원으로 취급한다는 점이다.”<sup>11)</sup>

8) André Gorz, *Farewell to the Working Class: An Essay on Post-Industrial Socialism* (Boston: South End Press, 1982), 69.

9) John Girling, “Development and Democracy in Southeast Asia,” *The Pacific Review* 1, no. 4 (1988), 333.

10) Choi, *Gwangju Uprising*, 37-9.



아시아에서 경험적 연구는 이 집단의 구조적 지위와 사회운동 참여를 분석한다. 한국에서 한상진은 “중민”의 구성을 분석했다.<sup>12)</sup> 한국전쟁 이후 엄청난 빈곤을 경험한 유산 중간계급과는 달리, 중민은 빈곤 이후의 노동자들(미국의 베이비붐 세대처럼)이며, 유산 중간계급의 보수적, 물질중심적 가치보다 참여와 자기표현 같은 포스트 물질주의적 가치를 강조했다. 타이완에서, 활동가들의 배경에 대한 윤판의 조사는 그들이 상층 및 중상층 계급적 배경(화이트 칼러 부모의 자녀를 포함해서)에서 나올 확률이 두배나 높았던 반면, 상점주, 농민, 노동자들은 비교적 적은 활동가 자녀를 배출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후자의 그룹은 인구의 67퍼센트를 이루지만 조사한 146명의 활동가 중에서 겨우 30명만을 배출했다.)<sup>13)</sup> 8개국 연구를 마친 후, 마이클 샤오는 급여 중산층의 첫 세대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반면, 두 번째 세대는 더 순응적이고 보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샤오는 타이완의 57퍼센트 이상이 중산층에 속하는 것으로 계산했다.<sup>14)</sup> 만약 소득에 기초한 계층화를 고려하면, 급여를 받는 피고용인은 엄청난 구성인자이며, 아마도 노동자의 다수일 것이다. 네팔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처음으로 1일 10달러와 100달러 사이를 버는 중산층이 개발도상국의 33퍼센트에서 2006년 57퍼센트로 증가했다.<sup>15)</sup>

20세기말 민주화운동에서 이 계층의 역할은 아주 뚜렷해서 그들을 무시하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주류 민주화 이론가들은 오프라인 노동자의 진보적 성격을 강조했다. “커뮤니케이션과 조직자원에 대한 접근 때문에, 화이트칼라, 특히 전문직종의 화이트칼라는 반정부 시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 자의적 정부당국은 그들의 경력만 아니라, 예를 들어 법이나 대학의 보전 같은 직업적 규범도 위협할 수 있다. 격렬한 양극화의 시기를 제외하면, 프롤레타리아트화한 전문직은 합헌주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대중적 민주운동에의 통합은 자주 정치적 이해과정에서 결정적이며, 부분적으로 그것이 강제의 사용에 관한 정부의 계산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sup>16)</sup>

맑스주의 이론은 이 중산층 집단에 대한 우호적 평가에 반대하는 이데올로기적 경향이 있다. 1950년(C. 라이트 밀즈가 <화이트칼라>에서 그들의 지배와 소외를 탐구했던 것과 거의 정확히 같은 시기에), C.L.R. 제임스, 라야 두냐예프스카야, 그레이스 리 보그스는 이 부문을 비상한 비판으로 분석했다. “가장 명백하게 반동적이고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중간계급의 반혁명이다. 현단계의 자본주의인 국가 자본주의는 그들을 완전한 청산 및 프롤레타리아트의 통합과 직면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자본주의의 완전한 파괴와 자연적 불평등에 입각한 새로운 중세로의 복귀를 제안한다.”<sup>17)</sup> 소련의 테러지배와 미국의 매카시즘에 대응하여, 그들의 분석은 암울하고 비타협적이다. “부르주아지의 합리주의는 스탈린주의적 관료행적 계획국가로 끝났다. 이 합리주의와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에 대한 반발로, 중간계급은 파시즘의 야만으로 뒷걸음 친다. 반스탈린주의적, 반자본주의적 프티 부르주아 지식인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절대적 분리의 피해자인 그들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모른다.” 이 매뉴얼 왈러스틴은 중간계층을 “지배계층의 정치적 동맹자이자 비숙련 다수에 대한 계층 상승의 모델”이라고 언급할 때 비슷하게 경멸적인 결론에 도달했다.<sup>18)</sup>

11) Val Burris, “The Discovery of the New Middle Class,” *Theory and Society* 15 (1986,) 344-5.  
 12) Han Sang-Jin, “The Public Sphere and Democracy in Korea,” in *Korean Politics: Striving for Democracy and Unification*, ed.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Elizabeth, NJ: Hollym, 2002), 266-7.  
 13) Yun Fan, “Taiwan: No Civil Society, No Democracy,” in *Civil Society and Political Change in Asia: Expanding and Contracting Democratic Space*, ed. Muthiah Alagapp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168; Also see Richard Robison and David Goodman, *The New Rich in Asia: Mobile Phones, MacDonald’s and Middle-Class Revolution* (London: Routledge, 1996), 10.  
 14) Interview with Michael Hsiao, Taipei, February 3, 2009.  
 15) See Shrishti Rana, “Don’t Forget Kathmandu,” *Kathmandu Post*, April 11, 2009, 6.  
 16) Haggard and Kaufman, *Political Economy*, 31.  
 17) C.L.R. James, in collaboration with Raya Dunayevskaya and Grace Lee, “The Ideological Crisis of the Intermediate Classes,” in *State Capitalism and World Revolution* (Chicago: Charles H. Kerr Publishing Company, 1986), 113-135.  
 18) “Structural Crises,” in *New Left Review* 62 (March-April 2010): 139.

학생운동의 등장, 1960년대 시민권운동, 이후의 아시아 봉기는 새로운 역사적 분석데이터를 제공한다. 신좌파운동이 등장하기 전에, C.L.R. 제임스는 이렇게 썼다. “1917년이 파리로뎀을 뛰어넘었듯이, 1950년에 보편적인 것이 1917년을 훨씬 더 뛰어넘는다.” 이 말로 그는 봉기와 역사의 경험적 진보에 분석의 초점을 맞췄고, 이는 새로운 사회세력의 등장과 물질적 조건의 변화하는 성격을 이해하는 핵심적 수단이었다.

## 성과 봉기

선진 자본주의는 여성을 집 밖으로 나와 전지구적 기업의 사무실과 공장으로 데려갔고, 여성들은 오늘날 전지구적 노동력에 광범하게 통합됐다. 대학이 생산과 정치의 중심으로 이동한 것과 동시에, 가정은 선진 자본주의의 요청으로 급속하게 변화했다. 대가족과 핵가족 구조는 경제제도의 요청으로 급감했다. 대부분의 가족이 수지를 맞추기 위해 두 명의 수입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집 밖에서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다. 가정에서 그들의 불분노는 패스트푸드 산업, 의료기관, 교육의 확대를 통한 민중의 일상생활 속으로 자본주의적 침투로 대체됐다. 과거에 자율적이었던 삶세계의 영역은 새로운 영역을 이윤활동의 궤도로 통합하려는 체제의 끊임없는 추동력에 의해 식민화됐다. 이웃은 이윤을 위해 일상생활을 착취하려는 자본의 끊임없는 추동력에 맞선 투쟁으로 경쟁의 장이 됐다. 과거에 공적 영역에서 주변화되었던 여성들은 점차 중심으로 되고 있다. 여성의 프롤레타리아트화는 그들의 사회운동 참여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요인이다.

1968년 이래, 가부장제 비판은 점차 확대되어 수백만 명을 포괄하게 됐다. 진정한 현대혁명인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세계사적 변혁의 잠재력은 전쟁과 수퍼리치의 낭비적 생산 없는 세계, 인류의 막대한 자원이 기본적인 인간요구에 향하는 세계, 우리가 자연을 보존하고 회복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기정의에 따라 창조적 역량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세계를 제시한다. 아무리 체제가 그런 꿈을 유토피아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더라도, 보통사람들은 현대 테크놀로지가 그런 세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직관적으로 파악한다. 그들은 노동이 노년의 황금기로 확장되는 것은 물론, 민중들의 삶에서 중심적인 관심사로서 강제되기보다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오늘날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가부장제적 수행원칙을 전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여성들은 그 노력에서 중심적일 것이다. 이미 아시아 봉기의 과정에서, 비록 너무나 자주 가부장제적 정치구조가 등장하는 여성지도자들을 권력의 지위로 통합하려고 노력함에도(전지구적 자본이 근본적 반대의 잠재력을 제기하는 모든 하위집단에 대해 그러는 것처럼), 사회변혁을 용이하게 하고 지도할 여성의 잠재력을 얼핏 볼 수 있다.

유럽인과 미국인들은 서구에 비해 아시아를 특히 가부장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 필리핀의 코리 아키노(1986년), 파키스탄의 베나지르 부토(1988년), 방글라데시의 칼레다 지아와 셰이크 하시나 와제드(1990년)와 버마의 아웅산수키(1988년) 등 새로운 세대의 아시아 여성지도자들이 등장해 민주정부와 정당을 이끌고 있다. 용기와 끈기로 아웅산수키는 1991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중요하게 같은 시기에 어떤 유럽운동에서도 주요한 여성지도자들이 등장하지 않았다. 비록 아시아의 봉기들에서 이 지도자들의 역할이 자신의 사진이 운동 포스터로 장식되는 혁명적 “핀업” 걸(pin-up girls)이라고 모욕당해도,<sup>19)</sup> 실질적인 비판을 정식화할 수 있다.

아시아의 모든 경우에 여성 지도자는 아래 표 31에서 지적한 것처럼 순교한 남성지도자의 딸이거나 미망인이다. 여성의 전통적 영역인 가족유대가 심지어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출하려고 노력한 운동 내에서도 여성의 역할에서 중심적이다. 그것은 이 여성지도자들 중에서 아무도 자기 조국의 미래에 대한 특별히 비전과 열망을 정식화하지 못하는 한가지 이유이기도 모른다.

19) Callahan, *Cultural Governance*.

표 31: 현대 아시아의 안티고네

국가	여성지도자	관계	남성 지도자	남성지도자의 운명
필리핀	코라손 아키노	미망인	베니노 아키노	암살
네팔	사하나 프라단	미망인	푸시파 랄 슈레스타	사망
버마	아웅산수키	딸	아웅산	암살
방글라데시	셰이크 하시나 와제드	딸	셰이크 무지부르 라만	암살
방글라데시	칼레다 지아	미망인	지아우르 라만	암살
파키스탄	베나지르 부토	딸	주피카르 알리 부토	처형
말레이시아	반 아지자 완 이스마일	부인	안와르 이브라힘	투옥/재판중
인도네시아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딸	수카르노	가택연금중 사망

확실히 여성 지도자들은 민주적 반란에 국한되지 않았다. 여성이 남성만큼 위계적이고 심지어 독재적일 수 있는지 깨닫기 위해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디라 간디, 박근혜를 상기하면 된다. 그러나 현대 아시아에서 위의 보수적 여성 지도자들의 의미를 언급하면서, 이들 여성 하나 하나는 모두 국가의 수반이었던 아버지를 가졌다는 사실, 즉 가부장제적 유산이 그녀들의 지도력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붕기에서 이 저명한 개인들의 역할은 남성 지도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방글라데시에서 칼레다 지아와 하시나 와제드의 개인적 언쟁은 자주 폭력으로 귀결된다. 아웅산수키의 지지자들에 대한 개인적 지배는 달라이 라마 같은 수많은 카리스마적 남성 지도자들의 경우만큼 완고하게 위계적이고 신비화돼 있다. 역사의 “위대한 여성”보다 수천 명의 여성 활동가들의 상황에 관심의 초점을 맞춘다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난다. 여성들은 단연코 활동가 반란의 핵심을 구성한다. 붕기가 실패하고 지도자들이 살해되면, 여성들이 자주 조각을 맞추어 다음 단계의 투쟁을 준비하도록 요청받는 사람들이다. 저명한 개인들이 개량적 권력구조에 통합되면, 다수의 여성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지만, 가장 비전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남는다.

자주 영웅적 무장투쟁만으로 묘사되는 위업인 광주붕기 동안, 여성들은 해방된 도시의 삶과 “절대적 공동체”에서 중심적이었다. 1978년 시작된 여성들만의 단체인 송백회는 여성의 운동참여를 지원했고, 구속된 많은 남성들을 포함해 활동가들 사이에서 중요한 가교를 제공했다. 일단 붕기가 일어나자, 송백회의 여성들은 민주광장의 일일집회를 조직하는 주요 세력 중의 하나가 됐다. 여성들은 대자보와 일간신문 <투사회보>를 발행하는 데 핵심적이었다. 일부 여성들이 카빈총을 가지고 다녔지만, 대부분의 전사들은 남성이었다. 그들은 가두투쟁에 완전히 참여했음에도, 여성들은 공동식당에 음식제공, 헌혈이나 모금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관f, 부상자 치료와 사망자 처리 등 “보통” 여성적 역할을 담당했다. 1권에서 좀더 자세히 논의했던 것처럼, 해방광주는 진정하게 자유로운 사회를 맛보게 했지만, 그 공간 내에서 여성의 역할은 일상생활의 보통 시기보다 극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시민군 내에 단 한명의 여성도 지도자는 없었다. 군대가 광주에 재진입할 태세를 갖추자, 여성과 청소년은 최후의 전투에서 면제됐고, 도청을 떠나라고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대여섯 명의 여성들이 남아서 수백 명의 남성들과 나란히 싸웠다.

1970년대 남한 노동운동 내에서,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1987년 6월붕기 동안, 여성들은 붕기가 지속적인 전국적 관심의 초점이 되도록 했던 전국적 최루탄 반대의 날을 후원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전투경찰 사이를 돌면서 꽃을 나눠줬을 때, 그들은 수많은 강경파 정권지지자들을 효과적으로 중립화시켰다. 하층 지위에 제한되는 것에 지친 한국 여성들은 점차 조직화했다. 1987년 6월붕기 이후, 여성운동은 오래된 가족법, 특히 오랫동안 여성을 주변화시킨 유교식 호주제도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한국의 문화적 변혁의 놀라운 증거로서, “세계에서 가장 유교적인 사회”는 노동조합을 포함한 수백만 명이 참여한 촛불시위에 10대 소녀들이 온 나라를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됐다.

티벳에서, 1959년에 여성의 지도력과 투쟁을 위한 통합적 역량은 라사봉기에 필수적이었다. 태일랜드의 1934년 학생들은 여중생과 여고생의 유명한 대오를 포함했다. 1986년 필리핀에서 카톨릭 수녀들의 역할은 전설적이다. 티아난먼 광장에서 차이링의 파괴적 역할과 이후 헌신적 활동가 대열에서 이탈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녀는 1989년 반란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등장했다. 1990년 네팔에서 여성들의 용기는 난폭한 탄압을 견뎌낼 운동의 역량에서 중심적이었다. 이 모든 경우에 자주 축하받는 보통여성들의 봉기에 대한 기여는 중요했다.

## 여성의 전형과 민주화

여성의 사회운동 참여에 대한 관심부재의 이유 중 하나는 가부장제가 사회 속에 침투해 가장 혁명적 운동마저 훼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국이나 한국, 유럽,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에 살든, 여성은 체계적으로 종속되고, 차별받고, 어머니/주부이자 노동자로서 이중의 역할을 강요당하고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고 남성폭력에 희생당한다. 전면적 성과에 대한 여성의 기여는 자주 최소화되거나 무시당한다. 비록 주변적이라고 간주되더라도, 여성들은 자신의 노동으로 공장과 사무실에서 이윤을 생산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핵심 주체이며, 여성들의 가내 불불노동은 노동력의 재생산과 유지에 필수적이다.<sup>20)</sup> 이 두 가지 구조적 지위가 여성들을 사회의 중심에 확고하게 위치시킨다.

비경제적 관심을 운동의 열망과 내적 삶에 투여함으로써 여성들은 운동을 내부로부터 변혁하고, 남성들이 다르게 살도록 인도하고, 우리 모두에게 상호성(위계제가 아니라), 협력(경쟁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생명에 대한 사랑(생명을 유린하는 대신에)의 방향을 가리키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sup>21)</sup> 많은 여성들이 이미 일상 생활에서 민주적 패턴을 가지고 있다. 사회언어학자 데보라 태넨은 일상적 대화패턴에서 미국 여성들이 수평적 노선을 따라 친밀감을 만드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성들은 위계제를 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sup>22)</sup> 알랭 투렌은 여성운동이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거대기업이 행사하는 점증하는 권력에 가장 잘 반대할 수 있다”고 믿는다.<sup>23)</sup> 만약 맑스주의자들이 생산의 범주를 몰신화하고 전세계를 하나의 공장으로 만들어 인류를 프롤레타리아트로 만든다면, 페미니즘은 노동 이외의 영역에서 인간의 삶을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중요한 대항력이다. 마르쿠제가 아주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상기시키듯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 존재는 더 이상 평생을 소외시키는 노동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sup>24)</sup>

특히 여성의 열망이 풀뿌리로부터 자유로운 표현을 하게 될 때, 여성참여의 잠재력 결과는 엄청나다. 가부장제는 자본주의보다 선행하며, 우리 의식(과 무의식)에 아주 깊이 자리잡아서 가부장제의 타도는 모든 가능한 혁명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상생활을 급진적으로 변혁함으로써 페미니스트 혁명(다른 형태의 억압 역시 거부하는 혁명)은 가장 광범위하고 민주적인 혁명일 것이며,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운명을 자유롭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직관적으로 명백한 것처럼, 여성들이 페미니스트 혁명으로부터 혜택을 얻지만, 연구들이 점차 보여주듯이 남성들도 그럴 것이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더 오래 산다. 만약 남성들에게 아이를 키우고 노인들을 돌볼 공간이 주어지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작업장의 스트레스 받는 환경이나 부와 권력의 공적 공간에

20) See Martin Oppenheimer's excellent book, *White Collar Politic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85) for an early appreciation of women's proletarianization.

21) Gorz, *Farewell*, 84-5, Herbert Marcuse, "Marxism and Feminism," in *The New Left and the 1960s*, ed. Douglas Kellner (New York: Routledge, 2005), 165-172.

22) See Tannen's insightful book, *You Just Don't Understand: Men and Women in Conversation* (New York: Ballantine Books, 1990).

23) In Gorz, *Farewell*, 85.

24) Marcuse, *Aesthetic Dimension*, 28-9.

더 적은 시간을 보내면, 삶의 질은 말할 것도 없이 남성의 기대수명도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다. 많은 좌파들이 여성주의, “정체성의 정치”, “새로운 사회운동”이 노동계급의 통일성을 침해한다고 이해한다. 비록 파편화된 “새로운 사회운동”과 함께 자주 잃어버린다고 생각되지만, 보편적 이해는 실제로 하위그룹의 구성에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운동은 얼핏 보기에 사회의 절반만의 이해에 기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에 억압적 가부장제적 관계로부터 모든 인간의 해방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sup>25)</sup>

여성과 봉기의 관계에 대해 논의할 때 생기는 문제의 일부는 비록 빈번히 여성들이 봉기에 많이 참여하지만, 용기에 대한 가부장제적 설명과 대변인 선택에서 언론의 편견은 자주 여성의 역할을 최소화한다는 점이다. 운동 내부에서 여성들은 자주 보조적 위치로 격하된다. 1960년대 초,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SNCC: 미국시민권운동의 주요 조직 중의 하나)의 여성들은 메모를 타이핑한 반면 남성들 메모를 썼고, 여성들이 기자회견문을 등사본으로 인쇄한 반면, 남성들은 카메라 앞에서 발언했다. 여성들은 무대 뒤에서 일하도록 돼 있었을 뿐 아니라, 활동가로서 노골적으로 폄하되기도 했다. 독일과 미국에서, 신좌파 주요 학생조직의 남성 지도자들을 처음에 여성해방에 대한 요구를 엄청난 적대감으로 대했다. (공정하게 말해 곧 이어 여성주의는 미국에서, 곧 이어 독일에서도 모든 운동조직의 필수적 부분이 됐다고 더불어 말해야 한다.) 여성들은 와카카 코뮌같이 해방된 순간에도 남성 활동가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부 여성들은 “두개의 전선, 즉 체제와 우리 자신의 운동 내부의 남성들과 투쟁하고” 있다고 느꼈다.<sup>26)</sup>

검은표범당 중앙위원회의 첫 여성인 캐슬린 클리버는 기자에게 조직내 여성의 역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쏘아붙였다. “아무도 지금까지 나에게 혁명에서 남성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그의 요점은 잘 받아들여졌다. 1969년 검은표범당에서 당원의 2/3가 여성이었고, 비록 살인적 경찰공격을 당해 수십명의 당원이 죽었지만, 조직은 공개적으로 여성(및 동성애자)해방을 지지하는 길로 나아갔고, 평등과 유사한 역할 수행에 기반한 상호존중 관계를 수립하려고 노력했다.<sup>27)</sup>

미국, 이탈리아, 독일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페미니즘의 광범한 영향은 부분적으로 이론과 실천의 권력기반으로서 여성 자신의 자율적 조건의 발전 때문이었다. 독립적인 여성조직들은 혁명적 변화에 대한 전체 운동의 결의를 심화시켰다. 이탈리아서 자율적 페미니즘 운동은 개인이 위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고 집단이 자주관리적 합의의 원칙에 따라 활동하는 “1인칭의 정치”(politics of the first person)의 모범을 정립했다. 페미니즘의 자율성 개념은 이후 자율주의 청년운동과 노동자운동의 등장에 결정적이었다.<sup>28)</sup> 남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민족회의 내부의 여성들은 모든 의사결정기구에 여성참여를 보장하기로 결의하여 민주화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었고, 여성의 관심과 지도력에 더 민감하게 만들었다.

비록 유럽과 미국인들이 자주 그곳 여성들이 아시아보다 더 해방돼 있다는 믿음을 퍼뜨렸지만, 서구의 반란운동에서 여성 지도자들이 어디 있는가? 이집트와 아시아에서 역사는 여성 정치지도자들로 가득차 있다. 약 2천년 전, 트롱 자매는 중국에 맞선 성공적 베트남 독립운동의 선두에 섰다. 처음의 패배 이후, 중국의 한족은 재정비하여 베트남을 재장악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군대를 보냈다. 코끼리 위에 올라탄 트롱 자매가 다시 한번 저항을 이끌었지만, 중국이 이 전투에서 이길 것이 분명해지자, 그들은 포로로 잡히기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베트남 여성들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의 여성으로 토지의 상속을 포함해 베트남에서 여성지도력의 강력한 전통에서 등장했었다.

25) For further discussion of the universal interests of the species, see the last chapter of *The Subversion of Politics*.

26) Barucha Calamity Peller, *Women in Uprising: The Oaxaca Commune, the State, and Reproductive Labor* (2011).

27) For more on the Panthers, see Cleaver's essay, "Women, Power and Revolution" in *Liberation, Imagination and the Black Panther Party* (New York: Routledge, 2001).

28) See my book, *The Subversion of Politics: European Autonomous Social Movements and the Decolonization of Everyday Life* (Korean translation published in 2000).

고대 그리스문명의 지속적인 보편적 호소력은 이라크 전쟁 동안 반전 연극인들이 기원전 411년 펠로포네소스 전쟁에 항의하기 위해 쓴 아리스토파네스의 연극 <리시스트라타>(Lysistrata)를 공연하기 시작한 이유를 설명한다. 현대중국에 관한 윌리엄 힌튼의 책 <팡셴>(Fanshen)에서도 묘사된 전술을 사용하여, 아리스토파네스의 연극에 나오는 여성들은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 남편과의 섹스를 거부한다.

## 안티고네와 춘향

비록 반드시 실제인물에 기반한 것은 아니지만, 원형과 고대전설은 문화에 대해 뭔가 본질적인 것을 드러낸다. 그것들은 특정 문화에 익숙한 행동패턴을 체현하기 때문에 수백년 동안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수된다. 필자의 견해로, 한국문화의 차원은 그리스 신화의 안티고네란 인물과 비슷한 보편적 호소력을 갖는다. 그녀의 이름을 딴 소포클레스의 연극에서, 안티고네는 테베의 폭군 크레온에 도전했다. 크레온은 그녀의 남동생 시신을 독수리 먹이로 들판에 내버려두라고 명령했지만 안티고네는 종교적 법률이 세속의 법률보다 중요하다고 선언하고, 폴리네이세스의 시신을 수습해서 적절한 장례식을 치렀다. 이 범죄로 그녀는 굶어죽는 선고를 받았다. 지리하고 고통스런 종말을 기다리기보다, 안티고네는 목 매달아 죽었다. 이 것은 자신의 아들(외디푸스)의 딸인 안티고네를 낳았다고 사실을 알고 목을 맨 그녀의 어머니 오카스타와 같은 운명이었다.

안티고네는 모든 한국인이 아는 신화적 여성인 성춘향과 비슷한 점을 갖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출향은 번사포의 성적 요구에 굴복하길 거부했다. 그는 왕이 임명한 전라도(광주 주변 지역)의 지사로 무자비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지역 여성들에게 자신의 성적 요구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했다. 번사포의 아들인 이몽룡에 대한 춘향의 충절과 그에게만 충실하려는 그녀의 소망(가부장제적 일부일처제의 버전) 때문에 그녀는 애인이 되어 달라는 번사포의 요구에 저항했다. 춘향이 완강히 저항하자, 번사포는 심하게 곤장을 때리도록 명령해서 춘향을 죽을 지경에 이르게 했다. 사포의 생일축하연에서 춘향이 처형되기로 되었을 때 이몽룡이 몰래 전라도로 돌아왔다. 번사포가 자신이 연인 춘향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고문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 이몽룡은 궁정쿠데타를 일으켜 악의 지사를 추방하고 전라도를 조화로 돌아가게 했다. 춘향 이야기는 전라도의 순수성을 압축하고 있으며, 전라도 특유의 판소리(일종의 전라도식 블루스)를 이용하여 가장 널리 공연되게 된다.

한국인들은 아주 겸손해서 자주 자기 문화의 중요성을 깎아내린다. 따라서 춘향에 대한 보통 해석은 춘향이 조선시대에 남성에 순종적인 한국여성을 대표한다는 것이며, 춘향전보다 더 반페미니즘적 이야기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조선왕조의 한 시점에, 가부장제적 일부일처제가 바뀌어 남성들이 부인 외에 첩을 갖게 됐다(비록 첩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열등한 것으로 간주됐음에도). 이상적인 부인은 정조를 지키고 계속 남편과 가족에게 희생했다. 여성의 지성은 아주 무시되어서(자주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글읽기를 배우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심지어 1930년에도 한국 여성 10명 중 9명이 문맹이었다.

춘향이 첩의 “열등한” 자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애인은 귀족 상류계급인 양반 출신이었기에, 계급동학이 구성에 잘 짜여져 있다. 춘향의 어머니도 첩이었고, 이몽룡의 아버지가 강력한 양반이었기 때문에, 이몽룡과 춘향은 불가능한 커플이었다. 춘향에 대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몽룡은 부유한 양반의 딸을 아내로 맞아 수도에서 고위관리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춘향전의 이런 차원은 부자들(과 남성들)이 즐겁게 흥청거릴 자유의 낭송에 불과하며, 반면 가난한 사람들(과 여성들)은 뒤에 빠져 있다. 춘향의 애인은 자유롭게 그녀를 떠나 부유한 여성과 결혼하는 반면, 그는 몽룡에게 충절을 지킬 것으로 기대된다. 구성에 자리잡은 보수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불의한 중앙권력에 대한 춘향의 개인적 저항은 그 대의가 아무리 보수적이라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개인의 권리에 대한 긍정의 모범적 사례이다. 안티고네의 저항행위는 남동생의 시신을 돌보는 것(여성의 전통적 역

할인 남자 친척을 들보는 것)인 반면, 춘향의 행위는 자신의 살아있는 몸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사또의 수청 거부에도 불구하고, 춘향전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며, 모두 자살한 안티고네, 클레오파트라, 트롱자매의 삶과 다르다.

임권택의 영화 <춘향>에서, 그녀의 완강한 거부와 희생은 자기결정에 대한 더 큰 요구를 촉발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몽룡이 이끈 궁정반란과 나란히 토착봉기가 일어나고, 춘향의 해방과 회복 이후에, 국왕은 그 지역에 수년간 세금을 면제했다. 따라서 춘향은 반란행위가 정부관리와 정책의 변화를 이끌었기 때문에 민주적 역할 모델이 됐다. 춘향은 첩이긴 해도 남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권위에 의한 토착적 삶세계의 침투시도에 맞서 공동체의 선택한 삶의 방식을 긍정했다.

원형과 전통적 문화형태는 해방적 사회운동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인가? 아니면 그런 자유투쟁의 장애물인가? 아마도 둘 다일 것이다. 광주의 공동체주의(communalism), 삶의 일상적 측면은 집단적 행동의 중요한 자원인 놀랍게도 풍부한 매일매일의 경험과, 개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초자아를 모두 제공할 수 있다. 유교적인 공적 공간은 자주 젊은 사람과 여성의 가치를 축소하며, 아시아의 페미니스트들의 과도한 가부장제적 차원을 올바르게 이해한다. 서구만큼 미국에서도, 선진적인 사회적 원자화와 틀에 박힌 경쟁, 개인주의, 남성이기주의 패턴 때문에 집단적 행동은 억제된다. 대조적으로, 한국의 공동체주의는 위계적이고 때로 권위주의적이지만, 공동체 의식을 촉진한다. 그것이 가능하게 한 의사소통 채널 때문에, 한국인의 사교성은 이 나라의 위대한 자연자원 중의 하나일 것이다. 유교적 일상생활의 운순함은 미래사회를 예시하며, 민간인 폭력이나 경찰의 무모함에서 목격되는 미국의 일상적 폭력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현대 아시아의 안티고네들은 수백만 명의 여성들에게, 아시아만 아니라 여성의 정치참여 가능성이 현실적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이 “위대한 여성들”은 반란적 사회운동에 의해 저명한 지위로 오르지만, 그녀들이 특별히 급진적인 것은 아니다. 미래의 사회운동은 의문의 여지 없이 더욱 더 여성들로, 여성을 위해 구성될 것이며, 이는 부분적으로 그녀들의 언니들이 남긴 유산 때문이다.

제15장: 비교의 시각에서 본 봉기

“국내소요나 전쟁이 주로 궁핍화의 시기에 일어난다는 통상적 의견 또는 그 역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반대의 진술, 즉 전쟁과 혁명의 주로 번영의 시기에 일어난다는 것이 보편적 규칙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 전쟁, 국내소요, 경제변동 모두가 서로 상당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전쟁과 혁명의 원인은 주로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 피트림 소로킨

"새로운 운동은 경제위기와 정치변화 사이의 관계, 대중봉기의 경쟁력, 노동의 역할, 민주주의의 정의, 새로운 역사의 창조에서 개인적, 문화적 요소의 중요성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촉발했다."

- 칼 보그스

수십 년 동안 사회과학자들은 사회적 반란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 변수와 관계를 찾아내려고 노력했지만, 이는 사회운동 산업에서 수천명의 연구자들을 계속 자극하면서도 포착하기 힘든 목표다. 추상적 가설을 경험적 데이터로 채우는 연구자들은 통제센터에 잠재적으로 유용한 행정적 사회연구를 생산한다. 하지만 가설연역적 방법론이 표준화된 공식의 규정 아래서 사회적 현실의 독특한 현실을 포섭하기 때문에, 그 방법론은 자주 무언가 밝혀내기보다 모호하게 한다.

일찍이 1937년 피트림 소로킨은 보편적 공식을 찾으려고 수천 건의 “사회적 소요”를 분석했다. 자신도 놀랍게도, 소로킨은 “전쟁, 국내소요, 경제변동 모두가 서로 상당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전쟁과 혁명의 원인은 주로 경제적인 것이 아니다”는 점을 발견했다.<sup>1)</sup> 이런 발견은 많은 질문을 무응답 상태로 남겨둔다. 왜 봉기들은 그 때 발생하는가? 왜 어떤 봉기는 성공하고 다른 봉기는 실패하는가? 왜 1986년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의 타도처럼 어떤 봉기의 일시적 승리가 보다 장기적인 체제변화로 이어지지 않는가? 비슷한 행동에서 왜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한 봉기와 다른 봉기 사이에 관계가 있는가?

이 책에서 검토한 봉기들에 대해, 학문적 연구가 만들어낸 어떤 예측변수도 모든 봉기와 강력하게 상호연관 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경제적 요인, 시위의 정점, 사망자 숫자, 정권 내부자의 역할도 그렇고 종교도 마찬가지다. 민중의 봉기참여와 강도가 이후 민주화의 심화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경우에 이 관계가 유효한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기반도 중요한 기여요소이며, 특히 그런 자원이 자율적 조직과 집단적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봉기의 일차적 원인을 국내적 경제-정치적 변수에 위치시키기보다, 한 반란의 다른 반란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봉기는 상호연쇄와 상호강화의 에로스 효과로 밀집된다. 2011년 아랍의 봄 동안, 이 현상은 충분히 가시적이었다. 페이스북, 유튜브, SMS 메시지의 유희유 역할로 봉기에 참여하려는 민중의 직관적 역량은 강력했다.

경제적 요소

소로킨의 경험적 작업의 발걸음을 따라, 이후의 연구는 하락하는 지위와 몰락하는 경제적 위치를 우익운동과 상호연관 시켰다. 고전적 사례는 1차대전 후 독일 경제위기에 이은 나치즘의 등장이다. 1933년, 아서 레이퍼는 1901년에서 1930년까지 미국남부에서 수백 건의 인종적 린치와 면화가격 사이에서 역의 상관관계를 밝혀냈다.<sup>2)</sup> 면화가격이 올라가면 평화가 지

1) Pitrim Sorokin, *Social and Cultural Dynamics*, vol. 3: *Fluctuations of Social Relationships, War, and Revolution* (New York: American Book Company, 1937), 238.



배하지만, 면화가격이 떨어지고 곤경이 시작되면 린치 숫자가 극적으로 증가했다. 사회과학이 아주 소수의 경험적 발견을 보편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비록 노동계급이 곤경에 맞서 일어설 것이라는 보편적 믿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곤란과 지위하락의 시기가 우익, 심지어 독재적 사회운동을 생산한다는 통찰력은 많은 시간과 장소에서 유효한 것 같다.

흔히 진보적 운동이 경제위기의 결과로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좌파적 혁명적 격변은 상승하는 번영과 높아지는 기대가 경제성장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질 때 발생하는 것 같다. 제임스 데이비스는 1952년 이집트혁명과 20세기 초반의 러시아혁명을 조사한 다음 그런 “J-커브”를 공식화했다.<sup>3)</sup> 전체적으로 볼 때, 20세기 말 아시아 붕괴와 관련된 데이터는 데이비스의 가설을 입증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의 경제위기, 특히 인플레이션이 민중들 사이에서 커다란 공포를 야기하고 소요에 기여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붕괴 이전에 마이너스 GDP 성장을 경험했고, 인도네시아에서 IMF 위기 동안 마이너스 13.1퍼센트에 이르렀다. 수하르토 타도 이전에, 2,000만 명의 시민들은 생활수준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졌다. 마르코스 하의 필리핀에서, 민중들이 그를 망명지로 쫓아내기 전에 수년간 경제는 침체했다. 하지만 경제위기는 보편적으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남한의 경제는 1987년 6월붕괴 이전 12.4퍼센트의 건전한 성장을 기록했고, 태일랜드의 경제생산도 1992년 이전 2년 동안 평균 10퍼센트 증가했다. 아래 표의 데이터는 최근 아시아 붕괴 이전에 어떤 확실적인 경제조건을 확인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표 32: 붕괴 이전 인플레이션과 GDP 성장률

나라(붕괴)	연도	물가상승률	GDP 성장률	년도
네팔 (1990년)	1980-1990	9.1%	7.2%, 4.2%	1988, 1989
방글라데시(1990년)	1980-1990	9.6%	2.9%, 2-5%	1988, 1989
필리핀 (1986년)	1980-1986	18.2%	-7.3%, -7.3%	1984, 1985
인도네시아 (1998년)	1998, 1999	58.5%, 20.5%	4.7%, -13.1%	1997, 1998
태일랜드 (1992년)	1980-1992	4.2%	11.6% , 7.9%	1990, 1991
한국 (1987년)	1980-1987	5%	6.9%, 12.4%	1985, 1986
타이완 (1990년)	1980-1987	1.3%	4.9%, 11.6%	1985, 1986
중국 (1989년)	1988,1989	18.8%, 18.0%	11.3%, 4.1%	1988, 1989

Sources: Junhan Lee, “Primary Causes of Asian Development: Dispelling Conventional Myths,” *Asian Survey* 42, no. 6: 825;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02 as cited in China Institute for Reform and Development, *Thirty Years of China’s Reforms: Through Chinese and International Scholars’ Eyes*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2008) 81.

만약 경제위기가 붕괴로 이어진다면, 1997년의 IMF 위기 동안 지역 전체에서 주요한 동원을 볼 수 있었어야 했다. 신자유주의에 맞선 한국의 총파업은 1996년 12월에 시작됐고, 위기가 처음 발생하기(태일랜드 1997년 7월) 훨씬 이전이었다. 1997년 후반 한국경제가 파산했고, 민족구성원의 이름으로 노동계급을 잠재우는 데 사용된 한 가지 이유였다. 태일랜드에서 1백만 명 이상이 1998년까지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자, 국민들의 반응은 거리로 나서 항의하기보다 자신을 구하는 것이었다. 1986년까지 필리핀에서 심각한 경제불황이 마르코스 축출에 선행했고, RAM 장교들, 신 추기경, 민주적 야당의 참을성 있는 준비시기에도 그랬다. 폭동의 타이밍은 점차 성공적인 공산주의의 소모전과 마르코스에 대한 미국의 불만 같은 정치적 요소의 기능이였다. 분명히 1998년 인도네시아에서, IMF 위기로 야기된 중요한 경제적 혼란은 수하르토에 반대하는 학생동원에 크게 기여했다. 중국에서도, 경제문제는 1989년 이전에 중요했다.

2) Arthur Raper, *The Tragedy of Lynching*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33), 31.

3) James C. Davies, “Toward a Theory of Rev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7, no. 1 (February 1962): 5-19.

1959년 세이무어 마틴 립셋이 민주화가 장기 지속되기 전에 중산층의 민주주의 문턱이 존재했다는 가설을 발표한 중대한 논문을 썼다.<sup>4)</sup> 비록 립셋의 가설은 이후에 진실로 받아들여졌지만, 최소한 여기에서 논의한 나라의 붕기발생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유효한 것 같진 않다. 아래 표의 데이터는 경제적 번영수준의 광범한 편차를 보여주지만, 모든 나라에서 지속적 민주화가 이뤄졌다. 붕기의 성공은 커다란 중산층의 창출 또는 1인당 GNP의 기능인 것 같지는 않다.

표 33: 붕기시의 1인당 GNP

나라	연도	1인당 GNP
네팔	1990	\$170
방글라데시	1990	\$210
네팔	2006	\$268
중국	1987	\$290
필리핀	1986	\$560
인도네시아	1998	\$636
타일랜드	1992	\$1,840
남한	1987	\$2,690
타이완	1987	\$5,325

Sources: Junhan Lee, "Primary Causes of Asian Development: Dispelling Conventional Myths," *Asian Survey* 42, no. 6: 823; Roger V. Des Forges, Ning Luo, Yen-bo Wu, eds., *Chinese Democracy and the Crisis of 1989: Chinese and American Reflections* (Albany: SUNY Press, 1992), 224, [http://www.studentsoftheworld.info/country\\_information.php?Pays=NEP](http://www.studentsoftheworld.info/country_information.php?Pays=NEP).

네팔의 성공적인 두 번의 붕기는 낮은 수준의 경제번영에도 일어났다. 2006년 붕기 이후 네팔의 첫 번째 행동은 군주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었다. 민주주의가 계속될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아직 너무 이르지도 모르지만, 광범한 경제적 지위는 최소한 이들 나라에서 경제발전 수준과 붕기 사이의 상관관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가리킨다. 20세기 말 아시아에서, 붕기는 명백하게 경제결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본운동에서 주요한 계기는 아니었다.

식민화 권력의 정체성도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과거의 네덜란드 식민지(인도네시아, 타이완), 미국(필리핀), 일본(타이완, 한국), 영국(네팔, 방글라데시, 버마)의 지배를 받은 나라들은 모두 강력한 민주화 붕기를 경험했다. 과거 프랑스 식민지들(베트남, 캄푸치아, 라오스)이 운동의 물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프랑스의 식민화보다는 인도차이나 전쟁(그 사회와 경제를 결정) 동안 미국의 집중적 폭격이란 요소 때문이었을 것이다. 심지어 여기에서도, 남한의 경우 반대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한국전쟁(1950-1953년) 동안 미국 공군력으로 전국토가 황폐화된 지 겨우 7년 만에 민중들은 이승만독재를 타도하기 위해 붕기했다.

#### 시위의 정점과 민주화의 심도

대결정치와 끈질긴 조직화 노력의 관계도 자주 선택의 용어로 묘사되지만,<sup>5)</sup> 필자의 연구는 상호보완적임을 보여준다. 나라마다 붕기는 장기조직화의 고양을 가져왔고, 파업물결의 발생, 시민사회 조직들의 대대적 등장, 자율적 언론의 번성 등에 기여했다. 가두투쟁 조직화를

4) Seymour Martin Lipset,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3, no. 1 (March, 1959): 69-105.

5) See Alagappa, *Civil Society*.

편하(심지어 적대)하는 한 가지 이유는 전문적 활동가들과 학술적 “목적자들”이 민중운동의 갑작스런 “그들의” 영역진입에 위협받기 때문이다. 봉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자율적 목소리들이 하위집단의 대표자로서 전문가들의 높은 지위에 떼지어 몰려든다. 피억압자가 스스로 발언하면, 먼저 목소리를 낮추는 일부사람들은 바로 그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자주, 봉기는 운동의 고조를 창출하며, 심지어 운동이 잔인하게 억압받는 경우에도 그렇다 (버마와 티벳처럼). 네팔, 한국, 태일란드, 방글라데시에서 민주적 돌파 직후에, 노동자운동이 폭발하여 노조조직화를 확대하고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주장했다. 네팔, 방글라데시, 남한의 여성운동은 새로운 정부보호와 일상생활의 변화를 쟁취했다. 법제화 또는 조직건설과 달리, 봉기는 뿌리박힌 행동패턴을 해체하고 일상화된 지배구조에 도전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사회적 변혁을 자극할 수 있다. 봉기는 국가지배 영역을 다시 주장하는 중요한 도구이고, 봉기의 에로스적이고 정서적인 에너지는 되살아난 시민사회에 중요하다.

1980년대와 1990년 포스트 신좌파 고조로 이뤄진 민주화의 성격을 연구하면, 봉기가 강렬하면 할수록, 민주화의 심도는 더 크고, 역으로 중요한 민중동원이 없는 나라들에서 민주화는 가장 취약하다는 사실을 목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에서 비행기 사고로 지아 알하크 대통령이 사망하자 1988년 베나지르 부토가 선거에서 승리했다. 많은 정치학자들에게 이 선거는 비록 파키스탄이 곧 다시 한번 독재로 전락했음에도 민주주의의 존재증거였다. 다른 한편 동원이 오래 동안 확산되고 지속되었던 남한에서 민주화는 아주 활력 넘쳐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군부체제가 다시 강제될 가능성을 본다. 심지어 제한되더라도 거리의 중요한 시위가 없다면 형식적 민주주의도 엘리트들의 존경을 받을 희망이 거의 없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아시아봉기의 물결은 동유럽의 변혁적 사건들에 선행하며, 1989년 동유럽혁명과 달리, 냉전을 종식시키려는 세계 지도자들의 결정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동아시아의 봉기는 일반적으로 엘리트 결정이 아니라 활성화된 시민의 직접행동으로 촉발됐다. 이것은 아시아 민중들의 삶이 일반적으로 민주적 돌파 이후에 나아진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오히려 기대수명이 짧아진 구소련과 동유럽 공화국에서 하향식 반란과 달리)? 우리는 운동의 정점과 봉기의 지속효과를 상호연관 지을 수 있는가?<sup>6)</sup>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광주의 활성화된 시민은 인구의 약 43퍼센트이며, 왜 그날 밤 그들이 군대를 압도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는 놀라운 정도로 높은 비율이다(비록 1980년 5월 27일의 패배와 그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는 전두환의 7년 독재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광주의 높은 참여율은 왜 그 도시가 한국에서 반란을 계속 추동하고, 왜 한국의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지배하게 됐는지에 대한 근거일 수 있다. 아래의 표 34는 운동의 정점을 기술한다.

표 34: 도시 시위의 정점

도시	날짜	정점의 시위대 숫자	도시 인구	인구 비율
방콕	1973년 10월 13일	500,000	3,500,000	14%
광주	1980년 5월 21일	300,000	700,000	43%
마닐라	1986년 2월 23일	1,000,000	7,725,000	13%
서울	1987년 6월	1,000,000	10,000,000	10%
랑군	1988년 8월 8일	500,000	2,800,000	18%
랑군	1988년 9월 8일	1,000,000	2,800,000	36%
베이징	1989년 5월 20일	1,000,000	12,000,000	8%
카투만두	1990년 4월 6일	400,000	1,100,000	36%

6) See Junhan Lee, “Primary Causes of Asian Development: Dispelling Conventional Myths,” *Asian Survey*, 42, no. 6, 823, 831. 이준한은 그런 시도를 했지만, 진짜 정점을 이해할 경험적 데이터는 없었다. 필자는 그의 방법론적 제한에 도움을 받았다.

방콕	1992년 5월 17일	300,000	6,220,000	5%
자카르타	1998년 5월 20일	1,000,000	9,000,000	11%
카투만두	2006년 4월 22일	1,000,000	1,900,000	53%

다른 추상적 공식처럼, 정치적 시위의 정점모델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지 않다. 랑군에서 약 도시의 36퍼센트가 1988년 9월 88일 민주주의를 위해 동원됐지만, 극심한 탄압으로 수십 년 독재가 이어졌다. 1959년 3월 19일 라사에서, 실제로 전도시가 달라이 라마를 방어 하라는 호소에 응답했지만, 수천 명이 사망한 전투의 결과 중국이 승리하고 라사는 식민화에 굴복했다. 1987년 6월 26일 서울에서 최대 시위에 약 1백만 명이 참여했지만 인구의 10 퍼센트였고, 운동의 발전은 강력하고 장기적이었다.

### 사망자 집계

아무도 놀라지 않겠지만, 군부독재의 어리석음은 오직 그들의 야만성에, 어떤 필요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자기이해인 “합리적” 엘리트 행위자의 이익에만 어울린다. 봉기 동안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와 정부의 안전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아래의 숫자는 정권이 더 많은 사람을 죽일수록 권력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가리키는 것 같다. 비록 국제적 여론과 국내적 제약요인 때문에 더욱 정부가 자기 시민에 대한 폭력을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지만, 버마의 군부는 별로 자제력을 보여주지 않았고 2011년 아사드와 가다피도 그랬다. 비록 1989년 루마니아 정권은 수백 명을 죽였지만, 타도됐다. 다른 추상적 공식처럼, 심지어 심한 탄압도 항상 정권교체 또는 그것의 부재를 항상 설명할 수는 없다.

표 35: 봉기시 사망자

장소	연도	사망자 숫자
라사	1959	5,000
타일랜드	1973	77
광주 <sup>7)</sup>	1980	240
마닐라	1986	12
한국	1987	1
버마	1988	3,000
티벳	1989	250
베이징	1989	250
타이완	1990	0
네팔	1990	62
방글라데시	1982-1990	105
타일랜드	1992	52
인도네시아	1998	1,188
네팔	2006	21
이집트	2011	840

Note: Numbers used are conservative and reflect official counts when available.

다른 대륙과 비교하면, 아시아 봉기 동안 사상자 숫자는 아주 적다. 새뮤얼 헌팅턴은 1974년

7) 이 수치는 518기념재단의 자료이다. 정부의 보상프로그램은 더 낮은 숫자를 반영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일부 가족이 등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에서 1990년까지 30건의 민주화 노력에서 총 20,000명의 사망을 집계했다(남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주로 집중된).<sup>8)</sup>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쟁으로 살해된 수백만 명이나 라틴아메리카 분쟁에서 사망한 수만 명과 비교하면, 정치문제를 다룰 때 아시아의 온순함은 명백한 것 같다. 1973년 그리스 독재가 폴리테크닉 공대를 통제하려 탱크를 이용했을 때 아테네에서 약 34명(주로 학생들)이 죽었다. 1989년 IMF가 강제한 긴축프로그램에 맞선 베네수엘라 봉기에서 공식집계로 276명이 사망했지만, 그 수치는 아주 지나치게 적다. 보다 신뢰할 만한수치는 수천 명이다. 같은 해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의 타도에서 거의 800명(공식적으로 794명)이 살해당했다.

### 군대와 정권내부자의 역할

민주화 이행의 유형학에서, 정치학자들은 엘리트 동화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인다. 외부에서 보는 분석가들은 헝가리의 이행에서 공산주의 엘리트들의 자본주의 엘리트로의 변신을 보지만,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새로운 엘리트가 등장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시각은 봉기의 살아있는 경험을 이해하거나 민중의 삶이 변혁되는 방식 또는 구체적 계급주체가 운동을 창출하고 지도하는 데 관여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군대의 대열 내에서 반란자로 중요한 이탈이 일어났다. 필리핀에서 반정부 장교들이 마르코스에 대한 폭동을 이끌었고, 카톨릭 교회의 도움으로 수백만 명의 지지자들을 불러 모았다. 심지어 마르코스에 동조적인 군인들조차 거리에 밀집한 시민들에게 탱크를 밀어붙이기를 거부했다. 중국에서, 군대는 비슷하게 베이징 시민들이 그들을 저지하기 위해 평화적으로 동원한 2주일 동안 계엄령 강제를 거부했다. 한 지휘관이 공개적으로 선언했듯이, “우리는 인민의 군대다. 우리는 결코 인민들에게 발포하지 않을 것이다.” 제38군의 슈칭산 장군은 무력을 사용하라는 명령에 따르길 거부했고, 폭력이 격화되자 100명 이상의 장교들과 1,400명의 사병들이 탈영했다. 1973년 타이의 크리스 시바라 장군은 방콕에 추가적 부대파견이나 탄약 재공급을 거부했고, 실질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하려는 경쟁자의 역량을 제한했다. 왕립 타이해군은 공공연하게 학생들을 지지했고, 공군인사들은 탄압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했다. 광주봉기 동안 정웅 장군은 시위대에 군대를 사용하라는 명령에 동의하길 거부했다. 세 번의 다른 경우에 그는 경찰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sup>9)</sup> 전라도에 주둔한 그의 부대는 광주역 교전 동안 평화적 후퇴에 대한 협상에 성공했다. 광주지역의 거주자로서 그들은 유혈사태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고, 민중들도 그들이 평화적으로 소개하도록 했다. 광주의 경찰서장 역시 부하들에게 발포를 명령하길 거부했고, 이 행위 때문에 체포됐다. 버마에서, 국경경찰, 출입국 관리, 공군 인사 모두가 1988년 9월 9일 시위에 참여했다. 독립운동을 이끈 유명한 “30인의 동지들” 중의 11명이 민주주의를 지지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군대는 학생들이 의사당 건물을 점거하도록 허용했다(그리고 수하르토가 대통령궁을 떠나자, 점잖게 학생들을 쫓아냈다).

미얀마의 경우, 버틸 린트너는 만약 1998년 어떤 장군이 민주주의의 깃발을 내걸고 랑군에서 행진했다면, 운동이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추정했다. 버마군 장교들은 비록 이타적 행동이 아니라 소수민족 여성 집단강간과 막대한 재산축적으로 악명 높았지만, 민주주의의 전망에서 보자면 좌익 군부쿠데타는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군대가 너무 잔인해서, 카렌 민족동맹 부의장인 데이비드 타레카보는 필자에게 시민을 보호할 군대가 없다면, 시위를 위해 군대를 거리로 불러내는 것은 학살을 조직하는 것이나 거의 다름없었다고 말했다.<sup>10)</sup>

대규모 시위와 함께 군사행동의 조정 또는 최소한 위협조치 확실히 정권교체를 실행하는 효과적 수단이다. 자율적인 군대는 네팔의 2006년 봉기에서 중요했다. 그 당시 마오주의 군대는 군사공격을 도시동원과 결합시켰다. 필리핀에서, RAM의 폭동은 대규모 봉기의 열쇠였다.

8) Huntington, *Third Wave*, 194

9) Interview with Chung Oong, Seoul, December 4, 2009.

10) Interview in Maesot, Thailand, November 5, 2008.

폭동군에 대한 교회의 노골적 지지는 마르코스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렸고, 정부군은 반란군 기지에 대한 효과적인 반격을 가할 수 없었다. 최대의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경정을 통해서든, 민중동원을 탄압할 수 없을 정도의 분열을 통해서든, 최소한 군대는 중립화 시켜야 한다.

군대 내부의 이탈과 함께, 고위 정부관리들도 항명했다. 중국에서 결정적 순간에 외무부 장관은 비록 덩샤오핑이 자오지양을 리핑으로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오지양이 여전히 총리라고 주장했다. 1992년 태일랜드에서 방콕시장 참봉은 시위의 지도력을 접수하고, 많은 각료들이 군대의 무력사용을 공개적으로 규탄했다. 네팔에서 외무부 장관은 왕립군의 과도한 폭력사용을 비판했고, 많은 정부부서 공무원들이 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업무거부” 파업을 전개했다. 필리핀에서, 주지사들과 고위 관리들은 야당 편으로 넘어갔고, 인도네시아에서 의회 지도자들은 수하르토의 재선을 무효화하고 탄핵을 요구했다. 아시아 붕기에 동조하고 때로 참여한 정권 내부자들은 별로 연구되지 않은 차원이다. 많은 민주화 이론가들은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세력과의 단결이 중요한 필요라고 주장한다. 반란이 성공하려면 기존 엘리트의 일부가 붕기세력에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알프레드 스테판은 결론내린다. “사회주도의 격변은 그 자체로 사실상 재민주화로 이끌 수 없다고 주장하고픈 유혹을 느낀다.”<sup>11)</sup>

## 시민사회

유럽역사에서, 서기 285년 로마제국의 동서 분열로 두 개의 아주 다른 사회체제가 창출됐다. 동유럽에서, 황제는 콘스탄티노플에서 기독교 교회와 비잔틴 국가의 수장이 됐다. 로마가 게르만족에게 두 번이나 정복당한 후, 교황은 정치권력의 부속물로 전락했다. 1000년 뒤 신교 개혁과 결합되자, 그 순수한 결과는 서유럽에서 자율적 세속주의가 형성되고, 시민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이 창출됐다. 이런 서유럽의 역사적 발전의 결과로 “시민사회”가 존재하기 위해 모든 사회가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가설이 정립됐다.

위르겐 하버마스는 특히 “진정한” 시민사회가 존재한다고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긴 목록을 작성했다: 자유언론과 문자해독력, 개인의 권리, 예절, 집단적 협의를 위한 장소.<sup>12)</sup> 다른 많은 이론가들만큼 하버마스에게, 서유럽의 사생활과 원자화는 그가 믿기에 부르주아적 개인이 발전하지 않은 아시아나 동유럽과 첨예하게 대비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사생활과 개인의 권리는 아시아의 밀집한 도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된다. 하버마스의 견해로, 18세기 유럽의 커피하우스는 공적 영역과 시민사회에 크게 기여했다. 그의 발걸음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의 찻집을 비슷한 영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유럽사회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대답은 “아니다”였다.<sup>13)</sup>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아시아의 많은 찻집과 심지어 거리의 모퉁이도 유럽 최고의 카페 내부보다 더 시민적 공간일 수 있으며, 필자는 두 장소 모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아시아의 이웃들은 사람들이 흔히 지역사회의 구성원조차 제대로 모르는 미국보다 서로의 삶에서 보다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역할을 한다. 하버드대 교수 헨리 루이스 게이츠는 이런 진술을 입증할 수 있다. 2009년 그는 중국여행에서 돌아와 집 열쇠를 잃어버렸음을 알았다. 자기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이웃의 누군가가 경찰에 전화했고, 흑인인 그는 캠브리지의 부유한 지구에 있는 자기 집 안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11) Alfred Stepan, “Paths toward Redemocratization” in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Comparative Perspectives*, vol. 3, eds. Guillermo A. O'Donnell, Philippe C. Schmitter, and Laurence Whitehead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91).

12) Callahan, “Comparing the Discourse,” 281-2.

13) See Susanne H. Rudolf and Lloyd I. Rudolf, “The Coffee House and the Ashram: Gandhi, Civil Society and Public Spheres,” in *Civil Society and Democracy*, ed. Carolyn M. Elliot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377-404. 심지어 아시아의 찻집에 대해서 어딘가에서 토론의 성격이 유럽의 카페에서 이뤄지는 개인적 자율의 고귀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주장이 난무한다.

아시아의 가치와 관계의 유산을 자원으로 위치짓는 대신에, 많은 서구의 관찰자들은 미국 스타일 자원그룹의 결핍을 지적하고 시민사회가 없다고 결론내린다.<sup>14)</sup> 존 킨은 “초기 현대적 사용법에서, ‘시민사회’는 전형적으로 ‘아시아적’ 지역과 대조되는데, 거기에서 시민사회가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데 실패했거나 그렇다고 말했다.”<sup>15)</sup> 확실히 아시아에서 활기찬 시민사회의 뿌리는 알려져 있다. 1905년과 1949년 사이에 100개나 되는 상이한 여성신문이 발행됐고, 시장도시의 중국상공회의소는 1912년 약 200,000명의 상인회원을 가진 최소한 2,000개에 이른다고 하며, 추가로 대도시에 871개의 협회들이 있었다고 한다.<sup>16)</sup> 민주주의는 유럽(그리스)의 발명품으로 정식화돼 있지만, 연구에 의하면 공화적 형태의 정부가 고대 수메리아 도시들에서 발견된다.<sup>17)</sup> 인디아에서 선출된 지도자와 의회를 갖춘 공화국들이 갠지스 평원에서 생겨났고, 거기에서 자이나교나 불교처럼 힌두 카스트제도에서 벗어난 평등주의적 분파들이 등장했다.<sup>18)</sup> 라오추(老子), 맹초(孟子), 공초(孔子) 등의 아시아 철학자들에게서 뿌리를 본 김대중은 아시아의 문화적 전통이 새로운 “전지구적 민주주의”를 구성할 기초를 제공한다고 설득력있게 정리했다.<sup>19)</sup>

광주에서 활동가들은 심지어 군부독재의 극심한 탄압 아래서도 그들은 이웃집에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운동권 소식을 퍼뜨렸다고 상기시켜줬다. 특히 김치를 새로 담으면 이웃과 나눠먹는 한국의 오랜 전통을 이용하여 소식을 몰래 알리고 행사를 조직했다. 1980년 광주봉기 동안, YMCA, YWCA, 남동 천주교회, 여성들의 송백회, 녹두서점, 들불야학, 광대연극패, 예술가협회 등 시민단체들은 엄청나게 중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도적 한국학자들은 1985년 선거때까지 시민사회가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sup>20)</sup> 40년간의 가혹한 탄압(“백색테러”) 아래 국가주도로 정치적 반대자의 알려지지 않은 살해가 수천 건이나 일어난 타이완에서, 시민사회, 즉 “하층의 대항공화국”의 창출은 활동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비슷한 친유럽적 편견은 보수적 논평가 루시언 파이의 저작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는 프로테스탄티즘을 시민문화의 이상적인 기초로 규정하고 그것의 결여 때문에 아시아가 민주화의 마지막 대륙이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sup>21)</sup> 1970년대와 1980년대 아시아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자, 싱가포르의 리관유와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모하메드는 “아시아의 가치”를 성공의 이유로 설명했다. 그들은 서구와 달리 아시아인들이 개인보다 가족, 개인적 자유보다 사회질서, 여가보다 노력을 소중히 여긴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모든 말에도 불구하고, 이 대륙은 이라크에서 한국, 시베리아에서 스리랑카까지 포함해 믿을 수 없이 다양하다. 비록 동아시아로 한정해도, 다양성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 책에서 연구한 10개국 중에서, 둘은 이슬람(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하나는 힌두(네팔), 셋은 유교(중국, 타이완, 한국), 하나는 카톨릭(필리핀), 셋은 불교(타일랜드, 버마, 남한) 나라다. 남한은 또한 많은 신교도가 있고, 아마 인구의 1/3에 이른다. 한때 유교가치가 사업수완의 결여와 느긋함 때문에 비난받았으면서도 서양 사업가들이 예의바른 동양인을 이용했던 곳에서, 오늘날 유교문화는 확실히 부와 상호 연관되어 있다.<sup>22)</sup>

14) The case of Korea is discussed at length in Volume 1. Gregory Henderson found “amorphousness and isolation in social relations.” See Gregory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4.  
 15) Keane, *Global Civil Society?*, 31. On the next page, Keane continues his commentary on Europeans’ views: “Civil societies was impossible in Muslim society.”  
 16) Gordon White, Jude Howell, and Shang Xiaoyuan, “Market Reforms and the Emergent Constellation of Civil Society in China,” in *Civil Society and Democracy*, ed. Carolyn M. Elliot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266-267.  
 17) See Thorkild Jacobsen, “Primitive Democracy in Ancient Mesopotamia,”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2, no. 3 (1943): 159-172.  
 18) Romila Thapar, *A History of India*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6), 53. See Goody, “Civil Society,” 156.  
 19) Kim Dae Jung, “Is Culture Destiny? The Myth of Asia’s Anti-Democratic Values,” *Foreign Affairs* 6, 189-194.  
 20) Bruce Cumings, “Civil Society in West and East,” in *Korean Society: Civil Society, Democracy and the State*, ed. Charles Armstrong (London: Routledge, 2002) p. 24.  
 21) Lucian Pye, *Asian Power and Politics: The Cultural Dimensions of Authority* (Cambridge: Belknap Press, 1985).

미국의 보수적 반공주의는 “전체주의적” 국가가 사회의 모든 자율적 요소들을 삼켰다고 주장함으로써 동유럽에서 시민사회의 존재를 모호하게 했지만, 오늘날 20세기말 동유럽의 봉기들이 시민사회로부터 나왔다는 일반적인 동의가 있는 것 같다. 역사의 간지가 양측에서 많은 냉전적 선전을 무효화했기 때문에, 폴란드(압도적으로 카톨릭사회) 연대노조 (*Solidarność*)의 정치적 실천으로 폴란드의 반체제 인사들이 “국가에 대항한 시민사회의 반란”에 대해 말했다.<sup>23)</sup>

많은 서구 이론가들이 시민사회는 경제발전의 기능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서구의 궤적과 그런 종류의 시민사회가 “덜 발전한” 나라들의 미래라고 기대한다.<sup>24)</sup> 실제로, 20세기말 변화하는 동학은 “산업적으로 더 발전한 나라는 단지 덜 발전한 나라에게 자신의 미래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정치적 상투성을 역전시킬지도 모른다.<sup>25)</sup> 1997년 아시아의 IMF 위기에 이어 10년후 미국에서 시작된 전지구적 경제붕괴(meltdown)가 일어났다. 하부구조가 악화되고 정부가 더 많은 권력을 쥐면서, 미국이 제3세계 국가가 되고 있다는 예측은 점차 사실로 보인다. 서양이 동양에게 미래를 보여주기보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다.

2권 전체에서 필자는 서양의 것과 전혀 다른 아시아의 전통적 시민사회가 사회운동에 힘의 원천이 되었던 방식을 지적했다. 한국의 마을사람들이 불만을 알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합리적 수단을 찾기 위해 사용한 나무와 북에서, 불만의 해결이 위해서 청원한 중국인들의 권리, 국왕이 정의롭게 통치해야 한다는 다르마의 의미에 대한 네팔인들의 이해까지, 아무리 오래됐더라도 문화적 전통은 지배권력에 대한 반대를 결집하는 효과적 수단이 됐다. 래리 다이어먼드 등이 지적한대로, “시민사회는 민주화 이행을 위한 압력을 건설하고 그것을 완성까지 밀고나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sup>26)</sup> 만약 아시아가 취약한 시민사회를 가졌다면, 어떻게 민주화운동이 성공했겠는가?

### 자율성과 집중화

봉기의 단기적인 성공적 성과에 이른 요인들의 목록 위쪽에 탈집중화된 권위구조 내에서 수많은 다양한 풀뿌리 그룹들의 자율적 주도력이 있다. 봉기 자체의 역사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에서 이 동학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1948년 집중적으로 조직된 제주봉기는 참가자들의 희망대로 민족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던 반면, 자연발생적이고 자율적인 광주봉기는 민주화 이행의 일부로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시킨 지구적이고 성공적인 노력으로 이어졌다. 광주에서 봉기 이전 운동 지도자들의 체포로 운동은 더욱 자생적이고 풀뿌리답게 됐다. 다중이 중심적이었고, 요구는 비전을 보였고, 연대는 지도자들 간의 이데올로기적(그리고 개인적) 불일치로 방해받지 않았다. 봉기가 더 자율적일수록 단기적 성과가 더 크다고 일반화할 수 있는가?

1권에서 길게 논의한 것처럼, 제주와 광주의 한국봉기들은 본질적으로 미국이 지배하는 점차 이질적으로 결정된 사회관계에 직면하여 자율적 자결의 열망에서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두 봉기는 모두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지역문제에서 우세한 기업/정부권력의 총자본 (*Gesamtkapital*)이란 국제적 거석(megalith)에 맞섰다. 이 봉기들은 보통 국내적 동학의 맥락에서 이해하지만, 제주봉기와 1947년 2월 28일 타이완의 봉기를 비교하면 공산주의에 맞서 냉

22) See Larry Diamond, ed., *Political Culture and Democracy in Developing Countries*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1993).

23) See John Ehrenberg, “Civil Society,” *New Dictionary of the History of Ideas* (New York: Scribner’s, 2004).

24) See for example, Girling, “Development and Democracy,” 332.

25) Karl Marx, Preface to the first German edition of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67), 8-9.

26) Diamond et. al., *Consolidating*, xxx. Yet as Muthiah Alagappa notes, NGOs and civil society can also be impediments to democratization.



전을 수행하기로 한 영미의 결정에 의해 2차대전말 분단된 나라에서 무고한 민간인 수만명의 학살이란 비슷하게 비극적인 결과가 드러난다.<sup>27)</sup> 우연의 일치로, 제주에서 최초의 학살은 타이완에서 학살이 시작된 지 하루만에 이뤄졌다. 두 경우에 질서의 세력은 통제를 회복하기 위해 대대적 폭력에 의지했다. 타이완에서 수만명이 살해되고, 시신들은 바다에 버리거나 들판에서 썩도로 버려졌다.<sup>28)</sup> 제주에서, 겨우 150,000명의 인구를 가진 섬에서 최소한 30,000명이 살해됐다.

비록 두 경우 모두 인간의 자유가 노예제에 맞선 순간이었음에도, 제주와 광주를 다른 담론 세계를 이뤘다. 비록 제주봉기는 일부 세부사항까지 중앙에서 조직했지만, 광주봉기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뤄졌고 민중의 꿈(또는 악몽)을 넘어 퍼졌다. 그 차이는 구좌파와 신좌파 사이의 차이와 놀라운 유사성을 띤다. 위의 언급은 단지 제주봉기에 대한 기초적 분석이지만, 봉기가 중앙에서 조직되고 통제되는 정도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남조선 노동당은 마을 단위까지 섬 전체에 집중화된 구조를 갖고 있었고, 조직은 또한 1945년에서 1948년까지 사실상의 정부였던 인민위원회를 통제했다. 비록 일본의 패전 이후 미국인과 평화적으로 협력했지만, 민중들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이 미군 장교의 명령에 따라 한 초등학교에서 발포하여 3명을 사살한 다음 봉기 이외에 다른 선택이 거의 없었다. 그 이후 총파업이 진압되고, 섬의 많은 젊은이들이 고문당하고 일부는 죽자, 봉기가 일어났다. 특별하게 집중화된 봉기는 89개의 오름에서 동시적 봉화로 시작됐다. 전사들은 마을 수준의 자위대와 함께 중앙의 명령을 받는 연대와 대대로 조직됐다.

제주와 달리, 광주의 봉기는 전적으로 자연발생적이었고, 시민을 공격한 야만적 공수부대의 도시침입에 대한 대응이었다. 제주에서 남로당은 명확히 지도부가 있었지만, 광주에서 어떤 조직도 통제하지 못했다. 봉기가 시작되자,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체포되거나 이미 도시를 탈출했다. 공수부대가 시민들에 가한 끔찍한 폭력행위는 전도시적 자연발생적 봉기로 전화됐고 민중들은 군대를 도시 밖으로 몰아내고 1주일 동안 버텼다. 민중은 자생적으로 기동타격대를 만들고 시민군, 수습위원회, 투쟁위원회 등을 공식화했다. 그들은 시신을 수습하고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위로했고, 부상자를 치료하고 해방된 도시를 청소했다. 시민군은 무장해제 당한 경찰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들에게 원래 위치로 복귀하라고 지시했고, 석유분배, 교통통제, 정보조정 등을 책임졌다. 수만 명의 민중들이 일일 집회에 모였고 일종의 직접민주주의가 실행되어 군대와와의 협상에 대한 궁극적 결정권한을 행사했다. 일간 <투사회보>는 압박한 반격에 대한 저항을 조직하는 데 기여했고, 최고사령관이든 중앙위원회든 위로부터 민중들에게 명령을 내린 집중화된 권위 없이도 이 모든 일이 이뤄졌다. 범죄율은 상당히 줄었고 사람들은 전과 거의 다르지 않게 서로 협력했다.

제주에서 봉기자들이 경찰을 살해한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됐다. 소식통에 의하면 제주에서 피살자의 대략 5퍼센트만이 반란군의 희생자들이었다고 하며, 약 1,764명으로 구군, 선거관리인, 경찰관, 우익단체 회원들이 포함됐다.<sup>29)</sup> 대조적으로 광주에서 아주 적은 수의 군인이나 경찰이 살해됐고, 처형은 전혀 없었다. 시민군 대원 50여명과 인터뷰(한국어로 2권으로 출판된)에 따르면 반란군은 포로로 잡은 많은 군인들을 해치지 않고 풀어줬다. 한 군인은 심지어 상관들에게 처벌받지 않도록 총을 돌려받기도 했다(실탄 없이).

몇 년 뒤에, 제주와 광주의 부조화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다. 광주의 바로 첫 재판부터, 사람들은 판사에게 쓰레기를 던졌고, 사망자와 부상자 유가족들은 저항을 조직했다. 끔찍한 살인과 잔혹행위가 훨씬 더 컸던 제주에서, 대학살에 관한 속삭임이 들리는 데에는 수십년이 걸

27) See Lai et al., *Tragic Beginning*.

28) 정확한 사망자의 숫자는 결코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정치는 10,000명에서 100,000명 이상까지다. 1947년 4월 1일, 타이완의 7개 단체는 살해당한 숫자가 50,000명이라고 추산했다. Ibid.,158.

29) Rimwha Han and Soonhee Kim, "Jeju Women's Lives in the Context of the Jeju April 3rd Uprising,"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Jeju Sasam Uprising and East Asian Peace: International Legal Issues and Human Rights in 21st Century Korea, Harvard University, April 25, 2003.

렸다. 1960년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를 끝장낸 이후, 장면정부는 제주학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지만, 1961년 박정희 쿠데타 다음날 조사관들이 체포됐다. 독재는 과거에 대한 진상조사를 탄압했고, 학살에 대한 어떤 공개적 암시도 1978년 현기영이 단편소설 <순이삼촌>을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1987년 6월 대항쟁 동안, 제주대학 학생회는 학살당한 사람들을 위한 최초의 위령제를 열었다.<sup>30)</sup>

한국의 정치발전에서 이 자율성과 집중화의 변증법을 이해하면 버마, 필리핀, 티벳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된다. 필리핀은 위로부터 조직됐고, 군대일부와 교회가 이끌었다. 1986년 피플파워 봉기가 마르코스를 축출하는 데 성공했음에도, 운동은 부자들의 지배체제에 상대적으로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 티벳운동에 대한 달라이 라마의 지도력과 미얀마에서 아웅산수키의 유명무실한 역할은 그 운동에 하향성을 부여했고, 그 영향력을 제한한다. 두명의 용감한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이 강제한 비폭력에 대한 절박한 지지와 함께, 그들의 권위는 창조적 풀뿌리 행동을 탈역능화한다. 국제적인 도덕적 우위는 그들의 것일지 모르지만, 국내 정치적 효력은 협소하다. 아웅산수키의 아버지는 천재적으로 다수 버마인과 함께 독립을 위한 투쟁에 모든 소수민족을 단결시켰지만, 그의 딸은 완고한 평화주의를 고집해 소수민족은 도시의 야당에게 고립됐고, 야당은 통일된 전략을 갖지 못했다. 비록 십여 건 이상의 무장투쟁을 소수민족이 수행했지만, 군사평의회는 그들을 진압하거나 한 번에 패배시킬 수 있었고, 마침내 전국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했다. 아웅산수키의 평화주의는 암묵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 외에 거의 선택권이 없는 소수에 대한 다수의 도덕적 우위를 주장한다. 1971년 티벳의 마탕에서 달라이 라마가 미국-중국 데탕트의 결과로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자, 수많은 자유투사들이 자살했다.

버마에서 수년간의 억압적 독재가 갑자기 1988년 봉기에서 정점이 이르렀다. 그해 초, 아무도 랑군의 한 찻집에서 일어난 말다툼이 급속하게 정부의 명백한 사망과 전국을 통제하는 마을평의회로 성장할 것이라고 추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운도이 끔찍한 탄압을 당하자, 봉기가 8-8-88의 정확히 오전 8시 08분으로 예정됐고, 그 시각에 랑군의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몇 시간 안에 전도시가 파업에 들어갔고, 며칠내에 온 나라가 파업 중이었다. 해방된 대학기숙사에서 학생들의 첫 번째 행위중의 하나는 당국에 밀고한 것으로 믿어지는 세명의 동료 학생들을 처형하는 것이었다. 투쟁이 격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힌 경찰관이 재판 없이 공개적으로 참수되자 군중들은 환호했다.

다른 중요한 차이도 봉기들 사이에서 찾을 수 있다. 광주민중이 하나로 뭉쳐 “절대공동체”를 이루고, 수만 명의 총회가 “민주광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 반면, 버마의 시위는 모든 민중의 품위있는 단결과 해방된 공간에서 수만 명의 일일집회를 가질 역량 모두를 결여했다. 사람들이 거리에 모일 때마다, 군대는 유혈로 그들을 해산시켰다. 광주에서 잔인한 군대의 공격 시기에 시민들은 공수부대와 맞서 싸워 도시를 해방시켰다. 자연발생적 자치역량과 민중의 유기적 연대에서 그들이 세운 모범은 버마봉기를 초월했다.

버마시위의 고조기에, 정부는 갑자기 랑군 주변의 교도소에서 수천 명의 범죄자들을 풀어줬고, 마을들은 대나무 담장 뒤에서 경계선을 치고 24시간 도둑, 강간범, 갖가지 반사회적 악당들을 막기 위해 순찰을 돌아야 했다.<sup>31)</sup> 이 현상은 광주의 경우에 일어났던 일과 정반대이다. 두 경우의 차이는 광주에서 죄수들을 해방시키려는 시도로 수십명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훨씬 더 커진다. 버마정부는 죄수들이 민중들에게 공포를 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석방시켰다.

랑군에서 아웅산수키와 소수의 유명인사들이 재빨리 운동의 지도부가 됐다. 광주에서, 아웅

30) Chang-sung Hyun, Young-hee Cho, Chan-sik Park, Seok-ji Hahn, Chang-hoon Ko, “The Resistance of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s Countermeasures: The Historical Flow and Significance of Case Studies from 1000 Years in Jeju,” *Journal of Island Studies* 3, no. 1 (Spring/Summer 2000): 27.

31) Confirmed to me in e-mails with Bertil Lintner, April 9, 2006.

산수키와 같은 어떤 인물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등장하지 못했다. 비록 군부가 김대중을 지도자를 골라냈지만, 그는 봉기 전기간 동안 감옥에 있었고, 몇주 후까지 봉기가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했다. 봉기가 시작되기 전에 수십명의 활동가들이 체포됐고, 거리에서 공백이 생겼지만, 민중운동은 새로운 조직과 집단적 지도부를 발전시켰다. 중앙지휘부 없이도, 소그룹 주도력의 통합은 5월 21일 도시에서 군대를 몰아내기에 충분히 강력했다. 수직적 구조 대신에 시민군은 어떤 중앙적 권위나 한 명의 지도자가 결정을 내릴 최종권한을 갖지 않도록 수평적으로 조직됐다. 민중 자신이 자기 정부가 됐고, 핵심적 필요는 협동을 통해 충족됐다. 광주봉기의 탈중심적이고 자율적인 성격은 운동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집중화가 힘과 효율성을 의미한다는 지배적인 견해와 대조적으로, 광주봉기의 탈집중화는 자율성과 탈집화의 힘을 보여주지 않는가? 이런 요소들(단결, 참여민주주의, 자생성)은 봉기의 단기적 효과에 대한 더 커다란 가능성을 가리킨다.

물론, 남한과 버마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유교사회인 남한은 세계 최대경제 중의 하나이고, OECD 회원국이며, 현대적 하부구조, 선진적 생산시설, 급증하는 하이테크 부문을 가진 “반주변부” 국가이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은 경이적이었다. 1963년 겨우 100달러였던 1인당 GNP는 2007년 20,000달러를 넘었다. 1992년 이래 민주적 체제와 함께, 한국여제는 팽창하여 하이테크 산업으로 이동했다. 전지구적 통계가 겨우 지금에야 표준화된 반면, 한국은 흔히 “세계에서 컴퓨터 통신이 가장 발달한 사회”로 간주된다. 다른 발전지표처럼, 버마는 2007년 단 두 대가 인터넷 서버를 가진 IT의 무능국가였고, 새 수도에는 휴대폰 서비스도 없었다.

분리된 시간단위로 측정하면, 직접적 봉기는 실패할지 모른다. 봉기 지도자들은 죽거나 감옥에 갇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겪고, 공개적으로 나선 단체들은 다시 잠복하거나 침묵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봉기의 공공연한 불만과 비전의 표현은 심지어 시간적 제약이 있어도 기존체제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장악력을 침식한다. 민중봉기 이후 기존정당들은 과거에 가졌던 유형의 승인을 상실하기 시작한다. 정당들이 진정한 변화를 하거나 주변화될 위험을 무릅쓰고 다뤄야 할 엄청난 정치적 간극이 생긴다. 때로 특정한 봉기의 영향은 아무리 그 분출이 짧더라도, 수십년간 지속된다. 과거에 정당한 정당들과 낡은 일상생활 규범의 궁극적 파괴는 느리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반란의 영향은 지속된다.<sup>32)</sup>

장기적 시각은 전략적 반란조직의 필요성을 가리키지만, 버마에서 과거 수십년의 탄압과 잔혹한 폭력은 집중화된 지도력의 불이익을 크게 드러낸다. 아웅산수키는 20년간 대부분 가택연금 상태였고, 운동은 여전히 주변적 상태이다. 반란자들의 “폭력”에 대한 평화주의자들의 비판은 비록 확실히 NGO들을 포함한 엘리트 참여자들에게는 문제이지만, 많은 운동참여자들에게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비록 무장했지만, 광주민중봉기는 한국에서 군대의 폭력을 저지했기 때문에 비폭력운동으로 기억된다.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의 타도가 엄격히 비폭력적이었다는 자주 반복되는 신화에도 불구하고, 치명적 정확성을 가진 무기를 사용한 무장반란군이 운동을 지도했다.<sup>33)</sup>

네팔과 버마의 봉기가 미리 계획되고 위에서 아래로 조직됐던 반면, 광주봉기는 군대의 공격에 대한 자연발생적 반응이었다. 네팔과 버마의 민중들 사이의 폭력은 한국의 상황과 첨예한 대조를 이룬다. 네팔에서 정치적 차이는 자주 언쟁과 심지어 물리적 대치의 원인이었다. 미얀마처럼 많은 경찰이 재판없이 거리에서 살해됐다. 여러 설명에 의하면, 1990년 “자발적” 등화관제 동안, 불을 끄지 않은 집의 유리창은 깨졌고, 이후에 주민들은 만약 등화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들었다.<sup>34)</sup>

포로로 잡힌 적 전투원의 인도주의적 치료가 나중에 더 커다란 성공으로 이어지는가? 광주

32) Discussions with Basil Fernando contributed greatly to my analysis here.

33) See Mercado's excellent book, *People Power*, especially pages 226, 232, 258, 308.

34) Routledge, “Backstreets,” 568.

와는 달리 중국에서 시민들은 시위진압 명령을 따르는 젊은 군인들의 목숨(그리고 일부 신도)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소수의 군인들이 죽었겠지만, 결과는 시민운동에 대한 부메랑이었다. 만약 운동이 성공할 희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수십만 명이 군대를 저지했으면서도 군인들에게 먹을 것을 줬던 5월 20일처럼, 인민군 병사들에게 사랑과 연대로 다가가서 에로스적 유대를 실현한 보통사람들의 역량에 있었다. 6월 3일 양측에서 폭력행위가 벌어지면서 전혀 다른 시나리오가 전개됐다.

봉기의 발생에 대해 가능한 설명을 검토해보면 한 봉기의 다른 봉기의 영향을 제외하면 우리가 가리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만족스런 차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의식에서 생겨나는 에로스 효과는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동아시아에서 일련의 봉기는 오랜 세월을 걸쳐 떨어져서 일어났기 때문에 에로스 효과로 이해할 수도 없었다. 필자가 방문한 모든 나라의 주요 활동가들과의 인터뷰는 거대한 영감과 에너지가 국경을 넘어 교훈을 가르쳤다고 지적했다. 만약 아시아의 운동들이 몇 년이 아니라, 2011년 아랍의 봄처럼 서로 몇 달 안에 분출했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이 봉기들의 “유의미한 동시발생”(meaningful coincidences)을 더 많이 인정했을 것이다.

제16장: 문제는 체제

“우리는 전지구적 정부 없는 전지구적 통치(governance)라고 불리는 체제, 즉 세계은행, IMF, WTO 등 소수의 기관들과, 일정한 금융 및 상업적 이해에 긴밀하게 연관된 금융, 상업, 무역 부서 등 소수의 주자들이 지배하면서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다수가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

- 조셉 스티글리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상비군은 곧 완전히 폐지될 것이다.”

- 이마누엘 칸트, 1795년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모든 곳에서 사슬에 묶여 있다.” 이 불멸의 문장은 장 자크 루소가 썼던 1762년만큼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실이다. 놀라운 기술발전과 현기증 나는 경제 팽창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조건은 “자유”라는 단어에 실질적으로 어울리는 않는 상태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잠재적 풍요는 수천 명의 사람을 무자비하게 도살하는 끝없는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로 왜곡된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막대한 다수 인간의 목소리를 배제하면서도, 그 체제상의 요구는 수십억명이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도록 강제하고, 우리 모두가 먹기 위해 일하도록 강요한다. 매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와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죽는다. 환경파괴는 현기증 나는 속도로 진행된다.

이윤에 굶주린 기업과 군사화된 민족국가들은 모든 대량살상무기는 불법화해야 되고, 억만장자들의 부는 인류에게 속해야 하고, 훨씬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보통사람 수백만 명의 집단적 의식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막대한 부를 수치스럽게 낭비한다. 시대에 뒤진 소유관계와 구식 정치형태로 방해받는 인류는 오늘날 기로에 서있다. 새롭고 민주적 형태의 협치를 창출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자유(많은 사람들이 향유하는 번영을 포함해)의 침해를 목격할 것이다.

백악관에 누가 앉아있든, 누가 전지구적 금융기구와 기업들을 운영하든, 문제는 최상층의 남녀 개인이 아니다. 체제가 문제다. 체제의 기본규칙은 연이어 위기를 낳는다. 체제는 그 주변에서 궁핍화한 수십만 인간에 대해 책임이 있다. 체제는 전쟁을 요구한다. 체제는 우리의 자연환경을 파괴한다. 식민화의 현대적 버전인,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전지구적 기관들이 이 규칙을 집행한다. 그들이 “자유” 무역을 통한 더 많은 번영, IMF “구제금융”을 통한 미래의 번영, 세계은행을 통한 빈곤종식을 약속하지만, 그들은 지속적인 고통과 비참을 주면서도 전지구적 안정성을 파괴한다. 인간이 20년 동안 주당 20시간 일하고도 이 지구상에서 나머지 시간을 잘 살 수 있는 시대에, 이 전지구적 기관들은 우리 모두가 더 적은 돈을 위해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8년 전지구적 경제위기는 이 체제가 생산할 비극을 미리 조금 맛보는 것뿐이다.

가장 훌륭한 사람과 가장 똑똑한 사람

인류가 직면한 문제의 체제적 성격을 묘사하는 하나의 방법은 현대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경우를 보는 것이다. 미국 대중문화에서 존 케네디는 자주 “카멜롯”과 연결되고 재키의 아름다움 때문에 기억된다. 하지만 비극적으로 역사상 최대의 화학전 프로그램을 명령했던 사람이 역사상 가장 자유주의적인 미국 대통령 중의 하나인 케네디였다(베트남에 대량의 고엽제[Agent Orange]가 뿌려졌고,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치명적인 화학물질 중의 하나를 은폐하는 부드럽게 들리는 단어다). 사담 후세인과 함께, 케네디는 민간인에 대한 화학전을 승인한 현대국가의 수반이다. 사실 후세인의 할라브자 학살은 비교하면 사소하다. 그것

은 약 8천 명을 죽인 한 번의 공격인 반면, JFK는 수년 간의 화학전을 명령하여 밝혀지지 않은 수천 명을 죽였고, 수십 년간 끔찍한 출산기형과 암을 일으켰다.

JFK와의 명백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고엽제 사용을 계속했고, 이는 미국에서 양당의 기본적 일치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공화당의 조지 부시는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고,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는 전쟁을 확대했다. 오바마의 국방장관은 부시가 지명한 로버트 게이츠로, 그는 전 CIA 국장이자 미국최대의 상호부금은행인 피델리티 펀드의 전회장이었다. 오바마의 국가경제협회의 첫 위원장은 로렌스 서머스로, 그는 1997년 아시아 IMF 위기를 장기화하고 심화시킨 국제적 대응의 실행을 도왔다가 불명예 퇴진한 전 하버드대학 총장이었다.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나란히, 오바마 일당은 리비아, 필리핀, 소말리아(이디오피아 대리인을 통해서)와 콜롬비아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이스라엘을 무장시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마을과 도시를 짓밟고 포위하게 했고,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정부를 고립시키려고 시도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권한 밖에서 남아있고, 1972년 생물학전 조약의 새로운 국제규약에 서명하길 거부한다. 그의 재임 중에 미국은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매년 “잔류” 지뢰로 사망한다는 분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150개국을 지지한 전지구적 지뢰금지조약을 거부했다. 미국은 초소형 “벙커파괴” 핵폭탄도 개발한다(미국이 서명한 국제조약을 위반하면서).<sup>1)</sup> 오바마의 재임 처음 2년 반 동안, 월스트리트의 이윤은 부시 II의 8년 전체보다 높은 60억 달러였다.

어떤 대통령을 언급해도, 단지 한 사람과 그의 행정부에만 초점을 맞출 수는 없다. 검토하고자 하는 바는 체제(system)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4년마다 두 가지 악 중에서 덜 나쁜 것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민주적 자유”는 전혀 자유가 아니며, 코카콜라와 펩시, 맥도널드와 버거킹이 아니라, 전쟁과 평화, 엘리트 탐욕과 번영의 공유 사이에서 선택해야 자유가 의미있다. 오늘날 체제는 대규모 군비지출, 기업의 경제통제 또는 환경파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런 구조적 과제 내에서, 역사는 심지어 “진보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단지 문제를 악화시켰는지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제공한다. 힐리우드식 발언은 지속적으로 현재 미국의 정책이 2차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나 일본과 다르다고 강조하지만, 엄청난 연속성이 존재한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아키히토 천황에게 절하기 100년 이상 전에, 미국은 일본천황과 협력하여 1905년 태프트-카츠라 비밀조약을 맺었고, 미국의 필리핀 지배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 일본측 동의의 대가로 “조선의 종주권을 수립할” 일본의 권리를 인정했다. 비록 이 양국간 협정이 수십년간 비밀로 지켜졌지만, 일본은 즉각 총독을 조선에 파견하여 1910년 공식적으로 합병하고 1945년까지 야만적으로 지배했다.

2차대전 직후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일본과 독일을 새로운 동맹국으로 만들고, 재빨리 과거의 동맹국인 러시아와 1949년 이후 중국을 고립시켰다. 서독과 일본에서 미국 행정가들은 과거 파시스트 요원들을 수용하여 미국의 군사-경제적 통제구조에 그들을 통합시켰다. 전쟁 범죄로 재판정에 서는 대신에, 독일의 로켓 과학자들과 일본의 생물학전 전문가들은 특별손님이 됐다. 소수의 고위관리들이 재판을 받고 처형됐고, 독일이 부분적 탈나치화를 경과한 반면, 일본은 난징대학살, 죄수들에 대한 생물학무기 시험, 성노예(“천황이 충성스런 군대에 하사하는 선물”)로 이용한 20만 명의 위안부(절반은 조선인) 납치 등을 포함한 전쟁범죄를 인정하거나 사과하기를 여전히 거부한다. 2차대전 동안,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은 일본의 석유부족 때문에 산업연료용으로 베트남의 쌀을 일본에 수출하라고 명령했다. 1944년에서 1945년까지 대기근이 발생하자, 최소한 150만 명(아마 200만 명)의 베트남인들이 북부에서 굶어죽었다(인구가 1,400만 이하였다). 일본의 통제에서 쌀창고를 해방시킨 전민중의 봉기(*khởi nghĩa*)가 없었다면, 수천 명이 더 굶어죽었을 것이다.

1) Thom Hartmann, “The Genetically Modified Bomb,” Common Dreams News Center, September 10, 2003, <http://www.commondreams.org/views03/0910-15.htm>; Ethirajan Anburasan, “Genetic Weapons: A 21st Century Nightmar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ct. 12, 2003, [http://www.unesco.org/courier/1999\\_03/uk/ethique/txt1.htm](http://www.unesco.org/courier/1999_03/uk/ethique/txt1.htm).

수백만 명의 보통사람들이 사망한 전쟁 뒤에서, 세계 엘리트들은 서로 협력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할아버지(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프레스콧 부시는 히틀러와 나치정권을 위해 일한 여러개 대기업을 소유했다.<sup>2)</sup> 보다 최근에 부시 부자와 제임스 베이커 등의 동료는 군수 및 항공기업 인수를 전문으로 하는 연줄많은 워싱턴의 상업은행인 칼라일 그룹에서 빈라덴 가문과 함께 일했다.<sup>3)</sup> 칼라일 그룹은 전지구적 경제의 팽창이 남반구로 이동하자 미국 지배블록이 추진한 초국적 정책의 한 표현이었다. 자본팽창의 수익을 계속 거두기 위해서, 초국적 엘리트들은 예를 들어 필리핀의 피델 라모스나 타이랜드의 탁신처럼, 권위주의 정권에 맞선 봉기로 열린 공간에서 등장한 일국 지도자들에게 문을 열어줬다. “측근주의”의 제거는 바람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최종결과는 초국적 은행과 기업들의 이윤증가였다. 수백만명의 민중들에게 순수한 결과는 심화되는 궁핍화와 주변화였다.

지난 여러 세기 동안, 자유주의자들은 진보라는 이름 아래 지속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팽창을 이끌었다. 우리 모두는 나치의 흉측한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계몽된” 형태의 유럽 자본주의 문명이 주변부에서 원주민의 살육을 강화했고 핵심 조직원리로 군사주의를 요구하는 집중화된 세계체제를 창출했다. 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나치와 일본 파시스트들에 우리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반면, 2차대전 이래 전세계적으로 1천만 명 이상이 미국의 전쟁에서 죽었다. 요한 갈통은 70건의 미국개입으로 1,200만에서 1,600만 명의 목숨이 희생됐다고 추산하며, 이는 최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전의 수치다.<sup>4)</sup>

20세기 후반에 “냉전” 동안 미국은 5백만 명 이상의 아시아인들을 살해했다. 겨우 3년 만에, 3백만 내지 5백만 명이 한국에서 살해됐고, 막대한 다수가 무고한 민간인들이었다. 도시는 일상적으로 폐허와 재로 변했다. 수천 명의 민간인 피난민들은 학살됐고, 미국은 생물학 무기를 사용했지만,<sup>5)</sup> 이 행동에 대해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킬링필드를 이라크로 옮기기 전에, 미국은 인도차이나에서 학살극을 벌였고, 역사상 과거 모든 전쟁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화력을 거기에서 사용하여 최소한 2백만 명을 살해하고 수백만 명 이상을 부상시키거나 피난민으로 만들었다. 화학전은 체계적이었다. 2,000만 깰런 이상의 고엽제가 베트남에 뿌려졌다. 남미국은 베트남의 모든 성인남녀와 어린이 1인당 1깰런의 고엽제를

2) 1942년 10월 20일 미국정부는 나치와 연계했다는 이유로 프레스콧 부시의 은행활동을 압류했다. 부시가 주도한 유니온 बैं킹 작전을 중지시키기 위해 이적무역법안이 적용됐다. E. 롤런드 헤리먼, 3명의 나치, 기타 2명과 함께 부시는 UBC의 주식을 소유했다. 프레스콧 부시가 의붓 아버지 조지 허버트 워커와 함께 오랫동안 운영한 실레지엔-아메리카사의 독일측 지분도 1942년 11월 17일 압류됐다. 프레스콧 부시는 히틀러가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무기와 돈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 인물이었다. 1942년 미국정부의 조사 결과 부시의 은행이 연합철강사(Vereinigte Stahlwerke)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정했고, 이 기업은 나치 선철의 50.8 퍼센트, 압연강판의 41.4 퍼센트, 나치 독일의 파이프와 튜브의 45.5 퍼센트, 나치 독일의 폭발물의 35.0 퍼센트를 생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See Webster G. Tarpley & Anton Chaitkin, *George Bush: The Unauthorized Biography, Executive Intelligence Review*(January 1991), <http://www.tarpley.net/bush2.htm>.

3) See Andrew Wheat “The Bush-bin Laden Connection,” *Texas Observer*, November 9, 2001, <http://www.texasobserver.org/showArticle.asp?ArticleID=48>.

4) Johan Galtung, “The Korean Peninsula: Moving from the DMZ to a Zone of Peace.” [http://wagingpeacekorea.org/board/view.php?id=hero&page=5&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5](http://wagingpeacekorea.org/board/view.php?id=hero&page=5&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5). 그는 또한 200개 국가 내에서 2,000개 민족이 자치를 열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00번 이상 전쟁이 일어나 2,500만명이 사망하고 7,500만명이 부상당했다. Kristin Dawkins, *Global Governance: The Battle Over Planetary Power* (New York: Seven Stories Press, 2003),96

5)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on Biological Warfare in Korea and China, *Report*, 1952. 이라크 전쟁을 주도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자주 “한국모델”을 언급했다. 1945년에서 1950년까지(한국전쟁 이전에)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아래서 분단에 반대했던 약 100,000명의 한국인들이 살해당했다. 한국이 미국의 국제관계에서 “모델”이 됐다는 것은 미국정부의 본질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2005년 미군의 한국주둔 지속을 논하면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한국의 사례가 “우리가 곤란을 겪었던 베트남과 극명하게 대조”된다고 상기켰다. 민주당 지도자들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클린턴 정부의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는 한국이 통일되더라도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명백히 한국과 베트남에서 전쟁의 재앙 이후에도 전지구적 지배를 위한 미국의 전략은 여전히 중국의 포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동아시아 본토의 육상기지는 펜타곤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요소다.

뿌렸고, 40파운드의 네이팜탄, 0.5톤의 CS 가스, 1,000파운드 이상의 폭탄을 투하했고(전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700개에 맞먹는 양), 단지 잘못이라곤 민족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것밖에 없던 사람들에게 폭격을 가했다.<sup>6)</sup>

개인적 수준에서 미국인들은 친절하고 느긋하며, 민주주의를 숨쉬고 자유를 호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미국인들은 오늘날 자신들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여성들을 조야한 가부장제의 지배에서 “해방”시켰다고 자랑스러워 하지만, 사담 후세인으로부터 이라크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사용한 살인적 방법은 1258년 약 800,000명을 학살하여 아바시드 칼리프령을 끝장낸 몽골인들의 학살에 역사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뿐이다. 베트남 전쟁 동안, 베트남으로 의심되면 일상적으로 전기충격기로 고문하거나 헬리콥터 밖으로 던졌다. 한국전쟁의 증거는 또한 미국이 국제법은 아니라도 인륜적 규범을 위반했음을 가리켰다.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인 기자 윌프레드 버쳇은 의료실험(병균을 옮기는 이의 사용을 포함한)과 고문을 수십건 기록했다.<sup>7)</sup>

이런 전쟁이 지속된 이유는 단지 소수의 잘못된 정책입자들과 가학적 젊은이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이 아니라, 현재 경제체제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체제 자체의 바로 그 성공이 문제이며, 단지 허약한 인간이 무기를 쥐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가장 비난받아야 할 자들은 정치인, 대통령, CEO, 억만장자들로, 그들은 수백만 달러의 무기를 생산하고 무장군인을 지구상의 모든 구석에 보내지만, 그들조차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그물망에 걸려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인식은 기존 세계경제체제의 구조적 요인이 체제변화를 요구한다는 인식이다.

####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집트와 아랍세계의 최근 봉기들은 수십년전 동아시아의 선행봉기처럼, 민주주의와 자유의 모호한 약속으로 추동되고 있다. 독재자들을 몰아내고 “부패한” 자본주의를 교정한다는 이름으로, 운동은 수만명의 지지자들을 끌어냈고, 여기에는 과거에 닫힌 시장에 침투하고, 국제자본이 이용할 수 없었던 노동력에 접근하고, “민주주의”로 재탄생한 독재정권을 뒷받침 하길 바라는 전지구적 기업의 경영진도 포함된다.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자신을 너그럽고, 심지어 진보적이고 계몽적이라고 포장할 기업자본주의의 역량은 그 살인적 현실을 위장한다.

상식에 따르면 증가하는 핵심적 민주주의와 독재자의 타도는 더 계몽된 정책과 모든 인간의 삶의 향상을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이 마지막 장에서 필자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확장과 인간빈곤의 증가 간의 역 관계에서 계몽과 노예화의 변증법을 밝혀내길 희망한다. 2세기 동안 미국과 프랑크혁명의 “계몽적” 가치를 따르는 진보적 사상가와 정책입안자들은 체제의 가장 성공적인 확장을 주도했다. 자본주의 체제의 전지구적 침투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중요한 형태의 산업적 자유를 가져왔지만, 또한 인종학살적 제국의 지배와 불안정한 경제적 괴수를 낳았다. “기계를 부수는 대신에” 완성한 18세기 말의 혁명적 변화는 유럽에 집중된 초기 세계체제를 국제적 지배의 틀에 밀어 넣었고, 민족국가에 군사력을 집중시켰고, 세계의 부를 거대기업과 은행의 손에 축적했다. 미국에게, 역사의 변증법적 역설은 미국이 자유의 다문화적 햇불이자 동시에 인종학살과 노예제에 기반한 유럽계 백인들의 정착 식민지였다는 점이다.

주변지역의 북유럽의 경제구조에 급속하게 동화된 16세기 초, 북부의 점증하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남부의 강화된 착취와 우연히 일치했다. 유럽 정착민들이 아메리카, 남아프리카, 아시아, 가장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과거에 자치적 지역을 통합하자, 그들은 토착민의 땅을 훔치기 위해 인종학살을 자행했다. 수천만 명의 아메리카 원주민을 몰살시킨 외에도, 유럽 식민주의자들은 수천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을 노예화했다. 노예무역으로 사망한 아프리카인의

6) George Katsiaficas, ed., *Vietnam Documents* (New York: ME Sharpe, 1992), 146.

7) See Alan Winnington and Wilfred Burchett, *Plain Perfidy: The Plot to Wreck Korean Peace* (1954).



추정치는 1,500만명에서 5,000만명에 이른다.

가장 초기부터, 북유럽 정착식민자들은 생물학전을 실행했다. 오늘날까지 매사추세츠, 뉴욕, 뉴햄프셔가 도시 이름을 딴 제프리 암허스트 경은 백인의 생명은 위협하지 않으면서 토지에서 원주민을 제거할 계획을 고안해서 유명해졌다. 그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천연두 바이러스가 묻은 담요를 주었고, 도움을 준다는 위장 아래 마을 전체를 쓸어버렸다. 원주민의 전멸은 미국혁명 이후 가속화됐고, 그 다음 세기에 거의 모든 원주민 종족들은 체계적으로 도살당했다. 비록 오늘날 널리 유감을 표현하지만, 미국의 민중은 결코 그런 폭력에 대해 사과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유서깊은 매사추세츠 암허스트 칼리지 근처의 가장 호화로운 식당 중의 하나는 “제프경”이란 이름이다.

유사하게, 유럽계 백인 정주식민자들은 고의적으로 버펄로를 쓸어냈고, 원주민들에게서 주요 식량원을 제거하려고 시도했다. 1872년에서 1874년까지, 3,700,000마리의 버펄로가 도살됐다(그중에서 겨우 150,000마리만 아메리카 원주민이 사냥했다). 1874년에서 1883년까지 서북 아메리카에서 정착민 식민주의가 강화됐고, 약 8백만 마리의 버펄로들이 학살됐다. 이런 형태의 생물학전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기는커녕, “버펄로 빌”은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와일드 웨스트” 서커스 쇼를 무대에 올렸고, 미국의 동부해안 뿐만 아니라 유럽도 순회공연했다.

자유의 이름으로 미국은 1848년 “앵글로-색슨 민주주의”와 “명백한 운명”을 확대할 목적으로 멕시코의 거의 절반을 병합했다. 십여명의 미국병사인 세인트 패트릭 여단은 멕시코에 맞서 싸우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커리 테일러 장군의 명령으로 처형당했다. 19세기말, 제조업자들이 국제시장을 찾자, 미국(인디언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끄는)은 필리핀을 정복했다. 최소한 20만 명의 필리핀인들이 전쟁과 질병으로 사망했다.<sup>8)</sup> 모든 장로교 선교단의 단장은 필리핀인들의 학살을 “세계문명에서 거대한 발걸음”이라고 환영했다.<sup>9)</sup> 노벨상을 받으려 간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은 설명했다. “본인은 가능한 가장 엄격한 조치의 사용을 기꺼이 승인한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에게 필리핀에서 학살은 “미개와 야만의 검은 혼돈에 대한 문명”의 승리에 필요했다. 1990년 인디애나의 앨버트 비버리지 상원의원은 미국권력의 정신을 요약했다. “우리는 세계의 지배인종이다.... 우리는 세계 문명의 신 아래서 우리 인종, 위탁자의 사명에서 우리측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마크 트웨인과 반제국주의 동맹은 미국의 전지구적 정복에 반대했지만, 제국의 야망은 너무나 강했다. 1898년과 1934년 사이에 미국해병대는 온두라스를 7번, 쿠바를 4번, 니카라과를 5번, 도미니카 공화국을 4번, 아이티와 파나마를 각 2번, 과테말라를 한번, 멕시코를 3번, 콜롬비아를 4번 침략했다. 1915년 미군이 농민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50,000명 이상의 아이티인들이 살해당했다.<sup>10)</sup> 해병대는 중국, 러시아, 북아프리카 등 미국의 투자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파견됐다.

프랑스 대혁명은 전세계에 파리의 계몽을 발산했다. 1418년 몽골침입에 맞서 승리를 이끈 민족영웅 트로이의 하노이탑 꼭대기에 프랑스 식민당국이 미국 자유의 여신상 실제 크기 모방품을 설치하자, 베트남에서 계몽과 노예화의 변증법은 생생하게 드러났다. (트로이의 신화에는 호안키엠[돌아온 검] 호수도 포함되는데, 거기서 황금거북이 몽골인들을 몰아내는 데 사용한 마술검을 그에게 주었다. 평화가 회복되자 거북은 다시 나타나 검을 돌려달라고 그랬다. 여기에 영국설화의 아서왕 이야기와 다르지 않은 진짜 카멜롯이 있다.) “계몽적” 프랑스 식민주의는 잔인하고 치명적이었다. 인도차이나인들은 죽은 인간들이 미셀린 타이어에

8) See Wolff, *Little Brown Brother*. John Tirman believes as many as 400,000 Filipinos may have been killed (*Deaths of Others*, 18).

9) Noam Chomsky, “The United States and Indochina: Far From an Aberration,” in *Coming to Terms: Indo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War*, eds. Douglas Allen and Ngo Vinh Long (Boulder: Westview Press, 1991), 165.

10) See the illustrated book by Joel Andreas, *Addicted to War: Why the U.S. Can't Kick Militarism* (Oakland: AK Press, 2002).

생명을 준 베트남의 광대한 고무농장의 모든 나무에 비료가 됐다고 회상한다.

가장 강력한 프랑스 제국 팽창주의자들은 자신을 프랑스혁명의 후계자로 간주하는 단호한 반성적 “진보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존 케네디와 비슷한 “계몽적” 자유주의자들이었고, 케네디 행정부 성원들은 미국이 혁명적 유산의 전통을 수행한다고 믿는 “계몽적” 자유주의자들이었다. 교육부 장관 질 페리는 보통, 세속, 의무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카톨릭교회에 대항했지만, 나중에 식민주의의 강화를 최우선 강령으로 삼았던 최초의 프랑스 총리가 됐다. 페리는 열등한 민족을 문명화하는 것이 프랑스의 의무라고 믿었고, 1883년 5월 15일 베트남에 보호령을 강제하는 총력 원정이 시작됐다.<sup>11)</sup>

프랑스의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식민지 팽창에 반대했다. 베트남이 톤킨, 안남, 코친차이나의 이름으로 포섭되어 사라지자, 프랑스인들이 그들을 안남인라고 언급하면서 심지어 베트남 민중의 정체성마저 공격했다. 프랑스 군대는 1885년 후의 제국도서관을 불태웠고, 고대 두루마리와 원고들은 수세기에 걸친 지혜의 보고였다. 여기에서 계몽과 프랑스혁명의 자유주의적 가치의 공간적 팽창을 보며, 그 가치는 프랑스의 “문명화 사명”(mission civilisatrice)에 기초였다. 이는 미국혁명이 나중에 “명백한 운명”이 된 것과 같다.<sup>12)</sup>

대혁명의 직접적 영향 아래, 프랑스는 알제리 노예제에 대한 십자군을 선포했고, 질서와 문명상태를 제도화한다는 이름으로, “야만적”이고 “몽매한” 오토만 지배자들도 건드리지 않는 토지를 포함해 아랍 공동체 마을공유지를 파괴할 수 있었다. 이슬람 문화가 지배했던 한, 씨족과 가족 토지유산은 양도할 수 없었고, 판매가 불가능했다. 50년간 프랑스의 “계몽적” 통치 이후에, 대토지가 다시 나타났고, 기근이 알제리에서 추악한 얼굴을 드러냈다.

문명과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영국인들은 인디아에서 마을토지의 공동체소유를 파괴했고, 공유지는 수세기간 지역문화를 유지한 구조이자, 페르시아, 그리스, 스키타이, 타타르, 몽골의 침략에서 살아남은 공동체 전통이었지만, 영국국가의 자유주의적 원칙의 “완성”에 저항할 수 없었다. 1867년 영국 자유주의의 첫 열매가 나타났다. 인디아의 오리사 지구에서만, 1백만 명 이상이 기근으로 죽었다. 그런 기근은 “후진적” 전통을 가진 인디아에서 거의 없었지만, 유럽 민주주의의 “계몽적” 자유주의에 의해, “민주적” 자본주의 원칙의 공간적 확대를 통해 기근이 나타났다.

모든 시기에, 사람들은 과거의 어리석음과 야만을 넘어 전진했다고 믿지만, 심지어 오늘날에도 “계몽”과 노예화는 계속 나란히 전진한다. “계몽적” 중국은 봉건주의와 미신을 파괴한다는 이름으로 티벳을 파괴한다. 자유의 이름으로 미국은 수백만 명 아프간인, 이라크인, 파키스탄인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 모든 미국 전투원들이 이라크를 떠난 이후에도, 미국의 “합리적” 전쟁은 수백 톤의 열화우라늄탄의 잔류효과 때문에 수십 년간 살상과 불구화를 계속할 것이다.<sup>13)</sup>

11) See Robert Aldrich, *Greater France, A History of French Overseas Expansion* (New York: St. Martin's, 1996), 98.

12) 환호하는 관객 중의 하나가 프랜시스 후쿠야마이다. 그는 현대의 미국 스타일 대의 민주주의가 인류발전의 바람직한 종점이며, 우리는 “역사의 종말”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비록 지금 중국이 제공한 대안을 인정하지만, 후쿠야마는 1806년 예나 전투(나폴레옹이 프로이센 군주제를 패배시킨)가 자유 민주주의적 국가의 공고화를 상징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권의 원칙과 특권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썼다. 후쿠야마에게 인류의 사회진보에 관한 한 “새로 발명할 것은 남아있지 않다.” See his article “The End of History,” *Foreign Affairs* (1988), 5. 후쿠야마에게 프랑스 혁명의 원칙이 공간적으로 확장된 것은 나머지 세계가 동일하게 인류진보를 경험할 것임을 의미한다.

13) 열화우라늄탄(DU)은 극도의 밀도 때문에 철갑을 뚫는 발사무기에 사용돼 왔다. 펜타곤은 320 입방톤의 열화우라늄탄이 이라크 전장에 남겨졌다고 인정했지만, 러시아 측은 1,000 입방톤에 가까운 양이라 추산한다. DU는 태양계의 나이보다 더 긴 반감기를 가지며 걸프전쟁 신드롬, 이라크에서 수천 명의 사망과 기형태아와 연결돼 있다. 한 영국 연구자는 20세기 말 이전에 50만명이 이 방사능 때문에 사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See Neil Mackay, “U.S. Forces’ use of depleted uranium weapons is ‘illegal’” *Sunday Herald*, March 30, 2003 ([www.truthout.org/docs\\_03/printer\\_040103F.shtml](http://www.truthout.org/docs_03/printer_040103F.shtml)).

선포된 자유주의적 가치의 공간적 확장에도 불구하고, 아니 보다 정확히 바로 그 때문에, 2차대전 이전 40년보다 이후 40년 동안의 전쟁에서 4배나 많은 살상이 일어났다. 1992년에서 2002년까지, 세계의 총수입은 연평균 2.5퍼센트 증가한 반면, 가난한 사람들의 수는 1억 명이나 늘어났다. 세계의 상위 1퍼센트는 하위 57퍼센트와 같은 수입을 가지며, 불평등은 증가하고 있다.<sup>14)</sup> 전세계가 군대에 연간 1조달러 가량을 쓰는 반면, 네 명중 한명은 굶주리며, 지구의 생태위기는 격화된다.

### 세계체제의 구조적 요구

분명히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테크놀로지를 극적으로 발전시켰고, 엄청난 양의 부를 창조했다. 하지만 이제 생산적 한계에 도달했고, 바로 그 성과를 파괴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바로 성공이 자신의 지속을 파괴한다. 기존체제의 구조적 과제는 금융시장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자들이 돈을 움직이는 걸로 보기에 진부한 패턴에 의해, 오직 이익에 기초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은행과 기업들에 의해, 국민에게 안전과 안정을 제공할 정부의 필요에 의해 시행된다. 기업체제의 지배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요청 때문에 우리 모두를 계몽과 노예화의 주기 속에 가둔다:

- 전쟁과 무기
- 거품과 폭발
- 억만장자와 거지
- 이윤과 공해

### 첫 번째 구조적 요청: 전쟁과 무기

1929년 대공황 이래, 군사주의는 세계경제의 침체(stagnation)에 대한 주된 해결책이 됐고, 미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칸트가 곧 상비군이 전면적으로 폐지될 것이라고 말한 지 2백년이 지났지만,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더 많은 군인과 무기가 있다. 세계의 정부들은 엄청난 경제위기의 해인 2008년 군대에 1조 4600억 달러를 썼고,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결과로 전지구적 군사소비는 4퍼센트 증가해, 10년 전보다 45퍼센트나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의 군사지출은 2008년 거의 10퍼센트 증가해서 6.070억 달러(세계 전체의 42퍼센트)에 이르렀다. 2위의 자리는 미국의 1/7(약 849억 달러로 추산)을 지출하는 중국이었다.<sup>15)</sup> 2001년 전지구적 군사지출(줄여서 추정된 수치)은 2퍼센트 올라 8,390억 달러, 세계 GNP의 2퍼센트였고, 지구상의 모든 성인남녀와 어린이 1인당 약 137달러였다.<sup>16)</sup> 이 숫자는 2008년 217달러로 증가했다.<sup>17)</sup> 1948년 이래 미국은 군대에 15조 달러 이상을 썼고, 이는 모든 공장, 고속도로, 다리, 빌딩, 기계, 상하수도, 발전소, 학교, 병원, 쇼핑센터, 가옥 및 자동차의 누적 화폐가치보다 더 많은 액수다.<sup>18)</sup>

누가 백악관에 있든, 군사주의는 오래 동안 미국 외교정책과 경제발전의 중심이었고 확실히

14) See Arundhati Roy, "Not Again," *Guardian*, September 27, 2002.

15)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09 report.

16) 다른 보도에 따르면 전지구적 평균은 GDP의 3.5 퍼센트이며, 타이완의 군사지출은 6.3 퍼센트에 이른다. Arirang 8/10/03.

17) 미국 국방부는 2005년 120억 달러에 비해, 2009 회계연도 320억 달러의 무기와 군사장비를 판매 또는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외국정부들이 2005년 580억 달러에서 증가한 960억 달러의 무기수출 라이선스를 획득하면서 상업적 직접판매가 급속히 증가했다.

18) Andreas, *Addicted to War*, 39. 현재의 펜타곤 예산에 해외 군사원조, NASA의 군사부문, 에너지부의 핵무기 예산, 과거 군사지출로 인한 부채에 대한 이자지불을 더하면, 미국은 매일 1분마다 1백만 달러 이상을 소비한다. 미국 내에서 펜타곤은 남한의 면적보다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며, 토지지분은 북한 전체의 면적에 거의 맞먹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느 당 소속이든 미국 대통령은 상하원 의원처럼 미국 군사력의 막대한 확장을 보증하고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는 나라에 대한 외교정책의 도구로서 전쟁을 계속 승인했다. 소련이 파열하면서 냉전이 끝났을 때, 약속한 평화 배당금은 결코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 대신 미국은 이슬람 테러리즘과 북한을 악마화하여 무기지출을 증가시키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세계적으로 미군의 주둔을 확대했다. 2008년 미국은 130개국에 700개 해외기지에 250,000명 이상을 주둔시키고 있다.<sup>19)</sup>

세계인구의 1/4, 생산능력의 20퍼센트, 무역의 13퍼센트를 차지하는 동북아시아는 지난 20년간 세계 경제성장의 주요지역이었고, 21세기 중심적 열강이 될 위치에 있다. 냉전 종식으로 평화배당금을 받기는 커녕, 동아시아는 지역적 핵무기 위기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증강의 장이 됐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보존하는 수단인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는 과장된 전쟁 위협 속에 급증했다. 타이완에서 중국의 위협은 더 많은 무기체계를 판매하기 위해 계속 이용됐다.<sup>20)</sup>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는 미국의 정보조작은 일본과 남한에 선진적 “미사일 방어” 무기를 판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험에서 CIA가 냉전시기 소련의 능력을 크게 과장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는 악명높게, 거짓으로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평양의 핵-미사일 능력을 과장하는 것은 미사일 체계를 일본, 남한, 타이완에 파는 미국의 성공적 마케팅 수단이며, 이들 모두는 모두 비싼 “방어” 무기의 판매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수십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진 나라들이다.<sup>21)</sup>

오늘날 동북아시아는 미국의 직접 개입 없이도 지역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한국인들이 다른 한국인과 싸우는 “제한”전을 시작하기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최소 사상자는 그런 전쟁을 미국 대중의 입맛에 맞게 만들 것이다.<sup>22)</sup> 2010년 중국과 북한 해안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은 패턴을 따른다. 1976년에서 1993년까지 “팁스피리트 훈련”은 북한에 대한 침략과 핵전쟁을 위협했다. 매일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미국 비행기들이 38도선에 접근했다. 비록 마지막 순간에 선회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의 핵전쟁 위협은 수십 년간 매일매일 현실이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북한이 매년 7,900건 이상의 도발행위를 했다고 보고되며, 미국도 매일 북한 상공에서의 감시비행을 포함해 같은 많은 도발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1953년 정전 이래, EC 121 첩보기를 포함한 최소한 10대의 미국 비행기들이 북한에 의해 격추됐다. 2003년 3월, 미국은 북한을 사정거리에 두는 광의 미태평양 기지에 10여대의 B-52 전폭기와 같은 숫자의 B-1 폭격기를 배치했다. 평양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가?

2008년 경제위기 이래 세계경제의 지속적 침체로, 평화 속에서 꾸준한 국가성장을 제공하지 못하는 체제의 무능력은 체제변혁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지시한다. 현재의 구조적 요청이 세계경제에 패턴을 유지한다면, 전지구적 정치 엘리트들은 전지구적 침체를 막고 국력을 증대

19) 이 통계는 적절한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시작일 뿐이다. See Bernd Debusmann, “Fading Superpower, Rising Rival Nations,” *Korea Herald*, August 29, 2008.

20) Thom Shanker, “Arms Deal to Taiwan Riles China,” *New York Times*, October 4, 2008.

21) 2006sys 미국은 요격미사일 9기의 일본판매(4억 5,800만 달러 상당)를 승인했다. 2008년 10월 미국은 60억 달러 이상의 선진무기를 타이완에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31억 달러의 페이트리어트 3등급 유도미사일 시스템, 정교한 미사일, 미사일과 항공기 방어용 레이더와 통제시스템이 포함돼 있었다. 또 이 계약(2010년 1월 최종 승인된)에는 25억 달러의 아파치 공격용 헬리콥터와 지원 시스템도 포함돼 있었다. 남한은 2020 국방개혁계획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탄도미사일 방어계획에 합류하는 조치로서 저고도 미사일 방어망 PAC-3 시스템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한국 공중 및 미사일 방어망(KAMD)이란 이름의 지대공 방어시스템은 2012년까지 가동할 계획이며, 이 때까지 한국은 미국에게서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조기경보 레이더, 이지스함에 구축한 SM-2 대공 미사일 시스템, PAC-2 요격미사일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미 배치된 KDX-III 구축함 외에, 남한은 2012년까지 한 척 더 구매할 계획이며(1척당 가격은 약 10억 달러) 한국식 3,000톤급 KSS-III 잠수함과 이지스급 군함을 건설할 계획이다.

22) 여기에 주한미군 유지가 실제로 전쟁억지력으로 작동하는 한가지 실용적 이유가 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많은 미군 병사들도 사망한다면 미국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적어질 것이다. 백낙청의 이런 통찰력이 처음으로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무제한적 군사지출을 사용할 것이다.

두 번째 구조적 요청: 거품과 폭발의 위기

기존 세계체제의 반복적 문제는 거품과 폭발의 주기적 패턴이다. 2008년 세계금융 하부구조가 거의 붕괴 직전에 이르렀던 상태는 체제의 불안정성을 명백하게 보여줬지만, 비슷한 트라우마가 계속적으로 드러났다. 폭발적 금융위기가 1994년에서 1995년까지 멕시코, 1997년에서 1998년까지 동아시아의 대부분, 1998년 러시아와 브라질, 2002년초 아르헨티나를 강타했다. 1990년대 후반 하이테크 거품 동안 인터넷 관련 주식가격은 치솟았다가 폭락했다. 7조달러나 되는 자산이 사라졌고, 2001년에서 2002년까지 경기후퇴가 이어졌다.<sup>23)</sup> 보다 일반화된 인간필요를 충족시키기보다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본원칙,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핵심적인 규칙에 의해, 새로운 위기가 일상적인 일로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최근 위기의 주된 원인은 은행과 기업들이 국내이윤이 감소하자 전지구적 이윤을 증대하려고 했다는 점이다.<sup>24)</sup> 1970년대 후반의 경기침체는 이자율이 물가상승률을 거의 따라잡지 못했고, 록펠러가문 등 부유한 미국은행들이 국내입금과 복지국가를 공격했고, 더 커다란 이윤을 쥐어뜯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융화”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도움으로 유혈사태 속에 독재자 전두환이 권력을 잡은 한국과 같은 나라의 자발적 친미파가 손쉬운 먹이가 됐다. 1980년대 말까지, 70개 이상의 제3세계 나라들이 경제의 국가통제를 급격하게 완화하는 “충격요법”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IMF 국가경제를 통제하면서 1976년에서 1986년까지 10여개 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났다.<sup>25)</sup> 말을 배우는 아기처럼, 기업주도 세계화에 맞선 운동이 수십회의 폭넓고 전투적인 투쟁 속에서 태어났다.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세계경제는 이때누얼 윌러스틴이 금융위기라고 간주한 것에 돌입했다. 1965-89년 중간 및 하위 소득 나라에서 1인당 GNP 연평균 성장률은 다음과 같다:

1965-1973	4.0 퍼센트
1973-1980	2.6 퍼센트
1980-1989	1.8 퍼센트 <sup>26)</sup>

거대기업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과 금융자원을 필요로 한다. 뉴욕과 도쿄의 은행가들이 이끄는 국제 투자자들이 1970년대 후반의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해결하려고 달려가면서, 체제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신자유주의가 발전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이 “해결책”의 단기적 성격을 드러냈다. 끊임없는 이윤증대 드라이브는 “자유화”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고, 자유화란 외국자본의 금융부문 침투를 의미한다. 정부통제를 대신하는 시장통제의 추구는 위기란 전염병을 가져왔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나라마다 탈규제로 은행위기가 왔다.

표 36: 은행위기와 금융부문 통제완화

나라	위기	이자율 통제완화	직접신용 폐지	경쟁확대	자본흐름 허용	민영화 / 사유화	규제완화
----	----	----------	---------	------	---------	-----------	------

23) Bello, “A Primer on the Wall Street Meltdown,” <http://links.org.au/node/657>.  
 24) Duménil and Dominique Lévy, “The Economics of U.S. Imperialism at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1, no. 4 (October 2004): 663.  
 25) See John Walton, “Urban Protest and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The IMF Riots,” in *The Capitalist City: Global Restructuring and Community Politics*, ed. Michael Peter Smith and Joe R. Feagin (London: Basil Blackwell, 1997), 364; and John Bellamy Foster and Fred Magdoff, “Financial Implosion and Stagnation: Back To The Real Economy,” in <http://monthlyreview.org/2008/12/01/financial-implosion-and-stagnation>.  
 26) Huntington, *Third Wave*, 311.

인도네시아	1997-2002	1983	1983	1988		1996	1992
한국	1997-2002	1991	1982	1981	1996	1983	1988
말레이시아	1997-2001	1991	1976	1985			1989
필리핀	1998-	1983	1983	1993	1995	1995	
타일랜드	1997-2002	1992	1980	1992	1992	1993	1993

Source: A. Abiad and A. Mody, "Finacial Reform: Who Shakes It? What Shapes It?" *American Economic Review* 95 ,no. 1 (2005): 66-88.

투자자들에게 서류상의 손실은 슬픔을 가져오지만,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은 비극을 겪는다. 2008년 전세계의 경제가 거의 붕괴하자, 투자자들은 수조 달러의 부를 잃었지만, 세계체제 주변부의 보다 많은 사람들은 굶주림을 경험했다. 전세계적으로 2003년에서 2005년까지 8억 4,800만 명으로 감소했었던 굶주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2008년 9억 6300만 명으로 늘어났다.<sup>27)</sup> 위기의 여파로 전지구적 구조적 실업은 세계의 가장 부유한 7개국에서 3천만 명 이상을 실업자로 만들었다.

결국 위기로 인한 이 수조 달러의 손실은 은행가나 경영진이 아니라 세계의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갚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납세자들은 2008년 주요 금융기관들에 대한 보증지원에 돈을 낼 것이며, 그들의 민활한 변영으로의 복귀는 대은행과 기업들이 위기에서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보여준다. 1997년 IMF-아시아 금융위기 동안, 인도네시아는 8개월 만에(1997년 7월 1일에서 1998년 2월 18일까지) 환율이 73.5퍼센트 폭락했고, 한국의 화폐도 48.1퍼센트, 타일랜드는 43.2퍼센트 하락했다.<sup>28)</sup> 2,100만 명의 인도네시아인과 1백만 명의 타이인들이 빈곤선 이하로 내몰렸다. 타일랜드의 납세자들은 위기로 인한 생산감소와 그로 인한 수입손실은 말할 것도 없이 GDP의 35퍼센트에 이르는 손실총액을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조지 소로스는 몇 주만에 이 지역에서 1,000억 달러를 빼가는 투자도주를 연출한 다음 엄청난 변영을 누렸다. 외국투기자들에 대한 IMF 구제금융은 실물경제의 붕괴를 악화시켰을 뿐이며, 1998년 동아시아 전역에서 경기침체를 심화시켰다.<sup>29)</sup> 한국, 인도네시아, 타일랜드의 납세자들은 1997년 IMF 차관을 갚았다. 그들은 IMF의 “도움”과 “지원”에 대한 조건을 수용하는 것 외에 아무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무엇보다도 일본과 미국의 은행과 기업들을 위한 특권을 의미한다. 금융규제 완화와 무역자유화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미국정책 목적에서 최우선이었고, 칠레, 타일랜드, 남한과 터키에서 군부독재를 가져왔다. 광주봉기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미국은 정치적 자유화를 거부했고, 수백명의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봉기의 와중에서 경제 자유화를 과도하게 밀어붙였다. 개혁에 대한 외국인의 요구는 개발국가에게서 기업의 성장과 경제적 축적을 통제할 권력을 빼앗으려 했다. 그 결과 남한과 타이완에서 기업부문의 자기 정부에 대한 연계는 느슨해진 반면, 세계경제와의 관계는 강화됐다. 일국 엘리트들이 기업부문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자, 그들은 민중의 눈으로 보기에 정당성을 잃었다. 1997년 IMF 위기 동안, 클린턴 대통령의 상업차관이었던 제프 가튼은 솔직하게 진술했다. “이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둡고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끝에는 미국기업들이 더 깊은 시장침투, 더 깊은 접근을 획득한 상당한 다른 아시아가 존재할 것이다.”<sup>30)</sup>

27)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statistics. See Javier Blas, "World's Hungry Close to One Billion," *Financial Times*, December 9, 2008.

28) Lowell Dittmer, "Globalization and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East Asia and Globalization*, ed. Samuel S. Kim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2000), 36.

29) See Stiglitz, *Globalization*.

30) "Worsening Financial Flu Lowers Immunity to U.S. Business," *New York Times*, February 1, 1998. 오바마의 주요 경제고문 중의 하나가 로렌스 서머스였고, 그는 클린턴의 재무장관이었다. 위기가 발생하기 몇 년 전인 1999년 아르헨티나의 상태를 평가하면서 서머스를 이렇게 썼다. “오늘날 아르헨티나 은행부문의 50퍼센트, 민간은행의

1997년에서 2008년까지, 자본주의 체제의 훨씬 더 커다란 거품과 붕괴의 나선형 소용돌이는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그 궤도로 끌어들이었다. 1990년대 후반 46조 달러나 되는 투자자의 부가 월스트리트에서 사라졌고, 1987년 붕괴의 손실규모의 약 4배였다.<sup>31)</sup> 자본흐름의 증가가 한 원인이다. 1970년대 선진국들은 국경 외부로 연간 340억 달러를 투자했다. 1990년까지 해외투자의 연간흐름은 6배나 늘어나 약 2,140억 달러였다.<sup>32)</sup> 세계 외환-금융시장의 1일 거래량은 1973년 150억 달러, 1992년 8,200억에 달러에서 1998년 1조 5000천억 달러로 증가했다.<sup>33)</sup> 2003년까지 전지구적 금융시장은 매일 1조3천억 달러를 거래했고, 이는 세계무역액의 100배 이상이다.<sup>34)</sup>

아시아에서, IMF, WTO, WB는 미국에게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여, 국가지원 경제로 미국의 기업과 은행에 오래 동안 담혀있던 문을 부순다. 일단 “측근” 정권이 타도되고 “민주적”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의 상품과 투자는 지역으로 흘러들어오고, 기업 경제통제의 전지구적 그물망으로 통합된다. 체제위기적 경향의 그물망 내에서 1997년 IMF 위기는 헐값으로 자산을 구매하는 이용됐다. 월든 벨로가 설명하듯이,

아시아 금융위기가 측근 자본주의에 의해 야기된다는 모든 이야기는 주로 동아시아의 몰락을 가져온 IMF로부터의 압력에 대응하여 투기자본의 규제로부터 해방이 위기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모호하게 할 수는 없다. IMF 역시 위기 이후에 아시아 경제들에 가혹한 프로그램을 강제한 데에 대해 심한 공개적 검토를 받았는데, 그 프로그램은 경제위축을 가속화시킬 뿐이었고 위기경제가 아니라 외국은행과 투기적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구조패키지를 한데 묶은 것이었다.<sup>35)</sup>

가난한 나라들에서 기업통제의 강제는 미국과 일본 기업들의 자기 통제지역 침투에 대한 토착 엘리트의 반대를 무력화하기 위해 의회민주주의를 필요로 했다. 정치적 자유화는 전지구적 기업들의 시장, 금융하부구조, 신자유주의적 의제의 확대에 적합한 도구가 됐다.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대로서의 의미에서 유리된 “세 번째 물결”의 민주화는 세계경제의 기업적 확대에 적합했다. 역사적으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자유화”는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확대와 나란히 진행됐다. 등장하는 의회체제는 반주변부와 주변부에서 전지구적 기업들의 통제확대에 적합한 도구였다.

전지구적 기업들이 신흥시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국의 은행과 기업들은 국내 도시들을 포기했다. 미국의 대부분은 미국기업들이 보다 수익성 높은 투자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공동화됐고, 흑인 시장들은 디트로이트와 같은 과거 번영의 껍데기를 통치하도록 선출됐다(오바마가 부시-체니 시대에 망가진 경제를 물려받은 것과 아주 흡사하게).

70퍼센트가 외국인 통제 아래 있고, 이는 1994년 30퍼센트에서 상승했다. 그 결과 보다 심오하고 보다 효과적인 시장이 생겼다.” Quoted in Walden Bello, *Deglobalization: Ideas for a New World Economy* (Manila: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2006), 78.

31) 투자시장에서 수조 달러의 주인이 바뀌면서 카지노 자본주의는 기록적 호황에 이어 심각한 불황을 낳았다. 손실 총액은 1932년 6월 80퍼센트, 1942년 4월 60퍼센트, 1974년 10월 50퍼센트, 2008년 10월 거의 같은 정도였다. “How this Bear Market Compares,” [http://www.nytimes.com/interactive/2008/10/11/business/20081011\\_BEAR\\_MARKETS.html?hp](http://www.nytimes.com/interactive/2008/10/11/business/20081011_BEAR_MARKETS.html?hp), accessed October 12, 2008. Also see Bello, *Deglobalization*, 14.

32) Samuel S. Kim, *East Asia and Globalization*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2000), 8.

33) Benjamin Cohen, “Phoenix Risen: The Resurrection of Global Finance,” *World Politics* 48, no. 2 (1996): 268-96;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World Investment Report 1999*, 477-483; Beinart, “An Illusion for our Time: The False Promise of Globalization” *New Republic*, October 20, 1997, 20-24; David Goldblatt, David Held, Anthony McGrew, and Jonathan Perraton, “Economic Globalization and the Nation-State,” *Alternatives* 22, no. 3 (1997): 269-285; David Goldblatt, David Held, Anthony McGrew, and Jonathan Perraton, “The Globalization of Economic Activity,” *New Political Economy* 2, no. 2 (1997): 257-77 as cited in Kim, *East Asia*, 28.

34) Keane, *Global Civil Society?*, 174.

35) Bello, *Deglobalization*, 5.

“진정한 악의 축”인 IMF, WB, WTO는 단기 회로적 해방의 추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에 대한 시장통제를 확대하려고 민중반란을 이용하는 이 기관들은 미국과 일본의 은행과 기업들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토착 엘리트(“측근”이라고 읽을 것)를 밀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 민중운동의 에로스적 에너지를 이용하여 자본의 국제기구들은 자유에 대한 요구를 소비재, 신기한 장치와 발명품에 대한 요구로 전환시킨다. IMF “지원”으로 지역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자진해서 초국적자본의 종업원으로 변화하는 반면, 동시에 지역의 경제엘리트는 개혁된 정치구조 내에서 국제자본을 추종하게 된다. 거대 기업들은 전지구적 경제통합이 진행되면서 민중의 부에서 더욱 늘어난 몫을 통제한다. 시장이 세계의 대부분을 전지구적 기업에 굴종하게 하는 데 성공하자, CIA 쿠데타와 인종학살 전쟁으로 구체화되는 미국의 원색적 권력은 별로 필요하지 않게 됐다.

“자유” 무역과 “자유” 시장 금융거래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투자영역이 열렸다. 자본의 이윤을 감소는 일시적으로 소생산자를 파산시킴으로써 일시적으로 상쇄됐고, 전지구적 기업이 시장점유율과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게 했다. 연이은 금융위기의 순효과는 엄청난 자본집적을 가속화하는 것이었다. 현재의 세계경제 체제가 그대로 있는 한, 비슷한 위기는 보통 감기처럼 확실히 반복될 것이며, 초국적 은행과 기업들이 세계의 부를 더 장악하면서 위기의 규모는 커질 것이다.

2000년에 세계 상위 50대 금융기관들은 50조 달러의 자산을 통제했고, 이는 대략 전지구적 부의 1/3이다. 세계의 300대 기업이 세계의 상품과 서비스 생산의 절반을 통제한다. 이 거대 기업들은 민족국가를 왜소화한다. 예를 들어 엑슨은 영국보다 더 많은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의 100대 경제를 고려하면, 현재 51개가 전지구적 기업들이고, 겨우 49개가 국가들이다.<sup>36)</sup> 세계 200대 기업의 매출총액은 182개국 경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세계 200대 기업의 총고용은 겨우 1,880만 명이며, 지구 인구의 1퍼센트의 1/100보다 적다. 세계의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총액은 2005년 11조 달러이며, 7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된 것이지만, 세계 무역의 1/3은 동일 기업내 다양한 단위들 사이의 거래로 이뤄진다.

### 세 번째 구조적 요청: 억만장자와 거지

“구조적 폭력”과 불평등은 세계경제 체제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화됐다.<sup>37)</sup> 20세기 마지막 10년간, 세계의 부를 수퍼리치가 장악하자, 억만장자의 숫자는 세배로 늘었고, 세계의 가장 부유한 1,100명은 가장 가난한 25억 명의 자산보다 거의 두배를 보유했다. 오늘날 1천명의 억만장자와 나란히, 거의 충분히 먹을 것이 없는 10억명의 극빈자들이 있다.<sup>38)</sup> 불균등한 지역 발전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보다 맨해튼에 전화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의 가장 가난한 20퍼센트와 가장 부유한 20퍼센트 사이의 소득불평등은 1960년 1:30에서 1990년 1:60, 1994년 1:74로 늘어났다.<sup>39)</sup> 심지어 “선진” 경제에서도, 30년전 다국적기업 CEO들은 평균 노동자 임금의 35배를 벌었지만, 오늘날 이 수치는 350배 이상이다.<sup>40)</sup>

UN에 따르면, 2009년 17,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매일 기아로 죽으며, 그해 총 6백만 명 이상이 죽었다. UNICEF의 추정에 따르면 30,000명의 5세이하 어린이들이 제3세계에서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죽는다.<sup>41)</sup> 이것은 10년마다 1억명 이상의 5세 이하 어린이들이 설

36) Sarah Anderson and John Cavanagh, “How Important is the Market to the Economy?” Corporate Watch, Summary of Findings, 2000.

37)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6, no. 3 (1969), 167-191.

38) 2010년 <포브스>지는 1,210명의 개인이 1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고, 이들의 재산합계는 4조 5천억 달러에 이르며, 전세계의 빈민 40억 명의 재산보다 더 많은 액수다. For analysis, see James Petras, “Billionaires Flourish, Inequalities Deepen as Economies ‘Recover,’”

39) Keane, *Global Civil Society?*, 90.

40) David Rothkopf, “Change is in the Air for the Financial Superclass,” *Financial Times*, May 16, 2008, 9.



사, 감기, 백일해, 파상풍, 폐렴, 홍역 등을 포함해 불필요한 원인으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질병들은 값싼 백신이나 단지 깨끗한 물로 쉽게 예방할 수 있다. 기아와 질병에서 살아남은 운 좋은 사람들은 평생의 문제에 직면한다. 2009년 11월, UN 아동기금은 거의 2억명의 5세이하 어린이들이 식량부족으로 발육부진이라고 보고했다. 식량농업기구(FAO)는 지구 상에서 6명중 1명, 1억 200만명이 기아에 시달린다고 보고했다.<sup>42)</sup>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됐을 때, UN의 2008년 밀레니엄 발전목표(MDG) 보고서는 추가적으로 1억 명의 사람들이 “극빈”상태로 내몰릴 것이라 결론을 내렸다.

그런 세계에서 지속적 평화는 있을 수 없다.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 세계체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탈인간화되고,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히고, 기아 주변에서 헤매는 한, 그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정의를 찾는 것 밖에 다른 대안은 없다. 단기적 수익성에 기반한 경제체제의 구조적 폭력은 최대로 긴급한 지속적 위기를 구성한다. 기존 경제의 비합리성은 그것이 인류의 부를 허비하고, 전통적 문화를 통째로 파괴하고 지구의 천연자원을 약탈하기 때문에 더욱 가시적으로 될 것이다. 이미, IMF가 강제한 긴축조치들은 식량가격 인상, 제3세계에서 실질임금의 하락, 많은 나라에서 국민총생산의 하락을 가져왔다. 제3세계 부채는 34퍼센트 늘어나 2조 5천만 달러가 됐다.<sup>43)</sup>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부채탕감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1996년 이래 약 10억 달러가 해소됐지만, 세계의 가장 가난한 41개 나라의 부채에서 5퍼센트 이하였다.<sup>44)</sup> 제3세계 부채 전체를 갚는 데에는 부유한 나라들이 2008년 시작된 위기에 금융기관들을 살리는 데 사용한 액수보다 적다. 만약 유럽에서 매일 30,000명이 죽는다면, 세계 지도자들을 즉시 그들의 목숨을 구하는 데 주저하겠는가?

#### 네 번째 구조적 요청: 이윤과 공해

세계경제체제는 인간생명의 가치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연 전체를 별로 중요하지 않는 “외부”(externality)로 다룬다. 체제의 자기팽창적 가치는 이윤창출을 위해 사용가능한 물질의 풀에 자원을 더욱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어족 자원은 감소하고 해양오염은 치명적 수준에 오르는 반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산림은 베어지거나 불태워진다. 기후변화, 사냥, 서식지 파괴가 경제발전과 함께 진행되고 공해가 증가하자, 포유류 4마리 당 1마리, 양서류 3마리 당 1마리가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자본주의가 퇴화시킨 자연에는 외적 자연, 즉 나무, 강, 산과 공기만이 아니라, 내적 자연, 즉 우리의 마음, 상상력과 공동체도 포함된다. 현체제는 일상생활을 식민화하고, 노동을 탈인간화하며, 공동체를 파괴한다. 우리 삶-힘의 세계를 형성하는 데로의 창조적 적용인 노동이 사고 파는 상품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은 점차 삶이 긍정과 협력에 반대되게 끔찍이 소외시키고 위계적인 삶의 지위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살기보다는 일하기 위해 산다.

원자화가 소비사회의 선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족도 공격받는다. 수익성은 건축자들이 부자들을 위해 여러층의 호화공간을 창조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수백만 명은 홈리스이다. 건축업의 화폐방정식 어디에서도 함께 살고 싶은 보통사람들의 공동주택을 찾을 수 없지만, 공동주택은 공동체보다는 수익성을 위한 주거공간의 자본주의적 분할로 현재 고립된 많은 사람들과 노인을 위해 그리고 육아를 위해 합리적인 해결책이다.

41) Elizabeth Olson, “UN Says Millions of Children Die Needlessly,” *New York Times*, March 14, 2002, 13. 2008년 말, 빈곤에 반대하는 전지구적 행동호소(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는 전세계적으로 매일 50,000명이 불필요하게 사망한다고 추정했다. 절반 이상이 기아나 빈곤으로 죽는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이다. 아프리카에서만 매일 7,000명이 말라리아로, 6,000명이 HIV/AIDS로, 1,5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한다. 예방할 수 있는 원인 때문에 거의 1,100만명의 어린이들이 해마다 죽는다.

42) “U.N. Says Hunger Stunts 200 million Children,” *Korea Herald*, November 13, 2009, 15.

43) Dawkins, *Global Governance*, 19, 31.

44) James Kanter, “1 in 4 Mammals Threatened, Study Says,” *New York Times*, October 6, 2008.

인류의 귀중한 자원은 알프스와 피레네 산맥의 불필요한 터널, 덴마크와 스웨덴을 연결하는 다리,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캐나다 본토까지의 고속도로, 보스턴의 빅디, 남아도는 월드컵 경기장 등에 낭비되며, 끝없는 전쟁과 낭비적 군사지출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은 한 줌의 거대기업들에게 대규모 이윤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이 기업들은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그들이 만든 국제기구들과 아무 관계 없고, 오히려 IMF, WB, WTO의 지침은 각국이 명령에 따르도록 강제한다. 그것은 세계은행이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소련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막았고, PLO가 옵서버 자격을 갖도록 허용하기를 거부했다.<sup>45)</sup> WTO는 너무 불투명해서 주세계의 부유한 나라들이 한줌의 가난한 나라를 선택적으로 초청하는 “그린룸”의 비밀회의에서 주요한 결정이 이뤄진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배제된다. 협상이 결렬된 핵심 이슈는 OECD 나라들이 자국 농민들에게 지불하는 농업보조금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나라의 소농민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 이하로 지역시장에 생산물을 덤핑할 수 있었다. 부유한 나라의 그런 보조금은 1995년(WTO가 창설된 해) 1,820억 달러에서 1997년 2,800억 달러, 1998년 3,620억 달러로 늘어났다.<sup>46)</sup> 말리의 면화농부, 케냐의 옥수수 농부, 아이티의 쌀 재배자는 보조금으로 수십억 달러를 받는 북반구의 농민과 경쟁할 수 없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은 G-20을 세계의 최고경제포럼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고, 그리하여 선진국들이 세계경제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G-20은 전지구적 경제의 약 85퍼센트와 개발도상국 전체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일부 목격자들에게, 이 변화는 전지구적 경제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전진을 의미한다. G-20 회원국들은 2011년까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자본구조를 재편할 것이다. 하지만, 각국이 모든 부와 수입의 많은 몫을 차지하는 엘리트들이 지배하는데, 국가들의 협력이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그것은 인류의 중심적 문제를 영구화하는 바로 그 구조를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핫머니”는 1997년 IMF 위기의 문제였고, “파생상품”과 “2차 용자시장” 문제가 2008년 위기를 창출했지만, 둘 다 개인 투자자들의 국제자본 통제를 위한 아바타들(avatars)이다.

여러 세대에 걸쳐 창조된 인류의 집단적 부는 가장 비민주적 방식으로, 그리고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목적을 위해서, 몇백 개의 초국적기업들이 통제한다. “계몽적”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논리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시장의 명령에 따라 성장하거나 망해야 한다. 물론,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2008년 멸종의 위협을 받았을 때, 미국정부는 재빨리 그 수사를 포기하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역사상 최대의 복지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진정한 악의 추축인 WTO, IMF, WB를 이용하여, 거대기업들은 많은 민중을 궁핍하게 하면서 자신의 부를 계속 축적한다. 세계은행은 WTO 협상이 시행된 이후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소득이 2퍼센트 감소했다고 계산했다.<sup>47)</sup> 아이티에서 미국산 “마이애미 쌀”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 구제금융에 동의한 다음, 쌀 재배자들은 파산했다. 오늘날, 아이티인들은 진흙파이를 먹는다. 케냐는 IMF “지원” 프로그램 이전에 식량생산을 자급했다. 오늘날 케냐는 식량을 높은 가격으로 수입한다.

IMF의 “도움” 없이, 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번영했던 반면, 기금의 지원을 수용한 나라들은 침체했고 연이은 위기를 겪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소득은 75퍼센트 성장했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IMF 구조조정 프로그램 이후) 성장률은 6퍼센트로 떨어졌다. 과거 공산권 동유럽 나라들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라들의 평균소득도 IMF의 도움으로 떨어졌다.<sup>48)</sup> 사실 1990년대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

45) Bello, *Deglobalization*, 60.

46) *Ibid.*, 72.

47) Stiglitz,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Norton, 2002), 61.

48) “Global Capitalism: Can It Be Made to Work Better?” *Business Week*, November 6, 2000, 42-3.

즉 동유럽,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르브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빈곤 속에 사는 사람의 절대적 숫자는 증가했다.<sup>49)</sup>

비록 위에서 언급한 현체제의 비합리성의 일부가 감소해도, 체제의 구조적 모순은 불가피하게 전쟁은 지속적으로 재출현할 것이다. 비록 필리핀인들이 1986년 마르코스 축출 이후 수백만의 거대한 기지에서 미국을 몰아내기로 투표했지만, 미군은 “테러와의 전쟁”의 일부로 필리핀에 돌아와 있다. 전략적으로 효과적이려면, 민중운동은 전지구적 구조변혁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군사주의에 대한 체제의 요청은 새로운 구조적 요청을 필요하며, 그것은 기업이윤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강조하는 요청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함께, 직업적 정치인들의 지배와 달리, 모든 대량살상무기는 불법화하고, 상비군은 무효화할 것이다. 수세기 동안의 노동으로 축적된 부가 효율성과 수익성이란 “계몽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에 여전히 지배된다면, 체제의 구조적 요청은 전쟁과 불안정을 낳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전개되었는가? 우리, 인간종이 이런 조건 아래서 살아야 하는 것은 민주적으로 결정됐는가? 현세 경제제는 합리적으로 선택되기보다는 가장 강한자의 힘, 즉은 과거의 무게에 의해 강제된 것이지 현재의 살아있는 힘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다. 프랑스와 미국혁명에서 러시아와 중국혁명까지 민족국가의 힘은 강화됐고, 각 나라는 세계체제의 위계적 구조물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했다. 단지 핵, 생화학 무기만이 아니라, 전투기, 폭격기, 지뢰, 대포 및 자동화기 같은 이른바 재래식 무기까지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폐기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민중들이 비군사적 형태의 갈등해결을 주장할 때에야 비로소 인류의 미래운명은 우리의 최악의 현실을 넘어 개선될 것이다.

#### 합리적 체제를 향하여

새로운 체제를 창조하는 것은 압도적인 과제로 보이지만, 증가하는 국제적 합의는 인류의 막대한 사회적 부를 분산시키고 자주관리 하에 두는 세계체제의 근본적 재구조화의 필요성에 일치한다. 이미 다음과 같은 새로운 구조적 요청의 윤곽을 정의함에 있어 첫걸음이 내딛어졌다:

1. 생산과 분배의 규제를 위해 시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 억만장자들의 부와 권력은 삭감되어야 한다.
3. 민주주의는 민중의 직접결정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4. 공적 영역(인권, 노동권과 자연)은 보호되어야 한다.
5. 모든 민중의 기본적 필요는 충족되어야 한다.<sup>50)</sup>

세계사회포럼과 같은 국제적 모임은 민중의 상상력에 불을 붙였다. 전세계적으로 일련의 다른 모임들은 자급자족과 꾸준한 국가경제적 생산, 국제 투자자들의 이윤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위한 생산에 기초한 대안의 구체적 스케치를 생산했다.<sup>51)</sup> 비아 캄페시나의 초국경적 농민들의 모임은 56개국에서 대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산기술과 소비자 적용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적절한 기술과 비자원고갈적 에너지원의 사용을 권장한다는 일반적 개념을 승인했다.

WSF은 재단후원자들이 정치적 입장을 취하거나 전지구적 행동을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며, 그 많은 문제들은 그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을 드러낸다.<sup>5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WSF 모임의

49) Bello, *Deglobalization*, 68-69 (quoting a World Bank study by Mattias Lundberg and Lyn Squire).

50) Dawkins, *Global Governance*, 118-120.

51) See John Cavanagh and Jerry Mander, eds., *Alternatives to Economic Globalization: A Better World is Possible* (San Francisco: Berrett-Kohler, 2004); William Fisher and Thomas Ponniah, eds., *Another World is Possible: Popular Alternatives to Globalization at the World Social Forum* (London: Zed Books, 2003); Dada Maheshvarananda, *After Capitalism: Prout's Vision for a New World World* (Washington DC: Proutist Universal Publications, 2004).

참여자들의 숫자 자체는 체제변화에 대한 전지구적 지지의 증가를 보여준다. 참석자수는 그 누구의 예상을 넘어 증가했다:

표 37: 세계사회포럼 참석자수

연도	장소	참석자수
2001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20,000
2002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50,000
2003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100,000
2004	인디아 뭄바이	80,000
2005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155,000
2006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60,000
2006	말리 바마코	15,000
2006	파키스탄 카라치	30,000
2007	케냐 나이로비	40,000
2009	브라질 벨렘	133,000

Sources: Heather Gautney, *Protest and Organization in the Alternative Globalization Era: NGOs, Social Movements, and Political Parti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0).

2009년 베이징 아시아-유럽 민중포럼과 벨렘의 사회포럼은 세계경제의 민주적 관리와 금융 및 산업의 사회화에 대한 요구를 발표했고, 이것은 인류의 귀중한 존재와 지구의 무리한 파괴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요구한 많은 목소리 중의 두 가지였다. 이런 지역모임을 통해, 전지구적 경제관리의 투명하고 민주적 기관이 WTO, WB와 IMF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1970년에, 검은표범당(BPP)은 새로운 체제의 윤곽을 작성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원칙을 사용한 혁명적 민중헌법회의(Revolutionary People's Constitutional Convention)를 소집했다. 필라델피아의 비상하게 탄압적 조건 아래 모인 1만 명 활동가들의 총회는 최종문서를 승인했고, 이 문서는 미약한 첫걸음이지만 과감한 것이었다. 문서는 국제정치와 경제에서 적절한 행동을 위한 윤리적 기준을 주장하면서, 미국 상비군의 폐지, 풀뿌리 민중권력, 그리고 민중들이 낙원의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자유로운 국가들의 세계연방을 요구했다.<sup>53)</sup>

전세계 군대의 파괴는 의심의 여지없이 전지구적 자본주의체제를 재앙같은 불황에 빠뜨릴 것이며, 완전히 다른 세계체제를 개발할 필요의 일부로서 민중들이 이 문제를 토론할 여유는 충분하다. 만약 고급금융의 마법사들이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수조 달러의 정부지출을 할 여유가 있다면, 우리는 확실히 평화경제로의 이행시기에 경제를 안정화시킬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제에서 모든 사람은 주요한 금융기구들과 매일 경제활동을 지속할 투자자들의 수익성 선택에 의존한다. 월튼 벨로에 따르면, 기업주도 세계화의 “파괴”는 IMF가 “지원”을 덜 요청받고 궁극적으로 연구집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은행의 권력은 채권으로 재정을 마련하는, 보다 참여적인 지역 금융기관들의 창출을 통해 축소될 것이다.<sup>54)</sup>

52) WSF에 대한 비판적 통찰에 대해 제임스 페트라스에 감사한다. Also see Stellan Vinthagen, “Is the World Social Forum a Democratic Global Civil Society?” in *The World and U.S. Social Forums: A Better World Is Possible and Necessary*. eds. Judith Blau and Marina Karides (Leiden: Brill, 2008).

53) The documents are contained in Kathleen Clever and George Katsiaficas, eds., *Liberation, Imagination and the Black Panther Party* (New York: Routledge, 2001).

54) Bello, *Deglobalization*, 108-112. 만약 WTO가 약명높은 그린룸(Green Room)에서 만나고자 한다면, 세계 최강 경제국가들의 밀실 결정은 다른 나라들에 강제될 수 없을 것이다. 동시에, 벨로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수단은 국경내의 투자결정을 통제할 권한을 민족국가(또는 지역)에 부여할 것이다. UN은 민족국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의 사회들 가운데 수백 개를 대표하지 못한다. 지역에 기반한 분산적 통치를 위한 지역구조는 토착민중들이 스스로 통치하도록 허용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평등한 분배를 용이하게 할 것이고, 자율적으로 고안된 문화적-정치적 필요를 아래로부터 결합시킬 것이다.

### 지속되는 전지구적 봉기

다원주의적이고 탈중심화된 형태의 전지구적 혁명은 이미 진행 중이다. 아시아의 봉기들, 라틴 아메리카의 반란들과 대항세계화운동에서 나타나듯이, 보통 시민들의 피플파워와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모든 곳에서 나타났다. 현재 걸으로 주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날 국제적 운동은 우리 종의 역사적 진화에서 그 어느 시점보다 더 많은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비로 공중파가 중앙의 권위와 사회적 순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버전의 역사를 방송하는 동안, 레이더 바로 아래 민중의 이해와 자기주도적 행동은 강력한 흐름을 구성한다. 우리가 점차 우리 자신의 힘과 전략적 역량을 인식하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영향은 더욱 초점을 맞춰지고 동기화될 것이다. 우리가 미래에 투사하는 한 가지 경향은 전지구적 에로스 효과의 활성화이며, 거기에서 동기적 행동들(synchronized actions)은 전세계에서 민중을 통일시킨다.

진정한 악의 축인 IMF, WB와 WTO는 인류의 막대한 부에 대한 독점을 자발적으로 청산하진 않을 것이다. “자유”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동기화된 수십만 민중의 투쟁이 필요하다. 필자의 희망은 최근 아시아 봉기들의 역사가 미래의 봉기에, 아무리 마지못해 시도하더라도 기존 세계체제의 체제위기적 경향에 의해 필연화될 봉기에 기여하리라는 것이다. 슬픔과 기쁨, 고통에 가득 차 있지만 행복의 눈물을 흘리는 봉기는 극단적으로 절박한 순간이며, 거기에서 인간의 마음의 민중이 가장 사랑하는 꿈에 따라 행동한다. 이 꿈을 이해하고 그것에 충실함으로써, 우리는 자유의 미래를 누릴 수 있게 된다.

---

실한 국가, 생태적으로 조화로운 경제를 건설하고 적절한 테크놀로지를 장려하면서도 고갈되는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는 “전지구적인 경제협치의 다원적 체제”의 건설을 촉구한다. 많은 구체적 세부사항은 지역총회에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번역]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봉기들 2권 기타

부록:

인터뷰(Interviews)

타일랜드(Thailand):

- Prof. Vipar Daomanee, Thammasat University, Bangkok, October 28, 2008.  
Prajak Kongkiriti, Bangkok, October 28, 2008.  
Somchai Homlaor, Human Rights activist attorney Bangkok, October 28, 2008.  
Prof. Naruemon Thabchumpon, Chulalongkorn University, Bangkok, October 29, 2008.  
Prof. Ji Ungpakorn, Chulalongkorn University, Bangkok, October 30, 2008.  
Parinya Thevanaruemidkul, Bangkok, October 30, 2008  
Somsak Kosaisuk, Bangkok, October 31, 2008.

미얀마(Burma):

- Dura, Seoul, South Korea  
Sann Aung (in Bangkok, Thailand) November 1, 2008.  
Aung Kyaw So (in Maesot, Thailand) November 4, 2008.  
Aung Moe Zaw, (in Maesot, Thailand) November 5, 2008.  
David Tharekabaw (in Maesot, Thailand) November 5, 2008.

타이완(Taiwan):

- Prof. Michael Hsiao, Academia Sinica, Taipei, February 3, 2009.  
Sue Huang, Taipei, February 3, 2009.  
Tien Chiu-Chin, Taipei, February 4, 2009.  
Yi-cheng Jou, Taipei, August 6, 2009.  
Michael Lin, Taipei, August 11, 2009.  
Frank Chen, Taipei, August 12, 2009.  
Wu Jieh-min, Taipei, August 15, 2009.

네팔(Nepal):

- Keshar Jung Rayamajhi, Kathmandu, April 10, 2009.  
Deepak Kumar Bhattarai, Gopi Krishna Bhattarai, Pawan Roy, Punya Bhandari, Bhawana Bhatta, Kathmandu, April 11, 2009.  
Prakash Man Singh, Kathmandu, April 12, 2009.  
Shalik Ram Jamkattel, Kathmandu, April 12, 2009.  
Madhav Kumar Nepal, Kathmandu, April 12, 2009.  
Subodh Raj Pyakurel, Kathmandu, April 13, 2009.  
Indra Mainals, Patan, April 14, 2009.  
Professor Lok Raj Baral, Kathmandu, April 15, 2009.  
Bimal Sharma, Kathmandu, April 16, 2009.  
Sudip Pathak, Kathmandu, April 24, 2009.  
Professor Jagadish Pokharel, Kathmandu, April 26, 2009.  
Yog Prasad, Kathmandu, April 26, 2009.  
President Ram Baran Yadav, Kathmandu, April 26, 2009.  
Professor Kapil Shrestha, Kathmandu, April 26, 2009.  
Professor Mukunda Pathik, Kathmandu, May 2, 2008  
Ram Chandra Pokharel, Kathmandu, May 2, 2009.

필리핀(Philippines):

Peter Rahon, Manila, May 29, 2009  
Mary Racelis, Manila, May 29, 2009.  
Raul Socrates Banzuela, Manila, May 30, 2009.  
F. Sionil Jose, Manila, June 1, 2009.  
Corazon Juliano-Soliman, Manila, June 2, 2009.  
Senator Gregorio Honasan, Manila, June 2, 2009.  
John Carroll, Manila, June 4, 2009.  
Edicio de la Torre, Manila, June 5, 2009.

중국(China):

Dingli Shen, June 24, 2009.

방글라데시(Bangladesh):

Aini Elias, Dhaka, May 9, 2010.  
Amirul Haque Amin, Dhaka, May 10, 2010.  
Ashim Kumar Ukil, Dhaka, May 10, 2010.  
Dr. Beena Shikdar, Dhaka, May 11, 2010.  
Dr. Mushtuq Husain, Dhaka, May 10, 2010.  
Fazlul Haque Milan, Dhaka, May 11, 2010.  
Gopal Chandradas, Dhaka, May 11, 2010.  
Adilur Rahman Khan, Dhaka, May 11, 2010.  
Ataur Rahman, Dhaka, May 11, 2010.  
Md. Shariful Islam, Dhaka, December 22, 2010.

기타(Others):

Stew Albert, Portland, Oregon, December 3, 1999.  
Basil Fernando, Dhaka and Hong Kong, December 22-23, 2010.  
Gene Sharp, Boston, March 3, 2011.

INSERT 47

The author interviewing Nepali President Ram BaranYadav.

INSERT 48

With Maoist leader Shalik Ram Jamkattel, Kathmandu.

INSERT 49

With Madhav Kumar Nepal.

INSERT 50

With Burmese activists on the Thai border.

INSERT 51

In Bangladesh with activists including Adilur Rahman Khan (center) and Basil Fernando (to his left).

INSERT 52

With Philippines Senator Gregorio Honasan.

INSERT 53

Receiving an award from the May Mothers' House in Gwangju.

Photo by Choi Seong-uk.

INSERT 54

With former South Korean Prime Minister Kim Geun Tae.



## Credits

Previous portions of part of this book have appeared as:

“The Unfinished Struggle for Democracy in Bangladesh,” *Democracy and Human Rights* 11, no. 2 (2011).

George Katsiaficas interviewed by Kourosh Ziabari, “U.S. Human Rights Policy is Self-Serving and Duplicitous,” *Teheran Times*, May 1, 2011,  
[http://www.tehrantimes.com/index\\_View.asp?code=239724](http://www.tehrantimes.com/index_View.asp?code=239724).

“The Eros Effect and Arab Uprisings: Interview with David Zlutnick,” April 6, 2011,  
<http://www.youtube.com/watch?v=DhjTw77W6-I>,  
<http://www.counterpunch.org/zlutnick04222011.html>.

“The Real Egyptian Revolution Is Yet to Come,” *Sri Lanka Guardian*, February 14, 2011,  
<http://www.srilankaguardian.org/2011/02/real-egyptian-revolution-is-yet-to-come.html>.

“The Eros Effect Comes to Cairo,” *Egyptian Gazette*, February 16, 2011.  
<http://213.158.162.45/~egyptian/index.php?action=news&id=14994&title=The%20Eros%20effect%20comes%20to%20Cairo>.

“Nepal’s 2006 People’s Upris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10, no. 3 (2010).

“Reading Signs of Change,” in *of Change: Social Movement Cultures 1960s to Now*, eds. Dara Greenwald & Josh MacPhee (with Exit Art) (Oakland: AK Press, 2010).

“Uprisings and Civil Society: Nepal’s 1990 *Jana Andol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9, no. 2 (2009), 317–360.

“Comparing Uprisings in Korea and Burma,” *Socialism and Democracy* 23, no. 1 (March 2009).

“Ideen der Studenten Bewegung von 1968: politische und philosophische Auswirkungen,” *Korean Journal of German Studies* December 2008).

“Asia and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Conference Book* (Pacific and Asia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PACKS), Hanoi, November 24–26, 2008).

“Korean Candlelights in History,” *Jumeokbab*, September 2008, 10–15 (in Korean and English).

“1968 and Alterglobalization Movements,” *Conference Book*, Ideas and Strategies in the Alterglobalization Movement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May 2008.

“Aesthetic and Political Avant-Gardes” in *Memory and Cultural Representation: 4.3 and 5.18 Cultural Movements*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3).

“The Anonymous People” by Basil Fernando, used by permission of the author.